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20-01
(연구기관 고유 일련번호 21-R32)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II

Developing National Child and Youth Well-being Indicators in South Korea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20-01
(연구기관 고유 일련번호 21-R32)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II

Developing National Child and Youth Well-being Indicators in South Korea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이 보고서는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9-35-01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1-20-01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구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저 자		유민상, 유성렬, 심수진, 류정희, 김혜자, 도남희, 박진아, 구자연, 김대훈, 최창용		
주관 연구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유민상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유성렬 교수(백석대학교) 김대훈 대표(스탯코리아) 최창용 박사(위스컨신대학교)	배진우 연구원 이민정 연구원
협력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류정희 연구위원		허은영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연구위원	박진아 연구위원 구자연 부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김혜자 부연구위원		
	통계청 통계개발원	심수진 사무관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김 현 철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아동·청소년 중심의 통계 지표를 생산하고 체계적으로 보고하는데 있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지표 체계는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지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는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설계되었다. 삶의 질 지표체계는 한국의 만 0세부터 24세까지의 아동·청소년들이 괜찮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위한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해준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아동·청소년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시간적 변화를 측정하고 보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회적 배경 지표체계는 인구와 사회정책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는 주관적 웰빙, 건강, 학습·역량, 안전·행동,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여가·활동·참여, 관계 등의 7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연구에서 생산된 120여개 지표 중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20여개의 핵심 지표를 선정하였다. 모든 지표는 아동·청소년의 현재 상태, 시간에 따른 변화, 하위 집단 간의 격차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는 지난 2년의 연구 동안 많은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교사의 목소리를 담아 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지표체계는 현실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많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아직 우리나라 영유아들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지, 청년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해 세밀하게 보여주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아동·청소년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지만 우리의 지표는 아직 그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 보고서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를 만들어 보고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동·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다차원적 지표를 더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삶의 질의 측정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행동과 정책 변화를 통해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실질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아동·청소년 웰빙, 삶의 질 지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et of indicators to measure the well-being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paid much attention to development and systematic reporting of statistical indicators for children and youth. The children and youth indicators, by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on their lives, will serve as the basis for policy development aimed to enhance the lives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The quality of life indicators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is designed with specific aims to create dataset and to enable continuous reporting of their well being. The indicators allow researchers to examine whether Korean children and youth from ages of 0 to 24 years are building competency for future while enjoying their present lives in decent social environment. The social background indicators consist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areas, and the children and youth indicators are composed of 7 parts: subjective well-being, health, learning/capacity, safety/behavior, material situatio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leisure/activity/participation, and relationships. In this report, we selected about 20 indicators out of 120 indicators produced in 2019, using the Delphi method. All indicators are designed to show current state of children and youth, changes in indicators over time, and revealing within-group differences.

During the last two years of research, we received consultation from experts around the world, and sought to develop indicators reflecting the voices of children and youth, their parents, and teachers. However, our indicators still have limitations in accurately demonstrating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Specifically, it is yet difficult to delineate the quality of life of infants and toddlers, children and youth, and young adults. In particular, the spread of COVID19has brought major changes in the lives of children and youth, however, our indicators have not yet reflected such changes .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This report provides information on the set of indicators we developed for Korean children and youth. Using these indicators, we created a dataset which can be used as a portal service for many to access when in need. By doing so, we will be able to examine the multidimensional indicators reflecting the lives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more in-depth which will ultimately bring changes in their lives through social actions and policy changes.

Keyword : child well-being, quality of life, well-being indicators

정책 제안

1)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체계 마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부 정책 방향이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 및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아동·청소년 삶의 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고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보고서의 정기적 발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학자, 공무원, 정책결정자들, NGO 활동가들에게 삶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 증거기반의 삶의 질 정책이 수립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당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용자포털의 구축은 삶의 질 지표를 통해 자신의 삶의 질 수준을 이해하고, 권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2) 생애주기별 삶의 질 프레임의 구축을 통한 대상별 삶의 질 모니터링

○ 삶의 질의 측정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설계한 후, 각 연령별 특수성에 기반한 지표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프레임워크의 통합과 분화를 통하여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

3) 아동·청소년 삶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은 아동·청소년들이 비극적 사고를 당한 이후에나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후적 대응체계를 예방적 대응체계로 변화시키는 기반 마련 필요.

4) 아동·청소년 관련 실태조사의 개편

○ 아동·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는 조사주기가 길고 부처 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한계가 분명함.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아동·청소년들을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합하고 조사주기를 2년 주기로 변경하며, 부처 중심이 아닌 대상자 삶의 질 중심의 조사로 재편해야 함.

○ 만 19세~34세의 청년 관련 실태조사는 아동·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transition)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생애전반기 프레임워크 위에서 출발해야 함. 아동·청소년·청년기 조사의 연계 필요.

5) 지표를 통한 아동·청소년 정책의 삶의 질 변화 성과 평가

○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측정은 삶의 질 증진 정책의 개발과 연결되어야 함. 삶의 질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증거기반의 정책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함.

○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계획들이 최상위 목표로 삶, 삶의 질, 행복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최상위 목표로만 설정하는 것은 충분치 않음. 삶의 질과 행복 개선을 위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정책이 설계·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행복'과 '삶의 질'이 정책 패키지의 상징으로서만 기능할 것이 아니라, 이론적 기반과 증거 기반의 정책으로서 현실 변화에 기여해야 함.

○ 아동, 청소년, 청년들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정책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6) 팬데믹 상황에서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측정 및 모니터링

○ 팬데믹 상황에서의 삶의 질 양상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음. 코로나19의 영향은 아동·청소년의 가구 배경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은 측정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을 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전 생애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예방할 수 있는 증거기반의 정책설계가 필요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개요 ····· 3
1. 연구개요 ····· 3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 4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7
1. 연구내용 ····· 7
2. 연구방법 ····· 8
3. 보고서의 구성 ····· 11

제2장 한국 아동 · 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

제1절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 15
1.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 16
2.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결과 ····· 20
3.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통한 지표체계 구성 ····· 21

제2절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2020 ····· 22

제3장 지표로 보는 한국 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2020

제1절 사회적 배경 지표 ····· 33
1. 사회적 배경 영역 개요 ····· 33
2. 인구 영역 지표 ····· 35
3. 사회정책 영역 지표 ····· 49

제2절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well-being) 지표 ····· 95
1.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 ····· 95
2. 건강 영역 ····· 115
3. 학습·역량 영역 ····· 160
4. 여가·활동·참여 영역 ····· 190
5. 안전·행동 영역 ····· 218
6. 관계 영역 ····· 251
7. 주관적 웰빙 영역 ····· 270

제4장 한국 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심층보고서

제1절 영유아의 영양과 건강실태 ····· 286
1. 배경 ····· 286
2. 영유아의 영양 실태 및 특성 ····· 287
3. 영유아의 건강 실태 및 특성 ····· 290
4. 맺음말 ····· 298

제2절 아동·청소년 건강 실태 및 추이 ····· 299
1. 배경 ····· 299
2. 아동·청소년 건강 실태 및 특성 ····· 300
3. 아동·청소년 개인 및 가구특성별 건강 실태 ····· 305
4. 맺음말 ····· 307

제3절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참여와 삶의 질 ····· 309
1. 배경 ····· 309
2. 학교 성적과 사교육 투자 ····· 310
3. 사교육 투자와 사교육 참여 이유 ····· 314
4. 사교육 참여 이유와 아동·청소년의 삶 ····· 316
5. 학업성취와 아동·청소년 삶의 질 ····· 318
6. 맺음말 ····· 320

제4절 아동·청소년의 주거 실태와 특징 ····· 323

1. 배경 ····· 323
2. 아동·청소년가구의 분류 및 규모 ····· 324
3. 아동·청소년 가구특성별 주거 실태 ····· 325
4. OECD 국가의 아동·청소년 가구 구성형태와 주거빈곤 ····· 333
5. 맺음말 ····· 337

제5절 아동·청소년 시간사용 실태 및 추이 ····· 338

1.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 실태 및 추이 ····· 340
2. 아동·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사용 차이 ····· 343
3.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 만족도 국제비교 ····· 345
4. 맺음말 ····· 347

제5장 한국 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서비스 방안

제1절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검토 ····· 351

1. 지표 구성 체계 ····· 351
2. 지표 작성 내용 ····· 352
3. 지표 작성 체계 ····· 353

제2절 국내외 온라인 통계 및 지표 서비스의 검토 ····· 354

1. OECD 온라인 통계 및 지표 서비스 ····· 354
2. 통계청 온라인 통계 및 지표 서비스 ····· 357

제3절 온라인 지표 서비스 설계 ····· 362

1. 초기 화면 구성 ····· 362
2. 지표 소개 ····· 364
3. 영역별 지표 검색 ····· 364
4. 주제별 지표 검색 ····· 365
5. 국제 비교 ····· 366
6. 지표 해설 ····· 367

제4절 지표 관리와 활용 ····· 368

1. 지표 관리 ····· 368
2. 지표 활용과 과제 ····· 371

제6장 프레임워크 개선 및 핵심지표 선정을 위한 델파이조사

제1절 조사 개요 ····· 375

1. 델파이조사의 목적 및 주요 방법 ····· 376
2. 델파이조사의 주요 내용 및 분석 방법 ····· 379

제2절 주요 결과 ····· 382

1.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타당화 ····· 382
2.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의 핵심지표 선정 ····· 394
3.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변화 및 측정지표 관련 의견조사 ····· 419
4. 지표 분석, 측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의견 ····· 424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 433

제2절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발전방안 ····· 435

1.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더 간명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435
2. 생애주기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437
3. 생애전반기 안정적으로 생애주기별 삶의 질 지표를 생산하고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441
4.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444
5. 팬데믹 상황에서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447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449

■ **참고문헌** ····· **452**

■ 부록 ····· 463

■ 참고자료 ····· 485

표 차례

〈표 2-1〉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2020 ····· 22
〈표 2-2〉 사회적 배경 지표(인구, 사회정책) ····· 23
〈표 2-3〉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빈곤 및 생활수준, 주거환경) ····· 24
〈표 2-4〉 건강 영역(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행동) ····· 25
〈표 2-5〉 학습·역량 영역(학습, 역량) ····· 26
〈표 2-6〉 여가·활동·참여 영역(여가 및 활동, 사회·경제·정치 참여) ····· 27
〈표 2-7〉 안전·행동 영역(안전, 위험행동) ····· 28
〈표 2-8〉 관계 영역(가족관계, 또래관계 및 일반관계) ····· 29
〈표 2-9〉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도, 긍정/부정 감정, 삶의 가치와 의미) ····· 29
〈표 3-1〉 사회적 배경 지표(인구, 사회정책) ····· 34
〈표 3-2〉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2000-2060) ····· 36
〈표 3-3〉 출생아 수와 출생 성비(2000-2019) ····· 37
〈표 3-4〉 혼인 외 출생아 비율(2000-2019) ····· 39
〈표 3-5〉 출산자녀별 모의 출산연령(2000-2019) ····· 41
〈표 3-6〉 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연령(1995, 2007) ····· 42
〈표 3-7〉 미성년 자녀 부모 이혼 비율(2000-2019) ····· 44
〈표 3-8〉 아동·청소년 연령별 10만 명당 사망자 수(2000-2019) ····· 46
〈표 3-9〉 아동·청소년 주요 사망원인 및 사망자 수(2000, 2018, 2019) ····· 47
〈표 3-10〉 자녀연령별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2015-2018) ····· 48
〈표 3-11〉 월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아동 수(2013-2019) ····· 50
〈표 3-12〉 누리과정 지원율 및 예산(2014-2018) ····· 52
〈표 3-13〉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유아교육(ISCED 02) 지출(2005, 2010, 2015) ····· 52
〈표 3-14〉 어린이집 이용률(2008-2019) ····· 53
〈표 3-15〉 유치원 취원율(2000-2018) ····· 55
〈표 3-16〉 OECD 주요국의 연령별 영유아 취원율(2015-2016) ····· 55
〈표 3-17〉 연령별 보육료지원 아동 수(2009-2018) ····· 57
〈표 3-18〉 아동·청소년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2001-2019) ····· 59
〈표 3-19〉 아동·청소년 10만 명 당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2005-2018) ····· 61
〈표 3-20〉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2000-2019) ····· 64
〈표 3-21〉 OECD 주요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2013-2018) ····· 65

〈표 3-22〉 학급당 학생 수(2000-2019) ····· 67
〈표 3-23〉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2019) ····· 67
〈표 3-24〉 OECD 주요국의 학급당 학생 수(2013-2018) ····· 68
〈표 3-25〉 보호대상아동 총계 및 원인별 발생률(2000-2019) ····· 70
〈표 3-26〉 보호대상아동 조치현황(2000-2019) ····· 73
〈표 3-27〉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2000-2018) ····· 76
〈표 3-28〉 가정위탁보호아동 수(2008-2018) ····· 78
〈표 3-29〉 아동공동생활 보호아동 수(2008-2018) ····· 79
〈표 3-30〉 아동 입양률(2000-2018) ····· 81
〈표 3-31〉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2010-2019) ····· 83
〈표 3-32〉 지역별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2019) ····· 83
〈표 3-33〉 유치원 교직원 1인당 아동 수(2000-2019) ····· 85
〈표 3-34〉 OECD 주요국의 유아교육단계 교사 1인당 학생 수(2013-2018) ····· 85
〈표 3-35〉 국공립보육시설 비율(2000-2019) ····· 86
〈표 3-36〉 면적당 학교 수(2009-2019) ····· 89
〈표 3-37〉 학교용지 면적당 학교 수(2009-2019) ····· 89
〈표 3-38〉 대안학교 비율(2000-2019) ····· 90
〈표 3-39〉 지역별 대안학교 수(2000-2019) ····· 92
〈표 3-4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2004-2019) ····· 94
〈표 3-41〉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빈곤 및 생활수준, 주거환경) ····· 96
〈표 3-42〉 아동 및 가구특성별 물질적 결핍지수(2018) ····· 98
〈표 3-43〉 아동·청소년의 가정경제 어려움에 대한 걱정(2018) ····· 100
〈표 3-44〉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2015-2018) ····· 101
〈표 3-45〉 OECD 회원국의 아동·청소년 상대적 빈곤율(2017) ····· 102
〈표 3-46〉 아동·청소년의 균등화 처분가능 중위소득(2018) ····· 103
〈표 3-47〉 아동·청소년의 평균 빈곤갭(2015-2018) ····· 103
〈표 3-48〉 거주지역 만족도(2018) ····· 104
〈표 3-49〉 거주지역 편의성(2008, 2013, 2018) ····· 107
〈표 3-50〉 거주지역 편의성(2018) ····· 107
〈표 3-51〉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100-490호, ‘11.5.27) ····· 108
〈표 3-52〉 아동·청소년가구의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2018) ····· 108
〈표 3-53〉 학생 전출입비(2015, 2019) ····· 109
〈표 3-54〉 시군구별 학생 전출입비 (상위10개) (2018-2019) ····· 110
〈표 3-55〉 어린이놀이시설 수(2018, 2020) ····· 111

CONTENTS

〈표 3-56〉 미세먼지 농도(PM2.5) (2015-2019) ····· 113
〈표 3-57〉 성별 연령별 대기질 만족도(2012-2018) ····· 114
〈표 3-58〉 건강 영역(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행동) ····· 116
〈표 3-59〉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2017, 2018) ····· 118
〈표 3-60〉 우울한 감정 경험(2018) ····· 120
〈표 3-61〉 성·연령·표본·가구유형별 주양육자의 우울 정도(2018) ····· 121
〈표 3-62〉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2017-2019) ····· 123
〈표 3-63〉 아동·청소년 연령별 자살률(2000-2019) ····· 125
〈표 3-64〉 조산아율(2000-2019) ····· 126
〈표 3-65〉 저체중 출생아율(2000-2019) ····· 127
〈표 3-66〉 아동·청소년 장애 유형별 비율(2007-2019) ····· 129
〈표 3-67〉 성별 비만율(2007-2019) ····· 132
〈표 3-68〉 학교급별 및 성별 비만율(2019) ····· 133
〈표 3-69〉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2008-2019) ····· 134
〈표 3-70〉 수면시간(2007-2019) ····· 138
〈표 3-71〉 학교급별 수면시간(2019) ····· 139
〈표 3-72〉 아동·청소년 성별 연간 입원율(2007-2018) ····· 141
〈표 3-73〉 아동·청소년 연령별 연간 입원율(2018) ····· 142
〈표 3-74〉 수유행태별 비율(2013, 2018) ····· 143
〈표 3-75〉 수유행태별 비율(2018) ····· 144
〈표 3-76〉 영유아 월령별 건강검진율(2008-2018) ····· 146
〈표 3-77〉 월령별 건강검진 정밀평가필요 영유아 비율(2012-2018) ····· 147
〈표 3-78〉 연령별 접종 백신 및 접종 횟수 ····· 148
〈표 3-79〉 연령별 접종률 및 접종 백신 및 접종 횟수(2017-2019) ····· 148
〈표 3-80〉 월령별 예방접종률(2016-2019) ····· 149
〈표 3-81〉 치과검진율 연차별 비교(2013, 2018) ····· 150
〈표 3-82〉 아동 및 가구 특성별 치과검진율(2018) ····· 151
〈표 3-83〉 연령별 영양결핍률(2001-2018) ····· 152
〈표 3-84〉 연령별 아침식사 결식률(2005-2018) ····· 154
〈표 3-85〉 성별 규칙적 운동 실천율(2009-2019) ····· 157
〈표 3-86〉 학교급별 성별 규칙적 운동 실천율(2019) ····· 158
〈표 3-87〉 학습·역량 영역(학습, 역량) ····· 161
〈표 3-88〉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만족도(2009-2018) ····· 162
〈표 3-89〉 상급학교 진학률(2000-2019) ····· 163

〈표 3-90〉 OECD 주요국의 연령대별 학생인구 비율(2010, 2018) ····· 164
〈표 3-91〉 졸업 후 진로계획(2015-2019) ····· 166
〈표 3-92〉 학교급별 학업중단율(2000-2018) ····· 168
〈표 3-93〉 학교급별 학업중단사유(2012-2018) ····· 168
〈표 3-9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2007-2019) ····· 171
〈표 3-95〉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2019) ····· 171
〈표 3-96〉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 시간(2007-2019) ····· 173
〈표 3-97〉 요일별 학습시간(2019) ····· 174
〈표 3-98〉 학습시간 (요일평균) (1999-2019) ····· 175
〈표 3-99〉 소득수준별 책 읽어주기 빈도(2008) ····· 176
〈표 3-100〉 학교생활 만족도(2017) ····· 178
〈표 3-101〉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만족도(2012-2018) ····· 180
〈표 3-102〉 교사 만족도(2008-2018) ····· 182
〈표 3-103〉 학교 시설 및 주변환경 만족도(2012-2018) ····· 184
〈표 3-104〉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2017-2019) ····· 186
〈표 3-105〉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2017) ····· 187
〈표 3-106〉 성·연령·표본·가구유형별 아동 언어발달 정도(2018) ····· 188
〈표 3-107〉 성·연령·소득수준·가족유형별 아동 자기효능감(2013) ····· 189
〈표 3-108〉 여가·활동·참여 영역(여가 및 활동, 사회·경제·정치 참여) ····· 191
〈표 3-109〉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2018) ····· 193
〈표 3-110〉 여가시간 사용 정도(2017-2019) ····· 195
〈표 3-111〉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하는 비율(2009-2019) ····· 197
〈표 3-112〉 아동·청소년의 매체 이용 비율(2016, 2019) ····· 199
〈표 3-113〉 방송매체에 따른 TV 프로그램 시청 시작 시기(2014-2019) ····· 201
〈표 3-114〉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 (1순위+2순위) (2017) ····· 203
〈표 3-115〉 일하는 청소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 (2016, 2018) ····· 205
〈표 3-116〉 기부 참여율(2013) ····· 206
〈표 3-117〉 동아리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2017) ····· 207
〈표 3-118〉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비율(2009, 2016) ····· 209
〈표 3-119〉 후기청소년(청년) 투표 참여율 (대통령 선거) (1992-2017) ····· 210
〈표 3-120〉 20대 투표 참여율 (국회의원 선거) (1992-2016) ····· 211
〈표 3-121〉 20대 투표 참여율 (지방선거) (1995-2018) ····· 212
〈표 3-122〉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2017) ····· 213
〈표 3-123〉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친구, 가족과의 토론 경험 비율(2017) ····· 215

〈표 3-124〉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정도(2017-2019) ····· 217
〈표 3-125〉 안전·행동 영역(안전, 위험행동) ····· 219
〈표 3-126〉 가정·학교 내 체벌 경험 비율(2017-2019) ····· 221
〈표 3-127〉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건수(2003-2018) ····· 223
〈표 3-128〉 아동 및 가구 유형별 방과 후 만0-5세 아동 방치 정도(2018) ····· 226
〈표 3-129〉 아동 및 가구 유형별 방과 후 만6-12세 아동 방치 정도(2018) ····· 226
〈표 3-130〉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2017-2019) ····· 228
〈표 3-131〉 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2005-2018) ····· 230
〈표 3-133〉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2016, 2018) ····· 235
〈표 3-134〉 흡연율(2005-2019) ····· 237
〈표 3-135〉 음주 경험 비율(2005-2019) ····· 239
〈표 3-136〉 약물 사용 경험 비율(2016, 2018) ····· 240
〈표 3-137〉 10대 여자청소년의 임신, 낙태 경험 비율(2018) ····· 241
〈표 3-138〉 10대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2005-2019) ····· 243
〈표 3-139〉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2008-2019) ····· 245
〈표 3-140〉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2017-2019) ····· 247
〈표 3-141〉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아동·청소년 비율(2016-2019) ····· 249
〈표 3-142〉 유해매체 노출 및 이용 비율(2016, 2018) ····· 250
〈표 3-143〉 관계 영역 (가족관계, 또래관계 및 일반관계) ····· 252
〈표 3-144〉 부모와의 애착 정도(2013) ····· 253
〈표 3-145〉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2012-2018) ····· 254
〈표 3-146〉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2012-2018) ····· 254
〈표 3-147〉 가족관계 만족도(2017) ····· 256
〈표 3-148〉 가족에서의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2017-2019) ····· 258
〈표 3-149〉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2018) ····· 259
〈표 3-150〉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2017) ····· 261
〈표 3-151〉 아동 및 가구유형별 친구와 잘 어울리는 정도(2018) ····· 262
〈표 3-152〉 아동 및 가구유형별 친구와 노는 횟수별 비율(2018) ····· 263
〈표 3-153〉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2016, 2018) ····· 264
〈표 3-154〉 친구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 비율(2013) ····· 265
〈표 3-155〉 성·연령·표본·가구유형별 친구 없는 아동 비율(2018) ····· 266
〈표 3-156〉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의 비율(2018) ····· 267
〈표 3-157〉 사회신뢰도가 높은 아동·청소년의 비율(2017) ····· 269
〈표 3-158〉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도, 긍정/부정 감정, 삶의 가치와 의미) ····· 270

〈표 3-159〉 전반적 삶의 만족도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2018) ····· 272
〈표 3-160〉 자신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2017) ····· 275
〈표 3-161〉 긍정적 정서(행복감) (2018) ····· 277
〈표 3-162〉 부정적 정서 경험 정도(근심, 걱정, 우울) (2017) ····· 279
〈표 3-163〉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2017) ····· 281
〈표 4-1〉 아동·청소년의 학교 성적(인식)과 사교육 투자 ····· 311
〈표 4-2〉 아동·청소년 부모의 자녀 학교 성적(인식)과 사교육 투자 ····· 312
〈표 4-3〉 고등학생의 학교 성적과 사교육 투자 ····· 314
〈표 4-4〉 아동·청소년의 사교육비 수준과 사교육 참여 이유(%) ····· 315
〈표 4-5〉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참여 이유와 삶의 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 317
〈표 4-6〉 아동·청소년의 성적(인식)과 성적만족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 ····· 319
〈표 4-7〉 아동·청소년가구의 분류 및 규모 ····· 325
〈표 4-8〉 아동·청소년가구 유형별 점유형태 비율 ····· 326
〈표 4-9〉 아동·청소년가구 유형별 주택유형 비율 ····· 326
〈표 4-10〉 아동·청소년가구의 유형별 주거면적 ····· 327
〈표 4-11〉 아동·청소년가구의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328
〈표 4-12〉 아동·청소년가구의 유형별 주택가격 및 임대료 ····· 329
〈표 4-13〉 아동·청소년가구의 유형별 PIR, RIR ····· 330
〈표 4-14〉 아동가구 유형별 주거정책 소요 ····· 331
〈표 4-15〉 아동·청소년가구 전체의 직전-현재 주택 점유형태 변화 ····· 331
〈표 4-16〉 양부모가구의 직전-현재 주택 점유형태 변화 ····· 332
〈표 4-17〉 한부모가구의 직전-현재 주택 점유형태 변화 ····· 332
〈표 4-18〉 조손가구의 직전-현재 주택 점유형태 변화 ····· 333
〈표 5-1〉「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영역 구성 ····· 352
〈표 5-2〉 지표 운영 주체별 장단점 ····· 370
〈표 6-1〉 델파이조사 진행 개요 ····· 377
〈표 6-2〉 델파이조사 참여 전문가 특성 ····· 377
〈표 6-3〉 델파이조사 주요 내용 ····· 380
〈표 6-4〉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종합) ····· 383
〈표 6-5〉 만 0-24세 대상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에 대한 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 ····· 384
〈표 6-6〉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만 0-5세) ····· 385
〈표 6-7〉 만0-6세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의 주요 변화 내용(1차, 2차 조사) ····· 385
〈표 6-8〉 만 0-5세 대상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에 대한 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2차 델파이) ····· 386
〈표 6-9〉 만 6-18세 대상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에 대한 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1차 델파이) ····· 387

CONTENTS

〈표 6-10〉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만 6-18세) ····· 388
〈표 6-11〉 만 6-18세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의 주요 변화 내용(1차, 2차 조사) ····· 388
〈표 6-12〉 만 6-18세 대상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에 대한 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2차 델파이) ····· 389
〈표 6-13〉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만 19-24세) ····· 390
〈표 6-14〉 만 19-24세 대상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에 대한 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1차 델파이) ····· 391
〈표 6-15〉 만 19-24세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의 주요 변화 내용(1차, 2차 조사) ····· 393
〈표 6-16〉 만 19-24세 대상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에 대한 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2차 델파이) ····· 393
〈표 6-17〉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인구지표) ····· 395
〈표 6-18〉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사회정책 지표) ····· 397
〈표 6-19〉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물질적 상황 및 주거 영역) ····· 399
〈표 6-20〉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건강 영역) ····· 401
〈표 6-21〉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학습·역량 영역) ····· 403
〈표 6-22〉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여가·활동·참여 영역) ····· 405
〈표 6-23〉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안전·행동 영역) ····· 407
〈표 6-24〉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관계 영역) ····· 409
〈표 6-25〉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주관적 웰빙 영역) ····· 412
〈표 6-26〉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우선순위 기준 정렬) ····· 413
〈표 6-26〉 사회적 배경 지표 중 핵심지표 (상위 3개) ····· 416
〈표 6-27〉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중 핵심지표 (상위 3개) ····· 417
〈표 6-27〉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변화 및 측정지표에 관한 의견 ····· 419
〈표 6-28〉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 420
〈표 6-29〉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영향에 관한 의견 (델파이1차 개방형 응답 의견 정리) ····· 421
〈표 6-3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영향에 관한 기타 의견 (델파이1차 개방형 응답 의견 정리) ····· 421
〈표 6-31〉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영향에 관한 분석관련 의견 ····· 421
〈표 6-32〉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측정을 위한 지표별 타당성 ····· 422
〈표 6-33〉 전문가 조사의 기타 영역 주요 내용 ····· 424
〈표 6-34〉 지표 분석 시 하위집단(sub-group)별 결과 제시에 관한 의견 ····· 426
〈표 6-35〉 델파이 2차 조사의 기타 영역 주요 결과 ····· 427
〈표 6-36〉 기존 실태조사를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로 통합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 ····· 427
〈표 6-37〉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연구 발전방안에 관한 종합의견 ····· 430
〈표 7-1〉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요약 (우선순위 기준 정렬) ····· 436

〈표 7-2〉 생애주기별 삶의 질 프레임워크의 구축(안) ····· 440
〈표 7-3〉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비교 ····· 441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 ····· 5
[그림 1-2]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관련 포럼 개최 ····· 10
[그림 1-3] 연구의 내용 및 과업범위 ····· 10
[그림 2-1] 1차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과정 ····· 15
[그림 2-2]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의 프레임워크 구조 ····· 16
[그림 2-3]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주요 차원: 생태학적 환경 ····· 17
[그림 2-4]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주요 차원: 삶의 영역 ····· 18
[그림 2-5]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프레임워크 (종합) ····· 20
[그림 2-6]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통한 지표체계 구성 ····· 21
[그림 3-1]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2000-2060) ····· 35
[그림 3-2] 혼인 외 출생아 비율 (2000-2019) ····· 38
[그림 3-3] 모의 출산 연령 (2000-2019) ····· 40
[그림 3-4] 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연령 (1995, 2017) ····· 41
[그림 3-5] 미성년 자녀 부모 이혼 비율 (2000-2019) ····· 43
[그림 3-6] 아동·청소년 연령별 10만 명당 사망자 수 (2000-2019) ····· 45
[그림 3-7]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2001-2019) ····· 60
[그림 3-8]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및 비율(2005-2019) ····· 62
[그림 3-9] OECD 주요국의 교사(초등, 전기중등, 후기중등) 1인당 학생 수(2013-2018) ····· 65
[그림 3-10] OECD 주요국의 초등 및 전기중등 교육 학급당 학생 수(2013-2018) ····· 68
[그림 3-11] 보호대상아동 총계 및 원인별 발생률(2000-2019) ····· 71
[그림 3-12] 0-17세 아동 청소년 10만 명당 보호대상아동 수(2000-2019) ····· 72
[그림 3-13] 보호대상아동 조치현황별 비율(2000-2019) ····· 74
[그림 3-14] 0-19세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시설 비율(2000-2018) ····· 77
[그림 3-15] 0-19세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가정 비율(2008-2018) ····· 78
[그림 3-16] 0-19세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아동공동생활 보호아동 수, 시설 수 총계(2008-2018) ····· 79
[그림 3-17] 0-19세 아동 10만 명당 아동 입양 수 총계(2000-2019) ····· 81
[그림 3-18]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2019) ····· 82
[그림 3-19] OECD 주요국의 유아교육단계 교사 1인당 학생 수(2013-2018) ····· 84
[그림 3-20] 대안학교 비율(2000-2019) ····· 91

[그림 3-21] 지역아동센터 당 이용 아동 수(2004-2019) ····· 94
[그림 3-22] 개별항목에 대한 결핍비율(2018) ····· 99
[그림 3-23] 아동결핍 국제비교 ····· 99
[그림 3-24]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2015-2018) ····· 102
[그림 3-25] 성별, 아동연령별 거주지역 만족도(2018) ····· 105
[그림 3-26] 소득계층별 거주지역 만족도(2018) ····· 105
[그림 3-27] 어린이 놀이시설 수, 설치장소 별 비율(2020) ····· 112
[그림 3-28] 17개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PM2.5) (2019) ····· 113
[그림 3-29]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2017, 2018) ····· 117
[그림 3-30] 우울한 감정 경험(2018) ····· 119
[그림 3-3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2017-2019) ····· 122
[그림 3-32] 아동·청소년 연령별 자살률(2000-2019) ····· 124
[그림 3-33] 장애아동·청소년 수(2007-2019) ····· 130
[그림 3-34] 성별 비만률(2007-2019) ····· 133
[그림 3-35]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2008-2019) ····· 134
[그림 3-36]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수준(2005-2019) ····· 136
[그림 3-37] 아동·청소년 학교급별 주관적 건강수준(2019) ····· 136
[그림 3-38] 학교급별 평균 수면시간(2019) ····· 139
[그림 3-39] 성별 연간 입원 아동·청소년 입원율(2007-2018) ····· 141
[그림 3-40] 아동·청소년 연령별 연간 입원율(2018) ····· 142
[그림 3-41] 영유아 월령별 건강검진율(2012-2018) ····· 146
[그림 3-42] 국가별, 백신별 예방접종률 ····· 149
[그림 3-43] 연령별 영양결핍률(2001-2018) ····· 153
[그림 3-44] 연령별 아침식사 결식률(2005-2018) ····· 155
[그림 3-45] 성별 규칙적 운동 실천율(2009-2019) ····· 157
[그림 3-46] 학교급 및 성별 규칙적 운동 실천율(2019) ····· 158
[그림 3-47]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및 근력강화운동 실천율(2005-2019) ····· 159
[그림 3-48] OECD 주요국의 연령대별 학생인구 비율(2018) ····· 164
[그림 3-49] 고교 졸업 후 진로계획 추이(2015-2019) ····· 165
[그림 3-50] 학교급별 학업중단 사유(2018) ····· 169
[그림 3-51] 사교육 참여율(2007-2019) ····· 170
[그림 3-52]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 시간(2007-2019) ····· 172
[그림 3-53] 학교급별 학습시간(요일평균) (1999-2019) ····· 175
[그림 3-54] 개인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2017) ····· 177

[그림 3-55] 지역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만족도(2018) ····· 180
[그림 3-56] 교사 만족도 추이(2008~2018) ····· 181
[그림 3-57] 지역별 학교시설 및 주변환경 만족도(2018) ····· 184
[그림 3-58]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변화 추이(2017-2019) ····· 185
[그림 3-59]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2018) ····· 193
[그림 3-60] 여가시간 사용 정도 연차별 변화(2017-2019) ····· 194
[그림 3-61] 여가시간에 만족하는 비율 변화 추이(2009-2019) ····· 196
[그림 3-62] 매체 이용 경험 변화(2016, 2018) ····· 198
[그림 3-63]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 (1순위+2순위) (2017) ····· 202
[그림 3-64] 일하는 청소년 비율 변화(2016, 2018) ····· 204
[그림 3-65] 후기청소년(청년) 투표 참여율 (대통령 선거) (1992-2017) ····· 211
[그림 3-66] 후기청소년(청년) 투표 참여율 (국회의원 선거) (1992-2016) ····· 211
[그림 3-67] 후기청소년(청년) 투표 참여율 (지방선거) (1995-2018) ····· 212
[그림 3-68]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정도 변화 추이(2017-2019) ····· 216
[그림 3-69] 가정·학교 내 체벌 경험 비율 변화 추이(2017-2019) ····· 220
[그림 3-70] 아동학대 발생 건수 추이 (중복학대 미분류) (2003-2018) ····· 222
[그림 3-71]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2017-2019) ····· 227
[그림 3-72]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2005-2018) ····· 229
[그림 3-73]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수 추이(2005-2018) ····· 230
[그림 3-74] 아동·청소년의 전체 범죄 피해자 수 추이(2000-2018) ····· 231
[그림 3-75] 아동·청소년의 살인 범죄 피해자 수 추이(2002-2018) ····· 232
[그림 3-76] 또래 폭력 피해 경험 비율(2016, 2018) ····· 234
[그림 3-77] 흡연율(2005-2019) ····· 236
[그림 3-78] 음주 경험 비율(2005-2019) ····· 238
[그림 3-79] 10대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2005-2019) ····· 242
[그림 3-80] 개인특성별 10대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2019) ····· 243
[그림 3-81]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 추이(2008-2019) ····· 244
[그림 3-82]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 추이(2017-2019) ····· 246
[그림 3-83] 개인 특성별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 차이(2019) ····· 247
[그림 3-84]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추이(2016-2019) ····· 248
[그림 3-85] 개인 특성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교(2019) ····· 249
[그림 3-86] 가족관계 만족도(항목별 응답 비율) (2017) ····· 255
[그림 3-87]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연령별, 성별 차이(2018) ····· 273
[그림 3-88]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소득집단별 차이(2018) ····· 273

[그림 3-89] 가구소득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항목별 응답 차이(2018) ····· 274
[그림 3-90] 아동·청소년 행복도 국제 비교 결과(2018) ····· 274
[그림 3-91] 개인 특성에 따른 부정적 정서(근심/걱정, 우울) 점수 비교(2017) ····· 278
[그림 3-92] 자신의 일이 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2017) ····· 281
[그림 4-1] 에너지 1일 섭취량 추이(2008-2018) ····· 287
[그림 4-2] 단백질 1일 섭취량 추이(2008-2018) ····· 288
[그림 4-3] 지방 1일 섭취량 추이(2008-2018) ····· 289
[그림 4-4] 탄수화물 1일 섭취량 추이(2008-2018) ····· 290
[그림 4-5] 조산아율 추이(2000-2019) ····· 291
[그림 4-6] 저체중 출생아율(2000-2019) ····· 291
[그림 4-7] 영유아 건강검진율 추이(2000-2019) ····· 292
[그림 4-8] 예방접종률그래프(2016-2019) ····· 293
[그림 4-9] 아침 식사 결식률(2005-2018) ····· 294
[그림 4-10] 하루 1회 이상 외식률(2008-2018) ····· 295
[그림 4-11] 선천성 심장질환 유병률(만 1-11세, 2008-2018) ····· 296
[그림 4-12]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2008-2018) ····· 297
[그림 4-13] 천식 유병률(2008-2018) ····· 298
[그림 4-14]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 및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추이(2010-2019) ····· 300
[그림 4-15] 청소년의 주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2010-2019) ····· 301
[그림 4-16] 청소년의 식생활 추이(2010-2019) ····· 302
[그림 4-17] 만 9-17세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중복응답) ····· 303
[그림 4-18] 아동·청소년의 우울증상 경험률 추이(2010-2019) ····· 303
[그림 4-19] 아동·청소년의 자살시도율 추이(2010-2019) ····· 304
[그림 4-20] 10~19세 아동·청소년의 성별·연령별 자살사망률 추이(2014~2019년) ····· 304
[그림 4-21] 아동·청소년의 성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및 문제적 게임이용률 ····· 305
[그림 4-22]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건강행태 차이 ····· 306
[그림 4-23] 아동·청소년이 속한 지역 특성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차이 ····· 307
[그림 4-24] 아동·청소년의 학교 성적(인식)과 사교육 투자 ····· 312
[그림 4-25] 아동·청소년 부모의 자녀학교 성적(인식)과 사교육 투자 ····· 313
[그림 4-26] 아동·청소년의 사교육비 수준과 사교육 참여 이유(%) ····· 316
[그림 4-27]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참여 이유와 삶의 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 317
[그림 4-28] 아동·청소년의 성적(인식)과 성적만족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 ····· 319
[그림 4-29]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투자와 성적 만족도 ····· 320
[그림 4-30] OECD 국가의 아동·청소년가구 구성형태 ····· 334

[그림 4-31] OECD 국가의 아동·청소년 양부모·한부모가구 구성 비율 변화 ····· 335
[그림 4-32] OECD 국가의 아동·청소년가구 주거과밀가구 비율 ····· 336
[그림 4-33] OECD 국가의 아동·청소년가구 기초설비 부족가구 비율 ····· 336
[그림 4-34]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하루 시간 사용 변화(1999-2019, 만10세~24세, 전체 요일 평균) ····· 340
[그림 4-35] 초중고등학생의 하루 시간사용 추이(1999-2019, 전체 요일 평균) ····· 341
[그림 4-36] 초등학생의 하루 시간사용 비교(1999년과 2019년 비교, 평일기준) ····· 342
[그림 4-37] 고등학생의 하루 시간사용 비교(1999년과 2019년 비교, 평일 기준) ····· 342
[그림 4-38] 성별에 따른 시간사용 차이(평일 평균, 2019) ····· 343
[그림 4-39] 지역에 따른 시간사용 차이(평일 평균, 2019) ····· 343
[그림 4-40] 소득계층에 따른 시간사용 차이 ····· 344
[그림 4-41] '시간사용(time-use)에 관한 만족도' 국가비교(ISCWeB 3차 데이터) ····· 346
[그림 4-42]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시간사용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국제비교(ISCWeB 3차 데이터) ····· 347
[그림 5-1] OECD.Stat 서비스 ····· 355
[그림 5-2] OECD Data 초기 화면 ····· 355
[그림 5-3] OECD Data 검색 결과 ····· 356
[그림 5-4] OECD Better Life Index 서비스 ····· 357
[그림 5-5] 통계청 KOSIS 서비스 ····· 358
[그림 5-6] 「e-나라지표」 서비스 초기 화면 ····· 358
[그림 5-7] 「e-나라지표」 검색 결과 ····· 359
[그림 5-8]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 통합 서비스 초기 화면 ····· 360
[그림 5-9]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 검색 결과(1) ····· 361
[그림 5-10]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 검색 결과(2) ····· 361
[그림 5-11] 초기 화면 구성 ····· 363
[그림 5-12] 지표 소개 화면 구성 ····· 364
[그림 5-13] 영역별 지표 검색 화면 구성 ····· 365
[그림 5-14] 주제별 지표 검색 화면 구성 ····· 366
[그림 5-15] 국제 비교 화면 구성 ····· 367
[그림 5-16] 지표 해설 화면 구성 ····· 367
[그림 5-17] 지표 라이프사이클 ····· 369
[그림 6-1]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 383
[그림 6-2] 전체 프레임워크의 타당성(1차 델파이) ····· 385
[그림 6-3] 만 0-5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삶의 질 프레임워크 변경 내용(2차 델파이) ····· 385
[그림 6-4] 전체 프레임워크의 타당성(1차 델파이) ····· 388

[그림 6-5] 만 6-18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삶의 질 프레임워크 변경 내용(2차 델파이) ····· 388
[그림 6-6] 전체 프레임워크의 타당성(1차 델파이) ····· 392
[그림 6-7] 만 19-24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삶의 질 프레임워크 변경 내용(2차 델파이) ····· 392
[그림 6-8] 사회적 배경 지표: 인구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 396
[그림 6-9] 사회적 배경 지표: 사회정책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 398
[그림 6-10]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 400
[그림 6-11]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건강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 402
[그림 6-12]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학습·역량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 404
[그림 6-13]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여가·활동·참여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 406
[그림 6-14]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안전·행동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 408
[그림 6-15]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관계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 410
[그림 6-16]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주관적 웰빙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 412
[그림 6-17]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아동·청소년의 삶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응답 Word Cloud 구성 결과 ····· 420
[그림 6-18]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측정을 위한 지표별 타당성 ····· 423
[그림 6-19] 지표 분석 시 하위집단(sub-group)별 결과 제시에 관한 의견 ····· 425
[그림 6-20] 아동·청소년 삶의 질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서비스 관련 이용 관련 의견 ····· 429
[그림 7-1]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 438
[그림 7-2] 생애주기별 삶의 질 프레임워크(관련 연구 예시) ····· 439
[그림 7-3]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연령범위 ····· 443
[그림 7-4]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통합 및 조사주기 2년 변경에 대한 의견 ····· 443
[그림 7-5]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및 성과지표 ····· 445
[그림 7-6]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성과지표 ····· 446
[그림 7-7]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성과지표 ····· 446
[그림 7-8]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아동·청소년의 삶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응답 Word Cloud 구성 결과 ····· 447
[그림 7-9]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 삶의 질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개념도 ····· 448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지표가 보여주는 것

- 아동·청소년 **현재**의 삶의 질
-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변화**
- 아동·청소년 삶의 질 **격차**

한 눈에 보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2020

모든 아동·청소년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환경을 만들어줄 책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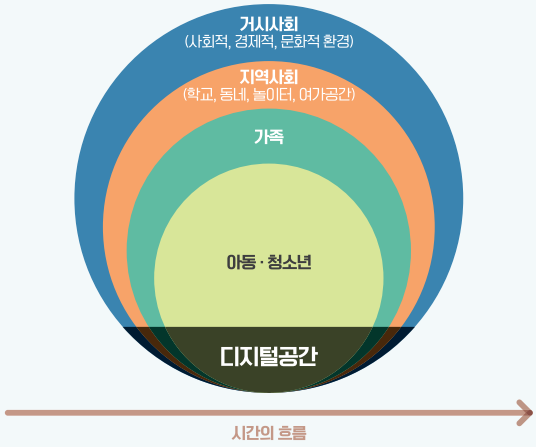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할까요?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모아 한 눈에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모든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모든 아동·청소년의 삶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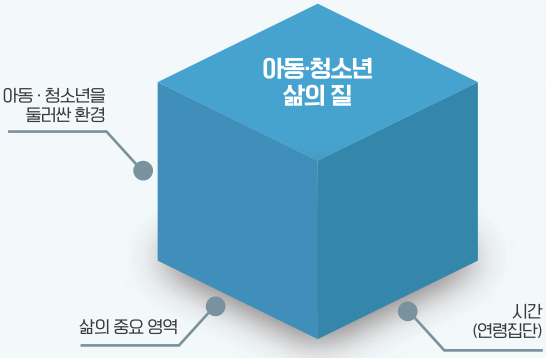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삶의 질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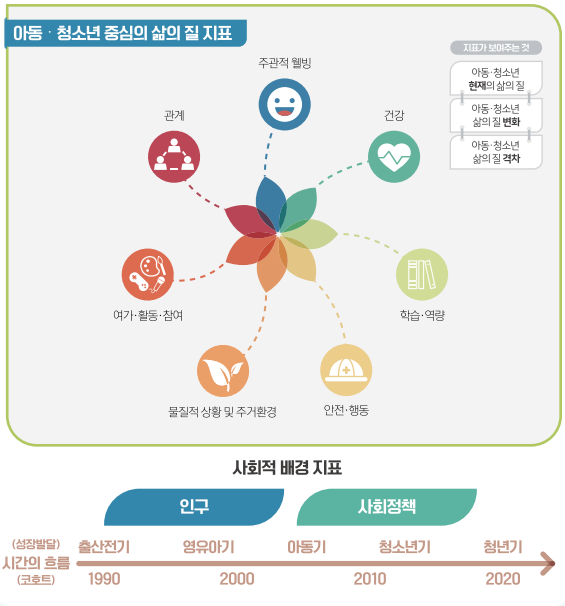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 의해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아동·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거시사회, 그리고 디지털 공간과 같은 생태체계적 환경을 고려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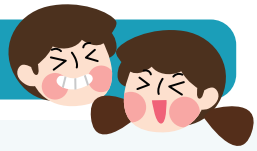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생애전반기의 아동·청소년들(0-24세)이 생태체계적 환경 속에서, 삶의 중요한 영역들(건강, 학습, 안전, 물질적 상황, 여가, 참여, 관계, 주관적 웰빙 등)의 결핍 없이 사회·문화·경제적 기준에서 적절한 상황에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발달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체 지표 프레임워크는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와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 지표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는 주관적 웰빙, 건강, 학습·역량, 안전·행동,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여가·활동·참여, 관계 등의 7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별 지표들의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현재 상태, 시간적 변화, 하위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10여개 지표 중 20여개 지표를 핵심지표로 선정하여 보여주고, 나머지 지표 결과는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지표결과 보고서에 제시하였습니다.



한 눈에 보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2020



사회적 배경 영역의 핵심지표

하위영역	지표	내용	출처
인구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	전체 추계인구 대비 0-24세 추계인구 비율	장래인구추계
	아동·청소년 10만명당 사망자 수	0-24세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인구동향조사
사회정책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전체 아동·청소년(0-24세)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5조에 의거 기초 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만 0-17세 아동인구 10만 명 중 당해 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	보호대상 아동현황보고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의 핵심지표

하위영역	지표	내용	출처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아동·청소년 비율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	주거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아동·청소년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가계금융복지조사
건강	아동·청소년 자살률	0-24세 아동 및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	사망원인통계
	수면시간	지난주 주중(월~금) 수면시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학습·역량	학교생활 만족도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 교육방법 및 내용,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기효능감	9-17세 아동의 자존감(1-4점)과 유능감(1-4점) 평균점수	아동종합실태조사
여가·활동·참여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나의 인권이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에서 각각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여가시간 사용 정도	평일 여가시간의 양을 1시간 단위로 응답한 각 시간대별 응답 비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안전·행동	아동학대 발생 건수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수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	7가지 유형에 대해 청소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관계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정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4점 척도 평균값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	외롭고,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청년(20-29세)의 비율	사회통합실태조사
주관적 웰빙	전반적 삶의 만족도(행복도)	단일문항으로 최상의 삶(10점)과 최악의 삶(0점) 중에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	아동종합실태조사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한 평균값	청소년종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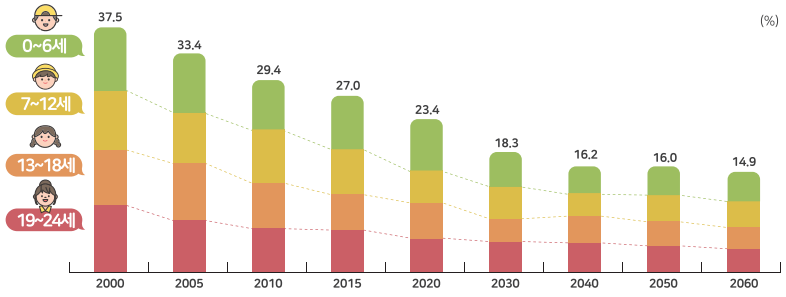
사회적 배경 영역 인구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2000-2060)

전체 추계인구 대비 0-24세 추계인구 비율

아동·청소년의 인구 구성비는 2000년 37.5%에서 2020년 23.4%로 크게 줄었으며, 2030년에는 18.3%, 2060년에는 14.9%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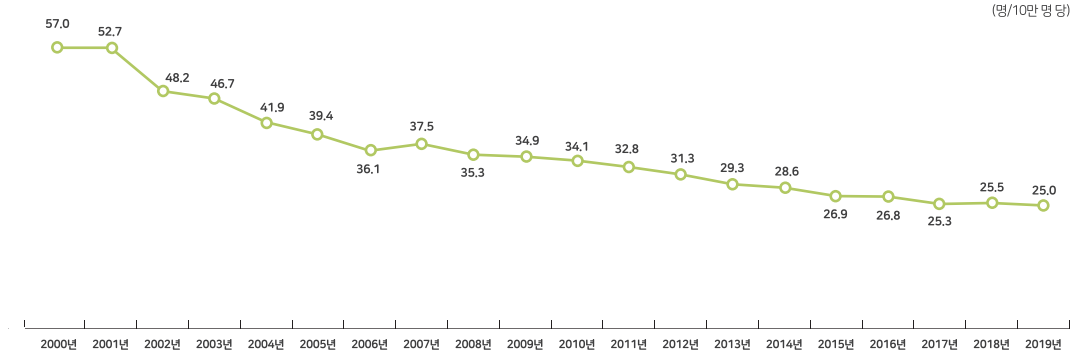
주 : 1) 0-24세 인구 비율 = (0-24세 인구 ÷ 총인구) × 100.
2) 외국인 포함 인구임.
3) 2017년까지는 확정 인구이고, 2018년부터는 추계 인구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아동·청소년 10만명당 사망자 수

아동·청소년 연령별 10만 명당 사망자 수(2000-2019)

0-24세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00년 57.0명, 2010년 34.1명, 2019년 25.0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영아(0세)의 사망률은 2000년 484.1명에서 2019년 268.3명으로 크게 낮아졌음. 사망원인을 보면 1-14세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9년 0.7명으로 3순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15-24세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9년 13.7명으로 사망원인 1순위임.



주 : 1) 사망률 = (0-24세 사망자 수 ÷ 0-24세 인구) × 100,000. 0-24세 인구는 주민등록연앙인구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아동·청소년 주요 사망원인 및 사망자 수 (2019)

(명/10만 명당)

연도		0세		1-14세		15-24세	
		사망원인	사망자	사망원인	사망자	사망원인	사망자
2019	1순위	출생전후 기원한 특정병태	136.8	악성 신생물(암)	1.7	고의적 자해(자살)	13.7
	2순위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45.4	운수사고	0.8	운수사고	3.5
	3순위	영아급사증후군	17	고의적 자해(자살)	0.7	악성 신생물(암)	3.1
	4순위	심장질환	5.2	가해(타살)	0.7	심장질환	1.2
	5순위	가해(타살)	4.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0.5	불의의 익사 및 익수	0.3

주: 1) 일반사망선택분류 56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함.
2) 해외거주 사망자를 제외한, 국내 거주 사망자 수만 집계함.
3) 사망원인통계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에 사인을 집계한 것이며, 사인이 부정확한 자료는 보자보건법에 의한 신고자료와 기타 행정자료를 이용해 보완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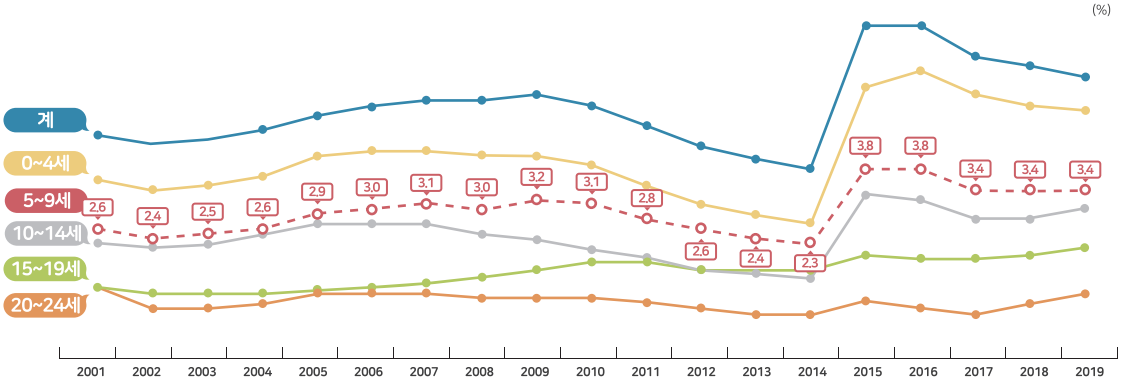
사회적 배경 영역 사회정책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전체 아동·청소년(만 0세~24세) 인구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5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아동·청소년 비율은 2001년 2.6%, 2009년 3.2%로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4년 2.3%로 하락 전환되었음. 이후 2015년 3.8%로 소폭 증가하였고, 2019년 3.4%의 수급율을 보이고 있음.



주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01년부터 집계됨.
2) 장래인구추계는 2019년 3월에 공표한 자료이며, 증위추계를 사용함. 2001~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 수치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동 될 수 있음.
3) 꺾은선그래프 비율(총계 비율)=(각 년도 기초생활보장 아동·청소년 수/각 년도 아동·청소년 수)x100; 꺾은선그래프 비율(연령별 비율)= (각 년도 5세 단위 기초생활보장 아동·청소년 수/각 년도 5세 단위 아동·청소년 수)x100

출처 : 1)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 통계청.「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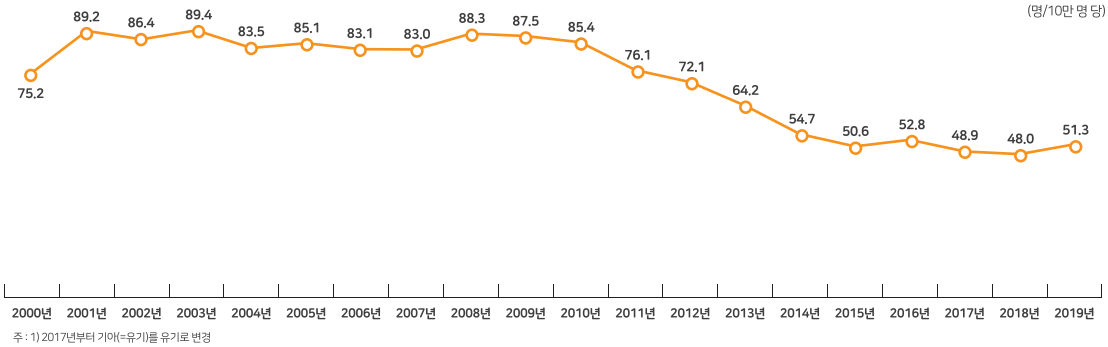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만 0-17세 아동인구 10만 명 중 당해 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

※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

아동인구 10만 명당 보호대상아동발생률은 2000년 75.2에서 2010년까지 85.4로 증가세를 유지하다 2011년 76.1로 감소 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 48.0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19년 51.3으로 소폭 상승했음.



주 : 1) 2017년부터 기아(=유기)를 유기로 변경
2) 2008년 이후부터 발생요인 통계항목 변경(부모빈곤, 실직/부모사망/부모질병/부모이혼 등 추가)
3) 장래인구추계는 2019년 3월에 공표한 자료이며, 증위추계를 사용함. 2001~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 수치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동 될 수 있음.
4) 꺾은선그래프 비율=(보호대상아동 합계/0-17세 아동 수)x100,000

출처 : 1) 보건복지부.「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2) 통계청.「장래인구추계」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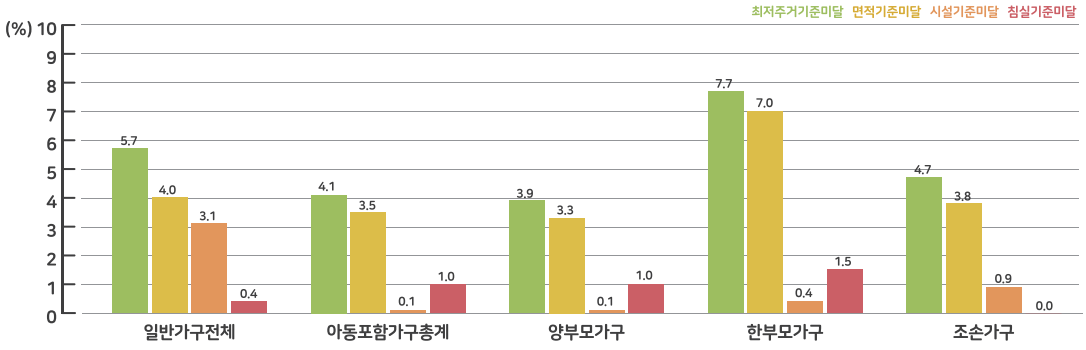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아동·청소년 비율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

※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의미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청소년가구는 4.1%로 전국단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5.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의 경우에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미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특히 한부모가구에서 7.7%로 가장 높아 물리적 주거여건이 가장 열악하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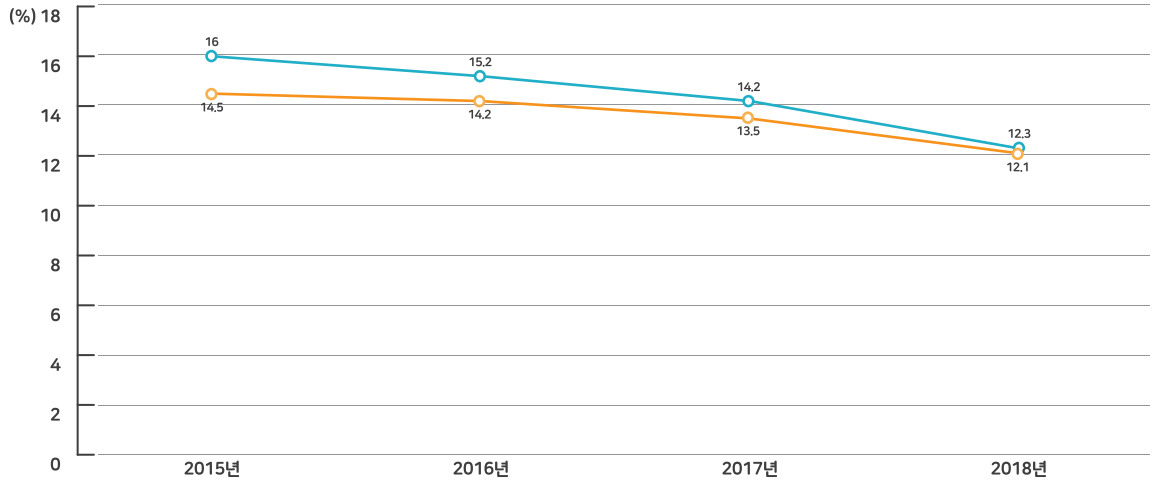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2018)「주거실태조사」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아동·청소년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8년 0-17세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12.3%, 0-24세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12.1%로 나타났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5년 이래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주: 1) 상대적 빈곤선은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중위 50%임.
2) 소득 기준연도임(즉, 2018년 결과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료임)
출처: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각 연도 RAS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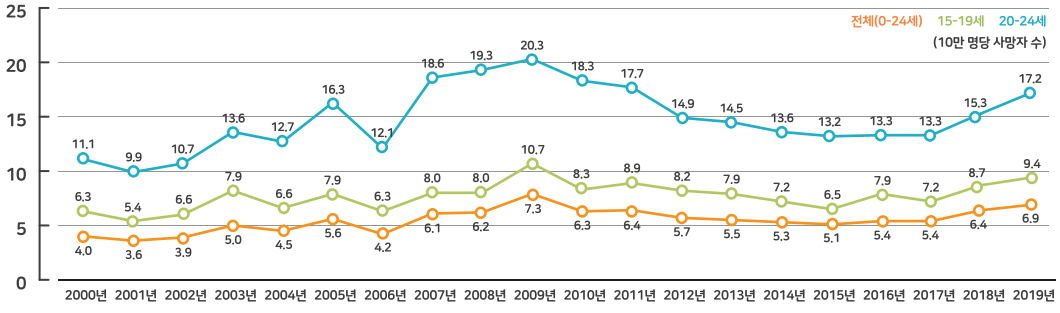
건강 영역



아동·청소년 연령별 자살률

0-24세 아동 및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00년 인구십만 명당 4.0명에서 2009년에 7.3명로 정점을 찍은 이후, 조금씩 낮아졌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17년에는 십만 명당 5.4명이였으나, 2018년에 6.4명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6.9명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20-24세의 자살률은 2017년 13.3명에서 2018년 15.3명, 2019년 17.2명으로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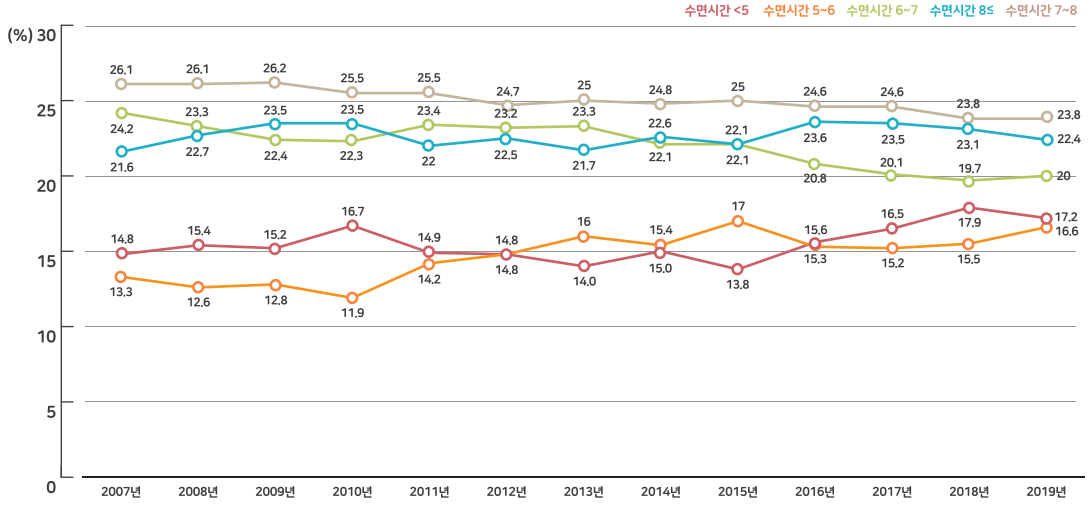
주: 1) 자살률 = (0-24세 자살자수 ÷ 0-24세 인구) × 100,000. 0-24세 인구는 주민등록연앙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수면시간

지난주 주중(월~금) 수면시간

2019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6.3시간으로 나타났음.
2007년 이래 중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6.2-6.4시간으로 지속적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지난 12년간 5시간 또는 5-6시간 수준의 보다 낮은 평균 수면시간을 응답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주 : 1) 주중 수면시간 분포 = <5: 5시간 미만, 5~6: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7: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 7~8: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 8시간 이상
2) 2007년부터 문항 변경으로 이전년도(05, 06년)결과 비산출
3) 비율=(수면시간 각 범주별 응답자 수/전체 응답자 수)x100
출처 :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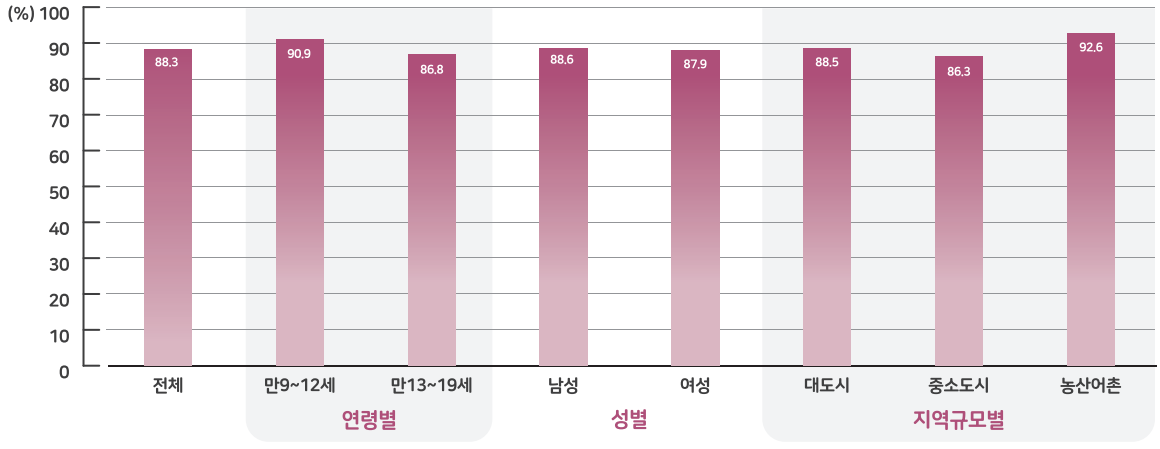
학습·역량 영역



학교생활 만족도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 만족도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88.3%였음. 초등학생(90.9%)이 중고등학생(86.8%)에 비해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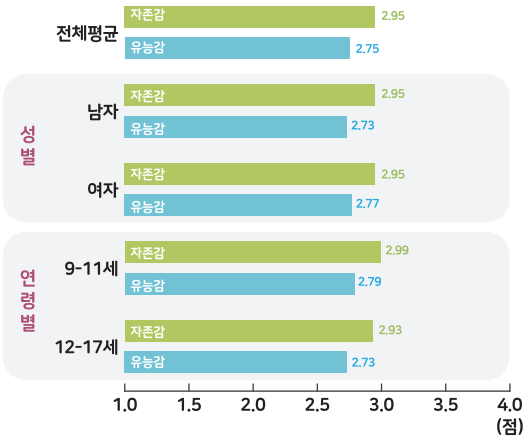
주 : 1)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평균
출처 : 여성가족부(2017).「청소년종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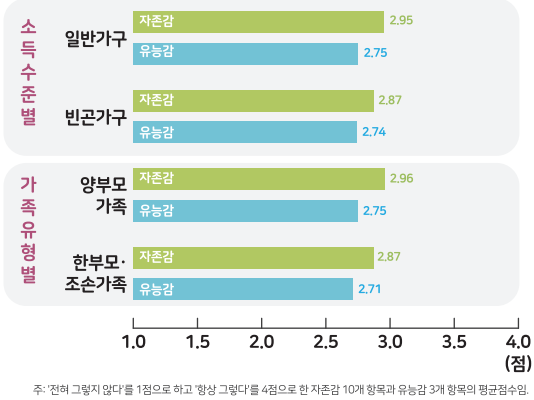


자기효능감

9-17세 아동의 자존감(1-4점)과 유능감(1-4점) 평균점수

자존감과 유능감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로 평가한 결과, 자존감은 전체평균이 2.95점이고, 유능감은 전체 평균 2.75점으로 나타났음. 자존감의 경우 9-11세 아동이 12-17세 아동보다, 일반가구 아동이 빈곤가구 아동보다, 양부모가족 아동이 한부모·조손가족 아동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음.





주: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항상 그렇다'를 4점으로 한 자존감 10개 항목과 유능감 3개 항목의 평균점수임.
출처: 보건복지부(2013).「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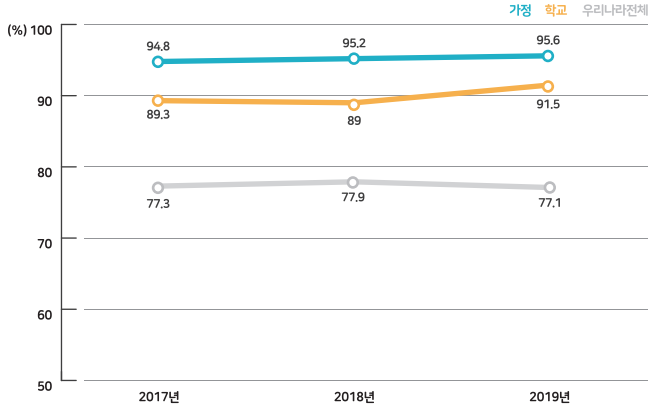
여가·활동·참여 영역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나의 인권이 가정, 학교,우리나라 전체에서 각각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전반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이 인식하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정도는 지난 3년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정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개년도 조사에서 95% 내외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90% 내외로 높게 나타났음. 우리나라 전체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7%대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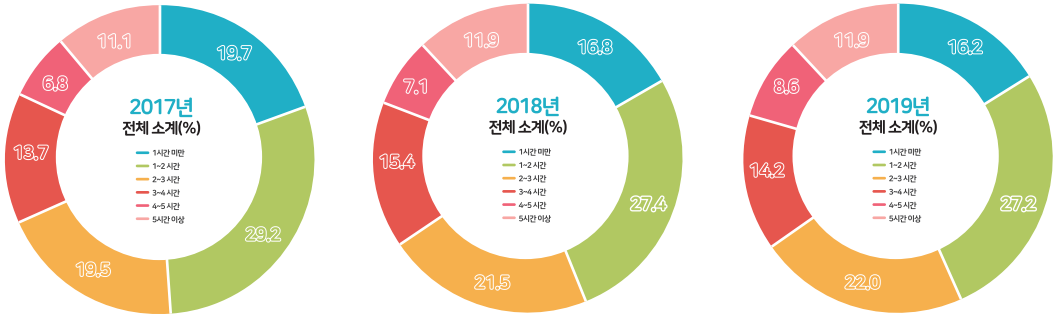
주 : 1) 나의 인권이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에서 각각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중 '존중받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받는다'로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여가시간 사용 정도

여가시간은 평일 여가시간의 양을 1시간 단위로 응답한 각 시간대별 응답 비율

초·중·고등학생의 평일 여가시간은 지난 3년간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3년간 평일 중 여가시간을 1시간 미만 또는 1~2시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조금씩 줄어듦에 따라 2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비중이 조금씩 늘었음. 3개년도 조사에서 모두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의 평일 여가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7년에는 1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순으로, 2018년과 2019년에는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1시간 미만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주 : 1) 평일 여가시간의 양을 1시간 단위로 응답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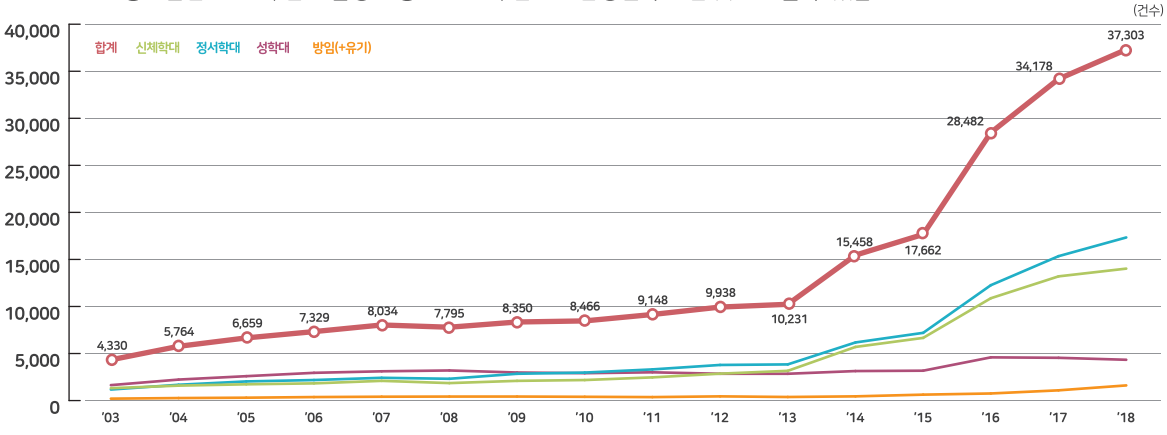
안전·행동 영역



아동학대 발생 건수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지난 16년간 지속적으로 늘어왔음. 특히 2013년을 기점으로 그 증가폭이 이전에 비해 더욱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남. 중복학대를 분류하지 않은 경우, 전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03년에 4,330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37,303건으로 9배가량 증가하였으며, 2013년 10,231건에 비해서도 약 3.7배 증가하였음. 아동학대 발생 건수의 증가세는 아동 학대 실제 사례의 증가뿐만 아니라, 신고 활성화 등의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수치인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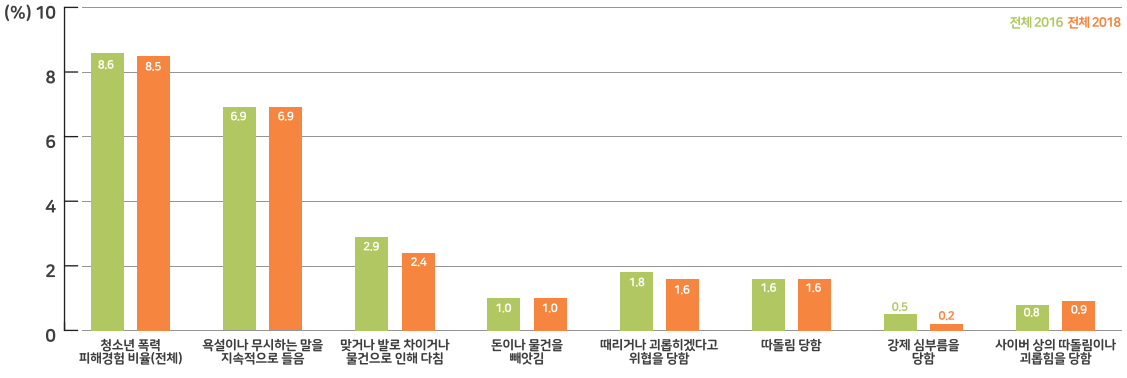
주 : 1)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건수
2) 2012년 이전에는 방임과 유기를 분류하여 보고. 해당 연도의 경우 유기 사례 수를 방임 사례에 더해서 보고.
3) 세분화 정보는 2018년부터 제공됨.
출처: 보건복지부,「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각 연도.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

7가지 유형에 대해 청소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은 2016년 8.6%, 2018년 8.5%으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2개년도 조사 모두에서 남자의 폭력 경험률이 여자의 폭력 경험률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간의 비교에서도 2개년도 조사에서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폭력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폭력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주 : 1) 제시된 7가지 유형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임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출처 : 여성가족부,「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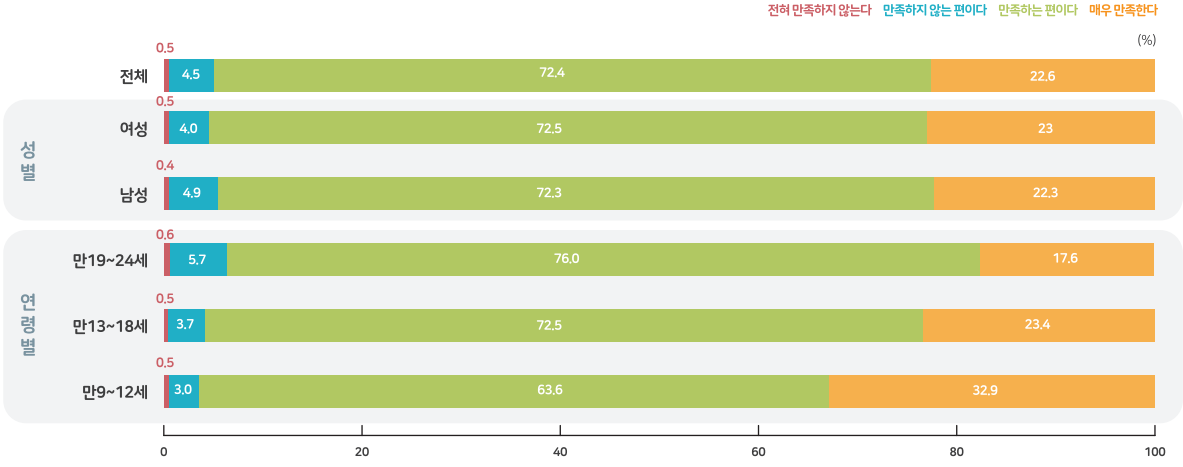
관계 영역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에 대한 4점 척도의 항목별 비율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정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4점 척도의 응답 평균은 3.2점으로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비율로 보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각 연령대 중에서는 만 9~12세가 32.9%로 가장 높았고, 만 13~18세가 23.4%, 만 19~24세가 17.6%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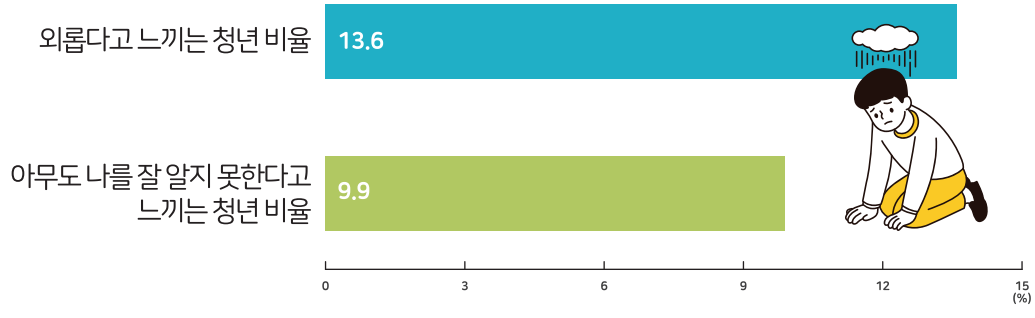
주: 1)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1) ~ 매우 만족한다(4)' 항목별 비율
출처: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

외롭고,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청년(20-29세)의 비율

만 20~2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외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3.6%로 나타났으며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도는 9.9%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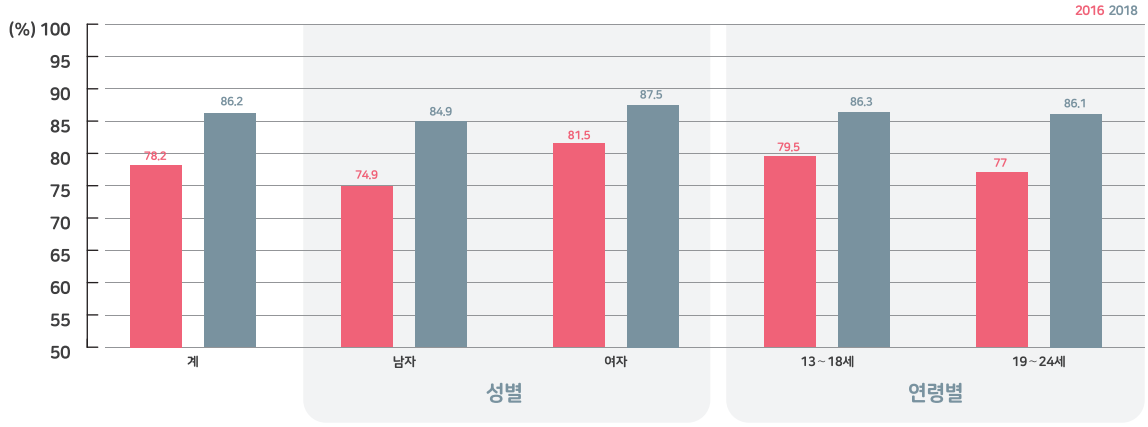


주: 1)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와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8). 「사회통합실태조사」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조사결과가 2016년 조사 결과에 비해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2018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와 상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6.2%로 나타났으며, 2년 전 조사에 비해 8%p 증가한 수치였음. 2016년에는 성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나, 2018년에는 남자 84.9%, 여자 87.5%로 차이가 크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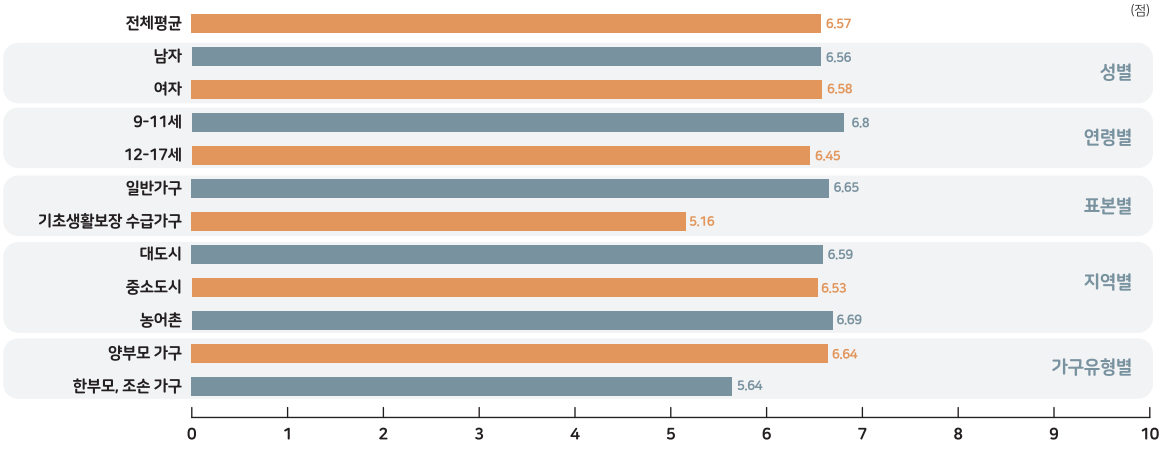
주: 1) 고민이 나눌 지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1-('스스로 해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주관적 웰빙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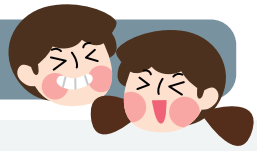
전반적 삶의 만족도

단일문항으로 최상의 삶(10점)과 최악의 삶(0점) 중에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삶의 만족도에는 집단의 특성별로 차이가 있었음.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일반 가구에 사는 아동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 사는 아동에 비해, 양부모가구가 한부모/조손가구에 사는 아동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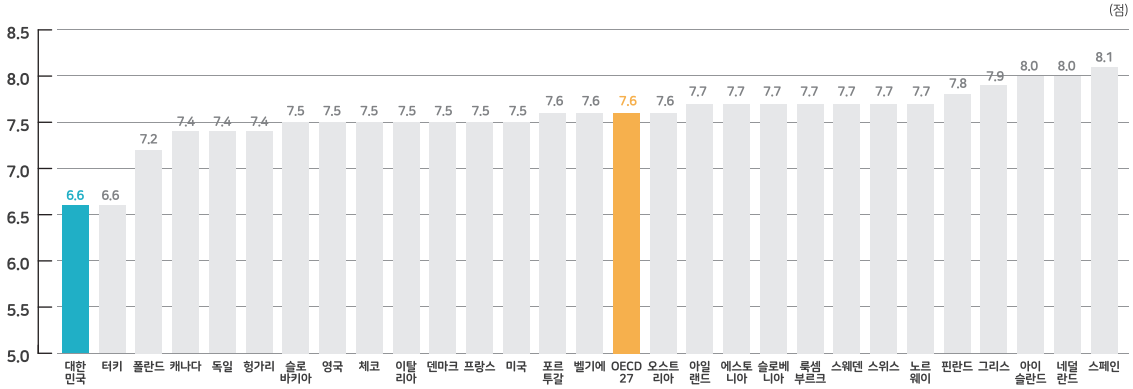
주 : 1)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최악의 상태(0점)~최상의 상태(10점)까지의 11점 척도 평균점수, 영역별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의 11점 척도 평균점수임.
출처 : 보건복지부(2019a).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관적 웰빙 영역

OECD 국가 아동·청소년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행복도) 국제비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행복도)는 다른 경제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비록 순위는 낮은 편이나 평균 점수 자체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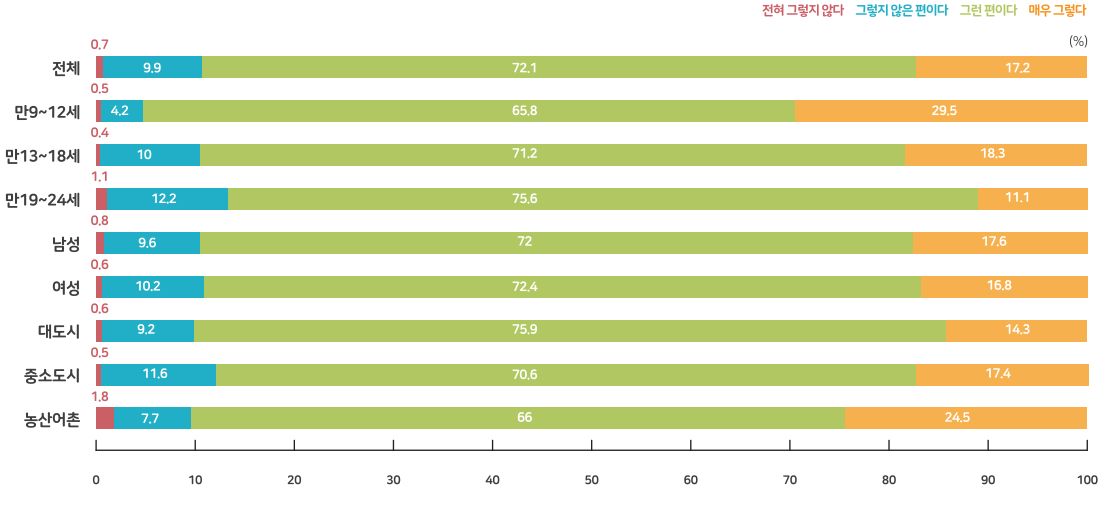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19).「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한 4점 척도의 항목별 비율

전반적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1점으로 자기 자신의 전반적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율로 보면 89.3%의 청소년들이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항목별 비율을 보면 연령별로 만 9~12세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였으나, 만 13~18세 18.3%, 만 19~24세 11.1%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의 항목별 응답비율
출처: 여성가족부(2017).「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전화_ 044-415-2114 팩스_ 044-415-2369

01

서 론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절 연구개요

1. 연구개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높은 학업성취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중 행복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10여 년간 거의 변화되지 않고 있다(OECD, 2015; UNICEF, 2020).

아동·청소년기의 발달 성과는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연령 대상들에 비해 사회적 투자의 효과가 높은 편이다. 경제선진국들에서는 사회투자의 맥락에서 아동기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well-being)에 대한 최저선을 보장하고 이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전제되어야 한다.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은 자신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약해 사회적 옹호(advocacy)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배제되어 있어 이들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지표는 하나의 사회적 옹호 장치가 될 수 있다.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일은 이들의 권익을 옹호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계기판(dashboard)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청소년들과 관련한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이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의 삶의 질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공공영역에서 생산하는 체계적인 지표체계 및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며, 관련 자료가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에 따라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OECD,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들에서는 회원국가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아동·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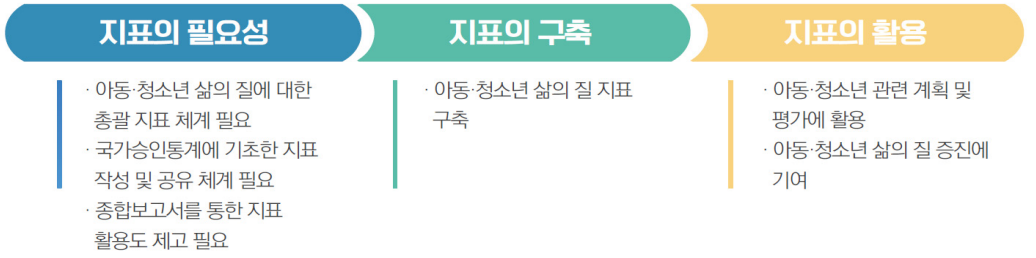
소년 삶의 질 현황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 선진국들은 정부부처에서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출간 중에 있으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 장기간 보고되는 삶의 질 현황, 변화 추이, 하위집단 간 차이 등은 매우 강력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삶의 질 지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표체계 구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를 생산하여 보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well-being) 지표체계의 확장 및 정교화, 둘째는 삶의 질 지표 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 셋째는 지표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넷째는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이용자 포털 구축 방안을 마련 등이다.

2019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사업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안정적인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표의 취합뿐만 아니라 지표의 발굴, 생산 등은 관련 부처와의 중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다차원적인 아동·청소년 삶의 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대상중심 기관뿐만 아니라, 다수의 전문영역중심 기관 간 협동도 필요하다.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는 첫 번째 보고서의 과업을 질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에서 설계되었다. 1차년도 연구가 지표들을 취합하고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2차년도 연구는 취합된 지표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보고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생애주기 단계의 공통성과 특수성의 맥락에서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청년기본법 통과로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면서 이 연구의 만 0세부터 24세까지의 대상을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생애전반기의 삶의 질 프레임이 이후 연령대의 삶의 질 프레임과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출처: 유민상 외(2019: p.5)

[그림 1-1] 연구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

다행스러운 일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에 대한 공공영역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제도화될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정부는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 중 「협약 관련 자료 수집·분석」에서 "정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종합적 자료 수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에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으며 향후 삶의 질 지표 DB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 1항에 의거하여 5년 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을 위해 채택한 조치와 이와 관련한 진전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하므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 협약 관련 자료 수집·분석
>
> 5. 정부는 개별적으로 구축·관리되고 있는 아동복지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연계하는 중앙 시스템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체계적인 아동돌봄 및 권리보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통합적 정보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종합적 자료 수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에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으며 향후 삶의 질 지표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보고서 19~20번 문단 참조)
>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9). 제5,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 p.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아동중심 통계 조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추진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기존 통계집계를 아동중심으로 전환하고,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추진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아동중심 통계 조성

○ (아동 삶의 질 분석) 기존 통계조사 집계를 '아동중심'으로 전환*, 아동의 삶·생활 변화 등 객관적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 근거 확보

* 기존 인구·고용·복지행정 통계의 가구주·세대 개념 집계를 아동 기반으로 재집계·가공하여 아동을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작성

※ (해외사례) OECD에서는 가족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족구조,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가족과 아동을 위한 공공정책, 아동발달(child outcomes)에 대한 통계 항목 포함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76.

마지막으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년들의 삶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청년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청년기본법의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사람을 의미하므로 이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만 0세부터 24세까지의 아동·청소년과 중복된다. 아직 청년연구에서는 청년 삶의 질의 개념, 청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청년정책의 출발이 이행기(transition period)의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의 연장선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F6 청년지표(Youth Life Index) 개발

○ 청년 삶 기준선과 새로운 지표 마련

- 현 청년정책 관련 대다수 지표는 일자리·주거·소득에 집중 → 청년이 지속가능한 입체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 개발

▸ (아이슬란드) 국민 행복에 초점을 맞춘 '웰빙지표'를 토대로 예산안 편성. 웰빙지표는 기대수명, 건강, 평생학습, 안전, 노동시간 등 일상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 고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내총생산(GDP)를 넘어 계량적 웰빙 측정의 연구 촉진 등 새로운 측정지표의 필요성 강조(2018년 제6차 OECD 세계 포럼)

- 실태조사 설계 연구용역('21) → 실태조사('22) → 청년지표 개발('23)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p.47.

공공영역에서 아동·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삶의 질을 다차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2018년의 초기 연구에서부터 이러한 정책 방향의 근거가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실현되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한 좋은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1)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well-being)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정교화

이번 연구에서는 2019년 연구에서 구축한 120여개의 지표체계 중 중복되거나 연관성이 떨어지는 지표를 제외하고, 삶의 질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핵심지표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첫째는 2020년 지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19년 구축한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의 미시적 수정을 하는 작업이다. 이는 내부 연구진의 검토와 외부 전문가와 지표검토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둘째는 프레임워크의 수정과 핵심지표 선정을 위하여 57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시행한 것이다. 델파이조사는 생애전반기를 포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구축과 지표체계의 타당화 및 핵심지표의 선정을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추후 연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보고서 작성

이번 연구에서는 수정된 지표체계를 기반으로 지표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지표보고서는 아동·청소년의 ① 현재 상황, ② 종단적 변화, ③ 하위집단 간 차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지표보고서는 지표 내용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시각화 작업을 보완하였다.

지표보고서에서 업데이트 가능지표는 신규로 작성하였고, 업데이트 불가능 지표는 작년의 기술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에서 작성되었다. 아동·청소년 지표는 원데이터의 생산주기가 매우 긴 편으로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이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조사주기는 3년이다. 따라서 삶의 질에서 중요한 주관적 지표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3)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well-being) 심층보고서 작성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들을 주제 별로 보다 심층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 집필진과 함께 심층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통계청에서 발간되는 “한국의 사회동향”과 같이 각 영역의 전문가를 집필진으로 구성하여 삶의 질 영역별 전문적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연구체계를 구성하여 5개 영역에 대한 심층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심층보고서를 통해 발굴된 지표는 전체 지표체계에 반영하였다.

4)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well-being)데이터베이스 및 이용자 포털구축 계획 수립

2019년에 구축된 지표체계 및 2020년에 구축예정인 핵심지표체계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이용자 포털 구축 방안 및 중장기적 운영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OECD Better Life Index , OECD Child Well-being Portal , 미국 Kids Count 등을 모델로 하여 정책결정자, 학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아동·청소년 당사자들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목표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5) 인포그래픽 및 아동친화적 요약보고서 작성

이 연구는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 친화적(child-friendly) 버전의 인포그래픽 및 요약보고서를 작성하고 배포하여 대중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2019년 보고서 서두에 들어갔었던 인포그래픽을 독자 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시기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권고되던 시기였다. 이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하였고, 연구 진행과정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초기에는 아동·청소년 포토보이스(photo voice)와 같은 면담과정을 기획하기도 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구자가 아동·청소년들을 직접 면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삶의 질 프레임워크 개선을 이론적 검토 및 자문 시행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를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UNICEF와 OECD 등 삶의 질 연구들을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해 지표체계 수정안을 최종 도출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지표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지표보고서 및 심층보고서 작성

이 연구는 첫 번째 연구에서와 같이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5개 주제의 심층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는 병렬적인 지표보고서를 탈피하여 아동·청소년의 삶과 관련한 현황을 진단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심층보고서의 주제는 영유아의 영양 및 건강, 아동·청소년의 전반적 건강 실태, 시간사용 실태, 주거 실태, 사교육 실태 등이다. 지표보고서가 개별 지표의 현황(시계열, 하위집단별)을 기술하고 있다면, 심층보고서는 특정 이슈에 대한 지표들 간의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지표보고서를 통해 제시할 수 없는 하위집단들 간의 차이나 시계열 변화의 원인 등도 함께 제시하였다.

3) 델파이조사 시행

이 연구의 지표체계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과 관련한 지표들을 총괄하고자 120여개 지표를 선정하여 지표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직관적이고 간명한 삶의 질을 보여주는 것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지표체계의 타당화 및 핵심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시행하였다. 전문가 델파이조사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학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전문가들도 포함하였다. 전문가들은 사회학, 교육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델파이조사는 아일랜드의 The State of Child Well-being의 지표 선정과정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4) 지표검토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기구 운영

이 연구는 2019년부터 지표체계 및 지표내용에 대한 검토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표검토위원회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자들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전공 연구자들을 추가하여 영역별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이

번 연구에서는 지표체계의 변경과 관련하여 지표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확정하였다.

5) 전문가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연구진행과정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웰빙 및 미디어 사용 실태, 아동·청소년 가구 주거 실태, 교육과정의 아동·청소년의 역량 개념 등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연구의 지표체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전문적인 시각에서 지표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연구진은 2020년 12월 청소년정책포럼의 형식으로 학술적인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주최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7개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총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지침에 따라 비대면 웨비나(Webinar)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1-2]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관련 포럼 개최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내용 및 과업 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3] 연구의 내용 및 과업범위

3. 보고서의 구성

이 연구는 총 7개의 장과 1개의 부록, 1개의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이 연구의 개요 파트이다. 이 연구의 필요성과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장은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 파트이다. 1차 년도에 구축한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를 수정한 결과를 담고 있다. 지표보고서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 장은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위주로 작성하였고, 지표체계 개선을 위한 델파이조사 결과는 결론에 포함하였다.

3장은 지표로 보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2020 파트이다. 이 장은 하나의 지표보고서로 향후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되고,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데이터베이스 및 이용자 포털'의 서비스 페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4장은 이번 연구에서 새로 추가된 장으로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심층분석 파트이다. 심층보고서의 주제는 영유아의 영양 및 건강, 아동·청소년의 전반적 건강 실태, 시간사용 실태, 주거 실태, 사교육 실태 등이다. 각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집필진이 구축되었고 외부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아 원고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5장은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안 파트이다. 첫 번째 보고서에서 해외 사례들을 통해 어떠한 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면,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용자 포털을 통하여 지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6장은 델파이조사 파트이다. 삶의 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의 타당화와 핵심지표 선정에 대한 합의과정을 다루었고, 전문가조사 성격의 의견조사도 함께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7장은 결론 파트이다. 보고서의 요약,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개선방안,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발전방안 등을 수록하였다. 이외에 부록은 델파이조사 조사표, 참고자료는 지표 검수를 위한 매뉴얼 등이 수록되었다.

보고서에 싣지 못한 자료는 총 120여개 지표의 메타데이터이다. 데이터베이스 및 이용자 포털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시기가 앞당겨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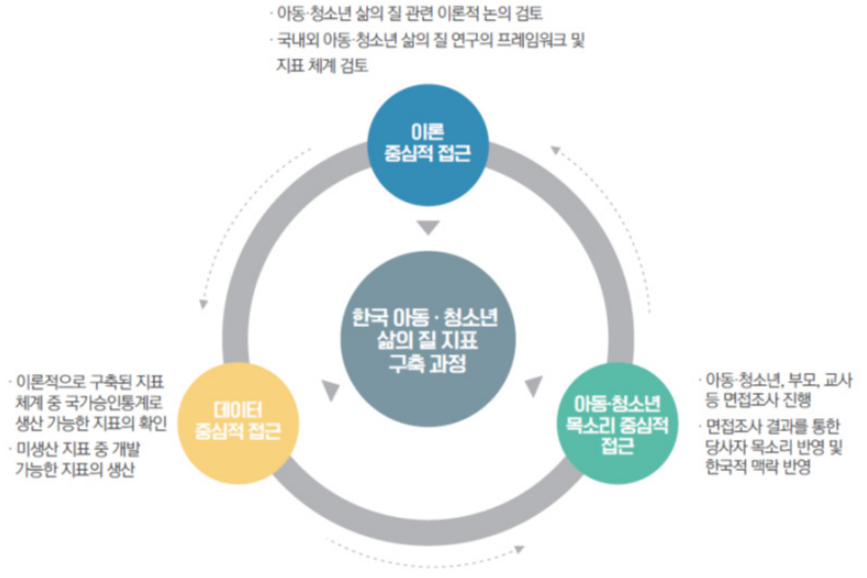
02

한국 아동 · 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
심수진(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제1절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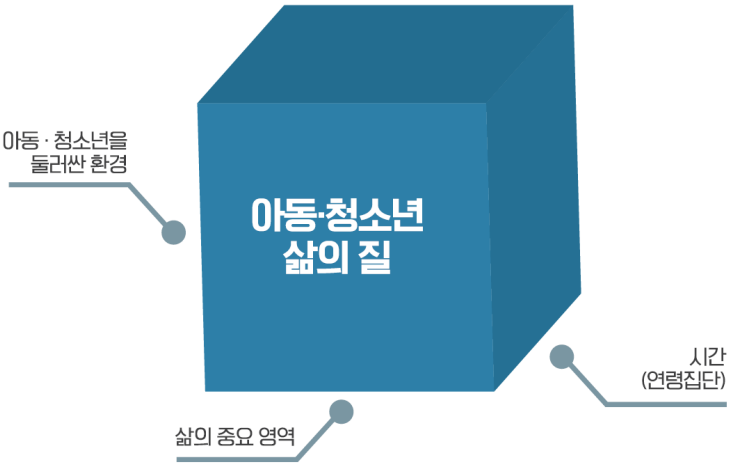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를 수정·보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1차 연구에서는 이론 중심 접근, 데이터 중심 접근, 아동·청소년 목소리 중심 접근을 적용하여, 삶의 질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들과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지표들을 선정하였다(유민상 외, 2019). 이번 두 번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과정을 수행하기 어려워 이론적 접근 및 데이터 중심적 접근을 통해 기존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를 수정·보완하는 방향에서 작성되었다.



[그림 2-1] 1차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과정

1.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well-being)을 “현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는 삶의 질은 객관적인 환경과 주관적 인식과 감정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개념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에 조응할 수 있도록 개념 정의하였다. 삶의 질의 측정을 위해서는 프레임워크(framework)와 지표체계(set of indicators)가 마련되어야 한다. 삶의 질은 다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개념정의하고 지표를 선정하는 사고의 틀이 필요하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이 무엇인지, 어떠한 차원과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게 해주고, 지표체계 구축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준다(이희길 외, 2018; 유민상 외, 2019).



출처: 유민상 외(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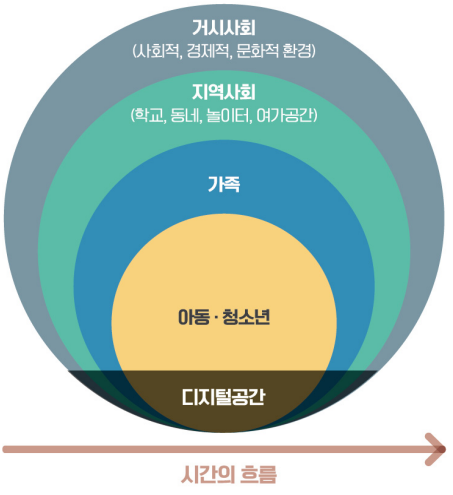
[그림 2-2]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의 프레임워크 구조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환경, 삶의 영역, 시간의 흐름의 세 축으로 구성하였다. 환경은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놓고 그들을 둘러싼 가족, 학교, 지역사회, 거시사회 등의 생태학적 환경 등을 의미하고, 삶의 영역은 한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의미하며, 시간의 흐름은 종단적인 발달과 성장을 의미한다(유민상 외, 2019). 프레임워크의 축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생태학적 환경(ecological system)

아동·청소년 프레임워크의 기본 토대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모델이다. 이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의 측정은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서 시작하여, 이러한 환경과 개인이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모델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Bronfenbrenner(1979)의 미시체계, 중시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모델을 참고하되, 지표구분의 용이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가족, 지역사회(학교, 동네, 놀이터, 여가공간), 거시사회(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로 단순화하였다.[1)]

이 연구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을 생태체계모형에 추가하였다. 1차 연구의 아동·청소년 면담에서 참여자들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동이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였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일뿐만 아니라, 삶의 상당 부분을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동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생태체계 모형에 디지털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출처: 유민상 외(2019)

[그림 2-3]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주요 차원: 생태학적 환경

1) 최근 발간된 UNICEF의 Child Well-being 국제비교 보고서에서는 본격적으로 생태체계 모델을 이용하여 아동 삶의 질과 사회적 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 Gromada, A., Rees, G., & Chzhen, Y. (2020). Worlds of influence: Understanding what shapes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No. inreca1140).

나. 삶의 영역(life domain)

삶의 영역은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들을 영역별로 구분한 것이다. 이 연구는 삶의 질(well-being)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역구분을 참고하여 영역을 구성하였고, 여가(leisure)와 같이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중요한 영역들은 새로 추가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아동·청소년 면담 등을 통하여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이 영역들은 건강, 학습·역량, 여가·활동, 안전·행동, 관계,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주관적 웰빙 등이었다.



출처: 유민상 외(2019)을 수정하였음

[그림 2-4]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주요 차원: 삶의 영역

각 영역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건강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태아 시기에서부터 출산, 양육까지 안전하고 예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영역이다. 둘째, 학습·역량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잘 받으며 성장·발달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면서 자라나고 있는지와 관련한 영역이다. 셋째, 여가·활동·참여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기며 휴식하고,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영역이다. 넷째, 안전·행동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영역이다. 다섯째, 관계 영역은 아동·청

소년이 가정, 학교, 동네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와 관련한 영역이다. 여섯째,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물질적인 재화를 누리고(material well-being), 안전한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고 있는지와 관련 영역이다. 일곱째, 주관적 웰빙은 아동·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한 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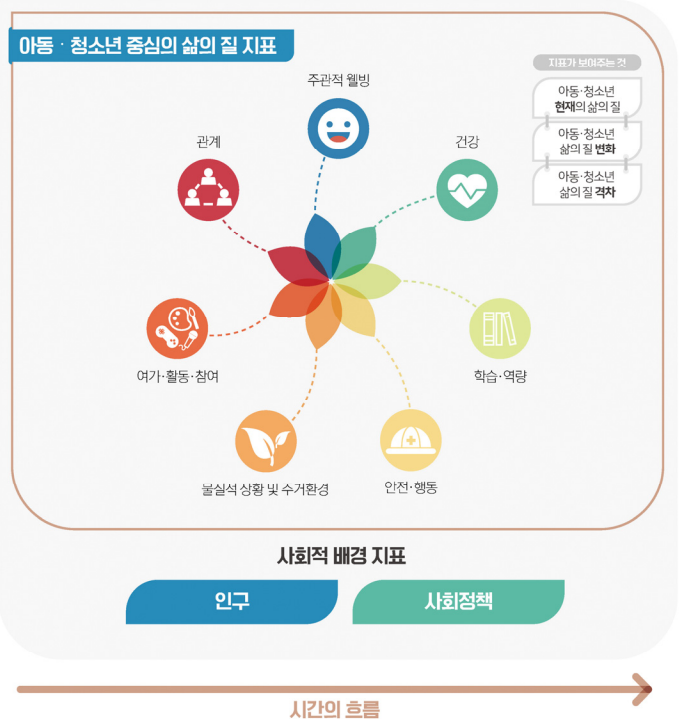
다.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은 생태체계 모델에서의 시간체계(chronosystem)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인(longitudinal) 변화와 현재 아동·청소년기의 범위에 있는 대상에 대한 횡단적(cross-sectional)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다. 이는 이 연구가 포괄하고 있는 만 0세부터 24세까지 대상들의 현재 상태와 변화를 함께 연구에 반영하기 위한 설계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연구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에 놓고 그들을 둘러싼 생태체계 속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일곱 가지의 삶의 중요한 영역들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살아가며, 생애초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틀로 구성하였다.

2.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결과

지금까지 논의한 프레임워크의 세 가지 축과 세부 영역 등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거시적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사회적 배경지표, 미시적 환경과 삶의 질 영역을 반영하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기의 연령별 특징과 종단적 변화를 고려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5]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프레임워크 (종합)

전체 지표 프레임워크는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와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 지표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는 주관적 웰빙, 건강, 학습·역량, 안전·행동,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여가·활동·참여, 관계 등의 7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개별 지표들의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현재 상태, 시간적 변화, 하위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도록 설계되었다.

3.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통한 지표체계 구성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통한 지표체계 구성은 이론적으로 제시한 삶의 질을 개별 지표들의 묶음을 통해 보여주는 과정이다. 이론적으로 구상한 삶의 질 개념은 종종 개별 지표 단위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가용한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지표 연구들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하나의 지향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구상하기 위한 사고의 틀이다. 실제 데이터의 구성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일부 영역, 일부 체계, 일부 연령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를 데이터 중심 접근(data-driven approach)으로 보고, 이론적 접근을 통해 만들어진 틀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다음의 그림은 생애 전반기의 대상별로 적절한 삶의 질 측정 영역 및 지표가 존재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영유아기의 삶의 질을 보여줄 지표와 후기청소년기(청년기)의 삶의 질을 제대로 보여줄 지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들의 주관적 지표 역시 매우 부족하다. 이와 같은 이론적인 프레임워크와 현실의 지표체계 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데이터들의 조사대상, 참여주기, 조사정보가 개편되어야 한다.



출처: The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CIHI) and the Office of the Provincial Health Officer (PHO) for British Columbia가 2013년에 발간한 Child and Youth Health and Well-being Indicators Project의 프레임워크 도식을 본 연구에 맞게 저자들이 수정 및 보완하였음.

[그림 2-6]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통한 지표체계 구성

제2절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20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에는 미시적인 변화가 있었다. 1차 연구에서 변화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에서의 수정이다. 기존 '학습·발달·역량' 영역의 '발달'과 '역량'은 프레임워크 내에 중요하게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표가 빈약하여 '교육'과 '학습' 영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 중심적 시각을 반영하여 '학습'을 유지하고, 정부의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역량(competence)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발달은 프레임워크 자체에 반영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역량' 영역의 부족한 지표체계는 추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2020

구분	2019년 지표		2020지표	
	영역	세부영역	영역	세부영역
사회적 배경 지표	인구	인구추계, 인구동태	인구	인구추계, 인구동태
	사회정책	사회정책, 인프라	사회정책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물질적 수준 및 주거환경	빈곤 및 생활수준, 주거환경	물질적 수준 및 주거환경	빈곤 및 생활수준, 주거환경
	건강	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행동	건강	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행동
	학습·발달·역량	학습, 발달, 역량	학습·역량	학습, 역량
	여가·활동·참여	여가 및 활동, 사회경제적 참여, 참여경험 및 의식	여가·활동·참여	여가 및 활동, 사회·경제·정치 참여
	안전·행동	위험 및 행동, 안전, 유해환경 접촉	안전·행동	안전, 위험행동
	관계	가족관계, 또래관계, 일반적 관계	관계	가족관계, 또래관계 및 일반관계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긍정·부정 감정, 유데모니아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긍정/부정 감정, 삶의 가치와 의미

둘째, 영역 내의 수정이다. '학습·발달·역량' 내의 '발달' 영역을 삭제하고, '여가·활동·참여' 영역의 '사회경제적 참여'와 '참여경험 및 의식'을 '사회·경제·정치 참여'로 수정하였다. 정치참여를 추가한 것은 후기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정치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지표 수의 수정이다. 1차 연구는 120여개 지표를 취합하였으나 중복되거나 연관성이 떨어지는 지표들을 정리하였다. 최종적으로 사회적 배경지표 23개,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 10개, 건강 영역 18개, 학습역량 영역 11개, 여가·활동·참여 영역 13개, 안전·행동 영역 16개, 관계 영역 12개, 주관적 웰빙 영역 6개 등 총 109개 지표로 수정되었다. 단, 기존 지표들 중 일부는 다른 지표의 하위지표로 포함되거나 참고지표로 제시되어 있어 실제 지표의 개수는 120여개 이상이다. 구체적인 영역별 지표, 지표설명, 지표출처 등의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사회적 배경 지표 (인구, 사회정책)

하위 영역	지표	지표설명	출처
인구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	0-24세 추계 인구의 전체 추계인구 대비 비율	장래인구추계
	출생아수와 출생성비	출생신고 자료로 집계된 당해 연도 출생아 수와 출생아의 성비. 출생성비는 여아 출생아 100명 당 남아 출생아 수	인구동향조사
	혼인외 출생아 비율	당해 연도 출생아 중 혼인 외(미혼모) 출생아의 비율	인구동향조사
	모의 출산연령	당해 연도 출산 여성의 평균연령	인구동향조사
	미성년 자녀 부모 이혼 비율	당해 연도의 전체 이혼부부 중 미성년 자녀(0-19세)를 둔 이혼부부의 비율	인구동향조사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	0-24세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인구동향조사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가구의 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사회 정책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비율	0~84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은 아동 수	보육통계
	누리과정 지원율 및 예산	만 3-5세 취원대상아 중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비율	보육통계
	보육료 지원 아동비율	만 0~5세 전체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취원율	(어린이집 이용률) 만0-5세 전체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 (유치원 취원율) 만 3-5세 아동 중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교육통계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전체 아동·청소년(만 0세~24세)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5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현황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0~18세 아동 10만 명 당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의 비율	건강보험통계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교사 수 대비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학교급별 학급 수 대비 학생 수	교육통계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만 0-17세 아동인구 10만 명 중 당해 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하위 영역	지표	지표설명	출처
	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수	보건복지통계연보
	아동 입양률	국내외 입양된 아동의 비율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특수교육대상자수 대비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특수교육통계
	유치원 교직원 1인당 아동 수	유치원 아동 수 대비 교직원수	교육기본통계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전체 어린이집 중 설립주체가 국공립인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면적당 학교 수	시도별 면적(1km2)당 학교 수	교육기본통계
	대안학교 비율	전체 학교 수 대비 대안학교 비율	교육기본통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18세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	전국지역아동센터통계조사보고서

〈표 2-3〉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 (빈곤 및 생활수준, 주거환경)

하위 영역	지표	지표설명	출처
빈곤 및 생활 수준	물질적 결핍지수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적어도 2개 이상의 항목에 결핍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의 가정경제 어려움에 대한 걱정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에 대한 응답에 대한 비율과 4점 평균 점수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아동·청소년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가계금융복지조사
	아동·청소년의 빈곤갭	빈곤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과의 격차를 나타내는 비율	가계금융복지조사
주거 환경	거주지역 만족도	사는 동네에 대한 만족도를 11점 척도로 측정한 값의 평균값	아동종합실태조사
	거주지역 편의성	지역사회에서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의료기관, 교육시설, 대중교통이 도보로 10분 이내, 자연환경이 도보로 20분 이내에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아동 비율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	주거실태조사
	학생 전출입비	학교급별 전출 대비 전입 학생 수	교육통계
	어린이놀이시설 수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놀이시설 수	놀이시설통계
	미세먼지농도 및 대기질 만족도	(미세먼지 농도) 주요 7개 도시의 연평균 미세먼지(PM2.5)의 농도를 추계인구로 가중한 평균값 (대기질 만족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기환경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환경부, 사회조사

〈표 2-4〉 건강 영역 (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행동)

하위 영역	지표	지표설명	출처
정신 건강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	6가지 스트레스 원인별로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으로 4점 척도로 측정한 값의 평균값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우울한 감정 경험 (참고지표: 주양육자의 우울 정도)	우울한 감정 경험은 K-CBCL의 우울 및 불안 영역의 13문항을 합산한 점수	아동종합실태조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 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자살률	0-24세 아동 및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	사망원인통계
신체 건강	조산아율	전체 출생아 중 임신(재태) 주수 37주 미만에 출생한 출생아의 비율	인구동향조사
	저체중 출생아율	전체 출생아 중 출생체중 2.5kg 미만 출생아의 비율	인구동향조사
	장애아동·청소년 유형별 비율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유형 및 기준에 부합하여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 중 0-24세 장애아동·청소년 전체 및 장애유형별 비율	장애인현황
	비만율	체질량지수(BMI)를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95백분위수 이상인 경우의 분율	학생건강검사표본통계
	주관적 건강수준	아동·청소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를 매우 양호 또는 양호한 편으로 대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수면시간	지난주 주중(월~금) 수면시간의 비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아동·청소년 연간 입원율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분율	국민건강통계
건강 행동	수유행태별 비율	자녀가 영유아일 때, 모유만 수유한 경우, 인공유(분유)만 수유한 경우, 모유와 인공유(분유)를 같이 수유한 경우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영유아 건강검진율 및 정밀평가필요 영유아비율	(영유아 건강검진율)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인원 대비 수검인원 비율 (정밀평가필요 영유아비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중 종합판정에서 정밀평가필요를 받은 영유아 비율	건강검진통계
	예방접종률	해당연령에서 모두 접종해야 하는 백신에 대해 모두 접종한 비율	전국예방접종률현황
	치과검진율	아동·청소년의 치과 검진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영양결핍률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비율	국민건강영양조사
	아침식사 결식률	아침식사를 결식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국민건강영양조사
	규칙적 운동 실천율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표 2-5〉 학습·역량 영역 (학습, 역량)

하위 영역	지표	지표설명	출처
학습	부모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둔 가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까지 측정한 응답의 평균값	보육실태조사
	상급학교 진학률 (참고지표: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	교육단계별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 비율	교육통계, 진로교육현황조사
	학업중단율	학교급별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비율	교육통계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전체 학생 중 유료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 전체 학생 중 유료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학습시간	학생들의 하루 24시간 중 '정규수업' 시간과 '정규수업 외 학습(학교활동 외 학습)' 시간을 더한 값.	생활시간조사
	책읽어주기 빈도	0-5세 아동의 주양육자가 아동에게 책 읽어주기를 실천하는 빈도(1-4점) 평균점수	아동종합실태조사
	학교 만족도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 교육방법 및 내용, 교사, 학교시설 및 주변환경에 관한 만족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회조사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	'현재 학업 성적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역량	아동 언어발달 정도	0-5세 아동의 전반적 언어발달 정도(1-4점) 평균점수	아동종합실태조사
	자기효능감	9-17세 아동의 자존감(1-4점)과 유능감(1-4점) 평균점수	아동종합실태조사

〈표 2-6〉 여가·활동·참여 영역 (여가 및 활동, 사회·경제·정치 참여)

하위 영역	지표	지표설명	출처
여가 및 활동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시간 압력은 시간이 얼마나 부족하거나 여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에 대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또는 '가끔 부족하다고 느낌'로 응답한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여가시간 사용 정도	여가시간은 평일 여가시간의 양을 1시간 단위로 응답한 각 시간대별 응답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약간 만족~매우 만족' 또는 '보통~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사회조사
	매체 이용 경험 (참고지표: 방송매체에 따른 TV 프로그램 시청시기)	아동·청소년의 매체 이용 비율은 12가지 매체에 대한 각각의 이용률, 이용 빈도, 해당 매체 이용 시 주요 이용 기기 비율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	방과 후 활동은 평일 방과 후 저녁 식사 이전에 주로 하는 활동으로 13가지 유형 중 주로 하는 활동을 2가지씩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된 각 유형별 응답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회 경제 정치 참여	일하는 청소년 비율	일하는 청소년은 조사 당시 또는 조사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기부 참여율	기부 참여율은 지난 1년간 재능기부나 현금 기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후기청소년(청년) 투표 참여율	후기청소년(청년)의 투표율은 19세에서 24세까지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투표 참여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아리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동아리 참여율은 '청소년 단체, 동아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기타 단체나 동아리' 중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비율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향후 투표 참여 의지에 대한 응답 비율(국제비교 자료)	ICCS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응답으로 0-10점의 11점 척도 중 7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친구·가족과의 토론비율	'부모님과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하여 대화(선거 등) 하는 빈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나의 인권이 가정,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전체에서 각각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표 2-7〉 안전·행동 영역 (안전, 위험행동)

하위 영역	지표	지표설명	출처
안전	가정·학교 내 체벌 경험 비율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을 받았는지에 대해 체벌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학대 발생 건수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방과 후 아동방치 정도	0-12세 아동 중 하루에 방과 후 30분 이상 집에서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만 있었던 아동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등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 및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아동·청소년 전체 범죄 피해 및 살인 범죄 피해자 수	전체 유형의 범죄의 20세 이하 피해자 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	7가지 유형에 대해 청소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위험 행동	흡연 경험 비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음주 경험 비율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약물 사용 경험 비율	최근 1년 간 환각성 약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10대 여자청소년의 임신, 낙태 경험 비율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청소년과 위기청소년(가출, 범죄, 비행청소년) 임신, 낙태 비율(10대 여자청소년 대상)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10대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	평생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	소년인구 천 명당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9세 미만인 자에 의해 발생된 범죄 발생건수	경찰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	지난 1년간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아동·청소년 비율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의 3가지 하위영역을 10개 문항으로 측정한 값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유해매체를 이용한 적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최근 1년 간 4가지 유형의 유해 매체(성인 영상물, 성인 간행물 등)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표 2-8〉 관계 영역 (가족관계, 또래관계 및 일반관계)

하위 영역	지표	지표설명	출처
가족 관계	부모와의 애착 정도 (참고지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0-5세 아동과 부모의 애착 정도(1-4점)의 평균	아동종합실태조사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정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4점 척도 평균값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가족에서의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가정 내 네 가지 의사결정 상황(집 안의 중요한 문제, 진학할 상급학교 등)에 있어 자신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보호자와의 긍정적 관계를 묻는 8가지 항목에서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최근 1년간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또래 관계 및 일반 관계	친구와 잘 어울리는 정도	3-8세 아동 중 친구와 잘 어울리는 아동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친구와 노는 횟수별 비율	3-8세 아동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횟수에 대한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누구와 상담하는지 물었을 때, 상담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조사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비율	친구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9-17세)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친구 없는 아동 비율	3-8세 아동 중 친구가 없는 아동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	외롭고,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20-29세)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신뢰도가 높은 아동·청소년의 비율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11점 척도 중 7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2-9〉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도, 긍정/부정 감정, 삶의 가치와 의미)

하위 영역	지표		출처
삶의 만족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	단일문항으로 최상의 삶(10점)과 최악의 삶(0점) 중에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별 만족도	아동·청소년 삶의 중요한 영역들(건강, 이루어온 것들, 개인적 관계, 안전, 생활수준, 미래 안정성)에 대한 0-10점의 11점 척도의 평균값	아동종합실태조사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한 평균값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긍정/부정 감정	긍정적 정서(행복감)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점)'에서 '매우 행복했다(10점)'로 응답한 값의 평균값	아동종합실태조사
	부정적 정서(근심, 걱정, 우울)	어제를 기준시점으로 부정적 정서('근심, 걱정', '우울')를 얼마나 경험했는지에 대한 평균값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삶의 가치와 의미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균값	청소년종합실태조사

03

지표로 보는 한국 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2020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심수진(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김혜자(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도남희(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진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구자연(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최창용(위스컨신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허은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한경훈(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김병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제1절 사회적 배경 지표

1. 사회적 배경 영역 개요

사회적 배경 지표는 아동·청소년의 직접적인 삶의 질 성과(outcome)라기보다는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context)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인구의 현황과 변화, 그리고 사회정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인구지표는 인구집단의 현황과 변화, 그리고 가구의 변화 등과 관련한 현황을 담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인구추계, 출생아수와 출생성비, 혼인외 출생아 비율, 모의 출산연령, 미성년 자녀 부모 이혼비율,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수 등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사회정책지표는 건강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과 관련한 현황을 담기 위하여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비율, 누리과정 지원율 및 예산, 보육료 지원 아동비율, 어린이집 이용률, 유치원 취원율,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아동 입양률,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유치원 교직원 1인당 아동 수,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면적당 학교 수, 대안학교 비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등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구 구성비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2000년 37.5%에서 2020년 23.4%로 크게 줄었으며, 2030년에는 18.3%, 2060년에는 14.9%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출생성비는 2000년에는 110.1이었으나 2019년에는 자연 출생성비인 105에 근접하고 있다. 0-24세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00년 57.0명, 2010년 34.1명, 2019년 25.0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 추세와 더불어 지난 20년간 모든 학교급에서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며, 2019년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3.6명, 초등학교 17.0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1.5명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수는 2000년 9,085명에서 2003년 10,222명으로 증가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4,503명, 2019년 4,04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 입양은 2000년 4,046건, 2002년 4,059건을 기록했으며 2003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년 922

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2014년 1,172건으로 반등했으며 2018년 681건까지 다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70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청소년 비율은 2001년 2.6%에서 2009년 3.2%, 2014년 2.3%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5년 3.8%로 증가하였고, 2017년 이후는 3.4%에서 정체되어 있다.

〈표 3-1〉 사회적 배경 지표 (인구, 사회정책)

하위영역	지표	출처
인구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	장래인구추계
	출생아수와 출생성비	인구동향조사
	혼인외 출생아 비율	인구동향조사
	모의 출산연령	인구동향조사
	미성년 자녀 부모 이혼 비율	인구동향조사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	인구동향조사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사회정책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비율	보육통계
	누리과정 지원율 및 예산	보육통계
	보육료 지원 아동비율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취원율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교육통계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건강보험통계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육통계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보건복지통계연보
	아동 입양률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특수교육통계
	유치원 교직원 1인당 아동 수	교육기본통계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면적당 학교 수	교육기본통계
	대안학교 비율	교육기본통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전국지역아동센터통계조사보고서

2. 인구 영역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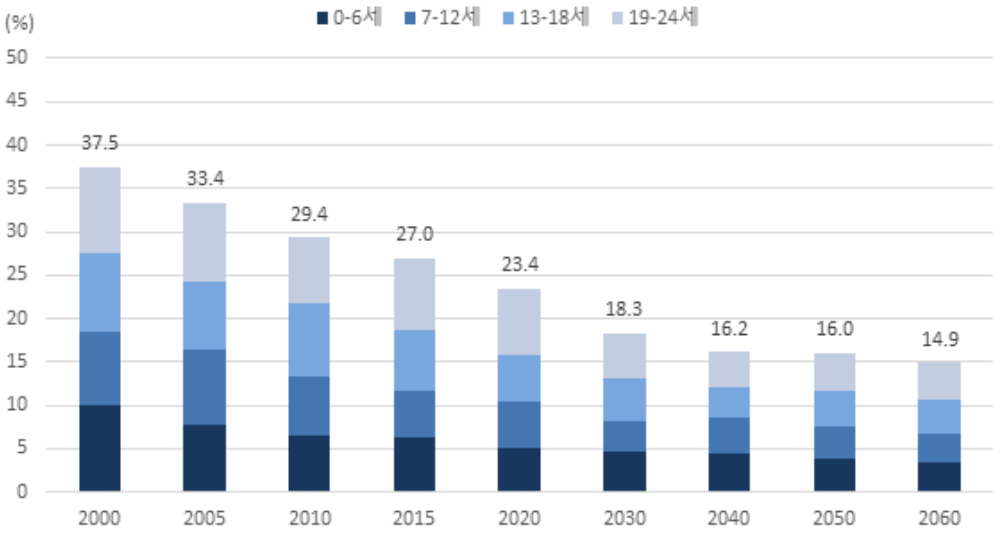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

가. 정의

전체 추계인구 대비 0-24세 추계인구 비율

나. 해설

아동·청소년의 인구 구성비는 2000년 37.5%에서 2020년 23.4%로 크게 줄었으며, 2030년에는 18.3%, 2060년에는 14.9%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 인구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0-6세 5.6%, 7-12세 5.9%, 13-18세 5.9%, 19-24세 8.4% 수준이다. 전체 인구대비 비율은 0-24세 연령대 모두 감소했으나, 0-6세의 경우 2000년 10.0%에서 2020년 5.6%로 낮아져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가량 감소하였다.



주: 1) 0-24세 인구 비율 = (0-24세 인구 ÷ 총인구) × 100.
2) 외국인 포함 인구임.
3) 2017년까지는 확정 인구이고, 2018년부터는 추계 인구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 에서 2020년 12월 5일 인출.

[그림 3-1]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2000-2060)

〈표 3-2〉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2000-2060)

(%)

연도	0-24세 인구비율	0-24세 인구 비율(%)			
		0-6세	7-12세	13-18세	19-24세
2000	37.5	10.0	8.5	9.0	10.0
2001	36.7	9.7	8.6	8.5	10.1
2002	36.0	9.3	8.8	8.2	10.2
2003	35.2	8.8	8.9	8.0	10.1
2004	34.3	8.4	8.9	8.0	9.8
2005	33.4	8.0	8.7	8.1	9.4
2006	32.4	7.6	8.5	8.3	8.9
2007	31.4	7.2	8.3	8.5	8.5
2008	30.6	7.0	8.1	8.6	8.2
2009	29.9	6.9	7.7	8.7	8.1
2010	29.4	6.8	7.3	8.8	8.1
2011	28.9	6.8	7.0	8.7	8.2
2012	28.4	6.8	6.6	8.5	8.5
2013	28.0	6.9	6.2	8.3	8.7
2014	27.5	6.9	5.9	8.1	8.8
2015	27.0	6.8	5.8	7.7	8.9
2016	26.5	6.7	5.8	7.3	9.0
2017	25.8	6.6	5.7	7.0	8.9
2018	25.0	6.3	5.8	6.6	8.8
2019	24.2	6.0	5.9	6.2	8.6
2020	23.4	5.6	5.9	5.9	8.4
2030	18.3	5.0	3.9	5.5	5.8
2040	16.2	4.7	4.5	4.0	4.3
2050	16.0	3.9	3.7	4.2	4.4
2060	14.9	3.1	3.1	3.5	3.9

주: 1) 0-24세 인구 비율 = (0-24세 인구 ÷ 총인구) × 100.
2) 외국인 포함 인구임.
3) 2017년까지는 확정 인구이고, 2018년부터는 추계 인구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3&conn_path=I3에서 2020년 12월 5일 인출.

출생아 수와 출생성비

가. 정의

출생신고 자료로 집계된 당해 연도 출생아 수와 출생아의 성비. 출생성비는 여아 출생아 100명 당 남아 출생아 수

나. 해설

2019년 전체 출생아 수는 302,676명이다. 이는 2000년 640,089명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를 의미하는 출생성비는 2000년에는 110.1이었으나, 2011년 이후에는 자연 출생성비인 105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대비 남아선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출생아 수와 출생 성비(2000-2019)

(명)

연도	출생아수	출생성비
2000	640,089	110.1
2001	559,934	109.0
2002	496,911	109.9
2003	495,036	108.6
2004	476,958	108.2
2005	438,707	107.8
2006	451,759	107.6
2007	496,822	106.2
2008	465,892	106.4
2009	444,849	106.4
2010	470,171	106.9
2011	471,265	105.7
2012	484,550	105.7
2013	436,455	105.3
2014	435,435	105.3
2015	438,420	105.3
2016	406,243	105.0
2017	357,771	106.3
2018	326,822	105.4
2019	302,676	105.5

주: 1) 출생성비 = (남자 출생아수 ÷ 여자 출생아수) × 1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01&conn_path=I3에서 2020년 8월 26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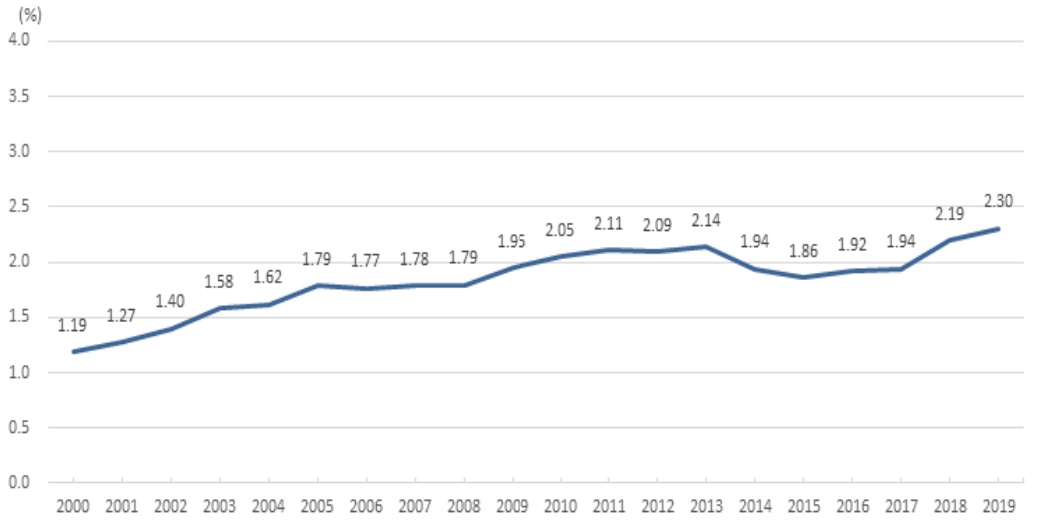
혼인외 출생아 비율

가. 정의

당해 연도 출생아 중 혼인 외(미혼모) 출생아의 비율

나. 해설

2019년 혼인 외 출생아는 6,974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출생아 대비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2000년 1.19%에서 2019년 2.30%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2009년 이후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2%내외 수준을 유지했다.



주: 혼인 외 출생아 비율 = (혼인 외 출생아수 ÷ 전체 출생아수) × 1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6&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1일 인출.

[그림 3-2] 혼인 외 출생아 비율 (2000-2019)

〈표 3-4〉 혼인 외 출생아 비율 (2000-2019)

(명, %)

연도	전체 출생아수(명)	혼인 외 출생아수(명)	혼인 외 출생아비율(%)
2000	640,089	7,614	1.19
2001	559,934	7,119	1.27
2002	496,911	6,957	1.40
2003	495,036	7,824	1.58
2004	476,958	7,729	1.62
2005	438,707	7,848	1.79
2006	451,759	7,980	1.77
2007	496,822	8,868	1.78
2008	465,892	8,362	1.79
2009	444,849	8,677	1.95
2010	470,171	9,636	2.05
2011	471,265	9,954	2.11
2012	484,550	10,141	2.09
2013	436,455	9,332	2.14
2014	435,435	8,459	1.94
2015	438,420	8,152	1.86
2016	406,243	7,781	1.92
2017	357,771	6,951	1.94
2018	326,822	7,166	2.19
2019	302,676	6,974	2.30

주: 1) 혼인 외 출생아 비율 = (혼인 외 출생아수 ÷ 전체 출생아수) × 1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6&conn _path=I3 에서 2020년 9월 1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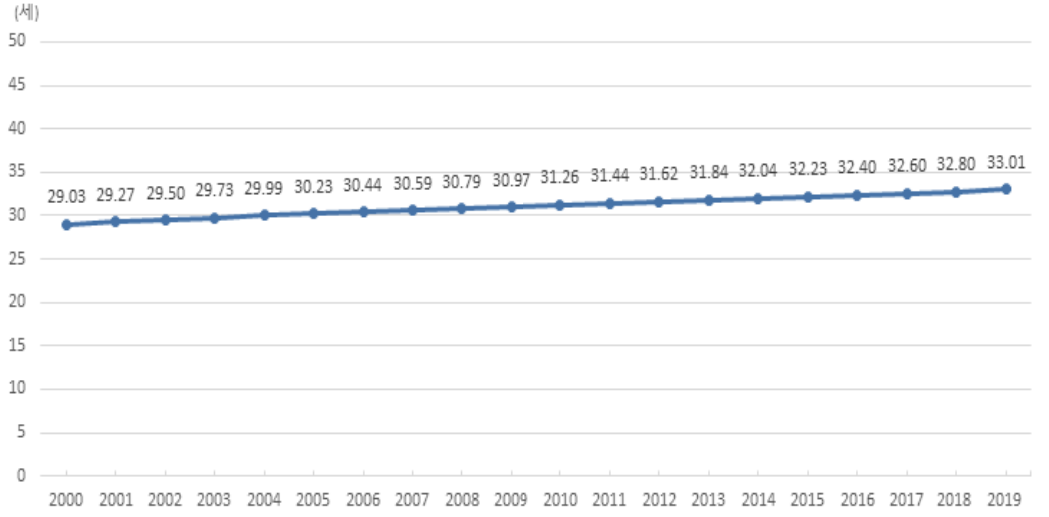
모의 출산연령

가. 정의

당해 연도 출산 여성의 평균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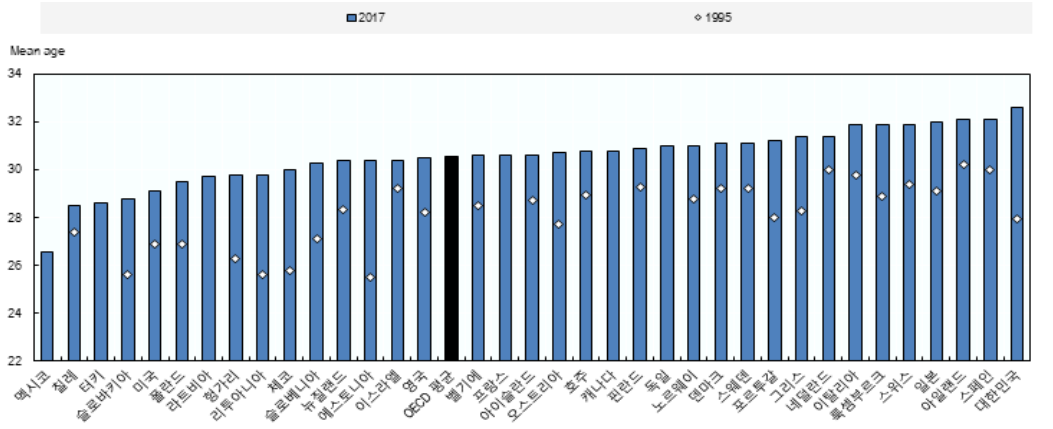
나. 해설

2019년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은 33.01세로 나타났다. 출산 여성의 평균연령은 2000년 29.03세에서 2019년 33.01세로 18년간 약 3.98세가 증가하여,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자녀의 출산연령은 2000년 27.69세에서 2019년 32.16세로 크게 늘어났으며, 둘째자녀 출산연령은 2000년 29.67세에서 2019년 33.77세로, 셋째자녀 이상의 출산연령도 2000년 32.48세에서 2019년 35.36세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회원국의 2017년 기준 평균 출산연령은 30.56세이며, 한국의 평균 출산연령은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출생성비 = (남자 출생아수 ÷ 여자 출생아수) × 1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0&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1일 인출.

[그림 3-3] 모의 출산 연령 (2000-2019)



주: 1) 칠레, 멕시코는 2014년, 호주, 미국은 2015년, 뉴질랜드, 터키는 2016년 자료임
2) OECD 평균은 36개국 기준임.
출처: OECD(2019a).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에서 2020년 8월 26일 인출.

[그림 3-4] 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연령 (1995, 2017)

〈표 3-5〉 출산자녀별 모의 출산연령 (2000-2019)

(세)

연도	전체	출산자녀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상
2000	29.03	27.69	29.67	32.48
2001	29.27	27.99	29.89	32.73
2002	29.50	28.29	30.20	32.94
2003	29.73	28.58	30.45	33.12
2004	29.99	28.84	30.77	33.33
2005	30.23	29.09	31.04	33.56
2006	30.44	29.28	31.29	33.72
2007	30.59	29.43	31.51	33.83
2008	30.79	29.61	31.69	34.01
2009	30.97	29.85	31.80	34.13
2010	31.26	30.10	32.01	34.25
2011	31.44	30.25	32.23	34.32
2012	31.62	30.50	32.40	34.38
2013	31.84	30.73	32.62	34.55
2014	32.04	30.97	32.81	34.65
2015	32.23	31.20	33.01	34.73
2016	32.40	31.37	33.19	34.88
2017	32.60	31.62	33.36	34.96
2018	32.80	31.89	33.56	35.26
2019	33.01	32.16	33.77	35.36

주: 1) 출생성비 = (남자 출생아수 ÷ 여자 출생아수) × 1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0&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1일 인출.

〈표 3-6〉 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연령 (1995, 2007)

(세)

	1995	2017		1995	2017
멕시코	-	26.58	오스트리아	27.70	30.70
칠레	27.40	28.48	호주	28.94	30.78
터키	-	28.60	캐나다	-	30.80
슬로바키아	25.60	28.80	핀란드	29.30	30.90
미국	26.87	29.13	독일	-	31.00
폴란드	26.90	29.50	노르웨이	28.80	31.00
라트비아	-	29.70	덴마크	29.20	31.10
헝가리	26.30	29.80	스웨덴	29.20	31.10
리투아니아	25.60	29.80	포르투갈	28.00	31.20
체코	25.80	30.00	그리스	28.30	31.40
슬로베니아	27.10	30.30	네덜란드	30.00	31.40
뉴질랜드	28.34	30.37	이탈리아	29.80	31.90
에스토니아	25.50	30.40	룩셈부르크	28.90	31.90
이스라엘	29.25	30.40	스위스	29.40	31.90
영국	28.20	30.50	일본	29.10	32.00
OECD평균	**-**	**30.56**	아일랜드	30.20	32.10
벨기에	28.50	30.60	스페인	30.00	32.10
프랑스	-	30.60	**대한민국**	**27.92**	**32.60**
아이슬란드	28.70	30.60			

출처: OECD(2019a).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에서 2020년 3월 26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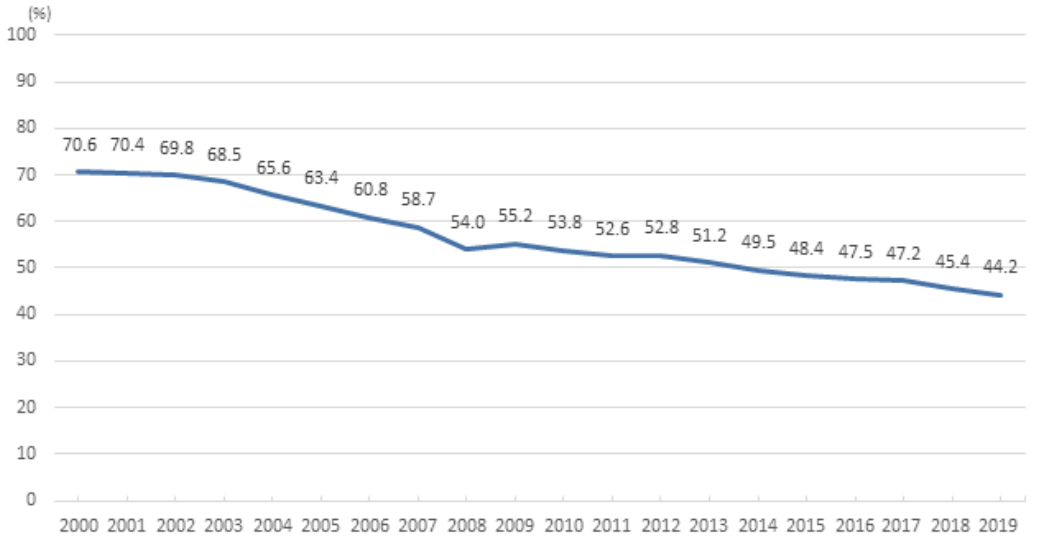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이혼 비율

가. 정의

당해 연도의 전체 이혼부부 중 미성년자녀(0-19세)를 둔 이혼부부의 비율

나. 해설

이혼한 부부 중 0-19세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율은 2000년 70.6%, 2010년 53.8%, 2019년 44.2%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녀수 별로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자녀가 1명인 부부의 이혼비율은 전체 이혼부부의 23.6%, 자녀가 2명인 부부 17.1%,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부는 3.4%로 나타났다.



주: 1) 미성년 자녀 부모이혼 비율 = (0-19세 자녀를 둔 부부 이혼건수 ÷ 전체 이혼건수) × 100.
2) 전체 이혼건수에는 자녀유무 미상이 포함됨.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07&conn_path=I3 에서 2020년 8월 26일 인출.

[그림 3-5] 미성년 자녀 부모 이혼 비율 (2000-2019)

〈표 3-7〉 미성년 자녀 부모 이혼 비율 (2000-2019)

(%)

연도	전체	자녀 수		
		1명	2명	3명 이상
2000	70.6	31.8	34.3	4.4
2001	70.4	31.3	34.7	4.5
2002	69.8	30.1	35.0	4.7
2003	68.5	28.7	35.0	4.8
2004	65.6	28.1	32.8	4.7
2005	63.4	27.3	31.4	4.7
2006	60.8	26.8	29.6	4.4
2007	58.7	26.0	28.3	4.4
2008	54.0	24.5	25.5	4.0
2009	55.2	25.4	25.7	4.1
2010	53.8	25.6	24.2	4.0
2011	52.6	25.4	23.3	3.9
2012	52.8	26.2	23.0	3.6
2013	51.2	26.1	21.4	3.7
2014	49.5	25.9	20.2	3.3
2015	48.4	25.5	19.5	3.5
2016	47.5	25.5	18.6	3.5
2017	47.2	25.2	18.5	3.5
2018	45.4	24.8	17.2	3.4
2019	44.2	23.6	17.1	3.4

주: 1) 미성년 자녀 부모이혼 비율 = (0-19세 자녀를 둔 부부 이혼건수 ÷ 전체 이혼건수) × 100.
2) 전체 이혼건수에는 자녀유무 미상이 포함됨.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07&conn_path=I3 에서 2020년 8월 26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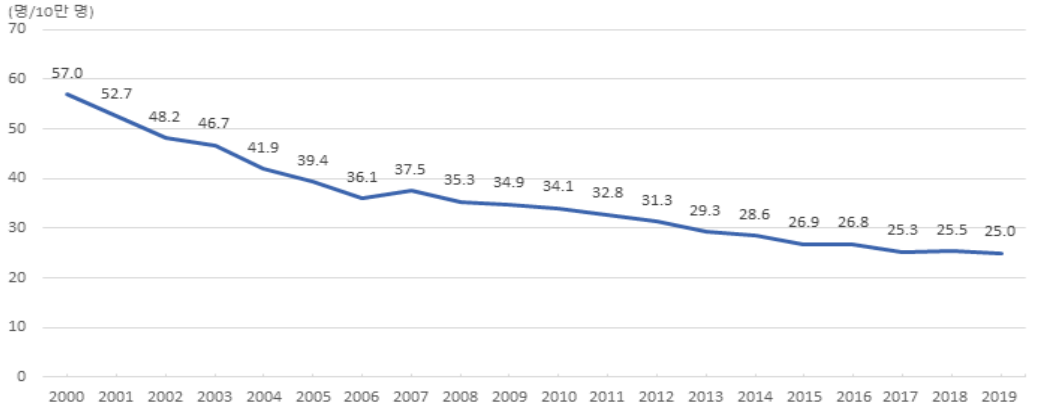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

가. 정의

0-24세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나. 해설

0-24세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00년 57.0명, 2010년 34.1명, 2019년 25.0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영아(0세)의 사망률은 2000년 484.1명에서 2019년 268.3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아동·청소년의 주요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0세의 경우는 출생전후에 발생하는 사망이 대부분으로 '출생전후 기원한 특정 병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난다. 0세는 2000년과 비교해 사망원인순위에 크게 변화가 없었고, 1-14세와 15-24세는 '운수사고'와 '추락', '익사'와 같은 사고로 인한 사망은 감소한 반면, 악성신생물(암)과 자살로 인한 사망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1-14세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9년 10만 명당 0.7명으로 3순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15-24세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9년 10만 명당 13.7명으로 사망원인 1순위이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와 함께 14세 이하에서는 가해(타살)로 인한 사망자수도 2000년(0세 1.2명 15위, 1~14세 0.7명 7위)과 비교하면 2019년 0세는 5위(4.9명), 1-14세는 4위(0.7명)로 상대적으로 순위가 증가하였다.



주: 1) 사망률 = (0-24세 사망자 수 ÷ 0-24세 인구) × 100,000. 0-24세 인구는 주민등록연앙인구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11&conn_path=I3 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그림 3-6] 아동·청소년 연령별 10만 명당 사망자 수 (2000-2019)

〈표 3-8〉 아동·청소년 연령별 10만 명당 사망자 수 (2000-2019)

(명/10만 명당)

연도	0-24세 인구비율	아동·청소년 연령별 10만 명당 사망자 수				
		0세	1-6세	7-12세	13-18세	19-24세
2000	57.0	484.1	41.7	21.0	36.6	64.9
2001	52.7	528.8	35.2	19.7	34.0	54.7
2002	48.2	509.7	38.1	17.9	29.6	49.5
2003	46.7	538.1	30.4	16.1	29.2	52.4
2004	41.9	486.9	28.7	16.0	25.5	45.0
2005	39.4	423.8	25.8	15.1	25.4	47.5
2006	36.1	407.8	24.3	12.7	24.6	41.5
2007	37.5	381.5	23.3	12.4	26.2	46.4
2008	35.3	345.5	21.2	11.8	23.7	45.4
2009	34.9	325.7	19.7	12.4	25.0	46.0
2010	34.1	345.5	17.4	10.6	23.5	44.1
2011	32.8	318.9	17.5	10.1	23.2	40.4
2012	31.3	306.8	17.9	9.7	20.6	37.3
2013	29.3	294.6	16.3	9.0	18.2	35.5
2014	28.6	310.2	13.4	7.9	20.1	32.6
2015	26.9	281.9	13.6	7.8	16.6	31.9
2016	26.8	282.1	13.5	8.1	16.7	31.8
2017	25.3	270.5	13.5	7.5	16.4	30.2
2018	25.5	280.7	11.4	7.5	17.5	32.4
2019	25.0	268.3	13.0	5.9	18.4	32.3

주: 1) 사망률 = (0-24세 사망자 수 ÷ 0-24세 인구) × 100,000. 0-24세 인구는 주민등록연앙인구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11&conn_path=I3 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표 3-9〉 아동·청소년 주요 사망원인 및 사망자 수 (2000, 2018, 2019)

(명/10만 명당)

연도		0세		1-14세		15-24세	
		사망원인	사망자	사망원인	사망자	사망원인	사망자
2000	1순위	출생전후 기원한 특정병태	217.9	운수사고	7.6	운수사고	19.5
	2순위	선천기형,변형 및 염색체이상	114.7	악성 신생물(암)	3.7	고의적 자해(자살)	8.7
	3순위	영아급사증후군	17.2	불의의 익사 및 익수	3.3	악성 신생물(암)	5.0
	4순위	심장질환	10.2	낙상(추락)	1.6	불의의익사 및 익수	3.6
	5순위	악성신생물(암)	4.2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1.4	심장질환	1.9
2018	1순위	출생전후 기원한 특정병태	142.0	악성 신생물(암)	2.0	고의적 자해(자살)	12.3
	2순위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52.5	운수사고	0.8	운수사고	4.1
	3순위	영아급사증후군	22.3	고의적 자해(자살)	0.8	악성 신생물(암)	3.2
	4순위	심장질환	3.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0.7	심장질환	0.7
	5순위	악성 신생물(암)	3.3	심장질환	0.6	불의의 익사 및 익수	0.4
2019	1순위	출생전후 기원한 특정병태	136.8	악성 신생물(암)	1.7	고의적 자해(자살)	13.7
	2순위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45.4	운수사고	0.8	운수사고	3.5
	3순위	영아급사증후군	17.0	고의적 자해(자살)	0.7	악성 신생물(암)	3.1
	4순위	심장질환	5.2	가해(타살)	0.7	심장질환	1.2
	5순위	가해(타살)	4.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0.5	불의의 익사 및 익수	0.3

주: 1) 일반사망선택분류 56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함.
2) 해외거주 사망자를 제외한, 국내 거주 사망자 수만 집계함.
3) 사망원인통계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에 사인을 집계한 것이며, 사인이 부정확한 자료는 보자보건법에 의한 신고자료와 기타 행정자료를 이용해 보완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분석.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

가. 정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가구의 비율

나. 해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2015년 47.2%에서 2018년 51.0%로 4년 사이 3.8%p가 증가하였다. 6세 이하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보다 7-12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7-12세 자녀가 있는 가구보다 13-17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어느 정도 신체적, 정서적으로 독립 가능한 시기인 아동 후기 이후 맞벌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3-10〉 자녀연령별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2015-2018)

(%)

연도	전체 (0-17세)	자녀연령별		
		6세 이하	7-12세	13-17세
2015	47.2	38.1	51.5	57.7
2016	48.4	39.6	52.7	58.5
2017	48.6	41.6	51.3	58.1
2018	51.0	44.2	54.2	59.6

주: 맞벌이가구 자녀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구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 100.
출처: 통계청(2020). 「지역별고용조사」.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3037&stts_cd=303702&freq=Y에서 2020년 8월 24일 인출.

3. 사회정책 영역 지표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비율

가. 정의

0~84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은 아동 수

나. 해설

2013년 양육수당이 취약 전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이래, 양육수당 수급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전체 미취학 아동인구 대비 32.7%의 아동이 양육수당을 수급했는데, 2019년의 경우 수급률이 23.4%로 나타나 2013년보다 9.3%p가 감소하였다.

월령별 양육수당 수급률을 비교해보면 0~11개월 영유아가 가장 높았으며 월령이 높아질수록 수급률은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9년 기준 0~11개월 영유아의 83.3%, 12~23개월 미만 영유아의 59.2%, 24~35개월 영유아의 17.3%가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6개월 이상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수급률은 6.3~7.4%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표 3-11〉 월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아동 수(2013-2019)

(명, %)

구분	계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13	1,060,484	32.7	385,585	83.0	346,952	73.5	145,049	30.2
2014	1,012,336	31.4	383,389	87.8	309,908	66.9	145,075	30.8
2015	1,009,346	31.7	386,361	87.5	310,212	71.3	132,195	28.6
2016	933,153	29.5	363,178	84.6	305,911	69.1	117,302	27.0
2017	836,290	27.0	317,981	82.5	274,578	64.0	106,954	24.2
2018	745,677	25.2	291,106	84.2	236,328	61.7	88,440	20.7
2019	658,450	23.4	269,362	83.3	203,769	59.2	66,223	17.3
구분	36-47개월		48-59개월		60-71개월		72개월~취학 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13	63,164	14.3	38,360	8.5	40,445	8.4	40,929	9.0
2014	60,126	12.5	39,152	8.8	34,803	7.8	39,883	8.3
2015	66,546	14.1	40,139	8.4	37,894	8.6	35,999	8.0
2016	47,840	10.3	34,711	7.4	30,609	6.4	33,602	7.6
2017	43,300	10.0	29,134	6.3	32,163	6.9	32,180	6.8
2018	39,719	9.0	28,089	6.5	28,401	6.2	33,594	7.2
2019	31,442	7.4	27,913	6.3	29,534	6.8	30,207	6.6

주: 1) 가정양육수당은 2011년부터 보육통계에서 집계되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만 지급되었음.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지원되기 시작함에 따라 2013년 자료부터 제공함.
2) 장래인구추계는 2019년 3월에 공표한 자료이며, 증위추계를 사용함. 2001~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 수치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동 될 수 있음.
3) 비율 =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 수 * 100 / 장래인구추계(1세 연령별)

출처: 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53939 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누리과정 지원율 및 예산

가. 정의

만 3-5세 취원대상아 중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비율

나. 해설

최근 5년간 누리과정 지원율은 90-93% 수준이다. 만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3년 이후 만 4-5세 대비 만 3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이 증가했다. 만 3세 누리과정 지원율은 2014년 88.5%였는데 5년이 경과한 2018년 92.0%로 3.5%p 증가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2]이다. 따라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의 자녀 등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아동들이 다수일 수 있다. 더욱이 보육료 지원제도는 아동의 보호자 등 신청권자에 의해 지원되는 시스템이고, 특히 난민[3]이나 다문화[4] 또는 장애아[5]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방문을 통해서만 다문화보육료나 장애아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다[6].

누리과정 지원율 산출 시 취원아 수는 매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보고한 기초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통계 및 보육통계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과 누리과정 지원율은 상이하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율 기초자료인 취원대상아 수와 취원아 수는 미공개 상태이며, 지역이나 성별 등 하위수준 자료 확인이 불가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원아수가 일별, 월별 변동이 잦아 특정 기준일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 누리과정지원비 정산(결산)의 기준이 되는 취원아 수가 명료하게 산출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 e-나라지표가 공개하는 누리과정 지원율은 누리과정지원비 정산액 또는 결산액에 따라 산출된 월 평균 개념의 취원아 수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지표 해석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e-나라지표는 누리과정 지원율과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사회 아동의 삶의 질에 더욱 근접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지원율, 지원액 지표와 더불어 보육시설 규모의 차이, 보육교사의 처우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아동 1인

2) 보건복지부(2019b). 2019년 보육사업안내.
3)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아동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4) 혼인관계증명서
5) 장애인 등록증, 장애소견 의사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 중 1부
6) 보건복지부(2019b). 2019년 보육사업안내.

당 누리과정 지원액,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등 아동이 실질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리과정 지원율 지표를 해석함에 있어 만 3-5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다소 거친 수준에서 해석될 수 있다.

〈표 3-12〉 누리과정 지원율 및 예산(2014-2018)

(%, 억원)

구분	지원율				예산
	만 3세	만 4세	만 5세	전체	
2014	88.5	94.9	94.1	92.4	-
2015	93.3	91.4	95.0	93.2	-
2016	88.5	91.5	90.4	90.1	40,420
2017	96.6	91.9	91.2	93.1	39,409
2018	92.0	93.1	94.4	93.2	38,927

주: 1) 누리과정 지원율 = (취원아 ÷ 취원대상아) X 100.
2) 취원아는 시도교육청 보고자료 및 보육통계 자료이고, 취원대상아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임.
출처: 통계청. 「보육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6에서 2019년 7월 9일 인출.

〈표 3-13〉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유아교육(ISCED 02) 지출(2005, 2010, 2015)

(% of GDP)

구분	GDP 대비 유아교육 지출		
	2005	2010	2015
한국	0.11	0.27	0.56
핀란드	0.69	0.79	0.86
프랑스	0.67	0.70	0.74
독일	0.47	0.52	0.56
일본	0.20	0.21	0.20
영국	(M)	(M)	0.41
미국	0.38	0.48	0.42

주: 1) Pre-primary education (ISCED2011 level 0 programme 2)
2) 국공립, 사립 포함
3) 국가별 ECEC 지출 차이는 유아교육 기간과 관련이 있음.
4) M(Missing value; data cannot exist)
출처: OECD(2019b). Provid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3d0e96c7-en에서 2019년 11월 15일 인출.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취원율 ① 어린이집 이용률

가. 정의

만0-5세 전체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

나. 해설

어린이집 이용률은 만0-5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2008년 34.6%였던 이용률이 이후 매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저출산 정책의 큰 축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었다. 정부 정책의 확대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자 중심의 비용 지원 정책이 실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률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2년 0-2세 무상보육이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지원됨에 따라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2011년 0세 15.9%였던 것이 19.0%, 1세 56.1% → 68.3%, 2세 73.5% → 83.5%로 증가하였다.

〈표 3-14〉 어린이집 이용률(2008-2019)

(%)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08	34.6	10.6	35.9	55.8	48.5	39.1	35.4
2009	36.4	12.1	40.4	59.9	52.4	41.0	30.9
2010	39.9	14.0	49.3	67.2	54.3	41.5	31.5
2011	42.0	15.9	56.1	73.5	55.0	40.8	31.5
2012	45.6	19.0	68.3	83.5	55.4	39.3	33.3
2013	45.6	16.3	68.7	84.9	57.2	39.4	32.7
2014	46.6	16.1	70.1	86.3	56.1	39.6	33.2
2015	45.6	15.9	70.1	85.8	53.3	38.1	34.5
2016	46.0	16.9	72.5	87.8	53.9	37.9	34.1
2017	47.6	18.5	74.7	89.1	53.7	38.5	34.2
2018	48.7	18.7	77.6	89.7	53.0	38.4	34.6
2019	50.1	20.2	81.1	91.3	54.1	39.4	35.1

주: 1) 어린이집 0세는 영유아의 연령이 아닌 반의 개념으로 매년 말 기준으로 생활연령 0,1세가 모두 해당
2) 6세 이상 과연령은 5세에 포함함.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2019년 12월말 기준).
2) 행정자치부(각 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만 0-6세(12월 31일 기준).
출처: 1)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 _NN005&conn_path=I3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각 연도. http://27.101.213.4/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취원율 ② 유치원 취원율

가. 정의

만 3-5세 아동 중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

나. 해설

유치원 취원율(어린이집이 제외)은 2000년 26.2%에서 2018년 50.6%로 크게 증가했다. 2000년 대비 2018년 연령별 유치원 취원율을 살펴보면 만 3세 3.8배, 만 4세 2.1배, 만 5세 1.4배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유치원 취원율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만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3년을 전후해 만 3세 유치원 취원율이 200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 영유아 취원율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으로,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 level 0에 해당하는 영유아 취원율은 만 3세 96.7%, 만 4세 93.0%, 만 5세 89.9%로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 크게 미달되지 않는다.

〈표 3-15〉 유치원 취원율(2000-2018)

(%)

구분	만 3세	만 4세	만 5세	전체
2000	9.7	25.0	43.1	26.2
2001	10.8	25.1	44.2	27.1
2002	12.0	26.8	45.2	28.4
2003	12.2	27.5	46.7	29.0
2004	12.8	27.3	46.6	29.1
2005	14.5	29.6	46.5	31.1
2006	16.2	33.2	49.1	34.0
2007	19.5	35.7	52.9	36.4
2008	22.4	38.6	51.7	38.0
2009	23.1	41.8	52.8	39.6
2010	24.5	41.8	55.3	40.3
2011	27.7	43.3	53.9	41.1
2012	29.1	47.6	55.5	44.2
2013	32.3	52.1	57.7	47.7
2014	32.5	51.5	59.6	47.5
2015	36.4	52.0	58.9	48.9
2016	37.7	53.8	57.5	49.8
2017	37.0	55.5	58.8	50.7
2018	37.3	53.4	60.6	50.6

주: 1) 유치원 취원율 = (취원 아동 수 ÷ 취원적령인구) X 100.
2) 취원적령은 만 3-5세임.
3) 2013년 이전까지 원아수 만 3세(만 3세 이하 포함), 만 5세(만 5세 이상 포함).
4) 취원적령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6.공표 기준)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에서 2019년 7월 8일 인출.

〈표 3-16〉 OECD 주요국의 연령별 영유아 취원율(2015-2016)

(%)

구분	만 3세		만 4세		만 5세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한국	92.3	96.7	90.6	93.0	92.4	89.9
프랑스	99.5	99.4	100.0	100.0	99.5	99.8
일본	79.8	84.4	94.3	94.7	96.9	96.0
영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Early childhood education (ISCED2011 level 0).
출처: OECD. OECD.Stat(Enrolment rate by ag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102289에서 2019년 8월 8일 인출.

보육료 지원 아동비율

가. 정의

만 0~5세 전체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

나. 해설

제한적인 보육료 지원이 시행되었던 2009년 28.7%에 그쳤던 보육료 지원 아동비율은 전 계층의 미취학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보육료 지원으로 확대되었던 2013년 53.1%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이후 2017년까지 미세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19년 54.0%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을 받았다.

보육료 지원 아동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 아동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2세 아동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세, 3세, 4세, 5세의 순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3~5세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지원에 따라 만 3세 이상의 아동은 유치원으로 이동하여 유아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 보육료지원 아동비율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7〉 연령별 보육료지원 아동 수(2009-2018)

(명, %)

구분	계		0세		1세		2세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09	795,121	28.7	72,730	15.0	138,265	30.3	175,710	40.4
2010	878,880	32.0	87,934	19.5	160,377	33.1	222,257	48.8
2011	991,310	36.6	112,933	25.4	188,198	41.8	244,469	50.6
2012	1,351,232	49.3	175,352	36.5	320,003	72.1	371,409	82.5
2013	1,474,645	53.1	146,347	31.0	323,921	67.5	398,996	90.0
2014	1,482,767	53.2	136,768	29.5	339,448	72.0	407,407	84.9
2015	1,438,167	52.5	135,498	31.2	305,815	66.1	416,195	88.3
2016	1,433,789	52.5	139,224	31.5	315,244	72.5	383,287	82.8
2017	1,431,940	52.8	138,025	32.2	327,865	74.2	387,735	89.3
2018	1,395,933	53.4	125,169	32.7	315,134	73.6	393,818	89.2
2019	1,343,679	54.0	124,377	36.2	290,341	75.9	370,541	86.6

구분	3세		4세		5세 이상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09	148,448	33.5	129,914	27.3	130,054	27.3
2010	162,554	37.4	124,337	28.1	121,421	25.6
2011	196,531	43.2	133,908	30.9	115,271	26.1
2012	185,173	38.4	142,523	31.4	156,772	36.2
2013	254,383	56.6	183,494	38.1	167,504	37.0
2014	263,520	59.5	175,742	39.2	159,882	33.3
2015	251,154	52.4	178,733	40.4	150,772	33.7
2016	260,673	55.4	178,387	37.2	156,974	35.6
2017	233,733	50.7	186,080	39.7	158,502	33.3
2018	229,914	53.0	166,957	36.3	164,941	35.2
2019	237,026	53.8	170,995	39.5	150,399	32.7

주: 1) 보육료 지원은 2008년부터 보육통계에서 집계되었으나, 전 계층에게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었음. 2009년부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지원되기 시작함에 따라 2009년 자료부터 제공함.
2) 장래인구추계는 2019년 3월에 공표한 자료이며, 증위추계를 사용함. 2001~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 수치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동 될 수 있음.
3) 비율 = 보육료 수급 아동 수 * 100 / 장래인구추계(1세 연령별)
4) 보육료 지원대상의 연령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에 등록되어 있는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0세는 인구추계의 1세를 의미함. 5세 이상은 5세 연령 이외에 취학유예아동을 포함하고 있으나, 비율분석에서는 취학유예아동을 별도로 파악할 수 없어 6세를 기준으로 산출함.

출처: 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53939 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가. 정의

전체 아동·청소년(만 0세~24세)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5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나. 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청소년 비율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빈곤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 해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청소년 비율은 2001년 2.6%에서 2002년 2.4%로 감소한 이후 2003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3.2%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 함께 기존의 통합급여체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졌으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없어지거나(교육급여) 대폭 완화되었다. 그 결과, 2015년의 기초수급 아동·청소년 수는 52만 4,209명, 전체 아동·청소년 수 대비 3.8%를 차지하였으며, 2014년 수급아동·청소년 수 대비 6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아동·청소년 비율은 2016년 3.8%, 2017년 3.4%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2019년까지 3.4%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수급아동·청소년의 분포에서는 2019년 기준 15-19세 청소년의 수급률이 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14세 아동·청소년이 5.0%로 높았으며, 0-4세 아동이 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초등고학년 및 중고등학령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의 높은 수급률은 수급조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양의무자기준이 교육급여에서 가장 먼저 폐지되었던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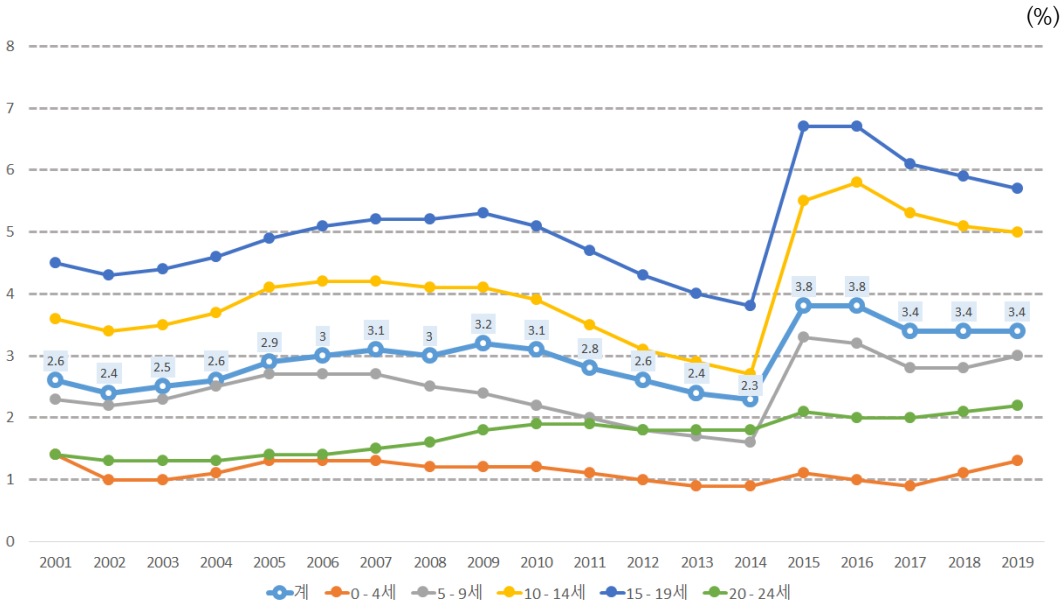
〈표 3-18〉 아동·청소년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2001-2019)

(명, %)

구분	장래인구 추계	수급아동 계		0 - 4세		5 - 9세		10 - 14세		15 - 19세		20 - 24세	
	전체아동 수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01	17,401,216	456,616	2.6	44,108	1.4	82,092	2.3	114,807	3.6	161,365	4.5	54,244	1.4
2002	17,134,920	413,802	2.4	28,907	1.0	76,370	2.2	111,018	3.4	145,616	4.3	51,891	1.3
2003	16,847,395	416,139	2.5	29,005	1.0	79,047	2.3	116,314	3.5	140,089	4.4	51,684	1.3
2004	16,509,921	432,666	2.6	30,641	1.1	82,724	2.5	127,251	3.7	141,729	4.6	50,321	1.3
2005	16,092,101	464,888	2.9	32,015	1.3	87,408	2.7	143,017	4.1	150,698	4.9	51,750	1.4
2006	15,670,071	471,503	3.0	30,757	1.3	85,431	2.7	147,672	4.2	158,400	5.1	49,243	1.4
2007	15,278,941	468,795	3.1	29,405	1.3	79,163	2.7	144,829	4.2	165,833	5.2	49,565	1.5
2008	14,987,697	457,122	3.0	27,073	1.2	70,251	2.5	138,023	4.1	169,986	5.2	51,789	1.6
2009	14,751,083	466,872	3.2	28,338	1.2	65,428	2.4	135,623	4.1	179,584	5.3	57,899	1.8
2010	14,547,281	445,080	3.1	27,106	1.2	56,051	2.2	124,724	3.9	176,277	5.1	60,922	1.9
2011	14,415,669	407,325	2.8	25,014	1.1	47,787	2.0	109,979	3.5	163,648	4.7	60,897	1.9
2012	14,281,756	364,650	2.6	22,412	1.0	41,804	1.8	93,517	3.1	146,939	4.3	59,978	1.8
2013	14,136,193	337,810	2.4	20,871	0.9	37,804	1.7	81,506	2.9	136,087	4.0	61,542	1.8
2014	13,960,827	315,603	2.3	20,428	0.9	34,928	1.6	71,185	2.7	125,294	3.8	63,768	1.8
2015	13,764,119	524,209	3.8	24,242	1.1	73,176	3.3	137,462	5.5	216,066	6.7	73,263	2.1
2016	13,556,616	510,749	3.8	21,988	1.0	73,282	3.2	133,922	5.8	209,498	6.7	72,059	2.0
2017	13,236,395	455,997	3.4	19,886	0.9	65,139	2.8	120,662	5.3	181,195	6.1	69,115	2.0
2018	12,903,197	441,012	3.4	21,744	1.1	64,948	2.8	115,363	5.1	165,861	5.9	73,096	2.1
2019	12,519,351	431,184	3.4	24,198	1.3	68,695	3.0	112,100	5.0	151,038	5.7	75,153	2.2

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01년부터 집계됨
2) 장래인구추계는 2019년 3월에 공표한 자료이며, 증위추계를 사용함. 2001~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 수치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동 될 수 있음.
3) 비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5세 연령별)x100/장래인구추계(5세 연령별)

출처: 1)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vw_cd=MT_OTITLE&list_id=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2) 통계청.「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01년부터 집계됨.
2) 장래인구추계는 2019년 3월에 공표한 자료이며, 증위추계를 사용함. 2001~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 수치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동 될 수 있음.
3) 꺾은선그래프 비율(총계 비율)=(각 연도 기초생활보장 아동·청소년 수/각 연도 아동·청소년 수)x100; 꺾은선그래프 비율(연령별 비율)= (각 연도 5세 단위 기초생활보장 아동·청소년 수/각 연도 5세 단위 아동·청소년 수)x100

출처: 1)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vw_cd=MT_OTITLE&list_id=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2) 통계청.「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그림 3-7]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2001-2019)

아동·청소년 10만 명 당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가. 정의

0~18세 아동 10만 명 당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2007년 3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로 변경되었으며 소아청소년의 대상연령은 보통 여자 18세, 남자 20세로 규정됨.

나. 해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2,227개소로 2005년 2,212개소 대비 큰 폭의 변동 없이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반면,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과 아동 수의 감소에 따라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아동·청소년과 의원 비율은 2005년 18.9개소에서 2019년 26.3개소로 39.2%(7.4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아동·청소년 10만 명 당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200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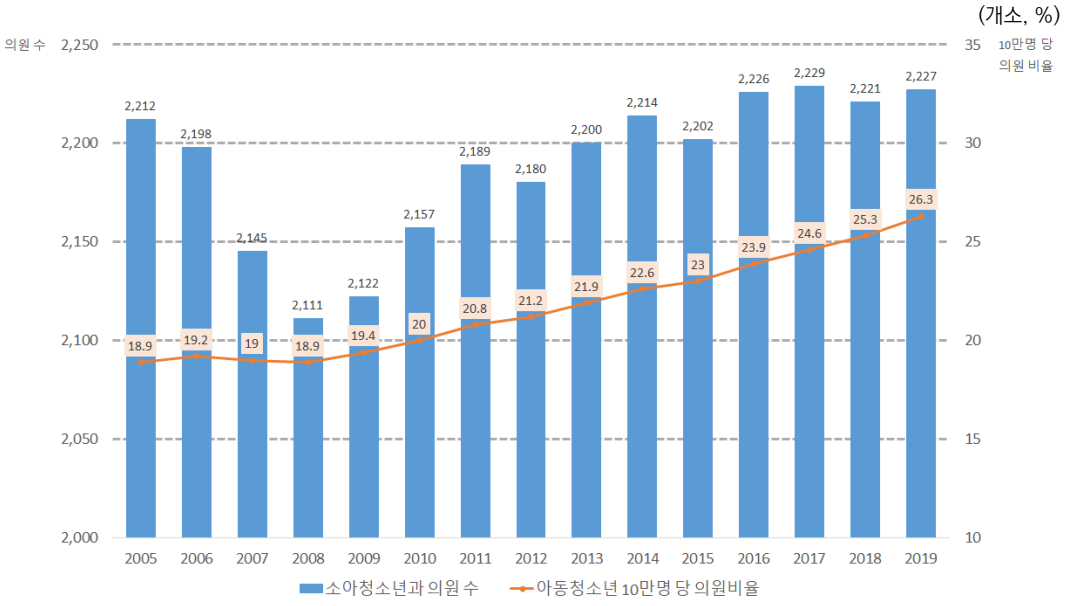
(개소, %)

구분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아동·청소년 10만 명 당 의원비율
2005	2,212	18.9
2006	2,198	19.2
2007	2,145	19.0
2008	2,111	18.9
2009	2,122	19.4
2010	2,157	20.0
2011	2,189	20.8
2012	2,180	21.2
2013	2,200	21.9
2014	2,214	22.6
2015	2,202	23.0
2016	2,226	23.9
2017	2,229	24.6
2018	2,221	25.3
2019	2,227	26.3

주: 1)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연도 말 기준임.
2) 장래인구추계는 2019년 3월에 공표한 자료이며, 증위추계를 사용함. 2001~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은 다음 인구추계시 변동 될 수 있음.
3)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의원비율 =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1세 연령별)x100000 / 장래인구추계(1세 연령별)
4) 소아청소년과 이용연령은 남자는 12~20세, 여자 10~18세까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비율계산시 인구추계 기준은 0-18세를 기준으로 산출함.
출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5020000&brdScnBltNo=4&brdBltNo=2312&pageIndex=1에서 2021년 1월 19일 인출.

2) 통계청.「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19년 12월 6일 인출.



주: 1)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년도 말 기준임.

2) 꺾은선그래프 비율=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1세 연령별)x100000 / 장래인구추계(1세 연령별)

3) 소아청소년과 이용연령은 남자는 12~20세, 여자 10~18세까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비율계산시 인구추계 기준은 0-18세를 기준으로 산출함.

출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5020000&brdScnBltNo=4&brdBltNo=2312&pageIndex=1에서 2021년 1월 19일 인출.

2) 통계청.「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21년 01월 19일 인출.

[그림 3-8]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및 비율(2005-2019)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①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

가. 정의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교사 수 대비 학생 수

나. 해설

지난 20년간 모든 학교급에서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며,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3.6명, 초등학교 17.0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1.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00년 32.4명에서 2019년 17.0명으로 약 16명 감소했다. 또한 교장, 교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이 모두 포함된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교원 수 증가뿐만 아니라 학생 수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대비 2019년 학생 수 감소는 초등학교 31.7%, 중학교 30.4%, 고등학교 31.9%였던 반면 교과교사는 초등학교 29.9%, 중학교 14.0%, 고등학교 24.1% 증가했다.

한편 모든 학교급에서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교원 1인당 학생 수 대비 약 2-3명 많다. 초등학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4.6명인데 반해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7.0명으로 약 2-3명 차이나고, 중·고등학교는 약 1-2명 차이난다.

OECD 주요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2013-2018)를 살펴보면,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다만 OECD는 주 업무가 수업인 교사이고, 시간제 교사 등은 전일제 환산치를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전일제 교사 기준으로 제출하고 있어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표 3-20〉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2000-2019)

(명)

구분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0	23.0	32.4	21.6	20.9	19.5	28.7	20.1	19.9
2001	22.1	32.3	21.1	19.3	18.8	28.7	19.6	18.3
2002	21.6	31.6	20.8	16.5	18.5	28.1	19.3	15.7
2003	21.0	30.5	20.0	16.0	18.0	27.1	18.6	15.3
2004	20.8	29.5	20.4	15.8	17.9	26.2	19.0	15.0
2005	20.2	28.4	20.8	16.0	17.5	25.1	19.4	15.1
2006	19.6	27.2	20.9	15.9	17.0	24.0	19.4	15.1
2007	18.7	26.2	20.7	16.2	16.2	22.9	19.1	15.3
2008	18.0	24.6	20.4	16.5	15.5	21.3	18.8	15.5
2009	17.5	22.9	20.0	16.7	15.2	19.8	18.4	15.7
2010	17.1	21.5	19.8	16.6	14.8	18.7	18.2	15.5
2011	16.9	20.0	18.9	15.8	14.6	17.3	17.3	14.8
2012	16.6	18.8	18.3	15.5	14.5	16.3	16.7	14.4
2013	16.2	17.7	17.7	15.2	14.3	15.3	16.0	14.2
2014	15.4	17.3	16.8	14.7	13.4	14.9	15.2	13.7
2015	15.2	17.2	15.9	14.2	13.4	14.9	14.3	13.2
2016	15.2	16.9	14.8	13.9	13.3	14.6	13.3	12.9
2017	14.7	16.8	14.1	13.3	12.9	14.5	12.7	12.4
2018	14.1	16.9	13.6	12.4	12.3	14.5	12.1	11.5
2019	13.6	17.0	13.2	11.5	11.9	14.6	11.7	10.6

주: 1)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 = (학생 수 ÷ 교과교사 수).
2) 교과교사에는 보직교사, 교사, 기간제교사(시간강사 제외) 포함됨
3)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 수 ÷ 교원 수).
4) 교원에는 교장, 교감,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간제교사 등이 포함됨(시간강사 제외).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에서 2020년 9월 10일 인출.

〈표 3-21〉 OECD 주요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2013-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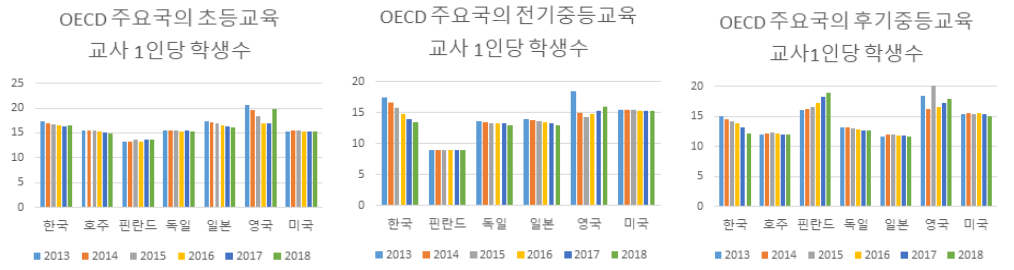
(명)

구분		한국	호주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초등교육	2013	17.3	15.6	13.2	19.7	15.6	17.4	20.7	15.3
	2014	16.9	15.6	13.3	19.6	15.4	17.1	19.6	15.4
	2015	16.8	15.4	13.6	19.7	15.4	16.9	18.4	15.4
	2016	16.5	15.2	13.3	19.7	15.3	16.6	16.9	15.2
	2017	16.4	15.1	13.7	19.5	15.4	16.4	16.9	15.2
	2018	16.5	14.9	13.6	19.2	15.3	16.2	19.9	15.2
전기중등교육	2013	17.5	(x)	9.0	14.4	13.6	13.9	18.5	15.4
	2014	16.6	(x)	8.9	14.4	13.4	13.8	15.0	15.5
	2015	15.7	(x)	9.0	14.4	13.3	13.6	14.3	15.4
	2016	14.7	(x)	9.0	14.5	13.2	13.4	14.8	15.3
	2017	14.0	(x)	8.9	14.4	13.2	13.3	15.2	15.3
	2018	13.5	(x)	8.9	14.4	13.0	13.0	15.9	15.2
후기중등교육	2013	15.1	12.0	16.0	11.1	13.2	11.7	18.5	15.4
	2014	14.5	12.1	16.2	11.1	13.1	11.9	16.3	15.5
	2015	14.1	12.3	16.5	11.1	13.0	12.0	26.1	15.4
	2016	13.8	12.1	17.2	11.4	12.9	11.8	16.5	15.5
	2017	13.2	12.0	18.2	11.5	12.7	11.8	17.2	15.4
	2018	12.2	11.9	18.9	11.4	12.6	11.7	18.0	15.1

주: 1) 초등교육(ISCED level 1), 전기중등교육(ISCED level 2), 후기중등교육(ISCED level 3)
2) M(Missing value; data cannot exist), x(Data included in another category)

출처: OECD. OECD Stat(Student-teacher ratio).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9503 에서 2020년 9월 30일 인출.

(%)



출처: OECD. OECD Stat(Student-teacher ratio).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9503 에서 2020년 9월 30일 인출.

[그림 3-9] OECD 주요국의 교사(초등, 전기중등, 후기중등) 1인당 학생 수(2013-2018)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② 학급당 학생 수

가. 정의

학교급별 학급 수 대비 학생 수

나. 해설

지난 20년간 모든 학교급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크게 개선되었고, 2019년 유치원 17.0명, 초등학교 22.2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는 2000년 42.7명에서 2019년 24.5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학급당 학생 수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출생률 저하 및 학생 수 감소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자율고 26.5명, 일반고 25.2명, 특목고 22.8명, 특성화고 21.3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까지 인문계고 대비 전문계고 학급당 학생 수는 5-6명 적었던 반면 2011년 이후 특성화고 및 특목고 학급당 학생 수가 일반고 및 자율고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의 학급당 학생 수(2013-2018)를 살펴보면, 한국의 초등교육 및 전기중등교육 단계의 학급당 학생 수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지만 핀란드 등과 비교해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표 3-22〉 학급당 학생 수(2000-2019)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인문계고	전문계고
2000	26.3	35.8	38.0	42.7	-	-	-	-	44.1	40.3
2001	25.8	35.6	37.3	39.7	-	-	-	-	41.6	36.4
2002	25.5	34.9	36.7	33.9	-	-	-	-	34.7	32.2
2003	25.0	33.9	34.8	33.1	-	-	-	-	34.1	31.0
2004	24.6	32.9	35.1	32.7	-	-	-	-	33.8	30.2
2005	24.2	31.8	35.3	32.7	-	-	-	-	33.9	30.0
2006	23.7	30.9	35.3	32.5	-	-	-	-	33.7	29.9
2007	22.7	30.2	35.0	33.1	-	-	-	-	34.3	30.1
2008	21.9	29.2	34.7	33.7	-	-	-	-	35.1	30.0
2009	21.6	27.8	34.4	34.2	-	-	-	-	35.9	29.8
2010	21.0	26.6	33.8	33.7	-	-	-	-	35.5	29.1
2011	20.9	25.5	33.0	33.1	34.7	28.4	28.5	33.5	-	-
2012	21.6	24.3	32.4	32.5	34.2	26.7	28.0	32.3	-	-
2013	21.5	23.2	31.7	31.9	33.6	25.8	27.6	31.5	-	-
2014	19.7	22.8	30.5	30.9	32.4	25.0	26.9	30.7	-	-
2015	20.0	22.6	28.9	30.0	31.3	24.4	26.4	30.3	-	-
2016	19.7	22.4	27.4	29.3	30.6	24.0	25.7	30.2	-	-
2017	19.0	22.3	26.4	28.2	29.3	23.7	24.7	29.6	-	-
2018	17.9	22.3	25.7	26.2	27.1	23.1	23.0	28.1	-	-
2019	17.0	22.2	25.1	24.5	25.2	22.8	21.3	26.5	-	-

주: 1) 학급당 학생 수 = (학생 수 ÷ 학급 수).
2) 2011년 이후 고등학교 유형 변경.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에서 2020년 9월 10일 인출.

〈표 3-23〉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2019)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전체	17.0	22.2	25.1	24.5	25.2	22.8	21.3	26.5
서울	18.6	22.6	23.7	25.0	25.1	25.5	22.6	27.8
부산	19.3	22.5	24.8	23.1	24.0	22.2	20.7	24.0
대구	19.0	23.1	24.0	24.7	25.1	23.1	23.0	26.0
인천	18.1	23.0	25.8	24.0	24.5	21.8	22.4	25.7
광주	18.2	21.9	24.1	27.1	27.9	21.1	24.7	27.9
대전	17.1	21.3	25.8	24.4	24.3	22.5	21.2	30.3
울산	18.4	23.0	25.2	24.2	24.7	19.7	23.8	25.7
세종	16.0	21.0	22.6	22.7	23.3	18.1	19.1	25.0
경기	16.1	24.7	28.7	25.4	25.9	26.0	22.3	26.7
강원	15.9	17.6	22.1	22.8	24.2	21.4	18.6	13.9
충북	16.1	20.2	24.2	25.1	26.7	20.3	22.5	26.1
충남	16.5	20.4	25.1	24.8	26.4	20.6	20.1	26.3
전북	13.5	19.0	23.6	23.5	24.8	20.2	19.0	29.0
전남	13.3	18.4	22.2	21.8	23.7	19.7	17.8	25.6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경북	16.7	20.4	21.4	22.2	22.9	21.7	19.3	24.5
경남	18.1	21.2	24.7	24.1	25.1	21.5	19.4	25.6
제주	21.5	22.8	26.4	28.1	29.7	21.7	22.7	-

주: 1) 학급당 학생 수 = (학생 수 ÷ 학급 수).
2) 2011년 이후 고등학교 유형 변경.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0).「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에서 2020년 9월 1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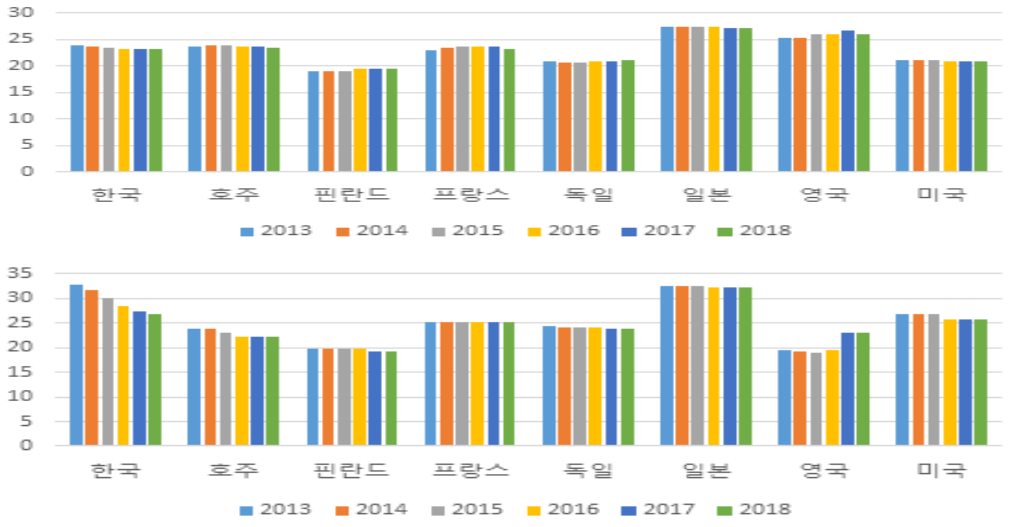
〈표 3-24〉 OECD 주요국의 학급당 학생 수(2013-2018)

(명)

구분	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	24.0	23.6	23.4	23.2	23.1	23.1	32.8	31.6	30.0	28.4	27.4	26.7
호주	23.7	23.9	23.8	23.7	23.6	23.5	23.7	23.8	22.9	22.2	22.2	22.2
핀란드	19.0	19.0	19.0	19.6	19.6	19.6	19.7	19.7	19.7	19.7	19.1	19.1
프랑스	22.9	23.5	23.6	23.7	23.7	23.3	25.3	25.3	25.3	25.1	25.2	25.3
독일	20.8	20.7	20.7	20.8	20.9	21.0	24.3	24.1	24.1	24.0	23.9	23.9
일본	27.4	27.4	27.3	27.3	27.2	27.2	32.6	32.5	32.4	32.3	32.2	32.1
영국	25.4	25.3	26.0	25.9	26.7	26.0	19.5	19.1	19.0	19.6	23.1	23.1
미국	21.1	21.1	21.1	20.8	20.8	20.9	26.7	26.7	26.7	25.7	25.7	25.7

주: 초등교육(ISCED level 1), 전기중등교육(ISCED level 2)
출처: OECD. OECD.Stat(Average class siz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9502에서 2020년 9월 30일 인출.

(%)



출처: OECD. OECD.Stat(Average class siz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9502에서 2020년 9월 30일 인출.

[그림 3-10] OECD 주요국의 초등 및 전기중등 교육 학급당 학생 수 (2013-2018)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가. 정의

만 0-17세 아동인구 10만 명 중 당해 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

○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나. 의의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아동보호정책의 개입방향을 검토하고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다. 해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수는 2000년 9,085명에서 2003년 10,222명으로 증가했으며 이후 2018년 3,918명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 4,047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아동인구 10만 명당 보호대상아동발생률은 2000년 75.2에서 2010년까지 85.4로 증가세를 유지하다 2011년 76.1로 감소 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 48.0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19년 51.3으로 소폭 상승했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별 발생률을 살펴보면 학대가 36.7%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이혼과 미혼부모, 혼외자가 각각 18.2%,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미혼부모, 혼외자(46.1%)는 200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학대에 의한 보호아동의 발생률은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의 조치는 시설과 가정보호로 대별되는데, 비밀입양위주의 입양문화,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입양, 가정위탁 등의 가정보호보다는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등의 아동시설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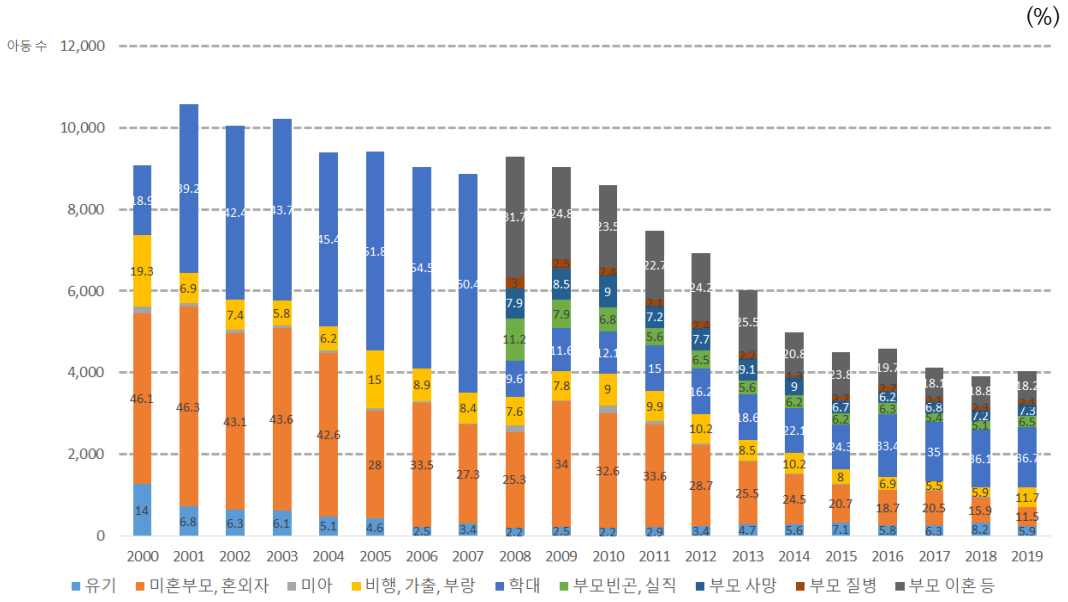
〈표 3-25〉 보호대상아동 총계 및 원인별 발생률(2000-2019)

(명, %)

구분	보호대상 아동 총계	0-17세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비율	유기	미혼부모, 혼외자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2000	9,085	75.2	14.0	46.1	1.7	19.3	18.9	-	-	-	-
2001	10,586	89.2	6.8	46.3	0.9	6.9	39.2	-	-	-	-
2002	10,057	86.4	6.3	43.1	0.7	7.4	42.4	-	-	-	-
2003	10,222	89.4	6.1	43.6	0.8	5.8	43.7	-	-	-	-
2004	9,393	83.5	5.1	42.6	0.7	6.2	45.4	-	-	-	-
2005	9,420	85.1	4.6	28.0	0.7	15.0	51.8	-	-	-	-
2006	9,034	83.1	2.5	33.5	0.6	8.9	54.5	-	-	-	-
2007	8,861	83.0	3.4	27.3	0.4	8.4	60.4	-	-	-	-
2008	9,284	88.3	2.2	25.3	1.6	7.6	9.6	11.2	7.9	3.0	31.7
2009	9,028	87.5	2.5	34.0	0.4	7.8	11.6	7.9	8.5	2.5	24.8
2010	8,590	85.4	2.2	32.6	2.4	9.0	12.1	6.8	9.0	2.4	23.5
2011	7,483	76.1	2.9	33.6	1.1	9.9	15.0	5.6	7.2	2.1	22.7
2012	6,926	72.1	3.4	28.7	0.7	10.2	16.2	6.5	7.7	2.4	24.2
2013	6,020	64.2	4.7	25.5	0.3	8.5	18.6	5.6	9.1	2.2	25.5
2014	4,994	54.7	5.6	24.5	0.3	10.2	22.1	6.2	9.0	1.3	20.8
2015	4,503	50.6	7.1	20.7	0.6	8.0	24.3	6.2	6.7	2.7	23.8
2016	4,583	52.8	5.8	18.7	0.2	6.9	33.4	6.3	6.2	2.7	19.7
2017	4,125	48.9	6.3	20.5	0.3	5.5	35.0	5.4	6.8	2.1	18.1
2018	3,918	48.0	8.2	15.9	0.5	5.9	36.1	5.1	7.2	2.3	18.8
2019	4,047	51.3	5.9	11.5	0.2	11.7	36.7	6.5	7.3	2.1	18.2

주: 1) 2017년부터 기아(=유기)를 유기로 변경
2) 2008년 이후부터 발생요인 통계항목 변경(부모빈곤, 실직/부모사망/부모질병/부모이혼 등 추가)
3) 장래인구추계는 2019년 3월에 공표한 자료이며, 증위추계를 사용함. 2001~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 수치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동 될 수 있음.
4) 0-17세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비율 = 보호대상아동 총계x100000 / 장래인구추계(1세 연령별)

출처: 1)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 &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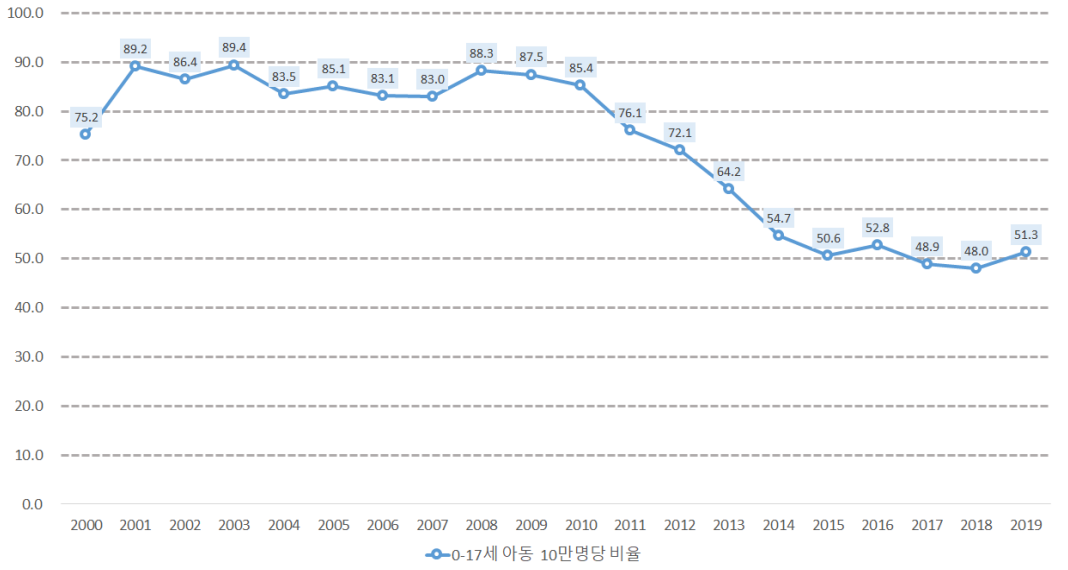


주: 1) 2017년부터 기아(=유기)를 유기로 변경.
2) 2008년 이후부터 발생요인 통계항목 변경(부모빈곤, 실직/부모사망/부모질병/부모이혼 등 추가).
3) 누적막대그래프 비율=(각 세부 범주 보호대상 아동 수/보호대상 아동 수)x100

출처: 1) 보건복지부.「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2) 통계청.「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 &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그림 3-11] 보호대상아동 총계 및 원인별 발생률(2000-2019)

(명/10만 명당)



주: 1) 2017년부터 기아(=유기)를 유기로 변경.
2) 2008년 이후부터 발생요인 통계항목 변경(부모빈곤, 실직/부모사망/부모질병/부모이혼 등 추가).
3) 장래인구추계는 2019년 3월에 공표한 자료이며, 증위추계를 사용함. 2001~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 수치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동 될 수 있음.
4) 꺾은선그래프 비율=(보호대상아동 합계/0-17세 아동 수)x100000

출처: 1) 보건복지부.「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2) 통계청.「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 &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그림 3-12] 0-17세 아동 청소년 10만 명당 보호대상아동 수(200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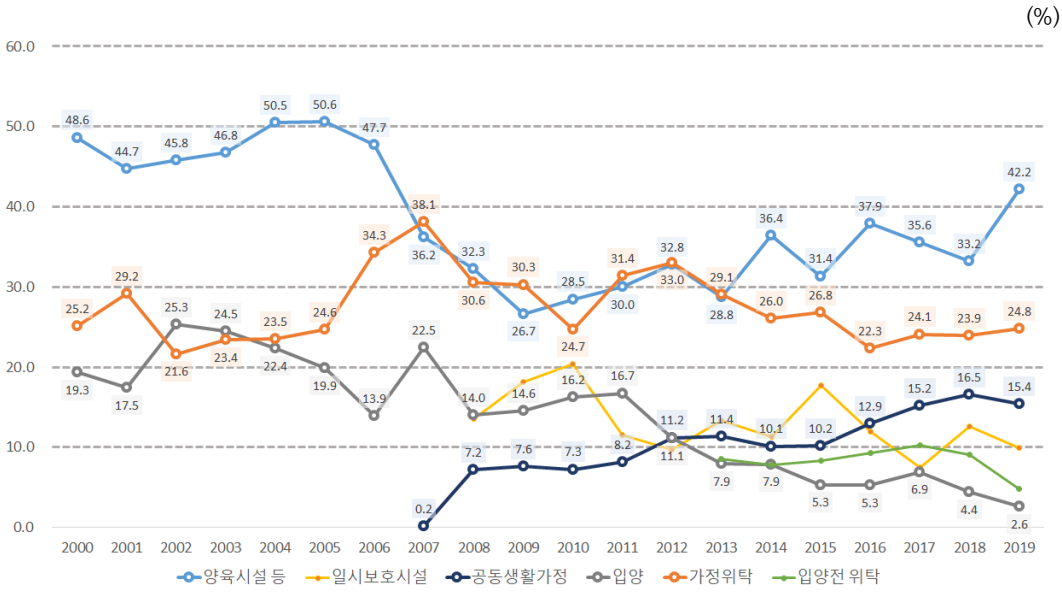
〈표 3-26〉 보호대상아동 조치현황(2000-2019)

(명)

구분	총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시설 등	일시보호 시설	장애아동 시설	공동생활 가정	소계	소년소녀 가장	입양	가정위탁	입양전 위탁
2000	9,085	4,481	4,417	-	64	-	4,604	564	1,755	2,285	-
2001	10,586	4,774	4,733	-	41	-	5,812	874	1,848	3,090	-
2002	10,057	4,663	4,606	-	57	-	5,394	673	2,544	2,177	-
2003	10,222	4,824	4,782	-	42	-	5,398	500	2,506	2,392	-
2004	9,393	4,782	4,744	-	38	-	4,611	299	2,100	2,212	-
2005	9,420	4,818	4,770	-	48	-	4,602	407	1,873	2,322	-
2006	9,034	4,366	4,313	-	53	-	4,668	308	1,259	3,101	-
2007	8,861	3,245	3,206	-	39	17	5,616	247	1,991	3,378	-
2008	9,284	4,964	2,997	1,261	39	667	4,320	178	1,304	2,838	-
2009	9,028	4,767	2,406	1,640	35	686	4,261	213	1,314	2,734	-
2010	8,590	4,842	2,445	1,751	23	623	3,748	231	1,393	2,124	-
2011	7,483	3,752	2,246	862	32	612	3,731	128	1,253	2,350	-
2012	6,926	3,748	2,272	676	25	775	3,178	117	772	2,289	-
2013	6,020	3,257	1,731	801	39	686	2,763	20	478	1,749	516
2014	4,994	2,900	1,818	566	10	506	2,094	13	393	1,300	388
2015	4,503	2,682	1,412	799	13	458	1,821	0	239	1,206	376
2016	4,583	2,887	1,736	548	11	592	1,696	6	243	1,022	425
2017	4,125	2,421	1,467	310	19	625	1,704	2	285	994	423
2018	3,918	2,449	1,300	494	7	648	1,469	1	174	937	357
2019	4,047	2,739	1,707	401	6	625	1,308	5	104	1,003	196

주: 1) 2013년 12월부터 요보호아동 조치내용(가정보호)이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에서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입양 전 위탁으로 통계항목 변경
2) 2007년과 2008년 이후 시설입소 관련 통계항목 일부 변경(2007년 이후 공동생활가정 추가, 2008년 이후 일시보호시설 추가)

출처: 1)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 &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주: 1) 2013년 12월부터 요보호아동 조치내용(가정보호)이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에서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입양 전 위탁으로 통계항목 변경
2) 2007년과 2008년 이후 시설입소 관련 통계항목 일부 변경(2007년 이후 공동생활가정 추가, 2008년 이후 일시보호시설 추가)
3) 꺾은선 그래프 비율=(시설입소 및 가정보호 각 범주별(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양, 가정위탁, 입양전 위탁) 보호대상 아동 수/보호대상 아동 합계)x100

출처: 1) 보건복지부.「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2) 통계청.「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 &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그림 3-13] 보호대상아동 조치현황별 비율(2000-2019)

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가. 정의

- 아동복지시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종류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이 있음.
-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함.
-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나. 해설

2018년 기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는 12,193명이었다. 아동복지시설수는 2000년에 269개소였으며 2008년 285개소로 증가했다가 이후 2018년 279개소로 감소했다. 시설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동양육시설은 2000년 235개소에서 2018년 241개소로 증가했으며 아동자립지원시설은 2000년 12개소에서 소폭 증가 및 감소를 반복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2000년 6개소에서 2018년 11개소로 증가했으며,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 2000년에 10개소였다가 2005년 15개소로 증가한 이후 점차로 줄어들어 2018년 12개소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수는 2008년 16,454명에서 2018년 11,14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정의 수는 2008년 11,914개로 이 중 대리양육가정이 7,488개 (6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인척위탁가정(28.8%), 일반위탁가정(8.3%)이 가장 낮은 구성을 보였다. 위탁가정 수는 점차로 줄어들어 2018년 8,955개로 감소했으며 그 중 대리양육가정의 수는 5,831개 (65.1%)로 비중이 늘었다.

2018년 기준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아동 수는 2,872명이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2008년 348개소였으며 점차로 증가해서 2010년 416개소, 2018년 558개소로 증가했다. 아동의 연령별로 8-13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4-16세(중등), 17-19세(고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7〉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200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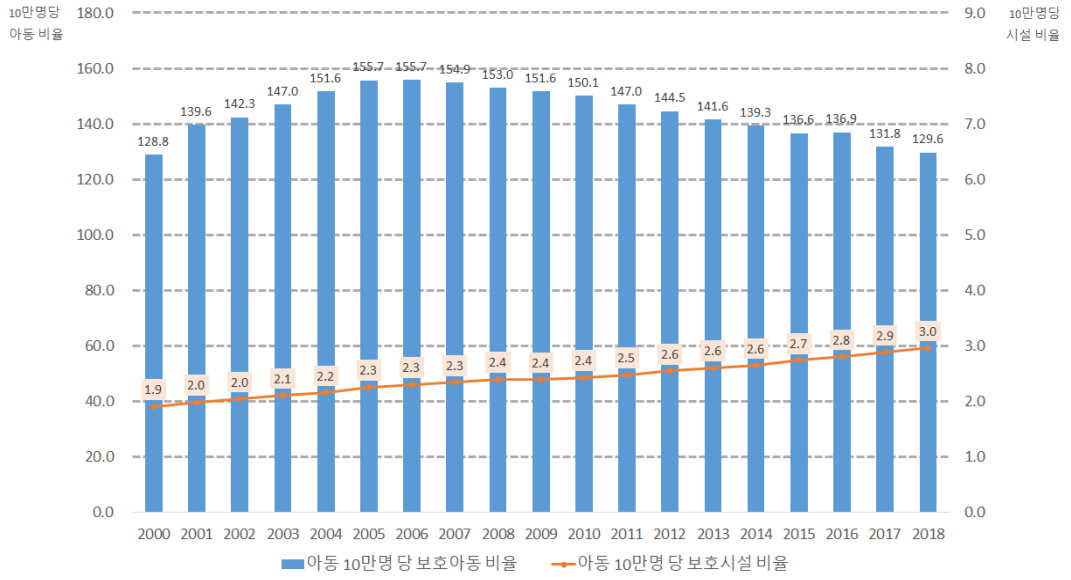
(명, 개소)

구분	계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	
	아동 수	시설 수	아동 수	시설 수	아동 수	시설 수	아동 수	시설 수	아동 수	시설 수	아동 수	시설 수
2000	17,720	269	16,293	235	222	12	460	6	561	10	-	-
2001	18,808	273	17,437	238	252	13	367	6	573	11	-	-
2002	18,676	274	17,342	239	243	13	397	6	532	11	-	-
2003	18,818	275	17,437	239	244	13	373	6	606	12	-	-
2004	19,014	275	17,675	239	246	13	376	6	587	13	-	-
2005	19,151	282	17,729	242	229	13	457	8	626	15	-	-
2006	18,817	282	17,517	243	235	13	436	8	554	15	-	-
2007	18,426	282	17,161	243	269	13	404	8	365	13	155	2
2008	17,992	285	16,706	242	257	12	477	10	341	14	142	5
2009	17,586	280	16,239	239	262	12	514	11	368	13	138	3
2010	17,119	280	15,787	238	235	12	495	11	402	14	131	3
2011	16,523	280	15,313	242	249	12	455	10	361	12	113	3
2012	15,916	281	14,700	243	256	12	497	11	335	12	128	3
2013	15,239	281	14,038	243	250	13	486	11	359	11	106	3
2014	14,630	278	13,437	242	252	12	481	10	336	11	124	3
2015	14,001	281	12,821	243	243	12	447	11	350	12	140	3
2016	13,689	281	12,448	243	230	12	485	11	356	12	170	3
2017	12,789	280	11,665	242	221	12	497	11	279	12	127	3
2018	12,193	279	11,100	241	227	12	447	11	272	12	147	3

주: 1)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종합시설을 포함하며, 위 표에서 아동직업훈련시설은 집계되지 않음.
2) 아동종합시설은 일시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를 겸함. 2007년부터 포함됨.
3) 2019년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음.
4)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아동 수와 시설 수의 총계가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원데이터에서 사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음.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명(개소), 10만 명당)



주: 1)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종합시설을 포함하며, 위 표에서 아동직업훈련시설은 집계되지 않음.
2) 아동종합시설은 일시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를 겸함. 2007년부터 포함됨.
3)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아동수와 시설수의 총계가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원데이터에서 사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음.
4) 꺾은선그래프 비율=(보호 시설 수/0-19세 아동 수)x100000(아동 10만 명당 보호시설 수); 막대그래프 비율=(보호아동 수/0-19세 아동 수)x100000(아동 10만 명당 보호아동 수)

출처: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2) 통계청.「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그림 3-14] 0-19세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시설 비율(200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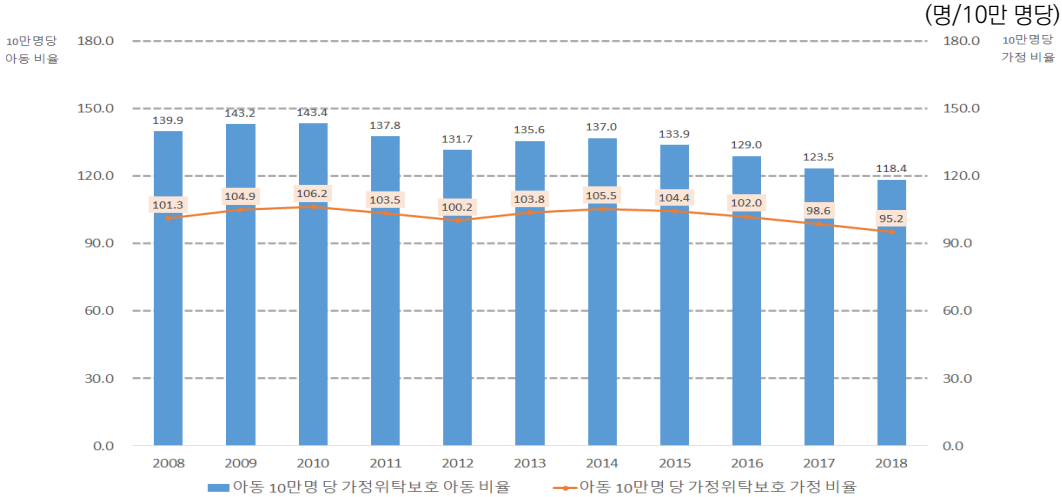
〈표 3-28〉 가정위탁보호아동 수(2008-2018)

(명, 개소)

구분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아동 수	가정 수	아동 수	가정 수	아동 수	가정 수	아동 수	가정 수
2008	16,454	11,914	10,709	7,488	4,519	3,436	1,226	990
2009	16,608	12,170	10,947	7,809	4,503	3,438	1,158	923
2010	16,359	12,120	10,865	7,849	4,371	3,365	1,123	906
2011	15,486	11,630	10,205	7,463	4,260	3,351	1,021	816
2012	14,502	11,030	9,732	7,230	3,831	3,037	939	763
2013	14,596	11,169	9,776	7,294	3,843	3,086	977	789
2014	14,385	11,077	9,550	7,162	3,816	3,089	1,019	826
2015	13,728	10,706	9,127	6,944	3,556	2,927	1,045	835
2016	12,896	10,197	8,578	6,642	3,348	2,773	970	782
2017	11,983	9,575	7,950	6,207	3,100	2,605	933	763
2018	11,141	8,955	7,426	5,831	2,801	2,357	914	767

주: 1) 가정위탁보호아동 수 및 가정 수는 2008년도부터 집계되었음. 2019년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음.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명/10만 명당)



주: 1) 가정위탁보호아동 수 및 가정수는 2008년도부터 집계되었음.
2) 꺾은선그래프 비율=(가정위탁보호 가정 수/0-19세 아동 수)x100,000(아동 10만 명당 가정위탁보호 가정 수); 막대그래프 비율=(가정위탁보호아동 수/0-19세 아동 수)x100,000(아동 10만 명당 가정위탁보호아동 수)
출처: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2) 통계청.「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그림 3-15] 0-19세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가정 비율(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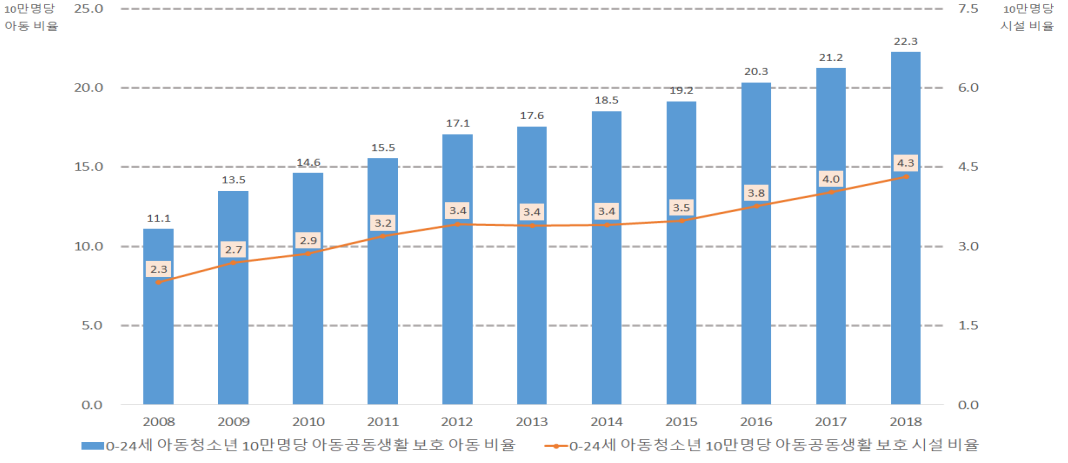
〈표 3-29〉 아동공동생활 보호아동 수(2008-2018)

(명, 개소)

구분	계		0-7세 (미취학)	8-13세 (초등)	14-16세 (중등)	17-19세 (고등)	20세 이상 (대재)	기타
	아동 수	시설 수						
2008	1,664	348	183	708	435	287	21	30
2009	1,993	397	230	842	518	300	23	80
2010	2,127	416	195	894	543	388	42	65
2011	2,241	460	254	843	619	402	51	72
2012	2,438	489	291	848	682	481	50	86
2013	2,481	480	280	884	670	546	59	42
2014	2,588	476	300	878	661	640	79	30
2015	2,636	480	352	850	652	653	87	42
2016	2,758	510	428	878	701	613	101	37
2017	2,811	533	385	947	661	642	127	49
2018	2,872	558	355	998	678	665	129	47

주: 1) 아동공동생활 보호아동 수 및 시설 수는 2008년도부터 집계되었음. 2019년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음.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명/10만 명당)



주: 1) 아동공동생활 보호아동 수 및 시설 수는 2008년도부터 집계되었음.
2) 꺾은선그래프 비율=(아동공동생활 보호 시설 수/0-19세 아동 수)x100,000(아동 10만 명당 아동공동생활 보호 시설 수); 막대그래프 비율=(아동공동생활 보호아동 수/0-24세 아동 수)x100,000(아동 10만 명당 아동공동생활 보호아동 수)
출처: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20년 09월 06일 인출.

[그림 3-16] 0-19세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아동공동생활 보호아동 수, 시설 수 총계(2008-2018)

아동 입양률

가. 정의

국내외 입양된 아동의 비율

나. 의의

국내외 입양비율을 비교를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다. 해설

우리나라는 2000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국내입양우선추진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국내입양 활성 정책의 추진 및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전체 입양에서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변화되었다. 국내외 입양은 2000년 4,046건, 2002년 4,059건을 기록했으며 2003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년 922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2014년 1,172건으로 반등했으며 2018년 681건까지 다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70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외 입양비율은 2000년 58.3%였으며 2006년 58.8%로 국내입양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국내입양이 55.0%로 국외입양 45.0%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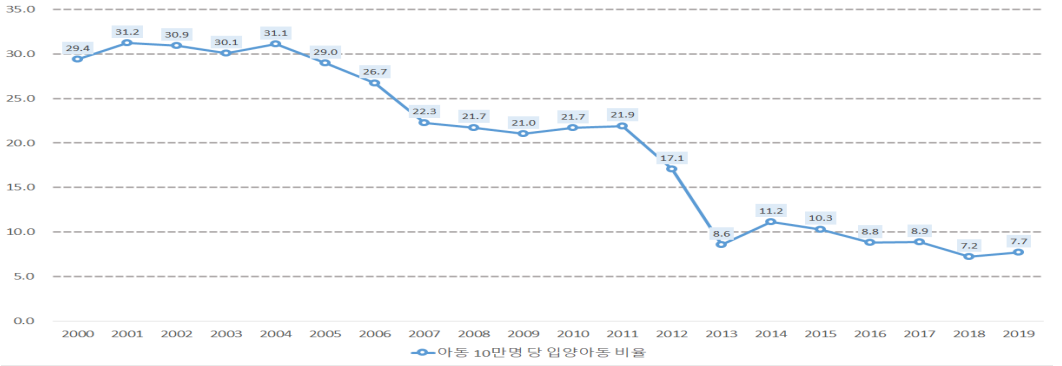
〈표 3-30〉 아동 입양률(2000-2018)

(명, %)

구분	총계	국내입양		국외입양	
		아동 수	비율	아동 수	비율
2000	4,046	1,686	41.7	2,360	58.3
2001	4,206	1,770	42.1	2,436	57.9
2002	4,059	1,694	41.7	2,365	58.3
2003	3,851	1,564	40.6	2,287	59.4
2004	3,899	1,641	42.1	2,258	57.9
2005	3,562	1,461	41.0	2,101	59.0
2006	3,231	1,332	41.2	1,899	58.8
2007	2,652	1,388	52.3	1,264	47.7
2008	2,556	1,306	51.1	1,250	48.9
2009	2,439	1,314	53.9	1,125	46.1
2010	2,475	1,462	59.1	1,013	40.9
2011	2,464	1,548	62.8	916	37.2
2012	1,880	1,125	59.8	755	40.2
2013	922	686	74.4	236	25.6
2014	1,172	637	54.4	535	45.6
2015	1,057	683	64.6	374	35.4
2016	880	546	62.0	334	38.0
2017	863	465	53.9	398	46.1
2018	681	378	55.5	303	44.5
2019	704	387	55.0	317	45.0

주 1) 국내입양 비율 = 국내입양 아동 수 *100/총계, 국외입양 비율 = 국외입양 아동 수*100/ 총계
출처: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각 연도.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명/10만 명당)



주: 1) 꺾은선그래프 비율=(입양 아동 수/0-19세 아동 수)x100,000(아동 10만 명 당 입양 아동 비율)
출처: 1)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2020191205에서 2020년 09월 06일 인출.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그림 3-17] 0-19세 아동 10만 명당 아동 입양 수 총계(2000-2019)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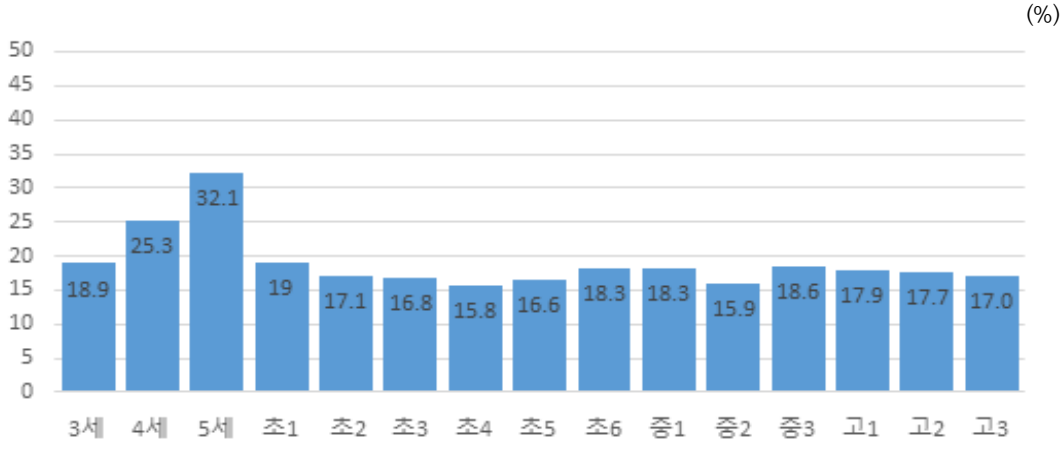
가. 정의

특수교육대상자수 대비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나. 해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7]을 의미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학교로 배치된다.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을 통해 장애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 실태를 파악해 볼 수 있다.

2019년 초·중·고 통합교육 비율은 2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유치원은 5세 32.1%, 4세 25.3%, 3세 18.9%로 조금 나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이 교육에 진입해도 중도에 그만두는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에 따라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특수학급 증설, 통합유치원 설립 등 통합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교육부(2020). 「2019 특수교육통계」.

[그림 3-18]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2019)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 제2조 6항

〈표 3-31〉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2010-2019)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세	4세	5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2010	41.5	51.8	51.1	19.5	17.9	14.6	14.6	13.4	13.2	17.0	16.1	14.8	20.3	19.4	18.5
2011	36.2	50.5	53.0	19.6	17.8	16.0	14.8	15.1	14.5	17.0	17.1	16.8	19.6	19.5	19.7
2012	33.7	48.3	49.3	19.0	18.9	17.5	16.6	15.6	16.5	18.3	16.8	17.9	21.0	18.5	19.0
2013	31.8	44.9	50.7	20.1	18.2	17.5	17.2	16.5	15.8	18.5	17.3	17.2	19.7	19.2	18.2
2014	29.1	39.4	45.6	21.8	19.2	17.4	17.5	17.3	17.2	16.7	17.4	17.6	16.6	18.2	18.5
2015	29.3	34.6	44.9	19.8	19.7	17.5	17.2	17.7	17.9	17.6	16.1	18.2	17.9	15.5	18.1
2016	21.1	31.1	39.5	18.6	18.1	18.4	17.0	16.6	18.0	17.1	17.2	16.8	19.1	17.6	16.3
2017	22.1	29.3	36.0	18.8	18.2	16.7	17.2	17.1	17.7	18.5	16.5	17.8	17.6	18.4	17.7
2018	17.2	26.5	34.1	17.8	18.0	16.9	15.9	17.6	18.2	17.6	17.8	16.8	18.5	17.2	18.6
2019	18.9	25.3	32.1	19.0	17.1	16.8	15.8	16.6	18.3	18.3	15.9	18.6	17.9	17.7	17.0

주: 1)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수) X 100.
2)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수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를 합한 것임.
출처: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표 3-32〉 지역별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2019)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세	4세	5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18.9	25.3	32.1	19.0	17.1	16.8	15.8	16.6	18.3	18.3	15.9	18.6	17.9	17.7	17.0
서울	10.7	16.0	18.4	16.8	15.6	16.3	15.7	12.4	14.1	19.1	18.9	22.3	20.8	24.1	22.9
부산	45.8	52.0	55.0	29.6	22.9	19.8	18.4	16.2	17.3	30.3	27.6	29.7	25.6	26.4	22.8
대구	30.0	52.3	55.9	42.4	31.1	27.8	22.7	30.6	30.9	31.4	29.2	34.0	33.0	32.7	28.0
인천	40.7	45.2	47.5	23.1	20.2	20.2	14.8	18.6	19.0	20.4	13.4	19.1	17.4	13.9	15.4
광주	5.8	9.4	10.6	4.3	5.7	5.1	5.4	5.3	7.9	6.7	7.2	8.2	8.9	10.2	8.6
대전	57.1	66.7	38.6	23.3	25.8	26.4	20.2	35.4	38.0	32.4	36.0	34.5	22.2	25.8	33.8
울산	9.2	8.3	13.8	7.2	8.3	9.8	11.4	8.4	14.0	6.1	5.7	7.1	5.3	6.4	7.5
세종	10.5	3.1	5.3	5.5	8.3	6.2	5.7	1.9	5.0	5.0	1.9	3.6	2.8	2.9	2.1
경기	42.1	46.4	57.0	50.4	47.3	47.7	47.5	48.6	48.2	46.1	39.8	42.1	47.4	42.6	37.7
강원	5.4	10.7	25.6	14.6	15.1	16.4	11.6	12.6	16.6	18.0	16.2	17.6	16.7	20.6	20.2
충북	12.0	29.2	37.1	32.3	38.2	45.1	29.8	41.7	40.4	35.3	33.9	36.9	33.3	43.4	41.6
충남	13.0	16.5	24.6	10.4	12.5	10.6	10.4	13.3	14.1	6.1	6.0	8.5	6.3	7.4	5.9
전북	5.9	10.2	13.8	4.5	4.8	4.0	5.5	4.1	4.6	5.5	4.1	5.5	6.9	5.7	5.1
전남	5.3	13.3	21.1	5.9	5.2	7.1	7.9	13.9	11.0	11.5	6.4	11.2	5.7	5.3	3.4
경북	59.6	64.2	72.0	46.5	45.8	44.6	42.0	51.1	53.0	46.2	27.7	34.6	31.2	29.7	26.9
경남	26.9	32.5	41.5	33.1	21.3	25.2	23.1	23.6	26.1	24.9	24.8	26.9	27.0	23.1	29.4
제주	25.0	47.6	66.0	30.2	31.0	25.6	28.3	27.3	31.4	15.0	15.9	14.3	16.3	15.9	15.2

주: 1)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수) X 100.
2)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수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를 합한 것임.
출처: 교육부(2020). 『2019 특수교육통계』.

유치원 교직원 1인당 아동 수

가.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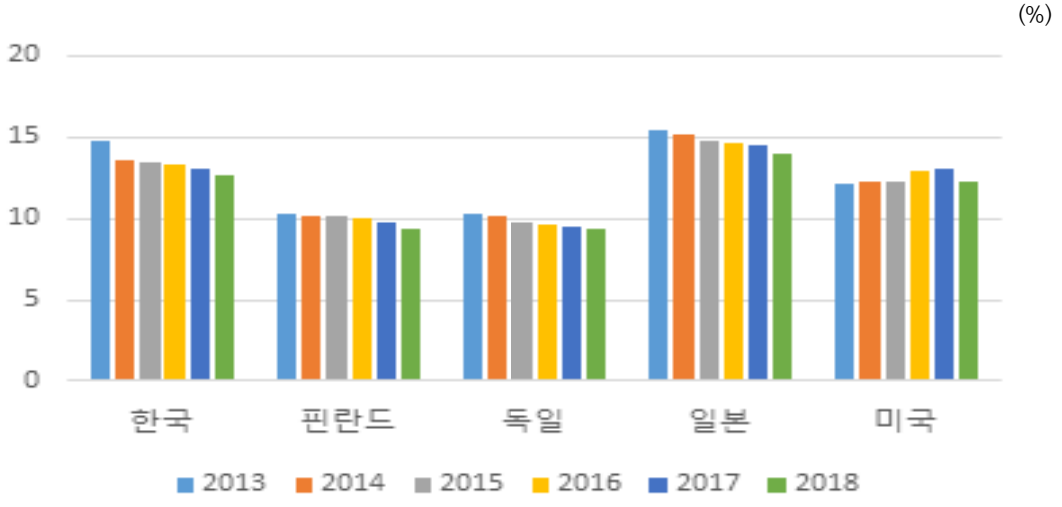
유치원 아동 수 대비 교직원수

나. 해설

유치원 교원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며,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한다.

유치원 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2019년 유치원 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10.8명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공립 유치원 여건이 사립 대비 낮은 수준이었지만 2000년 19.5명에서 2019년 9.6명으로 크게 개선됐다.

OECD 주요국의 유아교육단계 교사 1인당 학생 수(2013-2018)를 살펴보면, 한국의 유아교육단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완만한 수준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다만 OECD 주요국의 유아교육단계 구분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어 단순 비교에 유의하여야 한다.



출처: OECD. OECD Stat(Student-teacher ratio).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PERS_RATIO#에서 2020년 9월 30일 인출

[그림 3-19] OECD 주요국의 유아교육단계 교사 1인당 학생 수(2013-2018)

〈표 3-33〉 유치원 교직원 1인당 아동 수(2000-2019)

(명)

구분	교직원 1인당 아동 수				교원 1인당 아동 수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국립	공립	사립
2000	15.8	15.1	19.5	15.0	19.5	18.1	19.9	19.3
2001	15.3	17.5	19.0	14.5	18.8	17.5	19.4	18.6
2002	15.4	15.7	18.1	14.8	18.5	17.8	18.7	18.5
2003	15.1	15.8	17.8	14.5	18.0	16.8	18.4	17.9
2004	14.8	12.8	17.5	14.2	17.9	16.8	18.4	17.8
2005	14.2	11.0	15.9	13.8	17.5	14.9	17.9	17.3
2006	14.2	12.7	14.4	14.1	17.0	14.1	15.7	17.4
2007	13.4	11.9	13.2	13.5	16.2	13.7	14.5	16.7
2008	12.9	9.6	12.7	13.0	15.5	12.5	14.0	16.0
2009	12.6	9.2	12.8	12.6	15.2	12.2	14.6	15.4
2010	12.3	10.7	12.8	12.2	14.8	12.4	14.3	14.9
2011	12.0	12.0	11.2	12.3	14.6	13.3	13.6	14.9
2012	13.3	10.8	12.2	13.6	14.5	11.9	12.8	15.1
2013	12.8	9.0	12.3	13.0	14.3	9.8	12.9	14.7
2014	12.4	11.7	11.8	12.6	13.4	12.9	12.4	13.8
2015	12.2	11.1	12.0	12.3	13.4	12.2	12.8	13.6
2016	12.0	11.2	11.9	12.1	13.3	12.3	12.7	13.5
2017	11.3	10.8	11.3	11.2	12.9	11.9	12.2	13.2
2018	11.0	9.2	10.1	11.4	12.3	11.3	10.9	12.9
2019	10.8	8.3	9.6	11.4	11.9	9.5	10.2	12.7

주: 1) 유치원 교직원 1인당 아동 수 = (유치원 아동 수 ÷ 유치원 교직원수).
2) 유치원 교원 1인당 아동 수 = (유치원 아동 수 ÷ 유치원 교원수).
3) 교직원에는 교원과 정규직원이 모두 포함됨(시간강사 제외).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0).「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에서 2020년 9월 10일 인출.

〈표 3-34〉 OECD 주요국의 유아교육단계 교사 1인당 학생 수(2013-2018)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	14.7	13.6	13.4	13.3	13.0	12.7
핀란드	10.3	10.2	10.2	10.0	9.7	9.4
프랑스	21.6	21.8	(M)	(M)	(M)	23.3
독일	10.3	10.1	9.8	9.6	9.5	9.4
일본	15.4	15.1	14.8	14.6	14.5	14.0
영국	9.7	17.7	(x)	93.7	24.8	(M)
미국	12.1	12.2	12.2	12.9	13.0	12.3

주: 1) OECD 기준 교사는 기간제 포함 수업교사이면서 전일제 환산치 적용(한국은 전일제 교사 기준).
2) Pre-primary education (ISCED2011 level 0 programme 2)
3) M(Missing value; data cannot exist), x(Data included in another category)
출처: OECD. OECD Stat(Student-teacher ratio)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PERS_RATIO#에서 2020년 9월 30일 인출.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가. 정의

전체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으로 구분) 중 설립주체가 국공립인 어린이집 수

나. 해설

2000년 보육시설 전체 19,276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295개소로 6.7%에 불가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5.0%에서 6.0%선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했다. 2016년의 경우 전년대비 0.8%p가 증가하여 보육시설 중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비율은 7.0%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보육 공공성 강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수는 3,602개소로 2017년 대비 1.4%p 증가하였다.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수는 4,324개소로 계속 증가 추세이며, 2018년 대비 시설 비율이 2.4%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국공립보육시설 비율(2000-2019)

(개소, %)

구분	보육시설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수	비율
2000	19,276	1,295	6.7
2001	20,097	1,306	6.5
2002	22,147	1,330	6.0
2003	24,142	1,329	5.5
2004	26,903	1,349	5.0
2005	28,367	1,473	5.2
2006	29,233	1,643	5.6
2007	30,856	1,748	5.7
2008	33,499	1,826	5.5
2009	35,550	1,917	5.4
2010	38,021	2,034	5.3
2011	39,842	2,116	5.3
2012	42,527	2,203	5.2
2013	43,770	2,332	5.3
2014	43,742	2,489	5.7

구분	보육시설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수	비율
2015	42,517	2,629	6.2
2016	41,084	2,859	7.0
2017	40,238	3,157	7.8
2018	39,171	3,602	9.2
2019	37,371	4,324	11.6

주: 1) 보육시설 전체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함.
2) 비율 = 국공립 어린이집 * 100 / 보육시설 전체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1&vw_cd=MT_OTITLE&list_id=154_15407&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 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면적당 학교 수

가. 정의

시도별 면적(1km^2)당 학교 수

나. 해설

면적당 학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고, 상대적으로 도지역 보다 시지역의 학교 접근성이 양호한 편으로 확인된다. 특히 도서·산간지역이 포함된 강원, 경북, 충북은 0.04-0.06으로 특히 낮았다.

학교용지 면적당 학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이고, 다음은 서울, 부산,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울산 55.6개, 서울 53.3개, 부산 49.7개, 경기 47.9개인데 반해 충북 23.6개, 제주 27.5개, 경북 28.4개로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다. 시지역 중 대전과 광주의 학교 접근성이 다소 낮은 편이다. 한편 세종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학교면적당 학교 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표 3-36〉 면적당 학교 수(2009-2019)

(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2.09	2.10	2.12	2.13	2.14	2.15	2.15	2.15	2.16	2.16	2.17
부산	0.80	0.80	0.79	0.80	0.80	0.81	0.81	0.81	0.81	0.81	0.80
대구	0.49	0.48	0.49	0.49	0.49	0.49	0.49	0.50	0.50	0.51	0.51
인천	0.45	0.45	0.47	0.47	0.48	0.47	0.48	0.48	0.48	0.48	0.48
광주	0.59	0.59	0.60	0.60	0.60	0.61	0.62	0.62	0.62	0.62	0.62
대전	0.53	0.53	0.54	0.54	0.54	0.54	0.55	0.55	0.55	0.55	0.55
울산	0.21	0.22	0.22	0.22	0.22	0.22	0.22	0.22	0.22	0.22	0.23
세종	-	-	-	-	0.08	0.10	0.14	0.15	0.17	0.19	0.19
경기	0.20	0.21	0.21	0.22	0.22	0.22	0.22	0.23	0.23	0.23	0.23
강원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충북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충남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전북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전남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경북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경남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제주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주: 1) 면적당 학교 수 = (학교 수 ÷ 총면적).
2) 학교 수는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산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0).「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국토교통부(2020).「지적통계」. kosis.kr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표 3-37〉 학교용지 면적당 학교 수(2009-2019)

(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53.8	53.8	54.1	54.3	54.3	54.0	54.0	53.8	53.5	53.3	53.3
부산	53.3	52.9	52.2	51.9	51.6	52.0	51.2	50.4	50.3	49.9	49.7
대구	44.9	44.4	44.5	44.4	44.4	40.9	40.7	41.1	41.3	41.4	41.3
인천	54.7	48.1	47.8	48.2	45.8	45.1	45.1	43.8	43.9	43.7	44.9
광주	33.5	33.5	33.8	33.7	33.6	34.0	34.4	34.5	34.7	34.7	34.9
대전	32.3	32.3	32.0	31.8	31.1	30.9	31.2	31.0	31.2	31.3	31.3
울산	56.2	55.6	55.9	56.0	55.9	55.9	55.9	55.3	56.0	55.2	55.6
세종	-	-	-	-	21.9	25.4	28.2	29.5	34.7	37.3	38.6
경기	48.6	48.8	49.2	49.1	48.8	48.6	48.7	48.3	47.8	47.5	47.9
강원	35.1	33.6	33.6	33.2	32.7	32.1	31.8	31.6	31.8	31.6	31.4
충북	24.6	24.8	24.1	24.1	23.8	23.6	23.5	23.5	23.7	23.6	23.6
충남	31.9	31.5	31.3	33.5	31.7	31.1	30.8	30.6	30.8	30.1	30.0
전북	34.9	34.8	35.0	34.7	34.8	34.8	34.4	34.5	34.5	34.6	34.6
전남	33.9	33.5	33.3	33.0	32.8	32.6	32.5	32.5	32.5	32.4	32.4
경북	31.6	31.3	30.9	30.7	30.5	30.1	30.0	29.5	29.0	28.5	28.4
경남	43.1	40.9	40.7	40.2	40.1	39.7	39.5	39.4	39.6	39.5	39.4
제주	30.0	29.7	29.9	30.3	30.5	28.0	28.4	28.4	27.4	27.5	27.5

주: 1) 학교면적당 학교 수 = (학교 수 ÷ 총학교면적).
2) 학교 수는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산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0).「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국토교통부(2020).「지적통계」. kosis.kr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대안학교 비율

가. 정의

전체 학교 수 대비 대안학교 비율

나. 해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르면,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8]다. 본 분석에서는 교육과정이 통합운영 되어도 각각을 구분된 학교로 간주해 대안학교 비율을 산출하였다.

2019년 전국 대안학교는 105개교에 불과하다. 전체 학교 수 대비 대안학교 수 비율은 2000년 0.20%에서 2019년 0.90%로 지난 20년간 일관되게 전체 학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안학교 학생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2000년 0.10%에서 2019년 0.24%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표 3-38〉 대안학교 비율(200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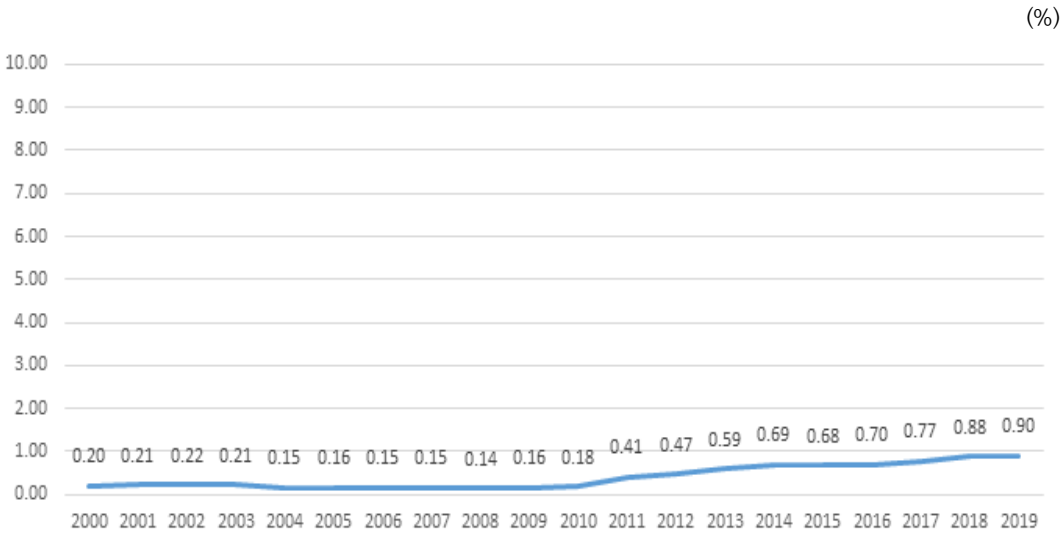
(개소, 명, %)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비율	
	대안 특성화중	대안 특성화고	각종 학교	계	대안 특성화중	대안 특성화고	각종 학교	계	대안 학교	대안 학생
2000			20	20			7,953	7,953	0.20	0.10
2001			21	21			7,908	7,908	0.21	0.10
2002			22	22			8,107	8,107	0.22	0.10
2003			22	22			7,750	7,750	0.21	0.10
2004			16	16			6,033	6,033	0.15	0.08
2005			17	17			6,209	6,209	0.16	0.08
2006			16	16			6,156	6,156	0.15	0.08
2007			16	16			7,070	7,070	0.15	0.09
2008			16	16			7,034	7,034	0.14	0.09
2009			18	18			7,205	7,205	0.16	0.10
2010			20	20			7,557	7,557	0.18	0.10
2011		23	24	47		2,728	8,635	11,363	0.41	0.16
2012		24	30	54		2,889	9,291	12,180	0.47	0.18
2013	10	24	34	68	1,131	2,929	7,857	11,917	0.59	0.18
2014	12	24	43	79	1,265	2,850	8,356	12,471	0.69	0.20

8) 초·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에서 2020년 10월 21일 인출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비율	
	대안 특성화중	대안 특성화고	각종 학교	계	대안 특성화중	대안 특성화고	각종 학교	계	대안 학교	대안 학생
2015	12	25	42	79	1,299	2,798	8,470	12,567	0.68	0.21
2016	13	25	43	81	1,381	2,860	8,159	12,400	0.70	0.21
2017	14	25	51	90	1,409	2,835	7,872	12,116	0.77	0.21
2018	17	26	60	103	1,594	2,830	8,543	12,967	0.88	0.23
2019	17	26	62	105	1,671	2,767	8,809	13,247	0.90	0.24

주: 1) 대안학교 비율 = (대안학교 수 ÷ 전체 학교 수) X 100.
2) 대안학교 학생비율 = (대안학교 학생 수 ÷ 전체 학생 수) X 100.
3) 대안학교에는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각종학교(초등, 중학, 초등+중학, 고교, 초등+중학+고교, 중학+고교) 등이 포함됨.
4) 전체 학교 수 및 학생 수는 초·중·고·각종학교를 포함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 2020년 9월 8일 인출자료를 연구진이 재가공하여 제시하였음.



주: 대안학교 비율 = (대안학교 수 ÷ 전체 학교 수) X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 2020년 9월 8일 인출자료를 연구진이 재가공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3-20] 대안학교 비율(2000-2019)

〈표 3-39〉 지역별 대안학교 수(2000-2019)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2000	8	1	1	1	1	1	-	1	-	-	-	5	-	1	-	20
2001	9	1	1	1	1	1	-	1	-	-	-	5	-	1	-	21
2002	9	1	1	1	1	1	-	1	-	-	-	6	-	1	-	22
2003	9	1	1	1	1	1	-	1	-	-	-	6	-	1	-	22
2004	9	1	1	1	1	1	-	1	-	-	-	-	-	1	-	16
2005	9	1	1	1	1	1	-	1	-	-	-	-	-	2	-	17
2006	8	1	1	1	1	1	-	1	-	-	-	-	-	2	-	16
2007	8	1	1	1	1	1	-	1	-	-	-	-	-	2	-	16
2008	8	1	1	1	1	1	-	1	-	-	-	-	-	2	-	16
2009	9	1	1	1	1	1	-	2	-	-	-	-	-	2	-	18
2010	10	1	1	1	1	1	-	3	-	-	-	-	-	2	-	20
2011	10	2	2	2	2	1	-	10	2	2	2	3	2	3	4	47
2012	12	2	2	4	2	2	-	10	2	3	2	3	3	3	4	54
2013	12	2	2	5	2	3	-	15	3	3	3	5	5	4	4	68
2014	14	2	2	5	4	3	-	17	3	3	3	5	6	6	6	79
2015	14	2	2	5	4	2	-	17	4	3	3	5	6	6	6	79
2016	14	2	2	5	4	2	-	18	4	3	3	5	6	6	7	81
2017	15	2	3	5	4	3	1	18	5	5	3	5	6	6	9	90
2018	16	2	6	5	4	3	1	19	6	5	3	6	9	8	10	103
2019	16	3	6	5	4	3	1	19	6	5	4	6	9	8	10	105

주: 대안학교에는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각종학교(초등, 중학, 초등+중학, 고교, 초등+중학+고교, 중학+고교) 등이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자료를 연구진이 재가공하여 제시하였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가. 정의

18세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

나. 의의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로 규율되어 전면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방과 후 돌봄 기관으로 기능해왔다.

다. 해설

2004년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895개소에 불과했던 지역아동센터의 수는 2005년 1,709개소로 증가했으며 2011년 3,985개소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이어졌으며 2019년 기준 4,21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수도 지역아동센터의 개소수와 유사한 추세로 증가했으며, 2001년 23,347명에 불과했던 이용아동 수는 2019년 108,971명으로 4.7배로 늘어났다. 반면, 지역아동 개소 수 대비 이용 아동 수를 살펴보면 2004년 26.1명에서 2007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29.1명)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8년 26.5명이었으며 2019년 26.7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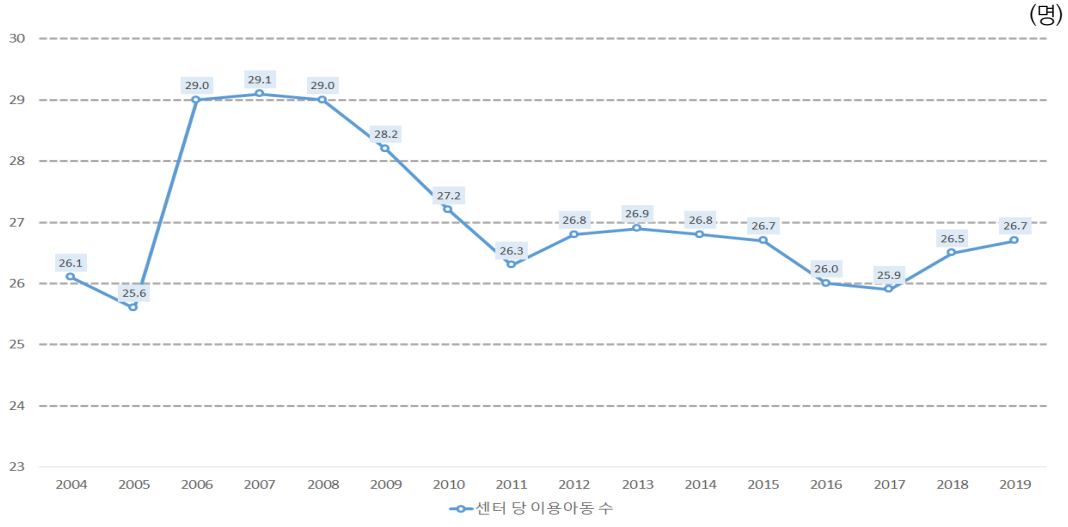
〈표 3-4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2004-2019)

(명, 개소)

구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시설 수
2004	23,347	895
2005	43,749	1,709
2006	58,851	2,029
2007	76,229	2,618
2008	87,291	3,013
2009	97,926	3,474
2010	100,233	3,690
2011	104,982	3,985
2012	108,357	4,036
2013	109,066	4,061
2014	108,936	4,059
2015	109,661	4,102
2016	106,668	4,107
2017	108,578	4,189
2018	109,610	4,211
2019	108,971	4,217

주: 1) 2004-2017년도 센터 당 이용 아동 수는 이용 아동 수를 시설 수로 나눈 비율임.
2) 2018-2019년도 센터 당 이용 아동 수는 각 연도 별 분석 불가능한 시설(휴 · 폐지 시설) 73개소와 136개소를 제외하여 이용 아동 수를 시설 수로 나눈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2020). 「2019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icareinfo.go.kr/info/research/researchDetail.do에서 2021년 1월 19일 인출.



주: 1) 꺾은선그래프 비율=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시설 수

출처: 보건복지부(2020). 「2019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icareinfo.go.kr/info/research/researchDetail.do에서 2021년 1월 19일 인출.

[그림 3-21] 지역아동센터 당 이용 아동 수(2004-2019)

제2절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well-being) 지표

1.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물질적인 재화를 누리고(material well-being), 안전한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영역이다.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은 4개의 빈곤 및 생활수준 영역 지표와 6개의 주거환경을 포괄하는 지표로 구성된다.

빈곤 및 생활수준의 영역에서 물질적 결핍지수, 가정경제형편에 대한 걱정, 그리고 상대적 아동빈곤율과 빈곤갭을 지표로 포함한다. 2018년 기준, 14개의 아동결핍 항목 중 2개 이상 결핍으로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31.5%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물질적 결핍지수는 소득계층과 기초생활수급여부에 따라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수급가구 아동의 물질적 결핍지수는 67%로 일반가구 아동(30%)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아동의 물질적 결핍지수는 높았다. 이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청소년 중 43.3%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자주 또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일반아동(10.2%)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물질적 빈곤은 아동·청소년 가구의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율, 빈곤갭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2018년(소득연도 기준) 0-24세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12.1%로 2015년 14.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소득연도 기준) 0-24세 아동·청소년의 평균 빈곤갭은 30.3%로, 2015년 31.9%에 비해 감소했다. 아동·청소년의 평균 빈곤갭은 전체 인구의 평균 빈곤갭(34.2%)보다 낮은 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영역 삶의 질은 거주지역의 만족도, 편의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아동의 비율, 학생전출입비, 놀이시설 수, 미세먼지 농도 및 대기질 만족도를 지표로 포함하고 있다. 거주지역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6.98점으로 나타났는데 남자 아동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양부모 가정의 아동일수록 외벌이 가정의 아동일수록 높았다. 아동가구의 거주지 인근으로 지역사회 내의 생활편의 시설의 이용 편의성에 대한 인식은

200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대비 2013년 조사에는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이나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급격하게 상승했고 2018년 조사에서는 하향 경향을 보였다.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의 편의성은 2008-2018년까지 3차례에 걸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서 일관되게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의 수준은 아동의 놀 공간, 숨 쉬는 공기의 질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 아동의 놀이시설 현황은 아동의 실내외 놀이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놀이권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의의가 있는데, 2020년 9월 6일 기준 아동놀이시설통계는 전국 76,229개로 0-12세 아동 천 명 당 14.1개로 2018년 13.1개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놀이시설 설치장소는 주택단지의 놀이시설(51.4%)이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21.0%), 도시공원 (13.9%), 학교(8.4%)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12년 35.6%이었는데 2018년 28.4%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표 3-41〉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 (빈곤 및 생활수준, 주거환경)

하위영역	지표	출처
빈곤 및 생활수준	물질적 결핍지수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의 가정경제 어려움에 대한 걱정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	가계금융복지조사
	아동·청소년의 빈곤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거환경	거주지역 만족도	아동종합실태조사
	거주지역 편의성	아동종합실태조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아동 비율	주거실태조사
	학생 전출입비	교육통계
	어린이놀이시설 수	놀이시설통계
	미세먼지농도 및 대기질 만족도	환경부, 사회조사

빈곤 및 생활수준

물질적 결핍지수

가. 정의

아동의 물질적 결핍지수는 다음과 같은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적어도 2개 이상의 항목에 결핍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

No	항 목
1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
2	하루 적어도 한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채식인 경우, 콩류 및 두부류 포함)
3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4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학교 교재 제외)
5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자전거, 스쿠터, 롤러스케이트 등)
6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수영, 악기, 태권도 등)
7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적어도 아동 한명 당 한 개씩이 있으며, 교육적인 유아용 장난감, 보드게임, 블록, 컴퓨터 게임 등을 포함)
8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에 참가하기 위한 돈을 지불할 수 있다
9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10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11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12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한 켤레는 모든 계절에 신을 수 있다)
13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다
14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나. 해설

2018년 기준으로 14개의 아동결핍 항목 중 2개 이상 결핍으로 응답한 아동은 31.5%로 나타났다. 아동의 물질적 결핍지수는 항목이 적절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0-5세 아동을 제외하면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자 아동·청소년일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한부모/조손가구의 아동일수록, 외벌이가구의 아동일수록 물질적 결핍지수는 높았다. 소득계층과 수급/일반아동별 물질적 결핍지수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수급가구의 아동의 물질적 결핍지수는 67%로 일반가구 아동(30%)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이 낮을수록 아동의 물질적 결핍지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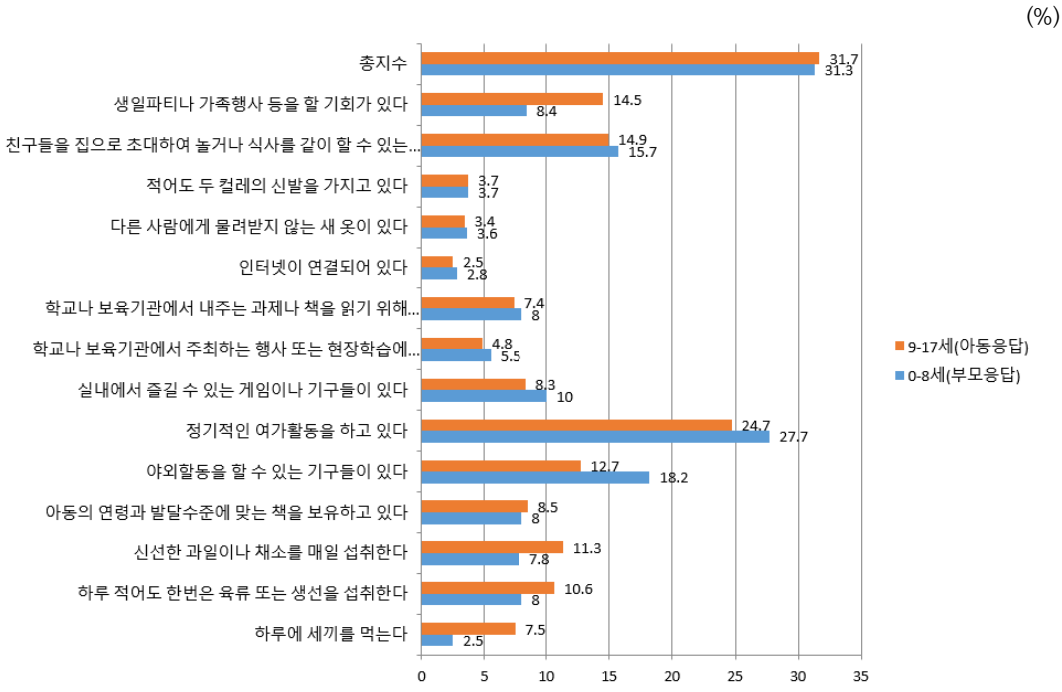
아동의 물질적 결핍수준은 정기적인 여가활동여부, 친구들을 초대하여 같이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지 여부,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여부 등의 항목에서 대체로 높은 결핍수준을 보였으며 0-8세 아동의 경우에는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소유여부,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 소유여부 등에서 고연령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높은 결핍율을 보였다. OECD 회원국 및 유럽국가를 포함한 29개국 국제비교결과는 2018년 동일비교연령대 0~16세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아동의 결핍수준은 31.5%로 가장 높은 수준의 결핍율을 보인 헝가리(31.9%)보다 0.4%p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3-42〉 아동 및 가구특성별 물질적 결핍지수(20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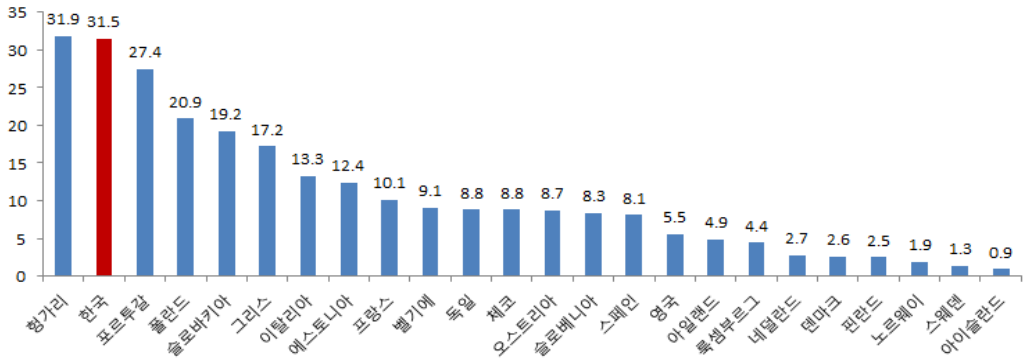
구분		결핍지수
전체		31.53
아동성별	남자	30.81
	여자	32.29
아동연령	0-2세	42.34
	3-5세	29.29
	6-8세	24.20
	9-11세	27.67
	12-17세	33.69
표본	일반	29.92
	수급	66.96
소득계층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	44.33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50-100% 미만	31.19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100-150% 미만	29,68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150% 이상	27.07
	무응답	61.23
지역	대도시	29.61
	중소도시	33.52
	농어촌	27.69
가구유형	양부모	30.11
	한부모/조손	52.90
맞벌이여부	외벌이	33.04
	맞벌이	28.52
	기타	54.22

주: 1)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제공되는 데이터이며, 본 지수는 2018년 자료임.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152&conn_path=I2.
2019년 12월 7일 인출.



주: 1)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제공되는 데이터이며, 본 지수는 2018년 자료임.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152&conn_path=I2.
2019년 12월 7일 인출.

[그림 3-22] 개별항목에 대한 결핍비율(2018)



자료: UNICEF(2013). Child Well-being in Advanced Economies in the Late 2000s.
http://www.unicef-irc.org/publications/pdf/iwp_2013_1.pdf에서 2019년 11월15일 인출.
주: 1) UNICEF(2013). 아동결핍의 국제비교에서 분석대상국은 29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시점은 2009-2010년으로 상이함. 한국은 2018년을 기준년도로 함. 대상아동 연령은 0-16세 아동으로, 14개 문항 중 2개 이상 결핍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산출,

[그림 3-23] 아동결핍 국제비교

아동·청소년의 가정경제 어려움에 대한 걱정

가. 정의

아동·청소년이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에 대한 비율과 4점 평균 점수

나. 해설

아동·청소년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인식 및 걱정의 정도는 4점 평균에서 1.84점으로 나타났다. 수급아동·청소년 중 43.3%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자주 또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일반아동·청소년(10.2%)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자아동·청소년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한부모/조손 가정의 아동·청소년일수록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정도는 높았다.

〈표 3-43〉 아동·청소년의 가정경제 어려움에 대한 걱정(2018)

(점, %)

구분		4점 평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가끔 걱정한다	자주 걱정한다	항상 걱정한다
전체		1.84	30.4	57.6	10.0	2.1
아동 성별	남자	1.87	27.9	58.7	11.6	1.9
	여자	1.80	33.1	56.5	8.2	2.3
아동 연령	9-11세	1.71	39.2	51.6	8.3	0.9
	12-17세	1.90	35.9	60.7	10.8	2.6
표본	일반	1.80	31.5	58.3	9.0	1.2
	수급	2.49	11.1	45.6	26.6	16.7
소득 계층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	2.20	17.2	54.7	18.8	9.3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50-100% 미만	1.90	25.2	62.4	10.0	2.4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100-150% 미만	1.78	32.7	56.8	9.9	0.5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150% 이상	1.64	43.6	49.7	5.7	0.9
	무응답	2.02	7.20	88.2	0.3	4.4
지역	대도시	1.84	31.3	55.7	11.2	1.9
	중소도시	1.83	30.4	58.2	9.0	2.3
	농어촌	1.87	23.2	67.4	8.2	1.2
가구 유형	양부모	1.80	31.5	58.1	8.9	1.5
	한부모/조손	2.26	15.9	51.3	23.4	9.4
맞벌이 여부	외벌이	1.83	31.5	56.9	9.0	2.6
	맞벌이	1.83	29.7	59.0	10.0	1.3
	기타	2.27	21.8	38.6	30.0	9.6

주: 1)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제공되는 데이터이며, 본 지수는 2018년 데이터만 공개됨.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155&conn_path=I2 에서 2019년 12월 6일 인출.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

가. 정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아동·청소년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소득이 빈곤선(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아동·청소년 빈곤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나. 해설

2018년(소득연도 기준) 0-17세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12.3%, 0-24세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12.1%로 나타났다. 0-24세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5년 14.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교급별로 빈곤율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초등학생은 12.5%, 중학교 학생은 12.4%, 고등학교 학생은 13.8%, 대학생 이상은 9.8%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7년 기준으로 12.8%로, 한국의 2017년 기준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나, 한국의 2018년 수치를 대입하면 OECD 평균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 중 핀란드, 덴마크가 5% 미만이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들이 11%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다른 경제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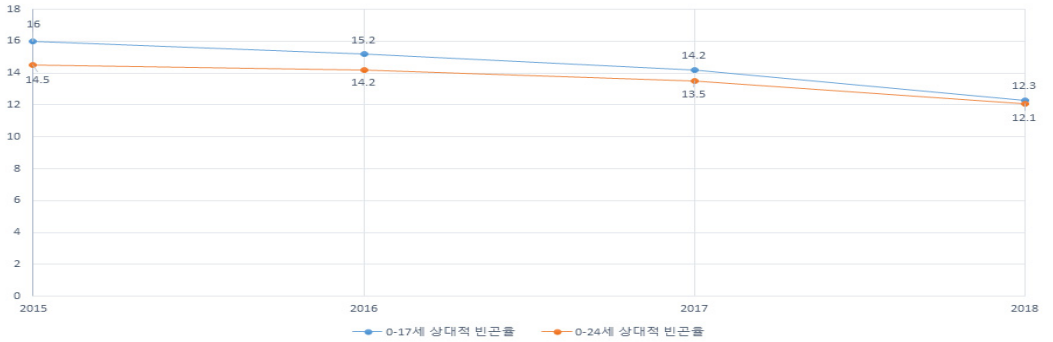
〈표 3-44〉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2015-2018)

(%)

연도	0-17세	0-24세				
			초	중	고	대학
2015	16.0	14.5	15.1	17.6	16.6	10.6
2016	15.2	14.2	15.6	15.2	15.8	10.6
2017	14.2	13.5	14.9	12.5	13.6	10.2
2018	12.3	12.1	12.5	12.4	13.8	9.8

주: 1) 학교 급간의 경우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하여 분석함.
2) 상대적 빈곤선은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중위 50%임.
3) 소득 기준연도임(즉, 2018년 결과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료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RAS 분석

(%)



주: 1) 학교 급간의 경우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하여 분석함.
2) 상대적 빈곤선은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중위 50%임.
3) 소득 기준연도임(즉, 2018년 결과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료임)
출처: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RAS 분석

[그림 3-24] OECD 회원국의 아동·청소년 상대적 빈곤율(2017)

〈표 3-45〉 OECD 회원국의 아동·청소년 상대적 빈곤율(2017)

(%)

국가명	0-17세의 상대적 빈곤율
핀란드	3.6
덴마크	3.7
아이슬란드	5.9
슬로베니아	6.4
체코	6.8
폴란드	6.8
노르웨이	8.0
아일랜드	8.6
스웨덴	9.3
에스토니아	9.8
헝가리	9.9
네덜란드	10.9
라트비아	11.1
프랑스	11.2
독일	11.3
오스트리아	11.5
캐나다	11.6
슬로바키아	11.8
스위스	12.0
포르투갈	12.2
호주	12.5
OECD 평균	**12.8**
영국	12.9
벨기에	13.0
룩셈부르크	13.9
일본	13.9
뉴질랜드	14.1
터키	25.3
그리스	15.9
리투아니아	18.4
이탈리아	18.7
스페인	19.6
멕시코	19.8
미국	21.2
칠레	21.5
이스라엘	23.7
한국 2017	**14.2**
한국 2018	**12.3**

주: 1) 분석대상은 0-17세 임.
2) 국가별 수치는 2017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국가는 최근 연도 활용. 2016년(호주, 멕시코, 덴마크, 네덜란드), 2015년(아이슬란드, 일본, 터키), 2014년(뉴질랜드)
3)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수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정에 따라 2017 기준 14.5%에서 14.2%로 조정되었음.
출처: OECD(2019d).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아동·청소년의 빈곤갭

가. 정의

빈곤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과의 격차를 나타내는 비율. 즉, 상대적 빈곤선에 해당하는 소득과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차이

나. 해설

2018년(소득연도 기준) 0-24세 아동·청소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은 2,834만원으로 2018년 전체인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2,756만원보다는 높다. 또한 2018년 0-24세 아동·청소년의 평균 빈곤갭은 30.3%로 전체 인구의 평균 빈곤갭(34.2%)보다는 낮은 편이다. 평균 빈곤갭은 2015년 31.9%에서 거의 비슷하나 소폭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평균 빈곤갭은 28.0%, 중학생은 30.6%, 고등학생은 33.4%, 대학생 이상은 31.1% 수준을 보였다. 2015년 이후의 변화를 보면 고등학생을 제외한 학교급에서 평균 빈곤갭이 소폭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표 3-46〉 아동·청소년의 균등화 처분가능 중위소득(2018)

(만원/년)

연도	전체 인구	0-17세	0-24세	초	중	고	대학
2018	2,756	2,756	2,834	2,751	2,894	2,922	3,264

주: 1) 학교 급간의 경우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하여 분석함.
2) 소득 기준연도임(즉, 2018년 결과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료임).
3)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로 균등화 처리한 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분석

〈표 3-47〉 아동·청소년의 평균 빈곤갭(2015-2018)

(%)

연도	0-17세	0-24세	초	중	고	대학
2015	31.9	31.9	33.6	31.6	29.2	31.3
2016	31.1	31.1	30.3	30.7	32.7	30.0
2017	31.8	32.0	31.4	32.0	30.9	33.6
2018	30.2	30.3	28.0	30.6	33.4	31.1

주: 1) 학교 급간의 경우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하여 분석함.
2) 상대적 빈곤선은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중위 50%임.
3) 소득 기준연도임(즉, 2018년 결과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료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RAS 분석

주거환경

거주지역 만족도

가. 정의

사는 동네에 대한 만족도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10점(매우 만족한다)까지 응답한 값의 평균 값

나. 해설

거주지역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6.98점으로 주양육자의 만족도(6.8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 아동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양부모 가정의 아동일수록 외벌이 가정의 아동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아동은 수급가구의 아동으로 일반가구 아동(7.02점)보다 현저하게 낮은 6.22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3-48〉 거주지역 만족도(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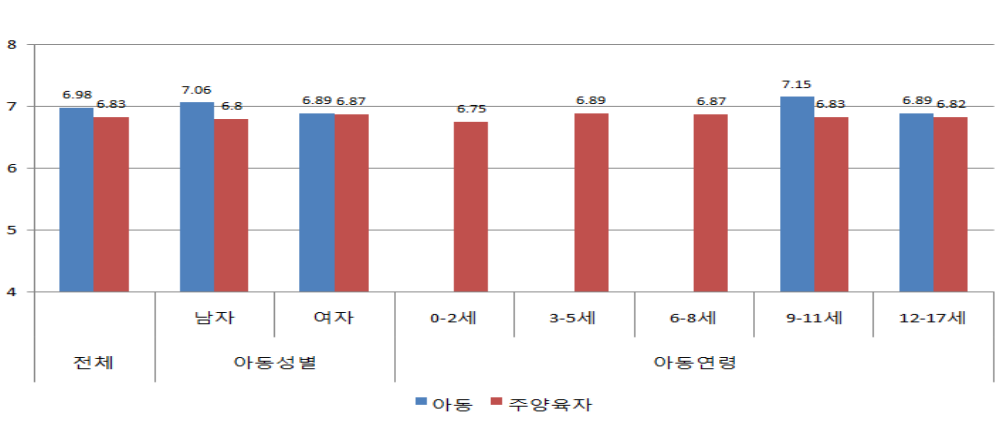
(점)

구분		아동	주양육자
전체		6.98	6.83
아동성별	남자	7.06	6.80
	여자	6.89	6.87
아동연령	0-2세	-	6.75
	3-5세	-	6.89
	6-8세	-	6.87
	9-11세	7.15	6.83
	12-17세	6.89	6.82
표본	일반	7.02	6.87
	수급	6.22	6.08
소득계층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	6.76	6.65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50-100% 미만	6.98	6.73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100-150% 미만	6.96	6.89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150% 이상	7.19	7.11
	무응답	6.29	6.24
지역	대도시	6.97	6.91
	중소도시	6.95	6.72
	농어촌	7.22	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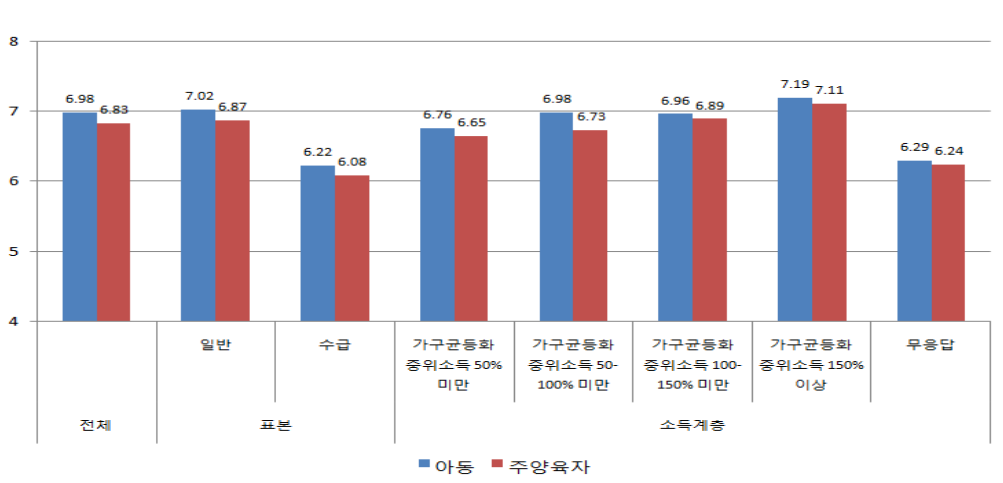
구분		아동	주양육자
가구유형	양부모	7.00	6.86
	한부모/조손	6.71	6.35
맞벌이여부	외벌이	7.05	6.86
	맞벌이	6.92	6.81
	기타	6.70	6.57

주: 1)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제공되는 데이터이며, 본 지수는 2018년 데이터만 공개됨.
2) 동네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11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10점(매우 만족한다)까지 응답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아동)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140&conn_path=I2 에서 2019년 12월 6일 인출.
주양육자)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134&conn_path=I2 에서 2019년 12월 6일 인출.



[그림 3-25] 성별, 아동연령별 거주지역 만족도(2018)



[그림 3-26] 소득계층별 거주지역 만족도(2018)

거주지역 편의성

가. 정의

지역사회에서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의료기관, 교육시설, 대중교통이 도보로 10분 이내, 자연환경이 도보로 20분 이내에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나. 해설

아동가구의 거주지 인근으로 지역사회 내의 생활편의 시설의 이용 편의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2008년 조사 대비 2013년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이나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2018년도 하향 경향을 보였다. 문화, 체육시설의 편의성에 대한 인식은 2008년 62.9%에서 2013년 82.4%로 올랐다가 2018년 73.1%로 낮아졌다. 대중교통의 도보 10분 이내 이용 가능성과 자연환경의 도보 20분 이내 이용 가능성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편의시설 유형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의 편의성은 다른 시설 유형에 비교하여 2008-2018년까지 3차례에 걸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서 일관되게 가장 낮게 나타났다.[9)]

가구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급가구의 아동들은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의 접근성이 일반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 및 자연환경 접근성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졌다.

9) 단, 조사대상의 표집 방법의 차이나 조사방식 등의 외부적 조건이 조정되지 않은 통계결과이므로 시계열 분석의 연도별 비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3-49〉 거주지역 편의성(2008, 2013, 2018)

(%)

구분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의료기관	교육시설	대중교통이 도보로 10분 이내	자연환경이 도보로20분 이내
2008	62.9	57.1	78.5	85.9	89.4	80.4
2013	82.4	76.3	89.8	90.7	94.1	87.3
2018	73.1	64.9	83.8	87.2	86.7	74.2

주: 1)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제공되는 데이터

출처: 1) 보건복지부(2008). 「200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8024&conn_path=I2에서 2019년 8월 22일 인출.
2)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에서 2019년 8월 22일 인출.
3)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온-나라 정책연구,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351000-201800288&leftMenuLevel=160&cond_research_name=%EC%95%84%EB%8F%99%EC%A2%85%ED%95%A9%EC%8B%A4%ED%83%9C%EC%A1%B0%EC%82%AC&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pageUnit=10&cond_order=3에서 2019년 8월 22일 인출.

〈표 3-50〉 거주지역 편의성(2018)

(%)

구분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의료기관	교육시설	대중교통이 도보로 10분 이내	자연환경이 도보로 20분 이내
표본	일반	73.4	64.8	84.0	87.2	86.8	74.2
	수급	65.4	67.3	80.4	87.3	84	74.3
소득계층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	69.2	59.7	74.5	84.8	82.5	66.4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50-100% 미만	64.6	64.3	82.7	79.3	87.3	71.6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100-150% 미만	73.5	65.0	85.1	87.4	85.3	75.0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150% 이상	78.9	70.5	88.6	87.6	90.8	84.0
	무응답	88.2	59.0	100.0	90.0	100.0	88.7
지역구분1	대도시	75.3	65.0	83.4	100	86.3	73.0
	중소도시	73.7	66.0	85.3	85.2	88.1	74.9
	농어촌	53.0	55.6	74.6	89.8	77.7	76.4
지역구분1	대도시	76.4	70.0	87.8	78.0	92.3	74.2
	중소도시	70.1	59.2	83.3	92.8	88.5	72.0
	제한도시	76.2	65.7	83.3	91.4	86.1	72.7
	도농복합	71.5	64.4	83.5	85.5	79.9	77.7
	농어촌	50.9	52.7	75.9	84.7	79.5	78.1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127&conn_path=I2에서 2019년 12월 6일 인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아동·청소년 비율

가. 정의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의미함. 여기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아동·청소년 비율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을 의미함.

〈표 3-51〉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100-490호, '11.5.27)

가구원수(인)	1	2	3	4	5	6
방수(개)	1	1	2	3	3	4
면적(㎡)	14	26	36	43	46	55

- 시설기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 침실기준 및 면적기준: 가구원수별 방수 및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해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018년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5.7%인데 비해 아동·청소년가구는 4.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의 경우에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한부모가구에서 7.7%로 가장 높아 물리적 주거여건이 가장 열악하게 나타났다.

〈표 3-52〉 아동·청소년가구의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2018)

(%, 만가구)

구분		최저주거기준미달	면적기준미달	시설기준미달	침실기준미달
일반가구 전체		5.7 (111.1)	4.0	3.1	0.4
아동·청소년 가구 총계		4.1 (22.1)	3.5	0.1	1.0
양부모가구	소계	3.9 (19.3)	3.3	0.1	1.0
	양부모+아동	3.7 (17.6)	3.3	0.1	0.9
	양부모+조부모+아동	6.0 (1.6)	4.1	0.1	2.4
한부모가구	소계	7.7 (2.6)	7.0	0.4	1.5
	한부모+아동	8.0 (1.8)	7.3	0.3	1.8
	한부모+조부모+아동	7.1 (0.8)	6.5	0.5	1.0
조손가구		4.7 (0.2)	3.8	0.9	-

주: 괄호안은 미달가수 수(만가구)를 의미함
출처: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학생 전출입비

가. 정의

학교급별 전출 대비 전입 학생 수

나. 해설

학교급별 전출 대비 전입 학생 수 비율은 지역 간 및 지역 내 학생 유출입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다. 최근 5년간 전출 대비 전입 학생 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세종이었다. 2019년 초등학교 2.15%, 중학교 2.47%, 고등학교 1.90%로 타 지역과 비교해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 유입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표 3-53〉 학생 전출입비(2015, 2019)

(%)

지역	2015							2019						
	초	중	고					초	중	고				
			소계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소계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서울	0.92	0.97	0.99	1.20	1.31	0.42	0.69	0.77	0.89	1.00	1.23	0.97	0.55	0.87
부산	1.01	1.03	0.96	0.99	0.68	0.87	1.25	0.95	0.89	0.90	1.02	0.73	0.57	0.90
대구	1.03	1.02	0.99	1.06	0.90	1.36	0.76	0.97	0.89	0.94	1.20	0.72	0.43	0.88
인천	1.01	1.05	1.00	1.05	0.38	1.03	0.75	0.92	1.00	0.95	1.25	0.70	0.44	0.79
광주	1.02	1.08	0.97	0.87	2.23	1.86	0.78	0.98	0.92	0.79	0.79	0.71	1.08	0.21
대전	0.92	0.86	0.72	0.57	0.72	1.98	0.45	0.77	0.71	0.72	0.68	1.69	0.91	0.49
울산	1.00	1.02	0.90	0.98	0.49	1.10	0.74	0.87	0.81	0.74	0.93	0.20	0.64	0.83
세종	2.69	2.74	5.67	7.07	1.67	-	1.46	2.15	2.47	1.90	1.88	0.75	1.33	6.50
경기	1.00	0.98	1.05	1.15	0.65	0.67	0.66	1.10	1.07	1.10	1.24	0.66	0.73	0.71
강원	1.00	0.94	0.90	0.93	0.36	0.96	-	0.98	0.85	0.99	1.09	0.24	0.87	0.00
충북	0.96	0.97	0.91	0.79	1.36	1.26	0.69	0.94	0.91	0.96	1.19	0.36	0.77	0.66
충남	0.97	0.98	0.72	0.71	0.78	0.70	0.79	0.99	1.10	0.89	1.08	0.33	0.78	0.69
전북	1.05	0.99	0.88	0.98	0.50	0.76	0.62	0.97	0.92	0.99	1.14	1.00	0.86	0.30
전남	1.02	0.92	0.94	0.87	0.47	1.33	0.74	0.98	0.91	1.04	1.06	0.65	1.19	0.89
경북	0.88	0.92	0.89	0.93	0.64	0.82	0.89	0.84	0.98	0.73	0.78	0.76	0.69	0.48
경남	0.99	0.88	0.97	0.91	0.73	1.47	0.72	0.99	0.95	1.03	1.03	0.84	1.05	1.08
제주	1.21	1.01	0.90	0.90	0.00	0.98	1.33	1.18	0.95	0.83	0.95	0.14	0.43	-

주: 학생 전출입비 = (전입 학생 수 ÷ 전출 학생 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0).「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에서 2020년 9월 10일 인출.

〈표 3-54〉 시군구별 학생 전출입비 (상위10개) (2018-2019)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9	지역	행정구	전출입비	지역	행정구	전출입비	지역	행정구	전출입비
	세종	세종시	2.15	경북	청도군	3.18	경북	예천군	3.00
	경기	과천시	2.00	대구	중구	2.57	경북	청송군	2.67
	서울	강남구	1.91	세종	세종시	2.47	부산	기장군	2.37
	경기	하남시	1.88	경기	화성시	1.94	경남	양산시	2.08
	경기	김포시	1.76	경기	시흥시	1.81	경북	봉화군	2.00
	부산	남구	1.76	서울	종로구	1.80	전북	김제시	1.93
	경기	시흥시	1.69	경기	하남시	1.74	세종	세종시	1.90
	인천	연수구	1.67	경남	양산시	1.69	전북	완주군	1.83
	대구	수성구	1.55	부산	남구	1.66	경기	광주시	1.78
	경기	화성시	1.54	경남	함양군	1.64	강원	춘천시	1.7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8	지역	행정구	전출입비	지역	행정구	전출입비	지역	행정구	전출입비
	세종	세종시	2.74	대구	남구	5.11	세종	세종시	2.90
	경기	하남시	2.28	세종	세종시	2.78	부산	강서구	2.12
	대구	달성군	1.78	경기	하남시	2.66	강원	고성군	2.00
	경기	김포시	1.77	충북	진천군	2.26	경북	영천시	1.92
	서울	강남구	1.73	대구	달성군	2.13	경남	합천군	1.92
	충북	진천군	1.63	경남	양산시	2.11	충남	홍성군	1.88
	경기	화성시	1.62	전북	무주군	2.00	서울	광진구	1.84
	경북	안동시	1.57	전남	나주시	1.94	충남	금산군	1.83
	충남	홍성군	1.54	강원	영월군	1.92	강원	속초시	1.81
	서울	양천구	1.53	대구	중구	1.80	경남	양산시	1.80

주: 상위 10개 학교급별 시군구별 전출입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0).「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에서 2020년 9월 10일 인출.

어린이놀이시설 수

가. 정의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놀이시설 수

나. 의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포용국가아동정책(2019)에서 아동의 놀이권 실현은 중요한 아동정책현안으로 선정되어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이 제시된 바 있다. 아동의 놀이시설 현황은 아동의 실내외 놀이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놀이권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의의가 있다.

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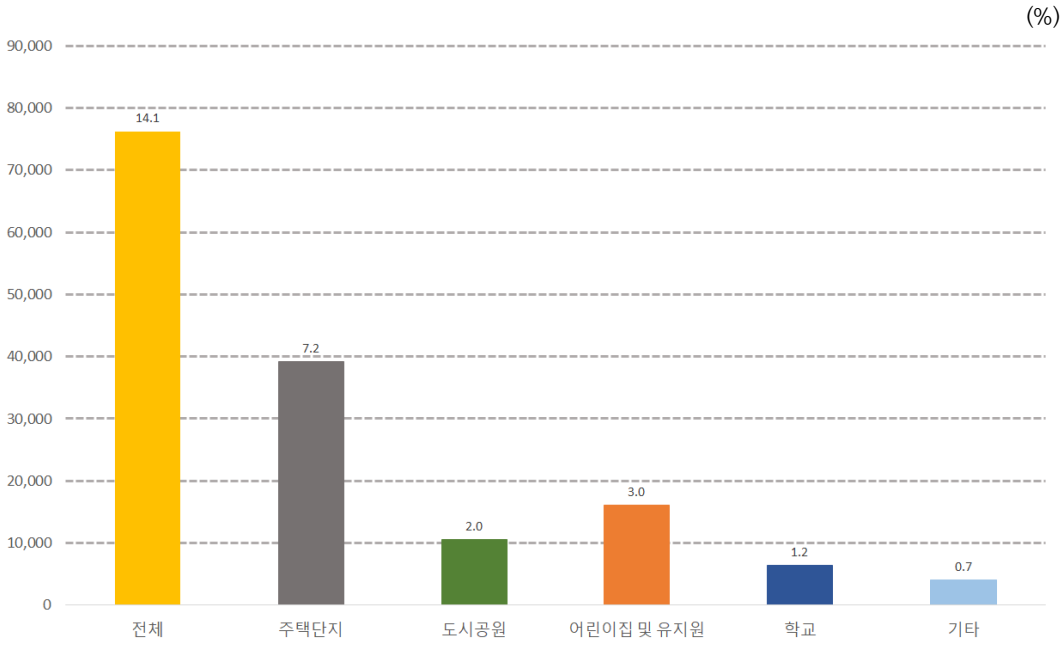
2020년 9월 6일 기준 아동놀이시설통계는 전국 76,229개로 0-12세 아동 천 명당 14.1개로 2018년 13.1개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놀이시설 설치장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단지의 놀이시설(51.4%)이였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21.0%, 도시공원이 13.9%로 많았다. 이에 비해 학교는 8.4%,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55〉 어린이놀이시설 수(2018, 2020)

(개, %)

구분	전체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기타
2018	74,603	37,777	10,239	16,263	6,369	3,955
	100.0	50.6	13.7	21.8	8.5	5.3
0-12세 아동천명당	13.1	6.7	1.8	2.9	1.1	0.7
2020	76,229	39,158	10,601	16,027	6,401	4,042
	100.0	51.4	13.9	21.0	8.4	5.3
0-12세 아동천명당	14.1	7.2	2.0	3.0	1.2	0.7

주: 0-12세 아동 천 명당 비율: 놀이시설 수 * 1000/ 장래인구추계(5세 연령별)
출처: 1) 행정안전부, 「놀이시설통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https://www.cpf.go.kr/front/sub01/sub0102.do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주: 0-12세 아동 천 명당 비율: 놀이시설 수 * 1000/ 장래인구추계(5세 연령별)
출처: 1) 행정안전부, 「놀이시설통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https://www.cpf.go.kr/front/sub01/sub0102.do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그림 3-27] 어린이 놀이시설 수, 설치장소 별 비율(2020)

미세먼지 농도 및 대기질 만족도 ① 미세먼지 농도

가. 정의

17개 시도의 연평균 미세먼지(PM2.5)의 농도를 추계인구로 가중한 평균값

나.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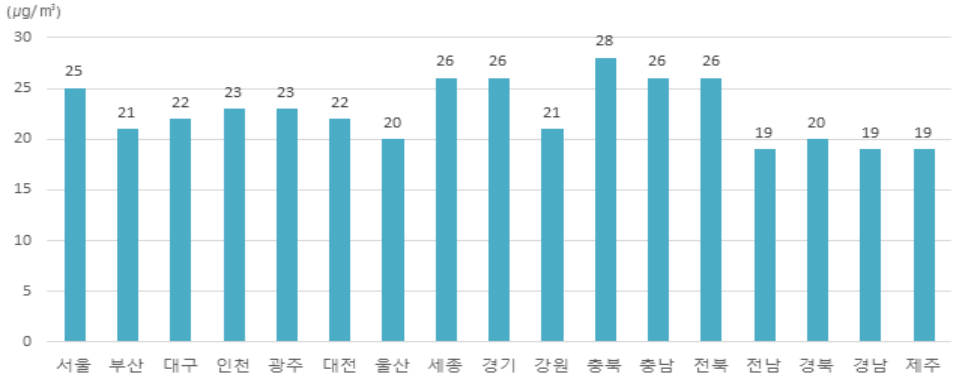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PM2.5)는 2015년 26㎍/㎥, 2018년 23㎍/㎥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27㎍/㎥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2019년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28㎍/㎥로 가장 높으며, 서울, 세종, 경기, 충남, 전북 등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21㎍/㎥이하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

〈표 3-56〉 미세먼지 농도($PM_{2.5}$) (2015-2019)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미세먼지 농도	26	26	25	23	27

주: 1) 17개 지역의 연평균 농도를 인구가중하여 평균한 값임
출처: 환경부(2020).「대기환경연보」.



출처: 환경부(2020).「대기환경연보」.

[그림 3-28] 17개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PM_{2.5}$) (2019)

미세먼지 농도 및 대기질 만족도 ② 대기질 만족도

가. 정의

만13-24세의 아동·청소년 중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좋다(4점)' 또는 '매우 좋다(5점)'고 응답한 비율

나. 해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12년 35.6%, 2014년 33.7%, 2016년 30.4%, 2018년 28.4%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표 3-57〉 성별 연령별 대기질 만족도 (2012-2018)

(%)

연도	대기환경이 좋음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3-19세	20-24세
2012	35.6	37.4	33.7	37.2	33.1
2014	33.7	35.8	31.7	36.2	30.2
2016	30.4	32.7	28.2	33.9	26.5
2018	28.4	30.8	26.0	31.1	25.1

주: 1)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매우 좋다(5점)+좋다(4점) 응답 비율임.
2) 사회조사의 조사대상은 만 13세 이상 성인이며, 사회조사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활용하여 만 13-24세 결과를 재산출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분석.

2. 건강 영역

건강 영역 개요

건강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태아 시기에서부터 출산, 양육까지 안전하고 예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영역이다. 건강 영역은 4개의 지표로 구성된 정신건강 영역, 7개의 지표로 구성된 신체건강 영역, 7개의 지표로 구성된 건강행동 영역으로 이루어져있다. 대상연령대는 발달단계에 따라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후기청소년기 등을 최대한 포괄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상의 이유로 모든 지표에 걸쳐 모든 아동·청소년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현황은 스트레스 정도와 우울한 감정경험, 자살생각 및 자살률을 통해 분석되었다. 아동·청소년은 학업문제(63.1%)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48.2%)에 따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모든 스트레스 원인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우울한 감정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도 여자 아동·청소년일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한부모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인구 십만 명당 5.4명에서 2019년 6.9명으로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후기청소년(20-24세)의 자살률이 2017년 13.3명에서 2019년 17.2명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동·청소년의 신체건강 영역에서는 조산아율, 저체중 출생아율의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산아 출생비율은 2000년 이후 3.8%에서 2019년 8.1%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감소와 대조적인 경향으로 초혼 연령의 상승, 고령 산모의 증가, 체외 수정술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장애아동·청소년의 수도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38,165명이었고 지적 장애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51.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15.1%로 2007년 8.7%에 비해 6.4%p 증가했으며 남자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이 17.6%로 여자에 비해 5%p이상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강행동의 영역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율이 36.7%에 불과했던 2008년 대비 2018년 74.5%로 증가했으며 약 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다. 영유아 건강검진 종합판정에서 정밀평가필요를 받은 영유아 비율이 2018년에는 6.9%로 조사되어 2012년 대비 3.6%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영양결핍률은 2018년 기준 12-18세 청소년이 17.6%로 가장 높았고 3-5세 아동이 3.8%로 가장 낮았으며, 아침식사결식률의 경향도 유사한 연령별 특성을 보이고 있다.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3명 중 하나(37.4%)는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19-29세의 후기청소년, 청년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50.1%에 달했다. 2019년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14.7%로 2009년 10.9%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9년 32.0%로 전년 대비 5.8%p만큼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는 OECD국가 평균 52%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표 3-58〉 건강 영역 (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행동)

하위영역	지표	출처
정신건강	스트레스 정도와 원인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우울한 감정 경험 (참고지표: 주양육자의 우울 정도)	아동종합실태조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자살률	사망원인통계
신체건강	조산아율	인구동향조사
	저체중 출생아율	인구동향조사
	장애아동·청소년 유형별 비율	장애인현황
	비만율	학생건강검사표본통계
	주관적 건강수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수면시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아동·청소년 연간 입원율	국민건강통계
건강행동	수유행태별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영유아 건강검진율 및 정밀평가필요 영유아비율	건강검진통계
	예방접종률	전국예방접종률현황
	치과검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영양결핍률	국민건강영양조사
	아침식사 결식률	국민건강영양조사
	규칙적 운동 실천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정신건강

스트레스 정도와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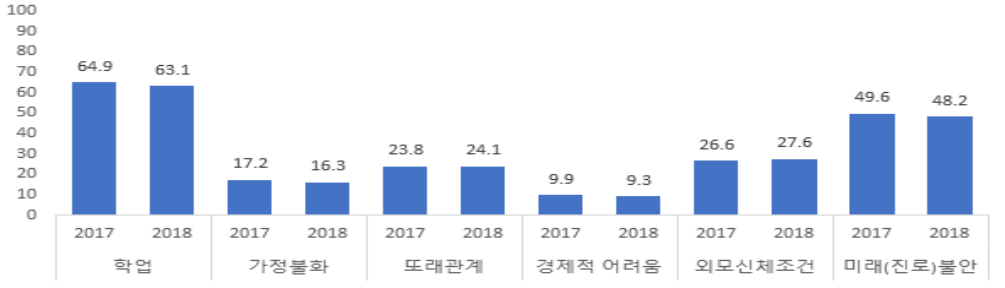
가. 정의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는 6가지 스트레스 원인(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신체조건,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별로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으로 각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4가지 범주('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그 중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나. 해설

초·중·고등학생의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7년 조사와 2018년 조사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7년 조사와 2018년 조사에서 모두 학업문제(64.9%, 63.1%)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49.6%, 48.2%)이 가장 보편적인 스트레스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외모신체조건(26.6%, 27.6%)과 또래와의 관계(23.8%, 24.1%)가 뒤를 잇고, 가정불화(17.2%, 16.3%)와 경제적인 어려움(9.9%, 9.3%)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스트레스를 느꼈다. 모든 스트레스 원인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정불화와 또래와의 관계를 제외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각 원인별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35_1&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그림 3-29]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2017, 2018)

고교 유형별 비교에서는, 특성화계고 학생들이 가정불화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일반계고 학생의 비율보다 높았고, 학업문제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은 일반계고의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았다. 2017년 조사에서는 읍면지역의 스트레스 수준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높았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유형별 비교에서는 학업문제를 제외하면, 한부모 가정의 스트레스 수준이 일관되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하위에 위치한 경우, 학업 또는 경제적 관련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중상위층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표 3-59〉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2017, 2018)

(%)

		2017						2018					
		학업 문제	가정 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신체 조건	미래(진로) 불안	학업 문제	가정 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신체 조건	미래(진로) 불안
전체		64.9	17.2	23.8	9.9	26.6	49.6	63.1	16.3	24.1	9.3	27.6	48.2
성별	남자	58.2	15.2	15.1	7.9	18.6	41.7	56.5	14.5	14.0	7.0	17.4	40.5
	여자	72.0	19.4	33.3	12.3	35.2	58.2	70.1	18.3	35.0	11.6	38.6	56.7
학교급	초등학교	46.6	17.9	21.7	6.1	15.0	17.0	44.6	15.9	21.1	5.4	15.8	16.8
	중학교	67.6	16.4	26.9	8.1	29.0	50.5	65.7	15.6	25.9	7.5	30.9	47.9
	고등학교	76.1	17.4	22.9	14.4	33.2	73.3	75.4	17.2	25.0	13.8	34.2	73.4
고교 유형	일반계고	82.0	16.6	23.5	13.1	33.2	75.9	80.3	16.6	24.3	12.5	33.9	76.0
	특성화계고	51.7	20.8	20.2	20.1	32.6	62.6	55.2	20.1	28.0	19.3	35.7	62.7
지역 규모	대도시	64.0	16.9	22.9	9.0	25.8	48.6	62.7	15.7	22.3	9.0	26.4	46.8
	중소도시	64.9	16.8	23.7	9.5	25.9	47.6	63.3	16.8	25.5	9.3	28.8	49.4
	읍면지역	67.1	19.3	27.0	14.3	30.8	58.8	63.1	16.3	24.6	9.6	26.8	48.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5.1	15.9	23.5	8.8	26.1	49.2	63.3	15.5	23.9	8.2	27.0	48.1
	한부모가정	66.0	31.8	29.3	23.3	33.6	58.8	59.9	26.3	28.4	23.1	36.8	52.3
	조손가정	61.2	24.6	26.8	12.9	26.6	41.9	53.6	19.1	16.2	13.9	22.5	40.6
	기타	42.8	18.3	14.3	15.2	20.4	33.7	70.5	17.3	26.7	11.9	30.5	47.8
학업 성적	상	59.1	16.0	22.1	7.2	21.5	39.4	56.5	13.5	20.0	5.5	20.1	36.8
	중	66.2	15.8	22.9	8.6	24.8	49.2	63.1	15.6	23.8	8.9	25.7	47.2
	하	70.5	21.5	27.8	16.5	36.9	65.1	72.2	21.6	30.7	15.1	41.6	66.5
경제적 수준	상	61.1	13.2	20.7	3.4	20.8	41.7	58.1	11.6	19.8	2.8	21.5	39.4
	중	67.7	17.7	25.2	9.4	29.7	55.1	67.9	17.7	26.4	8.6	29.9	55.7
	하	74.8	36.6	35.9	46.1	45.8	72.7	73.8	38.0	40.6	48.2	54.1	71.7

주1) 각 스트레스 원인 별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35_1&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우울한 감정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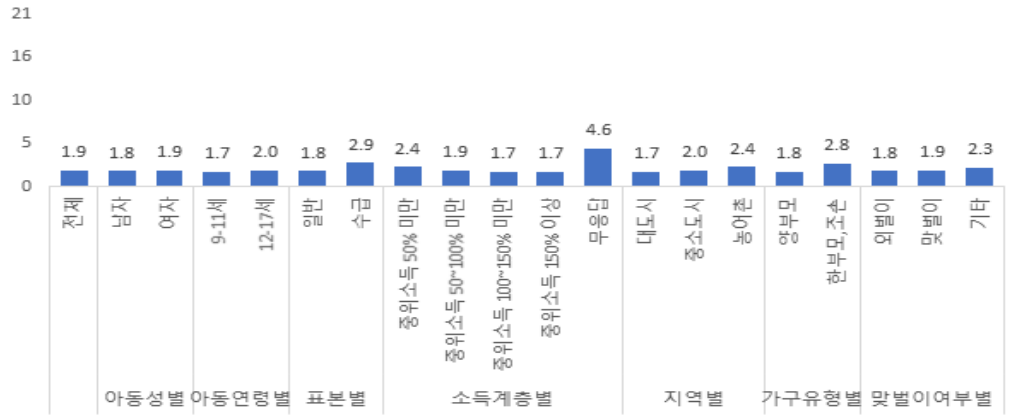
가. 정의

K-CBCL의 우울 및 불안 영역의 13문항을 합산한 점수

나. 해설

9~17세 아동·청소년의 우울한 감정 경험을 K-CBCL 우울 및 불안 영역의 합산 점수로 확인한 결과, 전체 평균은 1.88점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감정의 여자 아동·청소년의 평균은 1.93점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의 평균 1.83점보다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12-17세의 평균(1.97점)이 9-11세의 평균(1.72점)보다 높았으며, 맞벌이 가정의 평균(1.90점)이 외벌이 가정의 평균(1.84점)보다 높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계층, 지역, 가구유형에 따른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이들이 확인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정의 평균은 2.86점으로 일반 가정의 평균 1.82점보다 1점 가량 높았으며,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우울 평균 점수를 보이며 중위소득 50% 미만 가정의 평균은 2.35점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및 조손 가정의 평균(2.80점)은 양부모 가정 평균(1.81점)에 비해 1점 가량 높았으며, 지역별 우울 평균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점)



주1) 우울 및 불안의 평균값은 13개 문항의 합의 평균을 의미함.
출처: 보건복지부(2019),「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022&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그림 3-30] 우울한 감정 경험(2018)

〈표 3-60〉 우울한 감정 경험(2018)

(점)

		2018
전체	소계	1.88
아동성별	남자	1.83
	여자	1.93
아동연령별	9-11세	1.72
	12-17세	1.97
표본별	일반	1.82
	수급	2.86
소득계층별	중위소득 50% 미만	2.35
	중위소득 50~100% 미만	1.93
	중위소득 100~150% 미만	1.72
	중위소득 150% 이상	1.72
	무응답	4.59
지역별	대도시	1.72
	중소도시	1.97
	농어촌	2.35
가구유형별	양부모	1.81
	한부모,조손	2.80
맞벌이여부별	외벌이	1.84
	맞벌이	1.90
	기타	2.29

주1) 우울 및 불안의 평균값은 13개 문항의 합의 평균을 의미함.
출처: 보건복지부(2019),「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022&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참고지표) 주양육자의 우울 정도

가. 정의

아동의 주양육자가 지난 1주일간 느낀 우울감의 정도

나. 해설

2018년 조사에서 0-17세 아동의 주양육자가 지난 1주일간 느낀 우울 정도는 4.19점으로 주양육자의 우울 정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남자 아동의 주양육자(4.22점)가 여자 아동의 주양육자(4.16점)보다 우울 정도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0-2세 아동의 주양육자(4.80점) 우울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2-17세 아동의 주양육자(4.30점) 우울 정도가 높았다. 표본 및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양육자의 우울 정도는 수급가구 주양육자(7.58점)가 일반가구 주양육자(4.04점)보다 높았고, 한부모·조손가족 주양육자(7.54점)가 양부모가족 주양육자(3.97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61〉 성·연령·표본·가구유형별 주양육자의 우울 정도(2018)

(점)

전체	성별		연령별					표본별		가구유형별	
	남자	여자	0-2세	3-5세	6-8세	9-11세	12-17세	일반가구	수급가구	양부모가족	한부모·조손가족
4.19	4.22	4.16	4.80	4.28	3.69	3.86	4.30	4.04	7.58	3.97	7.54

주: 1) '극히 드물다'를 0점으로 하고 '대부분 그렇다'를 3점으로 한 우울척도 CES-D 11개 문항 합계 점수(0-33점) 평균임.
2) 2018년 조사표본은 일반가구 아동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수급가구 아동으로 구분됨.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032&conn_path=I2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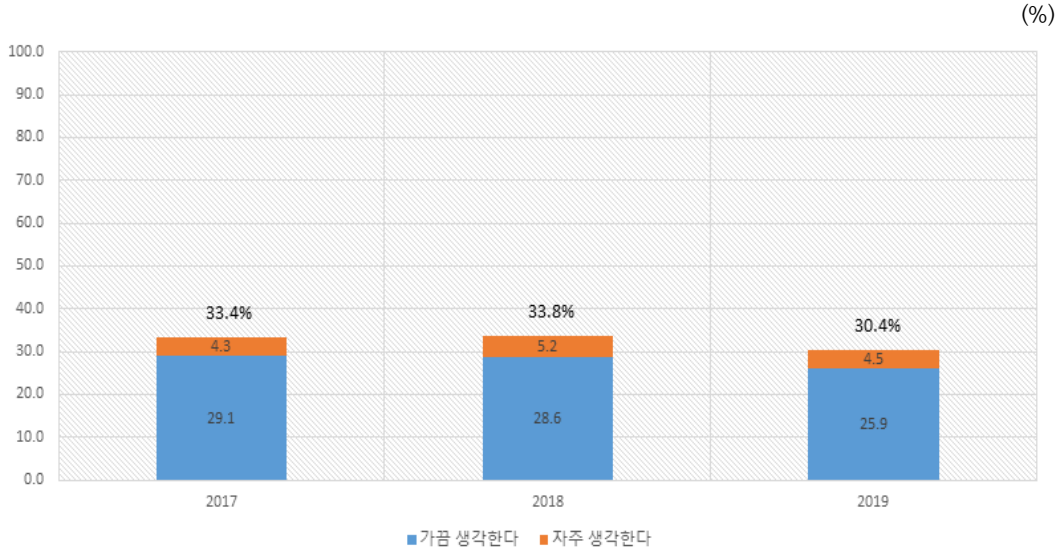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가. 정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 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3가지 범주(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중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 응답의 합산 비율

나. 해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중·고등학교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17년 33.4%, 2018년 33.8%로 비슷하게 유지되다 2019년 30.4%로 소폭 하락하였다. '자주 생각한다'의 비율은 일정 비율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자 아동·청소년에 비해 여자 아동·청소년의 자살생각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살생각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양부모가정에 비해서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자살생각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도 비교적 크게 나타나 관심이 요구된다.



[그림 3-3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2017-2019)

〈표 3-62〉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2017-2019)

(%)

구분		2017	2018	2019
전체		33.4	33.8	30.4
성별	남자	24.6	23.8	22.2
	여자	42.9	44.7	39.4
학교급	중학교	32.8	32	29.1
	고등학교	33.9	35.3	31.5
지역규모	대도시	32.2	32.4	29.5
	중소도시	34.5	35	32
	읍면지역	33.5	33.3	27.4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33	33	29.8
	한부모가정	39	41.8	36.2
	조손가정	34.7	35.3	34.2
	기타	23.4	44.9	25.1
학업성적	상	32.6	28.4	25.1
	중	30	32	27.7
	하	38.6	40.9	39
경제적 수준	상	30	28.6	25
	중	32.1	34.6	31.7
	하	49.6	51.5	49

주: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 응답의 합산 비율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33&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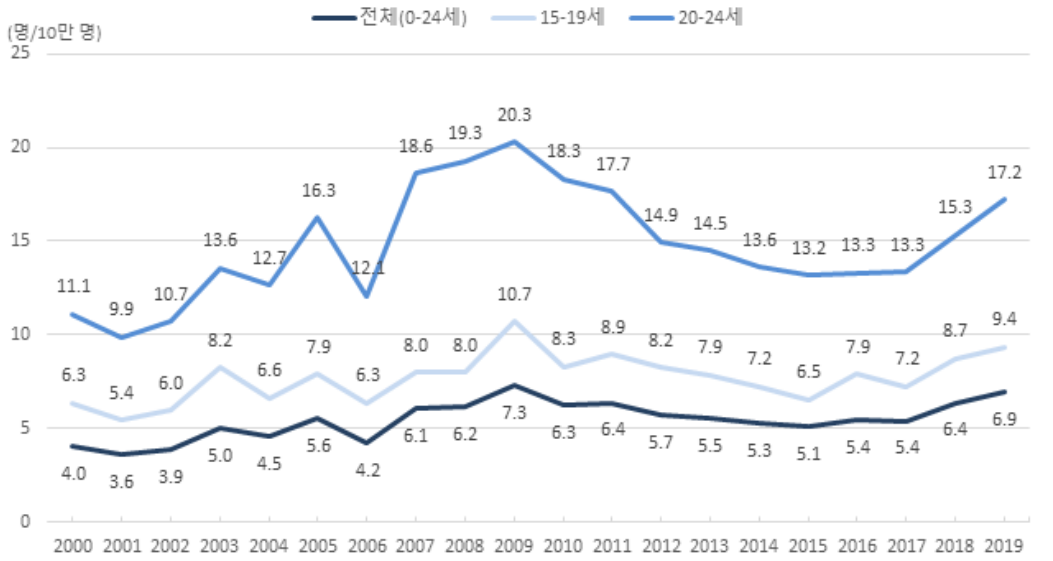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자살률

가. 정의

0-24세 아동 및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

나. 해설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00년 인구 10만 명당 4.0명에서 2009년에 7.3명로 정점을 찍은 이후, 조금씩 낮아졌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자살률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10만 명당 5.4명이였으나, 2018년에 6.4명으로 다소 큰 폭으로 늘었으며, 2019년에는 6.9명으로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15세 이상에서 최근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20-24세의 자살률은 2017년 13.3명에서 2018년 15.3명, 2019년 17.2명으로 상승했다.



주: 1) 자살률 = (0-24세 자살자수 ÷ 0-24세 인구) × 100,000. 0-24세 인구는 주민등록연앙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 _path=I3에서 2020년 9월 24일 인출.

[그림 3-32] 아동·청소년 연령별 자살률 (2000-2019)

〈표 3-63〉 아동·청소년 연령별 자살률 (2000-2019)

(명/10만 명)

연도	전체 (0-24세)	연령별				
		0-4세	5-9세	10 - 14세	15-19세	20-24세
2000	4.0	-	0.2	0.8	6.3	11.1
2001	3.6	-	0.1	1.0	5.4	9.9
2002	3.9	-	-	0.9	6.0	10.7
2003	5.0	-	0.0	1.0	8.2	13.6
2004	4.5	-	0.0	1.3	6.6	12.7
2005	5.6	-	0.0	1.1	7.9	16.3
2006	4.2	-	0.0	1.0	6.3	12.1
2007	6.1	-	0.0	1.5	8.0	18.6
2008	6.2	-	0.0	1.4	8.0	19.3
2009	7.3	-	0.1	2.3	10.7	20.3
2010	6.3	-	-	1.9	8.3	18.3
2011	6.4	-	-	1.8	8.9	17.7
2012	5.7	-	0.0	1.5	8.2	14.9
2013	5.5	-	-	1.3	7.9	14.5
2014	5.3	-	0.1	1.1	7.2	13.6
2015	5.1	-	-	1.2	6.5	13.2
2016	5.4	-	-	0.9	7.9	13.3
2017	5.4	-	0.0	1.5	7.2	13.3
2018	6.4	-	0.0	2.1	8.7	15.3
2019	6.9	-	0.1	1.9	9.4	17.2

주: 1) 자살률 = (0-24세 자살자수 ÷ 0-24세 인구) × 100,000. 0-24세 인구는 주민등록연앙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 _path=I3에서 2020년 9월 24일 인출.

신체건강

조산아율

가. 정의

전체 출생아 중 임신(재태) 주수 37주 미만에 출생한 출생아의 비율

나. 해설

2000년 이후 3.8%에서 2006년 4.9%, 2010년 5.9%, 2011년 6.0%, 2016년 7.2%, 2019년 우리나라의 조산아 출생비율은 8.1%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산율의 증가는 출산율의 감소와 대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초혼 연령의 상승, 고령 산모의 증가, 체외 수정술(In Vitro Fertilization)의 증가 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조산아는 전체 영아 사망자의 약 60%를 차지하며 정상아에 비해 신경계 발달장애, 호흡기계 합병증, 출생 후 성장 지연 등 심각한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편이다.

〈표 3-64〉 조산아율(2000-2019)

(명, %)

구분	전체 출생아 수	조산비율 전체	~23주	24~27주	28~31주	32~35주	36주
2000	640,089	3.8	0.0	0.1	0.4	1.7	1.7
2001	559,934	4.3	0.0	0.1	0.7	1.8	1.8
2002	496,911	4.4	0.0	0.1	0.6	1.8	1.9
2003	495,036	4.5	0.0	0.1	0.6	1.9	2.0
2004	476,958	4.6	0.0	0.1	0.5	2.0	2.1
2005	438,707	4.7	0.0	0.1	0.5	2.0	2.2
2006	451,759	4.9	0.0	0.1	0.5	2.1	2.2
2007	496,822	5.2	0.0	0.1	0.5	2.2	2.4
2008	465,892	5.5	0.0	0.1	0.5	2.3	2.6
2009	444,849	5.7	0.0	0.2	0.5	2.3	2.7
2010	470,171	5.9	0.0	0.2	0.5	2.4	2.8
2011	471,265	6.0	0.0	0.2	0.5	2.4	2.8
2012	484,550	6.3	0.0	0.2	0.5	2.6	3.0
2013	436,455	6.5	0.0	0.2	0.6	2.6	3.0
2014	435,435	6.7	0.0	0.2	0.5	2.7	3.2
2015	438,420	6.9	0.0	0.2	0.5	2.8	3.3
2016	406,243	7.2	0.0	0.2	0.6	2.9	3.5
2017	357,771	7.6	0.0	0.2	0.6	3.1	3.7
2018	326,822	7.7	0.0	0.2	0.6	3.1	3.7
2019	302,676	8.1	0.0	0.2	0.6	3.3	3.9

주: 1) 조산비율 = 37주 미만 출생아 수 / 한해 출생한 출생아 수 * 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5&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저체중 출생아율

가. 정의

전체 출생아 중 출생체중 2.5㎏ 미만 출생아의 비율

나. 해설

2019년 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 출생아율은 6.6%로 2000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저체중 출생아율은 3.8%로 가장 낮았으며, 2007년 4.7%, 2014년 5.7%로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6.2%를 기록하였다. 저체중 출생아율의 증가는 만혼에 따른 만산현상, 다태아 출생률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모의 임신 중 영양이나 건강상태와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저체중 출생은 아동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건강 결정요인으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다.

〈표 3-65〉 저체중 출생아율(2000-2019)

(명, %)

구분	전체 출생아 수	저체중 출산 전체	1.5㎏미만	1.5 - 1.9㎏	2.0 - 2.4㎏
2000	640,089	3.8	0.2	0.7	2.9
2001	559,934	4.0	0.4	0.7	2.9
2002	496,911	4.0	0.4	0.7	2.9
2003	495,036	4.0	0.4	0.7	2.9
2004	476,958	4.1	0.4	0.8	3.0
2005	438,707	4.3	0.4	0.8	3.1
2006	451,759	4.4	0.4	0.8	3.2
2007	496,822	4.7	0.5	0.8	3.4
2008	465,892	4.9	0.5	0.8	3.6
2009	444,849	4.9	0.6	0.8	3.6
2010	470,171	5.0	0.6	0.8	3.6
2011	471,265	5.2	0.6	0.8	3.8
2012	484,550	5.3	0.6	0.9	3.8
2013	436,455	5.5	0.7	0.9	3.9
2014	435,435	5.7	0.7	1.0	4.1
2015	438,420	5.7	0.7	1.0	4.1
2016	406,243	5.9	0.7	1.0	4.2
2017	357,771	6.2	0.7	1.0	4.4
2018	326,822	6.2	0.7	1.1	4.4
2019	302,676	6.6	0.8	1.2	4.6

주: 저체중 출산 비율 = 체중 2.5KG 미만의 출생아 수 / 한 해 동안 출생한 출생아 수 * 1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3&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장애아동·청소년 유형별 비율

가. 정의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유형 및 기준에 부합하여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 중 0-24세 장애아동·청소년 전체 및 장애유형별 비율

나. 의의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아동·청소년수와 장애유형별 비율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증가추세와 현황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유용한 지표가 된다.

다. 해설

장애인복지법 상 법적 장애 및 장애범주에 해당하는 장애인아동·청소년 수는 2007년 124,868명에서 2009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136,054명에 달했으며 2010년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로 감소해서 2014년 134,268명으로 줄었다. 이후 2019년 138,165명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유형별 장애아동·청소년 비율은 지적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2007년 45%를 차지했으며 2019년 51.4%까지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자폐와 뇌병변, 지체장애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기준 각각 16.0%, 11.5%, 6.5%를 차지했다. 뇌병변의 경우 2007년 이후 큰 변화 없이 11-13%의 비율로 유지되어왔으나 자폐의 경우는 2007년 9.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16.0%로 6.9%p 증가했다. 반면, 지체장애는 반대의 경향을 뚜렷이 보이는데 2007년 16.6%로 지적 장애 다음으로 주요한 장애유형이었던 반면 2019년 6.5%로 1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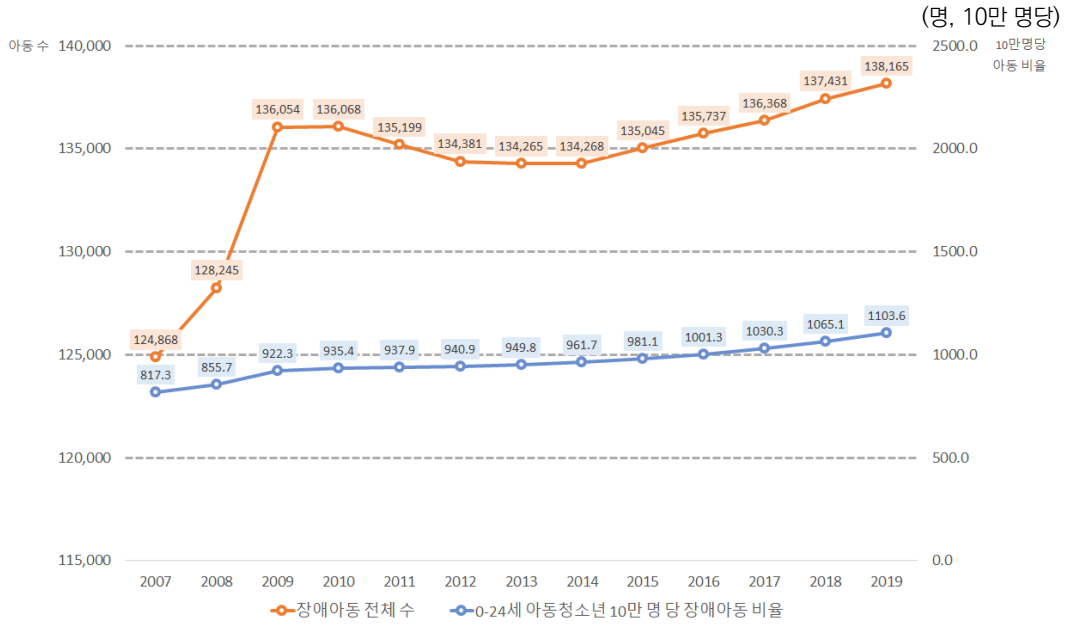
〈표 3-66〉 아동·청소년 장애 유형별 비율(2007-2019)

(명, %)

구분	아동전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2007	124,868	16.6	6.0	6.5	1.3	45.0	11.5	9.1
2008	128,245	16.0	5.9	6.4	1.4	44.6	12.0	9.7
2009	136,054	15.4	5.8	6.1	1.5	45.2	12.3	9.8
2010	136,068	14.3	5.6	6.1	1.5	46.1	12.5	10.3
2011	135,199	13.0	5.5	6.0	1.5	47.5	12.5	10.9
2012	134,381	11.8	5.4	5.9	1.4	48.7	12.5	11.4
2013	134,265	10.7	5.2	5.8	1.4	49.6	12.4	12.0
2014	134,268	9.7	5.0	5.7	1.4	50.4	12.4	12.6
2015	135,045	8.9	4.8	5.6	1.6	50.9	12.3	13.2
2016	135,737	8.2	4.7	5.5	1.9	51.2	12.1	13.9
2017	136,368	7.6	4.4	5.4	2.4	51.1	11.9	14.6
2018	137,431	7.0	4.2	5.2	2.7	51.3	11.7	15.4
2019	138,165	6.5	4.0	5.1	3.1	51.4	11.5	16.0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 요루	뇌전증
2007	1.3	0.6	1.0	0.1	0.2	0.2	0.1	0.5
2008	1.3	0.6	1.0	0.1	0.2	0.2	0.1	0.5
2009	1.4	0.6	1.0	0.1	0.3	0.2	0.1	0.5
2010	1.1	0.6	0.8	0.1	0.3	0.2	0.1	0.4
2011	0.9	0.6	0.7	0.1	0.3	0.2	0.1	0.4
2012	0.8	0.6	0.6	0.1	0.3	0.1	0.1	0.3
2013	0.8	0.6	0.5	0.1	0.4	0.1	0.1	0.3
2014	0.7	0.6	0.5	0.1	0.4	0.1	0.1	0.3
2015	0.7	0.6	0.5	0.1	0.4	0.1	0.1	0.3
2016	0.7	0.6	0.5	0.1	0.4	0.1	0.1	0.3
2017	0.6	0.5	0.5	0.1	0.4	0.1	0.1	0.3
2018	0.6	0.5	0.4	0.1	0.4	0.1	0.1	0.3
2019	0.5	0.5	0.5	0.1	0.4	0.1	0.1	0.3

주: 1) 0-24세 기준 장애유형 아동·청소년수를 0-24세 기준 전체 장애아동·청소년 수로 나눈 비율임
2) 본 지표는 2006년부터 작성 시작됨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3&vw_cd=MT_ZTITLE&list_id=G_2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주: 1) 본 지표는 2006년부터 작성 시작됨
2) 꺾은선그래프: 1) 장애아동 전체 수=각 연도별 장애아동 수의 합;
꺾은선그래프: 2) 10만 명당 장애아동 비율=(0-24세 장애아동·청소년 수/0-24세 아동·청소년 수)x100,000

출처: 1) 보건복지부.「장애인현황」.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3&vw_cd=MT_ZTITLE&list_id=G_2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2) 통계청.「장래인구추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 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그림 3-33] 장애아동·청소년 수(2007-2019)

비만율

가. 정의

비만율은 체질량지수(BMI)를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95백분위수 이상인 경우의 분율. 과체중률은 체질량지수(BMI)를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도표에 대비하여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의 분율.

나. 의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20-30대 청년층, 남자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정상인에 비해 당뇨, 고혈압 등 질병발생 위험이 높으며 각종 암을 유발하고,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9.2조원(2015년)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2배 증가했다.

다. 해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과체중률은 10.7%, 비만율은 15.1%로 나타났다. 과체중률과 비만율 모두 처음 조사가 시작되었던 2007년 대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만율의 증가가 1.73배로 과체중의 1.62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과체중률은 2006년 6.6% 대비 4.1%p 증가한 반면, 비만율은 2007년 8.7% 대비 6.4%p 증가하였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도비만율은 지난 20년간 증가해 온 아동·청소년 비만에 기인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습관의 실천 등 적극적인 비만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체중 비율에 대한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5~9세 아동의 소아비만을 포함한 과체중비율은 2016년 기준 OECD 평균 남아는 34%, 여아는 28.6% 총 31.4%로 한국 남아는 38%, 25.2% 총 31.8%로 비교적 OECD 평균과 비슷하며, 남아가 여아보다 과체중율이 높게 나타났다. 10~19세의 청소년의 과체중 또는 비만율을 살펴보면 OECD 평균 남아 29.6%, 여아 25.4%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과체중 또는 비만율은 피지,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순으로 높고, 남자 청소년의 과체중 또는 비만율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한국, 북한 순으로 높았다.

〈표 3-67〉 성별 비만율(200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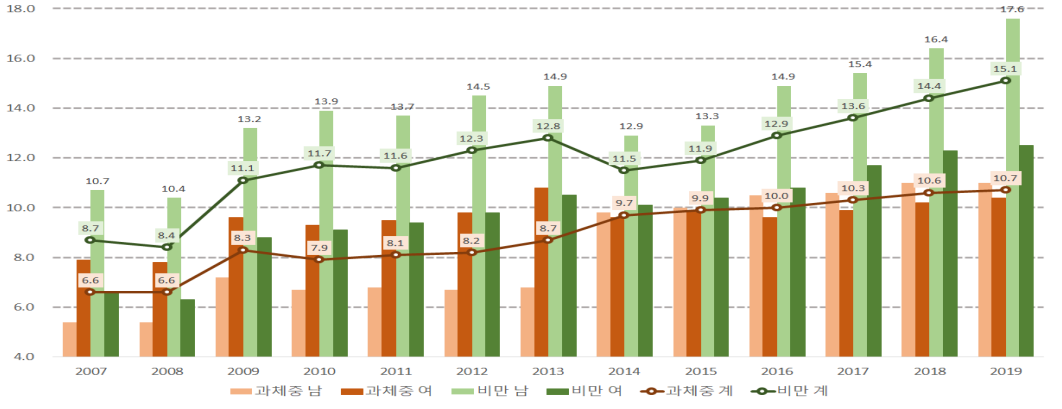
(%)

구분	과체중			비만		
	계	남	여	계	남	여
2007	6.6	5.4	7.9	8.7	10.7	6.6
2008	6.6	5.4	7.8	8.4	10.4	6.3
2009	8.3	7.2	9.6	11.1	13.2	8.8
2010	7.9	6.7	9.3	11.7	13.9	9.1
2011	8.1	6.8	9.5	11.6	13.7	9.4
2012	8.2	6.7	9.8	12.3	14.5	9.8
2013	8.7	6.8	10.8	12.8	14.9	10.5
2014	9.7	9.8	9.6	11.5	12.9	10.1
2015	9.9	10.0	9.9	11.9	13.3	10.4
2016	10.0	10.5	9.6	12.9	14.9	10.8
2017	10.3	10.6	9.9	13.6	15.4	11.7
2018	10.6	11.0	10.2	14.4	16.4	12.3
2019	10.7	11.0	10.4	15.1	17.6	12.5

주: 1) 초 · 중 · 고 표본학교의 전학년에 대한 신체발달 상황(104,281명) 및 건강조사(102,187명) 결과를 기초로 분석(2019년 표본통계 기준). 2018년도는 수정된 수치를 반영함.
2) 과체중: 체질량지수(BMI)를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도표에 대비하여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3) 비만: 체질량지수(BMI)를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도표에 대비하여 95백분위수 이상인 경우
4)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기준으로 재분석함,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준임, 2006년은 조사는 하였으나 분석하지 않음

출처: 교육부.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초중고생 신체발달 상황, 건강생활 실천정도, 질환 등 건강문제 분석-. 보도자료.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opType=N&boardSeq=81310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



주: 1) 초 · 중 · 고 표본학교의 전학년에 대한 신체발달 상황(104,281명) 및 건강조사(102,187명) 결과를 기초로 분석(2019

년 표본통계 기준). 2018년도는 수정된 수치를 반영함.
2)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기준으로 재분석함,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준임, 2006년은 조사는 하였으나 분석하지 않음
3) 과체중 비율=(전체 빛 성별 체질량지수(BMI)를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도표에 대비하여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인 표본 수/전체 빛 성별 표본 수)x100; 비만 비율=(전체 빛 성별 체질량지수(BMI)를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도표에 대비하여 95백분위수 이상인 표본 수/전체 빛 성별 표본 수)x100.

출처: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34&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그림 3-34] 성별 비만률 (2007-2019)

〈표 3-68〉 학교급별 및 성별 비만율(2019)

(%)

구분		과체중			비만		
		계	남	여	계	남	여
초등학교	1학년	9.6	9.0	10.3	12.4	15.0	9.6
	2학년	9.9	10.2	9.6	13.0	15.9	10.0
	3학년	11.1	10.8	11.4	13.8	17.0	10.4
	4학년	11.8	12.7	10.9	13.4	16.5	10.2
	5학년	12.0	13.0	10.9	14.7	17.7	11.4
	6학년	12.2	13.3	11.1	15.0	17.8	12.0
	소계	11.1	11.5	10.7	13.7	16.6	10.6
중학교	1학년	11.0	11.3	10.7	13.6	15.7	11.3
	2학년	10.6	11.1	10.0	14.9	17.5	12.1
	3학년	10.5	11.3	9.6	16.3	18.4	14.1
	소계	10.7	11.3	10.1	14.9	17.2	12.5
고등학교	1학년	9.7	9.9	9.5	16.8	18.8	14.6
	2학년	10.0	10.2	9.8	18.2	20.3	16.0
	3학년	10.2	9.8	10.6	18.8	20.0	17.4
	소계	10.0	9.9	10.0	18.0	19.7	16.1
전체		10.7	11.0	10.4	15.1	17.6	12.5

주: 1) 과체중: 체질량지수(BMI)를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도표에 대비하여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2) 비만: 체질량지수(BMI)를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도표에 대비하여 95백분위수 이상인 경우

출처: 교육부.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초중고생 신체발달 상황, 건강생활 실천정도, 질환 등 건강문제 분석-. 보도자료.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opType=N&boardSeq=81310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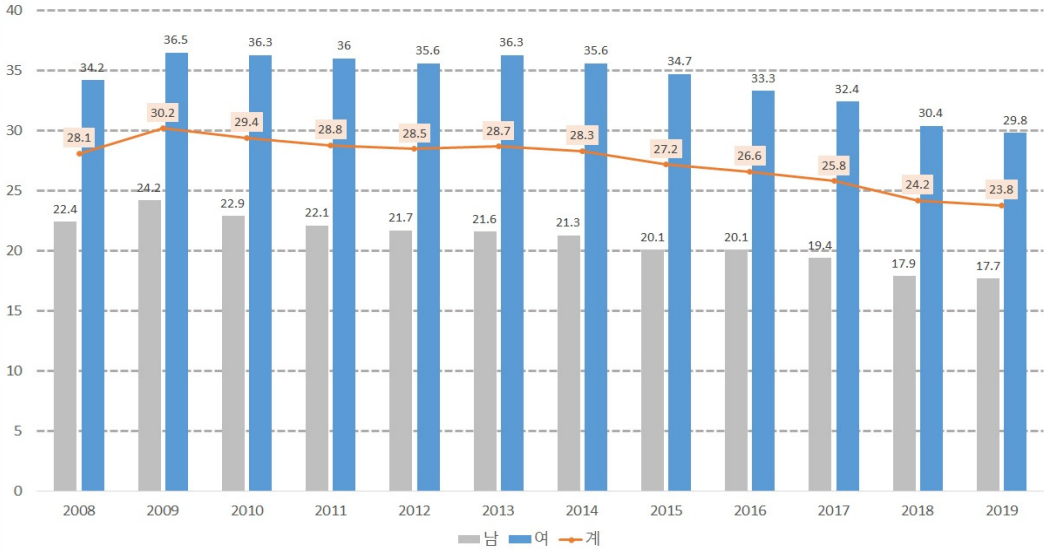
〈표 3-69〉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2008-2019)

(%)

구분	계	남	여
2008	28.1	22.4	34.2
2009	30.2	24.2	36.5
2010	29.4	22.9	36.3
2011	28.8	22.1	36.0
2012	28.5	21.7	35.6
2013	28.7	21.6	36.3
2014	28.3	21.3	35.6
2015	27.2	20.1	34.7
2016	26.6	20.1	33.3
2017	25.8	19.4	32.4
2018	24.2	17.9	30.4
2019	23.8	17.7	29.8

주: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85백분위수 미만인 자 중에서 자신의 체형을 살이 찐 편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의 비율을 측정
출처: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34&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



주: 비율=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85백분위수 미만인 자 중에서 자신의 체형을 살이 찐 편이라고 인지하는 전체 및 성별 표본 수/전체 및 성별 표본 수)x100
출처: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34&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그림 3-35]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2008-2019)

주관적 건강수준

가.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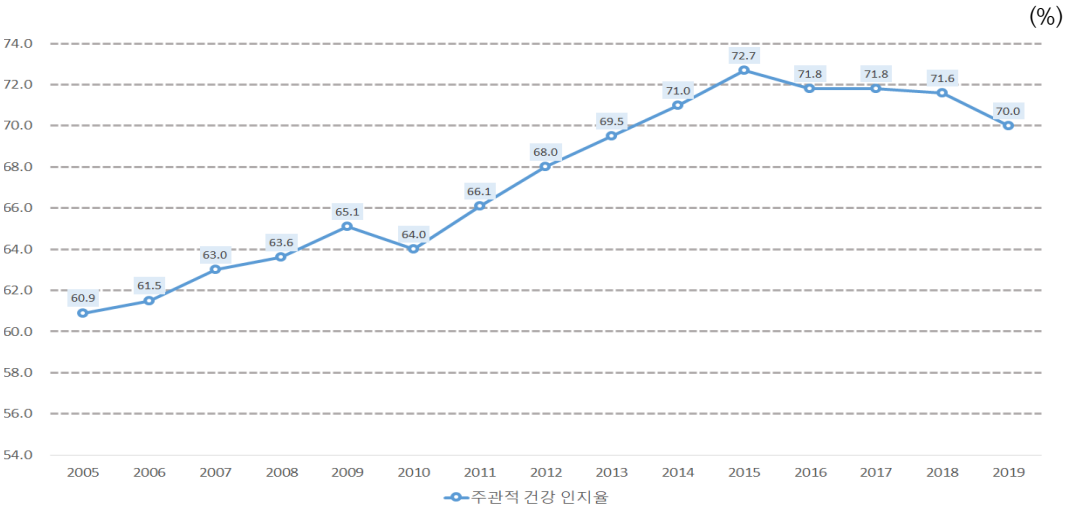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를 매우 양호 또는 양호한 편으로 대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나. 의의

주관적 건강인지 상태는 OECD Health Data의 국제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지상태 및 그것의 시계열적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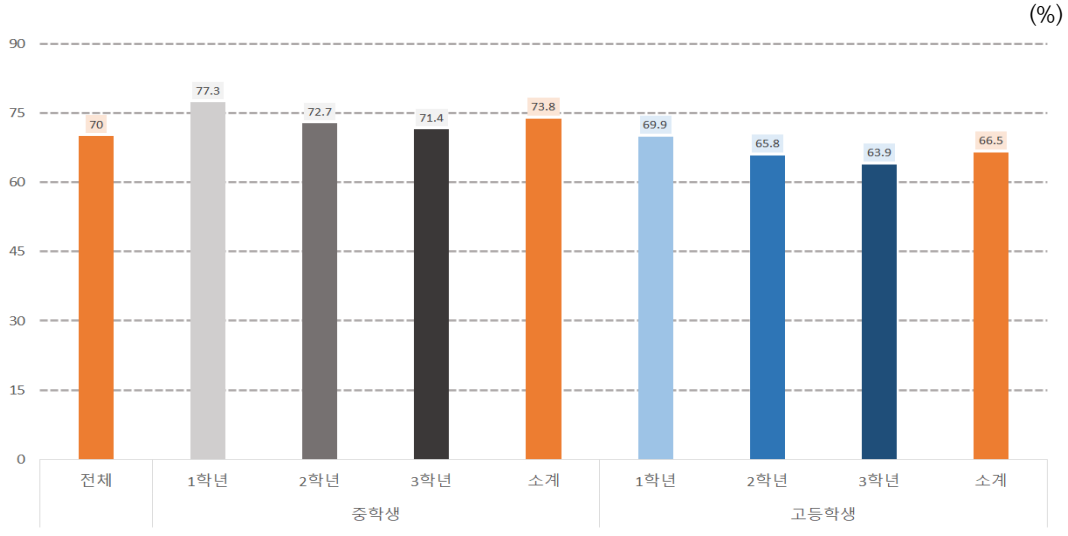
다. 해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자기보고한 주관적 건강수준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본인이 매우 건강하거나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이 2005년 60.9%였으며 2014년 71%로 증가했다. 이러한 수준은 2018년까지 유사한 수준(71.6%)으로 유지되다가 2019년 70.0%로 감소했다. 2019년 기준 학급별 주관적 건강수준은 중학생이 73.8%로 고등학생 66.5%보다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77.3%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63.9%로 가장 낮았다.



주: 1) 2005년부터 작성된 통계임
2) 비율= (본인이 '매우 건강한' 또는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표본 수/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표본 수)x100
출처: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http://www.kdca.go.kr/yhs/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그림 3-36]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수준(2005-2019)



주: 1) 2005년부터 작성된 통계임.
2) 비율= 각 범주별(중학교/고등학교 학년) 본인이 '매우 건강한' 또는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표본 수/각 범주별 (중학교/고등학교 학년) 전체 표본 수)x100
출처: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http://www.kdca.go.kr/yhs/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그림 3-37] 아동·청소년 학교급별 주관적 건강수준(2019)

수면시간

가. 정의

지난주 주중(월~금) 수면시간의 비율

나. 의의

수면은 아동·청소년기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생리적 요인이며, 아동·청소년의 수면정도는 낮 시간 동안의 행동, 사고, 기분, 학업 등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애전반의 발달과 건강상태의 건강결정요인이 된다. 입시경쟁과 학업스트레스 등의 교육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과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아동권리로서의 수면권 보장과 이를 위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다. 해설

2019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6.3시간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래 중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6.2-6.4시간으로 지속적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 12년간의 수면시간대 별 청소년 분포는 5시간 또는 5-6시간 수준의 보다 낮은 평균 수면시간을 응답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2019년 수면시간이 6-7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3.8%로 가장 많았는데, 2007년 26.1%로 가장 높았고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8시간미만의 수면시간을 응답한 청소년도 2007년 24.2%에서 2019년 20.0%로 감소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상대적으로 5-6시간미만, 5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증가세와 연관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급별 평균수면 시간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7.0시간으로 고등학생 5.6시간보다 높았으며 중학교 1학년이 7.5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3학년이 5.5.시간으로 가장 낮았다.

〈표 3-70〉 수면시간(2007-2019)

(시간, %)

구분	평균수면시간	주중 수면시간 분포				
		〈 5	5~6	6~7	7~8	8≤
2007	6.4	14.8	21.6	26.1	24.2	13.3
2008	6.3	15.4	22.7	26.1	23.3	12.6
2009	6.3	15.2	23.5	26.2	22.4	12.8
2010	6.2	16.7	23.5	25.5	22.3	11.9
2011	6.4	14.9	22.0	25.5	23.4	14.2
2012	6.4	14.8	22.5	24.7	23.2	14.8
2013	6.4	14.0	21.7	25.0	23.3	16.0
2014	6.3	15.0	22.6	24.8	22.1	15.4
2015	6.4	13.8	22.1	25.0	22.1	17.0
2016	6.3	15.6	23.6	24.6	20.8	15.3
2017	6.3	16.5	23.5	24.6	20.1	15.2
2018	6.2	17.9	23.1	23.8	19.7	15.5
2019	6.3	17.2	22.4	23.8	20.0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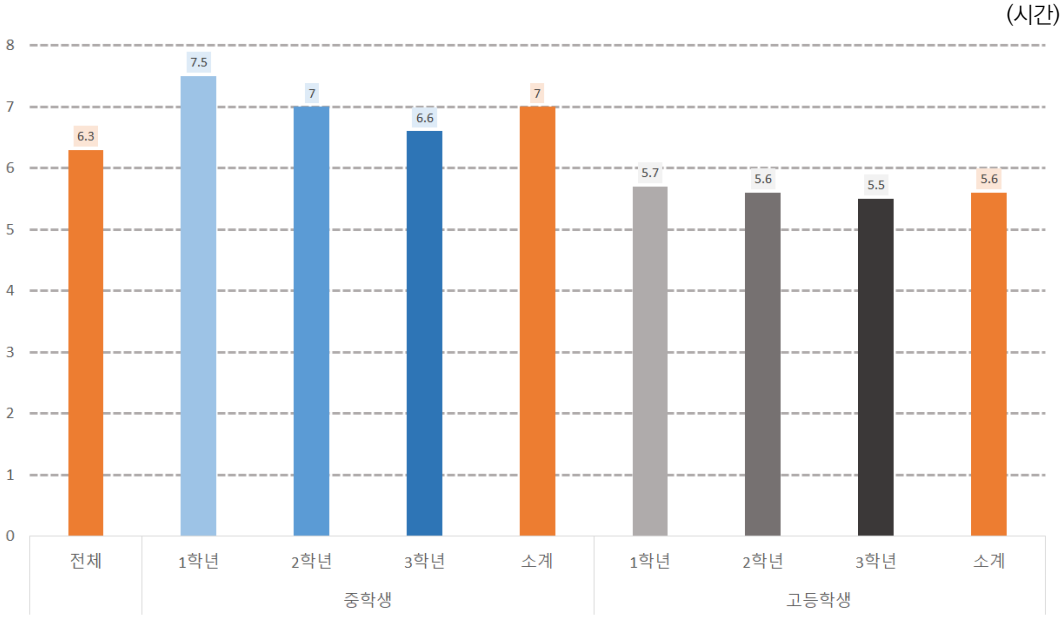
주: 1) 평균수면시간 = 지난주 주중(월~금) 수면 시간의 평균
2) 주중 수면시간 분포 = 〈5: 5시간 미만, 5~6: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7: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 7~8: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 8시간 이상
3) 2007년부터 문항 변경으로 이전년도(05, 06년)결과 비산출
출처: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http://www.kdca.go.kr/yhs/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표 3-71〉 학교급별 수면시간(2019)

(시간, %)

구분		평균수면시간	주중 수면시간 분포				
			〈5	5~6	6~7	7~8	8≤
중학생	1학년	7.5	3.6	6.9	15.9	29.5	44.1
	2학년	7.0	6.4	12.8	23.4	29.6	27.7
	3학년	6.6	9.2	17.7	28.3	27.3	17.6
	소계	7.0	6.4	12.6	22.6	28.8	29.7
고등학생	1학년	5.7	24.5	29.6	25.7	14.3	5.9
	2학년	5.6	26.1	31.5	25.4	12.2	4.8
	3학년	5.5	30.0	32.7	23.5	9.8	3.9
	소계	5.6	27.0	31.3	24.8	12.0	4.9
전체		6.3	17.2	22.4	23.8	20.0	16.6

주: 1) 평균수면시간 = 지난주 주중(월~금) 수면 시간의 평균
2) 주중 수면시간 분포 = 〈5: 5시간 미만, 5~6: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7: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 7~8: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 8시간 이상
3) 2007년부터 문항 변경으로 이전년도(05, 06년)결과 비산출
출처: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http://www.kdca.go.kr/yhs/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주: 평균수면시간 = 지난주 주중(월~금) 수면 시간의 평균
출처: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http://www.kdca.go.kr/yhs/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그림 3-38] 학교급별 평균 수면시간(2019)

아동·청소년 연간 입원율

가. 정의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분율

나. 의의

입원경험률은 지난 1년간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아동·청소년이 입원한 경험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핵심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입원경험은 아동의 성격형성이나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 해설

아동의 입원 경험률은 2007년 4.9%를 기록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6년 9.7%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7년 7.0%로 전년대비 2.7%p 감소했다. 남녀 아동·청소년의 연간 입원율은 2018년 기준 남자 아동·청소년은 6.7%, 여자 아동·청소년은 7.0%로 여자 아동·청소년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2007년 이후 그간 나타났던 성별 차이와는 반대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아동·청소년의 연간입원율은 1-5세 아동이 14.4%로 가장 높았으며, 12-14세 아동이 6.2%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아동의 연간 입원율에서 1-5세 여아의 입원율이 16.2%로 남아에 비해 3.5%p 높았으며 성별 입원율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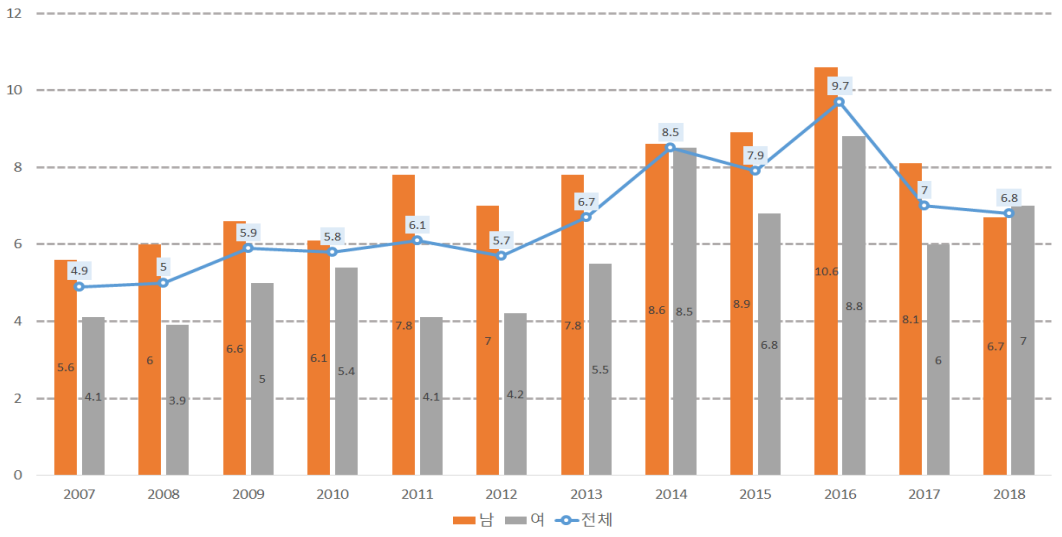
〈표 3-72〉 아동·청소년 성별 연간 입원율(2007-2018)

(%)

구분	연간입원율		
	전체	남	여
2007	4.9	5.6	4.1
2008	5.0	6.0	3.9
2009	5.9	6.6	5.0
2010	5.8	6.1	5.4
2011	6.1	7.8	4.1
2012	5.7	7.0	4.2
2013	6.7	7.8	5.5
2014	8.5	8.6	8.5
2015	7.9	8.9	6.8
2016	9.7	10.6	8.8
2017	7.0	8.1	6.0
2018	6.8	6.7	7.0

주: 1) 만1-18세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는 분율을 나타냄.
2) 최초 구축년도 1998년 이후, 2001년, 2005년, 2007년 주기로 공표되다가 2007년 이후부터 1년 단위로 공표됨.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



주: 1) 만1-18세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는 분율을 나타냄.
2) 최초 구축년도 1998년 이후, 2001년, 2005년, 2007년 주기로 공표되다가 2007년 이후부터 1년 단위로 공표됨.
3) 꺾은선그래프 비율=(각 연도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18세 성별 아동·청소년 응답자 수/각 연도 1-18세 성별 아동·청소년 응답자 수)x100; 막대그래프 비율=(각 연도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18세 아동·청소년 응답자 수/각 연도 1-18세 아동·청소년 응답자 수)x100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그림 3-39] 성별 연간 입원 아동·청소년 입원율(200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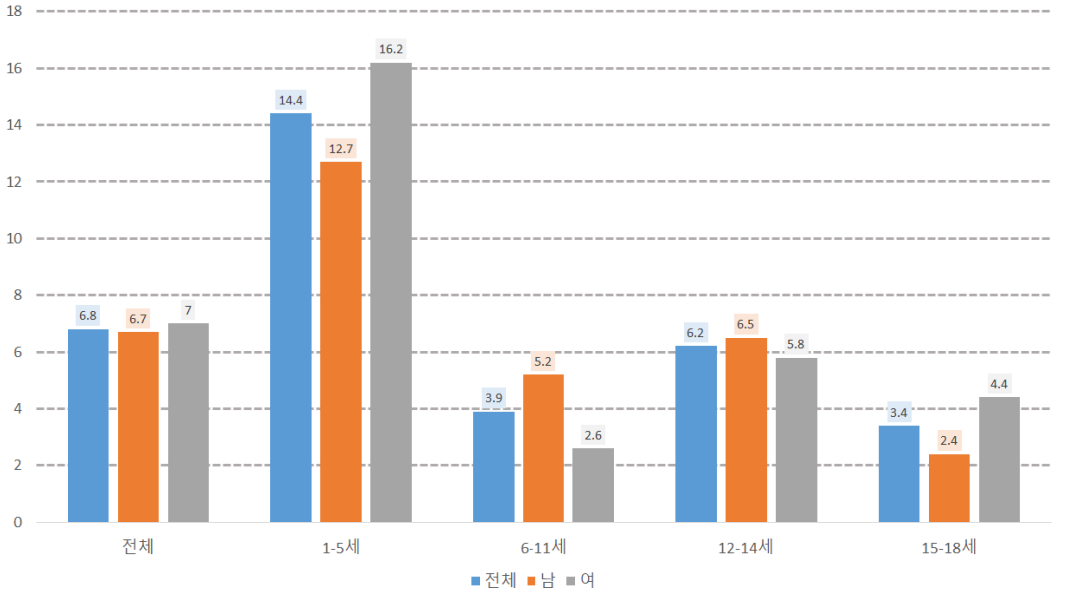
〈표 3-73〉 아동·청소년 연령별 연간 입원율(2018)

(%)

구분	연간입원율		
	전체	남	여
1-5세	14.4	12.7	16.2
6-11세	3.9	5.2	2.6
12-14세	6.2	6.5	5.8
15-18세	3.4	2.4	4.4
전체	6.8	6.7	7.0

주: 1) 만1-18세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는 분율을 나타냄.
2) 최초 구축년도 1998년 이후, 2001년, 2005년, 2007년 주기로 공표되다가 2007년 이후부터 1년 단위로 공표됨.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



주: 1) 만1-18세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는 분율을 나타냄.
2) 최초 구축년도 1998년 이후, 2001년, 2005년, 2007년 주기로 공표되다가 2007년 이후부터 1년 단위로 공표됨.
3) 비율=(2018년도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18세 아동·청소년 연령대별(1-5세, 6-11세, 12-14세, 15-18세), 성별 응답자 수/2018년도 1-18세 아동·청소년 연령대별(1-5세, 6-11세, 12-14세, 15-18세), 성별 응답자 수)x100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그림 3-40] 아동·청소년 연령별 연간 입원율(2018)

건강행동

수유행태별 비율

가. 정의

자녀가 영유아일 때, 모유만 수유한 경우, 인공유(분유)만 수유한 경우, 모유와 인공유(분유)를 같이 수유한 경우의 비율

나. 해설

수유형태별 비율은 2013년 기준 완전모유율이 22.3%, 인공유가 25.0%, 혼합수유가 52.2%로 전체 수유모의 74.5%가 모유수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전체 수유모 중 75.9%가 모유수유를 했다고 응답하여 2013년 대비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수유형태를 2013년과 비교하면 완전모유는 22.6%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인공유가 23.5%로 1.5%가 감소하였고 혼합모유가 53.3%로 1.1%가 증가하였다. 완전모유율은 수급가구의 아동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한부모 가구의 아동일수록, 맞벌이 가구의 아동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표 3-74〉 수유행태별 비율(2013, 2018)

(%)

구분	완전모유	인공유(분유)	모유+인공유(분유)	모름
2013	22.3	25.0	52.2	0.5
2018	22.6	23.5	53.3	0.6

주: 1)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제공되는 데이터이며, 본 지수는 2013년, 2018년 데이터만 제공됨.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13_H177&conn_path=I3에서 2019년 8월 22일 인출.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011&conn_path=I2에서 2019년 12월 6일 인출.

〈표 3-75〉 수유행태별 비율(2018)

(%)

구분		완전모유	인공유(분유)	모유+인공유(분유)	모름
전체		22.6	23.5	53.3	0.6
아동 성별	남자	21.8	22.4	55.0	0.8
	여자	23.5	24.6	51.5	0.4
아동 연령	0-2세	21.8	27.2	50.5	0.5
	3-5세	23.8	25.5	50.6	0.1
	6-8세	21.7	21.4	56.5	0.4
	9-11세	25.7	19.7	53.8	0.7
	12-17세	21.1	23.9	54.1	0.8
표본	일반	22.9	23.5	53.2	0.5
	수급	17.5	24.2	56.7	1.6
소득 계층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	14.5	19.9	64.7	0.9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50-100% 미만	22.1	23.8	53.5	0.6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100-150% 미만	24.5	24.4	51.1	0.1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150% 이상	23.3	23.3	52.5	0.9
	무응답	41.6	10.0	35.6	12.8
지역	대도시	21.4	24.3	54.0	0.3
	중소도시	24.0	22.7	52.8	0.5
	농어촌	19.2	24.1	53.6	3.1
가구 유형	양부모	23.2	23.0	53.2	0.5
	한부모/조손	13.4	30.1	54.4	2.1
맞벌이 여부	외벌이	25.0	22.8	52.0	0.1
	맞벌이	20.1	23.7	55.2	0.9
	기타	11.4	36.2	47.1	5.2

주: 1)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제공되는 데이터이며, 본 지수는 2018년 데이터만 공개됨.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011&conn_path=I2에서 2019년 12월 6일 인출.

영유아 건강검진율 및 정밀평가필요 영유아비율 ① 영유아 건강검진율

가. 정의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인원 대비 수검인원 비율

나. 해설

영유아 건강검진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영유아건강검진비율은 2008년 36.7%에 불과했으며, 2010년 50.1%, 2013년 63.7%로 증가하여 2018년 74.5%로 2008년 대비 약 2배의 증가폭을 보였다. 월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등 상대적으로 어린 영유아의 건강검진비율이 높았으며 증가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 시행하는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미수검 아동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2018년 기준, 25.5%)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검진기관의 부족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영유아건강검진 주기의 시작이 4개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신생아기에 대한 검진 누락의 문제 및 낮은 검진비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 3-76〉 영유아 월령별 건강검진율(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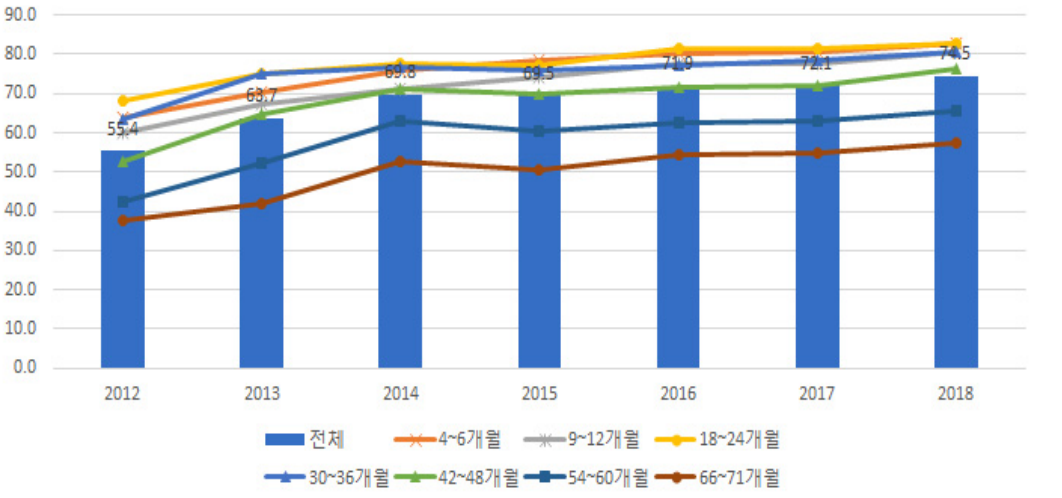
(%)

구분	전체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2008	36.7	-	-	-	-	-	-	-
2009	40.7	-	-	-	-	-	-	-
2010	50.1	56.6	52.1	54.4	49.3	47.0	40.9	-
2011	53.8	60.8	58.7	60.3	55.8	46.6	40.2	-
2012	55.4	63.7	59.9	68.0	63.6	52.6	42.4	37.5
2013	63.7	70.2	67.5	75.0	75.2	64.6	52.3	41.9
2014	69.8	75.9	71.1	77.4	76.6	71.1	63.1	52.8
2015	69.5	78.5	74.2	77.1	75.7	69.9	60.3	50.6
2016	71.9	80.3	77.7	81.4	77.0	71.6	62.7	54.6
2017	72.1	80.6	77.5	81.4	78.6	72.0	63.1	55.0
2018	74.5	82.9	80.7	82.8	80.6	76.1	65.7	57.5

주: 1) 2009년 건강검진통계연보 발간 시작. 따라서 2008년 데이터부터 2017년까지만 제공됨
2) 2008년과 2009년의 통계는 영유아의 나이(개월 수) 범주가 달라 표에 제시가 어려움(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24&vw_cd=MT_ZTITLE&list_id=350_35007_A00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24&vw_cd=MT_ZTITLE&list_id=350_35007_A00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그림 3-41] 영유아 월령별 건강검진율(2012-2018)

영유아 건강검진율 및 정밀평가필요 영유아비율 ② 정밀평가필요 영유아비율

가. 정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중 종합판정에서 정밀평가필요를 받은 4~71개월 영유아 비율

나. 해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무료 검진으로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을 점검하여 질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반검진 7회와 구강검진 3회로 구성되어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종합판정 결과 정밀평가필요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진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중 종합판정에서 정밀평가필요를 받은 영유아 비율은 모든 월령에서 매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 건강검진 종합판정에서 정밀평가필요를 받은 영유아 비율이 2012년에는 3.3%였으며, 2018년에는 6.9%로 조사되어 6년 사이에 3.6%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7〉 월령별 건강검진 정밀평가필요 영유아 비율(2012-2018)

(%)

구분	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2012	3.3	1.6	2.2	2.5	3.6	4.4	5.1	5.0
2013	4.1	2.3	2.7	3.1	4.5	5.4	6.3	6.1
2014	4.7	2.8	3.0	3.3	4.9	5.9	7.0	6.7
2015	5.3	2.9	4.1	4.4	5.5	6.5	7.4	7.3
2016	5.5	3.1	4.2	4.7	5.3	6.7	7.7	7.5
2017	6.0	3.5	4.7	5.3	5.9	7.2	8.2	8.1
2018	6.9	5.2	5.3	6.1	6.4	8.3	8.6	8.8

주: 1) 건강검진 정밀평가필요 영유아 비율 = (정밀평가필요 영유아 수 ÷ 전체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 10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20). 「건강검진통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26&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예방접종률

가. 정의

해당연령에서 모두 접종해야 하는 백신에 대해 모두 접종한 비율

〈표 3-78〉 연령별 접종 백신 및 접종 횟수

연령	접종백신 및 접종횟수
생후 12개월	- 6종백신, 16회(2018년 생 기준) - 결핵(BCG), B형간염(HepB), 백일해(DTaP), 폴리오(IPV),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생후 24개월	- 8종백신, 21회(2017년 생 기준) - 결핵(BCG), B형간염(HepB), 백일해(DTaP), 폴리오(IPV),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 풍진(MMR), 수두(VAR)
생후 36개월	- 10종백신, 25~26회(2016년 생 기준) - 결핵(BCG), B형간염(HepB), 백일해(DTaP), 폴리오(IPV),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JE), A형간염(HepA)
생후 72개월	- 8종백신, 18~20회(2013년 생 기준) - 결핵(BCG), B형간염(HepB), 백일해(DTaP), 폴리오(IPV), 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JE),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표 3-79〉 연령별 접종률 및 접종 백신 및 접종 횟수 (2017-2019)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만 1세	96.6% (2016년생, 6종, 16회)	96.8% (2017년생, 6종, 16회)	96.5% (2018년생, 6종, 16회)	· 6종: BCG, HepB, DTaP, IPV, Hib, PCV
만 2세	94.1% (2015년생, 8종, 21회)	94.7% (2016년생, 8종, 21회)	94.2% (2017년생, 8종, 21회)	· 8종: 6종 + MMR, VAR
만 3세	90.4% (2014년생, 9종, 23~24회)	90.8% (2015년생, 10종, 25~26회)	91.5% (2016년생, 10종, 25~26회)	· 9종: 8종 + JE · 10종: 9종 + HepA
만 6세	-	88.3% (2012년생, 7종, 18~20회)	84.8% (2013년생, 8종, 18~20회)	· 7종: BCG, HepB, DTaP, IPV, MMR, VAR, JE · 8종: 7종 + Hib

주: 1) 2018년부터 접종률 공표 대상자를 만 1~3세 출생아에서 만 1~3세, 만 6세 출생아까지 확대
2) BCG접종의 경우 국가지원 백신인 피내용백신과 국가지원 백신이 아닌, 경피용백신 접종 건이 모두 포함
출처: 질병관리본부(2019.07.24.). 「2018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보도자료.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364560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나. 해설

2016~2019년 아동의 예방접종률은 95.9~96.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민간의료기관의 무료 예방접종, 적기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시스템으로 높은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의 예방접종률을 월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생후 12개월 미만의 완전접종률은 96.5%, 생후 24개월은 94.2%, 생후 36개월은 91.5%, 생후 72개월은 84.8%로 월령이 커질수록 완전접종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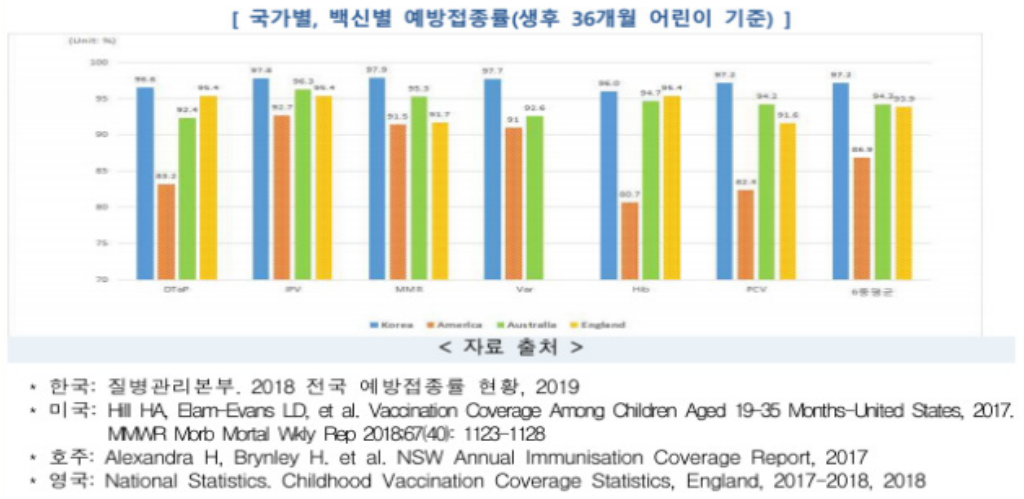
〈표 3-80〉 월령별 예방접종률(2016-2019)

(%)

구분	생후 12개월 완전접종률	생후 24개월 완전접종률	생후 36개월 완전접종률	생후 72개월 완전접종률
2016	95.9	92.7	89.2	-
2017	96.6	94.1	90.4	-
2018	96.8	94.7	90.8	88.3
2019	96.5	94.2	91.5	84.8

주: 1) 본 지표는 2013, 2015, 2017, 2018년도에 작성되었으나, 2013년과 2015년도 보고서에는 아동 개월별 완전접종률을 집계하지 않고 각 백신별 완전접종률만을 보여주므로 본 지표로 작성할 수 없었음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예방접종률현황」,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93N_171&vw_cd=MT_ZTITLE&list_id=D1_A01_A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질병관리본부,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출처: 질병관리본부(2019a). 2018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https://www.cdc.go.kr/board.es?mid=a20501000000&bid=0015&act=view&list_no=364560&tag=&nPage=1#. 에서 2019년 10월 25일 인출.

[그림 3-42] 국가별, 백신별 예방접종률

치과검진율

가. 정의

아동·청소년의 치과 검진의 비율

나. 해설

아동·청소년의 치과검진율은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2013년, 2018년에 걸쳐 측정되었는데 2013년 62.3%의 아동·청소년이 치과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18년 56.7%로 감소했다. 2018년 기준 치과검진율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6~11세 아동의 치과검진율이 가장 높았으며 0~2세가 30.4%로 가장 낮았다. 일반가구의 아동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소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일수록 치과검진 수검률은 높게 나타났다.

〈표 3-81〉 치과검진율 연차별 비교(2013, 2018)

(%)

구분	치과검진율
2013	62.3
2018	56.7

주: 1)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제공되는 데이터이며, 본 지수는 2013년, 2018년 제공됨.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13_H027&vw_cd=MT_ZTITLE&list_id=117_11774_2013_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19년 8월 23일 인출.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020&conn_path=I2에서 2019년 12월 6일 인출.

〈표 3-82〉 아동 및 가구 특성별 치과검진율(2018)

(%)

구분		치과검진율
전체		56.7
아동성별	남자	55.3
	여자	58.2
아동연령	0-2세	30.4
	3-5세	56.1
	6-8세	69.8
	9-11세	66.6
	12-17세	56.1
표본	일반	57.3
	수급	45
소득계층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	51.7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50-100% 미만	52.3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100-150% 미만	59.3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150% 이상	63
	무응답	93
지역	대도시	53.6
	중소도시	60.1
	농어촌	49.1
가구유형	양부모	57.1
	한부모/조손	51.1
맞벌이여부	외벌이	54.9
	맞벌이	59.3
	기타	49.4

주: 1)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제공되는 데이터이며, 본 지수는 2018년 데이터만 공개됨.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020&conn_path=I2. 20191206에서 2019년 11월 16일 인출.

아동·청소년 영양결핍률

가. 정의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비율

나. 의의

아동·청소년기 영양결핍은 성장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건강상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동·청소년 웰빙의 중요지표이다.

다. 해설

아동의 영양결핍률은 2018년 기준 12-18세 청소년이 17.6%로 가장 높았고 3-5세 아동이 3.8%로 가장 낮았다. 2001년 이후 연령별 영양결핍률의 추세를 비교해보면 2001년 대비 전 연령대에서 영양결핍율은 감소했으며, 연령대별로 증감의 폭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가 낮은 영유아의 경우 2001년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12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2018년 기준으로 전해 대비 3-5세 아동의 영양결핍률이 소폭 증가했으며 나머지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의 영양결핍률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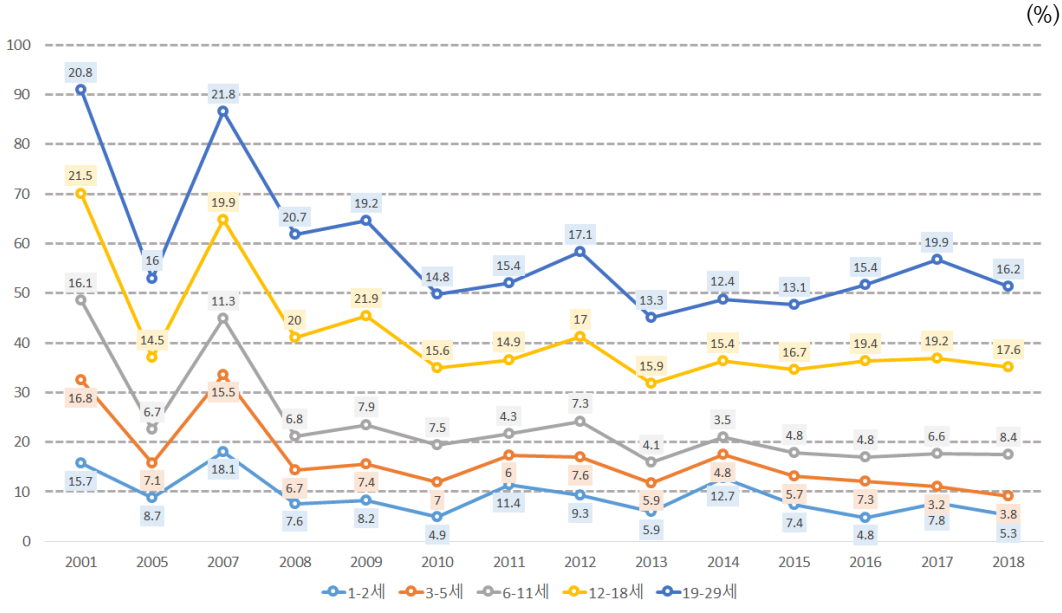
〈표 3-83〉 연령별 영양결핍률(2001-2018)

(%)

구분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2001	15.7	16.8	16.1	21.5	20.8
2005	8.7	7.1	6.7	14.5	16.0
2007	18.1	15.5	11.3	19.9	21.8
2008	7.6	6.7	6.8	20.0	20.7
2009	8.2	7.4	7.9	21.9	19.2
2010	4.9	7.0	7.5	15.6	14.8
2011	11.4	6.0	4.3	14.9	15.4
2012	9.3	7.6	7.3	17.0	17.1
2013	5.9	5.9	4.1	15.9	13.3

구분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2014	12.7	4.8	3.5	15.4	12.4
2015	7.4	5.7	4.8	16.7	13.1
2016	4.8	7.3	4.8	19.4	15.4
2017	7.8	3.2	6.6	19.2	19.9
2018	5.3	3.8	8.4	17.6	16.2

주: 1) 본 지표는 1998년부터 생산되었으며,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주기로 생산되다가 2007년 이후부터 1년 단위로 생산됨. 2016-2017년도는 수정된 수치를 반영함.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31&conn_path=I2,%20201908 25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주: 1) 본 지표는 1998년부터 생산되었으며,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주기로 생산되다가 2007년 이후부터 1년 단위로 생산됨. 2016-2017년도는 수정된 수치를 반영함.
2) 꺾은선그래프 비율=(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2)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각 연령대별 아동 청소년 응답자 수/각 연령대별 아동 청소년 표본 응답자 수)x100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31&conn_path=I2,%20201908 25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그림 3-43] 연령별 영양결핍률(2001-2018)

아침식사 결식률

가. 정의

아침식사를 결식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조사 하루 전 기준)

나. 의의

규칙적인 식사는 부족한 수면시간과 아침 없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아침결식 등의 불규칙한 식습관은 불균형한 영양섭취와 비만 등의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등 아동·청소년의 인지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해설

2018년 기준 아침식사 결식률은 1-2세 아동이 5.5%로 가장 낮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식률은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12-18세 청소년은 37.4%로 6-11세 아동에 비해 4배 이상 높았으며 19-29세 청년의 경우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계열적으로 비교해보면 1-2세 아동의 경우 2005년 11.0%와 비교해서 50% 가량 감소했으며 6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은 반대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2세-18세 청소년은 2005년 23.8% 대비 2018년 37.4%를 기록 1.57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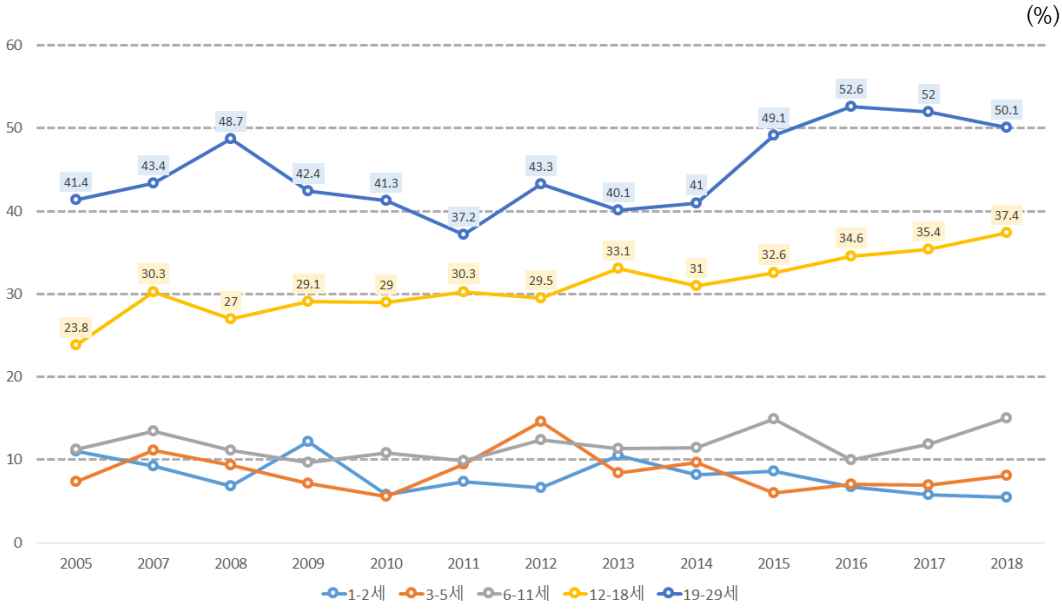
〈표 3-84〉 연령별 아침식사 결식률(2005-2018)

(%)

구분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2005	11.0	7.4	11.3	23.8	41.4
2007	9.3	11.1	13.4	30.3	43.4
2008	6.8	9.4	11.1	27.0	48.7
2009	12.2	7.2	9.7	29.1	42.4
2010	5.8	5.6	10.8	29.0	41.3
2011	7.4	9.5	9.9	30.3	37.2
2012	6.6	14.6	12.4	29.5	43.3
2013	10.5	8.4	11.4	33.1	40.1
2014	8.2	9.7	11.5	31.0	41.0
2015	8.6	6.0	14.9	32.6	49.1
2016	6.7	7.1	10.0	34.6	52.6

구분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2017	5.8	6.9	11.9	35.4	52.0
2018	5.5	8.1	15.0	37.4	50.1

주: 1) 본 지표는 1998년부터 생산되었으며,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주기로 생산되다가 2007년 이후부터 1년 단위로 제공됨. 아침식사결식률은 2005년 이후부터 제공됨.
2) 아침식사결식률은 2012년까지는 '조사 1, 2일 전 식사여부' 문항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조사 1일전 결식자 분율'로 변경됨. 2013년 이후의 산출방법으로 2005년부터 동일한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출됨.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33&conn_path=I2,%20201908 25에서 2020년 09월 06일 인출.



주: 1) 본 지표는 1998년부터 생산되었으며,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주기로 생산되다가 2007년 이후부터 1년 단위로 제공됨. 아침식사결식률은 2005년 이후부터 제공됨.
2) 아침식사 결식률은 2012년까지는 '조사 1, 2일 전 식사여부' 문항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조사 1일전 결식자 분율'로 변경됨. 2013년 이후의 산출방법으로 2005년부터 동일한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재 산출됨.
3) 비율=(각 연령대별 조사 1일 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응답자 수/각 연령대별 응답자 수)x100.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영양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33&conn_path=I2,%20201908 25에서 2020년 09월 06일 인출.

[그림 3-44] 연령별 아침식사 결식률(2005-2018)

규칙적 운동 실천율

가. 정의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최근 7일 동안 운동 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5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

나. 의의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신체활동지침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매일 한 시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신체활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신체활동실천율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동의 낮은 신체활동은 대기오염의 증가, 입시 등 학업의 부담, 게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의존성의 증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아동의 규칙적 운동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대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다. 해설

2019년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14.7%로 2009년 10.9%와 비교할 때 3.8%p 증가했다. 2009년 이후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2년 이후 증가세로 바뀌어 2015년 14.2%까지 높아졌다. 2016년 13.1%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19년 14.7%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규칙적 운동실천율의 성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2009년 남자아동·청소년의 15.7%, 여자아동·청소년의 5.4%가 규칙적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19년 각각 21.5%, 7.3%로 증가했다. 2019년 기준 학교급 별 규칙적 운동실천율은 중학생이 17.5%로 고등학생(1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5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2018년까지 37%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19년 32.0%로 급격한 감소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OECD국가 평균 52%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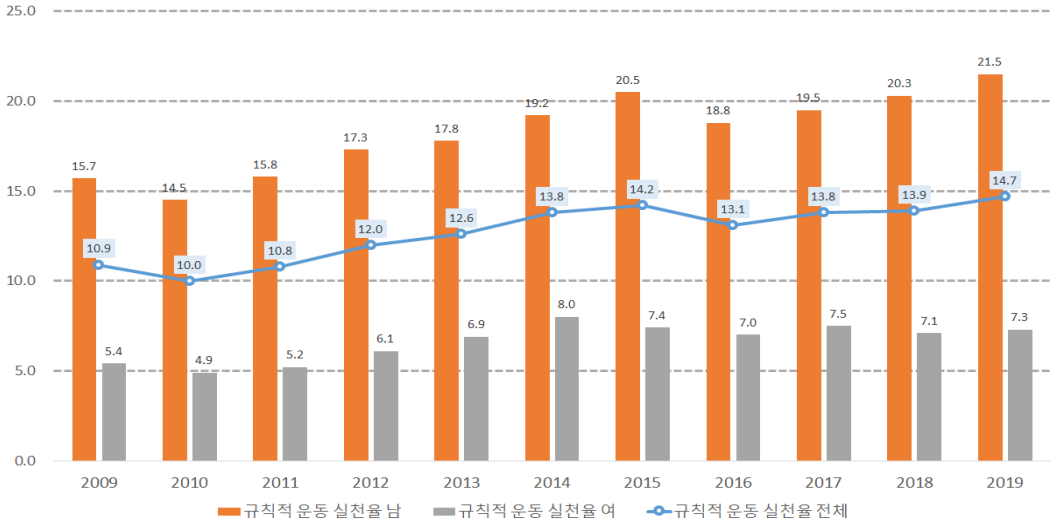
〈표 3-85〉 성별 규칙적 운동 실천율(2009-2019)

(%)

구분	규칙적 운동 실천율		
	전체	남	여
2009	10.9	15.7	5.4
2010	10.0	14.5	4.9
2011	10.8	15.8	5.2
2012	12.0	17.3	6.1
2013	12.6	17.8	6.9
2014	13.8	19.2	8.0
2015	14.2	20.5	7.4
2016	13.1	18.8	7.0
2017	13.8	19.5	7.5
2018	13.9	20.3	7.1
2019	14.7	21.5	7.3

주: 규칙적 운동 실천율 =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5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 2009년 설문문항에 추가되어 이전('05~'08) 자료 없음.
출처: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http://www.kdca.go.kr/yhs/home.jsp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



주: 1) 2009년 설문문항에 추가되어 이전('05~'08) 자료 없음.
2) 꺾은선그래프 비율=(전체 표본 응답자 중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5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응답자 수/전체 표본 응답자 수)x100; 막대그래프비율=(전체 성별(남/여) 표본 응답자 중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5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응답자 수/전체 성별 표본 응답자 수)x100.
출처: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http://www.kdca.go.kr/yhs/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그림 3-45] 성별 규칙적 운동 실천율(200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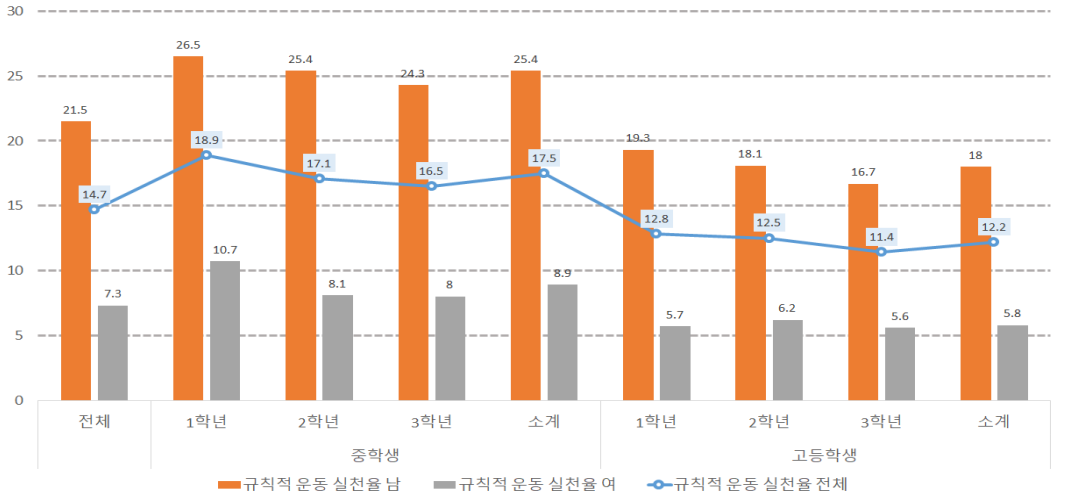
〈표 3-86〉 학교급별 성별 규칙적 운동 실천율(2019)

(%)

구분		규칙적 운동 실천율		
		전체	남	여
중학생	1학년	18.9	26.5	10.7
	2학년	17.1	25.4	8.1
	3학년	16.5	24.3	8.0
	소계	17.5	25.4	8.9
고등학생	1학년	12.8	19.3	5.7
	2학년	12.5	18.1	6.2
	3학년	11.4	16.7	5.6
	소계	12.2	18.0	5.8
전체		14.7	21.5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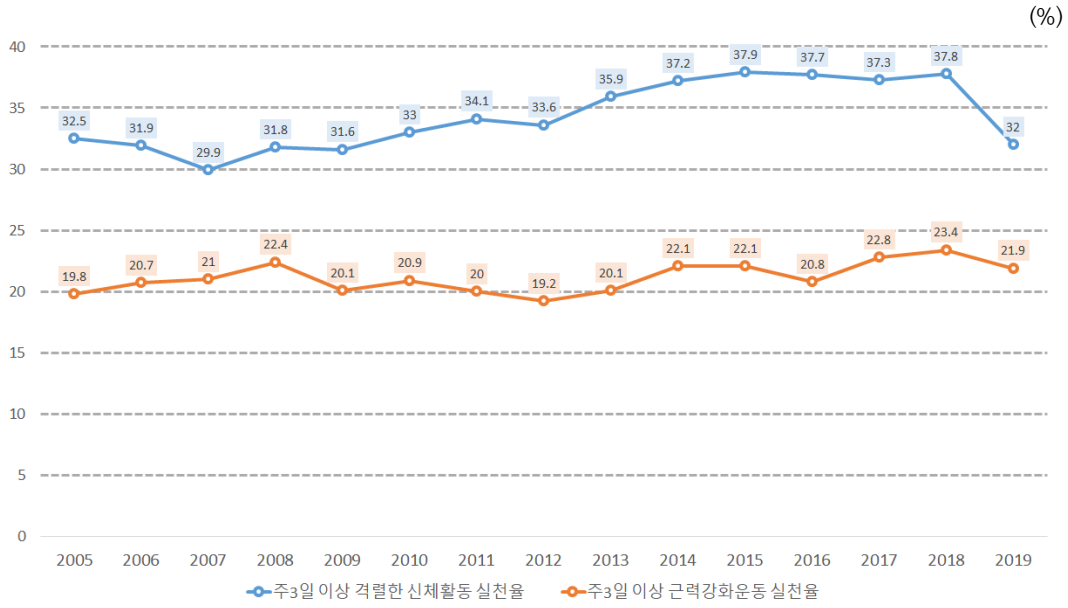
주: 규칙적 운동 실천율 =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5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 2009년 설문문항에 추가되어 이전('05~'08) 자료 없음.
출처: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http://www.kdca.go.kr/yhs/home.jsp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



주: 1) 2009년 설문문항에 추가되어 이전(05~08) 자료 없음.
2) 꺾은선그래프 비율=(전체 및 학교학년별(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2,3학년) 표본 응답자 중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5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응답자 수/전체 및 학교학년별(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2,3학년) 표본 응답자 수)x100; 막대그래프비율=(전체 및 성별(남/여), 학교학년별(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2,3학년) 표본 응답자 중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5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응답자 수/전체 및 성별, 학교학년별(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2,3학년) 표본 응답자 수)x100.
출처: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http://www.kdca.go.kr/yhs/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그림 3-46] 학교급 및 성별 규칙적 운동 실천율(2019)



주: 1)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 최근 7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조깅, 축구, 농구, 태권도, 등산, 빠른 속도의 자전거타기, 빠른 수영,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을 20분 이상 한 날이 3일 이상인 응답자 표본 수/전체 응답자 표본 수x100

2) 주 3일 이상 근력강화운동 실천율 =(최근 7일 동안 근력강화운동(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역기 들기, 아령, 철봉, 평행봉 등)을 3일 이상 한 응답자 표본 수./전체 응답자 표본 수)x100

출처: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http://www.kdca.go.kr/yhs/에서 2020년 11월 9일 인출.

[그림 3-47]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및 근력강화운동 실천율 (2005-2019)

3. 학습·역량 영역

학습·역량 영역 개요

학습·역량 영역은 총 11개 지표로 구성되며, 이 중 9개 지표가 학습 영역, 2개 지표가 역량 영역에 해당한다. 역량(competence) 관련 지표는 영유아 단계에 해당하는 아동 언어발달, 기질 등으로 지표 산출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역량 영역에서 영유아 단계 해당지표는 총 5개, 후기 청소년과 관련된 지표는 총 2개(학교시설 만족도와 학교 주변환경 만족도) 정도다. 이처럼 학습·역량 영역은 초·중등 교육단계와 관련된 지표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영유아 단계의 학습 영역 지표(총 3개)는 유치원 취원률, 부모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책 읽어주기 빈도로 구성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발달·역량 영역 지표(총 2개)에는 0-5세 아동 언어발달정도와 0-8세 아동의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평균점수가 포함되었다.

초·중등 교육단계와 관련된 지표는 총 11개로 구성되었다. 초·중·고 상급학교 진학률과 학업중단율 지표에서는 공통적으로 고교유형별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초·중·고 학교급 모두 일관되게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고등학생의 학습시간은 하루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하였고, 교사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였다.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는 가구소득과 주양육자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중·고 학교시설 및 설비 및 학교의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은 최근 5년간 대학 진학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고·과학고·외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는 대학 진학 비율이 압도적이었지만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의 경우 취업이 각각 79.9%, 41.0%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고등학생의 진로계획은 학교 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표 3-87〉 학습·역량 영역 (학습, 역량)

하위영역	지표	출처
학습	부모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보육실태조사
	상급학교 진학률 (참고지표: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	교육통계, 진로교육현황조사
	학업중단율	교육통계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학습시간	생활시간조사
	책읽어주기 빈도	아동종합실태조사
	학교 만족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회조사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역량	아동 언어발달 정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기효능감	아동종합실태조사

학습

부모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가. 정의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둔 가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까지 측정한 응답 값의 평균점수

나. 해설

유치원 이용만족도는 2018년 4.05점으로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국공립 대비 사립 유치원 이용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2009년 조사 이후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또한 2015년까지 국공립 대비 사립 유치원 이용만족도 차이가 0.1점대 수준이었는데 2018년 0.2점대로 격차가 더욱 커졌다. 어린이집 이용만족도는 2018년 4.03점이고,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어린이집 설립유형은 국공립, 법인, 가정,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다양하며, 직장어린이집 이용만족도가 4.3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맞벌이 가정 또는 취업모 비율이 높은 데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공립, 법인, 가정, 민간어린이집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중 국공립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며,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사설 기관의 이용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3-88〉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만족도(2009-2018)

(점)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2009	3.72	3.80	3.69	3.68	3.73	3.71	3.93	3.61	3.81	3.99	4.40
2012	3.74	3.88	3.70	3.70	3.85	3.69	3.86	3.65	3.67	4.13	4.08
2015	4.01	4.10	4.00	4.02	4.08	4.15	3.80	3.97	4.09	4.39	4.78
2018	4.05	4.21	3.98	4.03	4.11	4.07	4.09	3.97	4.01	4.37	-

주: 1) '매우 불만족'을 1점으로 하고 '매우 만족'을 5점으로 한 만족도 평균점수임.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 각 연도.

상급학교 진학률

가. 정의

교육단계별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 비율

나. 해설

2019년 기준 초등학교 졸업자 100%가 중학교로 진학했고, 중학교 졸업자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해 초·중학교를 졸업하는 아동·청소년 대부분이 상급학교에 진학했다. 고등학교 졸업자 중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비율은 70.4%이고, 일반고 77.0%, 자율고 71.7%, 특목고 57.5%, 특성화고 42.5% 순으로 고등학교 유형별로 진학률의 차이가 나타났다.

OECD 주요국의 연령대별 학생인구를 살펴보면, 한국은 6-24세 연령대에 학생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25-29세 학생인구 비율은 낮은 편으로 확인된다.

〈표 3-89〉 상급학교 진학률(2000-2019)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인문계고	전문계고
2000	100.0	99.6	68.0	-	-	-	-	83.9	42.0
2001	99.9	99.6	70.4	-	-	-	-	85.3	44.9
2002	100.0	99.5	74.2	-	-	-	-	87.0	49.8
2003	100.0	99.7	79.7	-	-	-	-	90.2	57.6
2004	100.0	99.7	81.3	-	-	-	-	89.8	62.3
2005	100.0	99.7	82.1	-	-	-	-	88.3	67.6
2006	100.0	99.8	82.1	-	-	-	-	87.5	68.6
2007	100.0	99.6	82.8	-	-	-	-	87.1	71.5
2008	100.0	99.7	83.8	-	-	-	-	87.9	72.9
2009	100.0	99.6	81.9	-	-	-	-	84.9	73.5
2010	100.0	99.7	78.9	-	-	-	-	81.5	71.1
2011	100.0	99.7	72.5	75.8	67.4	61.0	69.3	-	-
2012	100.0	99.7	71.3	76.6	64.2	50.0	72.6	-	-
2013	100.0	99.7	70.7	77.7	60.0	41.7	74.7	-	-
2014	100.0	99.7	70.9	78.7	59.6	37.9	75.7	-	-
2015	100.0	99.7	70.8	78.9	58.4	36.1	75.8	-	-
2016	100.0	99.7	69.8	78.0	55.9	35.0	74.9	-	-
2017	100.0	99.7	68.9	77.3	56.9	32.8	73.5	-	-
2018	100.0	99.7	69.7	77.7	57.7	36.0	72.6	-	-
2019	100.0	99.7	70.4	77.0	57.5	42.5	71.7	-	-

주: 1) 상급학교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수 ÷ 졸업자수) X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에서 2020년 9월 10일 인출.

〈표 3-90〉 OECD 주요국의 연령대별 학생인구 비율(2010,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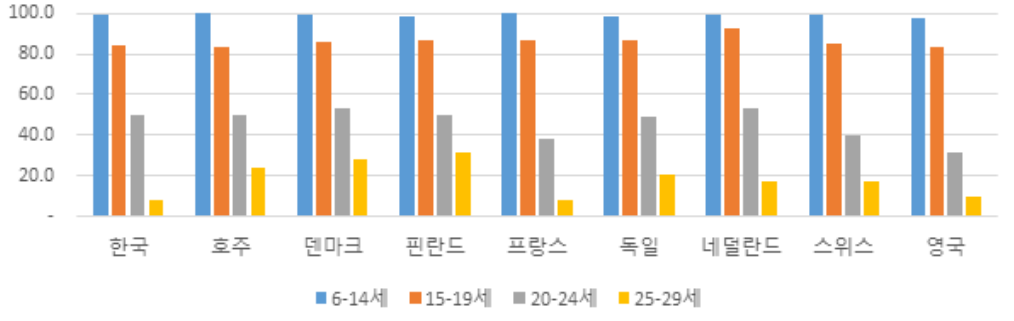
(년, 세, %)

구분	2018						2010		
	취학연령 인구의 90% 이상이 등록한 연수	취학연령 인구의 90% 이상이 등록된 연령대	연령대별 학생인구 비율						
			6-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15-19세	20-24세	25-29세
한국	15	2-17	99.1	84.3	49.5	8.3	85.2	53.9	9.7
호주	12	5-16	99.9	83.7	49.9	23.8	83.4	45.4	19.5
덴마크	15	3-17	99.6	86.3	53.1	28.5	84.5	49.3	27.3
핀란드	13	6-18	98.5	86.7	49.7	31.2	86.8	52.7	31.3
프랑스	15	3-17	100.0	87.0	38.2	7.6	83.6	33.8	6.4
독일	15	3-17	98.9	86.4	49.3	20.9	88.6	44.5	17.4
네덜란드	14	4-17	99.7	92.5	53.3	17.3	90.5	47.5	12.3
스위스	13	5-17	99.8	84.9	40.1	17.2	85.1	34.4	14.4
영국	15	3-17	97.8	83.3	31.5	9.6	76.0	27.2	(M)

주: 1) 공립 및 사립교육기관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프로그램 학생
2) M(Missing value; data cannot exist)

출처: OECD(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https://doi.org/10.1787/69096873-en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그림 3-48] OECD 주요국의 연령대별 학생인구 비율(2018)

(참고지표)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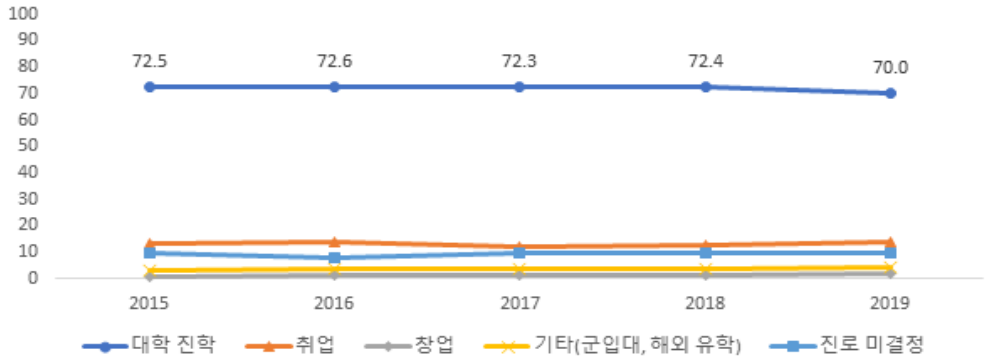
가. 정의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은 대학 진학, 취업, 창업, 기타(군입대, 해외유학), 진로 미결정의 6가지 유형의 계획에 대한 각각의 응답 비율

나. 해설

지난 5년간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 유형별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매년 7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가장 최근 조사인 2019년에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70.0%로 보고되었다. 대학 진학에 이어서 취업, 진로 미결정, 기타(군입대, 해외 유학), 창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순위 역시 지난 5년 간 일관되었다.

(%)



출처: 교육부(2019). 「진로교육현황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2&tblId=DT_11216N_30528&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그림 3-49] 고교 졸업 후 진로계획 추이(2015-2019)

고등학생의 진로 유형별 계획 비율은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반고, 과학고·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의 경우, 대학 진학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진로 미결정 및 창업이 뒤를 이었다. 그 중에서도 대학 진학 계획 비율에 학교 유형별 차이가 있었다. 과학고·외고·국제고가 2019년 기준 92.3%로 가장 높은 대학 진학 계획 비율을 보였고, 예술·체육고가 85.1%, 일반고가 78.5%로 나타났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지난 3년간 매년 80% 수준의 취업 계획률을 보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학 진학과 기타(군입대, 해외유학)이 뒤를 이었다. 특성화고의

경우, 다른 유형의 학교들과 달리 대학 진학과 취업을 계획하는 비율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나 취업 계획률이 대학 진학 계획률보다는 매년 높게 나타났다. 특성화고의 또 다른 특성은 진로 미결정 비율이 다른 유형의 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특성화고의 진로 미결정 비율은 14.8%였으며, 뒤를 이은 일반고의 9.4%와도 차이를 보인 가운데, 다른 유형의 학교들과는 더 큰 차이를 보였다.

〈표 3-91〉 졸업 후 진로계획(2015-2019)

(%)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대학 진학	72.5	72.6	72.3	72.4	70.0
	취업	13.3	13.8	12.4	12.7	13.9
	창업	1.0	1.5	1.6	1.5	1.9
	기타(군입대, 해외 유학)	3.4	4.0	3.8	3.9	4.5
	진로 미결정	9.9	8.1	9.9	9.5	9.8
일반고	대학 진학	-	-	80.7	80.2	78.5
	취업	-	-	5.4	5.8	6.2
	창업	-	-	1.4	1.3	1.8
	기타(군입대, 해외 유학)	-	-	3.5	3.5	4.1
	진로 미결정	-	-	8.9	9.2	9.4
과학고·외고·국제고	대학 진학	-	-	84.3	92.9	92.3
	취업	-	-	5.7	0.5	2.6
	창업	-	-	2.6	2.5	1.5
	기타(군입대, 해외 유학)	-	-	2.4	1.5	1.0
	진로 미결정	-	-	5.0	2.6	2.3
예술·체육고	대학 진학	-	-	82.1	84.3	85.1
	취업	-	-	3.3	7.4	4.6
	창업	-	-	5.6	0.2	1.9
	기타(군입대, 해외 유학)	-	-	2.7	3.3	2.3
	진로 미결정	-	-	6.2	4.8	5.7
마이스터고	대학 진학	-	-	3.7	9.6	6.9
	취업	-	-	80.2	80.2	79.9
	창업	-	-	1.4	2.7	3.2
	기타(군입대, 해외 유학)	-	-	8.1	3.4	6.9
	진로 미결정	-	-	6.6	4.0	3.7
특성화고	대학 진학	-	-	31.1	38.7	34.9
	취업	-	-	45.6	38.8	41.0
	창업	-	-	2.2	2.3	2.4
	기타(군입대, 해외 유학)	-	-	5.2	6.2	6.9
	진로 미결정	-	-	15.8	13.9	14.8

주: 1) 고교 유형별 진로 계획(대학진학, 취업, 창업, 기타(군입대, 해외유학), 진로 미결정) 비율
2) 고교 유형별 자료는 2017년부터 제공
3) 자율고 학생의 응답은 일반고 범주에 포함됨.

출처: 교육부(2019). 「진로교육현황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2&tblId=DT_11216N_30528&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학업중단율

가. 정의

학교급별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비율

나. 해설

2018학년도 초·중·고 전체 학업중단율은 0.9%로 100명 중 1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학업중단율은 0.7% 수준인 반면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1.6%로 초·중학교 대비 약 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자율고 1.1%, 일반고 1.3%, 특목고 1.4%에 반해 특성화고 학업중단율은 3.2%로 타 고교유형 대비 2~3배 높은 수준이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유예보다는 면제[10]에 따른 학업중단자 비율이 높았고, 중학교는 유예 즉 교육의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한 학생들이 76.2%를 차지했다. 한편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기타 48.6%, 부적응 27.9%, 해외출국 14.3% 순으로 높았다. 2012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약 50%가 부적응[11]에 따른 것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이외의 사유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는 고등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10)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한 자

11) 부적응 사유는 학업관련(학습부진, 학업기피 등), 대인관계(학교폭력, 교우관계 미숙, 교사와의 갈등), 학교규칙(두발 및 복장 단속, 흡연, 음주 금지 등의 규율에 대한 부적응), 기타 등에 따름.

〈표 3-92〉 학교급별 학업중단율(2000-2018)

(%)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인문계고	전문계고
2000	1.1	0.4	1.0	2.5	-	-	-	-	1.4	4.4
2001	1.1	0.4	1.1	2.5	-	-	-	-	1.6	4.3
2002	0.9	0.5	0.9	2.1	-	-	-	-	1.4	3.7
2003	0.9	0.7	0.7	1.6	-	-	-	-	0.9	3.2
2004	0.7	0.4	0.7	1.4	-	-	-	-	0.8	2.8
2005	0.7	0.5	0.8	1.3	-	-	-	-	0.8	2.6
2006	0.9	0.6	0.9	1.6	-	-	-	-	1.0	3.1
2007	1.0	0.5	1.0	1.8	-	-	-	-	1.1	3.5
2008	0.9	0.5	1.0	1.8	-	-	-	-	1.1	3.8
2009	0.8	0.3	0.8	1.8	-	-	-	-	1.2	3.6
2010	1.1	0.6	1.0	2.0	-	-	-	-	-	-
2011	1.1	0.6	0.9	1.9	1.5	1.9	3.8	1.8	-	-
2012	1.0	0.6	0.9	1.8	1.5	1.7	3.4	1.3	-	-
2013	0.9	0.6	0.8	1.6	1.4	1.2	2.7	1.0	-	-
2014	0.8	0.5	0.7	1.4	1.2	1.3	2.3	0.9	-	-
2015	0.8	0.5	0.6	1.3	1.1	1.1	2.2	0.8	-	-
2016	0.8	0.6	0.6	1.4	1.2	1.1	2.3	0.9	-	-
2017	0.9	0.6	0.7	1.5	1.3	1.3	2.7	0.9	-	-
2018	0.9	0.7	0.7	1.6	1.3	1.4	3.2	1.1	-	-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 ÷ 학생 수) X 100.
2) 연도(학년도), 학생 수(해당 학년도 4월 1일 기준), 학업중단자(해당 학년도 3월~차년도 2월 기준)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0).「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에서 2020년 9월 2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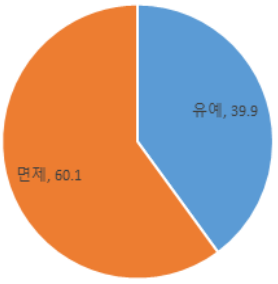
〈표 3-93〉 학교급별 학업중단사유(2012-20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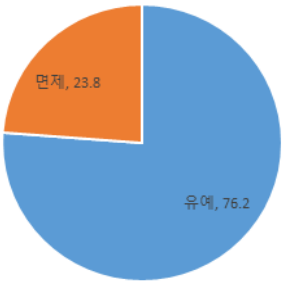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예	면제	유예	면제	유예	면제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	제적
2012	53.0	47.0	85.3	14.7	0.9	0.0	4.1	6.7	50.0	12.5	22.8	3.0	-
2013	47.9	52.1	83.0	17.0	0.5	0.1	4.2	5.2	51.6	12.9	21.7	2.6	1.3
2014	45.5	54.5	80.8	19.2	0.5	0.0	4.0	2.5	38.6	15.6	34.5	3.4	1.0
2015	43.7	56.3	78.7	21.3	0.5	0.0	3.9	2.2	35.3	16.4	37.2	3.5	0.9
2016	39.9	60.1	75.0	25.0	0.4	0.1	4.2	1.5	30.4	16.6	43.1	3.3	0.6
2017	41.1	58.9	74.0	26.0	0.4	0.0	4.1	1.1	28.7	14.8	47.2	3.2	0.5
2018	39.9	60.1	76.2	23.8	0.3	0.0	4.7	1.0	27.9	14.3	48.6	2.9	0.3

주: 1)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업중단 사유는 유예, 면제임.
2) 고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0).「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에서 2020년 9월 2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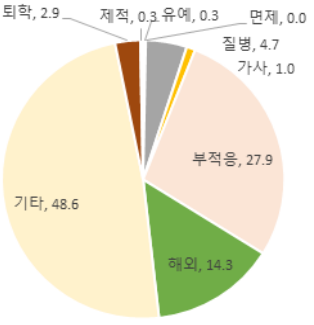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0).「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에서 2020년 9월 2일 인출. 연구진 재구성.

[그림 3-50] 학교급별 학업중단 사유(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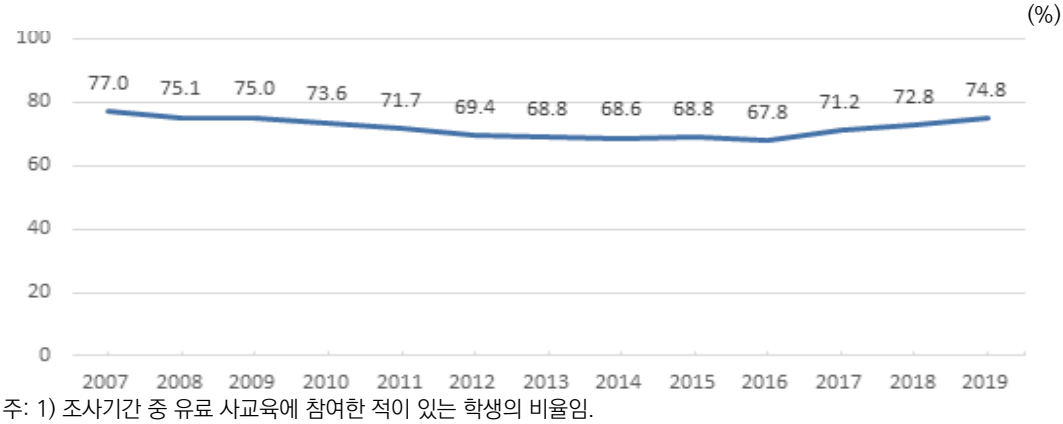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가. 정의

전체 학생 중 유료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 및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유료 사교육에 방과 후 활동, EBS 강의는 미포함)

나. 해설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77.0%에서 2016년 67.8%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7년 71.2%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 74.8%로 최근까지 상승하였다. 학생 10명 중 7명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보였다. 모든 학교급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9년 기준 83.5%로 타 교급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보다 일반고(종합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외고, 체육고, 자율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 과목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예체능 관련 사교육이 67.4%로 일반과목(57.9%)보다 높은 반면, 중고등학생은 일반교과 사교육이 더 높았다. 특히 고등학생은 예체능 관련 사교육은 14.8%로 낮았다. 일반교과 사교육 중에서는 영어와 수학 참여율이 높은 편이고, 전체 학교급에 걸쳐 영어보다 수학의 사교육 참여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주: 1) 조사기간 중 유료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교육부(2020). 「초중고사교육비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301&conn_path=I3에서 2020년 8월 26일 인출.

[그림 3-51] 사교육 참여율 (2007-2019)

〈표 3-9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2007-2019)

(%)

연도	전체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77.0	88.8	74.6	55.0	62.0
2008	75.1	87.9	72.5	53.4	60.5
2009	75.0	87.4	74.3	53.8	62.8
2010	73.6	86.8	72.2	52.8	61.1
2011	71.7	84.6	71.0	51.6	58.7
2012	69.4	80.9	70.6	50.7	57.6
2013	68.8	81.8	69.5	49.2	55.9
2014	68.6	81.1	69.1	49.5	56.2
2015	68.8	80.7	69.4	50.2	56.8
2016	67.8	80.0	63.8	52.4	58.8
2017	71.2	82.7	67.4	55.9	62.2
2018	72.8	82.5	69.6	58.5	65.2
2019	74.8	83.5	71.4	61.0	67.9

주: 1) 조사기간 중 유료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2) 고등학교=일반고+특성화고
3) 일반고: 종합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외고, 체육고, 자율고
특성화고: 과거 전문계열 고등학교(대안학교, 마이스터고, 공업고, 농림업고, 상업고, 실업고, 가사고, 수산고 등)
출처: 통계청, 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301&conn_path=I3에서 2020년 8월 26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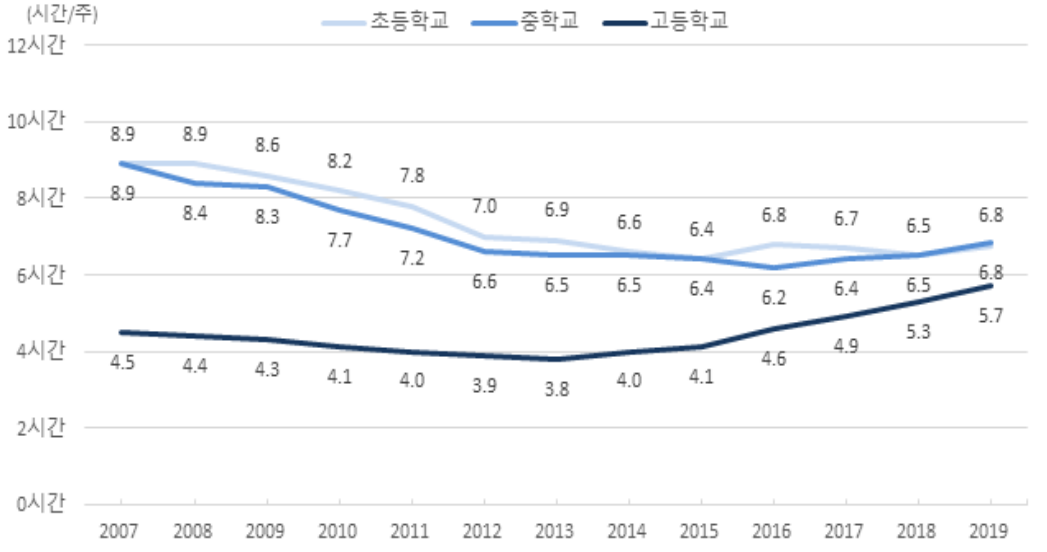
〈표 3-95〉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2019)

(%)

과목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일반교과 사교육	57.9	61.8	49.7	57.8
국 어	25.7	14.6	18.9	22.4
영 어	43.6	53.8	36.3	42.5
수 학	45.6	56.9	41.7	49.1
사회, 과학	12.4	13.7	9.6	11.4
논 술	13.9	6.6	2.3	2.7
제2외국어, 한문, 컴퓨터 등	10.5	5.3	2.2	2.0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	67.4	26.2	14.8	15.3
음 악	32.0	8.4	3.8	4.2
미 술	16.4	3.2	3.2	3.7
체 육	43.7	13.9	5.5	5.1
취미·교양	7.6	3.5	3.0	3.0
취업관련 사교육	0.0	0.0	2.4	1.5
진로·진학 학습상담	1.9	2.2	3.3	3.6

주: 1) 조사기간 중 유료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2) 고등학교=일반고+특성화고
3) 일반고: 종합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외고, 체육고, 자율고
특성화고: 과거 전문계열 고등학교(대안학교, 마이스터고, 공업고, 농림업고, 상업고, 실업고, 가사고, 수산고 등)
출처: 통계청, 교육부(2020). 「초중고사교육비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301&conn_path=I3에서 2020년 8월 26일 인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일주일 간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은 2019년 기준으로 6.5시간으로 나타났다. 2007년 7.8시간에서 2015년 5.7시간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9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주당 6.8시간, 고등학생은 5.7시간을 사교육에 할애했고, 특성화고를 제외한 일반고 학생의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은 6.5시간으로 나타났다.



주: 1) 조사기간 중 유료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주당 평균 참여 시간임
2) 고등학교=일반고+특성화고
3) 일반고: 종합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외고, 체육고, 자율고
특성화고: 과거 전문계열 고등학교(대안학교, 마이스터고, 공업고, 농림업고, 상업고, 실업고, 가사고, 수산고 등)
출처: 통계청, 교육부.「초중고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3&conn_path=I3에서 2020년 8월 26일 인출.

[그림 3-52]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 시간 (2007-2019)

〈표 3-96〉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 시간 (2007-2019)

(시간/주)

연도	전체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7.8	8.9	8.9	4.5	5.2
2008	7.6	8.9	8.4	4.4	5.1
2009	7.4	8.6	8.3	4.3	5.1
2010	7.0	8.2	7.7	4.1	4.8
2011	6.6	7.8	7.2	4.0	4.6
2012	6.0	7.0	6.6	3.9	4.4
2013	5.9	6.9	6.5	3.8	4.4
2014	5.8	6.6	6.5	4.0	4.5
2015	5.7	6.4	6.4	4.1	4.7
2016	6.0	6.8	6.2	4.6	5.2
2017	6.1	6.7	6.4	4.9	5.5
2018	6.2	6.5	6.5	5.3	6.0
2019	6.5	6.8	6.8	5.7	6.5

주: 1) 조사기간 중 유료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주당 평균 참여 시간임
2) 고등학교=일반고+특성화고
3) 일반고: 종합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외고, 체육고, 자율고
특성화고: 과거 전문계열 고등학교(대안학교, 마이스터고, 공업고, 농림업고, 상업고, 실업고, 가사고, 수산고 등)
출처: 통계청, 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3&conn_path=I3에서 2020년 8월 26일 인출.

학습시간

가. 정의

학생들의 하루 24시간 중 '정규수업' 시간과 '정규수업 외 학습(학교활동 외 학습)' 시간을 더한 값. 학생들이 하루 중 학습을 하는 시간을 의미. 여기서는 일주일 평균과 평일의 학습시간을 구분하여 보고하였음.

나. 해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초·중·고로 학교급이 올라가며 증가하고 대학생이 되면서 다시 감소된다. 2019년 기준 학습시간은 초등학생 5시간 9분, 중학생 7시간 10분, 고등학생 8시간 2분, 대학생 4시간 19분이었다. 고등학생은 하루의 1/3 이상을 학습에 사용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기 중에서 학습시간이 가장 길었다.

학생시간의 총량은 1999년 이래로 감소-증가-재감소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학습의 시간이 공교육 정책에 따라 변화하여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학교 외 학습시간은 초등학생을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1999~2009년까지 2시간 정도였으나 2014년 2시간 29분, 2019년 3시간 5분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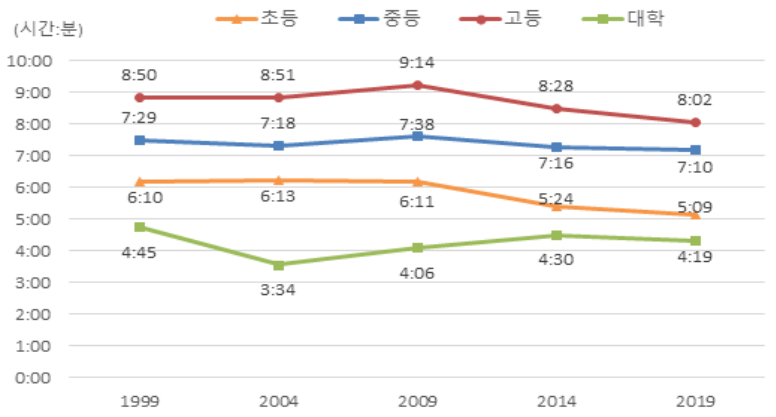
요일별로 학습시간을 비교해보면, 평일은 6시간 5분이며, 주말에도 2시간 이상의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학습시간은 평일에는 10시간이 넘으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각 4시간 이상 학습시간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7〉 요일별 학습시간(2019)

(시간:분)

연도	요일	전체 (10~24세)	학교급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2019	요일평균	4:55	5:09	7:10	8:02	4:19
	평일	6:05	6:41	8:47	9:27	5:25
	토요일	2:12	1:12	3:12	4:47	1:38
	일요일	2:15	1:16	3:03	4:19	1:59

주: 1) 학교급별에서 수학여부는 '재학'인 경우에만 해당
2) 2009, 2014, 2019년은 9월 시간량 자료를 이용함
3) 주행동을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연구진이 재분석한 값임



주: 1) 학교급별에서 수학여부는 '재학'인 경우에만 해당
2) 2009, 2014, 2019년은 9월 시간량 자료를 이용함
3) 주행동을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연구진이 재분석한 값임

[그림 3-53] 학교급별 학습시간(요일평균) (1999-2019)

〈표 3-98〉 학습시간 (요일평균) (1999-2019)

(시간:분)

연도	학교학습여부	전체 (10~24세)	학교급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1999	총계	5:27	6:10	7:29	8:50	4:45
	학교학습	3:58	4:12	5:13	6:46	3:44
	학교외학습	1:29	1:58	2:16	2:05	1:01
2004	총계	5:04	6:13	7:18	8:51	3:34
	학교학습	3:33	4:01	4:52	6:51	2:48
	학교외학습	1:30	2:12	2:26	2:00	0:46
2009	총계	5:51	6:11	7:38	9:14	4:06
	학교학습	3:55	3:36	4:31	7:05	3:07
	학교외학습	1:56	2:35	3:06	2:09	0:58
2014	총계	5:23	5:24	7:16	8:28	4:30
	학교학습	3:17	3:27	4:26	5:59	2:39
	학교외학습	2:06	1:57	2:49	2:29	1:51
2019	총계	4:55	5:09	7:10	8:02	4:19
	학교학습	2:48	3:13	4:07	4:58	2:46
	학교외학습	2:07	1:56	3:03	3:05	1:34

주: 1) 학교급별에서 수학여부는 '재학'인 경우에만 해당
2) 2009, 2014, 2019년은 9월 시간량 자료를 이용함
3) 주행동을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자료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연구진이 재분석한 값임

책 읽어주기 빈도

가. 정의

0-5세 아동의 주양육자가 아동에게 책 읽어주기를 실천하는 빈도(1-4점) 평균점수

나. 해설

책 읽어주기 활동 빈도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로 평가한 결과, 0-2세 연령의 경우 전체 평균점수가 3.2로 '자주 그렇다' 응답범주에 근접한 반면, 3-5세의 전체 평균점수는 1.7로 '거의 그렇지 않다'의 응답범주에 가까웠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책 읽어주기 빈도의 평균점수는 0-2세의 경우 차상위 이상 계층, 빈곤층, 차상위계층 순으로 높았으며, 3-5세의 경우에는 빈곤층, 차상위계층, 차상위 이상 계층 순으로 높았다.

〈표 3-99〉 소득수준별 책 읽어주기 빈도(2008)

(점)

아동연령	전체	소득수준별		
		빈곤층	차상위계층	차상위 이상 계층
0-2세	3.2	3.0	2.9	3.2
3-5세	1.7	1.9	1.8	1.7

주: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항상 그렇다'를 4점으로 한 평균점수임.
출처: 보건복지부(2008), 「200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8117&conn_path=I2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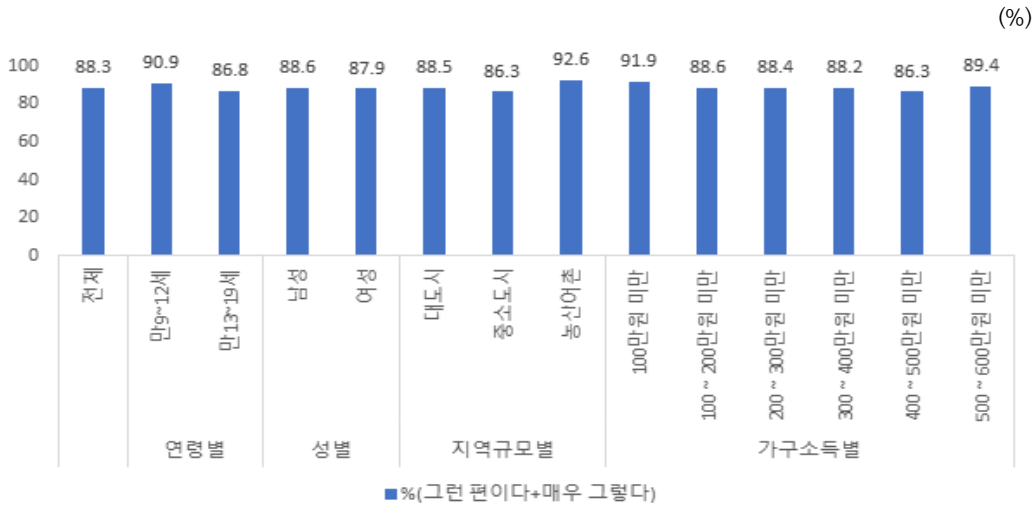
학교 만족도 ① 학교생활 만족도

가. 정의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질문에 대한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응답 평균

나. 해설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전체 평균은 3.0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전체 평균이 88.3%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 미만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만9~12세에서 90.9%로 만13~19세 집단의 86.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농산어촌(92.6%)이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88.5%)와 중소도시(86.3%)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0300568&conn_path=I3 에서 2019년 11월 15일 인출.

[그림 3-54] 개인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2017)

〈표 3-100〉 학교생활 만족도(2017)

(%, 점)

구분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0.6	11.1	75.0	13.3	3.0
연령별	만9~12세	0.4	8.7	72.6	18.3	3.1
	만13~19세	0.7	12.6	76.4	10.4	3.0
성별	남성	0.5	10.9	75.7	12.9	3.0
	여성	0.7	11.4	74.2	13.7	3.0
지역규모별	대도시	0.4	11.1	78.6	9.9	3.0
	중소도시	0.6	13.1	72.6	13.7	3.0
	농산어촌	0.7	6.7	71.9	20.7	3.1
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1.8	6.3	80.2	11.7	3.0
	100 ~ 200만원 미만	2.2	9.2	62.9	25.7	3.1
	200 ~ 300만원 미만	1.1	10.4	71.4	17.0	3.0
	300 ~ 400만원 미만	0.4	11.4	75.2	13.0	3.0
	400 ~ 500만원 미만	0.4	13.2	73.8	12.5	3.0
	500 ~ 600만원 미만	0.1	10.5	78.8	10.6	3.0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평균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0300568&conn_path=I3 에서 2019년 11월 15일 인출.

학교만족도 ② 교육 방법 및 내용 만족도

가. 정의

만 13-24세 학생 중에서 본인 학교의 교육방법,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각각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나. 해설

만 13-24세 학생 중 학교의 교육방법에 만족하는 학생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44.7%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36.1%, 2014년 44.0%에서 2016년 42.9%로 소폭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여학생 대비 남학생의 만족도가 높고(남학생 46.8%, 여학생 42.5%), 지역별로는 읍면부 지역의 만족도가 동부 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동부 44.7%, 읍면부 45.2%). 교육방법에 대한 성별 차이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남학생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읍면부 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16년에 비해서는 동부와 읍면부 지역의 차이가 감소하였다.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 53.1%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42.8%, 2014년 47.7%, 2016년 48.6%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동부 지역이 읍면부 지역보다 높다. 교육내용 만족도는 2012~2016년에는 읍면부 지역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나, 2018년 동부지역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 교육방법의 만족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교육방법보다는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전남,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으며,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전남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울산, 경기, 전북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방법과 교육내용 모두에서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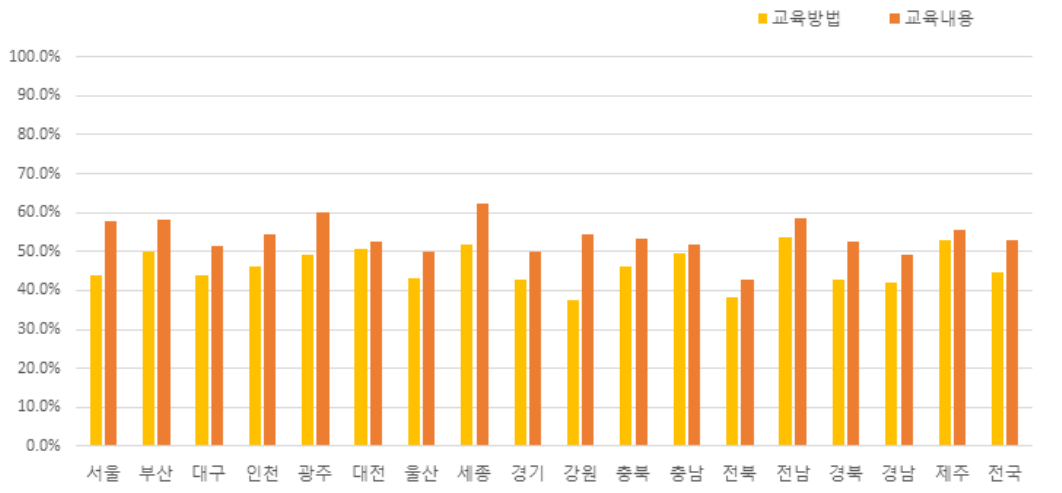
〈표 3-101〉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만족도(2012-2018)

(%)

		교육방법 만족 비율				교육내용 만족 비율			
		2012	2014	2016	2018	2012	2014	2016	2018
전체	계	36.1	44.0	42.9	44.7	42.8	47.7	48.6	53.1
성별	남자	36.3	45.2	44.3	46.8	43.0	49.4	49.1	53.5
	여자	35.7	42.7	41.3	42.5	42.5	45.9	48.0	52.6
지역	동부	36.3	43.8	42.3	44.7	42.5	47.5	47.9	53.5
	읍면부	34.3	45.7	46.8	45.2	44.4	48.7	52.6	50.3

주: 1) 만족도는 각 항목에 '매우 만족'이나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2) 2016년 이전은 13세 이상 중/고/대 재학생 대상이며, 2018년부터 13세 이상 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12R&conn_path=I3에서 2019년 11월 15일 인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11R&conn_path=I3에서 2019년 11월 15일 인출.

(%)



주: 1) 만족도는 각 항목에 '매우 만족'이나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2) 13세 이상 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자료 분석.

[그림 3-55] 지역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만족도(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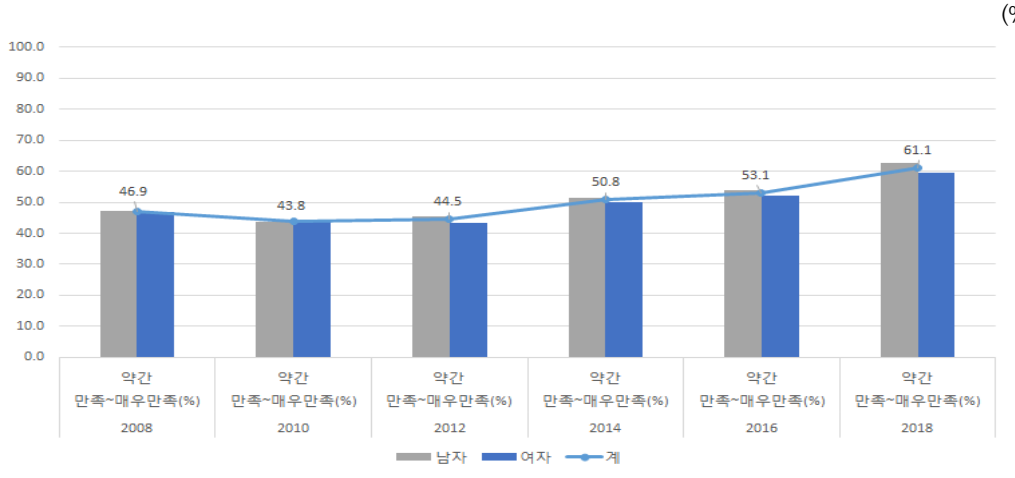
학교만족도 ③ 교사 만족도

가. 정의

교사 만족도는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에 대해 '매우 만족~약간 만족' 또는 '매우 만족~보통'으로 응답한 비율

나. 해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2008년과 2010년에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2012년에서 2016년에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2018년 조사에서는 중고등학생으로 대상으로 하여, 그 조사대상에 변화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중고등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 중 보통에서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매 조사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도 조금씩 상승하여 2018년 조사에서는 95.1%로 나타났다. 약간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조사 때마다 높아졌으며, 그 상승폭은 전자보다 높게 나타나 2018년 조사에서는 61.1%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만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다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교사 만족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14R&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그림 3-56] 교사 만족도 추이(2008-2018)

아동·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조건에 따른 교사 만족도의 차이를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지난 조사들에서는 여자의 교사 만족도가 남자에 비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으나 (2014년 '약간 만족 또는 매우 만족' 응답 비율 제외), 2018년 조사에서는 성별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주관적 만족감에 따라서는 지난 10년간 조사에서 일관되게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사 만족도가 보고되었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지난 조사들에서는 100만원 미만 집단의 교사만족도가 최하위가 아니거나 다른 소득 범주 집단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100만원 미만 집단의 낮은 교사 만족도가 두드러졌다. 2018년의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집단의 '약간 만족~매우 만족' 응답률은 25.7%로 최소 52%를 보고한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41%~53%로 보고한 지난 조사들의 응답과도 차이가 컸다. '보통~매우 만족' 응답률 63.0% 역시 최소 93%를 보고한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90%~93%로 보고한 지난 조사들의 응답과도 차이가 컸다. 전반적인 교사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가구소득 및 주관적 만족감 하위 집단의 낮은 교사 만족도가 가장 최근 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표 3-102〉 교사 만족도(2008-2018)

(%)

		만족비율 (매우 만족~약간 만족)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체	계	46.9	43.8	44.5	50.8	53.1	61.1
성별	남자	46.5	42.5	44.4	51.2	52.4	61.1
	여자	49.1	53.2	45.4	48.4	58.5	61.0
동·읍면부	동부	47.1	43.8	45.6	51.5	54.0	62.6
	읍면부	46.7	44.0	43.3	50.1	52.3	59.6
주관적 만족감	만족	59.0	54.2	54.6	60.0	63.0	74.2
	보통	38.4	38.7	35.7	39.5	40.4	43.3
	불만족	31.0	32.3	33.2	32.3	30.6	26.4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7.9	42.1	41.1	50.1	52.7	25.7
	100~200만원 미만	45.3	36.4	41.7	46.0	55.8	58.2
	200~300만원 미만	45.5	46.3	44.6	49.6	49.5	57.1
	300~400만원 미만	47.2	46.5	48.7	50.2	49.5	52.5
	400~500만원 미만	47.5	44.5	41.8	52.5	56.4	64.9
	500~600만원 미만	49.7	47.1	50.9	56.2	51.8	64.3
	600만원 이상	49.2	47.6	45.5	53.7	57.6	68.9

주1)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응답('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 '매우 만족~약간 만족'로 응답한 비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14R&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학교만족도 ④ 학교 시설 및 주변환경 만족도

가. 정의

만 13-24세 학생 중에서 본인 학교의 학교시설 및 설비,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각각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나. 해설

만 13-24세 학생 중 학교시설 및 설비에 만족하는 학생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47.4%로 나타났다.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33.5%, 2014년 38.7%, 2016년 41.0%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여학생 대비 남학생의 만족도가 높고(남학생 49.3%, 여학생 45.5%),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이 읍면부 지역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시설 만족도의 성별 차이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남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나, 지역별 차이의 경우 2012~2016년까지는 읍면부 지역의 학교시설 만족도가 더 높았으나, 2018년에 읍면부 지역은 2016년과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동부 지역에서는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 47.1%로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한 만족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12년 31.7%, 2014년 37.5%, 2016년 39.8%로 꾸준히 상승추세이다. 성별 및 지역별 차이도 학교시설 만족도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2018년 기준으로 여학생 대비 남학생의 만족도가 높고(남학생 49.0%, 여학생 45.2%), 동부 지역의 만족도가 읍면부보다 높다(동부 47.4%, 읍면부, 45.0%). 지역별 차이는 학교시설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2016년 이전까지는 읍면부 지역에서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동부 지역보다 지속적으로 약간 높았으나, 2018년에 동부 지역에서의 만족도 증가로 인해 동부 지역의 만족도가 읍면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17개 시도별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세종과 경남 지역을 제외하면 학교시설과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각 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서울, 부산, 세종, 경북, 제주 지역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와 강원도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신축학교가 대부분인 세종시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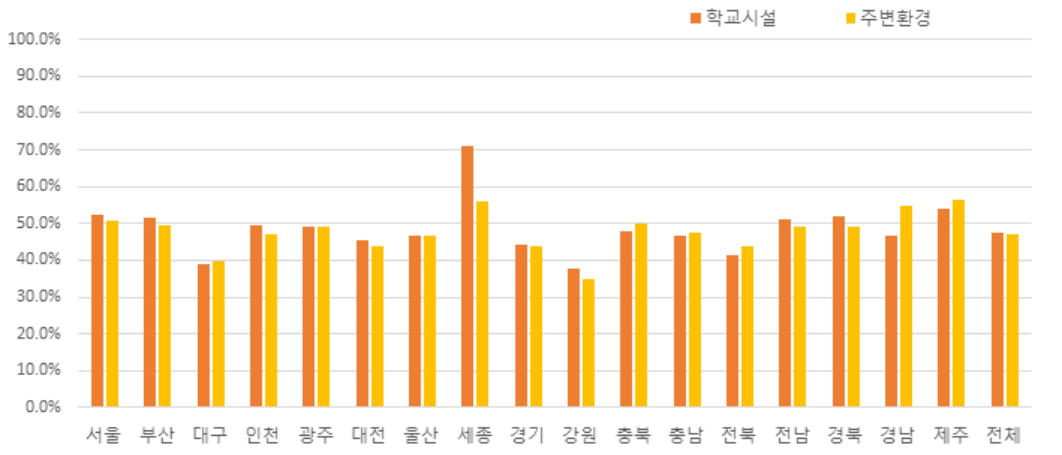
〈표 3-103〉 학교 시설 및 주변환경 만족도 (2012-2018)

(%)

		학교시설 만족 비율				학교 주변환경 만족 비율			
		2012	2014	2016	2018	2012	2014	2016	2018
전체	계	33.5	38.7	41.0	47.4	31.7	37.5	39.8	47.1
성별	남자	34.2	40.4	43.0	49.3	32.4	39.1	40.5	49.0
	여자	32.8	36.8	39.0	45.5	30.9	35.9	39.2	45.2
지역	동부	33.1	38.7	40.5	47.9	31.4	37.4	39.6	47.4
	읍면부	36.2	38.6	44.8	44.6	34.0	38.5	40.9	45.0

주: 1) 만족도는 각 항목에 '매우 만족'이나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2) 2016년 이전은 13세 이상 중/고/대 재학생 대상이며, 2018년부터 13세 이상 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15R&conn_path=I3에서 2019년 11월 15일 인출.

(%)



주: 1) 만족도는 각 항목에 '매우 만족'이나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2) 13세 이상 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자료 분석.

[그림 3-57] 지역별 학교시설 및 주변환경 만족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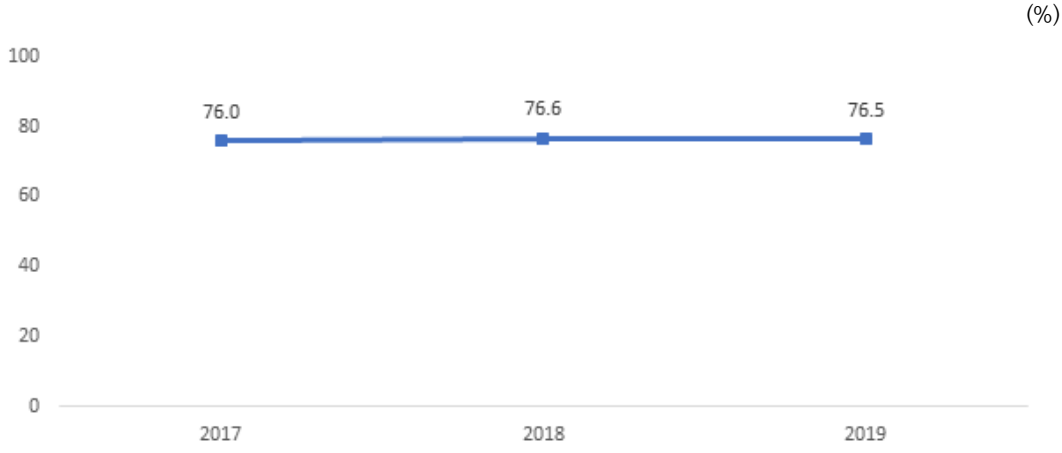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가. 정의

학교에 가기 좋아하는 정도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내용 중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나. 해설

초·중·고등학생 아동·청소년의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7년 조사에서는 76.0%, 2018년 조사에서는 76.6%, 2019년 조사에서는 76.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하며 지난 3년 간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가기 즐겁다고 평가한 비율은 3개년도 조사에서 일관되게 남자의 평균이 여자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학교에 가기 즐겁다고 평가한 비율은 지역규모 및 고교 유형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0_1&conn_path=I3에서 2020년 11월 15일 인출.

[그림 3-58]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변화 추이(2017-2019)

그러나 지난 3년 간 일관되게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보다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적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 및 경제적 수준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에는 20%가 넘는 차이가 매해 보고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표 3-104〉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2017-2019)

(%)

		2017	2018	2019
전체	소계	76.0	76.6	76.5
성별	남자	76.0	77.8	77.4
	여자	75.9	75.4	75.6
학교급	초등학교	85.0	85.2	82.7
	중학교	77.3	77.2	76.3
	고등학교	68.2	69.3	71.1
고교유형	일반계고	68.8	69.2	70.9
	특성화계고	65.5	69.8	71.9
지역규모	대도시	76.4	78.4	76.8
	중소도시	76.6	74.9	76.2
	읍면지역	72.8	77.7	76.3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76.5	77.1	77.2
	한부모가정	67.7	70.5	70.1
	조손가정	81.1	70.0	66.9
	기타	82.1	80.7	71.4
학업성적	상	83.7	84.9	83.8
	중	77.3	77.9	78.4
	하	62.6	62.3	61.5
경제적 수준	상	80.7	81.9	81.5
	중	73.3	73.5	72.1
	하	60.0	57.8	61.2

주: 1)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에 대한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0_1&conn_path=I3에서 2020년 11월 15일 인출.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

가. 정의

주관적 학업성취는 '현재 학업 성적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매우 못한다(1)', '못하는 편이다(2)', '보통이다(3)', '우수한 편이다(4)', '매우 우수하다(5)'로 측정된 값의 인구집단별 평균

나. 해설

만 9~18세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전체 평균은 3.4점으로 보통이다와 우수한 편이다의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만 9~12세 집단(3.5점)이 만 13~18세 집단(3.3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 집단(3.4점)이 남자 청소년 집단(3.3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들은 미미하였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취 평가 수준이 높고, 주양육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취 평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5〉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2017)

(점)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
전체		3.4
연령별	만 9~12세	3.5
	만 13~18세	3.3
성별	남성	3.3
	여성	3.4
지역규모별	대도시	3.4
	중소도시	3.3
	농산어촌	3.3
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2.9
	100 ~ 200만원 미만	3.1
	200 ~ 300만원 미만	3.2
	300 ~ 400만원 미만	3.4
	400 ~ 500만원 미만	3.4
	500 ~ 600만원 미만	3.4
	600만원 이상	3.5
주양육자학력별	초졸 이하	3.0
	중졸	3.1
	고졸	3.3
	대졸 이상	3.5

주: 1) '매우 못한다(1) ~ 매우 우수하다(5)'의 평균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0300569&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역량

아동 언어발달 정도

가. 정의

0-5세 아동의 전반적 언어발달 정도(1-4점) 평균점수

나. 해설

2018년 조사를 기준으로 0-5세 조사대상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는 2.25점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자(2.26점)가 남자(2.24점)보다 높았으며, 3-5세 아동(2.32점)이 0-2세 아동(2.15점)보다 점수가 높았다. 표본별로는 일반가구 아동(2.25점)이 수급가구 아동(2.06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가구유형별로는 양부모가족의 아동(2.26점)이 한부모·조손가족 아동(2.00점)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06〉 성·연령·표본·가구유형별 아동 언어발달 정도(2018)

(점)

전체	성별		연령별		표본별		가구유형별	
	남자	여자	0-2세	3-5세	일반 가구	수급 가구	양부모가족	한부모·조손가족
2.25	2.24	2.26	2.15	2.32	2.25	2.06	2.26	2.00

주: 1) 4점 척도
2)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3) 2018년 조사표본은 일반가구 아동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수급가구 아동으로 구분됨.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036&conn_path=I2에서 2019년 12월 10일 인출.

자기효능감

가. 정의

9-17세 아동의 자존감(1-4점)과 유능감(1-4점) 평균점수

나. 해설

자존감과 유능감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로 평가한 결과, 자존감은 전체평균이 2.95점이고, 유능감은 전체 평균 2.75점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의 경우 9-11세 아동이 12-17세 아동보다, 일반가구 아동이 빈곤가구 아동보다, 양부모가족 아동이 한부모·조손가족 아동보다 평균점수가 높았다. 유능감의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9-11세 아동이 12-17세 아동보다, 일반가구 아동이 빈곤가구 아동보다, 양부모가족 아동이 한부모·조손가족 아동보다 평균점수가 높았다.

〈표 3-107〉 성·연령·소득수준·가족유형별 아동 자기효능감(2013)

(점)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가족유형별	
		남자	여자	9-11세	12-17세	일반가구	빈곤가구	양부모가족	한부모·조손가족
자존감	2.95	2.95	2.95	2.99	2.93	2.95	2.87	2.96	2.87
유능감	2.75	2.73	2.77	2.79	2.73	2.75	2.74	2.75	2.71

주: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항상 그렇다'를 4점으로 한 자존감 10개 항목과 유능감 3개 항목의 평균점수임.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13_H088&conn_path=I2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4. 여가·활동·참여 영역

여가·활동·참여 영역 개요

여가·활동·참여 영역은 총 13개 지표로 구성되며, 이 중 여가 및 활동과 관련된 지표는 5개, 사회·경제·정치 참여 관련 지표 8개로 구분된다. 한편 초·중등 교육단계와 관련된 지표는 총 12개로 여가·활동·참여 영역 대부분의 지표에 해당되고, 후기 청소년(청년) 관련 지표는 4개에 불과하다(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동아리 참여 비율, 투표 참여율, 사회문제 관심도 등).

여가·활동·참여 영역의 지표결과를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만9-17세) 비율 지표에서는 우리 사회 중·고등학생들의 시간에 대한 압박정도가 70.2%로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평일 여가시간 사용에서 1시간미만 또는 1-2시간 사용 대비 2시간 이상 사용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은 학원 및 과외(41.7%), 인터넷(34.0%), TV 및 비디오 시청(32.8%), 집에서 숙제 등 공부(23.0%)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매체의 이용과 관련해 거의 매일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77.4%,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이용 비율이 68.0%로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은 중학생 1.7%, 고등학생 15.0%로 대부분 고등학생에 해당하며, 특히 일반고·특목고·자율고 10.9% 대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4.4%로 고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동아리 참여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일반 동아리 참여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이버 및 기타 동아리 참여 비율이 높았다. 또한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관심이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은 24.1%(10점 중 7점 이상), 중2 학생들이 향후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50.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 정도는 가정(95.6%) 및 학교(91.5%)에서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았던 반면 우리나라 전체(77.1%)로부터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3-108〉 여가·활동·참여 영역 (여가 및 활동, 사회·경제·정치 참여)

하위영역	지표	출처
여가 및 활동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여가시간 사용 정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사회조사
	매체 이용 경험 (참고지표: 방송매체에 따른 TV 프로그램 시청시기)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회·경제·정치 참여	일하는 청소년 비율(학교 유형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기부 참여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후기청소년(청년) 투표 참여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아리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비율	ICCS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친구·가족과의 토론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여가 및 활동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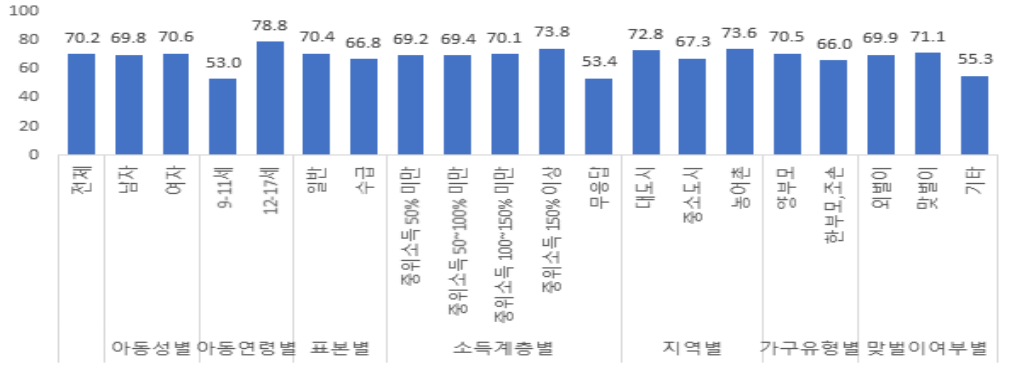
가. 정의

시간 압력은 시간이 얼마나 부족하거나 여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에 대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가끔 부족하다고 느낌', '약간 여유 있다고 느낌', '항상 여유 있다고 느낌'의 응답 범주 중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또는 '가끔 부족하다고 느낌'으로 응답한 비율

나. 해설

만 9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70.2%로 나타나, 상당수의 아동·청소년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성별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에 따라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9-11세 아동·청소년의 53.0%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반면, 12~17세 아동·청소년 중에서는 78.8%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시간 압력을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일반 가정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에서 외벌이 가정보다 높은 비율의 아동·청소년이 시간 압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가정에서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보다 시간 압력을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 2018_A085&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그림 3-59]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2018)

〈표 3-109〉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2018)

(%)

		2018
전체	소계	70.2
아동성별	남자	69.8
	여자	70.6
아동연령별	9-11세	53.0
	12-17세	78.8
표본별	일반	70.4
	수급	66.8
소득계층별	중위소득 50% 미만	69.2
	중위소득 50~100% 미만	69.4
	중위소득 100~150% 미만	70.1
	중위소득 150% 이상	73.8
	무응답	53.4
지역별	대도시	72.8
	중소도시	67.3
	농어촌	73.6
가구유형별	양부모	70.5
	한부모,조손	66.0
맞벌이여부별	외벌이	69.9
	맞벌이	71.1
	기타	55.3

주: 1) 시간의 부족, 여유에 대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또는 '가끔 부족하다고 느낌'로 응답한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 2018_A085&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여가시간 사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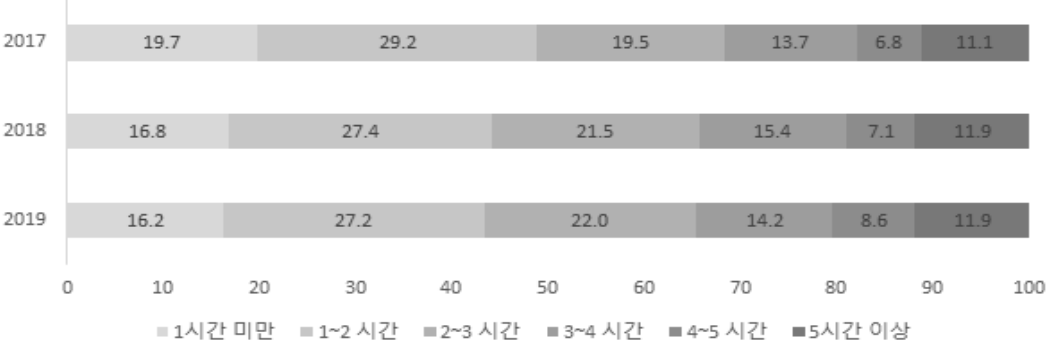
가. 정의

여가시간은 평일 여가시간의 양을 1시간 단위로 응답한 각 시간대별 응답 비율

나. 해설

초·중·고등학생의 평일 여가시간은 지난 3년간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평일 중 여가시간을 1시간 미만 또는 1~2시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조금씩 줄어듦에 따라 2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비중이 조금씩 늘었다. 3개년도 조사에서 모두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의 평일 여가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7년에는 1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순으로, 2018년과 2019년에는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1시간 미만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3개년간 일관되게 여자 아동·청소년이 남자 아동·청소년에 비해 1시간 미만의 여가시간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5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비율은 남자 아동·청소년이 여자 아동·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또한 3개년 간 1시간 미만, 1~2시간 범주의 응답비율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며, 3~4시간 이상의 범주들에 대한 응답비율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져, 학교급이 낮은 아동·청소년이 보다 많은 평일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학업성적이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적은 여가시간에 대한 응답률이 높고 많은 여가시간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나, 1시간 미만의 여가시간을 보고한 비율은 경제적 수준 하위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5&conn _path=I3에서 2020년 11월 15일 인출.

[그림 3-60] 여가시간 사용 정도 연차별 변화(2017-2019)

〈표 3-110〉 여가시간 사용 정도(2017-2019)

(%)

		2017						2018						2019					
		1시간 미만	1~2 시간	2~3 시간	3~4 시간	4~5 시간	5시간 이상	1시간 미만	1~2 시간	2~3 시간	3~4 시간	4~5 시간	5시간 이상	1시간 미만	1~2 시간	2~3 시간	3~4 시간	4~5 시간	5시간 이상
전체	소계	19.7	29.2	19.5	13.7	6.8	11.1	16.8	27.4	21.5	15.4	7.1	11.9	16.2	27.2	22.0	14.2	8.6	11.9
성별	남자	18.5	28.8	19.6	13.9	6.6	12.5	16.1	27.5	21.3	15.0	6.9	13.1	15.2	27.7	21.9	13.5	8.4	13.3
	여자	21.0	29.6	19.5	13.4	6.9	9.5	17.5	27.2	21.8	15.8	7.3	10.5	17.2	26.6	22.1	14.8	8.8	10.5
학교급	초등학교	15.7	21.5	18.1	17.1	9.9	17.6	14.3	20.2	20.1	17.3	9.7	18.3	15.4	20.0	20.9	15.7	10.8	17.1
	중학교	14.6	29.9	22.6	15.2	7.3	10.5	11.2	29.2	22.9	17.4	7.7	11.5	11.7	25.9	23.7	16.7	9.9	12.2
	고등학교	27.0	34.4	18.1	9.9	4.0	6.6	23.3	31.5	21.5	12.2	4.5	7.0	20.6	34.6	21.5	10.6	5.5	7.1
고교유형	일반계고	29.5	37.1	17.6	8.3	2.9	4.6	26.3	33.3	20.4	11.3	3.1	5.5	22.8	37.2	21.5	8.9	3.9	5.7
	특성화계고	16.6	22.8	20.1	16.6	8.7	15.0	11.0	23.9	26.0	15.7	10.3	13.1	11.4	24.0	21.5	17.5	12.2	13.3
지역규모	대도시	20.6	30.5	19.0	12.4	6.6	11.0	15.7	29.3	20.8	16.1	6.8	11.3	17.3	28.4	22.2	13.9	7.7	10.5
	중소도시	18.5	27.9	19.9	15.0	7.2	11.5	16.2	26.5	22.4	15.4	7.3	12.2	15.3	25.6	22.0	14.4	9.5	13.1
	읍면지역	21.0	29.6	20.0	13.4	5.9	10.1	23.4	24.3	20.1	12.7	7.1	12.4	15.5	29.1	21.4	14.2	7.9	12.0
가족유형	양부모 가정	19.6	29.6	19.9	13.7	6.7	10.5	17.1	27.8	21.5	15.1	7.0	11.5	16.4	27.6	22.2	14.1	8.5	11.3
	한부모 가정	20.4	24.7	16.1	15.1	7.2	16.5	13.0	22.9	21.7	18.8	7.8	15.9	13.2	22.3	20.8	14.5	9.9	19.3
	조손가정	20.4	28.1	17.2	11.0	4.1	19.2	15.4	24.2	28.7	13.7	5.5	12.5	18.0	25.7	23.0	14.7	5.0	13.7
	기타	24.2	27.3	13.5	9.4	8.7	16.9	16.1	20.0	18.0	16.9	12.0	17.0	15.1	24.8	15.2	19.8	14.3	10.9
학업성적	상	20.1	31.2	20.2	12.5	6.9	9.1	18.0	29.2	21.7	15.2	6.5	9.4	18.0	29.4	21.3	13.3	7.9	10.2
	중	19.2	29.1	19.1	14.3	7.1	11.1	15.2	27.2	22.0	15.8	7.5	12.3	15.4	26.7	22.2	15.1	8.7	11.9
	하	20.2	26.5	19.4	14.3	5.9	13.8	17.9	25.2	20.5	14.8	7.1	14.4	14.8	24.5	22.8	13.9	9.4	14.6
경제적 수준	상	18.4	29.1	20.4	13.8	7.5	10.7	16.6	27.4	21.3	16.0	7.2	11.5	16.1	26.5	22.8	14.3	8.5	11.9
	중	20.6	29.3	18.8	14.1	6.0	11.2	16.0	28.2	22.7	14.4	6.7	12.0	15.9	27.6	21.5	14.6	9.2	11.2
	하	23.6	29.3	17.3	12.0	5.2	12.6	20.5	24.4	18.7	15.4	7.9	13.1	17.7	29.9	18.5	12.1	6.8	15.0

주: 1) 평일 여가시간의 양을 1시간 단위로 응답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5&conn _path=I3에서 2020년 11월 15일 인출.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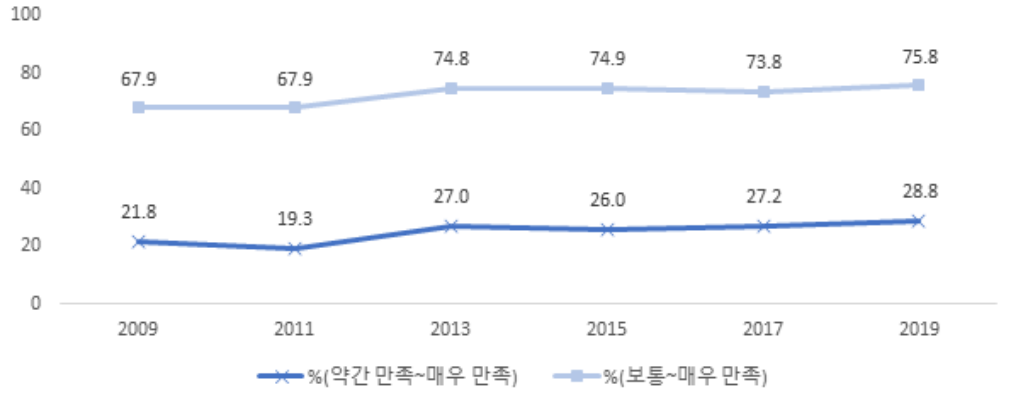
가. 정의

자신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내용 중 '약간 만족~매우 만족' 또는 '보통~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나. 해설

13세~29세 아동·청소년의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약간 만족~매우 만족'과 '보통~매우 만족'의 두 가지 범주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2009년에는 20~29세의 만족도가 두 가지 범주에서 모두 13~19세의 만족도 보다 높았으나, 2011년 이후에는 20~29세의 만족도가 13~19세의 만족도보다 낮았다. 그러나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의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19세 집단에서는 남자의 만족도가 여자보다 매 조사에서 일관되게 높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29세 집단에서는 조사연도에 따라 성별 간 차이에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CL091R&conn_path=I3 에서 2020년 11월 15일 인출.

[그림 3-61] 여가시간에 만족하는 비율 변화 추이(2009-2019)

〈표 3-111〉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하는 비율(2009-2019)

(%)

		2009		2011		2013	
		% (약간 만족~매우 만족)	% (보통~매우 만족)	% (약간 만족~매우 만족)	% (보통~매우 만족)	% (약간 만족~매우 만족)	% (보통~매우 만족)
전체		21.8	67.9	19.3	67.9	27.0	74.8
13~19세	전체	25.1	69.4	29.7	75.2	40.0	83.2
	남자	26.5	71.7	33.9	77.1	41.0	83.5
	여자	23.7	67.0	25.1	73.2	38.9	82.9
20~29세	전체	26.1	74.1	23.1	74.5	33.9	81.4
	남자	26.8	74.1	22.9	76.1	31.5	80.9
	여자	25.5	74.1	23.2	72.9	36.3	81.8
		2015		2017		2019	
		% (약간 만족~매우 만족)	% (보통~매우 만족)	% (약간 만족~매우 만족)	% (보통~매우 만족)	% (약간 만족~매우 만족)	% (보통~매우 만족)
전체		26.0	74.9	27.2	73.8	28.8	75.8
13~19세	전체	40.7	84.4	43.6	81.5	43.3	81.6
	남자	41.4	85.2	43.9	82.2	44.3	82.8
	여자	39.9	83.4	43.4	80.8	42.3	80.4
20~29세	전체	32.1	80.6	33.9	79.6	35.5	81.1
	남자	31.6	81.3	33.4	81.1	35.2	81.8
	여자	32.6	79.8	34.4	78.0	35.8	80.4

주: 1) 자신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응답('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 '약간 만족~매우 만족' 또는 '보통~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2) 2009년 조사에서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이에 13~19세 구간에 15~19세 응답이 반영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CL091R&conn_path=I3 에서 2020년 11월 15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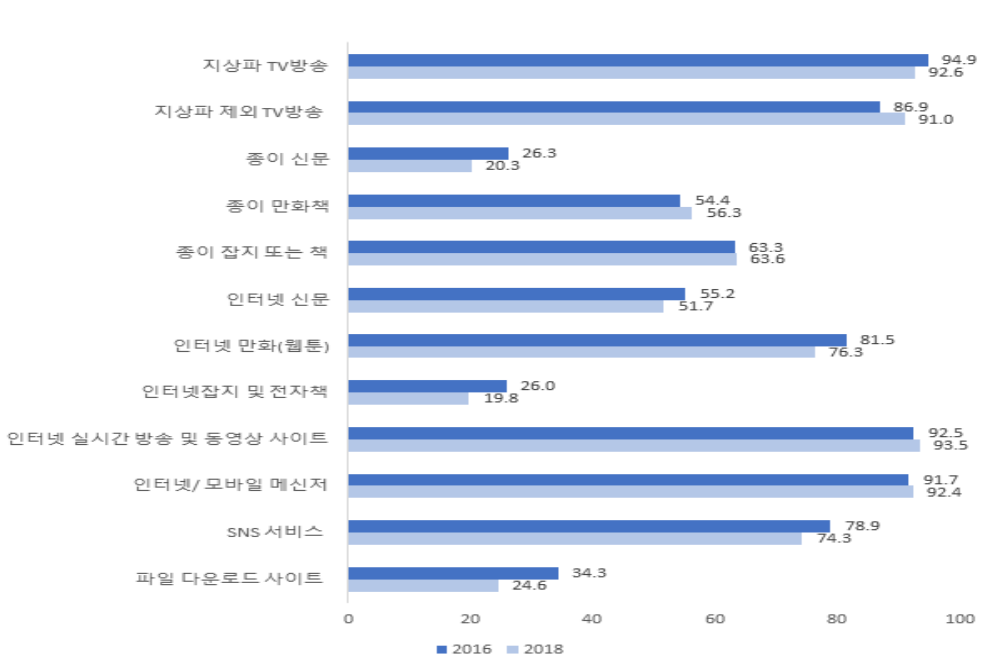
매체 이용 경험

가. 정의

아동·청소년의 매체 이용 비율은 12가지 매체(지상파 TV 방송, 지상파를 제외한 TV 방송, 종이 신문, 종이 만화책, 종이 잡지 또는 책, 인터넷 신문, 인터넷 만화(웹툰),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SNS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각각의 이용률, 이용 빈도, 해당 매체 이용 시 주요 이용 기기 비율

나. 해설

2016년과 2018년의 매체별 이용률을 비교한 결과, 지상파 TV 방송의 이용률은 조금 줄어들었으며(94.9% → 92.6%), 지상파를 제외한 TV 방송의 이용률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6.9% → 91.0%). 종이 매체의 경우 잡지 또는 책의 이용률은 거의 동일하였으며, 종이 만화책의 이용률은 소폭 늘고(54.4% → 5.63%), 종이 신문의 경우 이용률이 감소하였다(26.3% → 20.3%).



출처: 여성가족부(2018).「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그림 3-62] 매체 이용 경험 변화(2016, 2018)

인터넷 매체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55.2% → 51.7%), 인터넷 만화(81.5% → 76.3%),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26.0% → 19.8%), 소셜미디어(SNS 서비스) (78.9% → 74.3%),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34.3% → 24.6%) 등 대부분의 인터넷 매체의 이용률이 줄어들었다. 반면, 인터넷 매체 중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2.5% → 93.5%) 및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1.7% → 92.4%)의 이용률은 조금씩 늘었다.

이용률이 높은 매체일수록 이용 빈도도 높았으며,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비율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에서 가장 높았다. 인터넷 매체들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이용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TV 매체의 경우도 TV 다음으로 스마트폰의 이용률이 높았다.

〈표 3-112〉 아동·청소년의 매체 이용 비율(2016, 2019)

(%)

매체 종류		이용률	이용 빈도				주요 이용 기기			
			거의 매일	주 1~2회	월 1~2회	연 3~4회	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패드	TV
1) 지상파 TV방송	2016	94.9	50.6	35.3	7.3	1.8	4.5	15.4	1.5	78.6
	2018	92.6	42.0	38.3	9.5	2.8	4.6	18.0	1.5	75.9
2) 지상파를 제외한 TV방송	2016	86.9	33.4	39.9	10.9	2.7	4.5	14.1	1.5	79.9
	2018	91.0	34.7	42.1	11.1	2.6	4.7	15.9	1.4	78.0
3) 종이 신문	2016	26.3	3.7	5.0	8.9	8.7	-	-	-	-
	2018	20.3	2.5	4.1	5.8	7.4	-	-	-	-
4) 종이 만화책	2016	54.4	6.6	14.5	19.0	14.3	-	-	-	-
	2018	56.3	8.0	14.8	19.3	13.6	-	-	-	-
5) 종이 잡지 또는 책	2016	63.3	12.1	20.2	21.7	9.2	-	-	-	-
	2018	63.6	13.2	21.3	20.2	8.2	-	-	-	-
6) 인터넷 신문	2016	55.2	17.9	21.3	12.3	3.7	16.5	78.6	3.8	1.1
	2018	51.7	14.7	20.5	12.1	4.0	13.8	82.1	2.5	1.6
7) 인터넷 만화 (웹툰)	2016	81.5	49.2	21.8	7.1	3.4	10.2	86.1	2.9	0.8
	2018	76.3	43.1	21.1	8.2	3.7	7.1	89.8	2.2	0.9
8)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 (E-book)	2016	26.0	4.1	8.0	8.9	5.0	16.9	73.5	8.0	1.5
	2018	19.8	3.1	5.3	5.7	4.2	17.5	66.8	14.1	1.6
9)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2016	92.5	54.9	27.9	8.2	1.6	12.5	81.8	4.3	1.5
	2018	93.5	68.0	20.2	4.3	1.0	8.8	85.3	4.0	1.9
10)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2016	91.7	76.1	11.9	2.8	0.8	3.2	95.0	1.7	0.2
	2018	92.4	77.4	12.0	2.4	0.6	3.0	95.6	1.3	0.1
11) SNS 서비스	2016	78.9	58.7	12.6	5.6	1.9	6.4	91.3	2.1	0.2
	2018	74.3	54.3	12.4	5.4	1.9	4.7	93.7	1.4	0.2
12)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2016	34.3	3.4	10.0	13.6	7.3	36.6	59.1	3.8	0.5
	2018	24.6	2.0	5.8	9.7	6.0	38.9	57.4	3.0	0.7

주: 1) 청소년 매체별 이용률, 빈도, 주요 이용 기기
출처: 여성가족부(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참고지표) 방송매체에 따른 TV 프로그램 시청 시작 시기

가. 정의

방송매체(TV, 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TV 프로그램 시청을 시작한 시작 시기

나. 해설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는 TV 수상기와 라디오,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시청각 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시청행태의 변화 분석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방송매체 이용행태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함께 하고 있다. TV 프로그램의 시청 시작 시기를 각각의 방송매체에 따라 조사하여 연령별 시작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TV 프로그램 시청을 시작한 시기를 살펴보면, TV를 통한 프로그램 시청 시작 시기는 만 1세-3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비율이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대략 5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PC,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통한 TV 프로그램 시청 시작은 아직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2014년부터 연도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시청하지 않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3-113〉 방송매체에 따른 TV 프로그램 시청 시작 시기(2014-2019)

(%)

연도	사례수	만 1세 미만	만 1세-3세	만 4세-6세	만 7세-9세	만 10세 이상	아직 시청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TV 수상기를 이용하여 TV 프로그램 시청 시작 시기								
2014	1,016	8.2	50.6	22.0	3.1	0.4	15.6	
2015	1,247	7.2	43.4	27.7	4.5	0.4	16.8	
2016	1,258	6.0	48.5	25.9	4.5	0.2	14.9	
2017	1,273	4.4	48.9	26.1	4.7	0.3	15.6	
2018	1,056	2.6	52.7	25.8	4.9	0.1	13.9	
2019	835	6.8	49.1	26.2	4.4	0.1	13.1	
PC, 노트북, 넷북을 이용하여 TV 프로그램 시청 시작 시기								
2014	1,016	1.5	10.8	16.4	8.6	0.9	61.8	
2015	1,247	0.8	9.7	15.9	10.3	1.0	62.2	
2016	1,258	0.5	6.4	10.4	9.9	2.1	70.7	
2017	1,273	1.0	9.8	13.0	9.8	1.4	64.9	
2018	1,056	0.7	6.4	14.0	8.6	2.0	68.2	0.1
2019	835	0.5	5.0	13.4	11.6	2.3	66.8	0.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TV 프로그램 시청 시작 시기								
2014	1,016	1.1	7.9	10.5	7.8	3.5	69.2	
2015	1,247	0.8	8.2	9.5	7.3	3.6	70.6	
2016	1,258	0.7	6.4	8.6	8.7	4.7	70.9	
2017	1,273	1.3	11.8	11.8	11.3	3.2	60.6	
2018	1,056	1.3	12.2	17.0	9.3	3.3	56.8	
2019	835	1.9	15.1	16.4	12.7	2.6	51.0	
스마트패드(태블릿PC)를 이용하여 TV 프로그램 시청 시작 시기								
2014	1,016	1.3	3.2	3.6	3.1	1.1	87.4	0.2
2015	1,247	0.2	2.6	2.6	2.4	1.0	91.2	0.0
2016	1,258	0.2	2.1	2.9	3.0	1.6	90.1	0.0
2017	1,273	0.5	6.1	4.9	3.5	0.4	84.6	
2018	1,056	0.6	4.7	8.5	3.5	1.3	81.3	
2019	835	1.0	6.5	8.0	4.6	2.0	77.0	1.0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각 연도. 방송통계포털, https://www.mediastat.or.kr/resource/static/portal/statistics.html?title=%uBC29%uC1A1%uB9E4%uCCB4%20%uC774%uC6A9%uD589%uD0DC%20%uC870%uC0AC&statblId=STBL-1000008&statKind=R에서 2020년 10월 9일 인출.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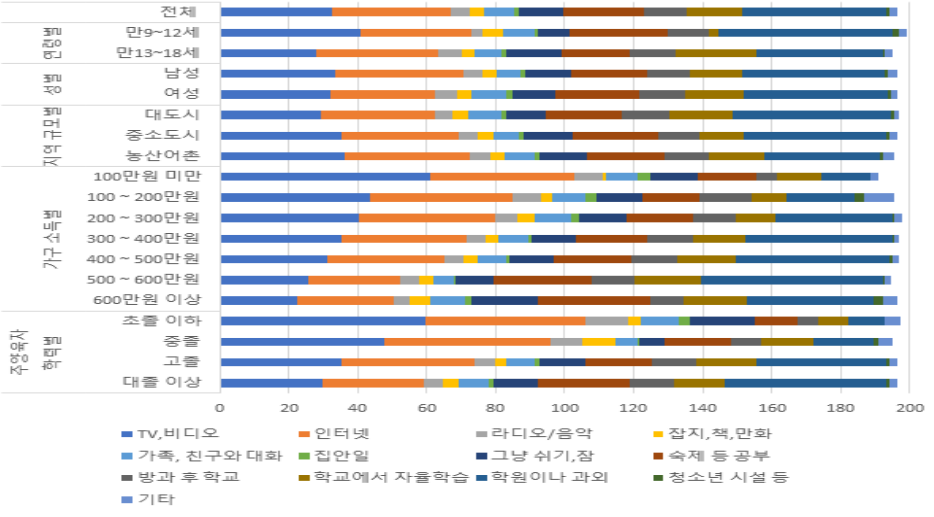
가. 정의

평일 방과 후 저녁 식사 이전에 주로 하는 활동으로 (1) 텔레비전, 비디오 시청, (2) 집에서 인터넷(게임 포함) 하기, (3) 라디오나 음악 듣기, (4) 잡지나 책(만화책 포함) 읽기, (5)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기, (6) 집안일(청소 등) 돕기, (7) 그냥 쉬거나 잠자기, (8) 집에서 숙제 등 공부, (9) 방과 후 학교, (10) 학교에서 자율학습, (11) 학원(피아노, 태권도 등 포함)이나 과외, (12) 청소년시설 등 프로그램 참여, (13) 기타의 13가지 유형 중 주로 하는 활동을 2가지씩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된 각 유형별 응답 비율

나. 해설

만9세에서 18세 청소년의 주된 방과 후 활동은 학습과 관련된 활동,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게임 포함) 사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1순위 또는 2순위로 응답된 방과 후 활동 유형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만9-12세의 주요 방과 후 활동 4가지는 학원(피아노, 태권도 등 포함)이나 과외(50.4%), 텔레비전, 비디오 시청(40.9%), 집에서 인터넷(게임 포함)하기(32.1%), 집에서 숙제 등 공부(28.4%) 등이었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7).「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0300572&conn_path=I3 에서 2019년 12월 5일 인출

[그림 3-63]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 (1순위+2순위) (2017)

만13-18세의 주된 방과 후 활동 4가지는 학원(피아노, 태권도 등 포함)이나 과외(36.6%), 집에서 인터넷(게임 포함)하기(35.1%), 텔레비전, 비디오 시청(28.0%), 학교에서 자율학습(23.6%) 등이었다. 4순위 활동이 저연령 집단에서 집에서 숙제 등 공부하기가 고연령 집단에서 학교에서 자율학습으로 대체된 것을 제외하면 아동·청소년의 주요 방과 후 활동은 연령대에 관계없이 동일하였다.

〈표 3-114〉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 (1순위+2순위) (201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전체	전체	32.8	34.0	5.7	4.3	8.5	1.3	13.2	23.0	12.8	15.9	41.7	0.9	2.2
연령별	만9~12세	40.9	32.1	3.0	6.0	9.1	1.3	9.0	28.4	11.9	3.0	50.4	1.9	2.3
	만13~18세	28.0	35.1	7.3	3.3	8.1	1.4	15.7	19.8	13.3	23.6	36.6	0.4	2.2
성별	남성	33.6	37.2	5.2	4.3	7.1	1.0	13.7	21.7	12.4	15.2	41.3	1.1	2.4
	여성	32.0	30.5	6.3	4.3	10.0	1.7	12.6	24.4	13.2	16.7	42.1	0.7	2.0
지역 규모별	대도시	29.2	33.1	5.3	4.4	9.7	1.2	11.7	21.9	13.6	18.4	46.0	0.8	1.6
	중소도시	35.2	33.9	5.9	4.4	7.2	1.5	14.4	24.5	11.9	13.2	40.9	1.0	2.6
	농산어촌	36.1	36.4	6.1	4.1	8.5	1.4	14.0	22.2	12.9	16.2	33.3	1.1	3.0
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61.1	41.5	8.4	0.9	9.4	3.4	13.9	17.0	5.8	12.9	14.1	0.0	2.4
	100 ~ 200만원	43.7	41.2	8.3	3.2	9.6	3.4	13.3	16.2	15.4	9.9	19.7	3.0	8.7
	200 ~ 300만원	40.6	39.4	6.1	5.4	10.5	2.1	14.0	18.9	12.5	11.4	34.2	0.2	2.5
	300 ~ 400만원	35.5	35.9	5.6	3.8	8.6	1.2	12.6	20.5	13.7	15.0	42.6	0.3	1.4
	400 ~ 500만원	31.0	34.3	5.4	4.3	8.0	1.1	12.7	22.7	13.1	17.2	44.2	1.2	1.7
	500 ~ 600만원	25.7	26.4	5.6	4.3	6.0	0.6	10.9	28.2	12.5	19.2	52.9	0.5	1.6
	600만원 이상	22.6	27.7	4.8	5.9	10.2	1.7	19.2	32.7	9.6	18.5	36.4	3.0	4.3
주양육자 학력별	초졸 이하	59.6	46.5	12.3	3.8	10.8	3.3	18.7	12.3	6.1	8.8	10.4	0.0	4.8
	중졸	47.9	47.8	9.4	9.8	6.2	0.5	7.5	19.3	8.4	15.2	17.6	1.2	4.3
	고졸	35.2	38.8	5.7	3.5	8.1	1.3	13.4	19.2	12.9	17.5	37.5	0.8	2.4
	대졸 이상	29.8	29.3	5.4	4.9	8.7	1.3	13.0	26.4	13.0	14.8	46.6	1.1	2.0

주: 1) 평일 방과 후 저녁 식사 이전의 주활동 1순위+2순위
2) 활동 보기는 다음과 같음: (1) 텔레비전, 비디오 시청, (2) 집에서 인터넷(게임 포함) 하기, (3) 라디오나 음악 듣기, (4) 잡지나 책(만화책 포함) 읽기, (5)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기, (6) 집안일(청소 등) 돕기, (7) 그냥 쉬거나 잠자기, (8) 집에서 숙제 등 공부, (9) 방과 후 학교, (10) 학교에서 자율학습, (11) 학원(피아노, 태권도 등 포함)이나 과외, (12) 청소년시설 등 프로그램 참여, (13) 기타

출처: 여성가족부(2017).「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 3020300572&conn_path=I3 에서 2019년 12월 5일 인출

사회·경제·정치 참여

일하는 청소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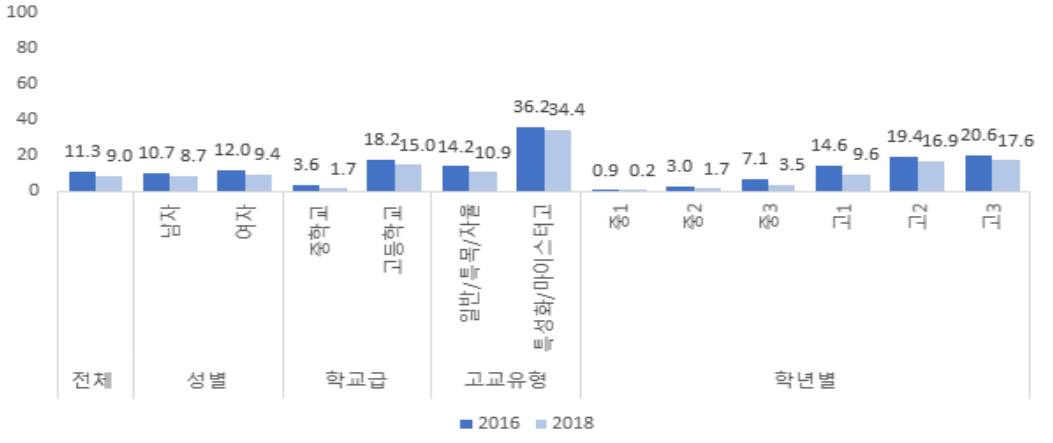
가. 정의

일하는 청소년은 조사 당시 또는 조사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나. 해설

중·고등학생 중 일하는 청소년의 전체 비율은 2016년에는 11.3%였으며, 2018년에 9.0%로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청소년의 성별, 학년별, 학교유형별 차이는 2개년도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졌다.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 차이는 성별보다는 학년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8년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일하는 고등학생의 비율은 15.0%로 중학생의 비율 1.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일하는 청소년의 대다수가 고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하는 고등학생의 비율은 학교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일반고/특목고/자율고의 경우 10.9%였으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경우 34.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785&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그림 3-64] 일하는 청소년 비율 변화 (2016, 2018)

〈표 3-115〉 일하는 청소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 (2016, 2018)

(%)

		2016	2018
전체		11.3	9.0
성별	남자	10.7	8.7
	여자	12.0	9.4
학교급	중학교	3.6	1.7
	고등학교	18.2	15.0
고교유형	일반/특목/자율	14.2	10.9
	특성화/마이스터고	36.2	34.4
학년별	중1	0.9	0.2
	중2	3.0	1.7
	중3	7.1	3.5
	고1	14.6	9.6
	고2	19.4	16.9
	고3	20.6	17.6

주: 1)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785&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기부 참여율

가. 정의

지난 1년간 재능 기부나 현금 기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나. 해설

만 9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조사된 기부 참여율은 재능 기부 참여율 3.1%, 현금 기부 참여율 13.4%로 나타났다. 기부 참여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현금 기부와 재능 기부 모두 빈곤 가구보다 비빈곤 가구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 아동·청소년의 현금 기부 참여율(8.3%)은 대도시(15.0%) 또는 중소도시912.6%)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았으나, 재능 기부 참여율(4.1%)은 대도시(3.1%) 또는 중소도시(3.0%)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유형의 기부 모두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의 참여율이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청소년의 참여율 보다 높았다.

〈표 3-116〉 기부 참여율(2013)

(%)

		재능 기부	현금 기부
전체		3.1	13.4
연령별	만 9~11세	3.7	13.0
	만 12-17세	2.9	13.5
성별	남성	2.7	13.9
	여성	3.6	12.8
소득수준별 1	빈곤	2.3	10.3
	일반	3.1	13.5
소득수준별 2	기초수급	3.1	9.8
	차상위	0.3	11.4
	일반	3.1	13.5
지역별	대도시	3.1	15.0
	중소도시	3.0	12.6
	농어촌	4.1	8.3
가족유형별	양부모	3.4	14.0
	한부모·조손	1.3	10.5

주: 1) 지난 1년간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13_ H243&conn_path=I3에서 2019년 11월 13일 인출.

동아리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가. 정의

동아리 참여율은 '청소년 단체, 동아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기타 단체나 동아리' 중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나. 해설

만 9세~24세 청소년의 동아리, 사이버 동아리, 기타 동아리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참여율은 각각 12.5%, 16.9%, 18.3%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 동아리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이버 동아리와 기타 동아리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라서 주로 참여하는 동아리의 유형이 달라졌다. 세 유형의 동아리 활동 모두 성별에 따른 참여율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3-117〉 동아리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2017)

(%)

		동아리	사이버 동아리	기타
전체		12.5	16.9	18.3
연령별	만9~12세	19.6	4.2	11.2
	만13~18세	15.9	13.8	17.2
	만19~24세	6.8	24.8	22.1
성별	남성	12.1	17.2	17.3
	여성	12.9	16.5	19.3
지역규모별	대도시	11.8	17.5	20.5
	중소도시	12.6	17	16.8
	농산어촌	14	14.8	15.8
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19.5	10.5	13.6
	100 ~ 200만원 미만	11.6	11.7	15.3
	200 ~ 300만원 미만	10.9	14.6	15.2
	300 ~ 400만원 미만	11.1	13.3	17.1
	400 ~ 500만원 미만	11.2	17.9	18.1
	500 ~ 600만원 미만	13.5	19.2	21.2
	600만원 이상	18.7	23	21.2
주양육자학력별	초졸 이하	20.4	19.4	7.2
	중졸	4.5	11.9	14
	고졸	9.6	18	18
	대졸 이상	15.8	15.7	19.2

주: 1)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동아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 _3020300552&conn_path=I3 에서 2019년 12월 5일 인출.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비율

가. 정의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정치참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여기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향후 투표 참여 의지에 대한 국제비교 자료, 20대 초반 청소년(청년)들의 실제 투표 참여율을 제시하였음.

나. 해설

청소년의 시민역량(competence)을 측정하는 ICCS(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IEA ICCS)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이 되어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을 조사한 것이다. 2016년 ICCS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투표 참여 의향은 50.8%로 2009년 조사의 48.5%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CCS 조사 대상 국가 전체 평균은 2009년에 50.3%, 2016년에 51.3%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투표 참여 의향은 2개 조사에서 모두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8〉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비율 (2009, 2016)

	2016		2009		격차
페루	54.6	(0.2)	-		-
노르웨이	54.4	(0.1)	52.3	(0.3)	2.1
이탈리아	54.2	(0.2)	54.1	(0.2)	0.1
스웨덴	53.2	(0.2)	49.0	(0.3)	4.2
콜롬비아	53.2	(0.2)	53.7	(0.2)	(0.5)
도미니카	53.1	(0.2)	52.2	(0.3)	0.9
대만	52.9	(0.2)	50.8	(0.2)	2.1
덴마크	52.4	(0.2)	49.1	(0.2)	3.3
멕시코	52.4	(0.2)	53.1	(0.2)	(0.7)
리투아니아	52.2	(0.2)	51.8	(0.2)	0.4
크로아티아	51.2	(0.2)	-		-
대한민국	**50.8**	**(0.3)**	**48.5**	**(0.2)**	**2.3**
러시아	50.7	(0.3)	51.3	(0.2)	(0.6)
핀란드	50.6	(0.2)	49.2	(0.2)	1.5
칠레	50.2	(0.2)	49.8	(0.3)	0.3
몰타	50.0	(0.2)	49.3	(0.4)	0.7
슬로베니아	49.7	(0.3)	49.6	(0.2)	0.1
불가리아	49.6	(0.3)	47.7	(0.3)	1.9
라트비아	49.5	(0.2)	50.2	(0.3)	(0.7)
벨기에	48.5	(0.3)	45.5	(0.2)	3.0
에스토니아	48.1	(0.2)	46.6	(0.3)	1.4
홍콩	47.2	(0.3)	48.5	(0.3)	(1.3)
네덜란드	46.9	(0.3)	46.6	(0.4)	0.3
독일	46.5	(0.4)	-		-
ICCS 평균	51.3	(0.0)	50.3	(0.1)	1.1

출처: 장근영 외(2018).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V : IEA ICCS 20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비고: ICCS는 미승인통계임

후기청소년(청년) 투표 참여율

가. 정의

후기청소년(청년)의 투표율은 만 19세에서 24세까지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투표 참여율을 의미함. 선거법의 개정으로 만 19세의 선거 투표 참여는 2007년 이후부터 가능해졌으므로 2007년 이후의 투표율만 제시됨.

나. 해설

만 19세-24세의 투표율은 모든 투표에서 전체 선거인의 투표율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2017년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과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었다. 2007년부터 처음으로 만 19세의 선거참여가 시작된 이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만 20세-24세의 투표율은 1990년대 초중반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반등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1992년 14대 선거의 20대 투표율은 69.8%에서 2007년 17대 선거 51.1%까지 감소하였으나, 2012년 18대 선거에서는 71.1%, 2017년 19대 선거에서는 77.1%의 투표율을 보여 다시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2004년 17대 선거에서 잠깐 반등하긴 했으나, 1992년 14대 선거(56.6%)에서 2008년 18대 선거(32.9%)까지 20대 전반의 투표율이 점차 하락하였다. 2012년 19대 선거에서는 45.4%, 2016년 20대 선거에서는 55.3%의 투표율을 보이며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선거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며 1995년 1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51.7%의 투표율을 보인 후 2006년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38.3%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이후 세 차례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45.8%, 51.4%, 52.9%의 투표율을 보이며 상승세를 보였다.

〈표 3-119〉 후기청소년(청년) 투표 참여율 (대통령 선거) (199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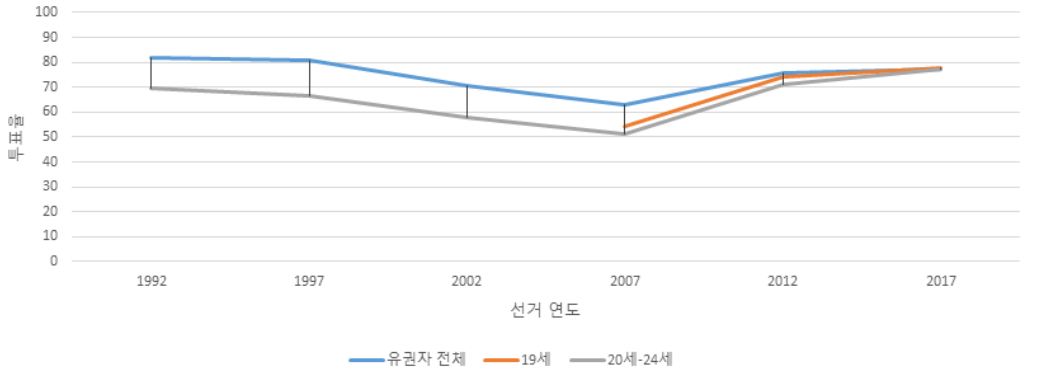
(%)

대통령 선거	1992	1997	2002	2007	2012	2017
전체 투표율	81.9	80.7	70.8	63.0	75.8	77.2
19세 투표율	-	-	-	54.2	74.0	77.7
20세-24세 투표율	69.8	66.4	57.9	51.1	71.1	77.1

주: 1) 투표율 = (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2) 각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이고, 연령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의 결과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1996년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1996년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그림 3-65] 후기청소년(청년) 투표 참여율 (대통령 선거) (199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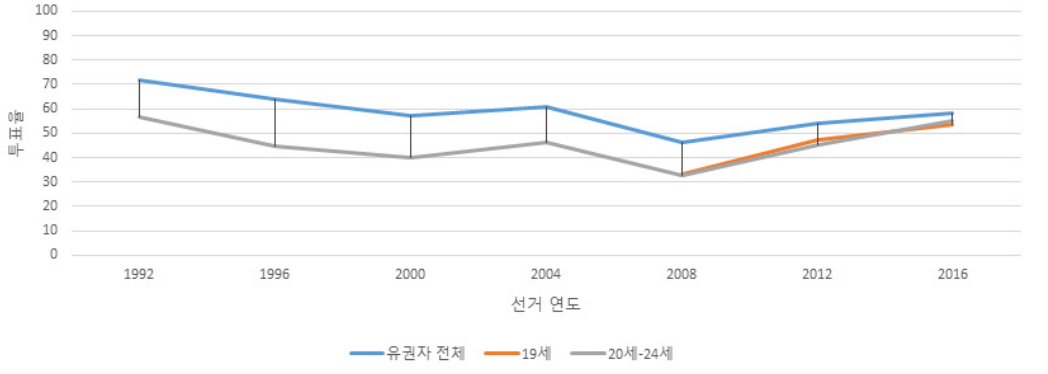
〈표 3-120〉 20대 투표 참여율 (국회의원 선거) (1992-2016)

(%)

국회의원 선거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2016
전체 투표율	71.9	63.9	57.2	60.6	46.1	54.2	58.0
19세 투표율	-	-	-	-	33.2	47.2	53.6
20세-24세 투표율	56.6	44.8	39.9	46.0	32.9	45.4	55.3

주: 1) 투표율 = (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2) 각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이고, 연령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의 결과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1996년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1996년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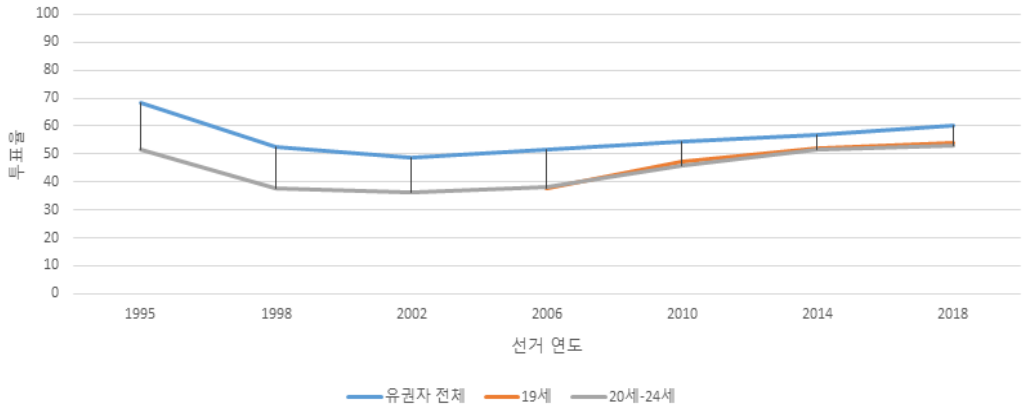
[그림 3-66] 후기청소년(청년) 투표 참여율 (국회의원 선거) (1992-2016)

〈표 3-121〉 20대 투표 참여율 (지방선거) (1995-2018)

(%)

지방 선거	1995	1998	2002	2006	2010	2014	2018
전체 투표율	68.4	52.7	48.9	51.6	54.5	56.8	60.2
19세 투표율	-	-	-	37.9	47.4	52.2	54.1
20세-24세 투표율	51.7	37.8	36.3	38.3	45.8	51.4	52.9

주: 1) 투표율 = (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2) 각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이고, 연령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의 결과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1996년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1996년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그림 3-67] 후기청소년(청년) 투표 참여율 (지방선거) (1995-2018)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가. 정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관심 없다(0) ~ 매우 관심 있다(10)'의 11점 척도 중 7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나. 해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7점 이상 응답)로 확인한 결과, 전체의 약 24.1%의 청소년이 공동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연령대 또는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지역규모별이나 주양육자의 학력에 따라서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비율이 높았으나, 100-200만원 구간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 높고 100만 원 이하 집단의 사회문제의 관심도가 특히 낮게 나타났다.

〈표 3-122〉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2017)

(%)

		7점 이상 응답율
전체		24.1
연령별	만 9~12세	-
	만 13~18세	24.8
	만 19~24세	23.7
성별	남성	24.0
	여성	24.4
지역규모별	대도시	26.2
	중소도시	22.1
	농산어촌	23.3
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9.3
	100 ~ 200만원 미만	33.3
	200 ~ 300만원 미만	19.2
	300 ~ 400만원 미만	22.4
	400 ~ 500만원 미만	24.9
	500 ~ 600만원 미만	23.4
	600만원 이상	29.7

주: 1)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7점 이상(0-10범주)으로 응답한 비율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03 00564&conn_path=I3에서 2019년 11월 1일 인출.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친구·가족과의 토론 경험 비율

가. 정의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친구, 가족과의 토론은 '부모님과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선거 등)를 하는 빈도(거의 하지 않음,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중 부모님과 관련 대화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거의 하지 않는다'를 제외한 비율)

나. 해설

전체 청소년 중 38.0%가 부모님과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인구집단별로 확인한 결과, 연령 집단 간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님과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비율은 만 9~12세 집단에서는 26.1%, 만 13~18세 집단에서는 33.5%, 만 19~24세 집단에서는 46.6%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련 대화를 나누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농산어촌의 청소년의 관련 대화 비율은 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확인한 결과, 100~200만원 구간의 집단을 제외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정치, 사회문제 관련 대화를 나누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3〉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친구, 가족과의 토론 경험 비율(2017)

(%)

구분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친구, 가족과의 토론
전체		38.0
연령별	만 9~12세	26.1
	만 13~18세	33.5
	만 19~24세	46.6
성별	남성	37.3
	여성	38.7
지역규모별	대도시	38.1
	중소도시	38.7
	농산어촌	35.9
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28.3
	100 ~ 200만원 미만	40.5
	200 ~ 300만원 미만	33.5
	300 ~ 400만원 미만	33.9
	400 ~ 500만원 미만	35.7
	500 ~ 600만원 미만	40.6
	600만원 이상	53.0
주양육자학력별	초졸 이하	32.5
	중졸	39.9
	고졸	36.6
	대졸 이상	39.6

주: 1) 대화를 한다고 보고한 비율(1-(거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0300555&conn_path=I3에서 2019년 12월 10일 인출.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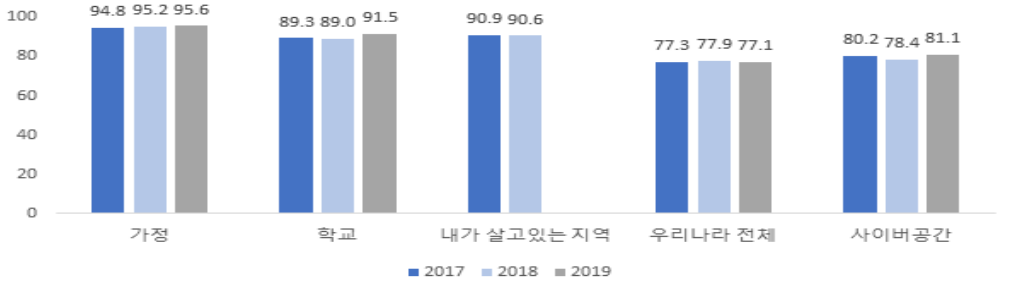
가. 정의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정도는 나의 인권이 가정,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전체에서 각각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로 응답한 내용 중 '존중받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받는다'로 응답한 비율

나. 해설

초·중·고등학생이 인식하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정도는 지난 3년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정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개년도 조사에서 95% 내외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9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80% 내외, 우리나라 전체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7%대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3개년도 조사에서 모두 가정과 학교에서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비율은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높았다. 다른 영역의 경우 영역과 조사년도에 따라 학교급에 따른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비율의 차이는 지역규모나 가족 유형보다 학업성적 및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학업성적이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상위와 중위 집단 간 차이보다, 중위와 하위 집단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02_1&conn_path=I3 에서 2020년 11월 1일 인출.

[그림 3-68]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정도 변화 추이(2017-2019)

〈표 3-124〉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정도(2017-2019)

(%)

		2017					2018					2019			
		가정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공간	가정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공간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공간
전체	소계	94.8	89.3	90.9	77.3	80.2	95.2	89.0	90.6	77.9	78.4	95.6	91.5	77.1	81.1
성별	남자	94.9	89.8	91.0	78.3	78.6	95.7	90.4	91.8	80.6	78.7	96.0	91.7	77.3	79.6
	여자	94.7	88.7	90.8	76.2	82.0	94.5	87.6	89.5	74.9	78.1	95.2	91.3	77.0	82.6
학교급	초등학교	95.7	94.3	89.1	78.3	82.0	96.3	94.1	88.8	76.8	77.4	96.3	94.1	77.9	81.7
	중학교	93.7	87.7	91.3	78.6	82.4	94.8	88.9	91.9	80.1	80.5	95.1	91.3	78.8	84.1
	고등학교	94.7	86.8	91.8	75.5	77.1	94.5	85.2	91.1	77.0	77.6	95.5	89.5	75.0	77.9
고교유형	일반계고	95.2	86.8	92.1	75.4	76.2	94.8	85.1	91.4	76.3	76.8	95.4	89.6	75.4	77.1
	특성화계고	92.6	86.9	90.8	76.6	80.4	93.3	85.5	90.0	79.6	80.8	95.9	89.2	72.8	80.7
지역규모	대도시	94.9	89.7	90.9	78.2	81.2	95.4	90.2	92.3	79.6	80.9	96.0	92.0	78.3	82.3
	중소도시	94.7	90.1	91.1	77.0	80.5	94.8	88.0	89.2	76.4	76.4	95.5	91.2	75.7	80.5
	읍면지역	94.0	85.2	90.3	75.8	76.3	95.5	89.4	91.4	78.5	78.6	94.9	91.2	78.5	78.9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5.3	89.6	91.2	77.9	80.8	95.5	89.1	90.9	78.3	78.6	95.8	91.9	77.6	81.4
	한부모가정	90.0	85.4	87.7	72.0	76.2	91.4	87.4	88.4	74.2	76.9	93.7	87.7	71.8	77.9
	조손가정	94.6	86.2	92.3	73.0	69.7	85.4	90.5	86.9	71.1	66.8	95.2	93.6	74.0	75.5
	기타	83.2	85.4	82.9	69.2	70.6	94.6	92.5	94.5	71.8	85.3	92.1	84.1	72.1	76.8
학업성적	상	95.7	91.9	92.1	81.0	82.6	97.2	91.9	93.1	81.0	80.0	97.6	94.5	81.8	82.9
	중	95.6	90.4	92.1	78.2	80.4	95.6	90.7	90.6	78.8	78.7	96.2	92.2	77.1	81.7
	하	91.6	83.4	87.0	70.4	76.5	91.4	81.8	87.2	71.8	75.5	91.5	85.5	69.9	76.8
경제적수준	상	96.6	91.5	92.4	80.8	83.1	96.7	91.2	92.4	80.6	79.4	97.3	93.5	80.3	83.7
	중	94.7	88.1	90.7	76.4	78.6	94.8	88.5	90.1	76.8	79.0	95.2	90.5	75.4	79.3
	하	84.9	81.1	83.8	62.7	70.2	87.4	78.6	83.0	65.9	70.8	86.6	83.3	63.8	71.2

주: 1) 나의 인권이 가정,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전체에서 각각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중 '존중받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받는다'로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02_1&conn_path=I3 에서 2020년 11월 1일 인출.

5. 안전·행동 영역

안전·행동 영역 개요

안전·행동 영역은 총 16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안전영역에 7개, 위험행동 영역에 9개 지표가 있다. 안전·행동 영역에서 영유아를 대상에 포함한 지표에는 방과 후 아동방치 정도, 아동학대 발생 건수, 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아동·청소년 비율이 있다. 지표 대다수가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험행동 영역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표가 주를 이루었다.

안전영역 지표에는 가정·학교 내 체벌 경험 비율, 방과 후 아동방치 정도, 아동학대 발생 건수,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 및 사망률,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이 포함되었다. 2017~2019년까지 초·중·고등학생의 교사와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아동방치와 관련해서는 0~2세 아동보다는 3~5세 아동의, 6~8세 아동보다는 9~12세 아동의 방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반가구 아동보다는 수급가구 아동의 방치 정도가 높았다. 아동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발생 건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복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중·고등학생의 범죄, 교통사고, 음식물 관련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는 2017~2019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매해 줄어들고 있으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 중학생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전체 범죄 피해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의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은 2016년 조사와 2018년 조사 모두 8.5%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8년 조사 모두에서 남자의 폭력 경험률이 여자의 폭력 경험률보다 높았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폭력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험행동 영역 지표에는 흡연 경험 비율, 음주 경험 비율, 약물 사용 경험 비율, 10대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 10대 여자청소년의 임신, 낙태 경험 비율,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아동·청소년 비율, 유해매체를 이용한 적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포함되었다. 중·고등학생의 흡연과 음주 경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약물 사용 경험 비율은 0.3~0.4%로 나타났다. 2005~2019년까지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4.3~5.9% 사이였으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청소년 중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0.2%로 낮았으나 여자 위기청소년의 경우 임신을 경험한

비율이 9.4%로 조사되었다. 낙태를 경험한 비율은 재학 중 여자 청소년의 경우 0.2%, 여자 위기 청소년의 경우 7.4%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남학생의 가출 경험률은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소년 천 명당 만 19세 미만 소년에 의해 발생 된 소년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이후로 12.9~16.6건으로 나타났다. 만 3세~20대를 대상으로 조사된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아주 조금씩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만 3세 ~9세 아동의 경우,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의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해매체의 경험 비율은 남자 청소년 집단이 여자 청소년 집단보다 높았으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125〉 안전·행동 영역 (안전, 위험행동)

하위영역	지표	출처
안전	가정·학교 내 체벌 경험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학대 발생 건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방과 후 아동방치 정도	아동종합실태조사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아동·청소년 전체 범죄 피해 및 살인 범죄 피해자 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위험행동	흡연 경험 비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음주 경험 비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약물 사용 경험 비율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10대 여자청소년의 임신, 낙태 경험 비율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10대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	경찰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아동·청소년 비율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유해매체를 이용한 적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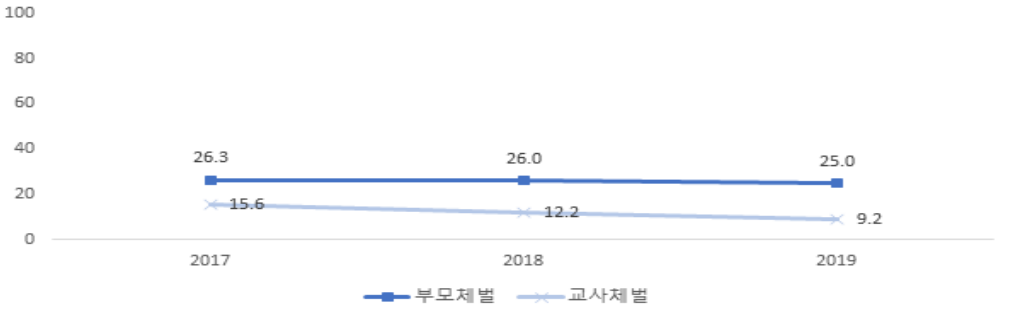
가정·학교 내 체벌 경험 비율

가. 정의

가정·학교 내 체벌 경험은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을 받았는지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의 응답범주 중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체벌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

나. 해설

지난 3년간 초·중·고등학생의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으나 그 차이는 아주 적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 2018년, 2019년의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비율은 각각 15.6%, 12.2%, 9.2%였으며,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은 각각 26.3%, 26.0%, 25.0%였다.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 비율이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지난 3년간 일관되게 나타난 경향이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1_1&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그림 3-69] 가정·학교 내 체벌 경험 비율 변화 추이(2017-2019)

그러나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조건에 따른 체벌 경험 비율 차이는 지난 3년간 조사에서 매년 일관되게 두 지표 간에 상이하게 나타난 점들이 있었다. 괄호 안의 수치는 가장 최근 조사인 2019년 조사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매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의 체벌은 아동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초등학생 32.9%, 중학생 26.7%, 고등학생 16.5%), 교사로부터의 체벌은

아동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생 6.2%, 중학생 10.6%, 고등학생 10.7%). 성별에 따라서는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 비율은 성별 간 차이가 거의 없었거나 일관된 경향이 없었으나(남자 24.3%, 여자 25.6%),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은 매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배 이상 높았다(남자 13.2%, 여자 4.9%). 읍면지역에 사는 아동의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 비율(21.1%)은 대도시(25.7%) 또는 중소도시(25.3%)에 사는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비율은 반대로 읍면지역(11.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대도시 8.9%, 중소도시 9.0%). 또한 부모로부터의 체벌은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낮은 체벌 경험 비율을 보였으나(상 26.3%, 중 24.2%, 하 24.0%),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비율은 학업성적을 낮다고 보고한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상 8.5%, 중 8.3%, 하 12.1%).

〈표 3-126〉 가정·학교 내 체벌 경험 비율(2017-2019)

(%)

		2017		2018		2019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전체	소계	26.3	15.6	26.0	12.2	25.0	9.2
성별	남자	26.4	19.5	25.0	16.4	24.3	13.2
	여자	26.3	11.4	27.2	7.6	25.6	4.9
학교급	초등학교	35.6	7.7	32.8	5.3	32.9	6.2
	중학교	30.3	19.8	29.7	14.9	26.7	10.6
	고등학교	16.1	18.1	17.7	15.4	16.5	10.7
고교유형	일반계고	16.1	17.7	17.6	15.1	16.7	10.3
	특성화계고	16.6	19.8	17.8	16.7	15.4	12.4
지역규모	대도시	27.7	16.6	25.7	12.2	25.7	8.9
	중소도시	26.2	13.4	26.9	11.8	25.3	9.0
	읍면지역	22.6	19.7	23.1	14.1	21.1	11.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26.5	15.3	26.1	12.2	25.1	9.1
	한부모가정	23.6	19.4	24.6	11.7	24.3	9.8
	조손가정	29.3	16.7	32.5	12.7	26.0	15.2
	기타	27.1	18.2	22.2	11.6	14.3	11.9
학업성적	상	28.7	14.8	26.4	10.4	26.3	8.5
	중	25.3	14.0	26.6	11.9	24.2	8.3
	하	24.8	19.8	24.4	15.3	24.0	12.1
경제적 수준	상	26.5	14.8	26.0	11.3	24.9	8.7
	중	25.9	15.8	25.4	12.7	23.6	9.1
	하	27.1	19.1	28.3	15.4	29.7	12.6

주: 1) 부모님 또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체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한 번도 없다를 제외한) 비율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1_1&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아동학대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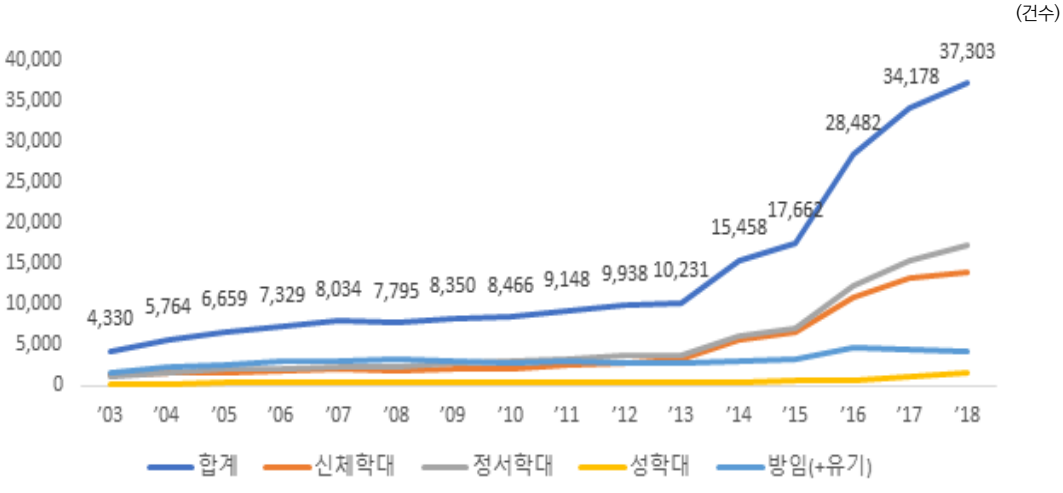
가. 정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수

나. 해설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지난 1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2013년을 기점으로 그 증가폭이 이전에 비해 더욱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난다. 중복학대를 분류하지 않은 경우, 전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03년에 4,330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37,303건으로 9배가량 증가하였으며, 2013년 10,231건에 비해서도 약 3.7배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의 증가세는 아동 학대 실제 사례의 증가뿐만 아니라, 신고 활성화 등의 사회적 변화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건수(중복학대 미분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도에서 정서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대 유형은 2011년까지는 방임 및 유기, 신체적 학대가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유형이었으나 2012년 두 유형의 발생 건수가 거의 동일해진 후 2013년부터는 신체적 학대 발생 건수가 방임 및 유기보다 지속적으로 많으며 그 차이가 점점 커지는 추세이다.



출처: 보건복지부.「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각 연도.

[그림 3-70] 아동학대 발생 건수 추이 (중복학대 미분류) (2003-2018)

가장 최근 보고인 2018년 결과를 기준으로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조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아 피해자가 확연히 많은 성학대를 제외하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에서는 성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방임을 제외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는 15세까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늘어가다가 16~17세 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모두 부모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표 3-127〉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건수(2003-2018)

(건수)

	2003		2004		2005		2006	
중복학대	미분류	분류	미분류	분류	미분류	분류	미분류	분류
계	4,330	2,921	5,764	3,891	6,659	4,633	7,329	5,202
신체학대	1,315	347	1,587	364	1,728	423	1,827	439
정서학대	1,172	207	1,680	350	2,034	512	2,182	604
성학대	203	134	266	177	305	206	372	249
방임	1,514	965	2,071	1,367	2,416	1,635	2,842	2,035
유기	126	113	160	125	176	147	106	76
중복학대	-	1,155	-	1,508	-	1,710	-	1,799
	2007		2008		2009		2010	
중복학대	미분류	분류	미분류	분류	미분류	분류	미분류	분류
계	8,034	5,581	7,795	5,578	8,350	5,685	8,466	5,657
신체학대	2,095	473	1,857	422	2,095	338	2,182	348
정서학대	2,420	589	2,315	683	2,847	778	2,974	773
성학대	409	266	424	284	426	274	400	258
방임	3,018	2,107	3,105	2,237	2,939	2,025	2,878	1,870
유기	92	59	94	57	43	32	32	14
중복학대	-	2,087	-	1,895	-	2,238	-	2,394

	2011		2012		2013		2014	
중복학대	미분류	분류	미분류	분류	미분류	분류	미분류	분류
계	9,148	6,058	9,938	6,403	10,231	6,796	15,458	10,027
신체학대	2,464	466	2,858	461	3,160	753	5,699	1,453
정서학대	3,312	909	3,785	936	3,843	1,101	6,176	1,582
성학대	368	226	446	278	380	242	447	308
방임	2,919	1,783	2,849	1,713	2,848	1,778	3,136	1,870
유기	85	53	-	0	-	-	-	-
중복학대	-	2,621	-	3,015	-	2,922	-	4,814
	2015		2016		2017		2018	
중복학대	미분류	분류	미분류	분류	미분류	분류	미분류	분류
계	17,662	11,715	28,482	18,700	34,178	22,367	37,303	-
신체학대	6,661	1,884	10,875	2,715	13,200	3,285	14,023	-
정서학대	7,197	2,046	12,262	3,588	15,346	4,728	17,334	-
성학대	629	428	753	493	1,087	692	1,610	-
방임	3,175	2,010	4,592	2,924	4,545	2,787	4,336	-
유기	-	-	-	-	-	-	-	-
중복학대	-	5,347	-	8,980	-	10,875	-	-

주: 1)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건수
2) 2012년 이전에는 방임과 유기를 분류하여 보고. 해당 연도의 경우 유기 사례 수를 방임 사례에 더해서 보고
3) 세분화 정보는 2018년부터 제공됨.
출처: 보건복지부.「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각 연도.

방과 후 방치 정도

가. 정의

만 0-12세 아동 중 하루에 방과 후 30분 이상 집에서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만 있었던 아동의 비율

나. 해설

2018년 조사에서 만 0-5세 아동 중 30분 이상 집에서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만 있었던 비율을 조사한 결과 87.9%가 '전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1-2일 정도'가 10.8%, '3-4일 정도'가 1.0%, '거의 매일'이 0.4%로 나타났다. 만 0-2세 아동보다는 만 3-5세 아동이, 일반가구 아동보다는 수급가구 아동이, 양부모가족 아동보다는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이 방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의 경우 '거의 매일' 방치되는 비율이 4.9%로 나타났다.

만 6-12세 아동 중 30분 이상 집에서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만 있었던 비율을 조사한 결과 59.3%가 '전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1-2일 정도'가 28.8%, '3-4일 정도'가 6.9%, '거의 매일'이 5.0%로 나타났다. 만 6-8세 아동보다는 만 9-12세 아동이, 일반가구 아동보다는 수급가구 아동이, 양부모가족 아동보다는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이 방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의 경우 '거의 매일' 방치되는 비율이 15.2%로 나타났다.

〈표 3-128〉 아동 및 가구 유형별 방과 후 만 0-5세 아동 방치 정도(2018)

(%)

구분		전혀 없었다	1-2일 정도	3-4일 정도	거의 매일
전체		87.9	10.8	1.0	0.4
성별	남자	88.0	10.8	0.7	0.4
	여자	87.8	10.7	1.2	0.3
연령별	만 0-2세	92.0	7.9	0.0	0.1
	만 3-5세	85.0	12.8	1.7	0.5
표본별	일반가구	88.0	10.6	1.0	0.4
	수급가구	80.8	18.8	0.4	0.0
가구유형별	양부모가족	88.1	10.8	0.9	0.2
	한부모·조손가족	82.7	9.3	3.2	4.9

주: 1) 0-5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18년 조사표본은 일반가구 아동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수급가구 아동으로 구분됨.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119&conn_path=I2에서 2019년 12월 10일 인출.

〈표 3-129〉 아동 및 가구 유형별 방과 후 만 6-12세 아동 방치 정도(2018)

(%)

구분		전혀 없었다	1-2일 정도	3-4일 정도	거의 매일
전체		59.3	28.8	6.9	5.0
성별	남자	58.2	28.4	6.9	6.5
	여자	60.4	29.2	6.9	3.6
연령별	만 6-8세	66.2	24.7	5.6	3.5
	만 9-11세	57.3	29.4	7.7	5.6
	만 12세	46.1	38.6	7.4	7.8
표본별	일반가구	59.6	28.7	6.7	4.9
	수급가구	52.1	29.5	10.5	7.8
가구유형별	양부모가족	60.1	29.0	6.6	4.3
	한부모·조손가족	47.8	25.7	11.4	15.2

주: 1) 만 6-12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18년 조사표본은 일반가구 아동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수급가구 아동으로 구분됨.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119&conn_path=I2에서 2019년 12월 1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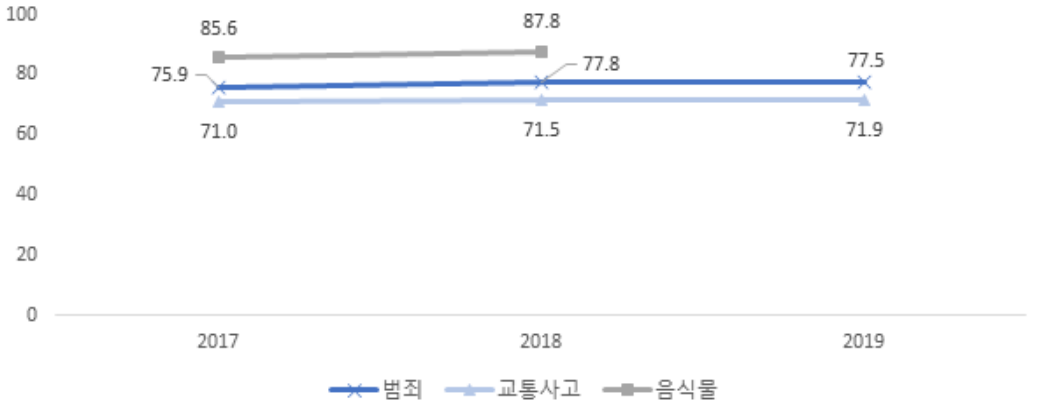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가. 정의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세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조사되었음. 각 문항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범주 중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나. 해설

초·중·고등학생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는 지난 3년 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75.9%, 77.8%, 77.5%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71.0%, 71.5%, 71.9%로 나타났다. 범죄와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평가는 일관되게 남자 아동·청소년의 평가가 여자 아동·청소년의 평가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의 평가가 일관되게 중고등학생의 평가에 비해 높았다. 또한 두 영역에 대한 평가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 가정이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7_1&conn_path=I2 에서 2020년 12월 7일 인출.

[그림 3-71]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2017-2019)

〈표 3-130〉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2017-2019)

(%)

		2017			2018			2019	
		범죄	교통사고	음식물	범죄	교통사고	음식물	범죄	교통사고
전체	소계	75.9	71.0	85.6	77.8	71.5	87.8	77.5	71.9
성별	남자	81.9	73.5	84.7	84.1	75.6	88.8	83.2	75.3
	여자	69.4	68.4	86.6	71.0	67.1	86.8	71.4	68.3
학교급	초등학교	83.2	76.4	85.1	85.1	77.3	88.5	80.4	73.6
	중학교	73.9	68.7	85.3	75.1	69.1	86.6	76.5	69.4
	고등학교	72.1	68.9	86.3	74.2	69.0	88.3	76.0	72.6
고교유형	일반계고	72.4	69.3	86.9	73.8	67.9	88.0	76.3	71.5
	특성화계고	70.8	67.7	83.3	75.4	73.7	89.4	74.7	77.1
지역규모	대도시	77.0	72.9	87.5	79.3	73.5	88.9	79.5	73.9
	중소도시	76.1	70.5	84.9	75.9	69.5	86.6	75.2	69.6
	읍면지역	72.2	67.1	82.0	81.1	72.8	88.7	80.6	74.1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76.4	71.5	86.1	78.1	71.7	88.1	77.9	72.4
	한부모가정	69.9	65.4	82.9	72.4	69.7	84.9	72.9	67.6
	조손가정	73.0	66.1	72.6	87.0	68.9	84.9	75.3	68.4
	기타	76.0	74.1	77.3	77.2	73.0	85.8	77.5	67.9
학업성적	상	79.9	73.3	86.7	83.0	75.1	89.6	81.9	74.8
	중	76.5	72.5	86.1	79.1	73.4	88.3	76.9	71.6
	하	68.8	64.9	82.9	67.7	63.0	84.2	72.1	67.9
경제적 수준	상	80.6	74.7	87.5	82.0	75.4	89.5	80.8	74.1
	중	72.8	69.2	85.3	74.8	69.7	87.8	76.0	71.6
	하	61.7	57.7	77.2	64.1	55.9	78.6	62.8	59.3

주: 1)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세 항목(범죄, 교통사고, 음식물)이 안전한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2019조사에서는 음식물에 대한 안전이 조사되지 않음.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7_1&conn_path=I2 에서 2020년 12월 7일 인출.

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가.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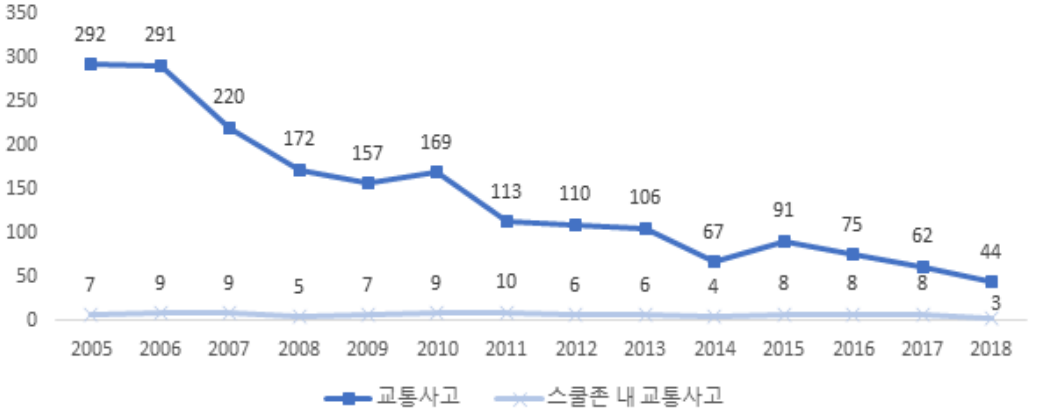
어린이 교통사고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및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나. 해설

어린이 교통사고의 연도별 사망자 수와 부상자수는 지난 14년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어린이 사망자는 2005년에 292명에 달하였으나 2018년에는 44명으로 줄어들었다.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수 역시 매해 줄어들어 2018년의 부상자 수(13,731명)는 2015년의 부상자 수(26,322명)의 절반가량에 해당하였다.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부상자의 수를 학교급에 따라 비교한 결과, 중학생이 매해 가장 적었으며, 취학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의 사망 또는 부상자 수가 보다 많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사망자와 부상자는 전체 교통사고의 사망자 및 부상자 중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일정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8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부상자 수는 2015년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사망자 역시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수가 보고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 취학전 아동과 중학생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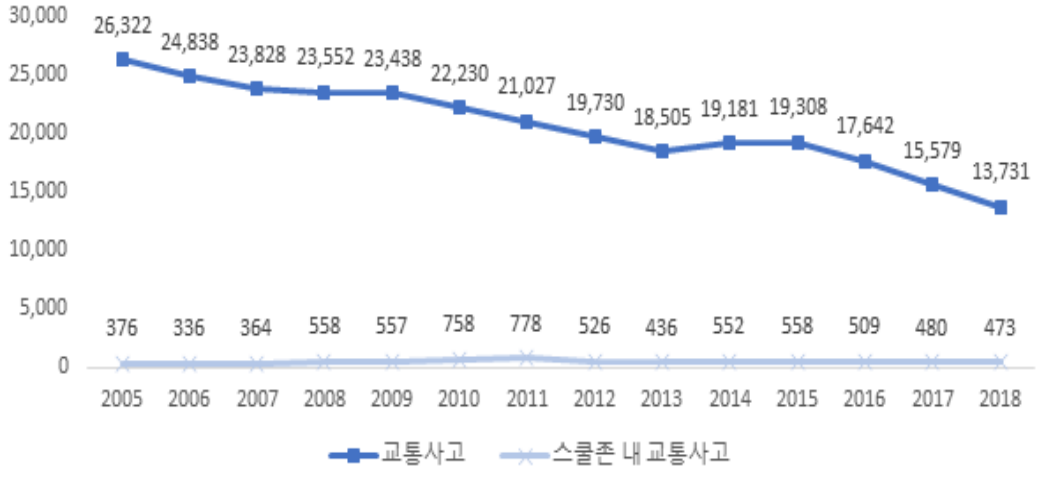
(명)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각 연도. http://taas.koroad.or.kr.

[그림 3-72]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2005-2018)

(명)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각 연도. http://taas.koroad.or.kr.

[그림 3-73]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수 추이(2005-2018)

〈표 3-131〉 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2005-2018)

(명)

연도	교통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합계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합계		취학전 아동		초등 학생		중학생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2005	292	26,322	143	9,666	104	12,201	45	4,455	7	376	4	79	3	293	0	4
2006	291	24,838	117	8,319	120	11,182	54	5,337	9	336	1	74	8	261	0	1
2007	220	23,828	83	7,420	91	11,005	46	5,403	9	364	3	72	6	282	0	10
2008	172	23,552	59	6,920	77	10,761	36	5,871	5	558	0	94	5	457	0	7
2009	157	23,438	56	6,697	77	10,980	24	5,761	7	557	1	98	5	448	1	11
2010	169	22,230	52	6,304	72	10,164	45	5,762	9	758	0	98	9	643	0	17
2011	113	21,027	35	5,852	44	9,690	34	5,485	10	778	4	93	6	664	0	21
2012	110	19,730	39	5,892	42	8,642	29	5,196	6	526	0	65	6	444	0	17
2013	106	18,505	42	5,741	34	8,079	30	4,685	6	436	5	72	1	354	0	10
2014	67	19,181	27	6,118	23	8,188	17	4,875	4	552	2	89	2	453	0	10
2015	91	19,308	29	6,151	35	8,324	27	4,833	8	558	1	88	7	460	0	10
2016	75	17,642	39	5,931	28	7,701	8	4,010	8	509	4	73	4	422	0	14
2017	62	15,579	24	5,097	24	6,772	14	3,710	8	480	2	61	6	403	0	16
2018	44	13,731	13	4,659	22	6,020	9	3,052	3	473	0	89	3	360	0	7

주: 1)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및 부상자 수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각 연도. http://taas.koro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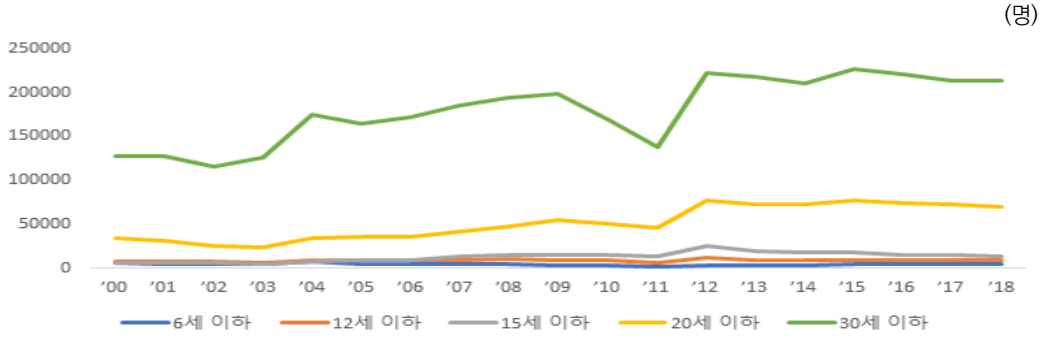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전체 범죄 피해 및 살인 범죄 피해자 수

가. 정의

전체 범죄 및 살인 범죄의 피해자 수

나. 해설

아동·청소년의 전체 범죄 피해자 수 및 살인 범죄 피해자 수는 지난 17년 간 등락을 거듭하며 일정한 감소나 증가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체 범죄 피해자 수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아져 만 16~20세와 만 21~29세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20대 피해자 수가 가장 많았다. 2000~2005년 만 7~12세 피해자 수가 만 13~15세 피해자보다 많았던 것을 제외하면 일관되게 보다 높은 연령대에서 보다 많은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 조사 결과, 전체 범죄의 만 6세 이하 피해자 수는 3,993명, 만 7~12세 피해자 수는 9,226명, 만 13~15세 피해자 수는 13,358명, 만 16~20세 피해자 수는 130,664명, 만 21~30세 피해자 수는 214,284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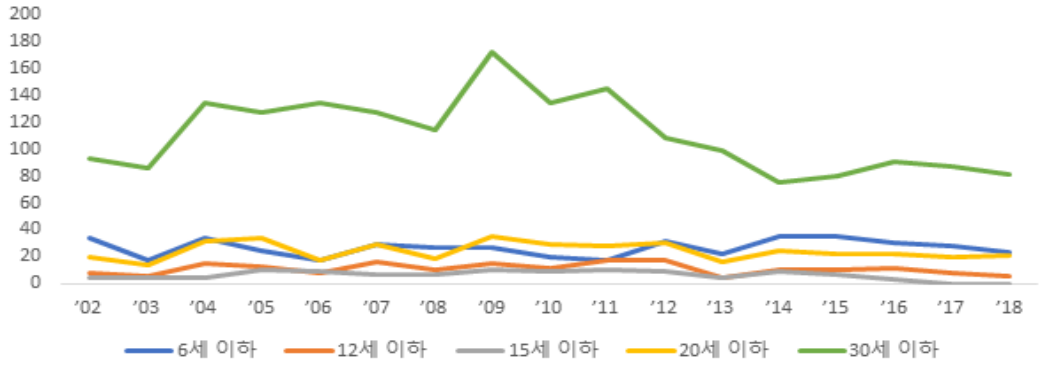
출처: 검찰청.「범죄분석통계」.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그림 3-74] 아동·청소년의 전체 범죄 피해자 수 추이(2000-2018)

살인 범죄에 있어서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피해자 수가 많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만 6세 이하는 매년 만 7세~12세, 만 13~15세 집단보다 많은 살인 범죄 피해자 수를 보였으며, 만 6세 이하 피해자가 만 16세~20세 피해자보다 많은 연도가 존재하였다. 2018년에도 만 6세 이하 살인 범죄 피해자 수는 23명으로 만 16~20세 피해자 21명 보다 많았다. 전체 범죄 피해자의 성별 간 차이는 모든 연도,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 피해자 수가 여자 피해자 수 보다 많았다. 반면, 살인 범죄 피

해자의 경우 20대 집단에서는 매해 일관되게 남자 피해자 수가 많고 만 16세~20세 집단에서도 대부분 연도에서 남자 피해자 수가 여자 피해자 수 보다 많았지만, 만 15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성별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명)



출처: 검찰청.「범죄분석통계」.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그림 3-75] 아동·청소년의 살인 범죄 피해자 수 추이(2002-2018)

〈표 3-132〉 아동·청소년 전체 범죄 피해 및 살인 범죄 피해자 수(2002-2018)

(명)

연령	성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전체	살인	전체	살인	전체	살인	전체	살인	전체	살인
6세 이하	남	3837	-	3234	-	2606	21	2437	7	4257	17
	여	2009	-	1703	-	1346	13	1335	11	2758	17
	계	5846	-	4937	-	3952	34	3772	18	7015	34
12세 이하	남	5230	-	4854	-	4233	5	3779	2	5432	4
	여	2752	-	2622	-	2410	3	2274	4	3590	11
	계	7982	-	7476	-	6643	8	6053	6	9022	15
15세 이하	남	4112	-	3436	-	3135	1	3102	2	4181	2
	여	2476	-	2331	-	2042	4	2033	3	3269	2
	계	6588	-	5767	-	5177	5	5135	5	7450	4
20세 이하	남	22975	-	20031	-	16327	13	14790	7	20819	6
	여	10430	-	11438	-	9354	7	8825	7	13769	26
	계	33405	-	31469	-	25681	20	23615	14	34588	32
30세 이하	남	94401	-	89531	-	79053	52	85467	51	115835	66
	여	33811	-	38105	-	36464	41	40292	35	59268	68
	계	128212	-	127636	-	115517	93	125759	86	175103	134

연령	성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전체	살인	전체	살인	전체	살인	전체	살인	전체	살인
6세 이하	남	2918	14	2594	9	2542	12	2386	15	2148	10
	여	1872	11	1524	8	1599	17	1284	12	1164	17
	계	4790	25	4118	17	4141	29	3670	27	3312	27

	남	5532	3	5167	5	5558	6	5895	5	5611	10
12세 이하	여	3543	10	3811	3	4007	10	4387	5	3980	5
	계	9075	13	8978	8	9565	16	10282	10	9591	15
	남	4856	6	5440	5	7388	2	8515	2	9453	3
15세 이하	여	3266	4	4057	4	5316	5	5914	5	5826	7
	계	8122	10	9497	9	12704	7	14429	7	15279	10
	남	21877	19	22086	9	27099	12	30165	10	35344	22
20세 이하	여	13850	15	13298	8	14964	17	16666	9	19069	13
	계	35727	34	35384	17	42063	29	46831	19	54413	35
	남	108575	57	116393	74	126382	72	133917	74	133480	99
30세 이하	여	56335	70	56242	61	59059	55	60293	40	65258	73
	계	164910	127	172635	135	185441	127	194210	114	198738	172

연령	성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전체	살인	전체	살인	전체	살인	전체	살인	전체	살인
	남	1454	11	823	10	2003	15	1830	16	1907	17
6세 이하	여	856	9	536	7	1330	17	1210	6	1331	18
	계	2310	20	1359	17	3333	32	3040	22	3238	35
	남	5062	5	3442	6	6842	6	5718	2	5662	5
12세 이하	여	3677	6	2708	11	4305	11	3613	2	3457	5
	계	8739	11	6150	17	11147	17	9331	4	9119	10
	남	8259	5	8355	8	16226	4	11499	3	10771	5
15세 이하	여	5947	4	5249	2	8274	5	7136	1	6856	4
	계	14206	9	13604	10	24500	9	18635	4	17627	9
	남	31436	17	28679	15	49388	15	44019	9	46025	9
20세 이하	여	18416	12	17537	13	28383	15	27934	7	26916	16
	계	49852	29	46216	28	77771	30	71953	16	72941	25
	남	112971	74	89661	87	147688	63	141316	65	135878	38
30세 이하	여	56413	60	48556	58	74354	46	76939	34	74534	37
	계	169384	134	138217	145	222042	109	218255	99	210412	75

연령	성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전체	살인	전체	살인	전체	살인	전체	살인	
	남	2225	17	2287	14	2410	14	2308	15	
6세 이하	여	1592	18	1705	16	1688	14	1685	8	
	계	3817	35	3992	30	4098	28	3993	23	
	남	5696	3	5628	6	5639	2	5356	2	
12세 이하	여	3623	7	3700	5	3833	6	3870	4	
	계	9319	10	9328	11	9472	8	9226	6	
	남	10644	2	9221	2	8419	4	7649	–	
15세 이하	여	6418	5	5998	1	5891	–	5709	2	
	계	17062	7	15219	3	14310	–	13358	2	
	남	49116	13	46468	14	43525	11	41446	9	
20세 이하	여	28472	9	28400	8	28518	9	27685	12	
	계	77588	22	74868	22	72043	20	69131	21	
	남	143100	45	139760	58	131670	60	130664	44	
30세 이하	여	83934	35	80849	33	81394	27	83620	37	
	계	227034	80	220609	91	213064	87	214284	81	

주: 1) 전체 범죄 유형 및 살인 범죄의 연령별, 성별 피해자 수

출처: 검찰청.「범죄분석통계」.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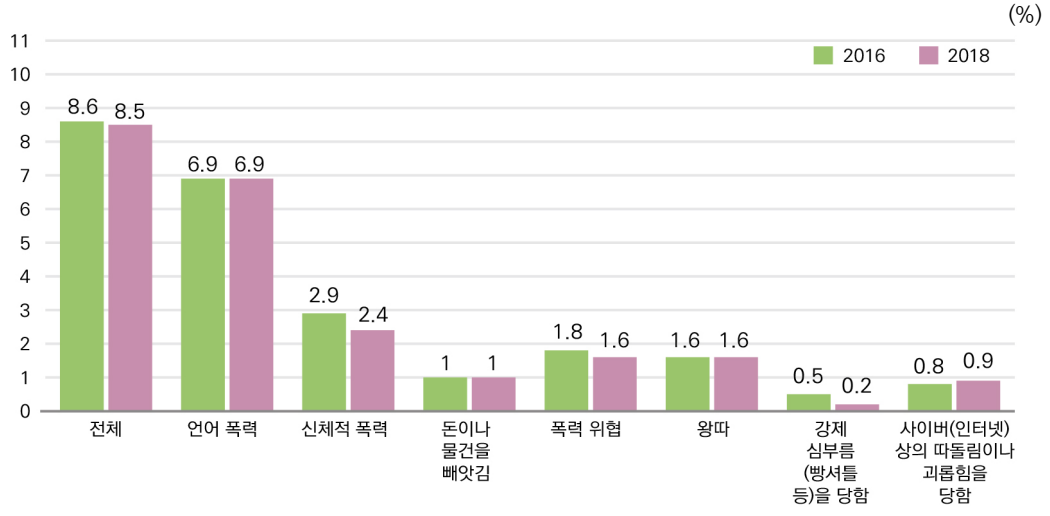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

가. 정의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은 언어폭력, 신체폭력,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위협, 왕따(따돌림), 강제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괴롭힘 등 7가지 유형에 대해 청소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각 유형별 피해경험은 중복응답 가능)

나. 해설

초·중·고등학생의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은 2016년 조사(8.6%)와 2018년 조사(8.5%) 간에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년도 조사 모두에서 모든 하위 유형에서 일관되게 남자의 폭력 경험률이 여자의 폭력 경험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간의 비교에서도 2개년도 조사에서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폭력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또래 폭력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폭력 피해 경험률의 순위도 조사년도, 성별, 학교급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였으며, 유형별 폭력 경험 비율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의 전체 집단의 결과에 따라 유형별 폭력 경험 비율 순위를 보고하면, 언어폭력(6.9%), 신체폭력(2.4%), 위협(1.8%), 왕따(1.6%),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1.0%), 사이버 따돌림/괴롭힘(0.9%), 강제 심부름의(0.2%) 순이다.



[그림 3-76] 또래 폭력 피해 경험 비율(2016, 2018)

〈표 3-133〉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2016, 2018)

(%)

구분			청소년 폭력 피해경험 비율	청소년폭력 유형별 피해경험 비율(복수응답)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음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물건으로 인해 다침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	왕따(따돌림)를 당함	강제 심부름(빵셔틀 등)을 당함	사이버(인터넷) 상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
전체		2016	8.6	6.9	2.9	1.0	1.8	1.6	0.5	0.8
		2018	8.5	6.9	2.4	1.0	1.6	1.6	0.2	0.9
성별	남자	2016	10.1	8.4	4.0	1.4	2.7	1.7	0.6	0.9
		2018	9.4	7.8	3.5	1.3	2.2	1.2	0.4	0.6
	여자	2016	6.9	5.3	1.8	0.6	0.8	1.6	0.3	0.8
		2018	7.5	5.9	1.3	0.6	1.1	1.9	0.1	1.3
학교급	초등학교	2016	10.5	7.9	4.3	1.1	2.6	2.6	0.3	0.9
		2018	9.9	7.3	3.1	1.1	2.2	2.7	0.2	0.9
	중학교	2016	8.0	6.6	2.7	1.2	1.5	1.4	0.3	0.7
		2018	9.7	8.1	2.9	1.1	1.6	1.3	0.3	1.3
	고등학교	2016	7.6	6.5	2.0	0.8	1.5	1.1	0.7	0.9
		2018	6.4	5.6	1.5	0.8	1.2	0.9	0.3	0.7

주: 1) 제시된 7가지 유형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임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출처: 여성가족부(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활용

위험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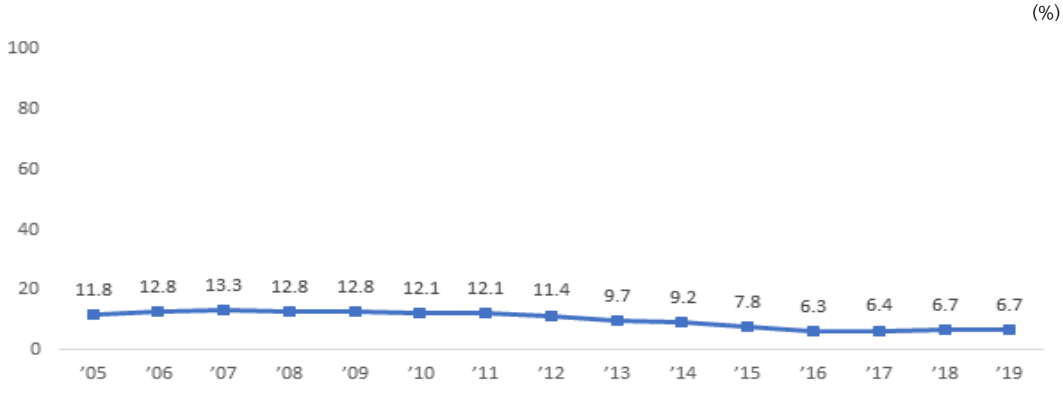
흡연 경험 비율

가. 정의

아동·청소년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나. 해설

중·고등학생 아동·청소년의 전체 흡연 경험 비율은 지난 15년 동안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6.3%로 가장 낮은 흡연 경험 비율이 보고된 후 다시 조금 상승하였으나, 6%대의 흡연율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2010년대 초반까지의 10% 이상의 흡연 경험 비율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수치이다. 흡연 경험 비율은 학교급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아도 감소 추세가 나타난다. 고등학생의 흡연 경험 비율은 2005년 18.3%에서 2019년 9.9%로 줄었으며, 중학생의 흡연 경험 비율은 2005년 8.0%에서 2019년 3.2%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성별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흡연 경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흡연 경험 비율은 2005년 14.3%에서 2019년 9.3%로 줄었으며, 여학생의 흡연 경험 비율은 2005년 8.9%에서 2019년 3.8%로 줄었다. 전체 흡연 경험 비율이 줄어드는 가운데,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유지되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매년 높은 흡연 경험 비율을 보고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매년 높은 흡연 경험 비율을 보고하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03&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그림 3-77] 흡연율(2005-2019)

〈표 3-134〉 흡연율(2005-2019)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전체		11.8	12.8	13.3	12.8	12.8	12.1	12.1	11.4	9.7	9.2	7.8	6.3	6.4	6.7	6.7
학교 급별	중학교	8.0	7.7	9.1	8.0	8.3	8.0	8.1	7.2	5.5	4.7	3.3	2.5	3.0	3.0	3.2
	고등학교	18.3	18.7	18.1	17.8	17.5	16.2	16.1	15.4	13.8	13.5	11.7	9.5	9.2	9.8	9.9
학년별	중1	5.7	5.0	5.9	5.4	4.7	4.9	4.4	3.6	2.3	1.7	0.9	0.8	0.7	0.8	1.0
	중2	8.4	7.5	9.1	8.3	8.7	8.7	8.7	6.9	5.5	4.1	3.2	2.3	3.2	3.2	3.5
	중3	10.3	10.7	12.1	10.4	11.3	10.4	10.9	10.9	8.6	7.9	5.3	4.2	4.9	4.9	5.0
	고1	16.8	16.6	16.3	16.6	16.0	14.8	15.5	14.0	12.1	11.3	9.1	7.1	7.0	7.7	8.3
	고2	19.8	19.4	18.6	17.8	17.9	15.6	16.1	15.9	14.3	13.5	11.9	9.4	9.7	9.4	10.0
	고3	-	20.3	19.8	19.2	18.6	18.1	16.9	16.3	15.0	15.7	14.0	12.0	10.9	12.0	11.4
남학생	전체	14.3	16.0	17.4	16.8	17.4	16.6	17.2	16.3	14.4	14.0	11.9	9.6	9.5	9.4	9.3
	중학교	9.6	9.3	11.3	10.3	11.1	10.6	11.0	9.8	7.9	6.8	4.8	3.5	4.1	3.9	4.0
	고등학교	22.4	23.8	24.3	23.8	23.9	22.5	23.1	22.4	20.7	20.8	18.3	14.7	13.9	14.1	14.2
여학생	전체	8.9	9.2	8.8	8.2	7.6	7.1	6.5	5.9	4.6	4.0	3.2	2.7	3.1	3.7	3.8
	중학교	6.3	5.9	6.6	5.4	5.1	5.1	4.8	4.3	2.8	2.3	1.7	1.3	1.8	2.1	2.3
	고등학교	13.5	13.0	11.3	11.1	10.2	9.0	8.3	7.5	6.3	5.6	4.5	3.8	4.1	5.1	5.2

주: 1)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출처: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03&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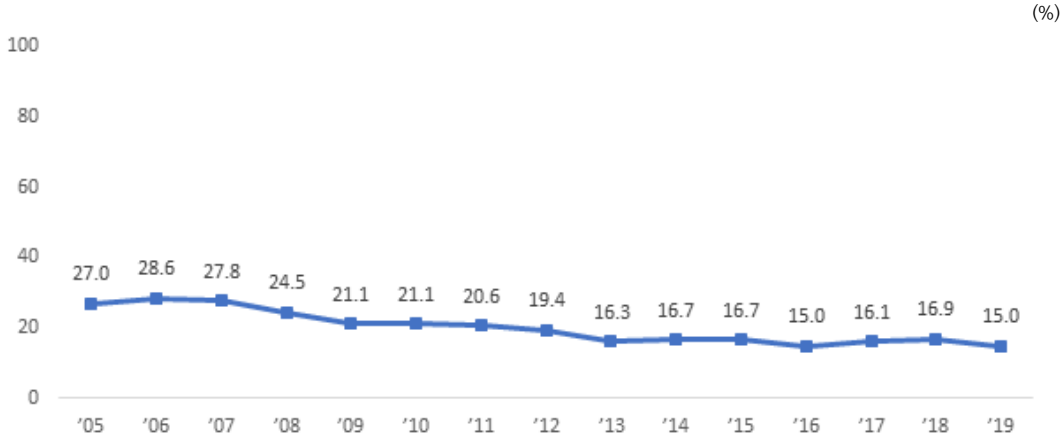
음주 경험 비율

가. 정의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나. 해설

중·고등학생 아동·청소년의 음주 경험 비율은 지난 15년 간 매년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음주 경험 비율은 전체 평균은 물론 하위 집단의 평균들도 대부분 지난 1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고등학생의 음주 경험 비율은 2005년 42.2%에서 2019년 21.8%로 절반가량으로 줄었으며, 중학생의 음주 경험 비율은 2005년 18.2%에서 2019년 7.6%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성별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음주 경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음주 경험 비율은 2005년 27.0%에서 2019년 16.9%로 줄었으며, 여학생의 음주 경험 비율은 2005년 26.9%에서 2019년 13.0%로 줄었다. 전체 음주 경험 비율이 줄어드는 가운데,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유지되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매년 높은 음주 경험 비율을 보고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매년 높은 음주 경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18&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그림 3-78] 음주 경험 비율(2005-2019)

〈표 3-135〉 음주 경험 비율(2005-2019)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전체		27.0	28.6	27.8	24.5	21.1	21.1	20.6	19.4	16.3	16.7	16.7	15.0	16.1	16.9	15.0
학교 급별	중학교	18.2	18.2	18.5	15.1	13.3	13.3	12.0	10.3	8.3	8.3	7.4	6.5	7.6	8.5	7.6
	고등학교	42.2	40.8	38.2	34.5	29.1	28.9	29.0	28.2	23.8	24.6	24.9	21.9	23.0	24.2	21.8
학년 별	중1	13.7	14.3	13.9	10.7	9.5	9.6	8.3	6.6	5.4	4.9	4.6	3.7	4.2	4.1	3.9
	중2	17.9	17.9	18.2	14.9	13.4	12.8	11.8	9.8	7.8	7.5	7.1	5.9	7.7	8.1	7.4
	중3	23.6	22.2	23.2	19.6	16.8	17.3	15.6	14.3	11.7	12.2	10.0	9.6	11.0	12.8	11.2
	고1	37.3	35.0	33.1	30.1	24.6	24.4	24.3	22.4	17.6	18.2	17.6	16.6	16.5	18.1	17.1
	고2	47.2	44.1	40.8	36.6	31.1	30.2	30.6	30.0	26.5	25.6	27.5	22.4	25.1	24.7	22.8
	고3	-	43.6	41.5	37.3	31.8	32.1	32.3	32.2	27.3	29.8	29.5	26.9	26.9	28.6	25.3
남학생	전체	27.0	30.5	29.6	26.1	23.7	23.5	23.7	22.7	19.4	20.5	20.0	17.2	18.2	18.7	16.9
	중학교	17.5	18.6	18.7	15.4	14.2	14.1	12.8	11.3	9.5	9.9	8.8	7.5	8.5	9.5	8.0
	고등학교	43.4	44.4	41.9	37.5	33.5	32.9	34.2	33.4	28.8	30.5	30.0	25.3	26.2	26.6	25.0
여학생	전체	26.9	26.5	25.7	22.6	18.2	18.3	17.1	15.8	12.8	12.6	13.1	12.5	13.7	14.9	13.0
	중학교	18.9	17.7	18.3	14.7	12.3	12.4	11.1	9.2	7.0	6.6	5.9	5.5	6.7	7.4	7.1
	고등학교	40.7	36.8	34.0	31.0	24.2	24.3	23.2	22.3	18.4	18.2	19.4	18.3	19.5	21.5	18.4

주: 1)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출처: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18&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약물 사용 경험 비율

가. 정의

최근 1년간 환각성 약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나. 해설

전체 청소년의 약물 사용 경험 비율은 2016년 조사에서는 0.4%, 2018년 조사에서는 0.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약물 사용 경험 비율의 성별,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는 2개년도의 조사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급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남자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여자 청소년의 경험 비율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의 약물 사용 비율은 조금 낮아진 가운데, 특성화 또는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약물 경험 비율은 2018년의 결과(0.7%)가 2016년 결과(0.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표 3-136〉 약물 사용 경험 비율(2016, 2018)

(%)

		2016	2018
전체		0.4	0.3
성별	남자	0.5	0.5
	여자	0.3	0.2
학교급별	중학교	0.4	0.4
	고등학교	0.4	0.3
학교 유형1	남학교	0.6	0.6
	여학교	0.2	0.3
	남녀공학	0.4	0.3
학교 유형2	일반/특목/자율	0.4	0.2
	특성화/마이스터고	0.3	0.7

주: 1) 최근 1년 간 환각성 약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746&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10대 여자청소년의 임신, 낙태 경험 비율

가. 정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청소년과 위기청소년(가출, 범죄, 비행청소년) 임신, 낙태 비율(10대 여자청소년 대상)

나. 해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청소년 중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0.2%로 낮게 나타났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 중에서는 8.0%의 청소년이 임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위기청소년 중 임신 경험 비율은 9.4%였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의 임신 경험 비율은 21.4%였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청소년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 역시 0.2%로 나타났다.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는 여자 청소년 중 66.1%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위기청소년 중에서는 7.4%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임신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 중에서는 79.1%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위기청소년이 전체 여자 청소년 집단에 비해 높은 임신 경험 비율 및 인공임신중절수술 경험 비율을 보였으며, 성관계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제한했을 때에도 위기청소년이 전체 여자 청소년 집단에 비해 높은 임신 경험 비율 및 인공임신중절수술 경험 비율을 보였다.

〈표 3-137〉 10대 여자청소년의 임신, 낙태 경험 비율(2018)

(%)

임신	중 · 고등학생	여 학 생	0.2
		성관계경험자	8.0
	위기청소년	여자청소년	9.4
		성관계 경험자	21.4
인공임신중절수술	중 · 고등학생	여학생	0.2
		임신 경험자	66.1
	위기청소년	여자 청소년	7.4
		임신 경험자	79.1

주: 1) 여학생 중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2) 여학생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출처: 여성가족부(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 =DT_MOGE_1540002586&conn_path=I3 에서 2019년 12월 5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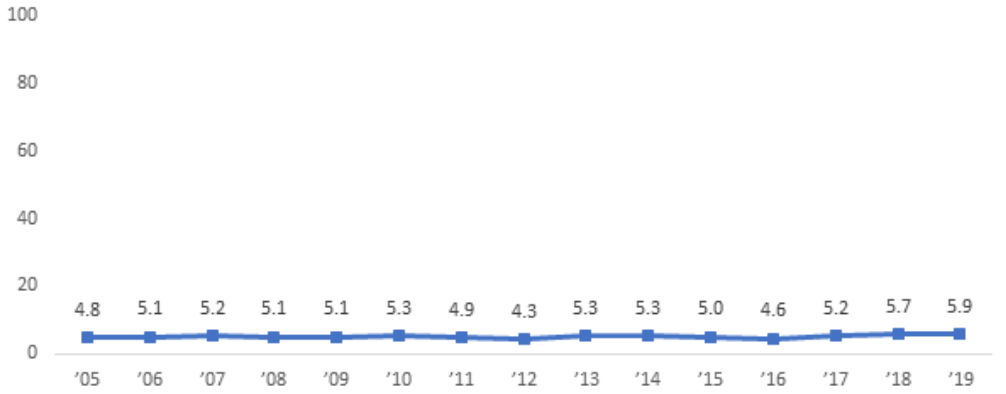
10대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

가. 정의

성관계 경험률은 평생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나. 해설

지난 15년간 전체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4.3%(2012년)에서 5.9%(2019년) 사이에서 나타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점증하거나 점감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8년 조사에서는 5.7%로 2018년 조사에서는 5.9%로 최근 2개년의 조사에서 가장 높은 성관계 경험률이 보고되었다. 성관계 경험률을 성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매년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매년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동일성별 내에서도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관계 경험률을 보였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9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2.9%이며 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8.6%이었다.성별과 학교급별 상대적 차이에 따라 남자 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이 11.6%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 중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이 1.7%로 가장 낮았다.



출처: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56&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그림 3-79] 10대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200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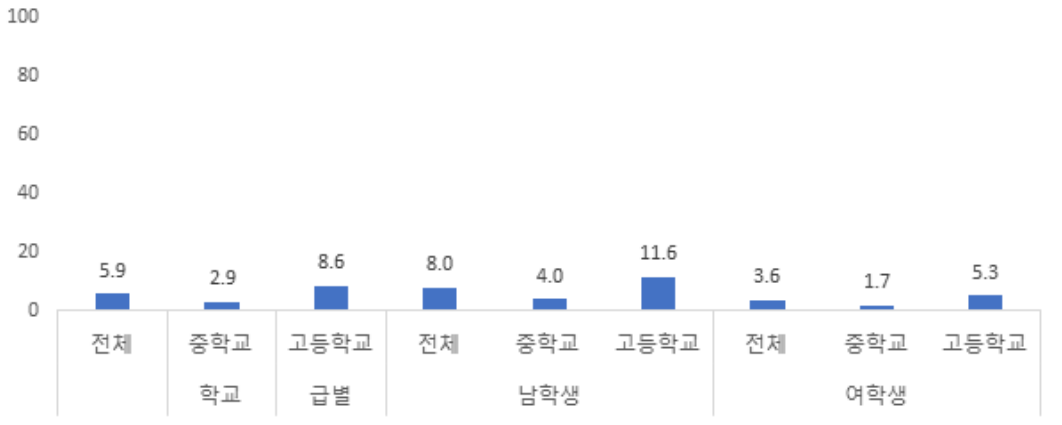
〈표 3-138〉 10대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2005-2019)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전체		4.8	5.1	5.2	5.1	5.1	5.3	4.9	4.3	5.3	5.3	5.0	4.6	5.2	5.7	5.9
학교 급별	중학교	3.1	2.3	2.2	2.2	2.2	2.5	2.3	2.1	3.8	3.3	2.9	2.5	2.8	2.6	2.9
	고등학교	7.8	8.4	8.5	8.2	8.2	8.1	7.4	6.5	6.8	7.2	6.8	6.4	7.1	8.5	8.6
남학생	전체	6.0	6.7	7.1	6.9	7.1	7.2	6.7	5.9	7.4	7.3	7.0	6.3	7.1	7.6	8.0
	중학교	3.8	3.0	2.9	2.8	2.8	3.2	3.0	2.5	5.0	4.2	3.8	3.3	3.9	3.5	4.0
	고등학교	9.8	10.9	11.8	11.4	11.4	11.2	10.3	9.2	9.7	10.1	9.8	8.7	9.7	11.0	11.6
여학생	전체	3.5	3.4	3.0	3.0	3.0	3.2	2.9	2.6	3.1	3.2	2.8	2.8	3.1	3.8	3.6
	중학교	2.2	1.5	1.4	1.6	1.5	1.9	1.5	1.6	2.5	2.3	1.9	1.6	1.7	1.5	1.7
	고등학교	5.6	5.5	4.8	4.6	4.5	4.6	4.2	3.5	3.7	4.0	3.5	3.8	4.3	5.7	5.3

주: 1) 평생 동안 성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
출처: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56&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



출처: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56&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그림 3-80] 개인특성별 10대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2019)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

가.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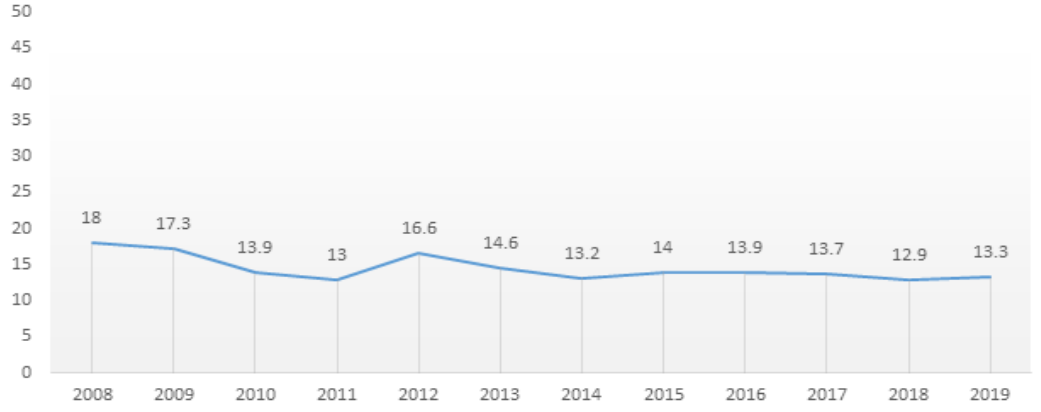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는 소년인구 천 명당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9세 미만인 자에 의해 발생된 범죄 발생건수

나. 해설

소년 천 명당 만 19세 미만 소년에 의해 발생된 소년범죄 발생건수는 2018년 12.9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19년 13.3건으로 0.4건 증가하였다. 2009년 17.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추세에 있는 경향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년부터는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되어 17개 시도별 순위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0년 간 부산광역시는 일관되게 가장 많은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도 일관되게 순위가 높은 편이었다. 반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일관되게 낮은 순위를 보였다. 새로 추가된 세종특별자치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가 낮았다.

(건)



출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3401&conn_ path=I3에서 2020년 12월 20일 인출.

[그림 3-81]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 추이(2008-2019)

〈표 3-139〉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2008-2019)

(건/천 명당, 발생순위)

행정구역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18.0	17.3	13.9	13.0	16.6	14.6	13.2	14.0	13.9	13.7	12.9	13.3
서울 특별시	20.2 (4)	19.1 (3)	15.1 (6)	13.8 (7)	18.1 (6)	15.7 (6)	13.9 (5)	13.9 (8)	13.6 (8)	13.7 (8)	13.1 (6)	13.2 (7)
부산 광역시	22.8 (1)	24.7 (1)	18.4 (1)	16.3 (2)	23.8 (1)	21.1 (1)	18.8 (1)	21.6 (1)	20.5 (1)	20.6 (1)	19.4 (1)	18.5 (1)
대구 광역시	18.3 (10)	16.0 (9)	13.4 (9)	14.9 (5)	19.4 (3)	17.1 (2)	13.8 (6)	14.0 (7)	15.2 (3)	13.9 (7)	13.1 (6)	14.7 (6)
인천 광역시	20.3 (3)	17.3 (7)	15.3 (5)	17.3 (1)	18.8 (4)	17.0 (3)	14.2 (3)	15.3 (4)	17.9 (2)	16.3 (2)	16.1 (2)	16.5 (2)
광주 광역시	20.1 (5)	19.6 (2)	17.4 (3)	15.9 (3)	21.6 (2)	16.7 (4)	14.1 (4)	14.7 (5)	14.5 (5)	15.4 (3)	14.2 (3)	15.4 (4)
대전 광역시	19.1 (8)	14.5 (13)	12.4 (12)	10.4 (15)	16.0 (7)	16.3 (5)	14.6 (2)	15.5 (3)	14.7 (4)	14.8 (4)	14.0 (4)	15.9 (3)
울산 광역시	18.4 (9)	15.4 (10)	14.7 (7)	13.8 (6)	14.9 (9)	13.7 (9)	13.6 (7)	16.0 (2)	14.1 (6)	14.1 (6)	12.4 (10)	12.0 (11)
세종 특별자치시	-	-	-	-	-	-	-	-	-	-	-	8.0 (17)
경기도	16.1 (11)	17.5 (6)	12.8 (10)	11.6 (12)	15.3 (8)	13.3 (12)	12.5 (12)	13.7 (10)	13.4 (10)	13.3 (11)	12.4 (10)	12.9 (9)
강원도	19.7 (6)	18.3 (4)	16.2 (4)	15.4 (4)	18.4 (5)	14.3 (7)	12.8 (10)	13.4 (11)	13.9 (7)	13.7 (8)	12.5 (9)	11.8 (12)
충청북도	15.5 (12)	15.3 (11)	12.7 (11)	12.7 (9)	14.2 (12)	13.6 (10)	12.9 (9)	12.9 (12)	13.6 (8)	14.4 (5)	13.6 (5)	14.8 (5)
충청남도	14.7 (16)	12.1 (16)	11.7 (15)	9.4 (16)	14.0 (13)	13.6 (10)	13.3 (8)	13.9 (8)	13.1 (11)	11.9 (13)	12.3 (12)	13.1 (8)
전라북도	15.1 (14)	14.9 (12)	11.9 (13)	11.8 (10)	14.7 (10)	12.2 (13)	12.3 (13)	12.4 (13)	11.8 (14)	12.0 (12)	12.6 (8)	11.4 (14)
전라남도	19.2 (7)	17.0 (8)	13.4 (8)	11.8 (11)	14.7 (10)	11.8 (15)	10.9 (15)	11.7 (14)	12.5 (12)	11.9 (13)	10.8 (14)	12.4 (10)
경상북도	15.1 (15)	13.2 (15)	10.6 (16)	10.6 (14)	13.5 (14)	12.2 (13)	11.0 (14)	11.7 (14)	11.9 (13)	11.6 (15)	10.7 (15)	11.6 (13)
경상남도	15.2 (13)	14.4 (14)	11.8 (14)	11.1 (13)	11.6 (16)	10.4 (16)	9.4 (16)	11.1 (16)	10.5 (16)	10.2 (16)	8.6 (16)	10.0 (16)
제주특별 자치도	21.6 (2)	18.3 (5)	17.8 (2)	13.4 (8)	13.3 (15)	14.3 (7)	12.8 (10)	14.4 (6)	11.8 (14)	13.5 (10)	11.2 (13)	11.4 (15)

주: 1) 소년인구 천 명당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9세 미만인 자에 의해 발생된 범죄 발생건수
= (소년범죄 발생건수÷소년 인구)×1,000

출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3401&conn_ path=I3에서 2020년 12월 20일 인출.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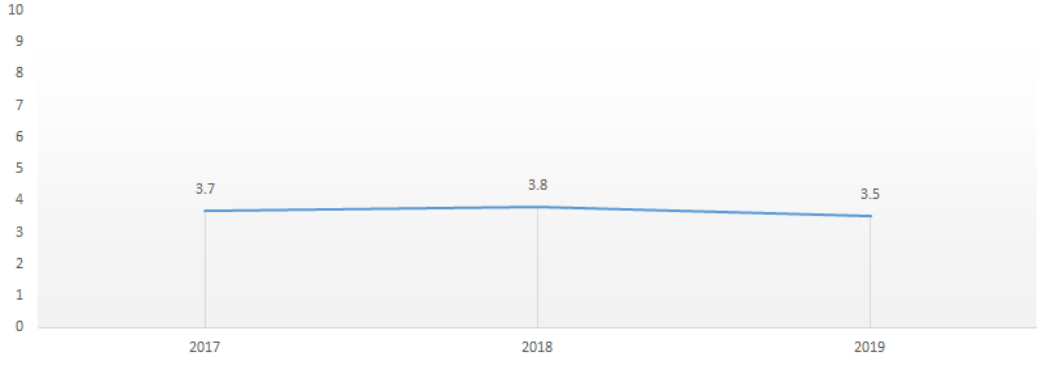
가. 정의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은 지난 1년간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나. 해설

초·중·고등학생의 전체 가출 경험 비율은 지난 3년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남학생의 가출 경험 비율이 여학생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가출 경험 비율은 소폭 줄고 여학생의 가출 경험 비율은 소폭 늘어 그 격차는 2019년에 가장 작게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가출 경험 비율이 가장 낮은 가운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고교유형에 따라서는 일반계고의 가출 경험 비율은 지난 3년간 소폭 늘었으나, 특성화계고의 경우 2017년 5.6%, 2018년 4.8%, 2019년 3.3%로 다른 특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하위 집단의 가출 경험 비율이 상 또는 중위 집단에 비해 높으면서도 2017년 4.6%, 2018년 6.7%, 2019년 7.3%로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외에도 지난 3년간 일관되게 아동·청소년의 성적이 낮을수록 가출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이 양부모 가정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 따른 가출 경험 비율의 차이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5&conn_path=I2 에서 2020년 11월 5일 인출.

[그림 3-82]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 추이(2017-201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5&conn_path=I2 에서 2020년 11월 5일 인출.

[그림 3-83] 개인 특성별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 차이(2019)

〈표 3-140〉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2017-2019)

(%)

		2017	2018	2019
전체	소계	3.7	3.8	3.5
성별	남자	4.4	4.5	3.8
	여자	3.0	3.1	3.3
학교급	초등학교	2.6	2.9	2.4
	중학교	4.2	4.1	4.0
	고등학교	4.2	4.3	4.1
고교유형	일반계고	3.8	4.2	4.3
	특성화계고	5.6	4.8	3.3
지역규모	대도시	3.7	4.2	3.7
	중소도시	3.4	3.7	3.5
	읍면지역	5.1	2.8	3.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3.4	3.7	3.3
	한부모가정	6.8	4.6	5.6
	조손가정	6.4	7.9	6.9
	기타	5.0	5.9	5.6
학업성적	상	2.7	2.4	2.5
	중	3.3	3.4	2.8
	하	5.9	6.5	6.6
경제적 수준	상	3.5	3.3	2.7
	중	3.8	3.8	3.9
	하	4.6	6.7	7.3

주: 1) 지난 1년간 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5&conn_path=I2 에서 2020년 11월 5일 인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아동·청소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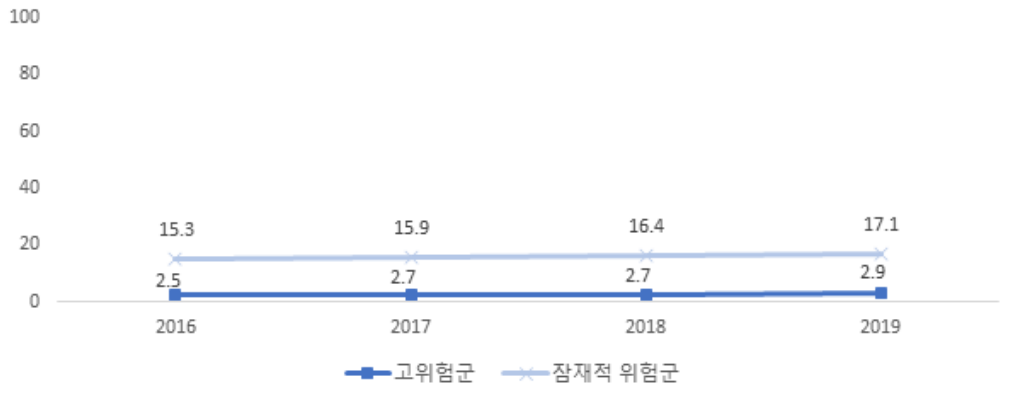
가. 정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아동·청소년 비율은 2016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스마트폰 과의존 통합 척도'를 통해 조사됨. 해당 척도는 조절 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의 3가지 하위영역을 10개 문항으로 측정함. 청소년, 성인, 고령층은 자기보고 하였으며, 유아는 보호자가 9개 문항에 대해 응답함. 연령대별 척도의 총점을 기준 점수에 따라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구분

나. 해설

만 3세에서 20대를 대상으로 조사된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지난 4년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주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3~9세의 경우,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의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이 늘고 있었다. 10대 청소년은 지난 4년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매해 가장 높은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비율을 보였다. 학령별로 살펴보면, 10대 청소년 중에서도 중학생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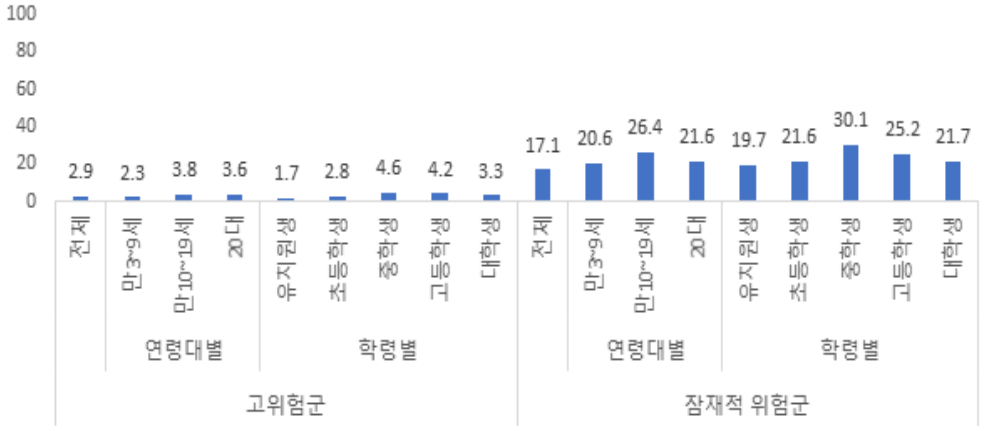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120019N_2016_001&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그림 3-84]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추이(2016-2019)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120019N_2016_001&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그림 3-85] 개인 특성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교(2019)

〈표 3-141〉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아동·청소년 비율(2016-2019)

(%)

		2016			2017			2018			2019		
		소계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소계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소계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소계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연령대별	만 3~9세	17.9	1.2	16.7	19.1	1.2	17.9	20.7	2.0	18.7	22.9	2.3	20.6
	만 10~19세	30.6	3.5	27.1	30.3	3.6	26.7	29.3	3.6	25.7	30.2	3.8	26.4
	20대	22.3	3.3	19.0	23.6	3.6	20.0	24.0	3.4	20.6	25.2	3.6	21.6
학령별	유치원생	17.6	0.7	16.9	17.9	1.4	16.5	19.1	2.1	17.0	21.4	1.7	19.7
	초등학생	23.6	2.8	20.8	22.0	2.0	20.0	22.8	2.0	20.8	24.4	2.8	21.6
	중학생	34.7	3.9	30.8	34.3	3.9	30.4	34.0	4.0	30.1	34.7	4.6	30.1
	고등학생	29.5	3.5	26.0	28.7	3.4	25.3	28.3	3.3	25.0	29.4	4.2	25.2
	대학생	22.5	2.9	19.6	23.8	2.9	20.9	25.9	4.2	21.7	25.0	3.3	21.7

주: 1) 스마트폰 과의존 잠재적 위험군 및 고위험군 비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120019N_2016_001&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유해매체를 이용한 적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가. 정의

최근 1년간 4가지 유형의 유해 매체(성인 영상물, 성인 간행물, 성인용 온라인 게임, 도박성 게임)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나. 해설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성인 영상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9.4%, 성인 간행물을 이용한 적 있는 청소년은 23.3%, 성인용 온라인 게임과 도박성 게임의 이용 경험 비율은 각각 17.8%, 4.2%로 나타났다. 4가지 유형의 유해매체의 경험 비율은 모두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여자 청소년 집단보다 높았으며, 남학교 학생의 이용 경험 비율이 여학교 학생 또는 남녀공학 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해매체의 이용 경험 비율은 학교급 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3-142〉 유해매체 노출 및 이용 비율(2016, 2018)

(%)

유형		성인 영상물		성인 간행물		성인용 온라인 게임		도박성 게임	
연도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전체		41.5	39.4	22.0	23.3	13.1	17.8	4.4	4.2
성별	남자	51.7	48.7	25.8	25.9	20.3	27.1	6.4	6.7
	여자	30.5	29.4	17.8	20.5	5.2	7.8	2.3	1.5
남녀공학	남학교	71.1	66.2	33.8	35.8	20.5	34.7	6.9	7.7
	여학교	41.0	37.8	21.0	25.5	6.5	10.2	2.7	1.7
	남녀공학	36.6	35.0	20.1	20.7	12.8	16.0	4.2	3.9
학교급	초등학교	18.6	19.6	11.8	13.2	9.5	5.3	2.7	2.1
	초등(5-6학년)	16.1	17.7	9.3	10.6	9.3	6.1	2.6	2.3
	중학교	42.4	41.6	22.5	25.0	14.3	20.6	3.5	3.0
	고등학교	58.0	53.3	29.1	29.8	14.7	25.4	6.5	6.8
고교유형	일반/특목/자율	57.8	52.9	28.9	29.7	13.8	24.2	6.2	6.0
	특성화/마이스터고	59.1	55.1	30.0	30.6	18.6	31.1	8.1	10.5

주: 1) 응답 기준은 최근 1년간임.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09&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6. 관계 영역

관계 영역 개요

관계 영역은 총 12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관계 영역에 5개, 또래관계 및 일반관계 영역에 7개 지표가 있다. 관계 영역에서 영유아를 대상에 포함한 지표에는 부모와의 애착 정도, 친구와 잘 어울리는 정도, 친구와 노는 횟수별 비율, 친구 없는 아동 비율이 있으며, 청년을 대상으로 포함한 지표로는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이 있다. 관계 영역의 나머지 지표는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가족관계 영역 지표에는 부모와의 애착 정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에서의 의사결정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포함되었다. 만 0~5세 아동과 부모의 애착 정도 평균점수는 4점 척도 기준 3.6점으로 만 0~5세 아동 부모는 자녀와의 애착 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9~24세의 가족관계 만족도 평균점수도 4점 척도 기준 3.2점으로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에서의 의사결정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초·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017년 조사에서는 90.7%, 2018년 조사에서는 91.2%로 나타나 아동·청소년 대부분이 가족 내 의사결정 시 존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만 9~24세의 비율은 83.9%였으며, 매일 가족과 함께 식사한다는 비율도 27.0%로 조사되었다.

또래관계 및 일반관계 영역 지표에는 친구와 잘 어울리는 정도, 친구와 노는 횟수별 비율, 친구 없는 아동 비율,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비율, 사회신뢰도가 높은 아동·청소년의 비율,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이 포함되었다. 만 3~8세 조사대상 아동의 97.1%는 친구와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횟수는 '일주일에 1~2회'가 5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만 13~24세 아동·청소년 비율은 2018년 조사 결과(86.2%)가 2016년 조사 결과(78.2%)보다 높았으며, 만 9~17세 조사대상 아동의 63.3%가 친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롭다고 생각하는 만 20~29세 청년 비율은 13.6%였고,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9.9%를 차지하였다. 우리 사회가 믿을 만하다고 응답한 만 9~24세 아동·청소년 비율은 30.3%였고, 만 13~18세 집단이 만 19~24세 집단보다 우리 사회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43〉 관계 영역 (가족관계, 또래관계 및 일반관계)

하위영역	지표	출처
가족관계	부모와의 애착 정도 (참고지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아동종합실태조사
	가족관계 만족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가족에서의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아동종합실태조사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또래관계 및 일반관계	친구와 잘 어울리는 정도	아동종합실태조사
	친구와 노는 횟수별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사회조사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친구 없는 아동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신뢰도가 높은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가족관계

부모와의 애착 정도

가. 정의

만 0-5세 아동과 부모의 애착 정도(1-4점)의 평균

나. 해설

2013년 조사에서 만 0-2세 아동과 만 3-5세 아동 모두 부모와의 애착 정도 평균점수는 3.6점이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만 0-2세의 경우 남자(3.7점)가 여자(3.6점)보다 애착 정도가 높았으며, 만 3-5세의 경우에는 여자(3.7점)가 남자(3.5점)보다 애착 정도가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만 0-2세의 경우 빈곤가구 아동(3.7점)이 일반가구 아동(3.6점)보다 애착 정도가 높았고, 만 3-5세의 경우에는 일반가구 아동(3.7점)이 빈곤가구 아동(3.5점)보다 높은 애착 정도를 보였다.

〈표 3-144〉 부모와의 애착 정도(2013)

(점)

연령	전체	성별		소득수준별	
	소계	남자	여자	일반가구	빈곤가구
만 0-2세	3.6	3.7	3.6	3.6	3.7
만 3-5세	3.6	3.5	3.7	3.7	3.5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한 부모애착 4개 항목의 평균점수임.
2) 만 0-5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함.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13_H109&conn_path=I2에서 2019년 12월 10일 인출.

(참고지표)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

가. 정의

영유아 자녀가 부모와 함께 지낸 시간

나. 해설

평일 영유아 자녀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2012년, 2015년, 2018년 조사 모두에서 어머니는 4~6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버지는 1~3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말 동안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와 13시간 이상을 함께 보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3-145〉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2012-2018)

(%)

구분	평일						주말					
	없음	1~3 시간	4~6 시간	7~9 시간	10~12 시간	13시간 이상	없음	1~3 시간	4~6 시간	7~9 시간	10~12 시간	13시간 이상
2012	1.1	11.6	37.9	26.2	12.5	10.7	0.8	1.1	3.2	6.9	38.4	49.6
2015	0.5	5.7	30.1	26.6	16.8	20.3	0.2	1.5	7.9	6.9	28.3	55.2
2018	0.6	5.3	32.9	28.4	14.9	18.0	0.2	1.0	4.8	6.1	33.3	54.6

주: 1) 2012년도 조사부터 관련 문항이 포함됨.
출처: 1) 보건복지부(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p. 104. p. 107.
2) 보건복지부(2016).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p. 94. p. 96.
3) 보건복지부(2018).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p. 141. p. 145.

〈표 3-146〉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2012-2018)

(%)

구분	평일						주말					
	없음	1~3 시간	4~6 시간	7~9 시간	10~12 시간	13시간 이상	없음	1~3 시간	4~6 시간	7~9 시간	10~12 시간	13시간 이상
2012	15.3	67.5	12.9	1.0	0.6	2.7	2.7	11.4	13.1	13.6	28.9	30.3
2015	11.0	59.1	22.5	2.6	3.4	1.3	1.6	17.1	21.4	9.9	23.2	26.8
2018	5.6	54.3	29.4	5.8	3.1	1.9	1.2	15.9	20.0	9.8	26.2	26.8

주: 1) 2012년도 조사부터 관련 문항이 포함됨.
출처: 1) 보건복지부(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p. 105. p. 108.
2) 보건복지부(2016).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p. 95. p. 96.
3) 보건복지부(2018).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p. 143. p. 146.

가족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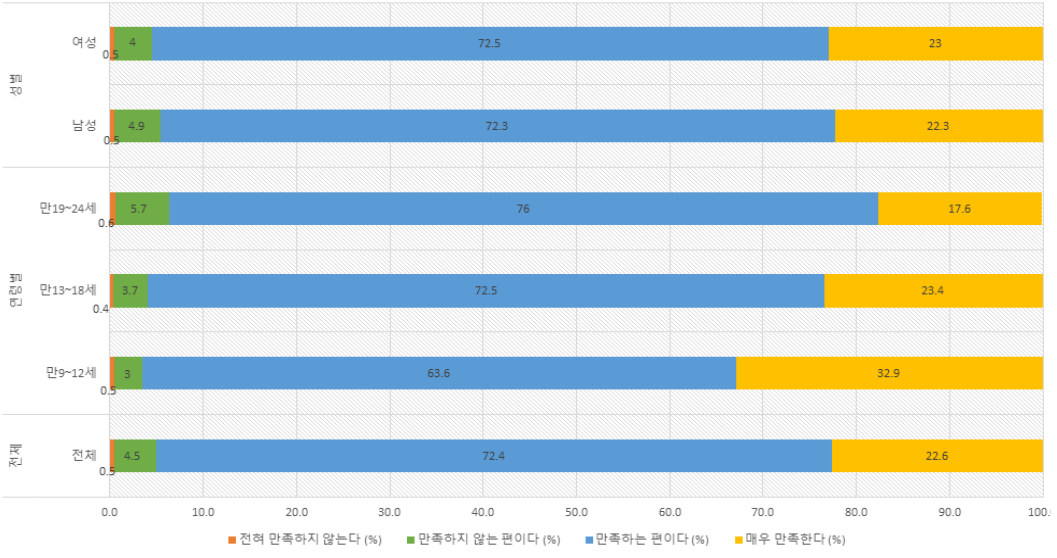
가. 정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정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2)', '만족하는 편이다(3)', '매우 만족한다(4)'로 응답한 값의 평균

나. 해설

가족관계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2점으로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도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확인되었다. 지역 규모, 가구 소득, 주양육자 학력에 따라 구분된 집단들 간에서도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구 소득이 높거나 주양육자의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확인되었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0300558&conn_path=I2 에서 2021년 1월 28일 인출.

[그림 3-86] 가족관계 만족도(항목별 응답 비율) (2017)

〈표 3-147〉 가족관계 만족도(2017)

(%, 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평균
전체		0.5	4.5	72.4	22.6	3.2
연령별	만 9~12세	0.5	3	63.6	32.9	3.3
	만 13~18세	0.4	3.7	72.5	23.4	3.2
	만 19~24세	0.6	5.7	76	17.6	3.1
성별	남성	0.5	4.9	72.3	22.3	3.2
	여성	0.5	4	72.5	23	3.2
지역규모별	대도시	0.4	3.9	72.3	23.4	3.2
	중소도시	0.4	5.4	74.1	20	3.1
	농산어촌	0.9	4.1	68.5	26.5	3.2
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0.9	11.2	78.4	9.5	3.0
	100 ~ 200만원 미만	0.3	10.8	64.4	24.5	3.1
	200 ~ 300만원 미만	1.2	5.6	69	24.2	3.2
	300 ~ 400만원 미만	0.5	3.8	69	26.8	3.2
	400 ~ 500만원 미만	0.4	4.3	75	20.4	3.2
	500 ~ 600만원 미만	0.5	3.8	76.4	19.3	3.2
	600만원 이상	0.4	3.6	72.4	23.7	3.2
주양육자학력별	초졸 이하	1.2	16.4	64.8	17.7	3.0
	중졸	4.4	11.9	65	18.7	3.0
	고졸	0.3	4.8	73.5	21.4	3.2
	대졸 이상	0.5	3.4	71.8	24.4	3.2

주: 1) 평균점수(점)은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1) ~ 매우 만족한다(4)'의 평균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0300558&conn_path=I2 에서 2021년 1월 28일 인출.

가족에서의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가. 정의

가족에서의 의사결정 참여는 가정 내 4가지 의사결정 상황(집 안의 중요한 문제, 진학할 상급 학교, 장래희망, 공부 시간이나 방법)에 있어 자신의 의견이 얼마나 존중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범주 중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나. 해설

가족에서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집안 문제, 진학할 학교, 장래희망, 공부 시간이나 방법의 네 가지 유형별로 확인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90%를 넘거나 근접하여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 가족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시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유형 중 공부 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자신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으며, 학교급에 따라서는 공부 시간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상위학교급 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업성적이 높거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결정 참여 시 존중받는 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가운데, 하위 집단과 중상위 집단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3-148〉 가족에서의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2017-2019)

(%)

		2017				2018				2019			
		집안 문제	진학 학교	장래 희망	공부 시간 /방 법	집안 문제	진학 학교	장래 희망	공부 시간/ 방법	집안 문제	진학 학교	장래 희망	공부 시간/ 방법
전체	소계	90.7	93.1	94.1	89.2	91.2	92.9	94.2	89.5	90.9	93.8	93.8	90.5
성별	남자	90.0	92.8	94.5	88.0	91.7	92.9	94.7	88.9	90.6	94.3	93.5	88.9
	여자	91.6	93.4	93.8	90.6	90.7	92.8	93.6	90.1	91.2	93.3	94.0	92.3
학교급	초등학교	91.0	92.6	94.7	86.2	92.1	92.8	94.0	87.3	92.2	0.0	93.8	0.0
	중학교	90.8	93.4	93.5	88.0	91.1	93.4	94.5	87.9	90.6	93.2	92.6	88.2
	고등학교	90.6	93.2	94.4	92.6	90.5	92.7	94.1	92.3	90.0	94.4	94.8	92.6
고교유형	일반계고	91.3	93.2	94.5	92.6	90.7	92.7	94.0	92.3	89.5	93.9	94.7	92.4
	특성화계고	87.5	93.3	93.6	92.3	89.9	92.7	94.5	92.2	91.7	96.3	95.3	94.0
지역규모	대도시	91.5	94.2	95.0	90.0	92.2	93.0	94.1	90.0	92.1	94.2	93.7	90.6
	중소도시	90.3	92.8	94.0	88.7	90.2	92.6	94.0	88.9	90.1	93.8	93.7	90.8
	읍면지역	90.1	90.7	92.3	88.8	91.2	94.2	94.6	89.6	89.5	92.8	93.9	88.9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1.1	93.2	94.4	89.5	91.5	93.1	93.7	89.6	91.1	93.9	94.0	90.7
	한부모가정	87.4	92.2	91.7	87.6	87.6	90.7	94.5	88.2	87.3	93.1	91.7	88.7
	조손가정	90.1	88.3	90.5	89.3	89.8	88.5	94.4	81.5	91.2	89.8	91.5	89.7
	기타	93.2	89.4	95.8	80.6	89.8	92.0	91.6	85.8	94.8	95.9	91.9	90.9
학업성적	상	91.9	94.8	95.3	90.0	93.5	95.2	91.5	91.8	93.2	95.7	95.0	91.3
	중	91.9	93.7	94.8	90.0	91.7	92.9	91.2	89.2	91.7	94.2	93.8	91.3
	하	87.1	89.5	91.7	86.9	86.7	89.7	96.0	86.4	85.6	91.6	91.7	88.9
경제적 수준	상	92.6	93.8	95.4	89.5	93.8	94.5	93.8	90.9	93.4	95.5	94.8	91.7
	중	90.7	93.2	93.9	89.8	89.7	92.2	92.4	88.7	89.7	93.1	92.4	90.2
	하	81.5	89.1	88.8	86.3	81.3	86.7	95.4	83.2	79.2	89.0	91.6	86.9

주: 1) 가정 내 의사결정 상황 네 가지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이 얼마나 존중되는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07_1&conn_path=I2 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가. 정의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보호자와의 관계 8가지 항목(보호자와 대화를 많이 한다, 나는 보호자를 사랑한다, 보호자는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보호자는 나에게 칭찬을 자주 하신다, 보호자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나는 보호자께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힘들 때 보호자께서 용기를 주셨다, 보호자는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신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 중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나. 해설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묻는 8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모두 85%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나는 보호자를 사랑한다(93.7%)', '내가 힘들 때 보호자께서 용기를 주셨다(92.4%)', '보호자는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신다(92.3%)'의 세 문항은 긍정적 응답비율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문항들이었다. 뒤를 이어 '보호자는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89.0%)', '보호자와 대화를 많이 한다(87.7%)', '보호자와 대화를 많이 한다(87.1%)', '나는 보호자께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85.4%)', '보호자는 나에게 칭찬을 자주 하신다(85.1%)'의 순으로 높은 긍정적인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3-149〉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2018)

(%)

	긍정응답 비율
보호자와 대화를 많이 한다	87.7
나는 보호자를 사랑한다	93.7
보호자는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89.0
보호자는 나에게 칭찬을 자주 하신다	85.1
보호자와 대화를 많이 한다	87.1
나는 보호자께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85.4
내가 힘들 때 보호자께서 용기를 주셨다	92.4
보호자는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신다	92.3

주: 1) 보호자와의 긍정적 관계에 대한 8개 문항에 대한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 74_2018_A059&conn_path=I3에서 2019년 12월 10일 인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가. 정의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최근 1년간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 빈도의 5가지 응답 범주(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각각에 대한 응답 비율

나. 해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4회 이상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 4회 이상 가족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비율은 만 9-12세 집단이 80.0%, 만 13-18세 집단이 53.7%, 만 19-24세 집단이 36.6%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농산어촌(55.4%), 중소도시(51.3%), 대도시(4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500-600만원(47.5%), 600만원 이상(47.2%)의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100만원 미만(56.4%)과 300-400만원(55.4%)의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150〉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2017)

(%)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전체		4.5	11.6	32.9	24.0	27.0
연령별	만 9~12세	2.5	5.8	11.7	24.2	55.8
	만 13~18세	5.0	9.6	31.7	23.3	30.4
	만 19~24세	5.0	15.5	42.9	24.6	12.0
성별	남성	4.8	12.6	32.3	24.6	25.8
	여성	4.2	10.4	33.6	23.5	28.3
지역 규모별	대도시	3.8	11.4	35.7	25.4	23.7
	중소도시	4.5	11.0	33.2	24.9	26.4
	농산어촌	6.3	13.4	24.9	18.7	36.7
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4.4	6.6	32.5	18.1	38.3
	100 ~ 200만원 미만	7.9	10.8	30.2	16.0	35.1
	200 ~ 300만원 미만	5.9	13.2	29.3	19.9	31.7
	300 ~ 400만원 미만	4.2	10.3	30.1	24.9	30.5
	400 ~ 500만원 미만	4.8	11.6	33.0	25.1	25.5
	500 ~ 600만원 미만	3.8	12.7	36.0	25.4	22.1
	600만원 이상	2.7	11.8	38.3	25.0	22.2
주양육자 학력별	초졸 이하	5.0	16.4	31.4	21.5	25.7
	중졸	11.1	16.7	34.7	12.3	25.2
	고졸	5.2	11.8	35.4	23.8	23.8
	대졸 이상	3.4	10.9	30.1	24.9	30.7

주: 1)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빈도별 비율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 _3020300555&conn_path=I3 에서 2019년 12월 5일 인출.

또래관계 및 일반관계

친구와 잘 어울리는 정도

가. 정의

3-8세 아동 중 친구와 잘 어울리는 아동의 비율

나. 해설

2018년 조사를 기준으로 만 3-8세 조사대상 아동의 97.1%는 친구와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친구와 잘 어울리는 아동의 비율은 여자(96.4%)보다 남자(97.8%)가 높았으며, 만 6-8세 아동(96.0%)보다 만 3-5세 아동(97.9%)이 높았다. 표본별로는 일반가구 아동(97.1%)이 수급가구 아동(94.4%)보다 친구와 잘 어울리는 비율이 높았고, 가구유형별로는 양부모가족의 아동(97.4%)이 한부모·조손가족 아동(91.6%)보다 친구와 잘 어울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51〉 아동 및 가구유형별 친구와 잘 어울리는 정도(2018)

(%)

전체	성별		연령별		표본별		가구유형별	
	남자	여자	만 3-5세	만 6-8세	일반 가구	수급 가구	양부모가족	한부모·조손가족
97.1	97.8	96.4	97.9	96.0	97.1	94.4	97.4	91.6

주: 1)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나 또래 사이에서 함께 잘 어울린다'와 '쉽게 친해지며 함께 잘 어울린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2)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3) 2018년 조사표본은 일반가구 아동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수급가구 아동으로 구분됨.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067&conn_path=I2에서 2019년 12월 10일 인출.

친구와 노는 횟수별 비율

가. 정의

만 3-8세 아동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횟수에 대한 비율

나. 해설

2018년 조사에서 주양육자가 응답한 만 3-8세 아동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횟수는 '일주일에 1-2회'가 5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친구와 노는 횟수는 남자(49.4%)와 여자(55.4%) 모두 '일주일에 1-2회'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별로도 친구와 노는 횟수별 비율은 3-5세 아동(52.5%)과 6-8세 아동(52.0%) 모두 '일주일에 1-2회' 가 가장 높았으며, 표본별로도 일반가구 아동(52.6%)과 수급가구 아동(43.0%) 모두에서 '일주일에 1-2회'가 가장 높았다. 가구유형별로는 양부모가족 아동의 경우 '일주일에 1-2회'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고 응답한 비율이 53.5%로 가장 높았던 반면,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고 응답한 비율이 34.8%로 가장 높았다.

〈표 3-152〉 아동 및 가구유형별 친구와 노는 횟수별 비율(2018)

(%)

구분		거의 놀지 않는다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3.6	12.7	52.3	31.4
성별	남자	5.2	12.1	49.4	33.3
	여자	1.8	13.3	55.4	29.5
연령별	만 3-5세	4.8	13.6	52.5	29.2
	만 6-8세	2.0	11.6	52.0	34.3
표본별	일반가구	3.4	12.4	52.6	31.5
	수급가구	7.9	20.7	43.0	28.5
가구유형별	양부모가족	3.2	12.2	53.3	31.3
	한부모·조손가족	10.0	21.7	33.5	34.8

주: 1)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18년 조사표본은 일반가구 아동과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수급가구 아동으로 구분됨.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067&conn_path=I2에서 2019년 12월 10일 인출.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가. 정의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 존재 여부 비율은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누구와 상담하는지 물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 선생님 등의 상담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전체 중 '스스로 해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제외 후 산출)

나. 해설

문제시 상담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조사결과가 2016년 조사 결과에 비해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와 상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6.2%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성별, 연령별, 주거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153〉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2016, 2018)

(%)

		2016	2018
전체	계	78.2	86.2
성별	남자	74.9	84.9
	여자	81.5	87.5
연령별	만 13~18세	79.5	86.3
	만 19~24세	77.0	86.1
동·읍면부	동부	78.0	85.9
	읍면부	79.5	87.9

주: 1) 고민을 나눌 지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1-('스스로 해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50R&conn_path=I3 에서 2019년 12월 5일 인출.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비율

가. 정의

친구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만9-17세)의 비율

나. 해설

2013년 조사를 기준으로 만 9-17세 조사대상 전체 아동의 63.3%가 친구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성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친구로부터의 지지감 비율은 여자(67.2%)가 남자(59.5%)보다 높았으며, 만 9-11세 아동(63.9%)이 만 12-17세 아동(63.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일반가구 아동(63.6%), 차상위가구 아동(59.0%), 기초수급가구 아동(54.5%) 순으로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고,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아동(65.5%), 중소도시 아동(62.5%), 농어촌 아동(53.3%) 순으로 친구로부터의 지지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54〉 친구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 비율(2013)

(%)

전체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		
	남자	여자	9-11세	12-17세	일반 가구	차상위 가구	기초수급 가구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63.3	59.5	67.2	63.9	63.0	63.6	59.0	54.5	65.5	62.5	53.3

주: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는지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13_H215&conn_path=I3에서 2019년 8월 13일 인출.

친구 없는 아동 비율

가. 정의

만 3-8세 아동 중 친구가 없는 아동의 비율

나. 해설

2018년 조사를 기준으로 만 3-8세 조사 대상 아동의 3.2%는 친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친구 없는 아동 비율은 여자(1.7%)보다 남자(4.5%)가 높았으며, 만 6-8세 아동(1.2%)보다 만 3-5세 아동(4.7%)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본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가구 아동(5.2%)이 일반 가구 아동(3.1%)보다 친구 없는 비율이 높았고, 가구 유형별로는 한부모·조손가족의 아동(5.1%)이 양부모가족 아동(3.0%)보다 친구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55〉 성·연령·표본·가구유형별 친구 없는 아동 비율(2018)

(%)

전체	성별		연령별		표본별		가구 유형별	
	남자	여자	만 3-5세	만 6-8세	일반 가구	수급 가구	양부모가족	한부모·조손가족
3.2	4.5	1.7	4.7	1.2	3.1	5.2	3.0	5.1

주: 1) 친구가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2)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3) 2018년 조사표본은 일반가구 아동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수급가구 아동으로 구분됨.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067&conn_path=I2에서 2019년 12월 10일 인출.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

가. 정의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개인이 타인과 사회와의 접촉이 거의 없거나 완전히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적 고립감은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을 의미함. 여기서는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와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도'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나. 해설

고립감을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와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도로 측정한 결과, 만 20~29세 청년들 중 외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3.6%로 나타났고,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도는 9.9%로 나타났다.

〈표 3-156〉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의 비율(2018)

(%)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③ + ④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③ + ④
전체	45.5	40.9	12.4	1.2	13.6	48.5	41.5	8.7	1.2	9.9

주: 1)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와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8). 「사회통합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5& conn_path=I3에서 2019년 11월 13일 인출.

사회신뢰도가 높은 아동·청소년의 비율

가. 정의

사회신뢰도가 높은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믿을 수 없다(0) ~ 매우 믿을 수 있다(10)'의 11점 척도 중 7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나. 해설

사회신뢰도를 우리 사회가 믿을 만하다(7점 이상 응답)라고 응답한 비율로 확인한 결과, 전체의 약 30%가 우리 사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사회를 신뢰하는 비율은 만 13-18세 집단이 34.6%로 만 19-24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의 사회신뢰도(31.0%)가 여자 청소년(29.7%)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를 신뢰하는 비율이 높아지다가 가장 고소득집단(600만원 이상)에서는 사회신뢰도가 하락하였다. 사회신뢰도를 지역규모별로 비교하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양육자의 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 중졸 이하인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57〉 사회신뢰도가 높은 아동·청소년의 비율(2017)

(%)

		7점 이상 응답률
전체		30.3
연령별	만 9~12세	-
	만 13~18세	34.6
	만 19~24세	27.0
성별	남성	31.0
	여성	29.7
지역규모별	대도시	34.2
	중소도시	27.5
	농산어촌	26.7
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18.3
	100 ~ 200만원 미만	19.6
	200 ~ 300만원 미만	25.1
	300 ~ 400만원 미만	32.0
	400 ~ 500만원 미만	31.4
	500 ~ 600만원 미만	33.0
	600만원 이상	29.7
주양육자학력별	초졸 이하	21.9
	중졸	23.9
	고졸	30.9
	대졸 이상	30.4

주: 1)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7점 이상(0-10범주)으로 응답한 비율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 _3020300563&conn_path=I3 에서 2019년 12월 5일 인출.

7. 주관적 웰빙 영역

주관적 웰빙 영역 개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한 영역이다. 주관적 웰빙은 사회과학 영역에서 주관적 안녕감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 대중적으로는 행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주관적 웰빙을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그리고 삶의 가치와 의미 등이다.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 삶에서 중요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등 3개 지표가 포함되었다. 긍정/부정 감정은 긍정적 정서(행복감)와 부정적 정서(근심, 걱정, 우울)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삶의 가치와 의미는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지표가 포함되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서 6.57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었다. 더욱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빈곤한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특히 더 낮게 나타났다. 어제를 기준으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측정한 문항에서의 평균은 10점 만점에서 7.39점이었고, 근심과 걱정은 3.2점, 우울은 2.5점이었다. 삶의 가치와 의미를 묻는 문항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균점수는 10점 만점에 6.9점이었다.

〈표 3-158〉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도, 긍정/부정 감정, 삶의 가치와 의미)

하위영역	지표	출처
삶의 만족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별 만족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긍정·부정 감정	긍정적 정서(행복감)	아동종합실태조사
	부정적 정서(근심, 걱정, 우울)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삶의 가치와 의미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삶의 만족도

아동·청소년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및 삶에서 중요한 영역별 만족도

가. 정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단일문항의 캔트릴의 사다리(Cantril's ladder) 문항으로 최상의 삶(10점)과 최악의 삶(0점) 중에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 영역별 삶의 만족도는 아동·청소년 삶의 중요한 영역들(건강, 이루어온 것들, 개인적 관계, 안전, 생활수준, 미래 안정성) 각각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에서 '매우 만족한다(10점)'로 응답한 내용의 각 영역별 만족도의 평균값

나. 해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나타났다. 다른 경제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편이었다. 하지만 소득, 빈곤 지위, 가구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다.

영역별 삶의 만족도는 건강, 개인적 관계, 안전, 이루어온 것들(성취), 미래 안정성, 생활수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는 개인적 관계를 제외한 5개 영역에서 남자의 만족도 평균이 높았으나, 모든 영역에서 성별 간 차이는 근소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모든 영역의 만족도에서 만 9-11세의 평균이 만 12-17세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일반 가정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모든 영역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정 아동·청소년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높은 소득계층이 일관되게 하위 소득계층들 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건강 영역을 제외하면, 모든 영역에서 중위소득 150% 이상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가장 높은 수준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간의 비교에서는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모든 영역에서 보다 높았으며, 지역별 비교에서는 농어촌 아동·청소년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크지 않았으나, 생활수준에서만 맞벌이 가정 아동·청소년의 만족도가 보다 높았고 다른 영역들에서는 외벌이 가정 아동·청소년의 만족도가 높았다.

〈표 3-159〉 전반적 삶의 만족도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2018)

(점)

		전반적 삶의 만족도	삶에서 중요한 영역별 만족도					
			건강	성취	관계	안전	생활 수준	미래 안정성
전체	소계	6.57	7.62	6.92	7.26	7.07	6.48	6.71
아동 성별	남자	6.56	7.68	6.95	7.24	7.14	6.50	6.77
	여자	6.58	7.56	6.90	7.27	7.00	6.46	6.64
아동 연령별	9-11세	6.80	7.77	7.12	7.40	7.21	6.65	6.97
	12-17세	6.45	7.55	6.82	7.18	7.00	6.40	6.58
표본별	일반	6.65	7.66	6.97	7.29	7.11	6.58	6.76
	수급	5.16	7.01	6.13	6.71	6.50	4.78	5.95
소득계층별	중위소득 50% 미만	6.03	7.30	6.69	7.10	6.92	5.71	6.52
	중위소득 50~100% 미만	6.52	7.61	6.96	7.28	7.10	6.45	6.87
	중위소득 100~150% 미만	6.60	7.73	6.94	7.25	7.05	6.46	6.61
	중위소득 150% 이상	6.89	7.68	7.06	7.35	7.21	7.06	6.83
	무응답	6.37	5.95	5.49	6.76	6.33	6.12	5.95
지역별	대도시	6.59	7.56	6.94	7.23	7.00	6.41	6.76
	중소도시	6.53	7.65	6.89	7.24	7.11	6.53	6.61
	농어촌	6.69	7.84	7.07	7.53	7.31	6.58	7.13
가구유형별	양부모	6.64	7.66	6.96	7.27	7.09	6.57	6.74
	한부모,조손	5.64	7.19	6.43	7.07	6.89	5.36	6.40
맞벌이 여부별	외벌이	6.51	7.76	6.98	7.29	7.15	6.48	6.72
	맞벌이	6.66	7.51	6.90	7.23	7.02	6.54	6.71
	기타	5.54	7.39	6.20	7.17	6.56	5.09	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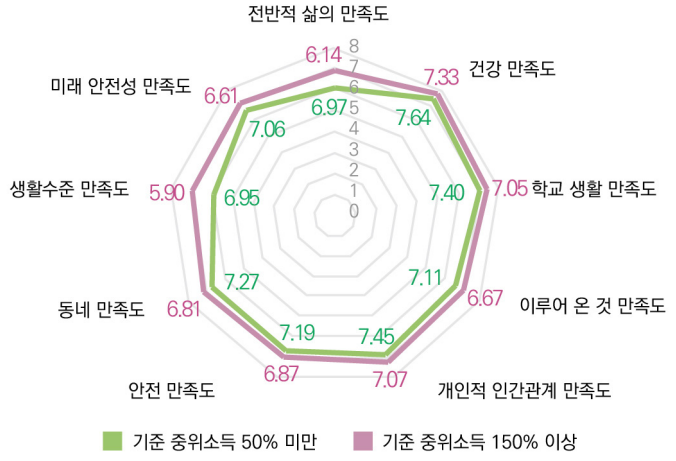
주: 1)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최악의 상태(0점)~최상의 상태(10점)까지의 11점 척도 평균점수, 영역별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의 11점 척도 평균점수임.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 _A158&conn_path=I3에서 2019년 12월 1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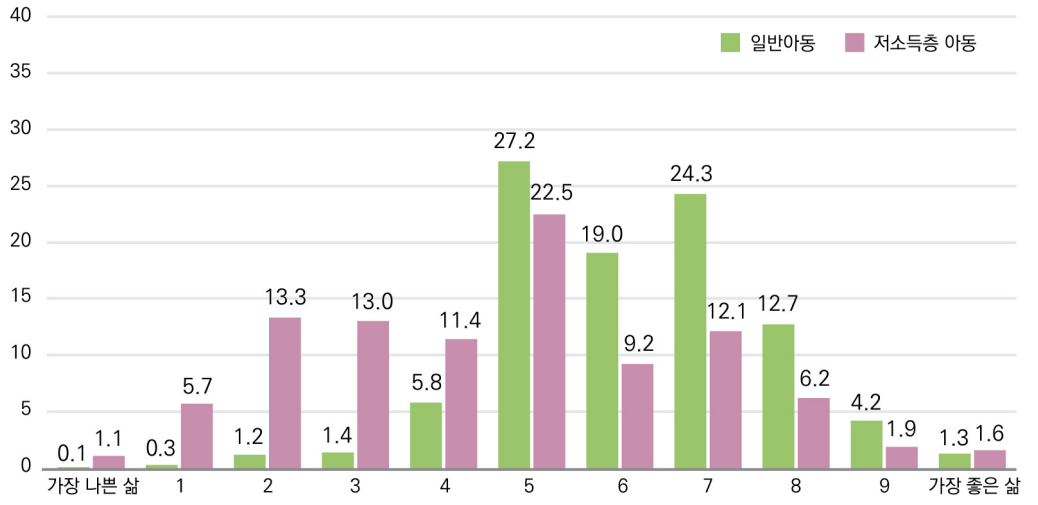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그림 3-87]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연령별, 성별 차이(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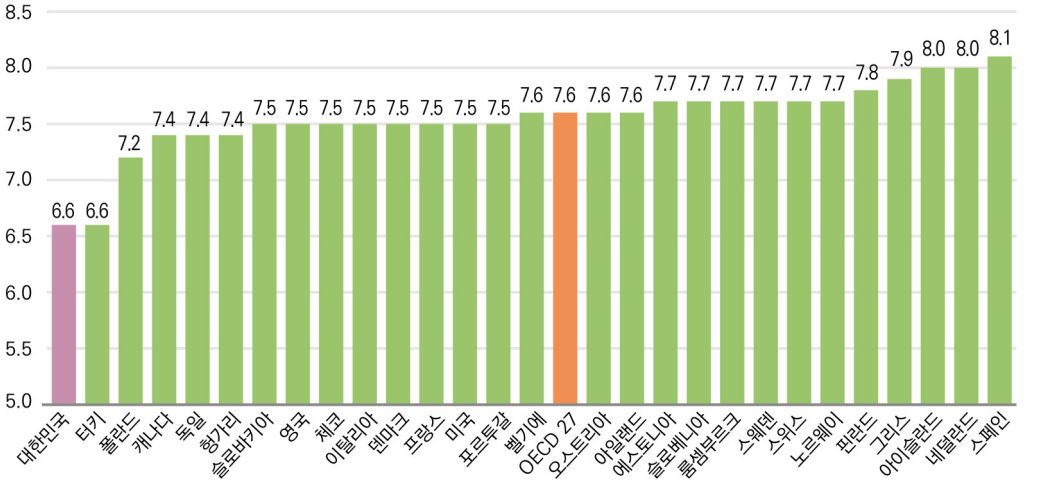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그림 3-88]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소득집단별 차이(2018)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그림 3-89] 가구소득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항목별 응답 차이(2018)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그림 3-90] 아동·청소년 행복도 국제 비교 결과(2018)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가. 정의

자신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값의 평균

나. 해설

전반적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1점으로 자기 자신의 전반적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성별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도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반적 만족도가 확인되었다. 자신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지역규모, 가구소득, 주양육자의 학력에 따라 구분된 집단들 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60〉 자신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2017)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0.7	9.9	72.1	17.2	3.1
연령별	만 9~12세	0.5	4.2	65.8	29.5	3.2
	만 13~18세	0.4	10.0	71.2	18.3	3.1
	만 19~24세	1.1	12.2	75.6	11.1	3.0
성별	남성	0.8	9.6	72.0	17.6	3.1
	여성	0.6	10.2	72.4	16.8	3.1
지역규모별	대도시	0.6	9.2	75.9	14.3	3.0
	중소도시	0.5	11.6	70.6	17.4	3.1
	농산어촌	1.8	7.7	66.0	24.5	3.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의 항목별 비율 및 평균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0300544&conn_path=I2에서 2021년 1월 28일 인출.

긍정·부정 감정

긍정적 정서(행복감)

가. 정의

감정(emotion) 혹은 정서(affect)는 인지적 측면의 삶의 만족도와 함께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구분됨. 긍정적 감정은 즐거움, 편안, 재미, 행복과 같은 감정 등이고, 부정적 감정은 우울함, 짜증, 분노와 같은 감정 등임. 단, 국가승인통계 조사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에 대한 지표가 부족하여 여기서는 일부의 감정들에 대해서만 보고하였음.

긍정적 정서 중 행복감은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점)'에서 '매우 행복했다(10점)'로 응답한 값의 평균

나. 해설

전체 아동·청소년의 행복감의 평균은 7.39점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대에 따라서는 만 9-11세의 행복감 평균이 7.69점으로 만 12-17세의 행복감 평균 7.24점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거주지역이나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환경이나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아동·청소년의 행복감 평균은 6.50점으로 일반 가정 아동·청소년의 행복감 평균 7.44점에 비해 1점 가까이 낮게 나타났으며,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중위소득 50% 미만 가정의 아동·청소년 행복감 평균이 가장 낮았다. 또한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아동·청소년의 행복감은 6.92점으로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행복감 평균 7.43점에 비해 낮았다.

〈표 3-161〉 긍정적 정서(행복감) (2018)

(점)

		행복감
전체	소계	7.39
아동성별	남자	7.39
	여자	7.39
연령별	9-11세	7.69
	12-17세	7.24
표본별	일반	7.44
	수급	6.50
소득계층별	중위소득 50% 미만	7.00
	중위소득 50~100% 미만	7.47
	중위소득 100~150% 미만	7.40
	중위소득 150% 이상	7.48
	무응답	6.94
지역별	대도시	7.38
	중소도시	7.37
	농어촌	7.64
가구유형별	양부모	7.43
	한부모,조손	6.92
맞벌이여부별	외벌이	7.44
	맞벌이	7.37
	기타	6.80

주: 1)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점)'에서 '매우 행복했다(10점)'으로 응답한 값의 평균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 _2018_A159&conn_path=I3 에서 2019년 12월 7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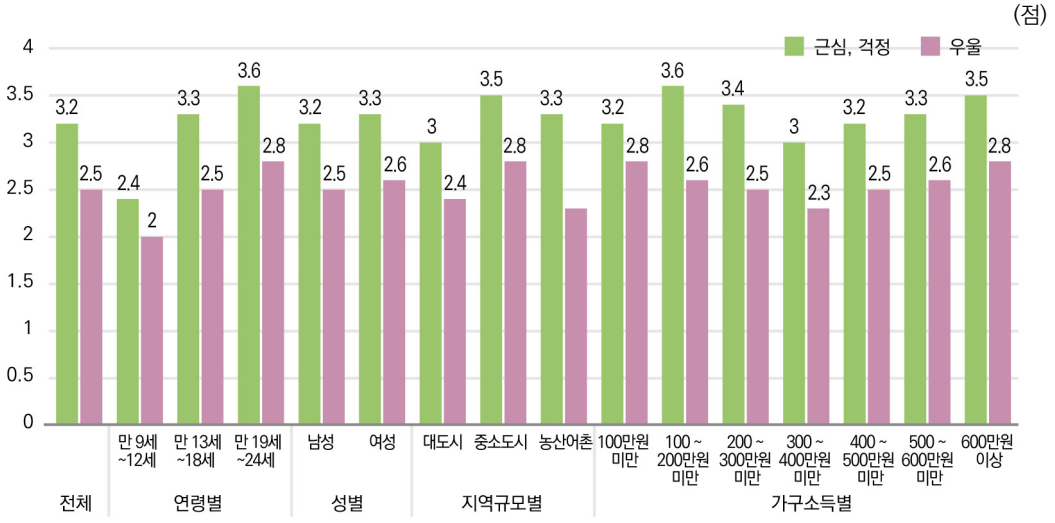
부정적 정서(근심, 걱정, 우울)

가. 정의

조사 당시의 어제를 기준 시점으로 두 가지 유형의 부정적 정서('근심, 걱정', '우울')를 얼마나 경험했는지 전혀 하지 않았다(0)~매우 많이 했다(10)로 응답한 인구집단별 평균을 보여줌.

나. 해설

근심, 걱정과 우울을 경험한 수준의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 중 각각 3.2점과 2.5점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정적 정서의 성별 격차는 크지 않았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정서의 경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의 부정적 정서 경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주양육자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 고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0300538&conn_path=I3 에서 2019년 12월 7일 인출.

[그림 3-91] 개인 특성에 따른 부정적 정서(근심/걱정, 우울) 점수 비교(2017)

〈표 3-162〉 부정적 정서 경험 정도(근심, 걱정, 우울) (2017)

(점)

		근심, 걱정	우울
전체		3.2	2.5
연령별	만9~12세	2.4	2.0
	만13~18세	3.3	2.5
	만19~24세	3.6	2.8
성별	남성	3.2	2.5
	여성	3.3	2.6
지역규모별	대도시	3.0	2.4
	중소도시	3.5	2.8
	농산어촌	3.3	2.3
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3.2	2.8
	100 ~ 200만원 미만	3.6	2.6
	200 ~ 300만원 미만	3.4	2.5
	300 ~ 400만원 미만	3.0	2.3
	400 ~ 500만원 미만	3.2	2.5
	500 ~ 600만원 미만	3.3	2.6
	600만원 이상	3.5	2.8
주양육자학력별	초졸 이하	3.7	2.8
	중졸	3.7	2.9
	고졸	3.2	2.4
	대졸 이상	3.3	2.6

주: 1) '전혀 하지 않았다(0) ~ 매우 많이 했다(10)'의 평균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0300538&conn_path=I3 에서 2019년 12월 7일 인출.

삶의 가치와 의미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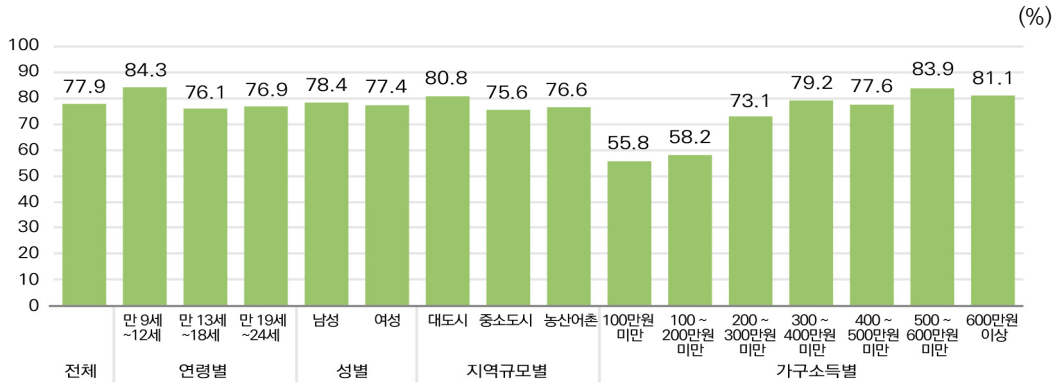
가. 정의

한 인간이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상태(well-being)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객관적 측면(objective well-being)과 주관적 측면(subjective well-being)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주관적 측면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끼며 부정적 감정을 덜 느끼는 상태로 파악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삶에 대해 목적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임. 전자를 쾌락주의적 접근(hedonic approach)라고 부르고, 후자를 자기실현적 접근(eudaimonic approach)이라고 부름. 자기실현적 접근은 좋은 삶(good life)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 근거함.

여기서는 자기실현적 접근으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함. 이 문항은 학생의 경우 이 문항의 일을 학교생활, 숙제, 공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응답은 '전혀 가치 없다(0점)'에서 '매우 가치 있다(10점)'의 11점 척도임. 여기서는 11점 척도의 평균값과 10점 만점 중 6점 이상으로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을 제시하였음.

나. 해설

전체 아동·청소년 중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다고 응답한 점수의 평균은 6.9점이었고, 10점 만점 중 6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한 청소년의 비율은 77.9%였다. 6점 이상 응답 비율을 중심으로 보면, 연령대에 따른 비교에서 만 9-12세 집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비교에서는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신이 하는 일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100만원 미만에서는 55.8%가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600만원 이상에서는 81.1%가 가치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출처: 여성가족부(2017),「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0300538&conn_path=I3 에서 2019년 12월 30일 인출.

[그림 3-92] 자신의 일이 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2017)

〈표 3-163〉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2017)

(점/%)

		평균	자신의 일이 가치 있다고 응답한 비율 (6점 이상 응답 비율)
전체		6.9	77.9
연령별	만9~12세	7.3	84.3
	만13~18세	6.8	76.1
	만19~24세	6.7	76.9
성별	남성	6.9	78.4
	여성	6.8	77.4
지역규모별	대도시	7.0	80.8
	중소도시	6.7	75.6
	농산어촌	6.9	76.6
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6.0	55.8
	100 ~ 200만원 미만	6.3	58.2
	200 ~ 300만원 미만	6.7	73.1
	300 ~ 400만원 미만	6.9	79.2
	400 ~ 500만원 미만	6.8	77.6
	500 ~ 600만원 미만	7.0	83.9
	600만원 이상	7.0	81.1
주양육자학력별	초졸 이하	6.6	78.8
	중졸	6.5	70.5
	고졸	6.8	77.5
	대졸 이상	6.9	78.8

주: 1)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전혀 가치 없다(0점)'에서 '매우 가치 있다(10점)'의 11점 척도로 측정한 값으로, 11점 척도의 평균점수와 11점 척도 중 6점 이상으로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을 함께 제시하였음.

출처: 여성가족부(2017),「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0300538&conn_path=I3 에서 2019년 12월 30일 인출.

04

한국 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심층보고서

도남희(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진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구자연(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전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자(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혜진(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백승주(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박미선(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조안(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경훈(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최창용(위스컨신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심층보고서 개요[12)]

이 장은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에서는 각 영역별로 나열된 지표들의 결과를 소개하였다면, 여기서는 이러한 지표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장 역시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하며,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집단 간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이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올해 심층보고서의 주제는 총 5가지이다. 첫째는 영유아의 영양과 건강실태, 둘째는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실태 및 추이, 셋째는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실태, 네 번째는 아동·청소년의 주거실태와 특징, 다섯째는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 실태 및 추이이다. 심층보고서의 주제는 각 협동연구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선정한 후 집필진을 섭외하여 작성하였다. 작성된 원고는 각각 2명의 전문가에게 감수를 1-2회씩 받았고, 지표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치 확인 작업을 거쳐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삶의 질 지표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보고는 이 연구 보고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삶의 질의 수준을 보여주고,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동·청소년 삶의 질이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이러한 변화에서 취약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12) 이 장의 내용은 2020년 12월 1일 개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36회 청소년정책포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 온라인 웨비나(Webinar) 에서 발표되었고, 이 내용을 토론과 감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이 토론회에서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신나리 교수(충북대학교), 김미숙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장희선 박사(굿네이버스)께 감사드림.

제1절 영유아의 영양과 건강실태[13)]

- 영유아기는 신체적 성장이 빠른 시기이며 영유아기의 신장과 체중 등의 신체 발달에는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영양과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 1일 에너지 섭취량은 영아기는 약간 증가, 유아기는 감소하고 있다.
- 임신 시 예정일보다 3주일 정도 먼저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를 조산이며,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를 조산아라고 하는데 조산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전체 출생아 중 출생체중이 2.5㎏ 미만 출생아의 비율을 의미하는 저체중 출생아율은 2000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 영유아 건강검진율은 7차까지 증가세이며 예방 접종율도 생후 72개월의 완전 접종률 외는 생후 12개월과 생후 24개월 및 생후 36개월 완전 접종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아토피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천식 유병률이 높고 선천성 심장질환은 1% 내외로 나타났다.

1. 배경

영아기는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이다. 출생 후 1년간은 신체와 뇌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성장의 급등기라고 한다, 두 돌 무렵에는 신장은 출생 시의 75% 증가하고 체중은 출생 시의 4배가 된다. 유아기는 영아기만큼은 아니지만, 신장과 체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매년 신장은 5~7cm, 체중은 2~3kg씩 증가한다(Laura E. Berk, 2015: 135). 이러한 영유아기의 신장과 체중 등의 신체 발달에는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영양과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유아기부터는 성장 속도가 약간 느려져서 먹는 양도 줄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골격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며 특히 칼슘 등 다른 무기질, 철분, 비타민 C,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또한 영아기의 두뇌 발달은 생후 어느 시기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지므로 두뇌 발달의 민감기라고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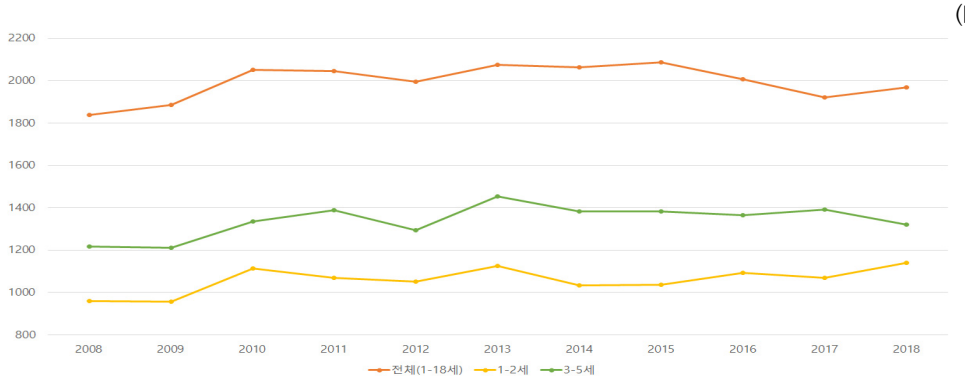
13) 이 원고는 도남희 연구위원·박진아 연구위원·구자연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신원선 교수(서울대)·문진수 교수(한양대)가 감수하였음.

이 시기의 영양 결핍은 두뇌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유아기에도 두뇌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두뇌 크기는 유아기 말에 성인의 90%까지 성장한다(Laura E. Berk, 2015: 150). 그러므로 영유아기의 영양과 건강은 신체 발달의 주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 영유아[14]의 영양 실태 및 특성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인체는 에너지 섭취량과 소모량의 균형을 통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섭취량이 부족하면 체중이 감소하고, 소비량에 비해 섭취량이 많으면 잉여 에너지가 체지방의 형태로 저장된다. 에너지 섭취량은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 기준 체위에 의해 설정되는데 2015년 영양소 섭취 기준은 2008-2012년 5년간의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2020년에 영양소 섭취기준이 수정되었으나 영아는 예전 것으로 사용하며(p. 24) 2017년에 새로 발표된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를 사용하였다.

식사를 통한 에너지 1일 섭취량은 만 1-2세는 1,147.2kcal, 만 3-5세가 1,395.9kcal로 제시되었다(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8: 34). 한편 국민영양조사(2018)에서 나타난 에너지 1일 섭취량을 살펴보면, 전체 연령에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섭취량이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2015년 이후로 약간 감소세에 있다가 2018년에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에너지 1일 섭취량은 1963.44kcal로 나타났다. 먼저 만 1-2세의 에너지 섭취량을 볼 때 2018년 1140.65kcal 로서 증가세에 있고 만 3-5세의 경우는 약간 감소된 1321.24kcal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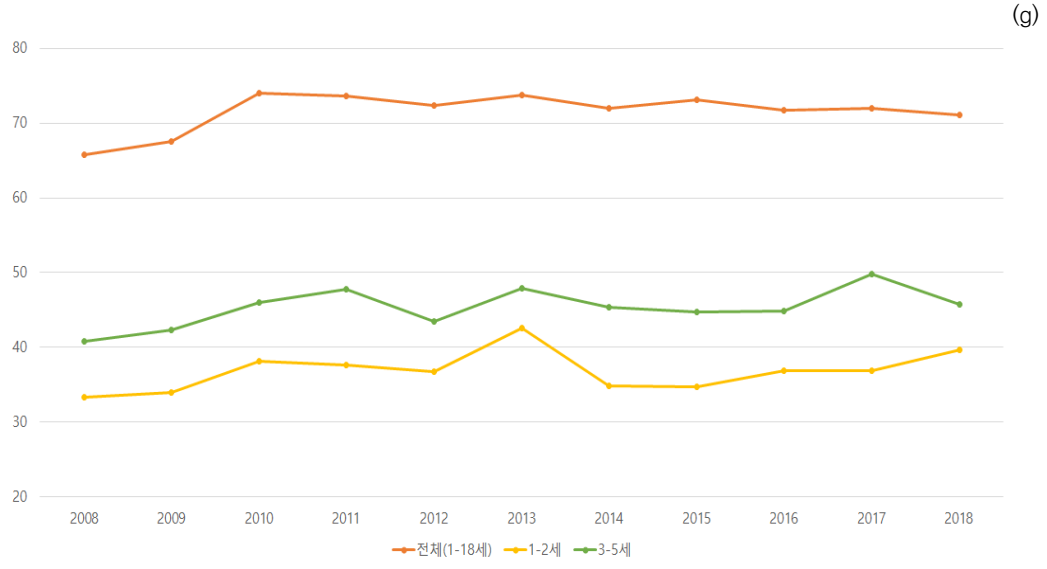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양소별 섭취량, https://www.khidi.or.kr/에서 2020년 11월 20일 인출.

[그림 4-1] 에너지 1일 섭취량 추이, 2008-2018

14) 본 원고에서 영유아기는 출생 후부터 만 5세까지를 의미하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만 1-2세, 만 3-5세를 중심으로 서술함.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복합분자로서, 인체의 정상적인 성장과 생리적 기능 및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아미노산과 질소화합물의 공급원이다. 또한 성장기에 단백질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지연 및 뇌기능 감퇴, 성 성숙의 지연 등이 나타난다. 식사를 통한 에너지 1일 섭취량은 만 1-2세가 1,147.2kcal, 만 3-5세가 1,395.9kcal라고 할 때 만 1-2세는 39.1g, 만 3-5세는 44.7g을 단백질 섭취량으로 제안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8: 35). 1-18세의 전반적인 단백질 1일 섭취량은 약 71g 정도로 나타났고 2014년까지는 증가하였다가 약간 감소추세이다. 만 1-2세는 39.59g, 만 3-5세는 45.73g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적정 섭취량과 유사하면 만 3-5세가 약간 더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백질의 에너지가 g당 4kcal임을 감안할 때 만 1-2세는 158.364kcal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만 3-5세는 182.924kcal를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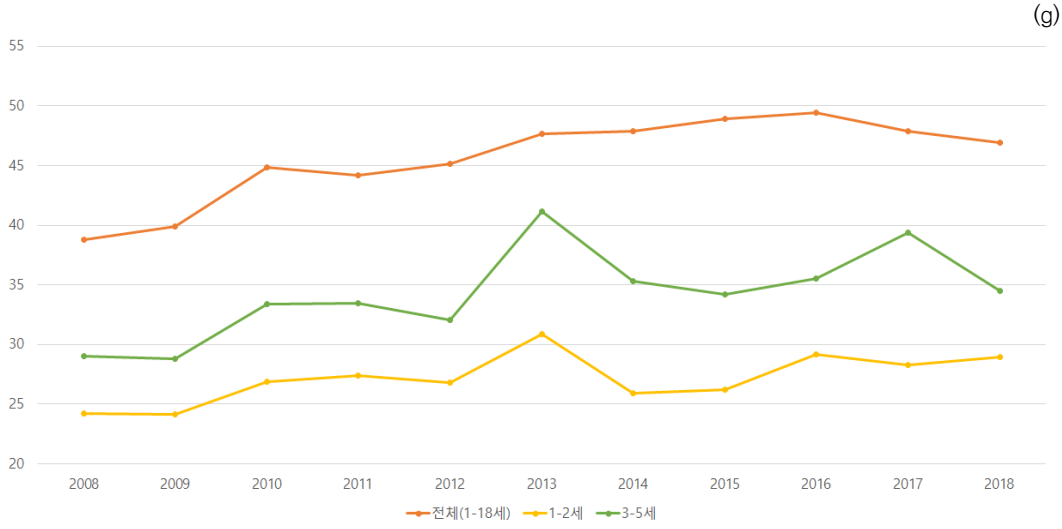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양소별 섭취량, https://www.khidi.or.kr/에서 2020년 11월 20일 인출.

[그림 4-2] 단백질 1일 섭취량 추이, 2008-2018

지방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및 지방산으로 구성되며, 인체에 에너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포막의 구성성분이 되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준다. 체내 필요에 따라 다른 지방산으로 전환되어 면역 작용이나 다양한 화학적 메신저로 작용한다. 한편 지방의 필수지방산이 결핍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며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기능이 손상될 수 있으며, 특히 성장기에는 성장지연이 나타난다.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고열량인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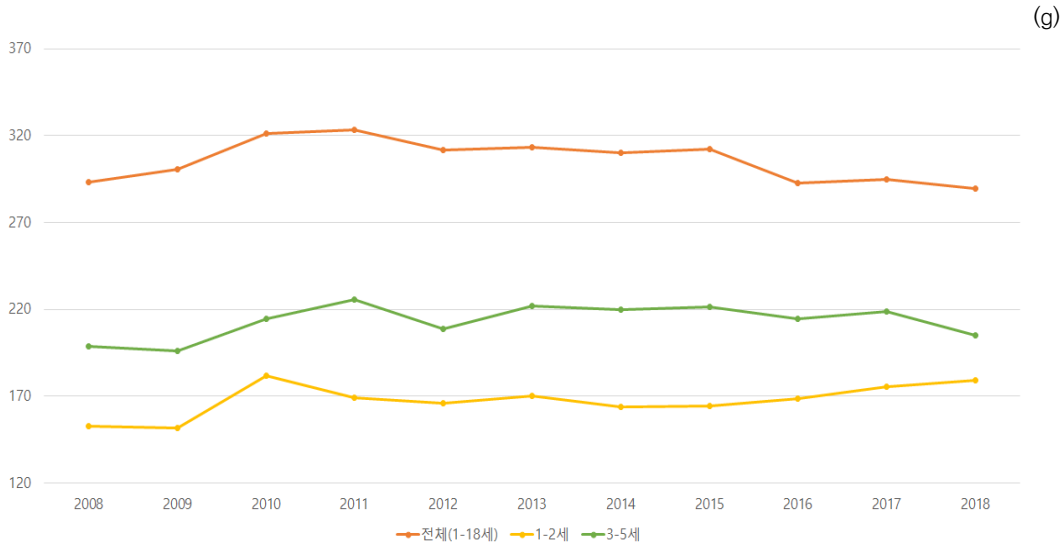
의 1일 섭취량은 만 1-2세는 전체 에너지의 20-35%, 만 3-5세는 15-30%로 25g을 1일 충분 섭취량으로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2015). 전반적으로 1-18세 연령에서 하루에 지방은 46.93g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422.37kcal를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만 1-2세는 28.97g으로서 260.73kcal를 섭취하는 것으로 약간 증가세에 있고 만 3-5세는 34.48g이고 이전 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양소별 섭취량, https://www.khidi.or.kr/에서 2020년 11월 20일 인출.

[그림 4-3] 지방 1일 섭취량 추이, 2008-2018

탄수화물은 1g 당 4kcal의 에너지를 내는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탄수화물은 주로 곡류, 감자류, 과일류, 당류 등 식물성 식품을 통해 섭취한다. 탄수화물 1일 섭취량은 전체 에너지의 55-65%를 적정비율로 권장하였다(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2015). 탄수화물 1일 섭취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나타나 2018년에는 최근 가장 낮은 비율로 289.65g을 나타내어 1일 1158.6kcal를 의미하였다. 한편 만 1-2세의 탄수화물 1일 섭취량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로 보이며 2018년 179.23g으로 716.92kcal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 3-5세의 탄수화물 1일 섭취량은 205.28g으로 상대적으로 이전 년도에 비해 섭취량이 감소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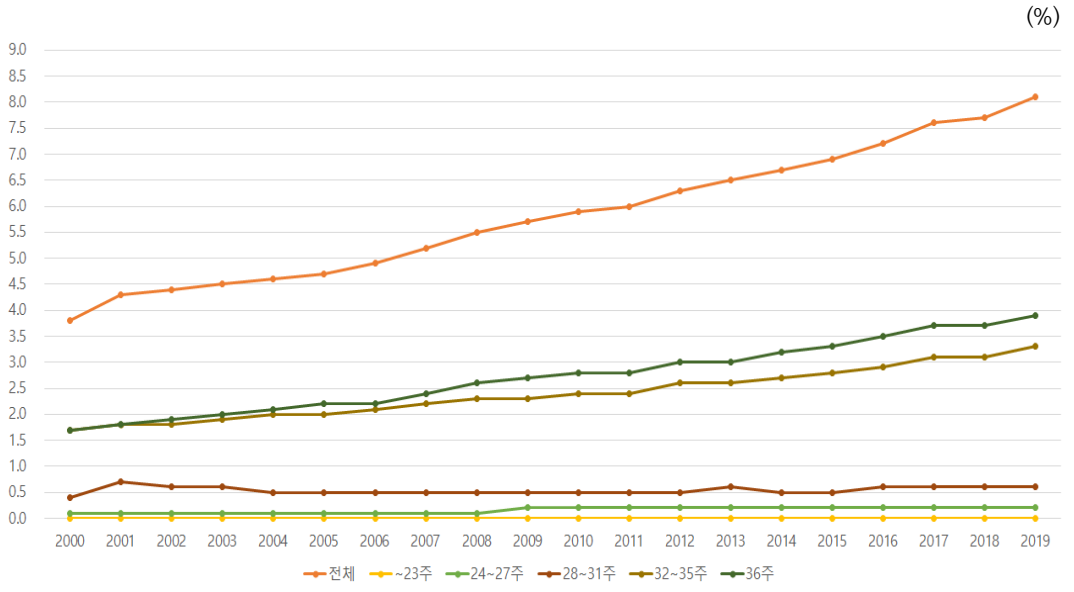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양소별 섭취량, https://www.khidi.or.kr/에서 2020년 11월 20일 인출.

[그림 4-4] 탄수화물 1일 섭취량 추이,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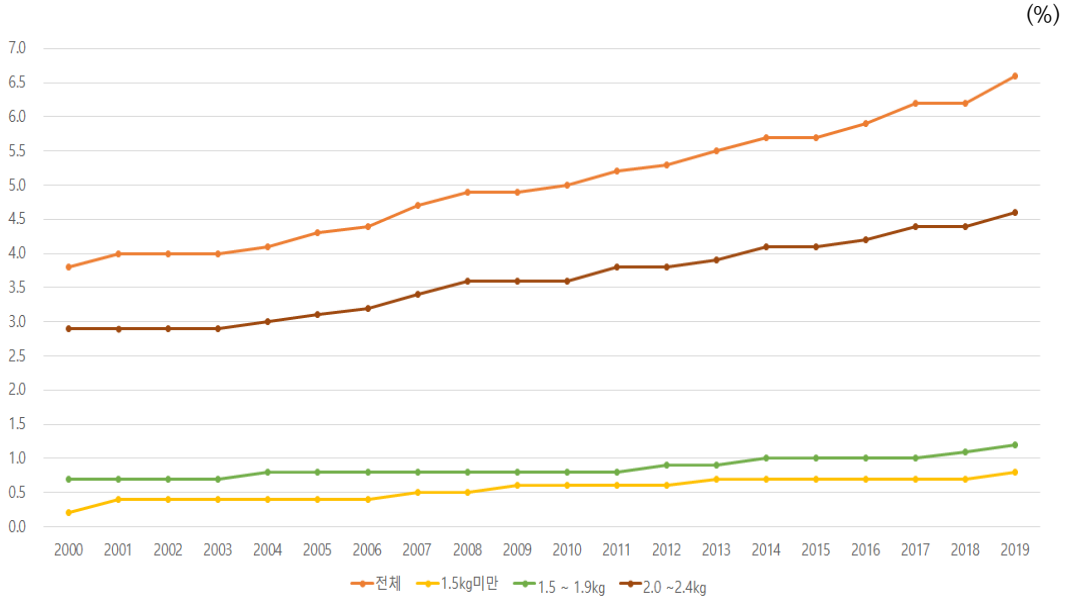
3. 영유아의 건강 실태 및 특성

임신기간은 보통 38주인데 임신 28주에서 37주 사이, 예정일보다 3주일 정도 먼저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를 조산이라고 하며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조산아라고 한다. 조산아들은 저체중이나 불안전한 정서적 결속의 위험이 있어 양육자의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조산아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파른 증가세에 있다. 2000년도에 3.8%, 2010년 5.9%, 2019년에는 8.1%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23주와 24-27주 및 28-31주 같은 아주 이른 시기의 조산아율은 정체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면, 32주에서 36주에 이르는 조산아 비율은 약간 큰 폭으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의 37주에서 42주 사이의 대부분 태어난다고 볼 때 향후 아이의 건강에 불리한 신호일 수 있다.



주: 조산비율 = 37주 미만 출생아 수 / 한해 출생한 출생아 수 * 100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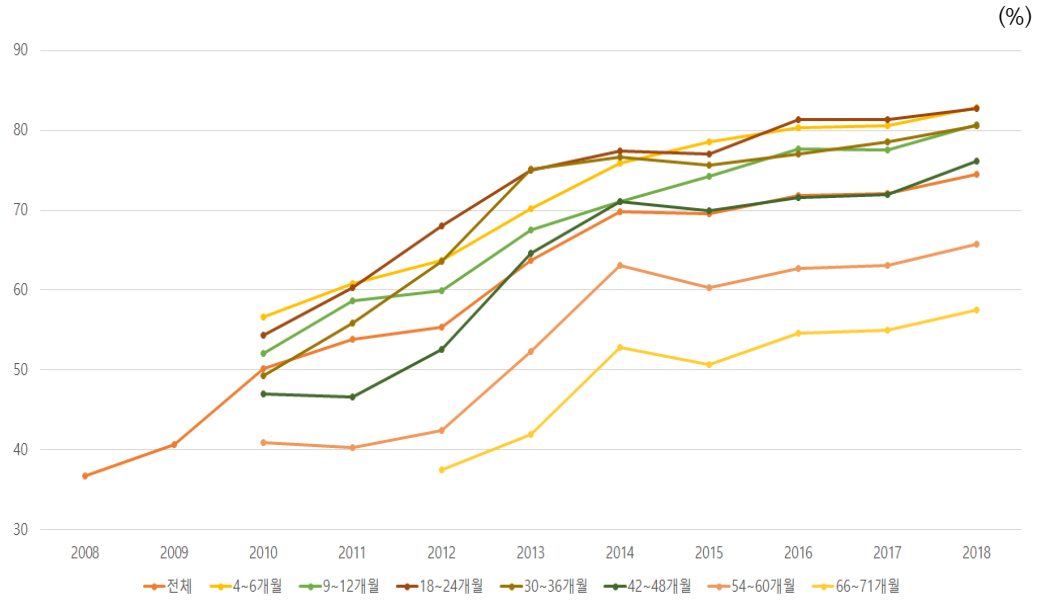
[그림 4-5] 조산아율 추이: 2000-2019



주: 저체중 출산 비율 = 체중 2.5㎏ 미만의 출생아 수 / 한 해 동안 출생한 출생아 수 * 10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4-6] 저체중 출생아율, 2000-2019

조산아가 가질 수 있는 위험은 저체중과 관련이 있다. 저체중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조산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정상적인 예정일에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체중인 미숙아이다. 전체 출생아 중 출생체중이 2.5㎏ 미만 출생아의 비율을 의미하는 저체중 출생아율은 2000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그림 4-6]를 보면 2000년 3.8%였던 저체중 출생아율은 2010년 5.0%, 2017년 6.2%, 2019년 6.6%로 증가하였다. 저체중 출생은 높은 사망위험과 더불어 이후 호흡곤란, 신체 발달, 이후 학습 문제와 정서적 문제를 가질 소지가 많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주: 1) 2009년 건강검진통계연보 발간 시작.
2) 2008년과 2009년의 통계는 영유아의나이(개월수) 범주가 달라 표에 제시가 어려움(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24&vw_cd=MT_ZTITLE&list_id=350_35007_A00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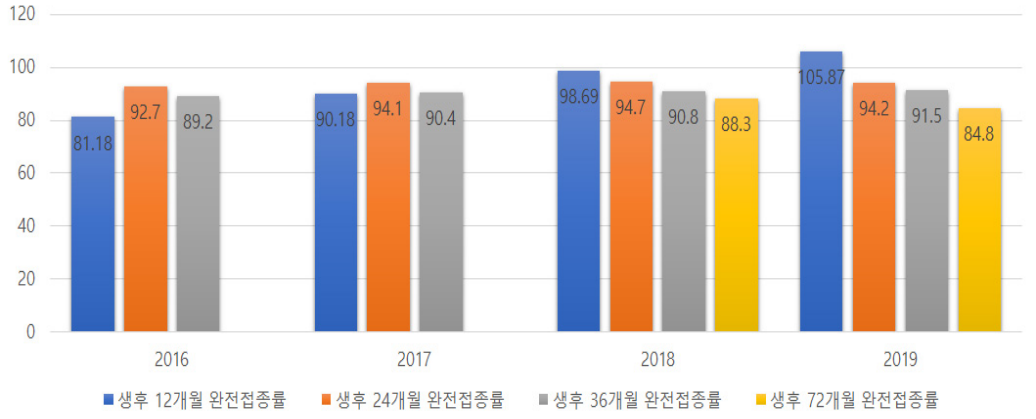
[그림 4-7] 영유아 건강검진율 추이: 2000-2019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하고자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53).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계획 이래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후 66-71개월까지 건강검진에 추가하여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중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을 예방하고자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건강교육) 21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을 7차에 걸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은 특히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하여 수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54~56).

한편 예방접종은 6세 이하와 12세 어린이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면역력을 키워주고자 국가가 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예방접종율의 경향은 다음과 같다. 생후 12개월과 생후 24개월 및 생후 36개월 완전접종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생후 72개월의 완전접종률은 낮아지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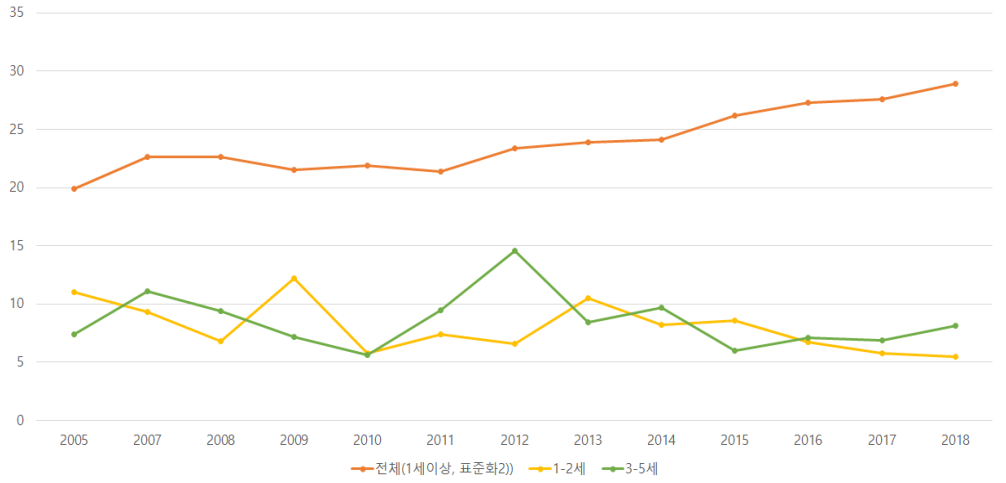


주: 1) 본 지표는 2013, 2015, 2017, 2018년도에 작성되었으나, 2013년과 2015년도 보고서에는 아동 개월별 완전 접종률을 집계하지 않고 각 백신별 완전접종률만을 보여주므로 본 지표로 작성할 수 없었음.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예방접종률현황」.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93N_171&vw_cd=MT_ZTITLE&list_id=D1_A01_A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그림 4-8] 예방접종률그래프: 2016-2019

아침 식사 결식률은 조사 1일 전 아침 식사를 결식한 비율을 의미하는데, 전반적으로 영유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를 보면 만 1~2세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2005년 11.0%에서 2008년 6.8%, 2009년 12.2%, 2012년 6.6%, 2013년 10.5%까지 증감을 반복하다 2016년 6.7%, 2017년 5.8%, 2018년 5.5%로 감소세에 있다. 만 3~5세의 아침 식사 결식률도 2005년 7.4%에서 2018년 8.1%까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5.6%까지 감소했던 만 3~5세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2012년 14.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 6.0%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그림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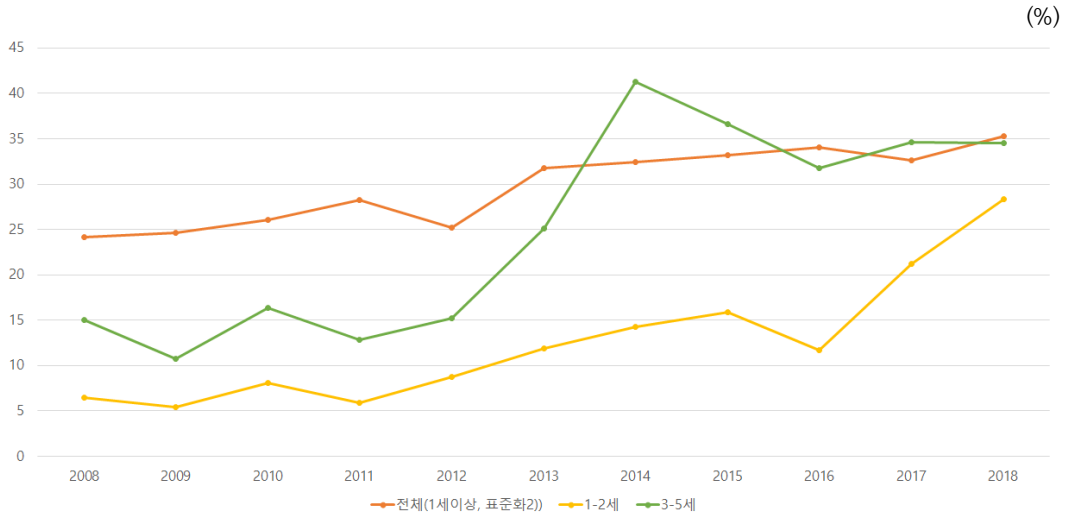
(%)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1)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II·추이, 추이표2-26, p. 162.
2) 보건복지부. 2018 국민건강통계, 추이표2-30, p. 214.

[그림 4-9] 아침 식사 결식률, 2005-2018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은 외식빈도와 관련된 것으로 만 1~2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비율이지만 증가세에 있으며 만 3~5세는 만 1~2세보다 확실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며 큰 폭의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에서 보듯이 만 1~2세의 하루 1일 이상 외식률은 2008년 6.5%에서 2015년 15.9%까지 증가하다 2016년 11.7%로 감소한 이후 2017년 21.2%로 9.5%가 상승하였다. 2018년 만 1~2세의 하루 1일 이상 외식률은 28.3%로 2008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3~5세의 하루 1일 이상 외식률은 2008년 15.0%에서 2012년 15.2%까지 증감을 반복하다 2013년 25.1%, 2014년 41.3%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36.6%, 2016년 31.8%로 감소하였다. 2018년 만 3~5세의 하루 1일 이상 외식률은 34.5%로 2008년에 비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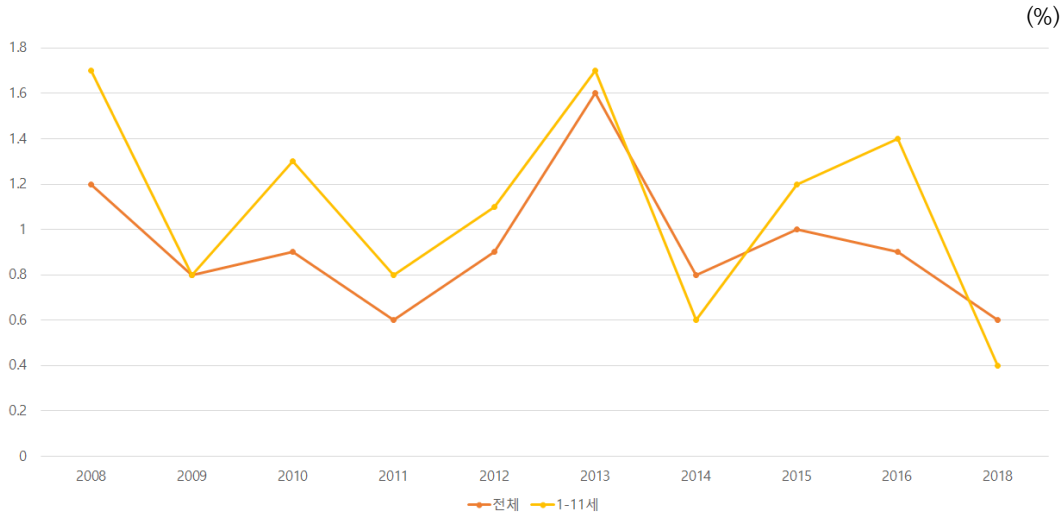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 2018 국민건강통계, 추이표 2-31, p.217

[그림 4-10] 하루 1회 이상 외식률, 2008-2018

한편, 만 1세에서 18세까지의 선천성 심장질환, 아토피 피부염, 천식의 유병률을 살펴보면,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천식 유병률이 높고 선천성 심장질환은 1% 내외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시기의 질병 유병률은 조사시점의 유병 여부보다는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이 있는 비율로 산출하는 지표로서 실제 유병률보다는 높은 수치일 수 있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선천성 심장질환은 출생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을 말하며 주로 구조적인 기형을 의미한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병으로 피부의 색깔이 정상으로 보이는 질환(비청색증형)과 피부나 입술이 파랗게 보이는 질환(청색증형)이 있다. 비청색증형 심장병에는 심실중격결손, 심방중격결손, 동맥관 개존, 폐동맥협착증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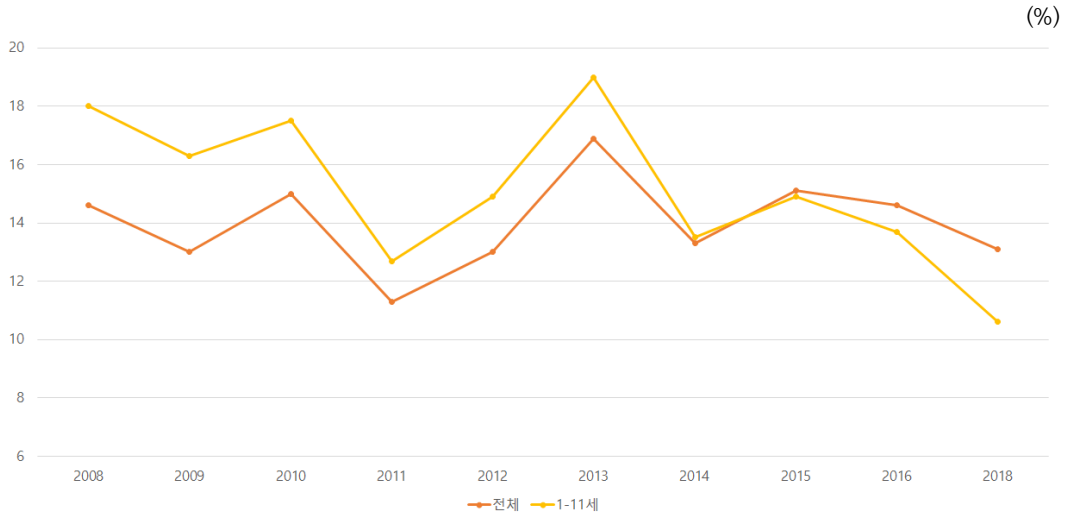
전체 만 1세에서 18세까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2013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2015년에 소폭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세에 있다. 한편 만 1세에서 11세까지의 선천성 심장질환의 추이는 전체 추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2013년에 정점을 찍고 2014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최근 증가하여 2016년에 증가했다가 2018년에 감소세에 있다.



주: 1) 선천성심장질환 유병률: 의사로부터 선천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비율
자료: 1) 보건복지부. 2008 국민건강통계, 표2-79, p.324
2) 보건복지부. 2009 국민건강통계, 표2-XIV-20, p.562
3)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표3-XV-15, p.546
4) 보건복지부. 2011 국민건강통계, 표3-XIII-16, p.516
5) 보건복지부. 2012 국민건강통계, 표3-97, p.693
6) 보건복지부. 2013 국민건강통계, 표3-92. p.707
7) 보건복지부. 2014 국민건강통계 I , 표3-54. p.289
8) 보건복지부. 2015 국민건강통계 I , 표3-60, p.323
9)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I , 표3-44, p.279

[그림 4-11] 선천성 심장질환 유병률 (만 1-11세,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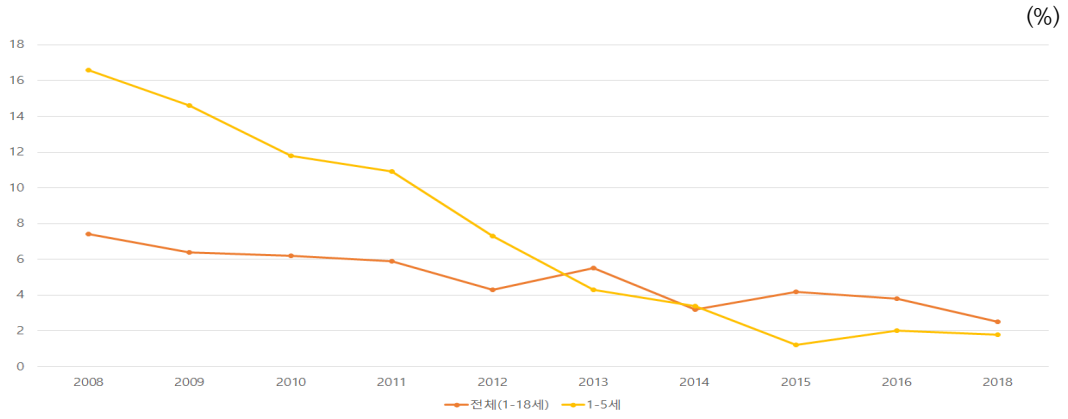
아토피 피부염은 소아에서 흔히 나타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지속될 수 있는 만성 알레르기 염증성 피부 반응이다. 가족 중에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식품이나 집먼지 진드기 같은 알레르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아토피 질환은 2011년 11.3%에서 2012년 13.0%, 2013년 16.9%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13% 수준으로 감소하고 최근 3년 동안에는 매해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1-11세의 아토피 피부염 추이는 전체 아토피피부염 추이와 유사하나 더 큰 폭으로 증가세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 1) 보건복지부. 2008 국민건강통계, 표2-79, p.324
2) 보건복지부. 2009 국민건강통계, 표2-XIV-20, p.562
3)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표3-XV-15, p.546
4) 보건복지부. 2011 국민건강통계, 표3-XIII-16, p.516
5) 보건복지부. 2012 국민건강통계, 표3-97, p.693
6) 보건복지부. 2013 국민건강통계, 표3-92. p.707
7) 보건복지부. 2014 국민건강통계 I , 표3-54. p.289
8) 보건복지부. 2015 국민건강통계 I , 표3-60, p.323
9)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I , 표3-44, p.279
10) 2018년 자료는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 데이터 분석 수치임.

[그림 4-12]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 2008-2018

천식은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염증성 기도 폐쇄 질환이다. 천식 환자는 기도의 폐쇄로 인해 숨소리가 색색거림,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증상은 낮보다 밤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천식 유병율은 아동기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천식은 2008년 7.4%의 유병율을 나타난 이후 매해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여 2018년 2.5%까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만 6세 이상의 초등이후 아동의 유병률은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만 1-5세 영유아의 천식 유병률 추이는 2008년 이후 매해 감소하여 10년 동안 14.8%p 감소하였다.



자료: 1) 보건복지부. 2008 국민건강통계, 표2-71, p.320
2) 보건복지부. 2009 국민건강통계, 표2-XIV-11, p.554
3)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표3-XV-9, p.540
4) 보건복지부. 2011 국민건강통계, 표3-XIII-9, p.509
5) 보건복지부. 2012 국민건강통계, 표3-90, p.686
6) 보건복지부. 2013 국민건강통계, 표3-85. p.700
7) 보건복지부. 2014 국민건강통계 I , 표3-48. p.283
8) 보건복지부. 2015 국민건강통계 I , 표3-54, p.317
9)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I , 표3-37, p.272
10) 2018년 자료는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 데이터 분석 수치임.

[그림 4-13] 천식 유병률, 2008-2018

4. 맺음말

영유아기의 영양과 건강은 신체 발달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기의 신장, 체중 및 두뇌 발달은 신체 발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그런데, 영유아기의 영양과 건강에 대한 통계들을 볼 때 오히려 신장과 체중의 통계 등의 자료가 대상자도 적고 안정된 시계열 자료가 적었다. 특히, 영유아기의 대표적인 건강의 바로미터인 체중도 자료가 안정되지 않아 본 원고에서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도 2007년에 이어 10년만에 2017년에 작성되었다. 향후 국민영양검사와 영유아 검진사업을 통해 신체발달의 핵심 지표인 신장과 체중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의 축적은 꼭 필요하다. 한편 영양 관련에 있어서는 2015년의 영아와 유아 관련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제시내용이 2020년의 내용이 일관되게 제시되지 않아 비교나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 각 영양소의 섭취 적정량의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조산아율과 저체중아율의 증가 추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속되는 저출산에 더하여 출생하는 아이가 조산으로 인한 저체중아가 많아진다는 것은 향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아동·청소년 건강 실태 및 추이[15)]

-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은 아동·청소년의 개인별 및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아동·청소년의 건강행태 중 흡연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담배제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인다.
-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시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중 스트레스 인지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나며,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주로 숙제나 시험, 성적 및 부모님과의 관계로 나타난다.

1. 배경

아동·청소년기는 개인의 가치관, 신념, 태도, 행동양식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생활습관이 구성되는 시기이다.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건강생활습관은 성인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증상이나 질병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9-17세 아동·청소년의 대다수인 96.9%는 자신의 건강을 '좋다' 혹은 '매우 좋다'로 인식하고 있다(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종, 유민상, 이봉주, 2019).

그럼 정말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건강한가?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볼 수 있듯, 아동·청소년의 상당수는 실제로 건강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스마트폰 및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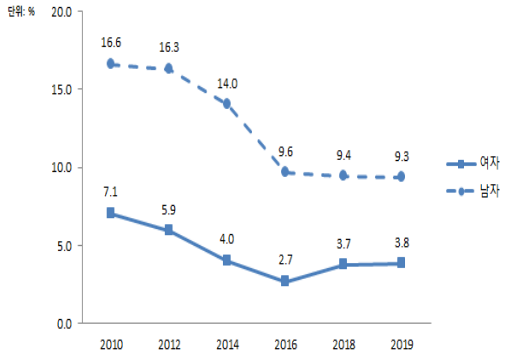
15) 이 원고는 전진아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하고, 강상경 교수(서울대학교), 전민경 연구위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감수하였음.

과의존, 자해 및 자살 등과 같은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들이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주요한 건강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의 개인별 혹은 가구특성별로 건강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 지를 분석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 및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5년 주기로 산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와 질병관리청에서 생산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자료,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주로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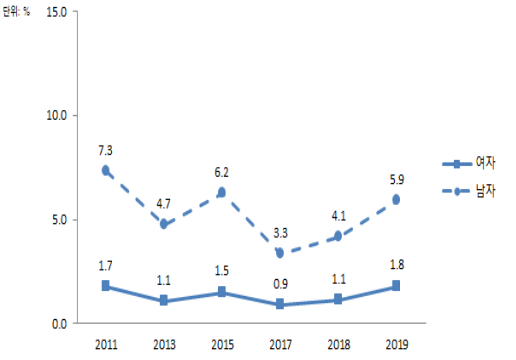
2. 아동·청소년 건강 실태 및 특성

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행태

아동·청소년의 건강행태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흡연, 신체활동 및 식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흡연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담배 제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여자 아동·청소년의 흡연율이 남자 아동·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나나, 남자 아동·청소년의 흡연율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여자 아동·청소년의 흡연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자 아동·청소년의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흡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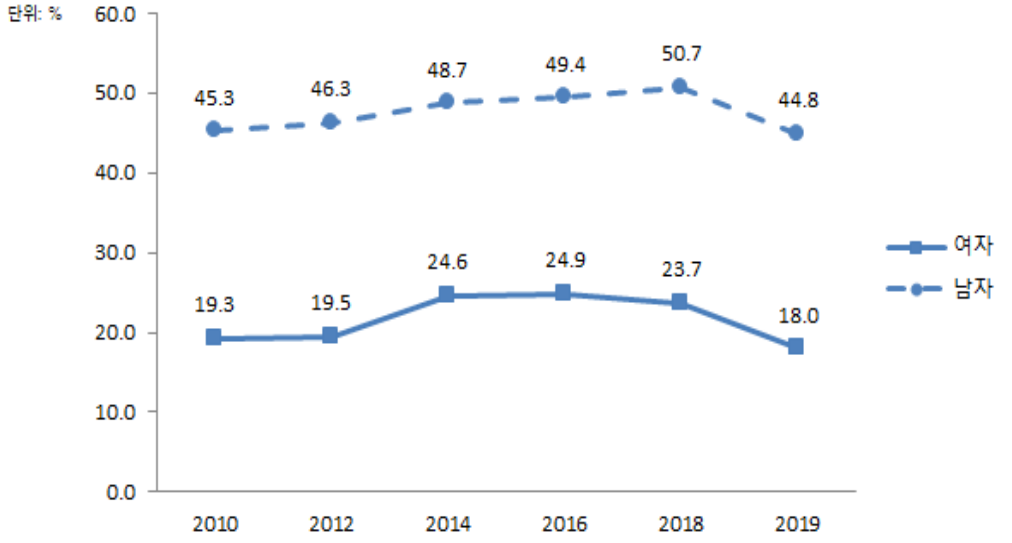


▲전자담배현재사용률

주: 1) 현재 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사람의 분율
2)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예)아이코스, 글로, 릴 등)를 사용한 사람의 분율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그림 4-14]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 및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추이(2010-2019)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은 매우 부족하다. 다음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아동·청소년의 주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한 비율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여자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은 남자 아동·청소년에 비해 매우 낮으며, 2019년 여자 아동·청소년의 주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18%로 남자 아동·청소년의 44.8%에 비해 26.8%포인트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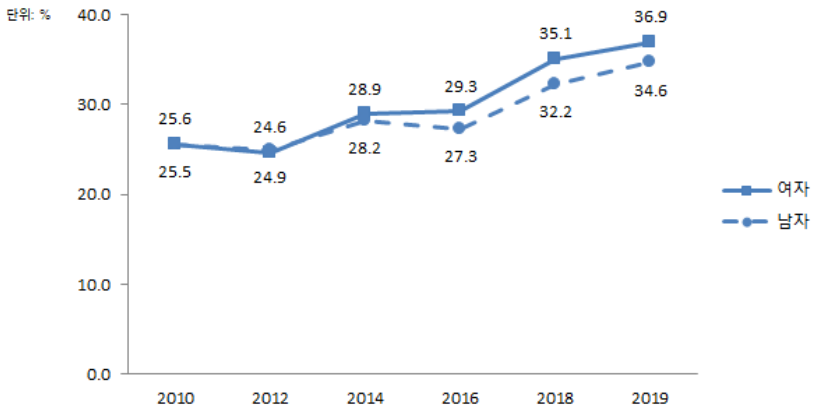


주: 주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 최근 7일 동안 고강도 신체활동(조깅, 축구, 농구, 태권도, 등산, 빠른 속도의 자전거타기, 빠른 수영,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을 20분 이상 한 날이 3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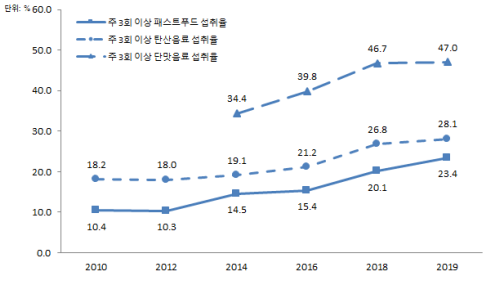
[그림 4-15] 청소년의 주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2010-2019)

아동·청소년의 식생활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아침 식사 결식률, 패스트 푸드, 탄산음료 및 단맛 음료 섭취율로 살펴보았다.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결식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전체의 약 35% 정도로 아동·청소년의 1/3 정도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패스트 푸드, 탄산음료 및 단맛 음료 섭취율 역시 시간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침식사 결식률의 경우 여자 아동·청소년이 높게 나타나고, 패스트 푸드, 탄산음료 및 단맛 음료 섭취율은 남자 아동·청소년이 여자 아동·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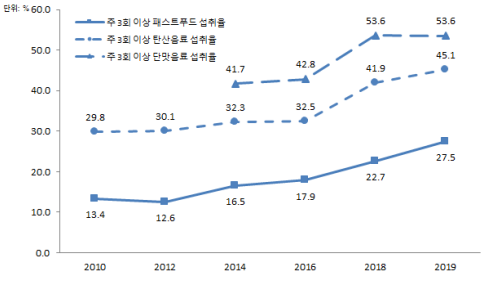
▼청소년의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



▲여자 청소년의 주 3회 이상 패스트 푸드, 탄산음료, 단맛 음료 섭취율



▲남자 청소년의 주 3회 이상 패스트 푸드, 탄산음료, 단맛 음료 섭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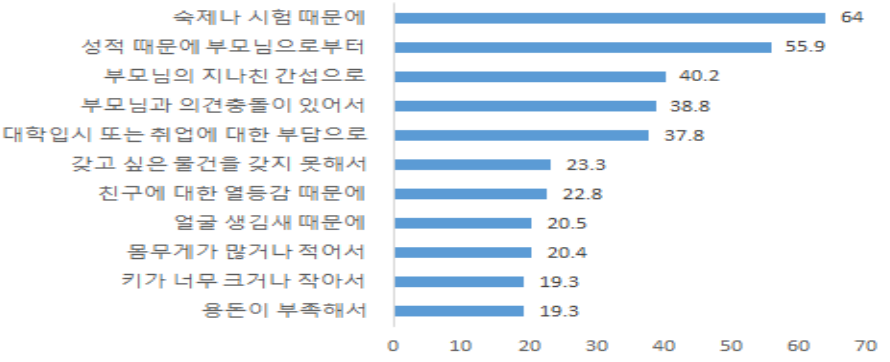
주: 1)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 결식률: 최근 7일 동안 아침 식사를 5일 이상 먹지 않은 사람의 분율
2)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은 사람의 분율
3)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탄산음료를 마신 사람의 분율
4) 주 3회 이상 단맛음료 섭취율: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단맛이 나는 음료를 마신 사람의 분율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그림 4-16] 청소년의 식생활 추이(2010-2019)

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자료,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스트레스, 우울증상 경험률, 자살 생각과 자살사망률 및 스마트폰 과의존과 문제적 게임이용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나온 만 9-17세 아동·청소년 중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혹은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6%로 나타난다. 만 9-12세보다는 만 12-17세 아동·청소년에게서 그 비율은 높게 나타나 12-17세 아동·청소년 중 약 20.6%가 스트레스를 '많이' 혹은 '대단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물어본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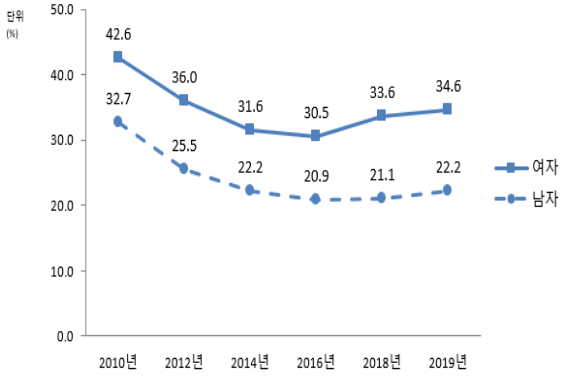
같다. 스트레스 요인을 유형별로 보면 숙제나 시험,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 다음으로 큰 요인으로 나타난다.



주: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많이',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아동에 한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은 여러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음.
자료: 류정희 외(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5-47〉을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임.

[그림 4-17] 만 9-17세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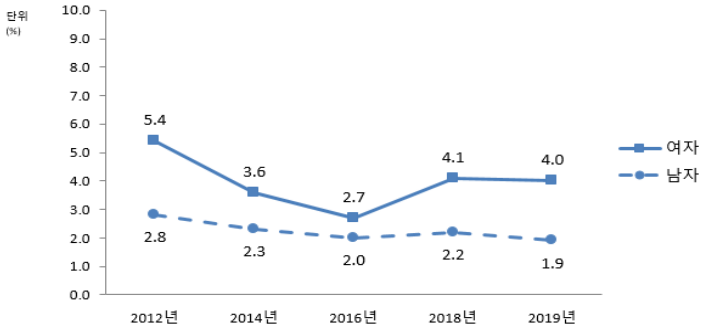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제시된 아동·청소년의 우울증상 경험률을 보면, 한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던 우울증상 경험률이 최근 들어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 아동·청소년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남자 아동·청소년에 비해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며, 2019년 기준 여자 아동·청소년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34.6%로 나타난다.



주: 우울증상 경험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10~2019년

[그림 4-18] 아동·청소년의 우울증상 경험률 추이(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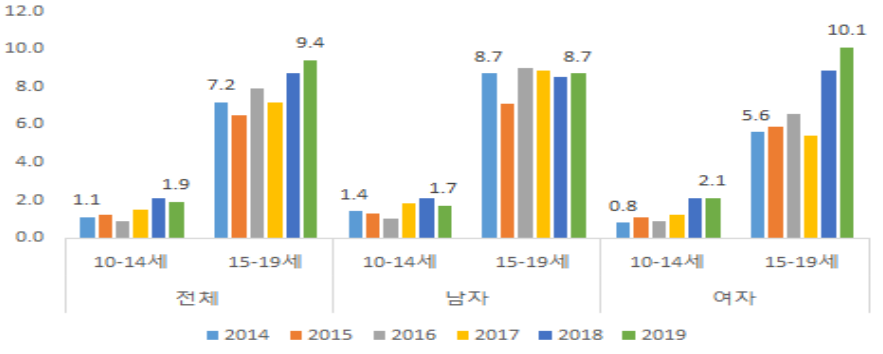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자살 행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현황들이 보고되고 있다. 전체 자살사망에서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10대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에서 자살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측정된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시도율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경우 4.0%, 남자 아동·청소년인 경우 1.9%로 나타난다.



주: 자살시도율은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10~2019년

[그림 4-19] 아동·청소년의 자살시도율 추이(2010-2019)

그리고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제시된 아동·청소년의 자살사망률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다. 15~19세 아동·청소년의 자살사망률이 10~14세 아동·청소년의 자살사망률보다 높다. 15~19세 남자 아동·청소년의 자살사망률이 2015년을 제외하고는 인구 10만 명당 8.5~8.7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에 반해 15~19세 여자 아동·청소년의 자살사망률은 2014년 인구 10만 명당 5.6명에서 2019년 10.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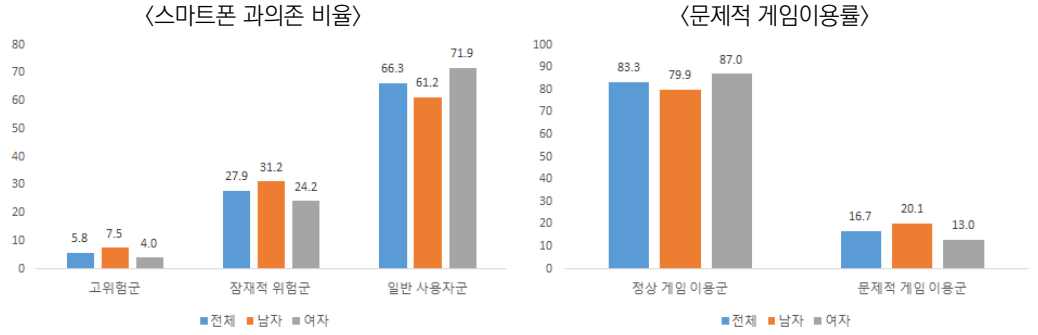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사망원인통계: 사망원인(103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 수, 사망률(2014~2019)'의 결과값을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임.

[그림 4-20] 10~19세 아동·청소년의 성별·연령별 자살사망률 추이(2014~2019년)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와 문제적 게임이용률을 살펴보면, 9-17세 아동·청소년의 5.8%가 고위험군으로, 27.9%가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의 합으로 계산되는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약 34% 정도이다. 문제적 게임이용률의 경우 문제적 게임 이용군은 전체 아동·청소년의 16.7%로 나타나며, 남자 아동·청소년이 여자 아동·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난다.

(%)



자료: 류정희 외(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5-55〉와 〈표5-56〉의 일부를 그림으로 전환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4-21] 아동·청소년의 성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및 문제적 게임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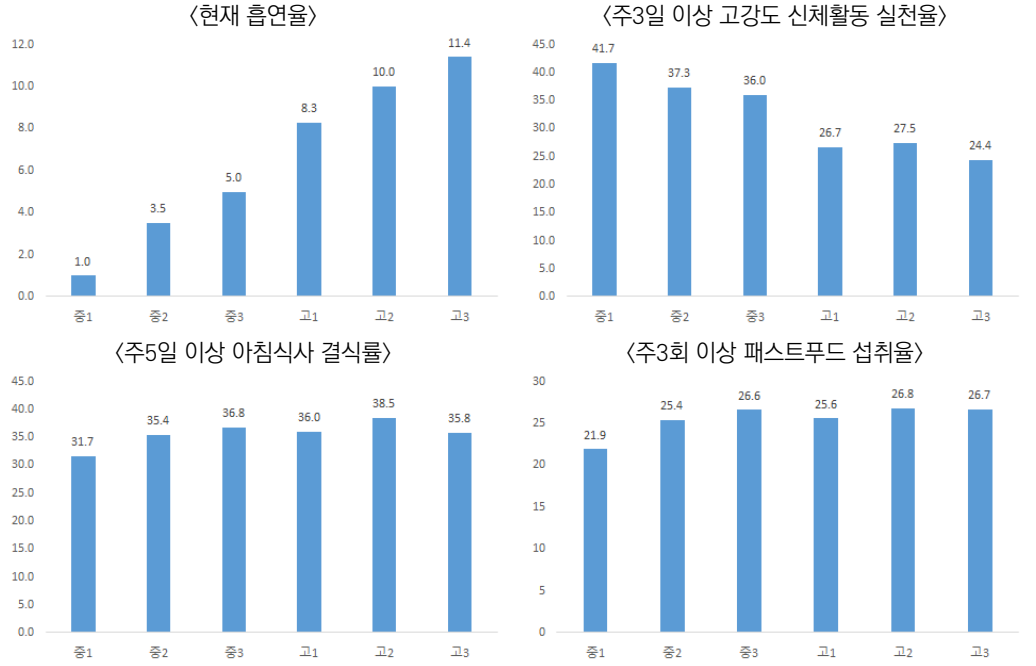
3. 아동·청소년 개인 및 가구특성별 건강 실태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살펴본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실태는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에게서 흡연과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및 단맛음료 섭취율이 높게 나타나며, 스마트폰 과의존 및 문제적 게임 이용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여자 아동·청소년에게서는 신체활동 부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아침식사 결식률,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증상 경험률, 자살시도율이 높게 나타난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이 달라짐을 앞서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따라서도 건강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건강행태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학년별 건강행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현재흡연율이 높아지고, 신체활동은 줄어들고, 아침식사 결식은 늘고, 패스트푸드 섭취율도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볼 때,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영양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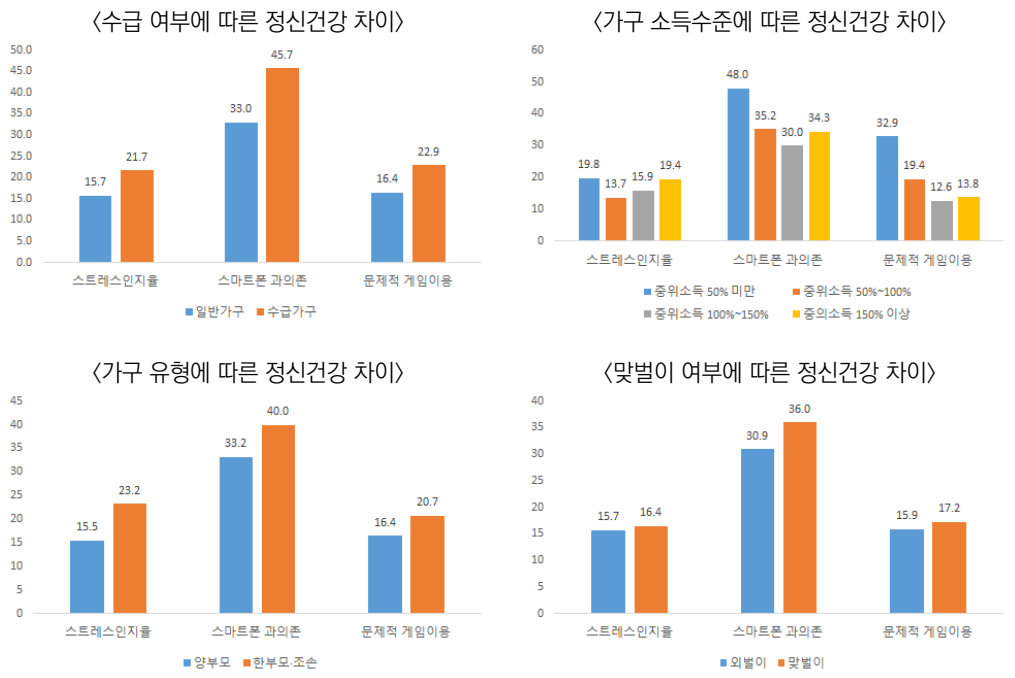
주: 1) 현재 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사람의 분율
2) 주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 최근 7일 동안 고강도 신체활동(조깅, 축구, 농구, 태권도, 등산, 빠른 속도의 자전거타기, 빠른 수영,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을 20분 이상 한 날이 3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
3)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 최근 7일 동안 아침식사를 5일 이상 먹지 않은 사람의 분율
4)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은 사람의 분율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19년

[그림 4-22]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건강행태 차이

아동·청소년의 건강은 아동·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16].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청소년일수록,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미만인 가구의 아동·청소년일수록, 한부모 및 조손가구의 아동·청소년일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고, 스마트폰 과의존 및 문제적 게임이용군인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16)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및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특성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건강수준을 보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에 활용된 정신건강 중심으로 가구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았음.

(%)



주: 스트레스 인지율: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많이',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아동에 한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은 여러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음.
자료: 류정희 외(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5-47〉, 〈표 5-55〉와 〈표5-56〉의 일부를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임.

[그림 4-23] 아동·청소년이 속한 지역 특성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차이

4. 맺음말

아동·청소년의 대다수는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본 아동·청소년의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실태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행스럽게도 시간에 따라 개선되는 건강행태들은 존재한다. 흡연율과 우울증상 경험률 등 일부 지표는 시간에 따라 개선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흡연은 최근 액상담배 및 전자담배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실제 전자담배현재사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볼 때 안심하기 어렵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우울증상 경험률 역시 아동·청소년의 학업, 성적 스트레스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크게 존재하는 상황이고, 시간에 따라 감소한 현재 역시 전체 아동·청소년의 약 30% 정도가 우울증상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조심스럽다.

이 글에서 살펴본 아동·청소년의 건강행태와 정신건강을 볼 때, 두드러지는 건강문제는 부족한 신체활동과 스마트폰 과의존 혹은 문제적 게임이용, 그리고 여전히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보이는 자살로 보인다. 신체활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해 보인다. 또한 게임 및 스마트폰 과이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특히 2019년 WHO에서는 게임 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등 해외에서도 게임 이용장애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아동·청소년의 게임 및 스마트폰 과이용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더불어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자살에 대한 개입 역시 보다 강화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자살사망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작기는 하나 이들 연령대에서는 가장 큰 사망원인인 만큼, 아동·청소년의 자살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이들에게 맞는 예방 및 개입을 강화해야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별, 연령별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아동·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도 건강수준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반가구에 비하여 수급가구 아동·청소년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양부모와 동거하는 아동·청소년에 비해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일수록 바람직한 건강행동의 실천율이 낮거나, 정신건강 문제가 높게 나타난다. 즉 취약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일수록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문제가 높게 나타나는 기존의 경향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결과적으로 예방, 교육 및 홍보와 같이 아동·청소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접근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3절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참여와 삶의 질[17)]



- 학력 경쟁이 심화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확실치 않은 미래를 위한 사교육 투자가 과잉될수록 현재를 살아가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적정한 수준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투자 정도와 참여 이유, 현재 삶의 질 간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학업성적이 높다고 스스로 평가할수록 사교육에 대한 투자(비용, 시간)가 증가하였다.
-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할수록 현 시점의 학습보충을 위한 사교육 참여는 감소하는 반면, 상급학교 진학, 선행학습 등의 미래투자적 관점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 아동·청소년의 삶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성적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에 따라 달라졌다. 성적이 낮더라도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모두 증가하였다.
- 사교육에 대한 투자(시간, 비용)와 성적 만족도 간에 특정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1. 배경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교육 문제로 꼽힌다. 누구라도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사교육을 받은 경험과 그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실제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4.8%였고, 사교육 시장의 총 규모는 약 21조로 분석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사교육 참여와 투자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 증가, 교육투자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 불평등 심화, 사교육 의존도 심화됨에 따른 공교육 기능 약화(김동일·김영식·김경선, 2011: 94)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정부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사교육 참여와 투자는 지속적으

17) 이 원고는 김혜자 부연구위원·백승주 연구위원·김혜진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하고, 전병유 교수(한신대학교), 장유진 교수(충북대학교)가 감수하였음.

로 증가하고 있다.

이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정부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으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한다고 판단하여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였지만, 실질적인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즉 사교육을 학교교육에 대한 보충학습,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으로 보는 관점을 견지하였지만, 사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더욱 세분화된 이유를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교육 결정요인을 학습보충론적 관점과 미래투자론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임천순·우명숙·채재은, 2008). 학습보충론적 관점은 현재의 성적을 보완·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고 전제하는 한편, 미래투자론적 관점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적극적 투자 차원에서 사교육에 참여한다고 본다.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교육 증가의 원인을 미래를 위한 지위획득 경쟁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확실치 않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시간과 비용을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타당한 결정인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사교육 투자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사교육 투자와 결정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다양한 목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개인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학력 경쟁이 심화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사교육에 기계적인 투자를 지속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교육 투자 정도와 참여 이유, 현재 삶의 질 간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참여와 삶의 질 정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교육 참여 이유를 학습보충론적 관점과 미래투자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학교 성적에 대한 자기평가와 사교육 참여 및 투자, 삶의 만족 정도 등이 갖는 다양한 양상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2018년 자료(학생 및 학부모 응답자료) 중에서 사교육 시간 및 비용, 참여 이유, 학교 성적에 대한 자기평가(인식) 및 만족 정도,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의 범위를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참여와 삶의 질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2. 학교 성적과 사교육 투자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학교 성적과 관련이 깊다.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강하게 작동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미래의 사회적 지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한다. 그 결과 더 많이 사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키는 원인이 된다. 공교육의 보충학습으로의 사교육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논리를 따른다.

그렇다면 학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할까? 〈표 1〉과 [그림 1]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평가한 학교 성적과 사교육 투자(비용 및 시간)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전반적인 사교육 투자 정도를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43.7만원, 주중 사교육 시간은 214.6분(약 3시간 34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중학생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51.1만원, 주중 사교육시간은 250분(4시간 10분)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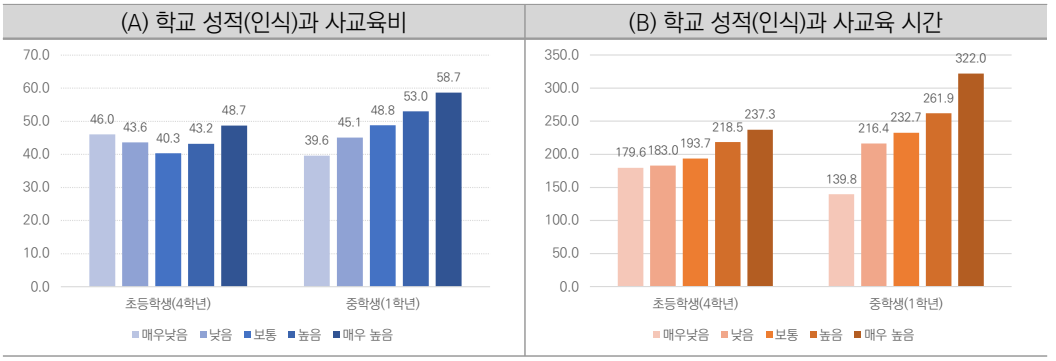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이 학교 성적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정도(①매우 못함 ~ ⑤매우 잘함)에 따른 사교육 투자 정도를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성적에 대한 자기 평가가 보통 이하인 집단에서는 학교 성적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사교육비가 감소하다가, 보통 이상 수준에서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 학교 성적에 대한 자기 평가가 높아질수록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사교육 시간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학교 성적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사교육 시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할수록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아동·청소년의 학교 성적(인식)과 사교육 투자

구분	사교육 비용(월평균, 만원)				사교육 시간(1주, 분)			
	초등학생(4학년) (N=2,227)		중학생(1학년) (N=2,111)		초등학생(4학년) (N=2,477)		중학생(1학년) (N=2,47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3.71	34.41	51.14	35.02	214.67	154.71	250.05	187.18
매우 낮음	46.02	21.12	39.60	19.60	179.62	242.15	139.79	199.90
낮음	43.62	35.39	45.08	25.55	182.98	197.33	216.44	182.93
보통	40.30	43.16	48.81	40.18	193.66	153.94	232.69	191.51
높음	43.19	30.22	52.97	32.56	218.49	152.91	261.93	167.46
매우 높음	48.68	29.96	58.66	32.26	237.28	149.71	322.04	205.87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18) 조사 자료마다 사교육에 포함되는 범위나 하위 구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사에 따라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다만 국가승인통계인 2018년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평균은 월평균 31.2만원, 서울지역은 월평균 41.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학생의 1주일간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591분(9시간 51분) 수준으로 나타났다(양 결과는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산출한 결과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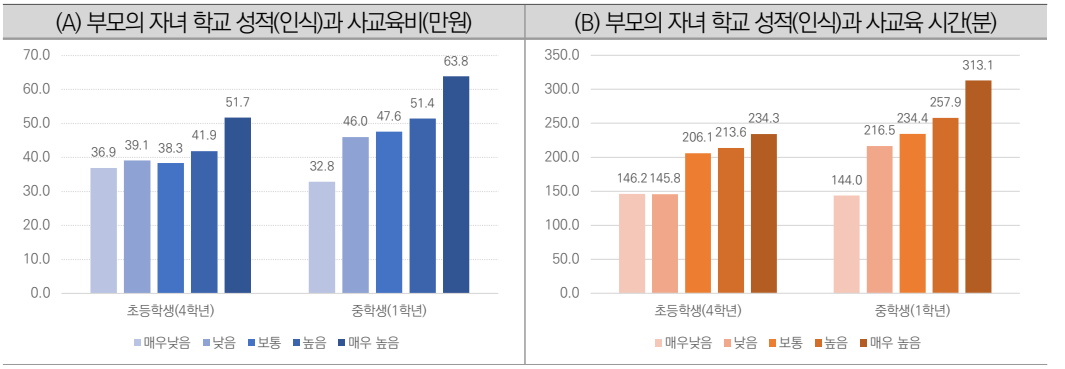
[그림 4-24] 아동·청소년의 학교 성적(인식)과 사교육 투자

부모가 자녀의 학교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도 동일한 양상(사교육비와 시간의 증가)이 나타나는 지 확인하였다. 〈표 2〉와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의 학교 성적 평가 정도에 따라 사교육비와 사교육 시간 모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성적을 '매우 못한다'고 평가하는 집단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6.89만원인 반면 '매우 잘한다'고 평가한 집단에서는 월평균 48.68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시간도 증가하였는데, 부모가 '매우 못한다'고 평가한 초등학생의 주중 사교육 시간은 146.18분(약 2시간 26분)으로 나타났고 '매우 잘한다'고 평가한 경우 234.26분(약 3시간 54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중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는데, 부모가 자녀의 학교 성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아동·청소년 부모의 자녀 학교 성적(인식)과 사교육 투자

구분	사교육 비용(월평균, 만원)				사교육 시간(1주, 분)			
	초등학생(4학년) (N=2,324)		중학생(1학년) (N=2,166)		초등학생(4학년) (N=2,590)		중학생(1학년) (N=2,52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3.31	34.15	51.08	34.93	214.04	156.16	250.43	188.20
매우 낮음	36.89	7.45	32.83	24.61	146.18	273.06	143.96	167.15
낮음	39.10	42.07	45.97	30.96	145.83	169.09	216.51	193.53
보통	38.31	27.41	47.57	31.48	206.12	169.16	234.37	187.44
높음	41.86	27.15	51.45	31.27	213.60	149.13	257.93	172.92
매우 높음	51.70	47.67	63.84	49.75	234.26	148.23	313.11	210.17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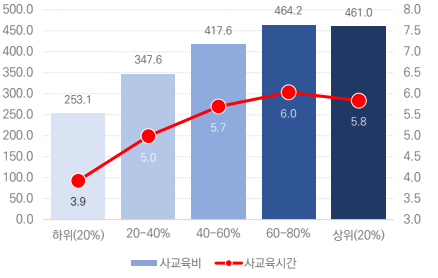
[그림 4-25] 아동·청소년 부모의 자녀학교 성적(인식)과 사교육 투자

이상의 결과는 학교 성적이 스스로 높다고 평가한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관적으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할수록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는 점은 뒤쳐진 학업 성적을 보완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24.6%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라고 응답하였고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도 17.6%로 나타나 양자가 전체 응답의 약 42%를 차지하였다(임소현 외, 2019).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학교 성적이 높더라도 사교육을 더 많이 받을까? 통계청에서 실시한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의 2018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담임교사가 응답한 고등학생의 실제 성적수준(분위)에 따른 사교육비와 사교육 시간을 분석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적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와 사교육 시간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성적 상위 20% 집단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461.03만원으로 하위 20% 집단의 월평균 사교육비 253.13만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시간 또한 성적 상위 20% 집단은 주중 평균 5.83 시간을 사용하는 반면 하위 20% 집단에서는 이보다는 적은 주중 평균 3.93시간을 사용하였다. 고등학생의 자료로 한정되어 앞서 분석한 주관적 인식의 결과와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실제 성적이 높아도 사교육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음을 일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표 4-3〉 고등학생의 학교 성적과 사교육 투자

구분	사교육비 (월평균, 만원)		사교육 시간 (주,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5.73	476.47	5.29	6.68
하위(20%)	253.13	400.23	3.93	6.21
20-40%	347.63	455.99	4.99	6.62
40-60%	417.62	487.71	5.69	7.00
60-80%	464.25	504.71	6.03	6.73
상위(20%)	461.03	497.07	5.83	6.15



출처: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제공 원자표를 이용하여 산출)

3. 사교육 투자와 사교육 참여 이유

앞선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객관적·주관적으로 높은 성적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월평균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고, 사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의 참여 이유를 확인하였다. 특히 사교육 결정요인을 '미래투자론적 관점'과 '학습보충론적 관점'으로 구분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사교육 투자 수준에 따른 집단에서도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사교육 참여의 이유는 미래투자, 학습보충, 성적향상, 취미 등(기타)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상급학교 진학, 선행학습 등 현재 시점보다는 미래의 지위획득에 목적을 두는 경우 '미래투자'로 분류하였고, '학습보충'은 미래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응답을 포함하였다. '성적향상'은 현재와 미래 모두에 관심을 두고 학교 성적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는 경우이다. '취미 등'에는 취미 활동이나 자기개발, 보육, 다른 사람이 받으므로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다만, 사교육 참여 이유는 아동·청소년이 아닌 부모가 응답한 결과라는 점을 미리 밝힌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를 전체적인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취미 등'을 위해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39.09%로 가장 높았고 '학습보충'이 24.89%로 두 번째로 높았다. 다음으로 '성적향상'의 이유가 20.55%, '미래투자' 15.48%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 '성적향상'을 위해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35.07%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보충'을 위해 참여한다는 응답이 27.85%로 그 다음을 이었다. '미래투자'의 이유는 23.36%, '취미 등'은 13.7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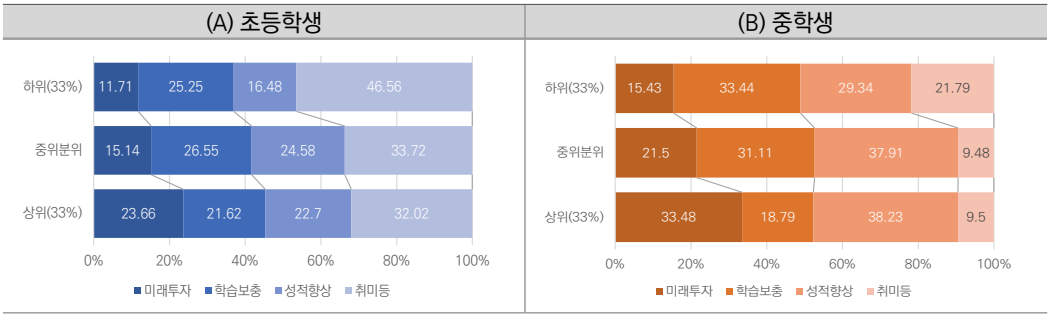
사교육 투자 수준에 따른 집단별로 사교육에 참여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3개 분위로 구분한 후 각 분위별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를 〈표 4〉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19]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취미 등'의 이유가 가장 높았으나 집단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할수록 '취미 등'을 위해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과 '학습보충'을 위해 참여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미래투자'의 목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중학생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교육비를 많이 쓸수록 '학습보충'을 위해 참여하는 비율은 대폭 감소하는 반면 '미래투자'를 위해 참여하는 비율은 대폭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보충'의 이유를 선택한 응답은 하위분위 33.44%에서 상위분위 18.79%로 감소하였고, '미래투자'의 목적은 하위분위 15.43%에서 상위분위 33.48%로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집단에서는 현재 시점의 교육에 대한 향상보다는 미래 시점의 효용 증대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상대적으로 사교육에 적은 비용을 투자하는 집단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에 투자하는 수준에 따라 사교육의 목적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결과로 풀이된다.

〈표 4-4〉 아동·청소년의 사교육비 수준과 사교육 참여 이유(%)

구분	초등학생(4학년) (N=2,227)				중학생(1학년) (N=2,112)			
	미래투자	학습보충	성적향상	취미 등	미래투자	학습보충	성적향상	취미 등
전체	15.48	24.89	20.55	39.09	23.36	27.85	35.07	13.71
하위(33%)	11.71	25.25	16.48	46.56	15.43	33.44	29.34	21.79
중위 분위	15.14	26.55	24.58	33.72	21.5	31.11	37.91	9.48
상위(33%)	23.66	21.62	22.7	32.02	33.48	18.79	38.23	9.5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 사교육 참여 이유는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사교육 참여 이유(1순위) 기준임

19) 각 분위별 사교육비의 평균은 하위분위의 경우 초등학생은 22.6만원, 중학생은 24.7만원 수준이었으며, 중위분위는 초등학생 43.62만원, 중학생 45.42만원이었다. 한편 상위분위는 초등학생 85.2만원, 중학생 84.6만원으로 분위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 사교육 참여 이유는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사교육 참여 이유(1순위) 기준임

[그림 4-26] 아동·청소년의 사교육비 수준과 사교육 참여 이유(%)

4. 사교육 참여 이유와 아동·청소년의 삶

전반적으로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일수록 상급학교 진학, 선행학습 등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미래 시점에서 더 나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한다. 현재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면 미래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내재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사교육 투자는 현재를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업성적이 높아짐에 따라 삶에 만족하는 정도도 높아질 수 있는 반면, 학업스트레스와 여가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행복도가 낮아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을 대변할 수 있는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 수준으로 사교육 참여 이유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5〉에서는 전체적인 수준에서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초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12점 수준이었으며,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보다는 다소 낮은 2.79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척도가 4점 척도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2.79점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그런 편이다”의 사이에 위치하는 점수로 전체적으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5점 만점에 4.28점 수준이었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4.10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5점 척도라는 점에 비춰 보면 삶의 만족도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수준은 긍정적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이유와 삶의 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는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미래투자’의 이유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과 ‘취미 등’을 위해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서 나타난 삶의 만족도 수준이 3.17점으로 가장 높았다. ‘성적향상’을 위해 사교육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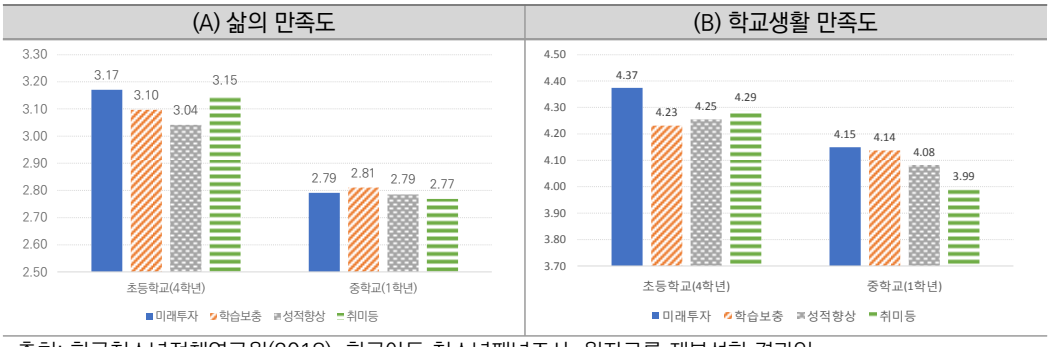
참여하는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3.04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미래투자'의 관점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습보충'의 관점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각각 3.17점과 3.10점으로 식별가능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학교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이 보였는데, '미래투자'의 관점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재의 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인 '학습보충'을 이유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각각 4.37점과 4.23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해 중학생의 경우는 그 양상이 사뭇 달랐다. 먼저 삶의 만족도 영역을 살펴보면 중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이유에 따라서는 삶의 만족도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도 유사하게,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를 '미래투자'라고 응답한 학생과 '학습보충'이라고 응답한 학생들 간에 식별가능한 수준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미래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교육에 참여하지만 현재의 만족도나 행복감과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4-5〉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참여 이유와 삶의 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구분	삶의 만족도(4점 척도)				학교생활 만족도(5점 척도)			
	초등학생(4학년) (N=2,337)		중학생(1학년) (N=2,219)		초등학생(4학년) (N=2,300)		중학생(1학년) (N=2,18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12	0.56	2.79	0.59	4.28	0.83	4.10	0.86
미래투자	3.17	0.55	2.79	0.59	4.37	0.76	4.15	0.79
학습보충	3.10	0.52	2.81	0.57	4.23	0.84	4.14	0.81
성적향상	3.04	0.59	2.79	0.60	4.25	0.87	4.08	0.92
취미 등	3.15	0.55	2.77	0.59	4.29	0.82	3.99	0.90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 사교육 참여 이유는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사교육 참여 이유(1순위) 기준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 사교육 참여 이유는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사교육 참여 이유(1순위) 기준임

[그림 4-27]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참여 이유와 삶의 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5. 학업성취와 아동·청소년 삶의 질

PISA 2015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학교 밖 학습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OECD, 2017). 이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학교 성적을 객관적·주관적으로 높게 평가할수록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미래투자'의 관점에서 사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려웠다. 즉 학교 성적이 높은 집단에서 사교육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에 근거하여 사교육에 더 많이 투자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단편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업에 대한 '성취'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의 관계를 찾아보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성취'를 '목적한 바를 이룸'이라고 정의한다. 학교 성적은 "학교에서 공부하여 이룬 성과"를 말하지만, 학업성취는 스스로 정한 학업의 목표를 이룬 바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적이 높아도 성취를 이루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성적이 낮아도 성취를 이룰 수도 있다. 학업성취의 관점에서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성적에 대한 자기평가와 학교 성적에 대한 만족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개 집단을 구분하였다. 집단별로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를 분석하여 〈표 6〉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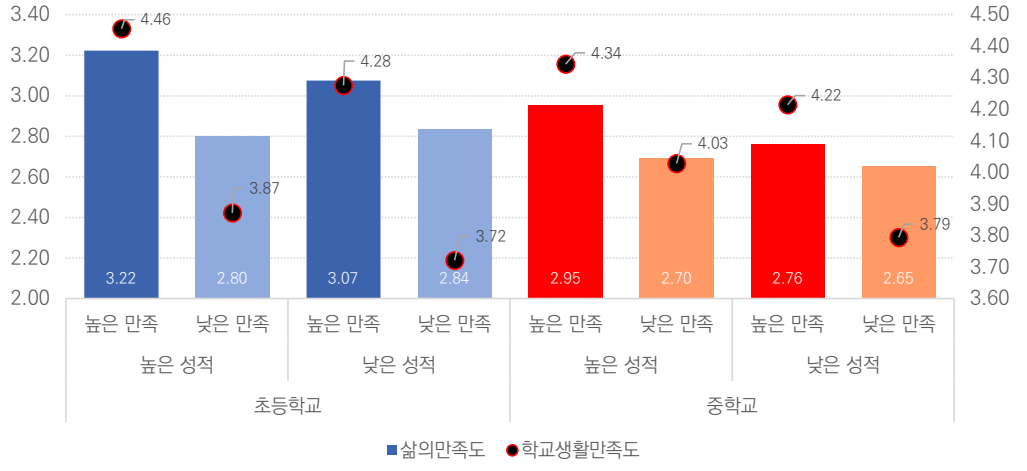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학교 성적이 높다고 생각하고 만족수준도 높은 집단(집단 A)이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성적은 높으나 만족하지 못한 집단(집단 B)이었으며, 중학생은 이와는 달리 성적이 낮고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집단 C)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성적이 높고 만족할수록(집단 A)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성적이 낮고 불만족할수록(집단 D) 낮게 나타났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학교 성적은 높다고 스스로 평가하지만 만족하지 못한 집단(집단 B)과 학교 성적은 낮지만 만족하는 집단(집단 C) 간에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다. 집단 B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각각 2.80점, 2.70점 수준인데 비해, 집단 C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각각 3.07점과 2.76점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도 동일하였다. 따라서 학교 성적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과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성적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의 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자신이 목표한 성적을 달성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의미하는 학업성취의 관점도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표 4-6〉 아동·청소년의 성적(인식)과 성적만족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

구분	삶의 만족도(4점 척도)				학교생활 만족도(5점 척도)			
	초등학생(4학년) (N=2,458)		중학생(1학년) (N=2,433)		초등학생(4학년) (N=2,432)		중학생(1학년) (N=2,41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12	0.56	2.79	0.59	4.28	0.83	4.10	0.86
(고)성적(고)만족(A)	3.22	0.52	2.95	0.55	4.46	0.72	4.34	0.70
(고)성적(저)만족(B)	2.80	0.56	2.70	0.55	3.87	0.93	4.03	0.84
(저)성적(고)만족(C)	3.07	0.49	2.76	0.59	4.28	0.76	4.22	0.91
(저)성적(저)만족(D)	2.84	0.56	2.65	0.61	3.72	0.89	3.79	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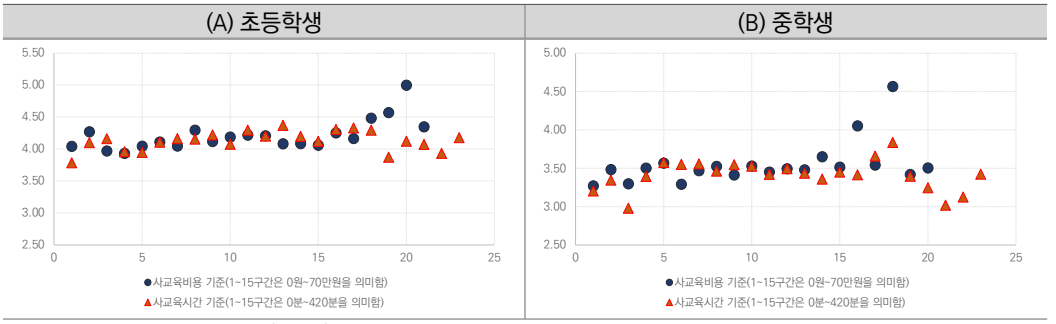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그림 4-28] 아동·청소년의 성적(인식)과 성적만족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

그렇다면 사교육은 아동·청소년이 학교 성적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림 6]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투자(비용과 시간)의 구간에 따른 학교 성적 만족도 평균을 제시한 것이다. 사교육 투자(비용과 시간)와 성적 만족도 간에는 특정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동일하였다. 사교육과 학업성취, 삶의 질 간의 관계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학교 성적을 높이고 성적에 대한 만족 정도를 향상시켜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과는 달리, 성적에 실질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로 사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그림 4-29]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투자와 성적 만족도

6.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는 최대 난제 중 하나로 꼽힌다. 교육이 사회 계층 이동의 주요 수단으로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에는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다. 한편 교육이 사회 계층의 고착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며,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따라서 사교육이 왜, 무엇을 위해, 어떤 양태로 유발되고 있는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시도는 사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는 한편 사교육과 공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 투자와 학교 성적 간의 관계를 기초로 사교육에 대한 참여 이유를 사교육 투자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교육 참여에 대한 양태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과의 관계를 기술통계 수준에서 그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성적이 높은 학생들에게서 사교육에 대한 비용과 시간 투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현재 시점의 학습을 보충하는 '학습보충'의 관점이 아닌 미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의 개념, 즉 '미래투자'의 관점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교육 참여 이유에 따른 아동·청소년 삶의 질에는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교육 투자와 성적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간의 체계적인 관계를 찾기가 어려웠다. 물론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탐색해 볼 문제이지만, 본 분석 결과를 통해 사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여 학교 성적을 높이고 학업성취를 이루려는 효용성에 허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에 투자하면서 투자 수준에 따른 만족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양자 간의 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교육에 다소 과도한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

지는 않은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학교 성적이 낮더라도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성장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성취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성적을 잘 받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족하는 것도 성공의 중요한 척도임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수요 유형과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사교육에 대한 비용과 시간의 투자는 아동·청소년의 삶뿐만 아니라 가계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과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 영향력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교육을 아동·청소년과 그에 관계된 가정환경 전체로 확대하여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교육과 아동·청소년 삶의 접점에 놓인 다양한 영역들을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분적이나마 파악한 것과 같이, 사교육의 성과에는 검증되지 않은 허상이 존재하며 필연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동시에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한 사교육 정책의 효과 분석도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청소년의 삶이 사교육과 분리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계된 영역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된 지표에 따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정책의 효과성 분석에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제3절 부록

주요 변수의 측정

변수	활용 문항	비고
성적(인식)	• 지난 학기(2018년 1학기) 전 과목 성적에 대한 자기 평가 (① 매우 못함 ~ ⑤ 매우 잘함)	5점 척도
성적 만족	• 지난 학기(2018년 1학기) 학교 성적 만족에 대한 자기 평가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5점 척도
사교육비	•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부모 응답
사교육시간	• 평일과 주말의 학원 및 과외시간, 인터넷 및 TV 강의 시간(분) ※ (① 30분미만 ~ ⑦ 4시간 이상)의 척도가 평일과 주중으로 구분되어 있어 각 구간별 중위값(예를 들어 "30분~1시간"의 경우 45분)을 활용하여 재산출하여 활용함	학생 응답
사교육 참여 이유	•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받은 이유(1순위) 문항을 4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활용 - 미래투자: 상급학교진학을 위해/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 학습보충: 학교 수업 보충 차원으로 - 성적향상: 학교 성적 향상을 위해 - 취미 등: 취미 및 자기개발, 보육, 다른 사람이 받으므로 등	부모 응답
삶의 만족도	•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등 삶의 만족도 관련 5개 문항 평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	4점 척도
학교생활 만족도	• 지난 학기(2018년 1학기) 학교 생활 만족에 대한 자기 평가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5점 척도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제4절 아동·청소년의 주거 실태와 특징[20)]

- 우리나라 총 가구의 1/4 이상이 아동·청소년과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90% 이상)이 양부모와 거주하고 있다.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 등은 7% 수준이다.
- 아동·청소년 가구는 상대적으로 자가비율이 높지만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는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고 보증부월세나 전세 등 임차가구 비율이 높다.
-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지만,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는 상대적으로 단독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 아동·청소년가구는 주거비 지출이 높은 편인데, 특히 조손가구의 월소득대비 주거비 지출비율이 높아 아동양육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이 부족할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가구의 4.1%가 최저주거기준미달로 나타났는데 양부모가구보다는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에서의 기준미달이 많다.
- 양부모가구가 구입자금 지원에 강한 욕구를 보이는데 비해, 한부모가구는 전세자금이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조손가구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개량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 OECD 국가에서는 법적 결혼 양부모와 동거양부모, 한부모를 구분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있고 동거양부모가구가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방수가 부족한 주거과밀가구와 화장실·욕실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초시설미달가구의 비율을 주거빈곤의 주요 지표로 작성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구성 특성별 주거실태 분석을 통해 폭넓은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아동주거빈곤 여부를 기준으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며 한부모 등은 더욱 두터운 지원이 요구된다. 해외와의 비교는 분석기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의 상황이 과도하게 양호한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 배경

주거권은 사람이라면 당연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으로서 그 중요성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하고 적합한 주택을 향유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주거권 보장의 중요

20) 이 원고는 박미선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이 작성하고, 임세희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 임덕영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감수하였음.

성이 한층 더하다. 이는 아동기의 주거빈곤이 학업 성취, 사고발생 위험, 스트레스, 질병, 수면 등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이 국내외의 문헌을 통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임세희·김희주, 2019; 임세희, 2019; 임세희·송아영, 2020 외 다수). 그동안 아동과 관련한 주거지원은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가정 등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최근에서야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10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2019)을 발표하고 아동복지단체 및 지자체와 함께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본 고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가구의 구성에 따른 주거실태의 차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가구를 구분하고 그 대상 그룹별 특성을 비교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연간 6만가구 이상의 대규모 조사를 통해 가구의 주거실태를 광범위하고 폭넓게 조사하고 있어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주거여건을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자료이므로 이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부모가구와 같은 특정 집단뿐 아니라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특성이 다양한 스펙트럼에 존재하고 있으며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주양육자의 구성에 따라 주거실태와 주거빈곤, 주거비부담, 주거지원 정책 수요에서 차이가 확연함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향후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설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아동·청소년가구의 분류 및 규모

아동·청소년 가구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로 정의하고 이들 가구의 특성을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주와 구성원에 따라 구분하였다. 세분화하면 가구구성 형태를 최대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21] 그 중 가구주와 아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좁히면 양부모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기타가구 등 총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후술한다.[22]

2018년 주거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가구의 규모를 분석하면 총 1,967.4만 가구 중 1/4가 넘는 27.5%에 해당하는 541.1만 가구에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다. 구성형태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92.5%(500.6만 가구)에 이르고, 한부모가구가 6.4%(34.4만 가구), 조손가구가 0.8%(4.1만 가구)이다.

---

21) ① 양부모+아동가구, ② 양부모+조부모+아동가구, ③ 한부모+아동가구, ④ 한부모+조부모+아동가구, ⑤ 조부모+아동가구, ⑥ 아동가구주 가구, ⑦ 기타가구 (편의상 아동·청소년가구를 아동가구로 간략히 기술함)

22) 단, 주거실태조사의 특성상 가구주의 의사결정과 의견이 반영되므로, 아동·청소년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음.

〈표 4-7〉 아동·청소년가구의 분류 및 규모

(만 가구, %)

구분		가구규모	비중
아동·청소년 가구	총계	541.1	100.0
양부모가구	소계	500.6	92.5
	① 양부모+아동	471.0	87.0
	② 양부모+조부모+아동	29.7	5.5
한부모가구	소계	34.4	6.4
	③ 한부모+아동	22.6	4.2
	④ 한부모+조부모+아동	11.8	2.2
⑤ 조손가구		4.1	0.8
⑦ 기타가구		1.8	0.3
⑥ 아동가구주		0.1	0.0

주: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가구를 축약하여 표에서는 아동가구 또는 주양육자+아동으로 표시하고 본문에서는 아동·청소년가구로 명시함. 이하 본문에서 동일하게 기술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아동·청소년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76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 2.46명보다 가구당 1.3명이 더 많다. 양부모가구는 4인가구가 44.6%이고,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양부모가구는 평균 5.1명이 거주하는 대가족이다. 한부모가구는 2인 또는 3인이 거주하는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다.

3. 아동·청소년 가구특성별 주거 실태

아동·청소년가구의 주거실태는 점유형태, 주택유형, 주거면적과 같은 일반적인 주거특성과 함께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 같은 정책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점유형태 측면에서 아동가구는 자가율이 높다. 그러나 한부모가구의 경우 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안정성 면에서 가장 열위에 놓여있다. 양부모가구나 한부모가구 모두에서 조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가율이 상승하고 있어 조부모의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유추가능하다. 한부모가 아동과 거주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 39.3%에 비해 추가로 조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가 73.6%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조손가구에서도 자가와 보증부 월세로 양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표 4-8〉 아동·청소년가구 유형별 점유형태 비율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순수 월세	무상	계
일반 가구 전체		57.7	15.2	19.8	3.3	4.0	100.0
아동·청소년 가구 총계		64.0	20.5	11.4	0.8	3.3	100.0
양부모가구	소계	65.4	20.8	10.0	0.7	3.1	100.0
	양부모+아동	64.8	21.5	10.2	0.7	2.9	100.0
	양부모+조부모+아동	75.8	9.4	7.9	0.4	6.6	100.0
한부모가구	소계	44.3	18.1	29.6	1.9	6.0	100.0
	한부모+아동	29.0	21.5	39.3	2.5	7.6	100.0
	한부모+조부모+아동	73.6	11.7	11.1	0.7	2.9	100.0
조손가구		63.5	13.1	17.8	0.5	5.1	100.0
기타가구		43.6	19.2	26.3	3.9	7.0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8 주거실태조사」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주택의 유형 측면에서도 아동·청소년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른 확연한 차이가 확인된다. 양부모가구에서는 아파트 거주가 75.9%로 가장 많지만,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에서는 아파트가 40%대, 단독주택 거주가 30%대로 나누어지고 있다(〈표 3〉 참조).

〈표 4-9〉 아동·청소년가구 유형별 주택유형 비율

(%)

구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 용주택	주택이 외거처	계
일반 가구 전체		33.3	49.2	2.2	9.3	1.7	4.4	100.0
아동·청소년 가구 총계		14.9	72.7	2.2	8.7	0.9	0.6	100.0
양부모가구	소계	13.1	74.9	2.2	8.4	0.9	0.5	100.0
	양부모+아동	12.1	75.9	2.2	8.4	0.8	0.5	100.0
	양부모+조부모+아동	29.0	58.0	2.2	8.4	2.3	0.1	100.0
한부모가구	소계	36.9	45.5	2.7	12.2	0.9	1.8	100.0
	한부모+아동	37.1	43.1	3.0	1.6	0.5	2.6	100.0
	한부모+조부모+아동	36.2	50.1	2.0	9.6	1.8	0.3	100.0
조손가구		40.2	46.1	2.8	10.1	0.4	0.3	100.0
기타가구		29.3	58.8	0.6	11.3	-	-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주거면적도 양부모가구가 한부모가구에 비해 사용하는 면적이 넓고 조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역시 주거면적이 더 넓다. 가장 작은 면적을 사용하는 가구형태는 한부모와 아동이 거주하는 형태로 61.9㎡를 사용하고 있다(〈표 4〉). 점유형태와 주택유형 및 주거면적을 동시에 고려할 때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에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조부모의 단독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가거주가 증가하고 가구당 주거면적도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0〉 아동·청소년가구의 유형별 주거면적

(㎡)

구분		가구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
일반가구 전체		66.2	31.7
아동·청소년 가구	총계	76.5	21.5
양부모가구	소계	77.2	20.8
	양부모+아동	76.4	21.0
	양부모+조부모+아동	90.6	18.4
한부모가구	소계	65.9	22.5
	한부모+아동	59.8	23.3
	한부모+조부모+아동	77.6	20.9
조손가구		73.0	26.4
기타가구		70.5	21.5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달가구가 적은 편이다. 2018년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5.7%인데 비해 아동·청소년가구는 4.1%로 낮다. 단,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의 경우에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미달이 높은 편이다.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가구 중 22.1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며 대부분 양부모가구에서 분포하고 있어 19.3만 가구는 양부모가구와 거주하면서도 기준미달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비율로는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가 높으며 특히 한부모가구에서 7.7%로 가장 높아 물리적 주거여건이 가장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구 중 2.6만, 조손가구 중 약 2천가구를 합한 약 2.8만 가구의 취약가구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11〉 아동·청소년가구의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구분		최저주거기준미달	면적기준미달	시설기준미달	침실기준미달
일반가구 전체		5.7 (111.1)	4.0	3.1	0.4
아동·청소년 가구 총계		4.1 (22.1)	**3.5**	**0.1**	1.0
양부모가구	소계	3.9 (19.3)	3.3	0.1	1.0
	양부모+아동	3.7 (17.6)	3.3	0.1	0.9
	양부모+조부모+아동	6.0 (1.6)	4.1	0.1	2.4
한부모가구	소계	7.7 (2.6)	7.0	0.4	1.5
	한부모+아동	8.0 (1.8)	7.3	0.3	1.8
	한부모+조부모+아동	7.1 (0.8)	6.5	0.5	1.0
조손가구		4.7 (0.2)	3.8	0.9	-

주: 괄호안은 미달가수 수(만가구)를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정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100-490호, '11.5.27)

- 시설기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 침실기준 및 면적기준: 가구원수별 방수 및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구원수(인)	1	2	3	4	5	6
방수(개)	1	1	2	3	3	4
면적(㎡)	14	26	36	43	46	55

아동·청소년가구의 유형별 주택가격은 자가의 경우 평균 3.11억 원 수준이고 한부모나 조손가구의 주택가격이 각각 2.28억, 2.14억 원 정도로 약 1억원 정도 낮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평균 전세가격은 아동·청소년가구 전체가 2억원 수준인데 양부모가구는 2.1억 원, 한부모 1억, 조손가구는 1억 미만 수준이다. 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구는 5천만원에 37만원 수준이고 한부모나 조손가구는 조금 낮은 보증금에 조금 낮은 월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2〉 아동·청소년가구의 유형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원)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순수월세
				보증금	월세	
일반가구 전체		2.81억	1.53억	2,124만	32.5만	27.3만
아동·청소년 가구 총계		3.11억	2.02억	4,491만	36.1만	42.9만
양부모가구	소계	3.15억	2.09억	5,011만	36.8만	45.7만
	양부모+아동	3.15억	2.10억	5,014만	36.6만	44.7만
	양부모+조부모+아동	3.23억	1.95억	4,953만	41.2만	74.2만
한부모가구	소계	2.28억	1.02억	2,078만	34.1만	29.5만
	한부모+아동	2.08억	0.92억	2,018만	34.2만	30.0만
	한부모+조부모+아동	2.45억	1.36억	2,488만	33.7만	25.8만
조손가구		2.14억	0.94억	4,860만	21.2만	20.0만
기타가구		3.11억	1.37억	1,424만	29.7만	41.7만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부담(RIR, Rent to Income Ratio)은 아동·청소년 가구 전체가 18.5로 전국 평균 15.5에 비해 높다. 특히, 조손가구의 경우 28.0으로 월소득의 1/4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가장 시급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양부모나 한부모 가구 중에서도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RIR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조부모로 인한 돌봄여력이 소득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Price to Income Ratio)은 전국 평균 5.5, 아동가구 전체 5.2, 한부모가구 5.0 등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조손가구가 8.2로 높고 이는 조손가구의 낮은 소득에 기인한다.

〈표 4-13〉 아동·청소년가구의 유형별 PIR, RIR

구분 (중위수 기준)		PIR(Price-Income-Ratio)	RIR(Rent-Income-Ratio)
일반가구 전체		5.5	15.5
아동·청소년 가구 총계		5.2	18.5
양부모가구	소계	5.2	19.4
	양부모+아동	5.2	**19.2**
	양부모+조부모+아동	4.7	17.3
한부모가구	소계	5.0	20.9
	한부모+아동	5.7	**20.1**
	한부모+조부모+아동	4.7	17.0
조손가구		8.2	**28.0**
기타가구		5.0	18.1
아동가구주		-	43.2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가구는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 기타가구 등 양부모가구 이외의 가구구성인 경우이다. 특히 한부모와 아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52.5%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크다. 양부모가구의 경우에는 구입자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절반 이상(51.3%)으로 가장 높은데 비해, 한부모가구는 전세자금 지원(26.7%)과 구입자금 지원(17.1%), 월세보조(11.9%), 장기공공임대주택(18.4%)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조손가구의 경우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33.5%), 다음으로 오래된 주택에 대한 개량보수(17.7%) 요구가 높아 조부모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개량 및 주거비 과부담 완화에 대한 대안적 주거를 희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한부모가구와 조부모 가구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희망가구의 규모는 2.9만 가구이고 아동가구 전체로는 16.6만 가구이다.

〈표 4-14〉 아동가구 유형별 주거정책 소요

(%)

구분		월세 보조	전세 자금	구입 자금	개량 보수	임대 분양	장기 공공	공공 분양	상담 정보
일반 가구 전체		10.4	18.8	31.7	8.9	9.4	13.6	4.8	2.4
아동·청소년 가구 총계		3.7	17.0	48.7	5.3	9.2	8.4	5.0	2.8
양부모가구	소계	2.9	16.4	51.3	5.1	9.0	7.5	5.0	2.8
	양부모+아동	2.9	16.4	**51.7**	5.0	8.9	7.4	4.9	2.7
	양부모+조부모+아동	1.6	16.2	**44.6**	7.9	10.2	8.7	7.2	3.6
한부모가구	소계	11.9	26.7	17.1	6.0	11.5	18.4	5.7	2.6
	한부모+아동	13.7	**29.0**	14.8	4.3	11.7	19.3	4.7	2.5
	한부모+조부모+아동	5.4	18.3	**25.5**	12.2	11.0	15.0	9.2	3.3
조손가구		5.9	6.9	13.7	17.7	12.1	**33.5**	2.0	8.2
기타가구		**30.8**	-	27.4	4.1	**32.7**	3.6	-	1.5

자료: 국토교통부.「2018 주거실태조사」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주거이동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자가가구의 약 절반(43.7%)은 이전에 자가에 거주하다가 자가로 이동한 경우이다. 대부분 동일한 점유형태로 수평이동한다. 전세에서 전세로(66.1%), 보증부월세에서 보증부월세로(66.7%), 보증금없는 월세(49.0%) 등이다. 이전 점유형태보다 주거안정성이 낮은 유형으로의 이동을 하향이동으로 정의하면(음영부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전 점유형태보다 하향한 경우가 300.2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이동가구 전체인 1,250만 가구의 12.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4-15〉 아동·청소년가구 전체의 직전-현재 주택 점유형태 변화

(%)

		현재주택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순수월세	무상	계
직전주택	자가	36.2	**15.3**	**8.0**	**11.7**	13.5	27.4
	전세	54.7	72.3	**31.2**	**19.7**	40.6	55.0
	보증부월세	4.1	7.6	53.5	**27.8**	8.8	11.1
	순수월세	0.5	0.3	1.7	33.9	2.8	0.9
	무상	4.4	4.5	5.7	6.9	34.4	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음영은 직전 주택에 비해 점유형태가 불안정해지는 유형으로 이동한 주거하향이동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2018 주거실태조사」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아동·청소년가구의 경우 전세에서 자가로 상향이동이 가장 많으며 동일한 점유형태로의 수평이동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거하향이동에 해당하는 가구는 총 36.6만 가구로 주거이동을 경험한 아동·청소년가구 총 427.9만 가구 중 8.6%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상향이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양부모가구로 한정하는 경우 33.7만 가구가 주거하향이동을 경험하였고, 이는 전체 이동한 양부모가구 중 8.4%에 해당한다.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는 2.6만 가구가 주거하향이동하였는데 총 21.4만 가구 중 9.3%가 하향이동한 셈이다. 조손가구의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14.9%가 하향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총 3.2천가구의 주거점유형태가 더 불안정해졌다. 조손가구는 아동·청소년가구 중 절대적인 크기에서는 작지만, 주거불안정이 상당히 높은 취약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6〉 양부모가구의 직전-현재 주택 점유형태 변화

(%)

		현재주택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순수월세	무상	계
직전주택	자가	35.8	**15.6**	**8.7**	**14.8**	13.4	27.8
	전세	55.2	71.7	**33.4**	**21.7**	41.1	56.1
	보증부월세	4.1	6.8	51.1	**26.0**	6.4	9.9
	순수월세	0.5	0.3	1.6	31.0	2.6	0.8
	무상	4.4	4.5	5.2	6.5	36.5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표 4-17〉 한부모가구의 직전-현재 주택 점유형태 변화

(%)

		현재주택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순수월세	무상	계
직전주택	자가	48.1	**9.1**	**4.1**	**-**	11.3	20.9
	전세	40.9	66.8	**21.0**	**12.9**	41.3	38.2
	보증부월세	5.6	19.9	63.9	**33.6**	16.3	30.5
	순수월세	0.6	-	1.8	44.5	4.5	2.5
	무상	4.8	4.2	9.3	9.0	26.6	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표 4-18〉 조손가구의 직전-현재 주택 점유형태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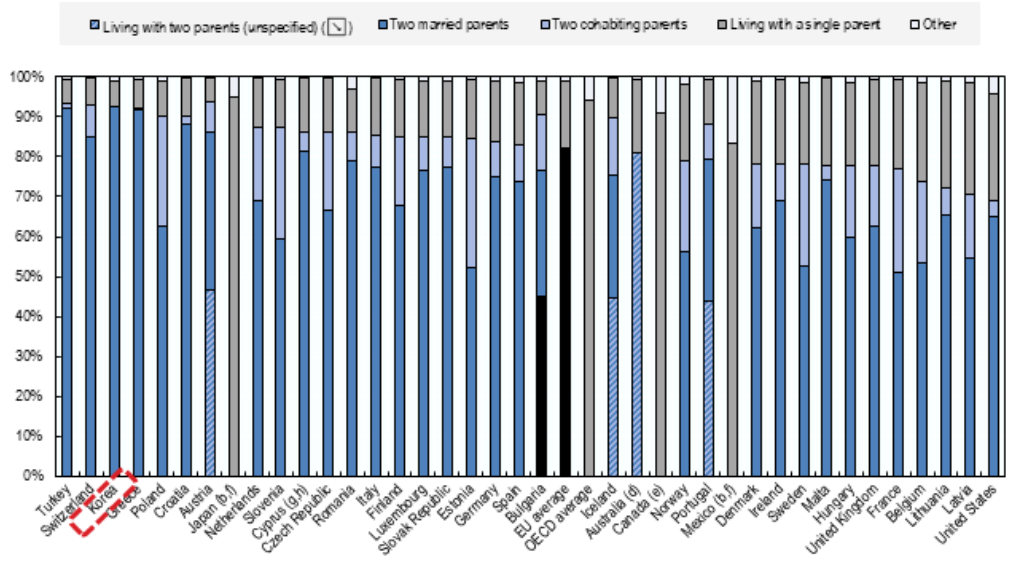
		현재주택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순수월세	무상	계
직전주택	자가	49.8	**25.9**	**6.4**	-	43.8	31.7
	전세	35.1	52.6	**22.9**	-	29.4	35.4
	보증부월세	9.4	21.5	62.4	**100.0**	20.6	28.0
	순수월세	3.4	-	4.6	-	-	2.5
	무상	2.2	-	3.8	-	6.3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8 주거실태조사」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4. OECD 국가의 아동·청소년 가구 구성형태와 주거빈곤

OECD에서는 만 0~17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가구의 구성형태를 결혼의 여부 및 부모의 함께 거주하는 지 여부,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한명인지 두명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앞선 국내의 아동·청소년가구 구분에 비추어 보면 양부모가구와 한부모가구, 그리고 기타 가구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조손가구가 기타가구에 포함되고 부모가 아닌 다른 친척이나 다른 어른과 함께 거주하는 모든 경우가 기타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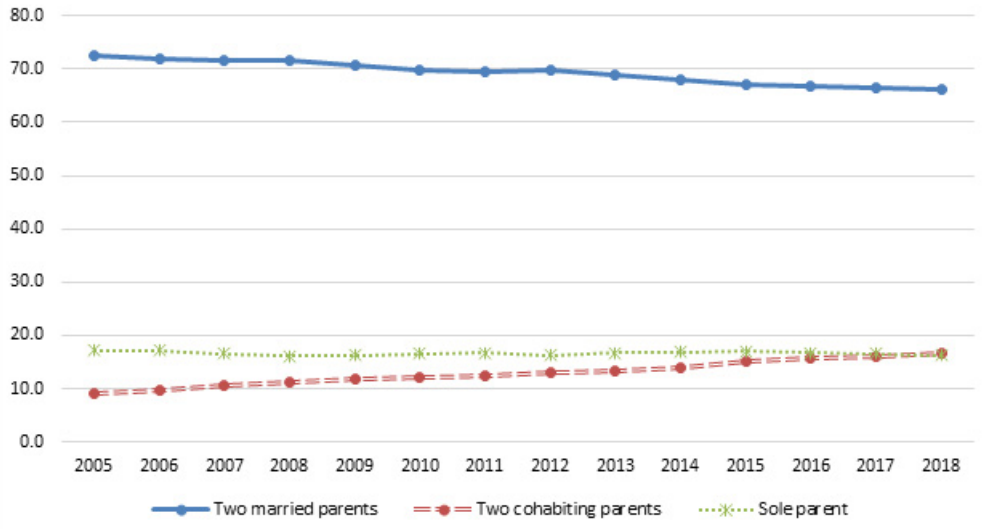
OECD 국가에 따라 양부모와 거주 비율은 차이가 많은데, 미국은 70% 이만이고, 터키나 스위스, 그리스와 같은 나라는 90%를 초과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양부모가구가 80%를 넘고 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다면 가장 높은 비중의 국가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약 28%), 그리고 벨기에, 리투아니아, 미국 등이었으며, 4가구 중 1가구의 아동·청소년 가구가 한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주: OECD 자료를 바탕으로, Korea는 2018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가구 형태 비율을 추가하여 저자 작성
출처: OECD Family Database (2020). SF1.2: Children in Families
http://www.oecd.org/els/soc/SF_1_2_Children_in_families.pdf에서 2020년 10월 31일 인출.

[그림 4-30] OECD 국가의 아동·청소년가구 구성형태

가구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결혼한 양부모가구(Two married parents)와 동거하는 양부모가구(Two cohabitating parents)를 구분하는 지점이다. 시계열적으로 볼 때, 2005년에서 2018년 사이, 결혼한 양부모가구의 비중은 점차 하락세이고 동거하는 양부모가구는 10% 이하에서 약 20% 가까이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구와 거의 유사한 비중으로 수렴하고 있는 양상이다. 동거 양부모가구의 증가가 눈에 띄는 국가로는 벨기에, 체코, 폴란드 등이다. 오직 스웨덴에서만 동거 양부모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OECD 16개국의 단순 평균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출처: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20년 10월 31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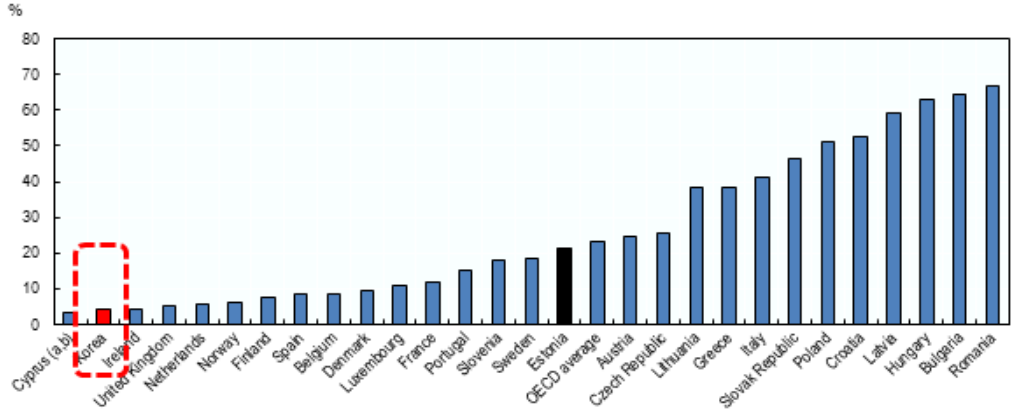
[그림 4-31] OECD 국가의 아동·청소년 양부모·한부모가구 구성 비율 변화

아동·청소년가구의 주거실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주거과밀가구와 기초시설미비가구, 환경문제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가구이다. 주거과밀가구는 성인, 커플, 연령에 따른 방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방수가 부족한 경우 과밀가구로 여겨진다. 기초시설 미비가구는 아동·청소년가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이나 목욕시설,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환경문제는 이웃이나 길거리로부터의 소음, 오염원 등 환경적 문제가 있는 곳에 거주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이다. 이 중 한국과 비교 가능한 지점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이고, 면적미달가구와 시설미달가구가 어느 정도 상호 비교가능할 것이다.

놀랍게도 OECD 국가의 거의 1/4에 해당(23%)하는 아동·청소년가구가 주거과밀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 국가로 4~6%의 주거과밀을 보이며, 헝가리, 라트비아는 가장 열악한 주거여건으로 60% 아동·청소년가구가 주거과밀로 나타난다. 가구구성형태에 따라 그 편차는 존재하는데, 양부모가구가 한부모가구에 비해 주거과밀이 확연하게 적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저소득가구가 고소득가구에 비해 최소 3~4배 정도 주거과밀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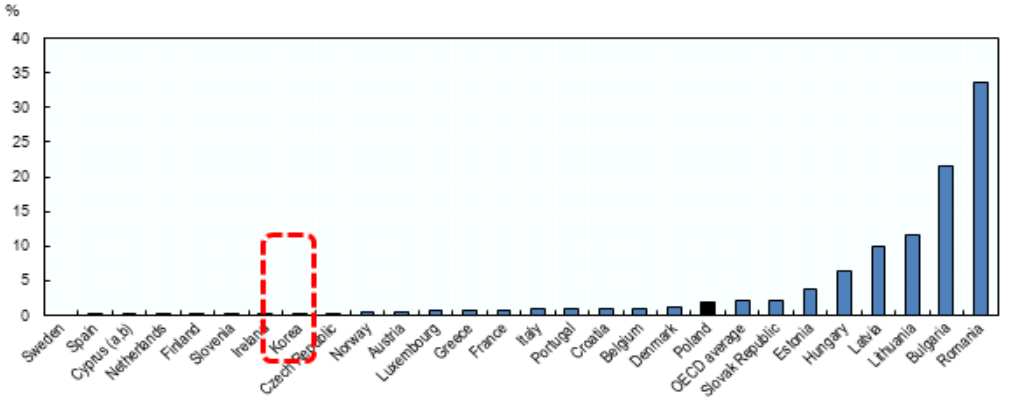
기초설비 부족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OECD 평균 2% 정도의 아동·청소년가구에서 기초설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의 0에 가까운 국가는 핀란드,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은 10~12%의 아동·청소년가구가 기초시설이 미비하다.

우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4.1%, 시설기준미달가구는 0.1% 수준이므로 OECD 국가와 비교할 만하다. 단, 한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가구원수별 침실수와 면적기준, 기초시설의 충족여부를 측정하는 수준이므로, 아동 연령과 성에 따른 독립된 침실 사용여부가 함께 포함된 OECD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고, 한국의 아동·청소년가구 주거여건이 과도하게 양호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주: OECD 자료에 Korea는 2018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을 기준으로 추가한 것
출처: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http://www.oecd.org/els/family/child-well-being/data/에서 2020년 10월 31일 인출.

[그림 4-32] OECD 국가의 아동·청소년가구 주거과밀가구 비율



주: OECD 자료에 Korea는 2018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시설기준미달 가구 비율을 추가하여 작성
출처: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http://www.oecd.org/els/family/child-well-being/data/에서 2020년 10월 31일 인출.

[그림 4-33] OECD 국가의 아동·청소년가구 기초설비 부족가구 비율

5.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가구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듯하다. 아마도 90% 이상의 아동·청소년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특성과,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의 특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에 비해서도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기에 주거빈곤은 물리적 협소함 뿐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질병 등 후속적인 부정적 영향이 심대함을 이미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문제인식이 2019년 아동 가구 지원대책을 통해 진일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상당하고, 특히 한부모가 되면서 주거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점유형태로 이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부모와 거주하는 아동·청소년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주거비 이외에 양육, 교육, 발달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가 큰 시기임을 감안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요구되는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정 면적 및 시설요구를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가구의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양육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한 결과가 양부모 가구의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가구의 주거문제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져야하며, 두터운 주거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아동주거빈곤을 기준으로 주거지원을 하고, 한부모 등과 같이 취약한 경우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가구의 주거실태가 국제적 기준에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OECD 등 국제적 통계와의 정합성이나 비교가능성 증진이 가능한 데이터 생산도 고민할 만하다. OECD에서 정의하는 과밀과 국내 기준과의 차이를 인지하고, 침실분리기준이 미비한 국내 자료를 통해 과도하게 양호한 주거실태로의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조사자료의 특성상 아동·청소년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고 가구주의 입장에서 도출된 통계를 활용한 결과임을 밝힌다. 향후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에서 아동 주거권과 관련된 질문 항목이 개발되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제5절 아동·청소년 시간사용 실태 및 추이[23)]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지난 20년 동안 짧은 여가시간과 긴 학습시간의 하루 시간 사용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업시간을 늘리기 위해 여가시간과 수면시간을 줄이고 있어 여가와 수면 시간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다행히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지난 20년 간 학업시간이 줄고 여가시간과 수면시간이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고등학생은 수면시간보다 학습시간이 더 길 정도로 일상의 대부분을 학습시간으로 보내고 있었다.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학업시간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다가 성인기에 들어서면 격차가 사라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까지의 학업시간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도시지역 거주 아동·청소년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더 길다.
- 국제적 시각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시간선택에 대한 자유가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낮은 행복도와 관련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time use)은 일반적으로 그 사회에서 기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역할, 주요 발달 과업,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및 양육의 초점 등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준다(Larson & Verma, 1999; Shanahan & Flaherty, 2001). 아동·청소년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알면, 이들이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발달 과업과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장단기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time use) 실태, 변화,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고, 학습-생활 균형(study-life balance)을 이루고 있는지에 탐색해보고자 하며,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시간선택의 자유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미래의 역량을 준비하며 지내는 방법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3) 이 장은 유조안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유민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경훈 연구원(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최창용 박사(위스컨신대)가 집필하고, 진미정 교수(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가 감수하였음.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밝혀왔다. 아동·청소년의 균형 잡힌 시간 사용은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인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arson & Verma, 1999; 이봉주 외, 2015; 이수진, 정익중, 2020; 정익중, 박현선, 최은영, 이수진, 정수정, 최선영, 김기태, 2016). 국제 비교 연구에서는 각 나라의 사회적·문화적 특성뿐만 아니라 (Rees, 2017; Sauerwein & Rees, 2020), 각 각의 사회 안에서도 사회경제적,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시간사용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며(권지성, 주소희, 2016; 이수진, 정익중, 2020),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9)의 최종 견해서는 학업 성취에 따른 사회적 압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이 심각한 수준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업에 대한 압박과 많은 학습시간은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절반 이상을 수면부족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박현선, 2019). 이처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높은 학업부담 속에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 받고 있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높은 학습시간과 사교육 시간은 여가, 친교, 그리고 수면시간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아동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정은, 2019).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자유롭게 시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낮았다. 자신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e & Yoo, 2017).

이 글은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하나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로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발표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이 조사의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이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분석하였다.[24] 다른 하나는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 연구(ISCWeB: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 Well-being)로 2009년 이래로 조사 중인 국제자료이다. 이 조사의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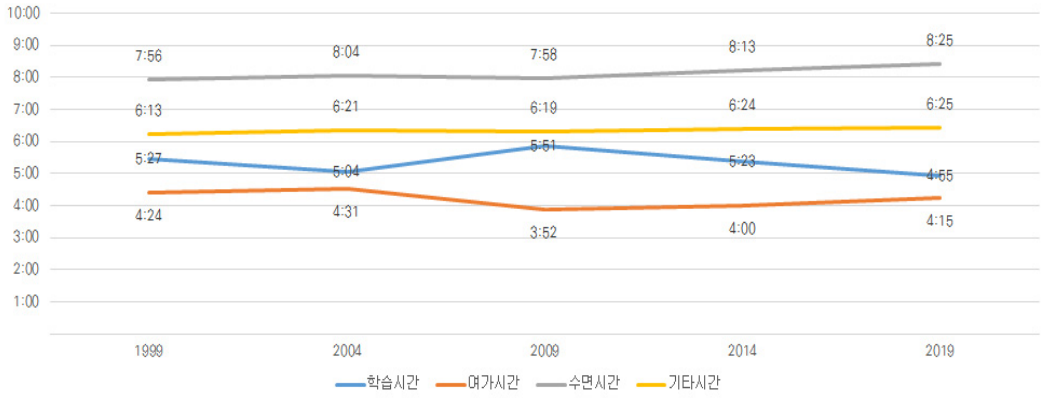
이 글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시간사용 실태는 어떠하며,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둘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24)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24시간 동안의 시간 활용 현황 등의 자료를 모아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양식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자료로 1999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 1999, 2004년은 각 9월에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은 3월과 9월, 2014년과 2019년 조사는 7, 9, 12월에 실시한 관계로, 2009~2019년은 1999년과의 비교를 위해 9월 자료를 이용. 2019년의 조사규모는 약 29,000명(전국 12,435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가구관련, 개인관련 항목은 조사원 면접조사를 통해, 시간일지는 응답자가 10분 간격으로 일기 쓰듯이 이틀 동안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

른 시간사용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국제적 시각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은 어떠한가?

1.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 실태 및 추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 추이는 어떠한가? 우리는 아동·청소년의 하루 24시간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추이를 살펴보았다. 첫째는 학습시간으로 학교에서의 정규수업과 학교 밖에서의 학습시간을 합친 것이다. 둘째는 여가시간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과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 문화 활동 시간 등을 합친 것이다.[25] 셋째는 수면시간으로 잠자는 시간과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 못 이루는 시간을 합산한 것이다. 넷째, 기타 시간으로 통학시간, 식사시간, 개인 단장 시간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편의 상 24시간 중 위의 학습, 여가,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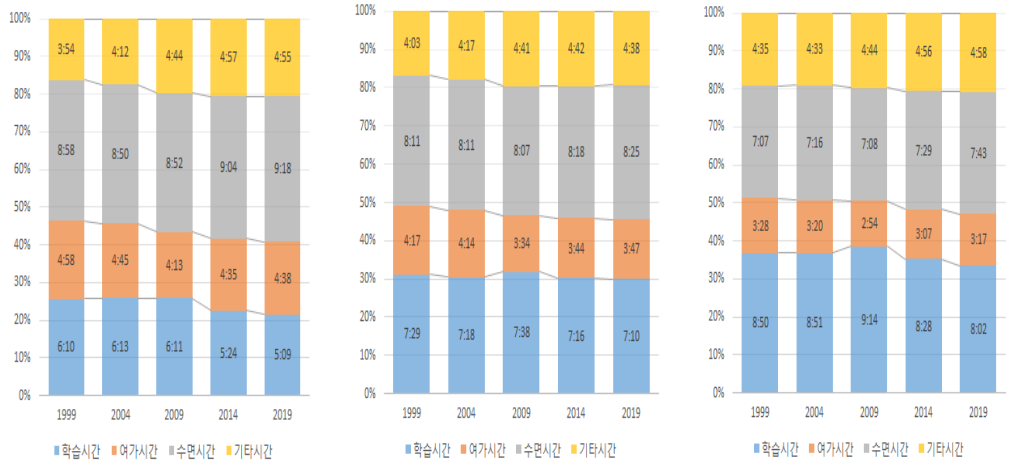
[그림 4-34]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하루 시간 사용 변화(1999-2019, 만10세~24세, 전체 요일 평균)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만 10세~24세의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의 변화추이를 보았을 때, 수면시간의 증가, 학습시간의 하락이 눈에 띈다. 한 주 동안의 평균 수면시간은 1999년 7시간 56분에서 2019년 8시간 25분으로 29분 증가하였고, 학습시간은 1999년 5시간 27분에서 2019년

25) 본 연구의 여가시간은 2019년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 기준으로 교제활동, 종교활동, 의례활동, 문화 및 관광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게임 및 놀이, 휴식 관련 활동, 기타 여가활동의 중분류 범주를 포함하였다.

4시간 55분으로 32분 감소하였다. 여가시간은 1999년 4시간 24분에서 2019년 4시간 15분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를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첫째, 수면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1999년 8시간 58분에서 2019년 9시간 18분으로 증가하였고, 중학생은 1999년 8시간 11분에서 2019년 8시간 25분으로 증가, 고등학생은 1999년 7시간 7분에서 2019년 7시간 43분으로 증가하였다. 고등학생의 수면시간 증가 폭이 가장 크기는 하나, 여전히 가장 짧은 수면시간을 보였다. 둘째, 학습시간의 경우 초등학생은 1999년 6시간 10분에서 2019년 5시간 9분으로, 중학생은 1999년 7시간 29분에서 2019년 7시 10분으로, 고등학생은 8시간 50분에서 8시간 2분으로 감소하였다. 지난 20년간 학습시간은 줄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수면시간보다 학습시간이 더 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여가시간의 경우 초등학생은 1999년 4시간 58분에서 2019년 4시간 38분으로, 중학생은 4시간 17분에서 2019년 3시간 47분으로, 고등학생은 1999년 3시간 3시간 28분에서 2019년 3시간 17분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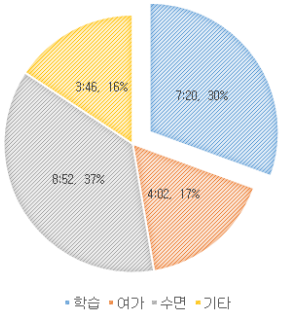


초등학생의 시간사용 추이　　중학생의 시간사용 추이　　고등학생의 시간사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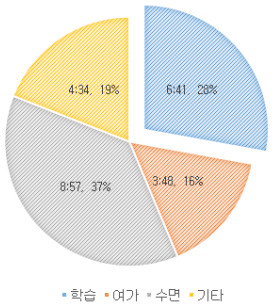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35] 초중고등학생의 하루 시간사용 추이(1999-2019, 전체 요일 평균)

그렇다면 평일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학기 중 평일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초등학생의 하루 시간은 수면시간이 5분가량 증가하였고, 여가시간은 14분가량 감소, 학습시간은 39분가량 감소하였다. 수면시간의 증가와 학습시간의 감소의 경향은 바람직한 변화로 볼 수 있다.



1999년 초등학생의 시간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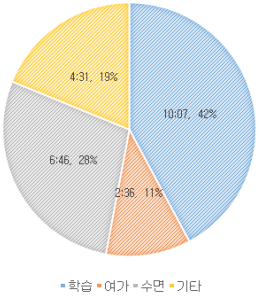


2019년 초등학생의 시간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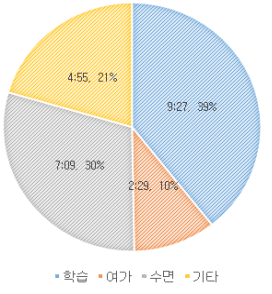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36] 초등학생의 하루 시간사용 비교(1999년과 2019년 비교, 평일기준)

고등학생의 경우, 수면시간은 1999년 6시간 46분에서 7시간 9분으로 약간 증가하였고, 학습시간은 10시간 7분에서 9시간 27분으로 30분 감소하였다. 1999년과 2019년 사이 수면시간과 학습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시간사용 패턴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특히 긴 학습시간으로 인해 여가시간과 수면시간이 제한되는 경향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1999년 고등학생의 시간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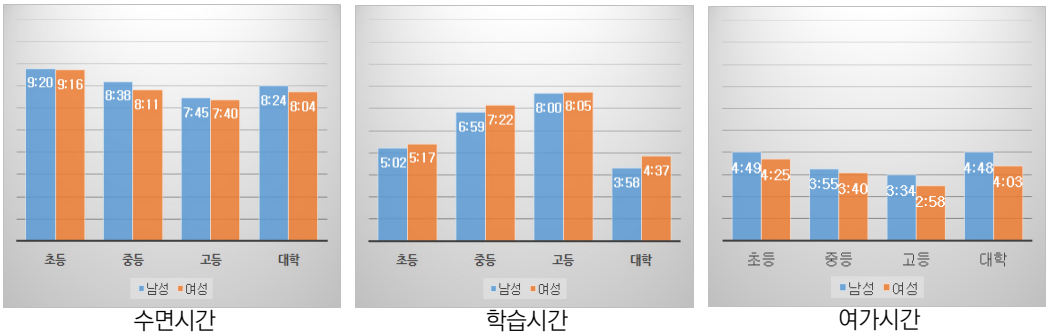
2019년 고등학생의 시간사용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37] 고등학생의 하루 시간사용 비교(1999년과 2019년 비교, 평일 기준)

2. 아동·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사용 차이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은 성별, 거주 지역, 소득계층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먼저 성별에 따른 시간사용 차이를 보면, 수면시간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나 학습시간은 여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여가 시간은 남성이 조금 더 높게 났다. 학습시간의 성별 차이는 대학교에서 더 크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39분 더 학습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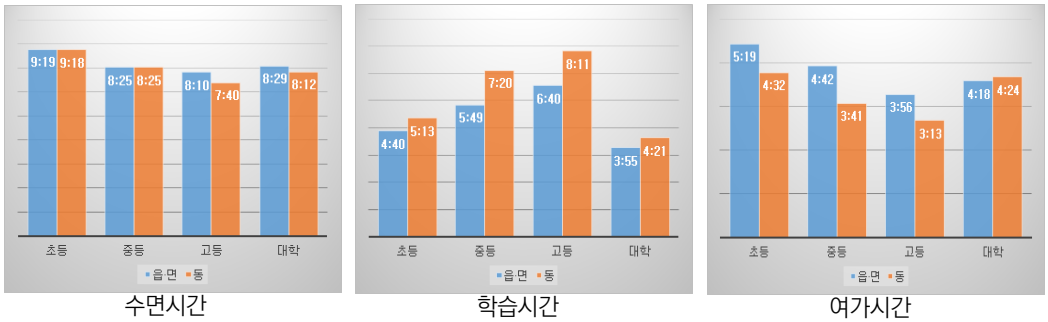


수면시간 학습시간 여가시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38] 성별에 따른 시간사용 차이(평일 평균, 2019)

거주 지역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도 차이가 있었다. 수면시간은 읍면 거주자(농어촌 거주자)와 동 거주자(도시 거주자) 간의 차이가 미미하였으나,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동 거주자의 학습시간이 더 길었으며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학습시간의 지역 간 차이는 대학생이 되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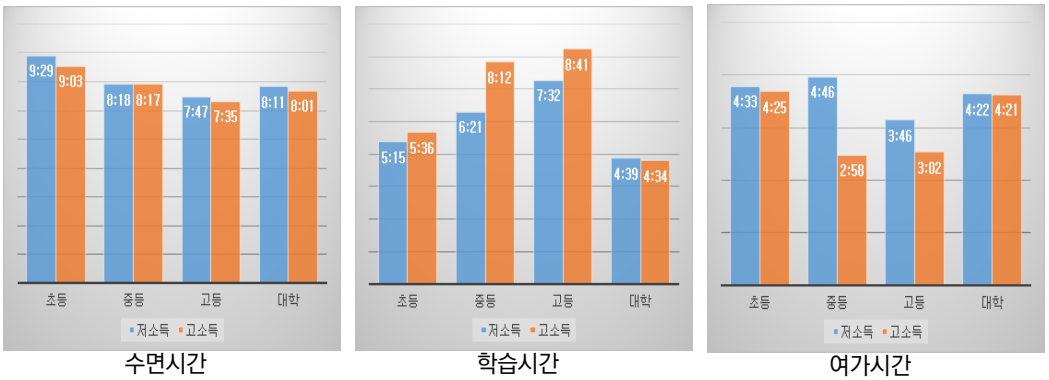


수면시간 학습시간 여가시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39] 지역에 따른 시간사용 차이(평일 평균, 2019)

마지막으로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시간사용에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계층을 하위20%와 상위20%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소득계층에 따른 시간사용의 차이는 학습시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학습시간은 고소득층이 더 긴 반면, 여가시간은 저소득층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수면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소득계층 간 학습시간의 차이는 대학에 가서는 거의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소득층의 긴 학업시간이 대학진학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40] 소득계층에 따른 시간사용 차이

요컨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초중고로 올라가며 학습시간을 늘리고 수면시간과 여가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변화하며, 고등학생들은 하루 중 수면시간보다 학습시간이 길 정도로 학업에 많은 시간을 쏟는다. 이러한 전반적 패턴 속에서 성별, 거주 지역별, 소득계층별 차이도 나타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농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시간을 학습을 위해 보내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사용 격차는 상급 학교로 갈수록 커지다가 대학교에 올라가면 격차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인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시간사용이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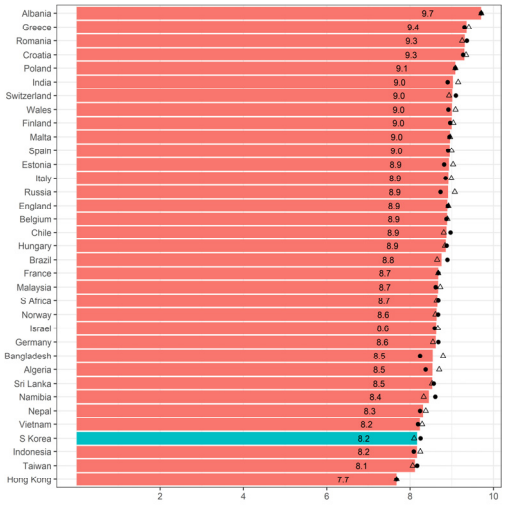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대학진학을 위해 매우 경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에서 유리하도록 학교 안팎에서 교육까지 매우 많은 시간을 학업시간에 쏟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 패턴은 우리사회 아동·청소년 주관적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3.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 만족도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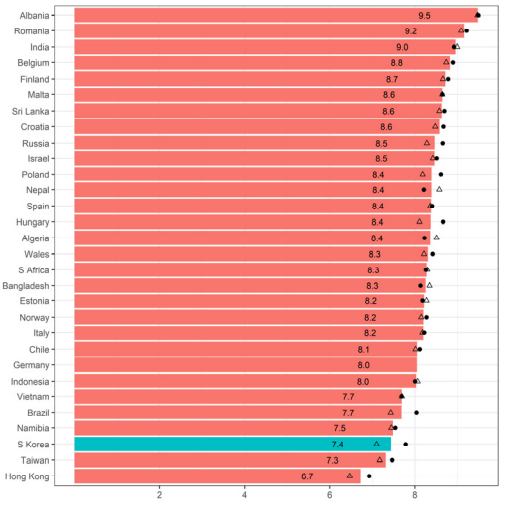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며, 이것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기서는 Children's World라는 민간 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의 결과를 통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26] 이 조사는 전 세계 40여 개국의 만8세, 10세, 12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삶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등 주관적 삶의 질을 조사하고 있다. 각 조사 참여국의 언어로 번역된 동일한 설문문항을 통해 여러 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생활 경험, 인식, 감정 등이 조사되었다. 여기서는 한국의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0세와 만 12세용 자료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변수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시간사용 만족도가 다른 나라 아동·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그리고 국가별 시간사용 만족도와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먼저 시간사용 만족도의 결과는 다음 〈그림 8〉과 같다. 만 10세와 12세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는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How satisfied with how you use your time?)"에 대한 응답(전혀 만족하지 않음, 0점 ~ 매우 만족, 10점)을 통해 조사되었다. 만 10세의 시간사용 만족도는 35개국에서, 만 12세의 시간사용 만족도는 30개국에서 보고되었다.

26) Children's World의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nternational Survey of Child Well-being)는 세계 40여 개국 4만 명 이상의 아동·청소년(만8세, 만10세, 만12세)의 삶의 질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취합한 데이터셋이다. 3차 연구(3rd wave)는 국제적으로 2016-2019년에 조사되었다. 한국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연구 참여 중이다.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SCWeB 홈페이지 참조(https://www.isciweb.org).



국가별 시간사용 만족도 평균점수 (만 10세)



국가별 시간사용 만족도 평균점수 (만 12세)

주: 그래프의 막대는 '평균 점수', △는 '여자의 평균', ●는 '남자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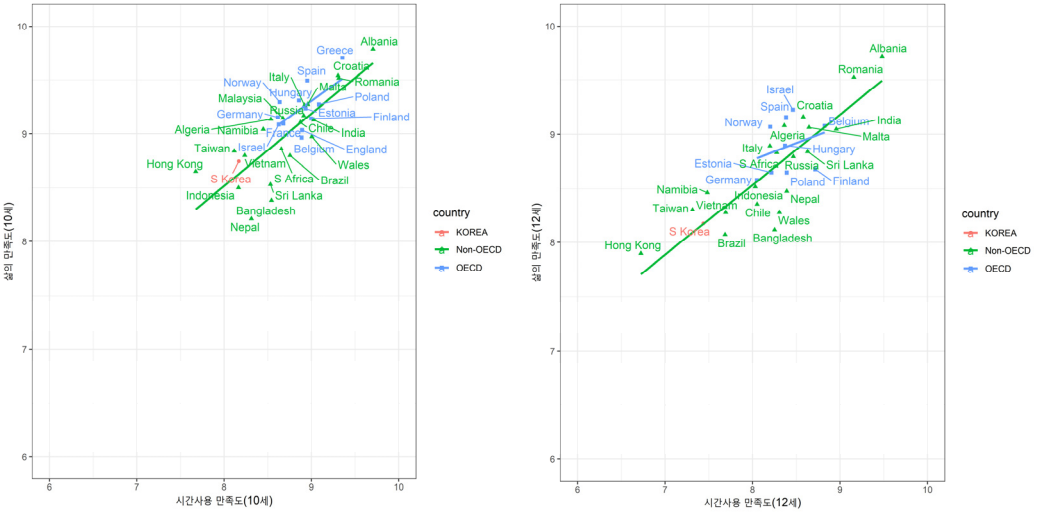
[그림 4-41] '시간사용(time-use)에 관한 만족도' 국가비교(ISCWeB 3차 데이터)

전체 35개국의 10세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평균은 8.75점이었다. 그 중 아시아 국가들의 만족도가 대체로 낮은 가운데 한국(8.17점)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시간사용 만족도를 보였다. 만 10세 아동들의 시간사용 만족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국 아동들의 시간사용 만족도에 있어서도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전체 30개국의 만 12세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평균은 8.26점으로 만 10세의 만족도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시간사용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만 10세와 만 12세간에 시간사용 만족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스리랑카와 네팔을 제외하면, 모든 국가에서 만 12세의 시간사용 만족도가 만 10세의 만족도보다 낮았다. 한국의 만 12세 시간사용 만족도는 7.44점으로 홍콩, 대만과 함께 만 10세와 만 12세의 시간사용 만족도에서 모두 최하위권에 위치하였으며, 만 12세와 만 10세 아동·청소년의 간의 시간사용 만족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 중 하나였다. 만 10세의 결과와는 달리 만 12세의 시간사용 만족도에서는 성별 간 차이가 커진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조사 참여국 중 가장 큰 성별 간 만 12세 시간사용 만족도 차이를 보였다.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다음 〈그림 9〉는 만 10세와 만 12세용 데이터를 기준으로 국가별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시간사용 만족도의 관계를 본 것이다. 비교를 위해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그러나 OECD 가

입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사용 만족도가 높은 국가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국은 시간사용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모두가 다른 조사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만 10세)의 삶의 만족도와 시간사용 만족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인데, 중학교 1학년(만 12세)로 넘어가면서 더 낮아져 그래프의 왼쪽 아래로 이동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아동·청소년들의 학업 부담이 늘고, 경쟁이 심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 만 10세는 35개국, 만 12세는 30개국에 대한 비교임
자료: ISCWeB 3차 조사의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가 분석하였음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42]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시간사용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국제비교(ISCWeB 3차 데이터)

4. 맺음말

지금까지 지난 20년간 한국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 변화, 인구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이, 국제 데이터를 활용한 시간만족도 순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이 늘어나고 학습시간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관측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대학입시에 가까워질수록 학습시간이 늘어나고 수면시간과 여가시간이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사회경제적 발전과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 실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1999년의 아동·청소년이나 2019년의 아동·청

소년 모두 대학입시가 다가올수록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사용하는 패턴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국제적 수준에서 매우 낮은 편이었고, 전반적 삶의 만족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시간사용 실태는 성인의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과 같은 개념이 아동·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은 너무 학습에만 치우쳐져 있으므로 학습-생활 균형(study-life balance)의 개념을 도입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긴 시간 학습을 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시간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단지 학습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사는 지역, 소득계층, 장애의 유무 등)에 따라 접근가능성이 다르므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생활시간조사의 '학생'을 기준으로 시간사용을 계산하여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현재 한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진 아동·청소년(학교 밖 아동·청소년 등)의 실태를 보여주지 못한다. 후속연구를 통해 학교 밖에 있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시간사용 패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05

한국 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서비스 방안

김대훈(스탯코리아 대표)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

제1절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검토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는 아동과 청소년의 웰빙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개발된 지표이다. 2019년에 지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고 프레임워크에 따른 세부 지표가 작성되었으며, 2020년에는 지표 체계의 부분적 개편과 지표 통계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

지표 체계가 구축되고 지표 통계가 작성됨에 따라 향후 국민에게 지표를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체계적인 대국민 지표 보고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한 데 이어 이 지표의 온라인 서비스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표 관리 거버넌스 조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표 서비스와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표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내용으로 보고되며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따라 향후 지표 서비스와 관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 지표의 구성 체계와 작성 내용, 작성 체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지표 구성 체계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영역-세부영역-개별지표'라는 위계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표 5-1〉「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영역 구성

영역	세부영역		
인구	-		
사회정책	-		
물질적 수준 및 주거환경	빈곤 및 생활수준	주거환경	
건강	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행동
학습·역량	학습	역량	
여가·활동·참여	여가 및 활동	사회·경제·정치 참여	
안전·행동	안전	위험행동	
관계	가족관계	또래관계 및 일반관계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긍정·부정 감정	삶의 가치와 의미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개별지표는 세부영역에 따라 분류되고 세부영역은 그 상위 영역의 주제로 범주화되어 있다. 이러한 위계적 지표 체계는 향후 제공될 온라인 지표 서비스의 검색 체계가 영역과 세부영역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개별지표가 영역과 하위영역별로 분류되어 검색될 수 있게 브라우즈 서비스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지표 작성 내용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는 향후 온라인 서비스와 체계적인 지표 관리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지표 통계표와 지표 해설 원고 그리고 지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지표 통계표는 지표가 나타내는 현상의 종단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집단 간 횡단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였다. 즉 연도별 시계열 통계를 수록하고 인구특성이나 구성요소별로 세분화하여 작성하였다.

지표 해설 원고는「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가 통계 설명형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지표가 나타내는 현상에 대한 요약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지표 메타데이터는 지표 일반에 관한 사항과 지표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 일반에 관한 사항에는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영역, 지표정의, 지표방향, 지표소관, 검색키워드, 최종업데이트일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지표 통계에 관한 사항에는 통계표명, 통계출처, 분석대상, 측정방법, 산출식, 통계치, 지역범위, 산출주기, 구축연도, 세분변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작성된 지표 통계표와 지표 해설 원고는 향후 만들어질 온라인 서비스의 데이터베

이스로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표 메타데이터는 이 지표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지표 메타데이터의 일부 항목은 온라인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

3. 지표 작성 체계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는 지표 작성-검수-감수의 3단계 업무체계를 통해 최종 개발되었다.

지표 작성 업무는 이 연구의 협동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연관 지표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연구팀에 의해 작성된 지표는 별도의 지표 검수팀에 의해 수치 오류 등의 수정·보완과 통계표 편집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표 연구팀과 검수팀에 의해 작성·검수된 지표는 전문 학자들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에서 최종 감수하였다.

제2절 국내외 온라인 통계 및 지표 서비스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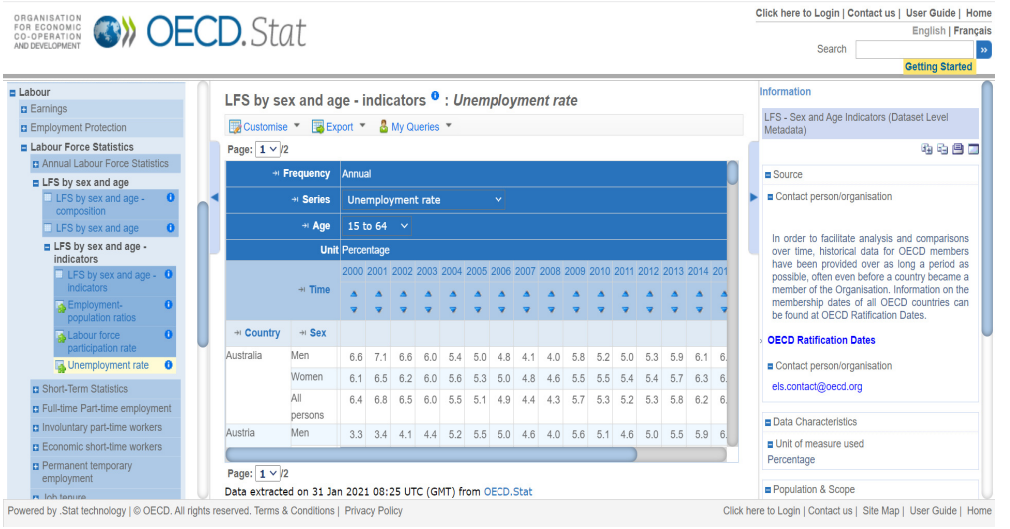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국내외 주요 온라인 통계 서비스와 지표 서비스를 살펴보고 이들 서비스의 특징을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서비스 방안을 설계하는 데 참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온라인 통계 및 지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ECD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어 국내 사례로 국가 통계 기관인 통계청의 온라인 서비스를 검토하였다.

1. OECD 온라인 통계 및 지표 서비스

OECD에서는 통계 데이터베이스인 OECD.Stat(https://stats.oecd.org)과 지표 서비스인 OECD Data(https://data.oecd.org)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OECD.Stat은 OECD Data의 지표 통계를 링크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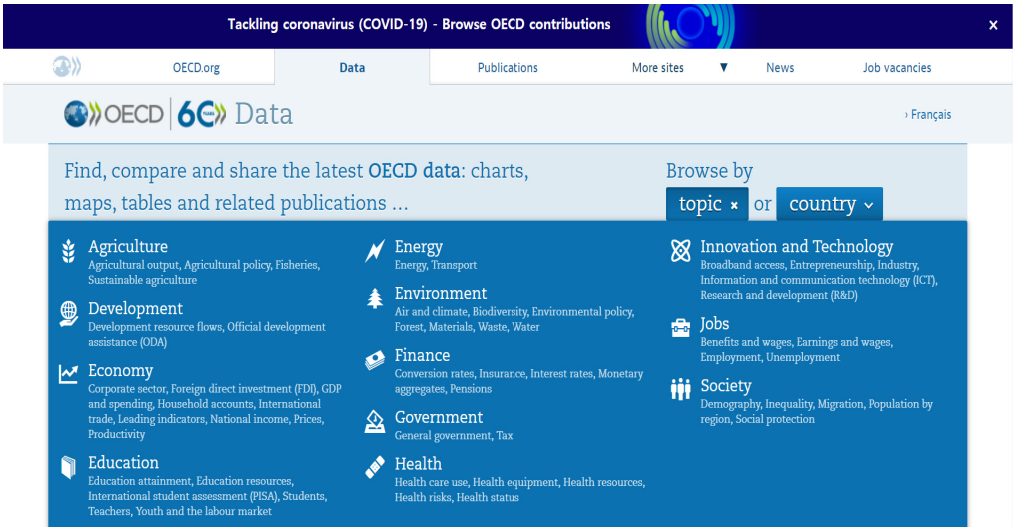
OECD.Stat은 경제, 산업, 금융, 기술, 노동, 환경, 건강, 교육, 사회, 복지 등을 망라하는 전 분야에 걸쳐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 통계 데이터베이스이다. 분야별 통계 주제를 검색할 수 있게 브라우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된 통계는 OECD 회원국별 장기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원하는 통계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설치해 두고 있으며, 검색한 통계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엑스포트 기능도 설치되어 있다. 통계 수치 외에 통계의 출처 정보와 자료 특성, 통계 단위 등 통계 메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출처: OECD.STATS. https://stats.oecd.org에서 2021년 1월 18일 인출.

[그림 5-1] OECD.Stat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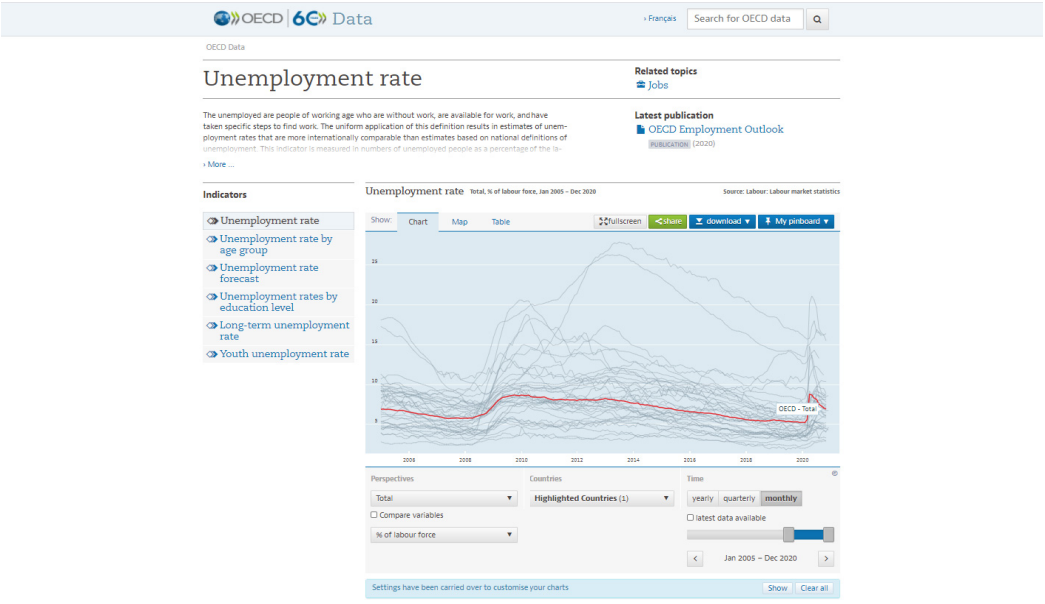
OECD Data는 OECD가 선정한 지표 통계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농업, 개발, 경제, 교육, 에너지, 환경, 금융, 거버넌스, 건강, 혁신과 기술, 일자리, 사회 등의 주제별로 핵심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OECD Data의 초기 화면에서는 주제별 그리고 국가별로 지표를 펼쳐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출처: OECD DATA. https://data.oecd.org에서 2021년 1월 18일 인출.

[그림 5-2] OECD Data 초기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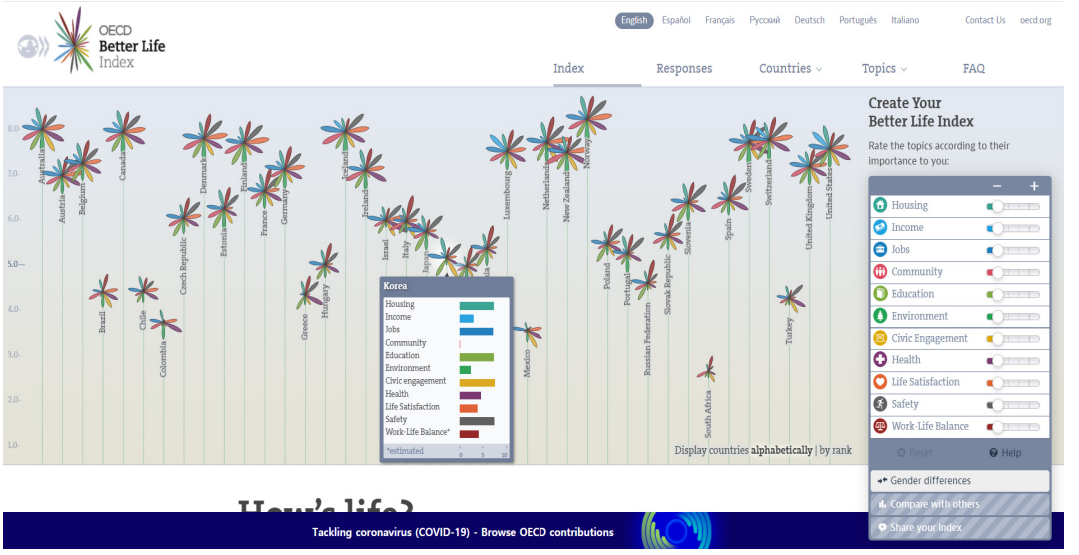
OECD Data의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해당 지표의 정의(definition), 지표 통계, 관련 지표 정보가 제공된다. 검색 결과의 상단에는 지표에 관한 메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의 개념적 정의와 측정 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지표 통계는 기본적으로 차트 형태로 제공되며, 시각적 효과를 위해 지도 형태로도 제공된다. 차트의 개별 선그래프를 클릭하면 해당 그래프가 어떤 국가인지를 알 수 있다. 통계의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표 형태로도 제공된다. 이 외에도 통계 시계열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고 인구집단별로 세분화하여 볼 수도 있다. 검색 결과는 SNS나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공유할 수 있고, 데이터 파일을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해당 영역의 관련 지표들이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어 별도의 검색 없이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출처: OECD DATA. https://data.oecd.org/unemp/unemployment-rate.htm에서 2021년 1월 18일 인출.

[그림 5-3] OECD Data 검색 결과

OECD는 OECD.Stat과 OECD Data 이외에 국가별 삶의 질 지수를 비교하는 Better Life Index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Better Life Index 서비스는 이용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온라인 지표 서비스라는 점이 특징적인데, 국가 간 비교가 한눈에 가능하도록 간결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직접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지수의 성별 격차도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OECD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에서 2021년 1월 18일 인출.

[그림 5-4] OECD Better Life Index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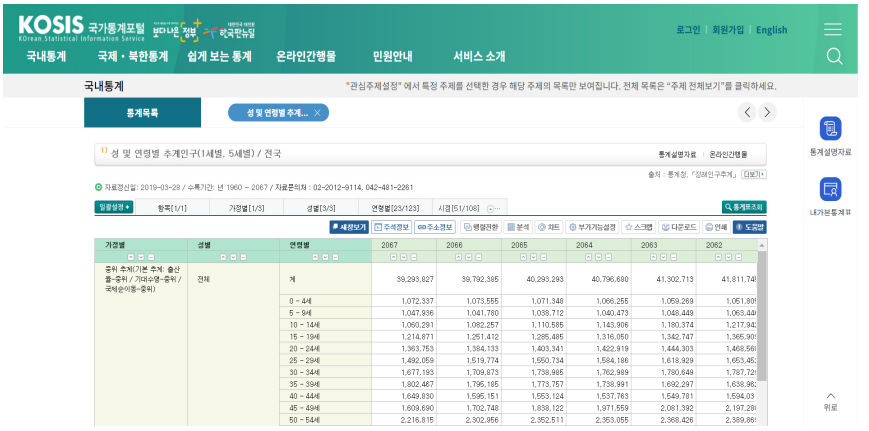
2. 통계청 온라인 통계 및 지표 서비스

국내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통계 및 지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이하 KOSIS, https://kosis.kr)과 「e-나라지표」「국가발전지표」「국민삶의질지표」의 통합 웹사이트(https://www.index.go.kr)를 운영하고 있다.

KOSIS는 명실 공히 국가 승인통계 통합 데이터베이스로서 조사통계와 행정통계를 망라하는 모든 종류의 통계와 인구에서부터 국민계정에 이르는 모든 주제의 통계를 원자료에 가까운 형태로 제공한다.

KOSIS 서비스는 검색 결과의 편집 기능이 우수하고 이용자 정보가 풍부한 것이 특징적이다. KOSIS에서는 통계의 구성 항목이나 세분 변수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통계 시계열도 연도나 분기별로 조정할 수 있다. 행렬전환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 결과를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고, 분석 기능을 통해 증감률과 같은 가공 통계도 산출할 수 있다. 검색 결과는 다양한 차트로도 변형하여 볼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데이터 파일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KOSIS에서는 통계의 수치 정보뿐만 아니라 별도의 링크를 통해 풍부한 출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정리한 주석정보나 검색 URL과 같은 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통계의 최근 업데이트 일자를 명시하는 등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에서 2021년 1월 27일 인출.

[그림 5-5] 통계청 KOSIS 서비스

한편 통계청의 지표 통합 웹사이트(https://www.index.go.kr)에서는 각 부처 소관의 국정 모니터링 지표인 「e-나라지표」와 통계청 소관의 「국가발전지표」 및 「국민삶의질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e-나라지표」 서비스를 먼저 살펴보면 서비스 소개, 지표 보기, 지표 상황판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소개에서는 「e-나라지표」의 작성 배경과 연혁, 지표의 특징 등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고, 부처별 소관 지표를 리스트하고 있다. 지표 보기에서는 지표의 소관 부처와 주제 영역별로 지표를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최신 지표와 인기 지표도 제공하고 있다. 지표 상황판은 소관 부처별 및 크로스커팅(범영역) 주제별로 구성한 지표 대시보드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main.do에서 2021년 1월 19일 인출.

[그림 5-6] 「e-나라지표」 서비스 초기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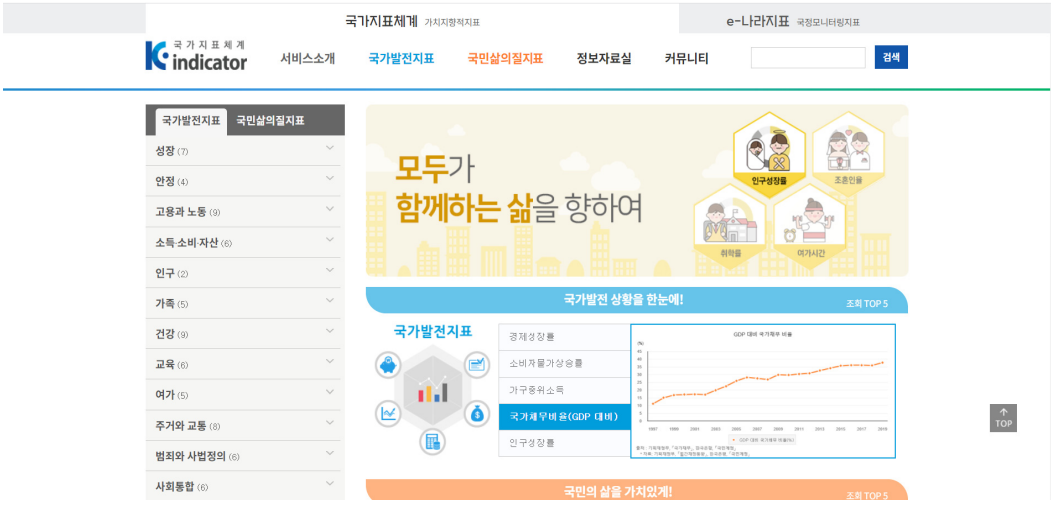
「e-나라지표」 검색 결과는 그래프 및 통계표, 의미분석, 지표정보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 결과는 그래프로 제시되고 그래프의 수치 정보가 통계표로 함께 제시된다. 그래프는 범례와 형태를 편집할 수 있고 그림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다. 통계표는 시계열을 최대로 확장하여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검색 결과가 KOSIS와 연동되므로 별도의 검색 없이 해당 지표의 상세 통계를 KOSIS에서 찾을 수 있다. 의미분석에서는 지표 개념에 대한 설명, 지표 추이에 대한 해석, 지표 이용 시 유의사항, 용어해설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데, 특히 지표와 관련된 용어 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지표정보에는 지표 작성 방법과 자료 출처, 연관 지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e-나라지표 산업재해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4&param=011에서 2021년 1월 19일 인출.

[그림 5-7] 「e-나라지표」 검색 결과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는 단위 지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단일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다.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의 통합 웹사이트에서는 각 지표 체계의 영역별로 지표를 펼쳐 볼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메인 화면에는 국가발전 상황과 국민 삶의 질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핵심 지표의 대시보드를 설치하였다.



출처: 국가지표체계 국민삶의질지표. http://www.index.go.kr/unify/main.do에서 2021년 1월 19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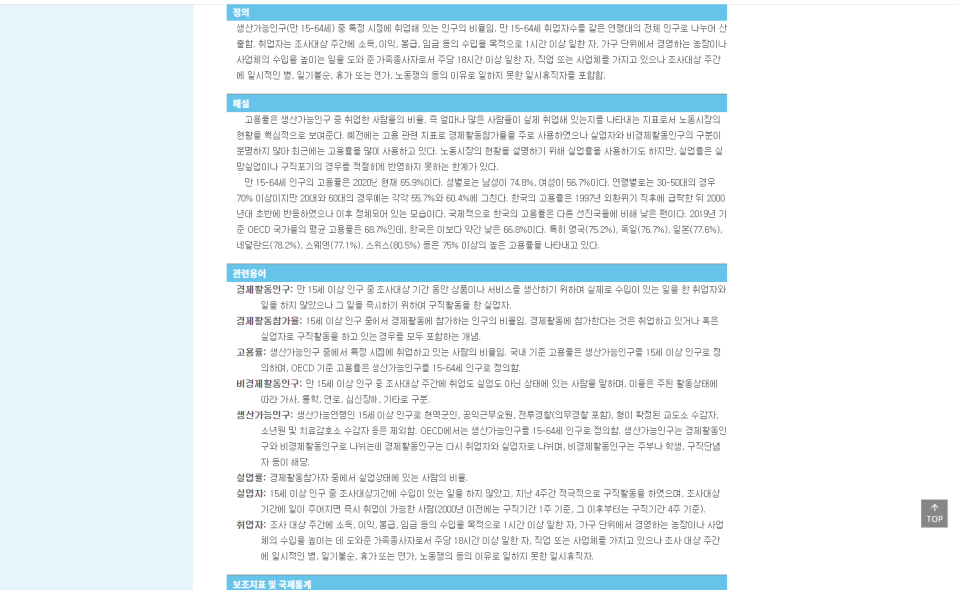
[그림 5-8]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 통합 서비스 초기 화면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단위 지표의 검색 결과가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검색 결과는 크게 그래프, 통계표, 지표 정의, 지표 해설, 관련 용어, 보조지표 및 국제통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나라지표」와 동일하게 그래프에서 원하는 통계 항목을 선택할 수 있고 통계표의 시계열을 조회할 수 있다. 그래프의 그림 파일과 통계표의 엑셀 파일을 내려 받을 수도 있다. 지표 정의에는 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산출 방법, 주요 개념 등이 기술되어 있다. 지표 해설은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가 설명형 지표로서의 위상을 갖게 하는 핵심 정보로서 해당 지표가 측정하는 바와 그 의의, 지표가 나타내는 현상의 장기적 추이와 최근 동향, 한국 상황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 비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용어는 해당 지표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에 대한 해설 정보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표의 연관 지표로 보조지표와 국제통계를 리스트하고 있다.



출처: 국가지표체계 국민 삶의 질 지표 고용율.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2에서 2021년 1월 19일 인출.

[그림 5-9]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 검색 결과(1)



출처: 국가지표체계 국민 삶의 질 지표 고용율.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2에서 2021년 1월 19일 인출.

[그림 5-10]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 검색 결과(2)

제3절 온라인 지표 서비스 설계

이 절에서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온라인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 기술한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는 최근 지표 서비스 동향을 반영하여 지표 설명형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개별지표에 대한 해설 원고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온라인 서비스도 지표 설명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지표 설명형 온라인 서비스는 이용자의 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지표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는 영역-세부영역-개별지표의 위계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역별 주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영역을 관통하는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주제를 별도로 개발하여 특별 주제 모듈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온라인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층 가운데 하나는 아동·청소년임. 아동·청소년들이 지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표를 쉽게 해설해 주는 동영상 콘텐츠가 제작되어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온라인 지표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기능이다.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는 아동·청소년의 시민 교육이나 통계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1. 초기 화면 구성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온라인 서비스의 기본 메뉴는 지표 소개, 영역별 지표 검색, 주제별 지표 검색, 국제 비교 지표 검색, 지표 해설 등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초기 메인 화면에는 검색(search) 창을 설치하고 영역별 대표 지표의 대시보드와 함께 연령별 지표가 제시되도록 할 것이다. 각 기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표 소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작성 배경과 목적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지표

체계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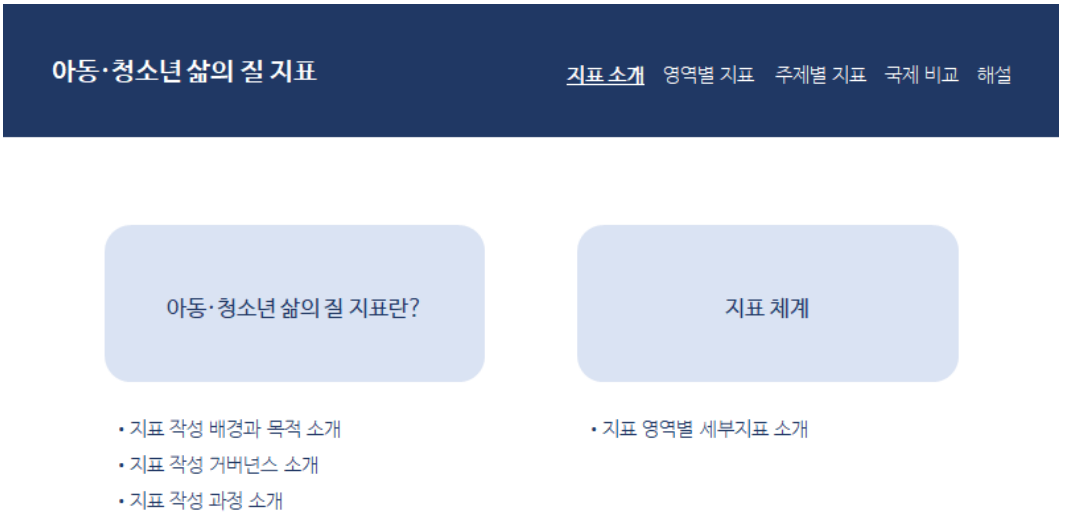
- 영역별 지표 검색: 영역별로 개별지표를 펼쳐 볼 수 있게 하고 선택한 지표를 그래프와 함께 제시한다.
- 주제별 지표 검색: 크로스커팅 주제별 지표를 펼쳐 볼 수 있게 하고 선택한 지표를 그래프와 함께 제시한다.
- 국제 비교 지표 검색: 국제 비교 지표를 펼쳐 볼 수 있게 하고 선택한 지표를 그래프와 함께 제시한다.
- 지표 해설: 지표에 관한 동영상 해설 콘텐츠로 별도의 유튜브(YouTube) 영상 제작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 검색 창: 자연어에 의한 지표 검색 서비스로 영역별 지표 검색과 동일한 형태로 결과를 제시한다.
- 영역별 대표 지표 대시보드: 영역별 대표(핵심) 지표의 결과를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요약적이고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지표의 방향성(향상, 퇴보)을 기호로 나타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요약 수치를 제시할 수도 있다.
- 연령별 지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지표로 구분하여 연령대별로 지표를 한눈에 펼쳐 볼 수 있도록 제시한다.



[그림 5-11] 초기 화면 구성

2. 지표 소개

지표 소개 화면에서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이 지표의 체계를 설명한다. 개괄적 소개에서는 지표 작성 배경과 목적, 지표 작성 조직, 지표 작성 과정 등을 설명하고, 지표 체계 소개에서는 지표의 영역 및 세부영역별 구성과 개별지표가 해당 영역에서 갖는 의의, 개별지표의 방법론적 정의와 작성 방법, 지표 통계의 자료 출처 등을 설명한다.



[그림 5-12] 지표 소개 화면 구성

3. 영역별 지표 검색

영역별 지표 검색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영역 체계에 따라 개별지표가 검색(browse)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용자는 이 지표의 영역 또는 세부영역별로 개별지표를 펼쳐 볼 수 있다. 즉 인구, 사회정책, 물질적 수준 및 주거환경, 건강, 학습·역량, 여가·활동·참여, 안전·행동, 관계, 주관적 웰빙의 각 영역별로 개별지표를 브라우징하여 해당 영역에서 필요한 지표를 찾아볼 수 있다. 이때 해당 영역이 아동·청소년의 웰빙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검색 결과는 지표 정의와 해설, 지표 통계, 관련 지표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지표 정의는 지표 통계에 대한 방법론적 정의와 산출 방법을 기술한 것이고, 지표 해설은 지표가 갖는 의의, 지표가

나타내는 동향에 대한 종단적 해설을 기술한 것이다. 필요한 경우 지표 해설에 한국 상황의 상대적 수준(국제 비교)에 대한 설명도 기술될 수 있다. 지표 통계는 그래프의 형태로 제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표로도 볼 수 있다. 지표 통계의 범례와 연도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선택한 통계는 엑셀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검색한 지표 통계를 SNS로 공유하는 부가 기능도 추가된다. 지표 통계의 그래프는 직관적 이해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색된 지표의 연관 지표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표 간 관계 맺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5-13] 영역별 지표 검색 화면 구성

4. 주제별 지표 검색

주제별 지표 검색은 기존의 지표 체계, 즉 영역별 지표 검색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표 활용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영역 체계를 관통하는 별도의 크로스커팅 주제를 개발하여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지표를 펼쳐 볼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지표를 '아동·청소년 인권' '아동·청소년 주관적 만족' '아동·청소년 웰빙의 불평등' 등과 같은 주제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인권'을 크로스커팅 주제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 지표는 물질적 생활수준, 생명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시민권, 안전권 등 다양한 권리 차원의 지표들로 재편될 수 있다. 주제별 지표 검색은 스토리텔링 방식의 아동친화적

서비스로 발전될 수 있다.

향후 이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크로스커팅 지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연구진에 의해 시의성 있고 주목도가 높은 이슈가 개발되어야 하고 동시에 해당 이슈별로 기존의 지표를 재구성하고 그에 따른 지표 해설 원고를 작성하는 일도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5-14] 주제별 지표 검색 화면 구성

5. 국제 비교

국제 비교는 한국 아동·청소년 웰빙의 상대적 수준을 보여 주는 국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국제 지표의 목록을 펼쳐 보여 주고(브라우징), 개별지표의 결과는 영역별 지표 검색 결과와 동일하게 그래프 형태로 제시한다.

국제 비교 지표로는 OECD Child Well-Being 지표와 UNICEF Child Well-Being 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 OECD Child Well-Being 지표는 가족 환경, 건강과 안전, 교육과 학교생활, 참여와 생활만족, 아동정책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UNICEF Child Well-Being 지표는 성과(outcomes), 활동(activities), 관계(relationships), 연결망(networks), 자원(resources), 정책(policies), 환경(context) 등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 비교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제 비교 지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

다. 국제 비교 지표는 한국 통계가 제시된 지표들로 구성해야 한다.



[그림 5-15] 국제 비교 화면 구성

6. 지표 해설

지표 해설은 이 지표의 주요 유저인 아동·청소년의 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이다. 지표 결과를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해설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개별지표, 지표 영역별, 크로스커팅 주제별 등 다양한 수준에서 동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통계로 보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아동·청소년 웰빙과 불평등' 등 크로스커팅 주제에 따라 시리즈 형태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지표 이해하기'와 같은 제목으로 전체 지표를 소개하는 동영상 콘텐츠도 제작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작성된 개별지표의 해설 원고를 영상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림 5-16] 지표 해설 화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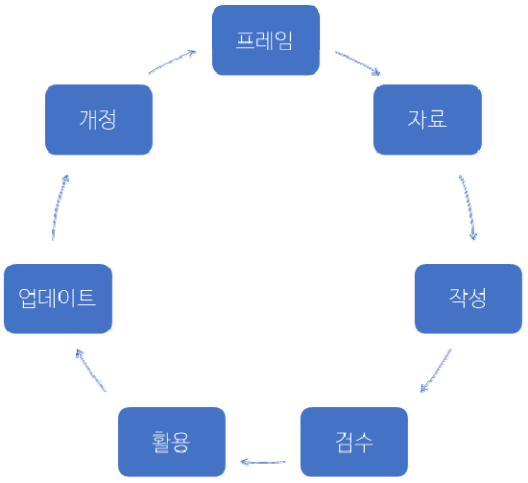
제4절 지표 관리와 활용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 조직을 제안하고 이 지표의 활용에 따른 향후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1. 지표 관리

일반적으로 지표는 개발에서부터 관리, 개정에 이르는 일련의 라이프사이클을 가지는데, 지표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는 아래와 같다.

- 지표 프레임 구축
- 자료 발굴, 지표 활용 가능성 검토, 자료 가공 및 산출
- 지표 통계·정의·의의·해설 등 작성
- 작성된 지표의 검토 및 수정·보완
- 지표 업로드, 지표 활용 보급
- 지표 통계 업데이트, 업데이트 통계 반영 수정·보완
- 지표 영역 및 개별지표 개정(신설·삭제)
- 개정 지표의 지표 프레임 반영



[그림 5-17] 지표 라이프사이클

지표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의사결정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즉 메타적 의사결정을 통해 지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표 관리가 가능하다.

지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크게 지표 작성·검수·업데이트, 지표 활용, 지표 개정의 세 부문에서 체계적인 업무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협력 연구기관이 관련 지표를 분담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된 지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에서 수정·보완되고 있다.

향후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가 지표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업무 조직이 갖추어져 운영되어야 한다. 이 지표가 현재의 연구팀으로부터 이관되어 체계적인 업무 조직을 기반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안과 국책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안은 업무의 전문성, 지표의 객관성(중립성), 운영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각각 장단점을 가진다.

먼저 국가기관으로 이관되면 지표의 개정 과정 등에서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나 국가 재원이 뒷받침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특히 국가 통계 기관인 통계청에서 이 지표를 운영할 경우 지표 작성과 활용 측면에서 전문성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 소관으로 지표가 운영될 경우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지표 작성이 이루어져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고 국가기관에서 운영될 경우보다 지표의 객관성이 더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업무 조직이 아니라 연구 조직이기 때문에 지표 관리와 서비스 운영에 있

어서 조직 내 이니셔티브를 가지기가 어려우며, 이는 지표 운영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민간기관이 맡을 경우 지표 작성과 관리의 전문성을 보장받기 어려우나 지표의 객관성과 중립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관료적 요소가 적은 민간에서 운영되는 만큼 외부 기관과의 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지표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지표 운영이 담보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이상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 5-2〉와 같다.

〈표 5-2〉 지표 운영 주체별 장단점

운영 주체	국가기관	국책연구기관	민간기관
전문성	보통	높음	보통
객관성(중립성)	낮음	보통	높음
안정성	높음	보통	낮음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는 향후 국가 통계 기관, 즉 통계청에 이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민간의 전문 아카이브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현재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등 대표적인 국가 지표들을 작성해 오고 있으며, 이 중 「국가발전지표」와 「국민삶의질지표」는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http://www.index.go.kr)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청의 지표 작성 및 관리 전문성이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운영하는 데 충분히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통계청이 통계와 지표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서비스도 통계청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으로 이관될 경우 지표 개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나 이는 통계청이 시민사회 및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별도의 기구나 연구팀을 조직하는 등 독립성 확보에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한편 민간기구에 이관할 경우 사회과학 자료 전문 아카이브 기관을 그 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과학 자료 전문 아카이브 기관은 온라인 자료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지표 서비스 제공에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민간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표의 중립성도 확보될 수 있으며, 시민사회나 학계와의 협업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 다만 민간 아카이브 기관은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전문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문 연구기관이나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표 운영에 따르는 추가 재원도 수탁 기관에게는 부담이 되므로 운영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 아카이브 기관에 이관하

는 경우 '운영 기관'과 '지원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컨소시엄 방식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표 활용과 과제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는 아동·청소년 정책의 환류에 활용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과 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정책 입안자나 담당자가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책 모니터링의 준거로 활용함으로써 정책 변경이나 예산 계획 수립에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과 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웰빙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대국민 소통을 도모할 수 있다. 대국민 소통을 통한 국민 의견을 지표에 반영하여 지표의 타당성과 적시성을 높일 수도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시민 교육,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가 지속적으로 작성되고 작성된 지표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보고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표의 지속적인 생산과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연구팀으로부터 지표를 이관하는 계획을 차근히 수립하고 이 계획이 실천되면 지표 라이프사이클에 기반하여 업무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표 서비스 웹사이트 개발에 앞서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 개발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크로스커팅 지표의 개발, 국제 지표와 연령대별 지표의 작성, 지표 해설 동영상 제작 등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06

프레임워크 개선 및 핵심지표 선정을 위한 델파이조사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
심수진(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제1절 조사 개요

이 장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한 델파이방식(Delphi method)의 전문가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를 구성하면서 전문가,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를 시행하여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구성의 타당화 작업을 통해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토대로 아동 삶의 질 현황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Hanafin, S., Brooks, A. M., Carroll, E., Fitzgerald, E., GaBhainn, S. N., & Sixsmith, J., 2007).

우리 연구 역시 1차년도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론 중심적 접근, 데이터 중심적 접근, 아동 목소리 중심적 접근을 통해 지표체계를 구성하였고, 각 부처별, 연구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표를 총괄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120여개 지표들과 참고지표들을 보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타당화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와 실제 지표들의 정합성이 떨어졌다는 것, 두 번째는 현재의 프레임워크가 만 0세부터 24세의 아동·청소년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세 번째는 한 눈에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론적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와 실제 지표들 간의 정합성이 떨어진 것은 애초에 구성한 삶의 질 개념과 실제 지표들 간의 논리적 연관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이 연구가 직접 삶의 질 지표를 측정하지 않고 국가승인통계 중에서 활용 가능한 지표를 모아서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방식(data-driven approach)으로 진행되어 나타난 한계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현재의 프레임워크가 만 0세부터 24세의 아동·청소년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지표들이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학령기 이전의 영유아들이나 후기청소년(청년)들의 삶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OECD(2015)의 삶의 질 연구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학령기 아동·청소년 위주로 지표가 구성되고 영유아 관련 지표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의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아동(child) 연령인 만 0세-18세 미만의 범위를 넘어 만 24세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후기 청소년기는 실질적

인 성인기로 아동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아동기의 삶의 질 영역과 지표만으로는 부족하다.[27] 이와 같이 우리의 지표체계는 만 0세부터 24세까지를 포괄하고자 하였지만 실제 영유아기와 청년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매우 부족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한 눈에 지표들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 연구가 제공하는 지표가 너무 많아 전체적인 조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방대한 지표들은 독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현재 이 연구는 영유아의 삶의 질 수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 후기청소년 혹은 청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의 삶의 질 수준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전 연령을 포괄하고, 핵심지표를 통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진은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시행하여 프레임워크의 개선과 핵심지표 선정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핵심지표 선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의 발전방향과 관계된 전문가조사의 성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의 영향, 데이터베이스 및 이용자 포털 이용 의향,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통합 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1. 델파이조사의 목적 및 주요 방법

1) 델파이조사의 목적

델파이조사의 목적은 이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표체계의 타당성을 개선하는 것에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을 측정하고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에 있다.

27) 이 시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청소년기로 지칭이 되었지만 성년이 지난 성인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 청년기본법이 도입되면서 만 19세부터 24세는 청년으로 재정의 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전통적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 혹은 이행기(transition period)의 성격을 갖는데, 과거 청소년기 이후 결혼이나 취업으로의 연결이 빨랐던 것에 비해 최근 이 기간이 길어지며 이 시기를 성인이행기(emerging adulthood)라 지칭하기도 한다(Arnett, J. J., 2007).

〈표 6-1〉 델파이조사 진행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시기	• 1차: 2021년 1월 27일(수) ~ 2월 2일(화) • 2차: 2021년 2월 16일(화) ~ 2월 18일(목)
조사대상	•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공무원 등)
조사방법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
모집방법	• 협동연구진의 삶의 질 영역별 추천을 통한 전문가 명단 구축
분석방법	• 평균(표준편차), 내적 타당도 비율(CVR), 합의도 등

2) 참여전문가

이번 델파이조사 참여 전문가는 아동·청소년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전문가 목록의 구성과 섭외 과정을 각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전반과 각 영역별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섭외하였다. 이와 함께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영유아의 삶의 질과 관련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영유아 삶의 질 전문가들을 보강하였고,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청소년들(입양 및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장애 아동·청소년, 다문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추가하였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섭외하기 위하여 정부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와 아동·청소년 NGO에서 근무하는 활동가들도 함께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총 67명의 전문가리스트를 구축하였다. 둘째, 조사업체를 통해 67명에게 조사링크가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동의자에 한하여 1차 델파이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총 57명의 전문가가 1차 조사에 참여하였다. 셋째, 조사업체를 통해 1차 델파이에 응답한 57명에게 조사링크가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3명을 제외한 54명이 2차 조사에 참여하였다. 최종적으로 1차 조사는 57명, 2차 조사는 5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표 6-2〉 델파이조사 참여 전문가 특성

번호	전문 영역	ID	소속	1차 델파이 참여	2차 델파이 참여
1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전반	A1	대학교수	○	○
2		A2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3		A3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4		A4	대학교수	○	○
5		A5	대학교수	○	○
6		A6	대학교수	○	○
7	건강	B1	대학교수	○	○
8		B2	대학교수	○	×
9		B3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10		B4	지자체연구기관 연구원	○	○

번호	전문 영역	ID	소속	1차 델파이 참여	2차 델파이 참여
11	학습·역량	C1	대학교수	○	○
12		C2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13		C3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14		C4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15		C5	대학교수	○	○
16		C6	대학교수	○	○
17		C7	대학교수	○	○
18	안전·행동	D1	사단법인 연구원	○	○
19		D2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20		D3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21		D4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22		D5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23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E1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24		E2	대학교수	○	○
25		E3	지방연구기관 연구원	○	○
26		E4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27		E5	대학교수	○	○
28		E6	대학교수	○	○
29	여가·활동·참여	F1	정부산하기관 연구원	○	○
30		F2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31		F3	대학교수	○	○
32	관계	G1	대학교수	○	○
33		G2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34		G3	대학교수	○	○
35		G4	대학교수	○	○
36		G5	대학교수	○	○
37	주관적 웰빙	H1	정부산하기관 연구원	○	○
38		H2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39		H3	정부기관 공무원	○	○
40		H4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41		H5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42	영유아 및 아동	I1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43		I2	대학교수	○	○
44		I3	대학교수	○	×
45		I4	대학교수	○	○
46		I5	대학교수	○	○
47		I6	대학교수	○	○
48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청소년	J1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	○
49		J2	대학교수	○	○
50		J3	정부위원회 실무자	○	○
51		J4	대학교수	○	○
52		J5	대학교수	○	○
53	아동·청소년의 권리옹호	K1	아동 NGO 활동가	○	○
54		K2	아동 NGO 활동가	○	○
55		K3	아동 NGO 활동가	○	○
56		K4	아동 NGO 활동가	○	○
57		K5	아동 NGO 활동가	○	○

3) 조사방법

델파이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델파이조사는 조사전문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시행되었고, 연구진이 개발한 설문지를 온라인 조사 형태로 변환한 후 참여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이메일에 온라인 조사 URL 탑재).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에게는 1차와 2차 각각 소정의 답례품(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2. 델파이조사의 주요 내용 및 분석 방법

1) 델파이조사의 주요 내용

델파이조사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영역으로 현재 프레임워크가 각 연령별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이다. 만 0-24세, 만 0-5세, 만 6-18세, 만 19-24세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프레임워크로서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였다.

둘째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가 타당한지이다.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이론중심적 접근, 데이터 중심적 접근, 아동·청소년 목소리 접근 등 세 가지 과정을 통해 구축되었다(유민상 외, 2019). 이론 중심적으로 설계된 프레임에 지표를 추가할 때는 가용한 데이터 여부에 따라 지표체계 구성이 달라지는 특징(data-driven)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이론적 접근에 따라 구성된 지표들이 타당한지, 가장 타당한 지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셋째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발생하였는지, 이것을 측정하여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 등이다. 1차는 개방형 응답으로 되었고 2차는 이를 목록으로 정리하여 폐쇄형 응답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문항이다. 삶의 질 지표들의 분석 하위집단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의견, 현재 별도로 조사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통합에 대한 의견, 이 연구의 지표체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자 포털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추가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3〉 델파이조사 주요 내용

구분	1차 델파이 주요 내용	2차 델파이 주요 내용	비고
Ⅰ.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 만 0-24세 프레임워크 타당성 • 만 0-5세 프레임워크 타당성 • 만 6-18세 프레임워크 타당성 • 만 19-24세 프레임워크 타당성	• 만 0-5세 프레임워크 타당성 • 만 6-18세 프레임워크 타당성 • 만 19-24세 프레임워크 타당성	•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조사 시행
Ⅱ.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	**사회적 배경 지표의 핵심지표 선정** • 인구지표 • 사회정책 지표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의 핵심지표 선정** •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 지표 • 건강 영역 지표 • 학습·역량 영역 지표 • 여가·활동·참여 영역 지표 • 안전·행동 영역 지표 • 관계 영역 지표 • 주관적 웰빙 영역 지표	**사회적 배경 지표의 핵심지표 선정(우선순위 조사)** • 인구지표 • 사회정책 지표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의 핵심지표 선정(우선순위 조사)** •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 지표 • 건강 영역 지표 • 학습·역량 영역 지표 • 여가·활동·참여 영역 지표 • 안전·행동 영역 지표 • 관계 영역 지표 • 주관적 웰빙 영역 지표	• 2차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응답자 전체평균을 제시한 후, 핵심지표의 1-3순위를 체크하도록 하였음
Ⅲ.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변화 및 측정지표	•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 삶에 미친 영향 평가 •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에 대한 의견조사(개방형) •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측정을 위한 지표조사(개방형)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측정을 위한 지표 타당성 조사** •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 지표 • 건강 영역 지표 • 학습·역량 영역 지표 • 여가·활동·참여 영역 지표 • 관계 영역 지표	• 1차 조사의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에 대한 의견조사(개방형)를 기반으로 지표목록을 작성하여 2차조사에서 타당도를 조사하였음
Ⅳ. 기타	• -	• 지표 하위집단 분석에 대한 제안 •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통합에 관한 의견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포털 운영 시 이용 의향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포털 운영 시 학령기 아동·청소년 친화적 구성에 대한 의견 • 종합 의견	• 응답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차 조사에서만 조사되었음

2) 분석방법

이번 조사는 1차와 2차로 진행이 되었다. 델파이조사의 목적이 ①프레임워크의 타당성을 높이고, ②핵심지표를 선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핵심지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판단 기준으로서 평균과 표준편차, 내용 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기준으로 하였고, 부가지표로 합의도를 참조하였다. 여기서 내용 타당도 비율(CVR)은 각 문항에 대해 타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이 조사에서 활용한 7점 리커트 척도(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 ④ 보통 ~ ⑦ 매우 타당함)를 통해 CVR을 도출할 경우, 각 문항에서 5점~7점을 응답한 사람의 수(Ne)를 구하여 아래 공식에 대입한다(Ayre & Scally, 2014).

$$CVR = \frac{n_e - (N/2)}{N/2}$$

CVR = 내용 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Ne = 전체 패널 중 타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Number of paenl members indicating an item 'essential'; N= 패널의 수(Number of panel members)

응답자 모두가 타당하다고 응답했을 경우 CVR 값은 1, 절반의 응답자가 타당하다고 응답했을 경우 0의 값을 갖는다(Lawshe, 1975). 결과가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CVR 기준은 응답자 수에 비례하여 다른 값을 갖는데 이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40명 이상인 57명이므로 .3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Ayre & Scally, 2014).

이 연구에서 부가적인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합의도와 수렴도는 패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합의도와 수렴도는 제3사분위 계수값에서 제1사분위 계수값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수로, 합의도는 두 차이(사분편차)를 중위값으로 나누어준 후 1에서 뺀 값이고, 수렴도는 두 차이(사분편차)를 2로 나누어준 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패널의 합의도가 0.75 이상, 수렴도가 0-0.5일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CVR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합의도와 수렴도는 참고지표로만 활용하였다.

제2절 주요 결과

1.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타당화

델파이조사의 첫 번째 파트는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구성하는데 있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만 0세부터 24세를 포괄하고자 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에 대해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가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각 연령별로 타당한지에 대해 나누어 물어보았다.

1) 0-24세 대상 프레임워크의 타당성

1차 조사에서는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의 생태체계적 기반과 다차원적인 특성, 그리고 전체 프레임워크 도식을 설명한 후,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가 만 0세부터 24세까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 만 1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각각 물었다. 응답범주는 전혀 타당하지 않음(1점)부터 매우 타당함(7점)까지 응답토록 하였다. 1차 조사의 응답 결과를 보면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구성하는데 있어 타당한지에 대한 응답평균 결과로서 7점 만점에 만 0-24세 5.88점, 만 0-5세 4.77점, 만 6-18세 5.98점, 만 19-24세 5.40점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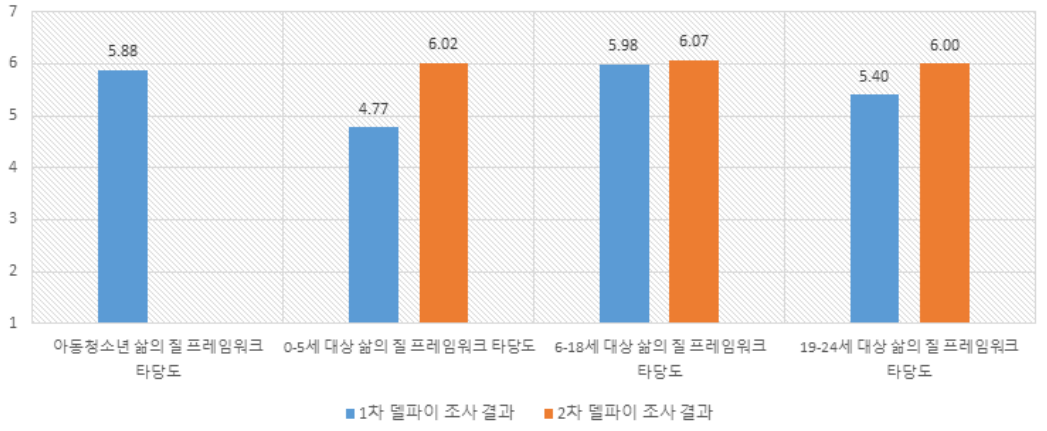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큰 이견이 발생하지 않은 만 0-24세 프레임워크를 제외하고, 각 연령 프레임워크에 대해 1차 조사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프레임워크에 대한 타당도를 물어보았다.[28] 자신의 1차 조사에서의 응답, 평균 응답을 보여주고 2차 조사의 타당도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만 0-5세는 6.02점, 만 6-18세는 6.07점, 만 19.24세는 6.00점으로 1차 조사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28) 만0-24세, 만6-18세는 모두 높은 타당도와 CVR값을 갖지만 만0-24세에 비해 만6-18세의 개방형 응답의 요구들이 많았다. 2차 조사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만6-18세 프레임워크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시행하였다.

〈표 6-4〉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종합)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만 0-24세 대상 프레임워크 타당도	5.88 (0.77)	0.82	1.00	0.00				
만 0-5세 대상 프레임워크 타당도	4.77 (1.38)	0.16	0.60	1.00	6.02 (0.71)	0.89	1.00	0.00
만 6-18세 대상 프레임워크 타당도	5.98 (0.74)	0.93	1.00	0.00	6.07 (0.57)	0.96	1.00	0.00
만 19-24세 대상 프레임워크 타당도	5.40 (0.88)	0.72	0.83	0.50	6.00 (0.67)	0.96	1.00	0.00



[그림 6-1]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연령별 프레임워크에 대한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만 0-24세 대상 프레임워크는 모든 응답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고 영역에 대한 추가의견이 거의 제시되지 않아 더 이상 수정하지 않고, 1차 조사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았다 (CVR=0.82, 합의도= 1.00). 다만 1차 조사의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견에서 유의할 것은 물질적 환경과 주거환경이라는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 범주의 구성이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모호한 영역이 있다는 것, 생애주기별로 영역의 중요성이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이 중에서 물질적 환경과 주거환경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나 우리가 현재 취합할 수 있는 주거(housing)와 환경(environment)에 대한 지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최근 주거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지표들이 많이 생산된다면 추후 검토해볼만하다.

〈표 6-5〉 만 0-24세 대상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에 대한 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

▷ 물질적 환경과 주거 환경은 그 자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므로 하나의 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분리 필요.
▷ 각 시기별로 위의 7가지 영역의 중요도가 다를 것 임. 이러한 점이 반영되면 좋겠음.
▷ 범주의 구성이 상호배제적이지 않고, 모호한 영역이 있음.
▷ 24세까지라는 나이의 프레임이 성인기를 포괄하는 관계로, 여가, 활동, 참여의 구체성이 연령마다 다른 것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문제로 남음.

2) 만 0-5세 대상 프레임워크의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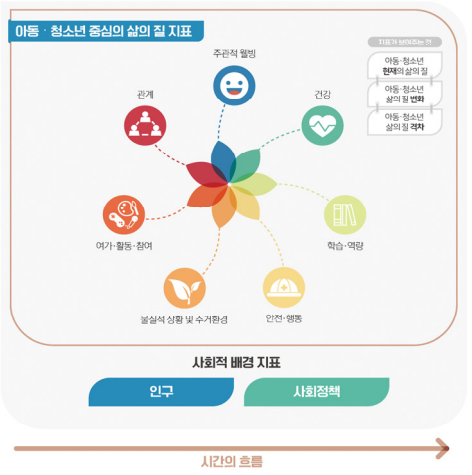
영유아에 해당하는 만 0-5세 대상 프레임워크는 1차 조사 결과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도 평균 점수가 보통(4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연령 프레임워크에 비해 평균 점수가 낮았고 CVR이 0.16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개방형 응답을 통해 많은 개선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주요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프레임워크가 영유아의 삶의 영역과 지표를 포괄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의견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에게 중요한 주양육자의 상태와 가정환경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의견이었다. 영유아는 가정환경과 부모의 돌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정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양육자와 관련한 지표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주양육자와 관련한 지표를 반영하거나 대리응답을 통해 측정을 하면 아동·청소년 중심의 지표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의 기본 방향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둘째, 삶의 질 영역에 대한 의견이다. 현재 영역들은 학령기 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영유아의 삶과는 괴리된 영역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학습·역량·참여는 주로 학령기 이후 아동·청소년들의 생활과 관련한 지표이다. 안전·행동 영역의 행동 역시 위험행동과 건강행동을 의미하므로 영유아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주관적 웰빙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도출되었다. 영유아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부재하다는 것이다. 셋째, 기타 의견으로는 돌봄 체계, 조기보육지원체계, 발달단계에 따른 영역의 중요도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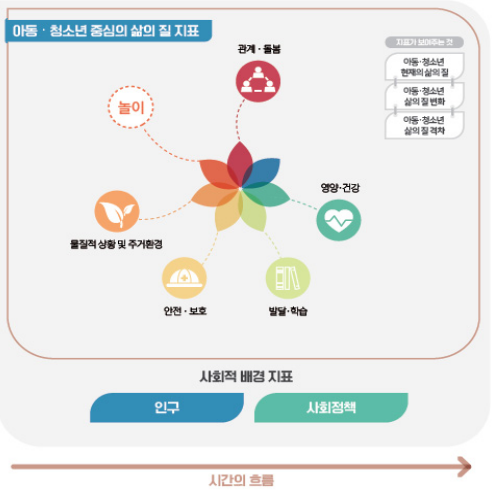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진은 2차 조사에서 전체 프레임워크에 만 0-5세의 삶의 질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프레임워크를 수정하였다. 건강은 '영양·건강'으로, 학습·역량은 '발달·학습'으로, 안전·행동은 '안전·보호'로, 여가·활동·참여는 '놀이'로, 관계는 '관계·돌봄'으로 수정하였고, '주관적 웰빙' 영역은 삭제하였다. 이 결과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이 만 0-5세의 삶의 질을 포괄하는지에 대해 1차 조사에서 동의도 평균이 7점 만점의 4.77점(표준편차 1.38)이었던 것에 반해, 2차 조사에서는 6.02점(표준편차 0.71)으로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고 CVR, 합의도 역시 모두 개선되었다.

〈표 6-6〉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만 0-5세)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만 0-5세 대상 프레임워크 타당도	4.77 (1.38)	0.16	0.60	1.00	6.02 (0.71)	0.89	1.00	0.00



[그림 6-2] 전체 프레임워크의 타당성 (1차 델파이)



[그림 6-3] 만 0-5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삶의 질 프레임워크 변경 내용 (2차 델파이)

〈표 6-7〉 만0-6세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의 주요 변화 내용(1차, 2차 조사)

구분	1차 델파이 프레임워크 (만 0-24세)	2차 델파이 프레임워크 (만 0-5세 영유아)
삶의 질 영역	건강	**영양·건강**
	학습·역량	**발달·학습**
	안전·행동	**안전·보호**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기존유지)
	여가·활동·참여	**놀이**
	관계	**관계·돌봄**
	주관적 웰빙	(삭제)
	추가영역	(없음)

다만 만 0-5세 영유아의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과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전문가들은 영유아에게 학습이라는 것을 삶의 질 영역으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였고, 주관적 웰빙 영역을 삭제한 것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주관적 웰빙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중요하므로 이론적으로 영역은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측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영유아의 특성상 가정 내에서의 돌봄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고려하여 향후 영유아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보다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

〈표 6-8〉 만 0-5세 대상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에 대한 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2차 델파이)

■ 보호와 돌봄 관련
▷ 안전, 보호와 관계, 돌봄의 세부지표가 겹치지 않아야 할 것임.
▷ 부모 영역.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인 시기이므로...
▷ 영유아기는 영유아 당사자의 선택권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주양육자의 특성에 따른 프레임워크라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안전보호'의 보호와 '관계돌봄'의 돌봄의 유사성이 높아 보임. 개념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놀이와 학습 관련
▷ 이 시기의 아동에게 학습과 놀이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놀이와 학습을 통합하고, 발달을 분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됨. 놀이와 학습 영역에는 이를 위한 충분한 환경과 경험이 주어지는가를 살펴보고, 발달의 영역에서 인지/정서/사회적 발달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해보임.
▷ 1차 델파이를 통해 영유아 삶의 질 영역이 적절하게 수정되었음. 다만, 놀이 영역의 측정 내용을 구상하실 때 아동의 기질, 사회성, 놀이 여건 등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의 삶의 질은 그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것들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영유아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행동들인데 현재는 놀이를 제외하고는 행동 관련 지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발달학습에 학습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근거가 궁금함. 누리과정에도 학습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으며 발달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듯 함.

■ 주관적 웰빙 관련
▷ 주관적 웰빙은 아니더라도 주관적 만족도나 행복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관적 웰빙에 가용 측정 지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라도 모형에 포함하는 것이 좋음.
▷ 주관적 웰빙 포함 필요. 부모를 통한 대리측정 방안 검토, 자주 웃는다, 자주 짜증을 낸다 등의 척도 활용
▷ 삭제된 주관적 웰빙이 중요하다고 생각, 주관적 웰빙 측정도구를 장기적으로 개발하여 반영 필요.

3) 만 6-18세 대상 프레임워크의 타당성

1차 델파이에서 참여자들에게 이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가 만 6세-18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잘 나타내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동의도 평균이 7점 만점에 5.98점으로 만 0-5세(4.77점)와 만 19-24세(5.4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가 자기응답 가능한 학령기의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데 가장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연령범위의 삶의 질을 가장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프레임워크가 만 6세-18세 아동·청소년의 삶을 질을 나타내는데 가장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 프레임워크 역시 다섯 가지 수정의견이 제기되었다. 첫째, 행동 영역과 관련하여 영역명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의 삶의 질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행동(behavior) 영역은 본 지표체계에서 위험행동을 의미하나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둘째, 물질적 환경 및 주거는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주거 영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디지털 생활에 대해 더 명시적인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디지털 환경이나 디지털 생활 등 디지털 삶의 질(digital well-being)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역량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동의 꿈, 희망, 역량 등을 나타내는 지표,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지표체

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섯 번째, 인권과 관련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양성 수용이나, 인권보장 등을 보여주는 지표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표 6-9〉 만 6-18세 대상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에 대한 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1차 델파이)

■ 행동 관련
▷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질적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활동과 행동은 어떻게 다른지?
▷ 행동의 의미 모호
▷ 8세미만 아동의 주관적 웰빙을 보여주는 행동지표
▷ 안전, 행동에서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불명확함.
▷ 안전, 행동이 하나의 범주로 묶인 점도 그 의미가 모호함.

■ 물질적 환경 및 주거 관련
▷ 물질적 환경과 주거 환경 분리 필요
▷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은 다른 것들과 맥락이 달라 보임.
▷ 물질적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물질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외 주관적인 지표도 고려가 되었으면 함. 아동, 청소년이 물질적 상황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다양한 지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 디지털 생활 관련
▷ 디지털 환경에 대한 고려가 각 영역의 세부지표에도 잘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생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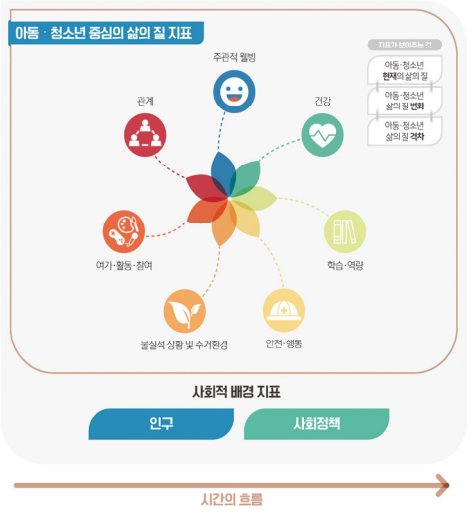
■ 역량과 실현가능성 관련
▷ 이 시기에 진로결정과 함께 직업생활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음. 학습과 역량에서 그 부분을 측정하는 것인지, 여가 활동 참여에서 그 부분을 측정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현 시점의 상태를 측정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해당 연령의 아동이나 청소년은 가까운 미래가 더 유의하다면,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측정하는 영역이나 방법이 필요할 것임.

■ 권리와 인권 관련
▷ 권리나 존중 영역이 추가되면 좋겠음.
▷ 다양성 수용 혹은 인권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 참여 영역의 의미가 시민적, 정치적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를 인권의 관점을 포함하여 독립된 영역으로 제시해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참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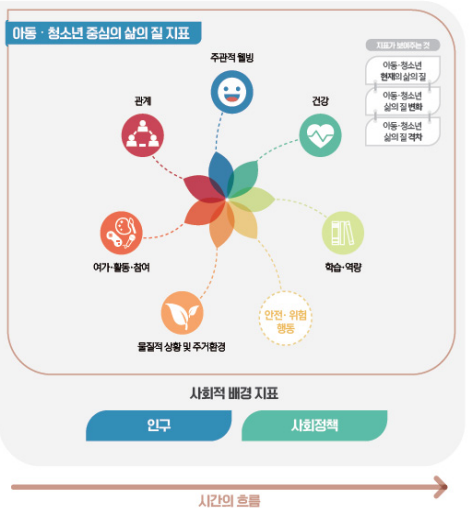
연구진은 이와 같은 의견들 중 행동 관련 의견만 반영하여 '안전·행동' 영역을 '안전·위험행동' 영역으로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였다. 영역에 관한 다른 의견들도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표체계의 간명성, 지표의 가용성, 지표체계의 명확성을 이유로 이번 수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지표체계의 간명성은 영역의 구성은 아동·청소년 당사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명해야 하고, 지표의 가용성은 영역이 생성된 이후 다른 영역들만큼의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 가능해야 하며, 지표체계의 명확성은 인권과 삶의 질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구성개념이 다르므로 삶의 질 측정의 명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주거 영역, 디지털 생활 관련, 역량 관련 영역은 현재 지표가 부족하므로 향후 가용 지표들이 늘어날 경우 영역 생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표 6-10〉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만 6-18세)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6-18세 대상 프레임워크 타당도	5.98 (0.74)	0.93	1.00	0.00	6.07 (0.57)	0.96	1.00	0.00



[그림 6-4] 전체 프레임워크의 타당성
(1차 델파이)



[그림 6-5] 만6-18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삶의 질 프레임워크 변경 내용
(2차 델파이)

〈표 6-11〉 만 6-18세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의 주요 변화 내용(1차, 2차 조사)

구분	1차 델파이 프레임워크 (만0-24세)	2차 델파이 프레임워크 (만6-18세 아동·청소년)
삶의 질 영역	건강	(기존유지)
	학습·역량	(기존유지)
	안전·행동	**안전·위험행동**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기존유지)
	여가·활동·참여	(기존유지)
	관계	(기존유지)
	주관적 웰빙	(기존유지)
	추가영역	(없음)

※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동을 위험행동(risky behavior)으로 변경(흡연/약물/폭력/범죄 등)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진은 2차 조사에서 전체 프레임워크에 만 6-18세의 삶의 질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행동' 영역을 '안전·위험행동' 영역으로 수정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았다. 그 결과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만 6-18세 삶의 질을 포괄하는지에 대해 동의도 평균이 7점 만점에 5.98점(표준편차 0.74)이었던 것에 반해, 2차 조사에서는 6.07점(표준편차 0.57점)으로 상승하였고 CVR이 약간 개선되었다. 개방형 응답을 통해서도 참여자들은 지표체계가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여전히 위험행동(risky behavior)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문제행동으로 변경하자는 의견 등 기타 의견들이 있었다. 향후 만 6-18세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 영역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표 6-12〉 만 6-18세 대상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에 대한 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2차 델파이)

■ 안전·위험행동

▷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위험 행동 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비행 행동 의 개념 등을 고려할 때 직관적으로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개념을 적용하면 좋을 듯.
▷ 안전/위험행동보다 안전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 위험행동 보다는 문제행동이라는 용어가 아동발달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함. 아동의 행동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아동이 문제적 행동을 유발하는 여러 환경요인에 대한 접근전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지?
▷ 위험행동의 의미가 궁금함. 비행, 학교폭력 등 청소년 당사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인지? 이는 환경적 지표와 연동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자칫 청소년 개인책임에 편향될 우려가 있음.
▷ 안전, 행동의 영역에서 행동을 위험행동으로 국한 지을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함. 바람직한 행동도 포함할 수 있을 듯
▷ 안전위험행동은 안전문제행동이 적절해 보임.
▷ 안전, 위험행동에서 꼭 위험행동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듦. 기존 지표가 더 낫다고 생각됨.
▷ 안전의 하위 영역 안에 기존 지표 중 방과후 방치정도, 유해환경 접촉 등 비아동, 청소년에 의한 안전 관련 지표가 포함되고, 위험행동은 아동, 청소년이 하는 위험행동의 하위지표들이 포함된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함.

■ 기타
▷ 이 시기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있어 휴대폰과 노트북 등 디지털 매체는 막대한 영향을 미침. 삶의 질과도 연관될 것으로 예상됨. 소셜 미디어 사용시간과 삶의 질의 관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만 19-24세 대상 프레임워크의 타당성

후기청소년 혹은 청년에 해당하는 만 19-24세 대상 프레임워크는 1차 조사 결과에서 5.40점(표준편차 0.88)로 어느 정도 타당화가 이루어졌으나 개방형 응답을 통해 몇 가지 개선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다. 주요한 의견들은 기존의 프레임워크가 만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초기 성인기로의 이행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으며, 성인기 자립, 노동시장 진입, 그리고 이에 대한 역량 등과 관계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 노동, 취업, 직업생활 관련 영역의 생성이다. 아동·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의 이행기는 학교에서 일터로의 전환과 관련이 되며, 아동·청소년기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만큼 일자리, 직업역량, 직업생활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가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상정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년기까지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일, 노동, 취업, 직업생활 관련한 영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진로, 자립, 전환기 역량 관련 영역의 생성이다. 이 영역은 노동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동·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의 전환은 개인의 직업과 관련한 진로의 선택, 경제적/심리적 자립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를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전환기에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 자립과 관련한 영역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셋째, 관계, 결혼, 출산 관련 영역의 생성이다. 아동·청소년기는 원가족으로부터의 자립, 새로운 가족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을 만 24세까지로 보고 있으므로 성년기 이후 아동·청소년이 연애관계(romantic relationship)를 맺고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포괄한다. 이는 좋은 삶을 사는 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나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가 삶의 어느 단계까지를 포괄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기타(권리, 존중, 젠더 등) 지표의 생성이다. 아동·청소년기 이후 청년기에도 권리, 존중은 매우 중요하므로 지표체계에 권리와 관련한 영역이 생성되어야 한다는 의견, 젠더와 관련한 영역이나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29]

〈표 6-13〉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만 19-24세)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만 19-24세 대상 프레임워크 타당도	5.40 (0.88)	0.72	0.83	0.50	6.00 (0.67)	0.96	1.00	0.00

29) Youth Index는 삶의 질 영역에 젠더를 추가하고 있어 각 나라의 성별 삶의 질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지표 수준에서 정의하지 않고 지표 결과 분석에서 집단 간 차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는 지표체계의 목적에 맞게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표 6-14〉 만 19-24세 대상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에 대한 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1차 델파이)

■ 일, 노동, 취업, 직업생활 관련
▷ 노동시장에서의 역량 등과 같은 부분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소득과 고용의 경우 물질적 상황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포함이 되는 영역이어야 함.
▷ 노동 또는 직업 분야가 포함되어야 하며, 노동 이슈에 관심이 매우 많은 연령대인 것 같음.
▷ 영역은 수정사항이 없지만, 세부지표에서는 일 관련 지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에 취업, 경제활동 영역 필요.
▷ 취업이나 진로 희망/ 부담, 직업준비/고용상태, 근로/노동 영역, 취업/창업 영역 고민 필요.
▷ 진로, 취업의 강조가 필요함. 이를 여가 활동 참여, 혹은 학습 역량으로 넣어도 될 문항인지 의문임.
▷ 노동 등 일과 관련한 삶의 질에 관한 영역이 별도로 구성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후기 청소년의 경우 삶의 경로에 따라 학습, 역량 지표가 미치는 삶의 질 보다는 노동과 교육, 훈련 지표가 추가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함.
▷ 청년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경우, 발달환경은 전혀 다른 맥락이 될 수 있을 것임. 후기 청소년기와 청년의 환경적 측면을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가 좀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함. 일례로 청년의 경우, 노동환경, 근로환경에 대한 논의가 제외될 수 없을 것이고, 이 모든 환경적 논의를 주도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앞서의 발달단계들과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고 생각 됨.

■ 학습, 진로, 자립, 전환기 역량 관련
▷ 학습역량이라는 용어가 청년에 적합한 용어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습역량, 주거, 직업 등 지표 강조
▷ 자립과 직업생활이라는 카테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주거, 전환기 준비, 자립능력 영역이 중요함.
▷ 자립, 취업, 가족구성 등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전체적으로 적절하나 후기청소년은 초기성인기로 독립과 자립과 관련한 지표 영역의 추가가 필요함. 기존 아동기와는 다른 세부지표가 요구됨.
▷ 직업역량, 자립 및 독립, 진로결정, 노동시장 환경
▷ 역량에는 성인으로서 독립할 수 있는 독립 준비도 같은 내용이 포함 필요함.
▷ 안전행동 영역보다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영역이 중요하지 않을지 검토 필요함.
▷ 19세부터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지표가 들어가야 함. 경제활동이 포함되는 영역이 있을 텐데, 그 영역명칭에 경제활동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음.
▷ 후기청소년은 고등교육을 받거나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임. 노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 또한 이 시기는 원가구를 떠나 이동이 가능한 시기이므로 물질적 상황이나 주거환경에서 이를 고려할 수도 있음.
▷ 비진학 후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직업 영역이 필요함.
▷ 대분류보다는 하위분류 내에서 내용이 이전 시기 아동·청소년과는 달리 추가나 조정 필요. 예를 들어 정치적 활동이나 경제적 활동에의 참여나 역량, 그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이나 관계, 웰빙이 고려될 필요. 특히 자립의 관점에서 다양한 역량 구체화 필요.
▷ 진로 및 직업 역량, 진로/직업 관련 국가 정책 및 제도 구비 수준 등
▷ 학습. 역량 부분에 취업준비, 취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 후기청소년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진로와 취업준비가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함.

■ 관계, 결혼, 출산 관련
▷ 청년은 성인기 이행과정이라는 점에서 성인기 이행준비 항목이 필요하다고 봄. 어떤 경우 결혼하고 출산한 경우도 있을 것임.
▷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지표에 반영되었는지 궁금함.
▷ 직업, 자립, 결혼, 출산 영역
▷ 관계를 좀 더 세분화하면 좋겠음. 관계에 연애관계(romantic relationship) 부분 고려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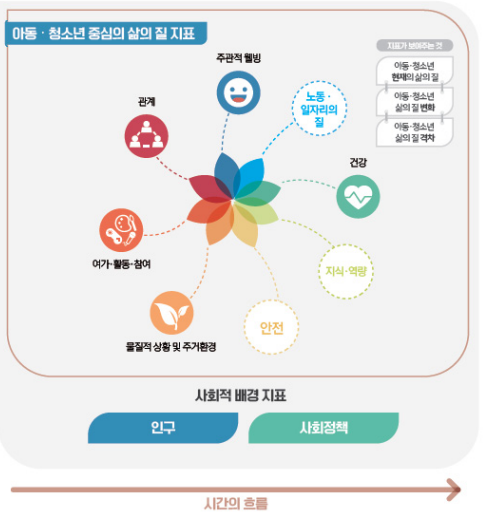
■ 기타
▷ 권리나 존중이 추가 필요
▷ 지역 사회의 공동체 특성
▷ 젠더 관련 영역 제안하며, 더 어린 나이에서부터 포함 추천
▷ 계층이동, 사회정의, 평등에 대한 지표

2차 조사에서는 이러한 의견 중 일부를 반영하여 영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였고, OECD(2020) How's Life 2020의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여 반영하였다. 먼저 노동·일자리의 질 영역은 신규로 추가된 것이다. 후기청소년 혹은 청년들의 삶의 질에 노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노동환경 및 안전은 이들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청년들의 노동과 일자리의 질을 포괄하는 영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였다. 둘째, 학습·역량은 지식·역량으로 수정하였는데 학령기 이후의 후기청소년과 청년들의 다양한 학습, 직업훈련, 역량개발을 포괄하기 위해 수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수정에 대해 평생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는 걸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전·행동은 안전으로 수정하였는데, 청소년기 위험행동은 청소년들이 하는 것은 위험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행동을 규범적으로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성년기 후기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가 만 19-24세의 삶의 질을 포괄하는지에 대해 1차 조사에서 동의도 평균이 7점 만점에 5.4점(표준편차 0.88)이었던 것에 반해, 2차 조사에서는 6.02점(표준편차 0.67)으로 상승하였고 CVR, 합의도 역시 모두 개선되었다. 다만 2차 조사에서 여전히 개선 의견이 발생하였으므로 만 19-24세 후기 청소년들, 더해서 만19세-34세의 청년들의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사회·문화·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6] 전체 프레임워크의 타당성
(1차 델파이)



[그림 6-7] 만 19-24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삶의 질 프레임워크 변경 내용
(2차 델파이)

〈표 6-15〉 만 19-24세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의 주요 변화 내용(1차, 2차 조사)

구분	1차 델파이 프레임워크 (만0-24세)	2차 델파이 프레임워크 (만19-24세 아동·청소년)
삶의 질 영역	건강	(기존유지)
	학습·역량	**지식·역량**
	안전·행동	**안전**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기존유지)
	여가·활동·참여	(기존유지)
	관계	(기존유지)
	주관적 웰빙	(기존유지)
	추가영역	**노동·일자리의 질**

※ 청년기 노동/직업생활/일자리 안전·안정을 포괄하는 노동·일자리의 질 영역을 추가하고, 학습·역량은 지식·역량으로 이행기의 진로/역량/자립준비 관련 지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영역수정

〈표 6-16〉 만 19-24세 대상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에 대한 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2차 델파이)

■ 일, 노동, 취업, 직업생활 관련
▷ 노동과 일자리의 질 영역이 추가된 것은 적절하나 노동과 일자리의 질의 개념이 중복되므로 노동을 빼고 일자리의 질만 넣어도 될 것임.
▷ 노동 일자리의 질 영역에서는 학생인 경우가 구조적으로 제외됨. 학생을 포괄한 질문을 한다면 대안적 영역을 고려해 보아야 함. 예를 들어, 주요 역할 만족도
▷ 노동 일자리의 질이라기보다 취·창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됨. 노동 일자리의 질은 주관적이고 개인이라기보다 사회의 역할로 보임.
▷ 만19세에게 있어서 노동과 일자리의 질이 유의미한 지표인지 구체적인 지표 및 항목을 보아야 판단 가능함.

■ 학습, 진로, 자립, 전환기 역량 관련
▷ 역량에 학문적 역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식을 빼도 될 것으로 사료됨.
▷ 미래 사회는 평생학습이 요구되는 시대임. 교육의 패러다임 역시 학교 중심에서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다각화되고 있음. 그런 의미에서 학습/역량의 영역을 굳이 지식/역량으로 변경할 필요에 대해 의문임. 오히려 이 시기의 후기 청소년이 어떠한 학습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식역량보다는 설명과 같이 진로자립역량 등 일반적인 영역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노동에 일자리의 질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게 아닌지. 노동자립 정도가 더 적절할 듯 함.
▷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함. 진로, 자립준비 지표를 포함하고자 하면, '역량·진로'가 오히려 적합할 것으로 보임.
▷ 지식역량 은 기존 유지가 바람직함.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식보다는 학습 이 적절해 보임.
▷ 고용 여부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타
▷ 삶의 질 프레임워크가 생활 영역 전반에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 사항이 있어야 하는 지표라고 한다면, 추가된 영역은 19-24세 청년 모두에게 해당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재검토가 필요함.
▷ 행동이 빠져있는데, 흡연, 음주, 약물 사용경험 등 위험행동이 안전 영역에 모두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음. 전체 영유아기/아동·청소년/청년기의 영역 지표의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삶의 질의 관계도 중요한 정보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됨.

2.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의 핵심지표 선정

델파이조사의 두 번째 파트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의 지표구성이 타당한지, 이 지표들 중에서 핵심지표(key indicator)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두 가지의 목적에 기인한다. 첫째, 지표체계 및 지표구성의 명확화이다.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이론 중심적 접근, 데이터 중심적 접근, 아동·청소년 목소리 접근 등 세 가지 과정을 통해 구축되었고, 이론 중심적으로 설계된 프레임에 지표를 추가할 때는 가용한 데이터 여부에 따라 지표체계 구성이 달라지는 특징(data-driven)이 있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연구는 현재의 지표구성이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번 델파이에서는 각 영역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 대해 지표들이 잘 구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이론적 접근에 따라 구성된 지표들이 타당한지, 가장 타당한 지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둘째, 지표체계의 간명화이다. 이 연구는 지표체계의 확장을 위하여 120여개의 지표를 발굴하였지만 한 눈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표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왔다. 여기서는 지표체계 중 각 영역이 타당한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영역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파트의 질문 구성 및 응답방식은 다음과 같다. 1차 조사에서는 사회적 배경지표 2개 영역,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7개 영역의 120여개 지표에 개별적으로 해당 영역 지표로서 얼마나 타당한지 1점부터 7점까지의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한다. 2차 조사에서는 동일한 영역의 지표들의 1차 조사의 타당성 점수를 제시하고, 해당 영역의 핵심지표로서 적절한 것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게 한다. 이를 통해 이 파트에서는 1점부터 7점까지의 타당도 평균점수를 제시하고,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다중응답으로 분석하여 각 지표의 응답 비율을 제시한다.[30]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조사된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였다.

---

30)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핵심지표를 선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핵심지표는 전체 120여개 지표 중 20-30여개 지표를 선별하여 한 눈에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현황, 변화, 하위집단 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핵심지표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Moore and Theokas, 2008; OECD, 2009; 이봉주, 2016)."

- *가구가 아닌 아동이 분석단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표들은 표준화된 데이터 취합 과정에서 도출되어야 함*
- *지표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지향적인 지표가 되어야 함*
- *성과(outcome)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지표는 이해하기 쉬워야 함*
- *가능한 최신자료를 활용해야 함*
- *국내 집단별 비교 및 국가비교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람직함*
- *긍정지표와 부정지표를 함께 사용해야 함*
- *현재 좋은 삶을 사는 것과 미래 긍정적 성장을 모두 반영해야 함*

1) 사회적 배경 지표의 핵심지표 선정

사회적 배경 지표는 인구 영역과 사회정책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는 인구 영역과 사회정책 영역 지표를 각각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① 인구 영역 지표

〈표 6-17〉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인구지표)

	1차 델파이 타당성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우선순위 조사 결과(1-3순위)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퍼센트	케이스퍼센트
1-1.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	5.86 (1.44)	0.58	0.67	1.00	29.6%	88.9%
1-2. 출생아수와 출생성비	5.46 (1.52)	0.54	0.67	1.00	10.5%	31.5%
1-3. 혼인외 출생아 비율	4.95 (1.61)	0.37	0.60	1.00	1.2%	3.7%
1-4. 모의 출산연령	5.04 (1.40)	0.30	0.60	1.00	.6%	1.9%
1-5. 미성년 자녀 부모 이혼 비율	5.67 (1.10)	0.72	0.83	0.50	13.6%	40.7%
1-6.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	6.44 (0.88)	0.96	0.86	0.50	28.4%	85.2%
1-7.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	5.60 (1.30)	0.58	0.67	1.00	16.0%	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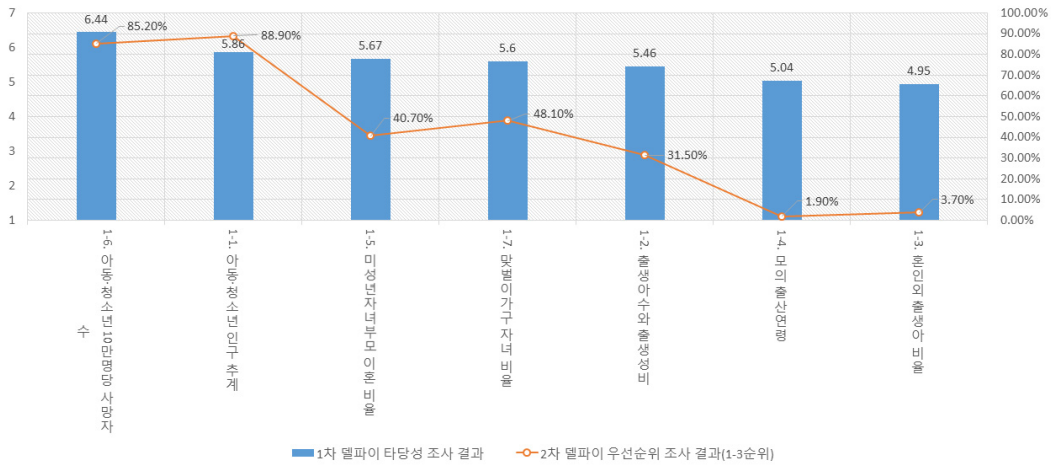
주: 1) 1차 조사의 타당성 응답범주는 1점(전혀 타당하지 않음)-7점(매우 타당함)임.
2) 2차 조사의 우선순위는 '핵심지표로 선정되어야 하는 지표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분석은 1순위~3순위 간 차등을 두지 않고 중복응답(multiple response)으로 우선순위 응답을 분석하였음. '퍼센트'는 전체 응답을 100%로 했을 때 각 항목의 응답비율이고, 케이스퍼센트(percent of cases)는 전체 응답자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임.

사회적 배경지표 중 인구영역은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조사에서 7개 지표의 타당성을 물어본 결과 모든 지표가 7점 만점 중 4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지표들 중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6.44점),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5.86점) 등이었고,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모의 출산연령(5.04점), 혼인외 출생아 비율(4.95점) 등이었다. 이 연구의 델파이조사는 핵심지표를 선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타당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들은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2차 조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7개 지표의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물어본 결과,[31]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88.9%),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85.2%) 등이 높은 우선순위 응답을 받고,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48.1%), 미성년 자녀 부모 이혼 비율(40.7%) 등의 지표가 뒤를 이었다. 반면 모의 출산연령(1.9%), 혼인외 출생아 비율(3.7%)은 매우 낮은 우선순위 응답을 받았다. 따라서 인구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핵심지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 미성년

31) 이 연구에서는 1순위~3순위 간 차등을 두지 않고 중복응답(multiple response)으로 우선순위 응답을 분석하였다.

자녀 부모 이혼비율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8] 사회적 배경 지표: 인구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② 사회정책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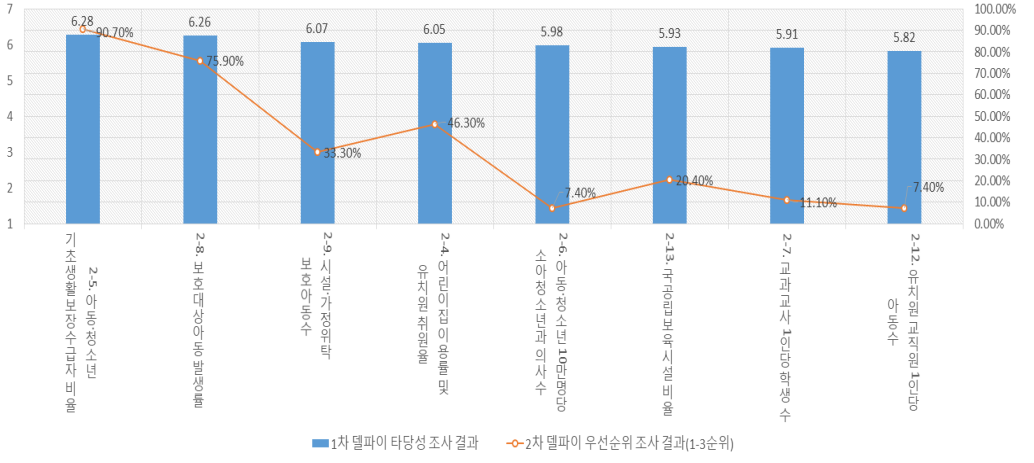
사회적 배경 지표 중 사회정책 영역은 1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조사에서 16개 지표의 타당성을 물어본 결과 모든 지표에서 4점 이상이 나와 대체로 타당하다는 응답이었으며 '대안학교 비율'을 제외하고는 CVR 기준도 충족하였다. 16개 지표 중 4개 지표는 6점 이상이 나와 매우 타당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지표들 중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6.28점), 보호대상아동 발생률(6.26점), 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수(6.07점) 등이었다. 반면 비교적 낮은 타당도 점수를 보인 것은 면적당 학교 수(5.04점), 대안학교 비율(4.42점)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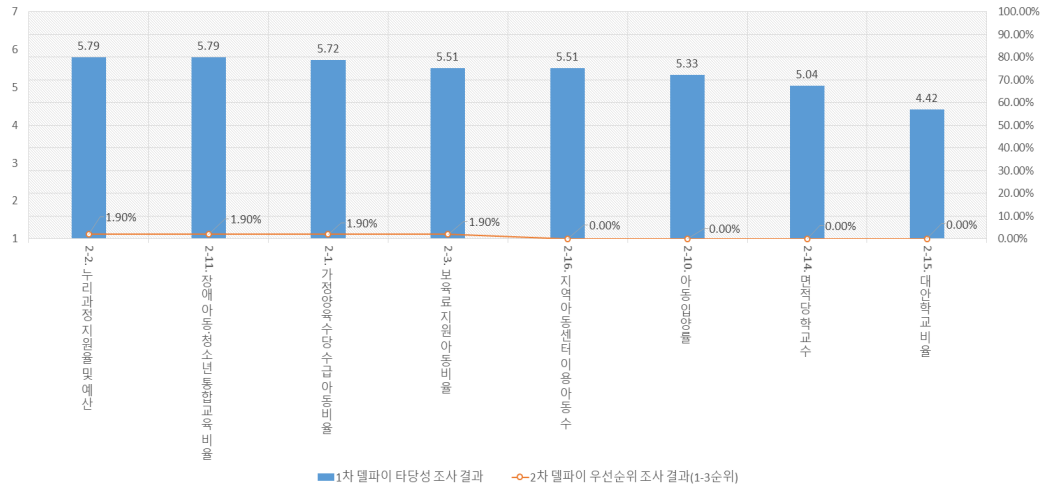
2차 조사에서 핵심지표 선정을 위해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물어본 결과,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90.7%), 보호대상아동 발생률(75.9%),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취원율(46.3%), 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수(33.3%) 등이 높은 우선순위 응답을 받은 반면 아동 입양률, 면적당 학교 수, 대안학교 비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등은 0%로 한 번의 지목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등을 핵심지표로 선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며, 영역별 핵심지표의 수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취원율, 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18〉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사회정책 지표)

	1차 델파이 타당성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우선순위 조사 결과(1-3순위)	
	평균 (S.D.)	CVR	합의도	수렴도	퍼센트	케이스퍼센트
2-1.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비율	5.72 (1.18)	0.72	0.67	1.00	.6%	1.9%
2-2. 누리과정 지원율 및 예산	5.79 (1.12)	0.75	0.67	1.00	.6%	1.9%
2-3. 보육료 지원 아동비율	5.51 (1.40)	0.61	0.67	1.00	.6%	1.9%
2-4.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취원율	6.05 (1.00)	0.86	0.83	0.50	15.4%	46.3%
2-5.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6.28 (0.87)	0.93	0.86	0.50	30.2%	90.7%
2-6.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5.98 (0.93)	0.82	0.67	1.00	2.5%	7.4%
2-7.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	5.91 (1.06)	0.82	0.67	1.00	3.7%	11.1%
2-8.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6.26 (1.02)	0.82	0.86	0.50	25.3%	75.9%
2-9. 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6.07 (1.02)	0.82	0.83	0.50	11.1%	33.3%
2-10. 아동 입양률	5.33 (1.38)	0.33	0.67	1.00	0.0%	0.0%
2-11.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5.79 (1.15)	0.65	0.67	1.00	.6%	1.9%
2-12. 유치원 교직원 1인당 아동 수	5.82 (1.20)	0.75	0.67	1.00	2.5%	7.4%
2-13.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5.93 (1.01)	0.79	0.67	1.00	6.8%	20.4%
2-14. 면적당 학교 수	5.04 (1.12)	0.40	0.60	1.00	0.0%	0.0%
2-15. 대안학교 비율	4.42 (1.27)	0.02	0.80	0.50	0.0%	0.0%
2-1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5.51 (1.19)	0.65	0.83	0.50	0.0%	0.0%

주: 1) 1차 조사의 타당성 응답범주는 1점(전혀 타당하지 않음)-7점(매우 타당함)임.
2) 2차 조사의 우선순위는 '핵심지표로 선정되어야 하는 지표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분석은 1순위~3순위 간 차등을 두지 않고 중복응답(multiple response)으로 우선순위 응답을 분석하였음. '퍼센트'는 전체 응답을 100%로 했을 때 각 항목의 응답비율이고, 케이스퍼센트(percent of cases)는 전체 응답자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임.





[그림 6-9] 사회적 배경 지표: 사회정책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2)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의 핵심지표 선정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는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 건강 영역, 학습·역량 영역, 여가·활동·참여 영역, 안전·행동 영역, 관계 영역, 주관적 웰빙 영역 지표를 각각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1) 물질적 상황 및 주거 영역 지표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중 물질적 상황 및 주거 영역은 2개의 하위영역과 1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조사에서 10개 지표의 타당성을 물어본 결과 모든 지표에서 4점 이상이 나왔으나 학생 전출입비는 4.35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지표들 중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아동·청소년 비율(6.39점),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6.30점), 물질적 결핍지수(6.18점) 등이었다. 반면 비교적 낮은 타당도 점수를 보인 것은 미세먼지 농도(5.39점), 학생전출입비(4.35점)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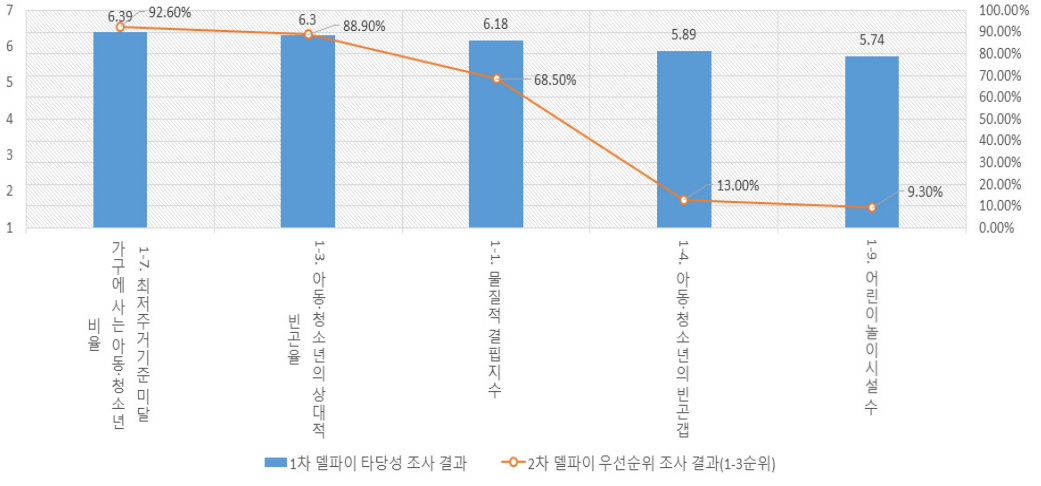
2차 조사에서 핵심지표 선정을 위해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물어본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아동·청소년 비율(92.6%),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88.9%) 등이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물질적 결핍지수(68.5%)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주지역 만족도(3.7%), 미세먼지농도(3.7%) 등은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학생 전출입비는 0%로 한 사람의 지목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의 하위영역인 빈곤 및 생활수준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 주거환경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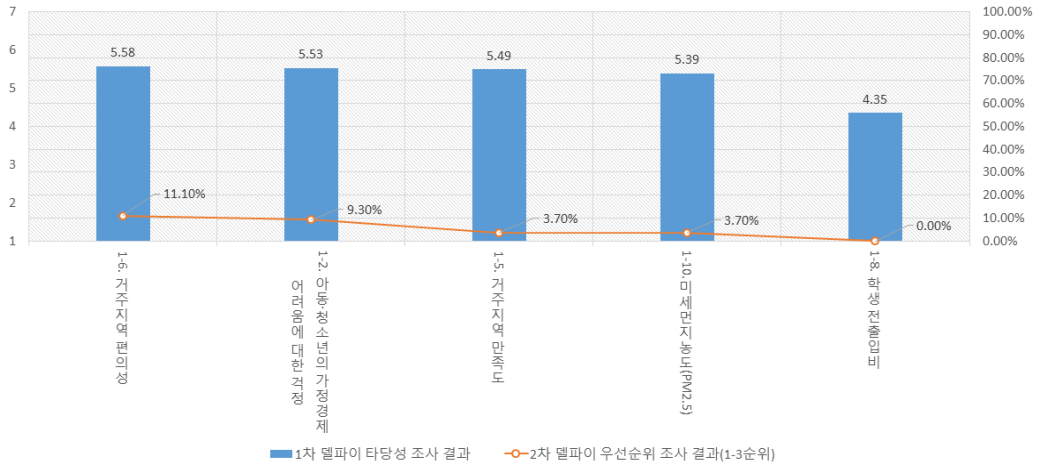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비율 등이 핵심지표로 선정되는데 타당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영역별 지표의 수에 따라 물질적 결핍지수의 포함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19〉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물질적 상황 및 주거 영역)

하위 영역	지표	1차 델파이 타당성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우선순위 조사 결과(1-3순위)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퍼센트	케이스퍼센트
빈곤 및 생활 수준	1-1. 물질적 결핍지수	6.18 (0.98)	0.82	0.83	0.50	22.8%	68.5%
	1-2. 아동·청소년의 가정경제 어려움에 대한 걱정	5.53 (1.08)	0.61	0.83	0.50	3.1%	9.3%
	1-3.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	6.30 (0.92)	0.89	0.86	0.50	29.6%	88.9%
	1-4. 아동·청소년의 빈곤갭	5.89 (0.99)	0.86	0.67	1.00	4.3%	13.0%
주거 환경	1-5. 거주지역 만족도	5.49 (1.03)	0.75	0.83	0.50	1.2%	3.7%
	1-6. 거주지역 편의성	5.58 (0.94)	0.75	0.83	0.50	3.7%	11.1%
	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아동·청소년 비율	6.39 (0.79)	0.96	0.86	0.50	30.9%	92.6%
	1-8. 학생 전출입비	4.35 (1.16)	(0.16)	0.75	0.50	0.0%	0.0%
	1-9. 어린이놀이시설 수	5.74 (1.24)	0.75	0.67	1.00	3.1%	9.3%
	1-10.미세먼지농도(PM2.5)	5.39 (1.17)	0.58	0.80	0.50	1.2%	3.7%

주: 1) 1차 조사의 타당성 응답범주는 1점(전혀 타당하지 않음)-7점(매우 타당함)임.
2) 2차 조사의 우선순위는 '핵심지표로 선정되어야 하는 지표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분석은 1순위~3순위 간 차등을 두지 않고 중복응답(multiple response)으로 우선순위 응답을 분석하였음. '퍼센트'는 전체 응답을 100%로 했을 때 각 항목의 응답비율이고, 케이스퍼센트(percent of cases)는 전체 응답자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임.
3) 1차 조사에서는 각 영역 내의 개별지표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하위영역을 제시하지 않고 타당성을 조사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핵심지표 선정 시 하위 영역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하위 영역을 제시한 후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정하도록 하였음.





[그림 6-10]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2) 건강 영역 지표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중 건강 영역은 3개의 하위 영역과 1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조사에서 19개 지표의 타당성을 물어본 결과 모든 지표의 타당도가 4점 이상을 기록했으며, 평균이 6점 이상인 지표도 10개로 나타났다. 타당도 상위 지표는 아동·청소년 자살률(6.61점), 우울한 감정 경험(6.46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6.37점), 수면시간(6.25점), 스트레스 정도와 원인(6.23점) 등이었다. 영유아의 건강지표로 활용되는 저체중 출생아율(5.28점), 조산아율(5.02점), 수유행태별 비율(4.63점) 등의 타당도가 낮은 것은 이번 조사가 연령에 따른 지표 타당도가 아닌 전체 연령(만 0-24세)에 대한 지표 타당도로 설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차 조사에서 핵심지표 선정을 위해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물어본 결과, 1차 조사의 타당도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2차 조사의 우선순위는 아동·청소년 자살률(75.9%), 수면시간(44.4%), 아동·청소년 영양결핍률(31.5%), 우울한 감정 경험(31.5%) 등의 순이었다. 이는 2차 조사에서부터는 핵심지표의 영역 간 균형을 위하여 하위영역을 제시했기 때문에 각 영역에 맞추어 핵심지표를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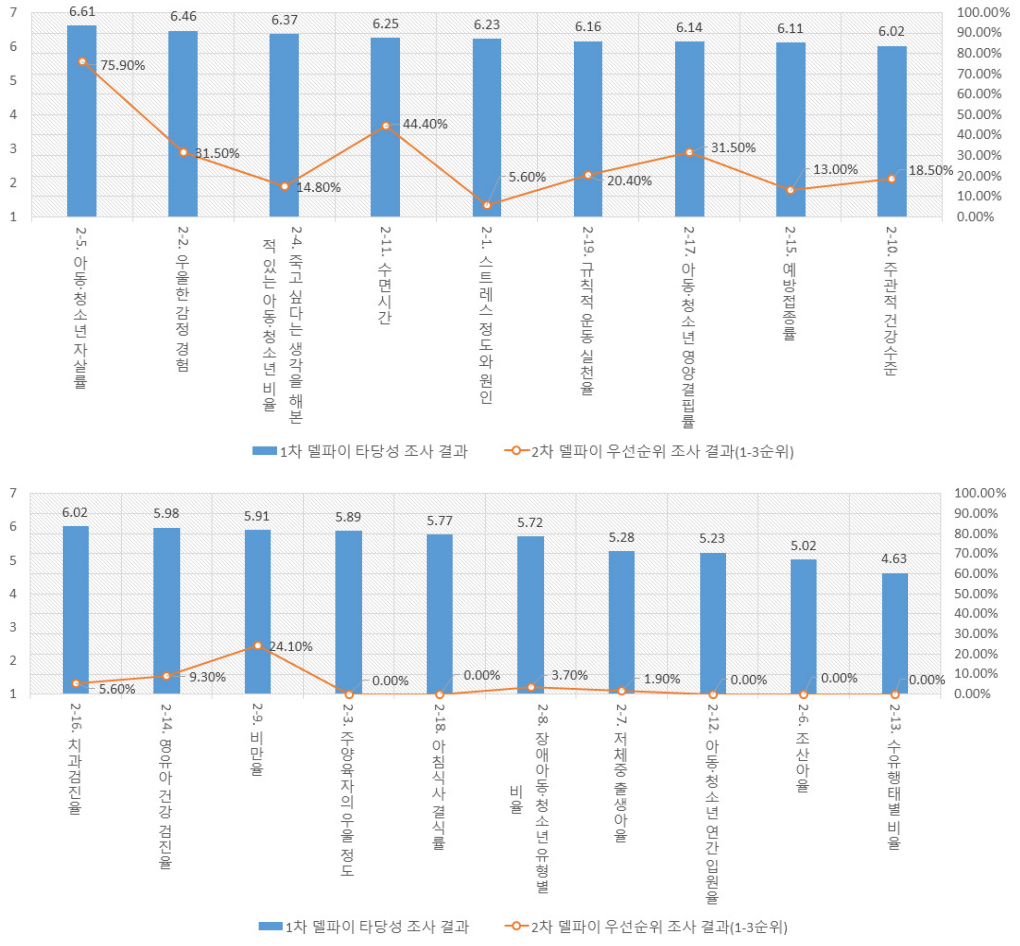
건강 영역은 전문가들이 타당하다고 응답해준 지표가 많고, 핵심지표로 추천된 지표들도 하위 영역별로 1-2개씩 설정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건강 영역에서 아동·청소년 자살률, 신체건강 영역에서 수면시간, 건강행동 영역에서 아동·청소년 영양결핍률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향후 영역 간 균형을 위한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추천된 지

표들은 특정 연령에 몰려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유아 지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6-20〉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건강 영역)

하위 영역	지표	1차 델파이 타당성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우선순위 조사 결과(1-3순위)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퍼센트	케이스퍼센트
정신 건강	2-1. 스트레스 정도와 원인	6.23 (0.77)	0.96	0.83	0.50	1.9%	5.6%
	2-2. 우울한 감정 경험	6.46 (0.65)	1.00	0.86	0.50	10.5%	31.5%
	2-3. 주양육자의 우울 정도	5.89 (1.15)	0.72	0.67	1.00	0.0%	0.0%
	2-4.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6.37 (0.79)	0.93	0.86	0.50	4.9%	14.8%
	2-5. 아동·청소년 자살률	6.61 (0.61)	1.00	0.86	0.50	25.3%	75.9%
신체 건강	2-6. 조산아율	5.02 (1.37)	0.23	0.60	1.00	0.0%	0.0%
	2-7. 저체중 출생아율	5.28 (1.33)	0.40	0.67	1.00	.6%	1.9%
	2-8. 장애아동·청소년 유형별 비율	5.72 (1.25)	0.65	0.67	1.00	1.2%	3.7%
	2-9. 비만율	5.91 (1.00)	0.82	0.67	1.00	8.0%	24.1%
	2-10. 주관적 건강수준	6.02 (1.02)	0.82	0.67	1.00	6.2%	18.5%
	2-11. 수면시간	6.25 (0.71)	1.00	0.83	0.50	14.8%	44.4%
	2-12. 아동·청소년 연간 입원율	5.23 (1.24)	0.51	0.80	0.50	0.0%	0.0%
건강 행동	2-13. 수유행태별 비율	4.63 (1.33)	0.05	0.60	1.00	0.0%	0.0%
	2-14. 영유아 건강 검진율	5.98 (1.02)	0.82	0.67	1.00	3.1%	9.3%
	2-15. 예방접종률	6.11 (0.99)	0.86	0.83	0.50	4.3%	13.0%
	2-16. 치과검진율	6.02 (0.93)	0.93	0.83	0.50	1.9%	5.6%
	2-17. 아동·청소년 영양결핍률	6.14 (0.91)	0.89	0.83	0.50	10.5%	31.5%
	2-18. 아침식사 결식률	5.77 (1.15)	0.72	0.67	1.00	0.0%	0.0%
	2-19. 규칙적 운동 실천율	6.16 (0.87)	0.93	0.83	0.50	6.8%	20.4%

주: 1) 1차 조사의 타당성 응답범주는 1점(전혀 타당하지 않음)-7점(매우 타당함)임.
2) 2차 조사의 우선순위는 '핵심지표로 선정되어야 하는 지표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분석은 1순위~3순위 간 차등을 두지 않고 중복응답(multiple response)으로 우선순위 응답을 분석하였음. '퍼센트'는 다중응답의 전체 응답을 100%로 했을 때 각 항목의 응답비율이고, 케이스퍼센트(percent of cases)는 전체 응답자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임.
3) 1차 조사에서는 각 영역 내의 개별지표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하위영역을 제시하지 않고 타당성을 조사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핵심지표 선정 시 하위 영역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하위 영역을 제시한 후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정하도록 하였음.



[그림 6-11]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건강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3) 학습·역량 영역 지표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중 학습·역량 영역은 2개의 하위 영역과 1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조사에서 13개 지표의 타당성을 물어본 결과 모든 지표의 타당도가 5점 이상을 기록했으나 매우 타당함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지표들도 거의 없었다. 타당도 상위 지표는 학교생활만족도(6.18점), 자기효능감(6.09점), 학습시간(6.04점) 등이었다. 책 읽어주기 빈도(5.4점), 부모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5.04점) 등 영유아 지표들은 비교적 타당도가 낮게 나타났다. 영유아 삶의 질 프레임워크에서 발달·학습 영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맞는 지표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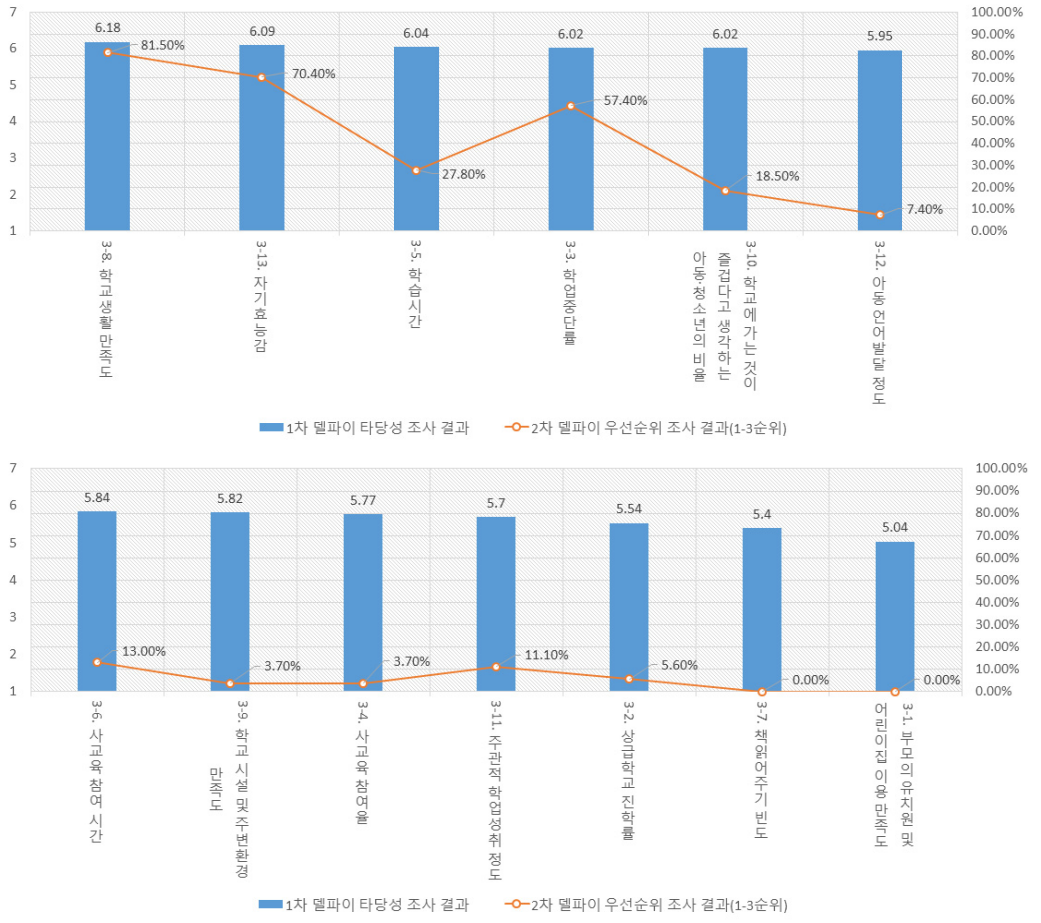
〈표 6-21〉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학습·역량 영역)

하위 영역	지표	1차 델파이 타당성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우선순위 조사 결과(1-3순위)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퍼센트	케이스퍼센트
학습	3-1. 부모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5.04 (1.38)	0.44	0.60	1.00	0.0%	0.0%
	3-2. 상급학교 진학률	5.54 (1.19)	0.61	0.83	0.50	1.9%	5.6%
	3-3. 학업중단율	6.02 (1.03)	0.82	0.83	0.50	19.1%	57.4%
	3-4. 사교육 참여율	5.77 (1.20)	0.72	0.67	1.00	1.2%	3.7%
	3-5. 학습시간	6.04 (0.97)	0.86	0.67	1.00	9.3%	27.8%
	3-6. 사교육 참여 시간	5.84 (1.14)	0.72	0.67	1.00	4.3%	13.0%
	3-7. 책읽어주기 빈도	5.40 (1.27)	0.51	0.83	0.50	0.0%	0.0%
	3-8. 학교생활 만족도	6.18 (0.92)	0.89	0.83	0.50	27.2%	81.5%
	3-9. 학교 시설 및 주변환경 만족도	5.82 (1.01)	0.79	0.67	1.00	1.2%	3.7%
	3-10.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6.02 (0.89)	0.86	0.83	0.50	6.2%	18.5%
	3-11.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	5.70 (1.06)	0.68	0.67	1.00	3.7%	11.1%
역량	3-12. 아동 언어발달 정도	5.95 (1.05)	0.79	0.67	1.00	2.5%	7.4%
	3-13. 자기효능감	6.09 (0.98)	0.82	0.67	1.00	23.5%	70.4%

주: 1) 1차 조사의 타당성 응답범주는 1점(전혀 타당하지 않음)-7점(매우 타당함)임.
2) 2차 조사의 우선순위는 '핵심지표로 선정되어야 하는 지표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분석은 1순위~3순위 간 차등을 두지 않고 중복응답(multiple response)으로 우선순위 응답을 분석하였음. '퍼센트'는 전체 응답을 100%로 했을 때 각 항목의 응답비율이고, 케이스퍼센트(percent of cases)는 전체 응답자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임.
3) 1차 조사에서는 각 영역 내의 개별지표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하위영역을 제시하지 않고 타당성을 조사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핵심지표 선정 시 하위 영역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하위 영역을 제시한 후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정하도록 하였음.

2차 조사에서 핵심지표 선정을 위해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물어본 결과, 학교생활 만족도(81.5%), 자기효능감(70.4%), 학업중단율(57.4%)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학습·역량 영역에서 역량과 관련한 지표들이 2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아동·청소년의 역량(competence)과 관련한 지표들이 더 개발·조사되고 지표체계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학습·역량 영역은 학교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 학업중단율 등이 과반 수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고, 하위영역인 학습과 역량의 지표들이 균형 있게 배치되었다. 학습·역량 영역은 학교생활만족도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 정도, 학업중단율을 통해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것을 포기하는 비율 등 학습 현황을 보여주고, 자기효능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학습·역량은 학령기 이후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어 영유아의 발달에 관한 영역 혹은 지표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2]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학습·역량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4) 여가·활동·참여 영역 지표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중 여가·활동·참여 영역은 2개의 하위 영역과 1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조사에서 15개 지표의 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지표의 타당도가 7점 만점 중 5점 이상을 보였다. 다만 가장 타당도가 높게 나타난 지표(여가시간 사용정도)의 최고 점수가 6.18점에 불과하였고, 6점 이상의 지표도 15개 중 3개에 불과하였다. 여가·활동·참여 영역 지표의 타당성이 낮은 이유가 이 영역이 3개의 하위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인지 지표의 한계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2차 조사에서 핵심지표 선정을 위해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물어본 결과, 1차 조사의 타당도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2차 조사의 우선순위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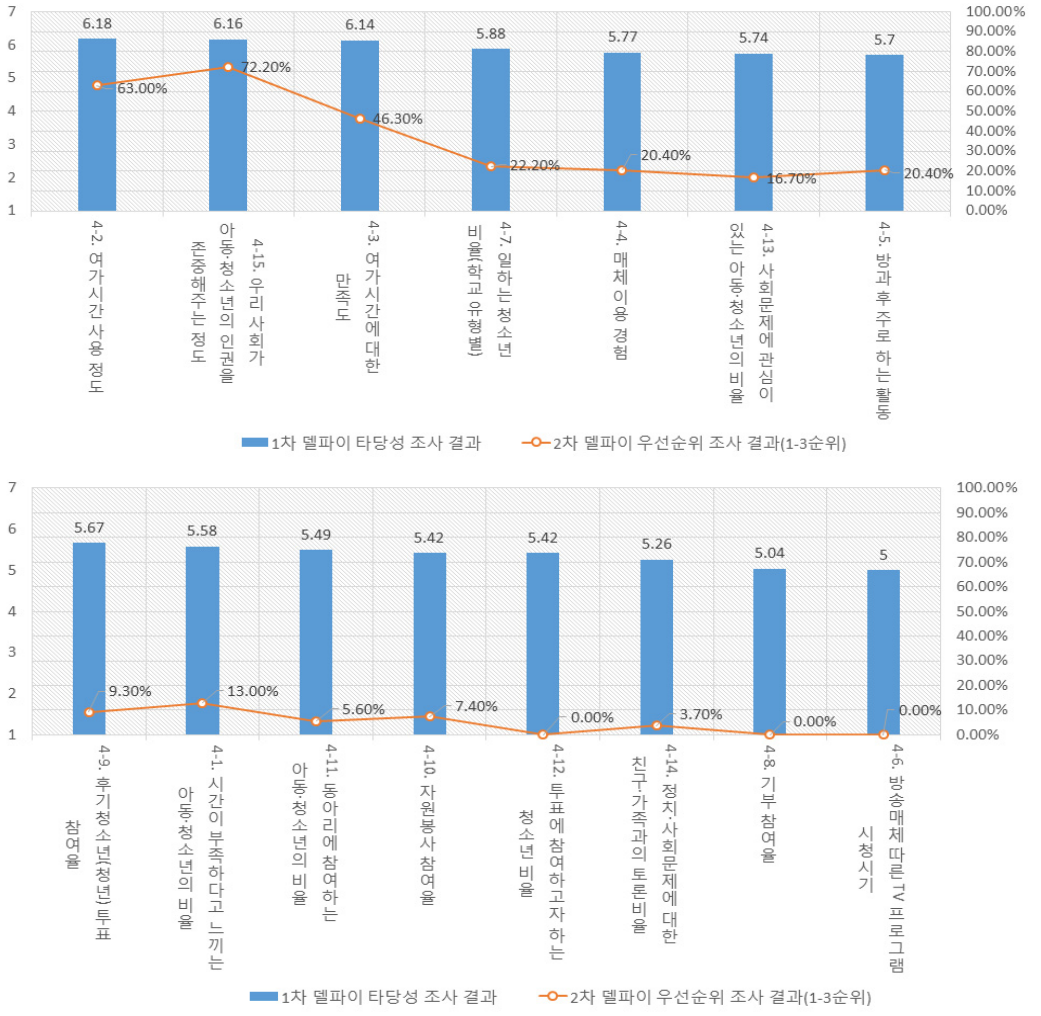
을 존중해주는 정도(72.2%), 여가시간 사용 정도(63.0%),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46.3%) 등의 순이었다. 반면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비율(0%), 기부 참여율(0%), 방송매체에 따른 TV 프로그램 시청시기(0%) 등은 전문가들의 우선순위 선택을 받지 못하였다.

〈표 6-22〉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여가·활동·참여 영역)

하위 영역	지표	1차 델파이 타당성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우선순위 조사 결과(1-3순위)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퍼센트	케이스퍼센트
여가 및 활동	4-1.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5.58 (1.18)	0.61	0.67	1.00	4.3%	13.0%
	4-2. 여가시간 사용 정도	6.18 (0.90)	0.89	0.83	0.50	21.0%	63.0%
	4-3.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6.14 (0.91)	0.86	0.83	0.50	15.4%	46.3%
	4-4. 매체 이용 경험	5.77 (1.12)	0.72	0.67	1.00	6.8%	20.4%
	4-5.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	5.70 (1.17)	0.72	0.67	1.00	6.8%	20.4%
	4-6. 방송매체 따른 TV 프로그램 시청시기	5.00 (1.28)	0.23	0.60	1.00	0.0%	0.0%
사회 경제 정치 참여	4-7. 일하는 청소년 비율	5.88 (1.01)	0.75	0.67	1.00	7.4%	22.2%
	4-8. 기부 참여율	5.04 (1.40)	0.33	0.60	1.00	0.0%	0.0%
	4-9. 후기청소년(청년) 투표 참여율	5.67 (1.39)	0.61	0.67	1.00	3.1%	9.3%
	4-10. 자원봉사 참여율	5.42 (1.26)	0.65	0.83	0.50	2.5%	7.4%
	4-11. 동아리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5.49 (1.20)	0.61	0.83	0.50	1.9%	5.6%
	4-12.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비율	5.42 (1.21)	0.61	0.83	0.50	0.0%	0.0%
	4-13.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5.74 (1.08)	0.72	0.83	0.50	5.6%	16.7%
	4-14.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친구·가족과의 토론비율	5.26 (1.26)	0.37	0.60	1.00	1.2%	3.7%
	4-15.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6.16 (0.87)	0.86	0.83	0.50	24.1%	72.2%

주: 1) 1차 조사의 타당성 응답범주는 1점(전혀 타당하지 않음)-7점(매우 타당함)임.
2) 2차 조사의 우선순위는 '핵심지표로 선정되어야 하는 지표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분석은 1순위~3순위 간 차등을 두지 않고 중복응답(multiple response)으로 우선순위 응답을 분석하였음. '퍼센트'는 전체 응답을 100%로 했을 때 각 항목의 응답비율이고, 케이스퍼센트(percent of cases)는 전체 응답자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임.
3) 1차 조사에서는 각 영역 내의 개별지표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하위영역을 제시하지 않고 타당성을 조사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핵심지표 선정 시 하위 영역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하위 영역을 제시한 후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정하도록 하였음.

여가·활동·참여 영역은 여가 및 활동 하위 영역에서 여가시간 사용 정도,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사회·경제·정치 참여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의 지표들이 선정되었다. 이 영역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와 쉴 권리 차원에서 매우 강조되어야 하는 영역이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지표들이 포괄적이어서 핵심적인 지표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영역의 분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만 19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청년)들의 사회참여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3]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여가·활동·참여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5) 안전·행동 영역 지표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중 안전·행동 영역은 2개의 하위 영역과 1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에게 16개 지표의 타당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지표의 타당도가 7점 만점 중 5점 이상으로 나타났고, 6점 이상의 지표도 12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이 아동·청소년 삶의 질에서 안전·행동 영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발생 건수(6.63점),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6.51점),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 및 사망률(6.47점), 방과 후 아동방치 정도(6.39점), 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6.37점) 등이 높게 나타났다. 안전 영역의 지표들은 모두 6점이 넘을 만큼 높은 타당도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16개 지표 중 가장 타당도가 낮았던 지표는 10대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이었는데 7점 만점에서 5.65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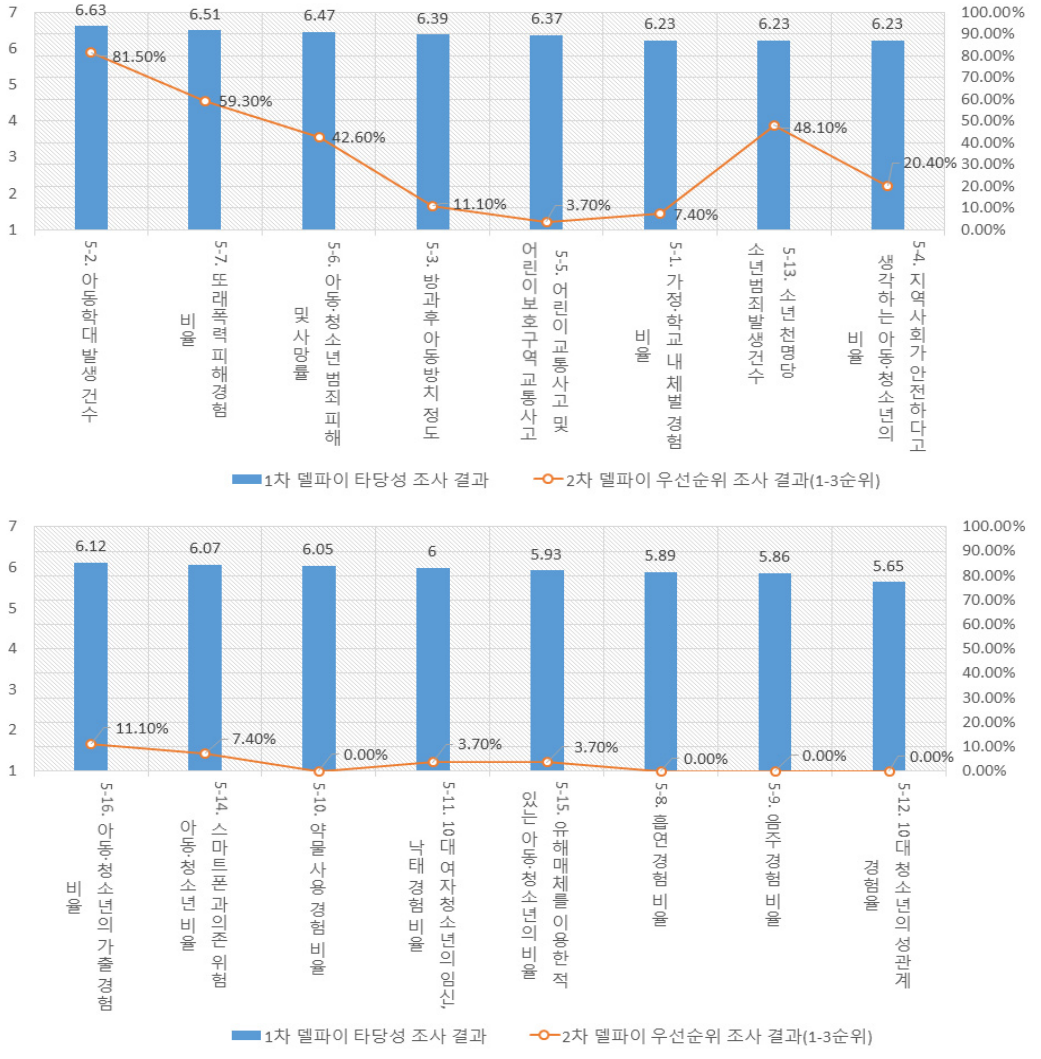
〈표 6-23〉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안전·행동 영역)

하위 영역	지표	1차 델파이 타당성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우선순위 조사 결과(1-3순위)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퍼센트	케이스퍼센트
안전	5-1. 가정·학교 내 체벌 경험 비율	6.23 (1.11)	0.82	0.86	0.50	2.5%	7.4%
	5-2. 아동학대 발생 건수	6.63 (0.61)	0.96	0.86	0.50	27.2%	81.5%
	5-3. 방과후 아동방치 정도	6.39 (0.72)	0.96	0.86	0.50	3.7%	11.1%
	5-4.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6.23 (0.82)	0.93	0.83	0.50	6.8%	20.4%
	5-5. 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6.37 (0.76)	0.96	0.86	0.50	1.2%	3.7%
	5-6.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 및 사망률	6.47 (0.86)	0.89	0.86	0.50	14.2%	42.6%
	5-7.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	6.51 (0.65)	1.00	0.86	0.50	19.8%	59.3%
행동	5-8. 흡연 경험 비율	5.89 (1.00)	0.75	0.67	1.00	0.0	0.0
	5-9. 음주 경험 비율	5.86 (0.98)	0.75	0.67	1.00	0.0	0.0
	5-10. 약물 사용 경험 비율	6.05 (0.94)	0.82	0.83	0.50	0.0	0.0
	5-11. 10대 여자청소년의 임신, 낙태 경험 비율	6.00 (1.09)	0.79	0.67	1.00	1.2%	3.7%
	5-12. 10대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	5.65 (1.07)	0.61	0.83	0.50	0.0	0.0
	5-13.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	6.23 (0.84)	0.89	0.83	0.50	16.0%	48.1%
	5-14.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아동·청소년 비율	6.07 (1.02)	0.82	0.67	1.00	2.5%	7.4%
	5-15. 유해매체를 이용한 적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5.93 (1.12)	0.82	0.67	1.00	1.2%	3.7%
	5-16.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	6.12 (0.96)	0.86	0.83	0.50	3.7%	11.1%

주: 1) 1차 조사의 타당성 응답범주는 1점(전혀 타당하지 않음)-7점(매우 타당함)임.
2) 2차 조사의 우선순위는 '핵심지표로 선정되어야 하는 지표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분석은 1순위~3순위 간 차등을 두지 않고 중복응답(multiple response)으로 우선순위 응답을 분석하였음. '퍼센트'는 전체 응답을 100%로 했을 때 각 항목의 응답비율이고, 케이스퍼센트(percent of cases)는 전체 응답자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임.
3) 1차 조사에서는 각 영역 내의 개별지표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하위영역을 제시하지 않고 타당성을 조사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핵심지표 선정 시 하위 영역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하위 영역을 제시한 후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정하도록 하였음.

2차 조사에서 핵심지표 선정을 위해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물어본 결과, 1차 조사의 타당성 순위와 조금 달라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전문가들이 안전과 행동 영역으로 핵심지표를 나누어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안전 영역의 아동학대 발생건수(81.5%),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59.3%)은 1차 조사와 같이 1위와 2위를 차지하였으나, 3위는 행동 영역의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48.1%)로 1차 조사에 비해 순위가 올라갔다. 반면 약물 사용 경험 비율(0%), 흡연 경험 비율(0%), 음주 경험 비율(0%), 10대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0%) 등 그동안 비행을 측정하던 지표들은 핵심지표로 추천받지 못하였다.

안전·행동 영역은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안전·위험행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응답을 받았다. 지표에 관한 델파이조사에서도 안전 영역에서는 아동학대 발생건수,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을 핵심지표로 선정하고, 위험행동 영역에서는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를 핵심지표로 균형 있게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 영역은 전문가들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지표들이 많이 있으므로 영역별로 동수의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 타당도가 높은 영역에는 추가적으로 몇 개의 지표를 더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그림 6-14]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안전·행동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6) 관계 영역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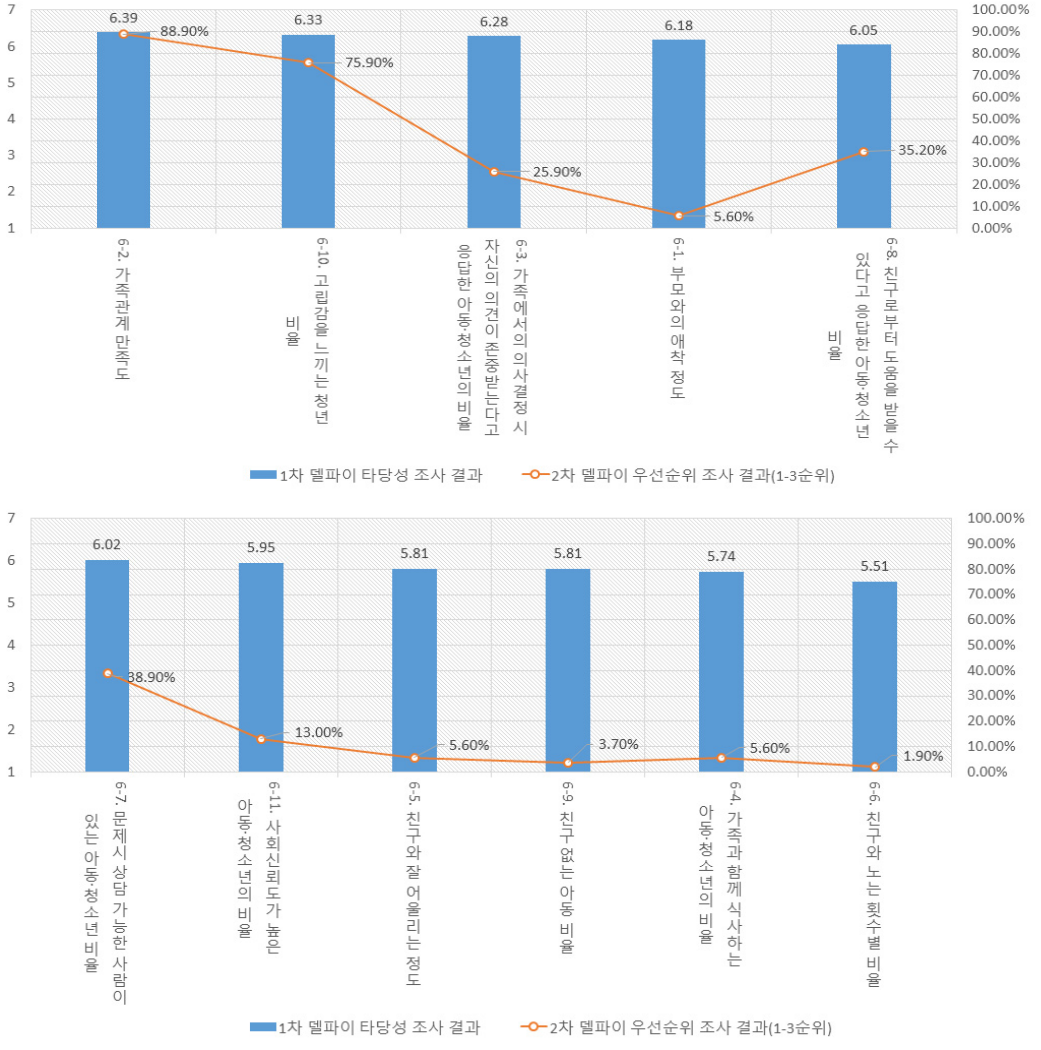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중 관계 영역은 2개의 하위 영역과 1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조사에서 11개 지표의 타당성을 물어본 결과 모든 지표의 타당도가 7점 만점에 5.5점 이상을 기록했으며, 평균이 6점 이상인 지표도 6개였다. 모든 지표들의 CVR 값도 기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타당도 상위 지표는 가족관계 만족도(6.39점),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6.33점), 가족에서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6.28점) 등이었다. 이 영역에서 타당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지표는 친구와 노는 횟수별 비율(5.51점)이었으나 다른 영역들의 지표들에 비해 타당도 점수는 높은 편이었다.

〈표 6-24〉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관계 영역)

하위 영역	지표	1차 델파이 타당성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우선순위 조사 결과(1-3순위)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퍼센트	케이스퍼센트
가족 관계	6-1. 부모와의 애착 정도	6.18 (0.98)	0.86	0.83	0.50	1.9%	5.6%
	6-2. 가족관계 만족도	6.39 (0.77)	0.96	0.86	0.50	29.6%	88.9%
	6-3. 가족에서의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6.28 (0.83)	0.89	0.83	0.50	8.6%	25.9%
	6-4.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5.74 (1.02)	0.75	0.67	1.00	1.9%	5.6%
또래 관계 및 일반 관계	6-5. 친구와 잘 어울리는 정도	5.81 (0.94)	0.82	0.83	0.50	1.9%	5.6%
	6-6. 친구와 노는 횟수별 비율	5.51 (1.03)	0.68	0.80	0.50	.6%	1.9%
	6-7.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6.02 (0.98)	0.82	0.67	1.00	13.0%	38.9%
	6-8.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비율	6.05 (0.91)	0.86	0.83	0.50	11.7%	35.2%
	6-9. 친구 없는 아동 비율	5.81 (1.13)	0.72	0.67	1.00	1.2%	3.7%
	6-10.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	6.33 (0.80)	0.93	0.83	0.50	25.3%	75.9%
	6-11. 사회신뢰도가 높은 아동·청소년의 비율	5.95 (0.83)	0.93	0.67	1.00	4.3%	13.0%

주: 1) 1차 조사의 타당성 응답범주는 1점(전혀 타당하지 않음)-7점(매우 타당함)임.
2) 2차 조사의 우선순위는 '핵심지표로 선정되어야 하는 지표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분석은 1순위~3순위 간 차등을 두지 않고 중복응답(multiple response)으로 우선순위 응답을 분석하였음. '퍼센트'는 전체 응답을 100%로 했을 때 각 항목의 응답비율이고, 케이스퍼센트(percent of cases)는 전체 응답자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임.
3) 1차 조사에서는 각 영역 내의 개별지표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하위영역을 제시하지 않고 타당성을 조사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핵심지표 선정 시 하위 영역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하위 영역을 제시한 후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정하도록 하였음.

2차 조사에서 핵심지표 선정을 위해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물어본 결과, 타당도 순위와는 차이가 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1순위는 가족관계 영역의 가족관계 만족도(88.9%), 2순위는 또래관계 및 일반관계 영역의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75.9%)이었고, 3순위는 또래관계 및 일반관계 영역의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38.9%)이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하위 영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비율(35.2%)도 1차 조사의타당도 순위에 비해 높은 추천을 받았다.



[그림 6-15]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관계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관계 영역 역시 전문가들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지표들이 많았고, 하위 영역별로 지표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은 만 19-24세에만 해당되는 지표이므로 다른 연령의 관계를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을 통해 만 19-24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지표생산 시 고립감을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도 함께 조사되는 것도 필요하다.

(7) 주관적 웰빙 영역 지표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중 주관적 웰빙 영역은 3개의 하위 영역과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적 웰빙 영역은 지표수는 가장 적었지만 비교적 높은 타당도를 보여주고 있다. 7점 만점의 타당도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6.51점), 전반적 삶의 만족도(6.46점), 긍정적 정서(6.4점) 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타당도 점수가 낮았던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도 5.63점으로 다른 영역들의 하위 지표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타당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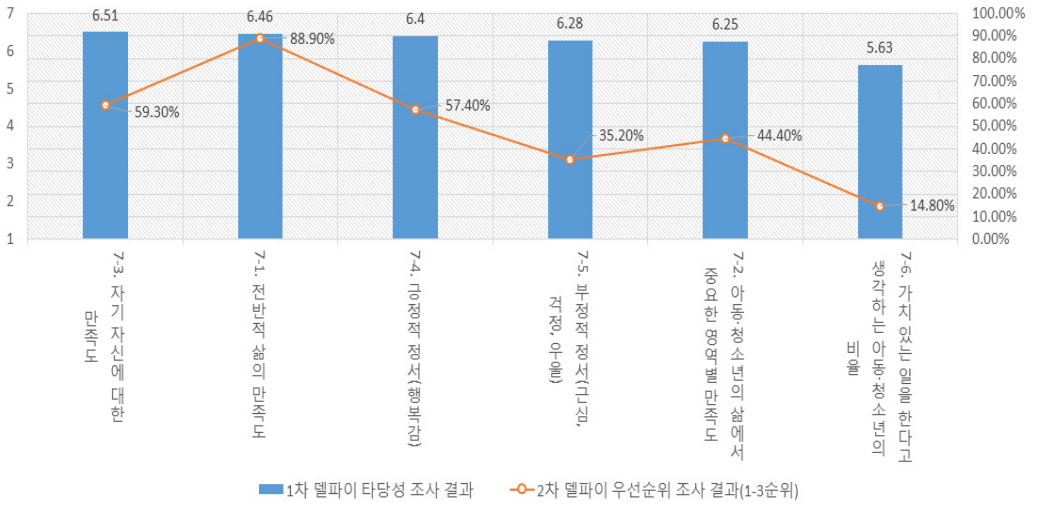
2차 조사에서 핵심지표 선정을 위해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물어본 결과, 1차 조사의 타당도 순위와 차이를 보였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지표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88.9%)이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59.3%), 긍정적 정서(57.4%) 등의 순으로 추천을 받았다.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1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 영역은 비록 지표의 수는 적었으나 지표의 타당도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고, 지표들도 인지차원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정서차원의 긍정 감정 등이 균형 있게 배치되었다. 유데모니아 차원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직 이 차원의 지표들은 측정이 정교화되지 않았으므로 추후에 지표를 보완·생산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만 0-5세 프레임워크의 주관적 웰빙 영역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행복을 측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지표들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표 6-25〉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주관적 웰빙 영역)

하위 영역	지표	1차 델파이 타당성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우선순위 조사 결과(1-3순위)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퍼센트	케이스퍼센트
삶의 만족도	7-1. 전반적 삶의 만족도	6.46 (0.97)	0.89	0.86	0.50	29.6%	88.9%
	7-2.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별 만족도	6.25 (0.94)	0.96	0.83	0.50	14.8%	44.4%
	7-3.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6.51 (0.57)	1.00	0.86	0.50	19.8%	59.3%
긍정/부정감정	7-4. 긍정적 정서(행복감)	6.40 (0.79)	1.00	0.86	0.50	19.1%	57.4%
	7-5. 부정적 정서(근심, 걱정, 우울)	6.28 (0.79)	1.00	0.83	0.50	11.7%	35.2%
삶의 가치와 의미	7-6.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5.63 (1.19)	0.86	0.67	1.00	4.9%	14.8%

주: 1) 1차 조사의 타당성 응답범주는 1점(전혀 타당하지 않음)-7점(매우 타당함)임.
2) 2차 조사의 우선순위는 '핵심지표로 선정되어야 하는 지표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분석은 1순위~3순위 간 차등을 두지 않고 중복응답(multiple response)으로 우선순위 응답을 분석하였음. '퍼센트'는 전체 응답을 100%로 했을 때 각 항목의 응답비율이고, 케이스퍼센트(percent of cases)는 전체 응답자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임.
3) 1차 조사에서는 각 영역 내의 개별지표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하위영역을 제시하지 않고 타당성을 조사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핵심지표 선정 시 하위 영역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하위 영역을 제시한 후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정하도록 하였음.



[그림 6-16]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주관적 웰빙 영역 지표의 타당성(1차), 우선순위(2차) 조사 결과

(8) 핵심지표 선정 결과 (우선순위 상위 5개 지표)

지금까지 각 영역별 지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델파이 결과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여기서는 각 영역별 상위지표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6-26〉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우선순위 기준 정렬)

〈 사회적 배경 영역: 2개 영역 〉					
인구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사회정책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1-1.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	5.86 (1.44)	88.9%	2-5.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6.28 (0.87)	90.7%
1-6.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	6.44 (0.88)	85.2%	2-8.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6.26 (1.02)	75.9%
1-7.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	5.60 (1.30)	48.1%	2-4.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취원율	6.05 (1.00)	46.3%
1-5. 미성년 자녀 부모 이혼 비율	5.67 (1.10)	40.7%	2-9. 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6.07 (1.02)	33.3%
1-2. 출생아수와 출생성비	5.46 (1.52)	31.5%	2-13.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5.93 (1.01)	20.4%
〈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의 핵심지표: 7개 영역 〉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건강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아동·청소년 비율	6.39 (0.79)	92.6%	2-5. 아동·청소년 자살률	6.61 (0.61)	75.9%
1-3.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	6.30 (0.92)	88.9%	2-11. 수면시간	6.25 (0.71)	44.4%
1-1. 물질적 결핍지수	6.18 (0.98)	68.5%	2-2. 우울한 감정 경험	6.46 (0.65)	31.5%
1-4. 아동·청소년의 빈곤갭	5.89 (0.99)	13.0%	2-17. 아동·청소년 영양결핍률	6.14 (0.91)	31.5%
1-6. 거주지역 편의성	5.58 (0.94)	11.1%	2-9. 비만율	5.91 (1.00)	24.1%
학습·역량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여가·활동·참여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3-8. 학교생활 만족도	6.18 (0.92)	81.5%	4-15.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6.16 (0.87)	72.2%
3-13. 자기효능감	6.09 (0.98)	70.4%	4-2. 여가시간 사용 정도	6.18 (0.90)	63.0%
3-3. 학업중단율	6.02 (1.03)	57.4%	4-3.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6.14 (0.91)	46.3%
3-5. 학습시간	6.04 (0.97)	27.8%	4-7. 일하는 청소년 비율(학교 유형별)	5.88 (1.01)	22.2%
3-10.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6.02 (0.89)	18.5%	4-4. 매체 이용 경험	5.77 (1.12)	20.4%

안전·행동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관계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5-2. 아동학대 발생 건수	6.63 (0.61)	81.5%	6-2. 가족관계 만족도	6.39 (0.77)	88.9%
5-7.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	6.51 (0.65)	59.3%	6-10.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	6.33 (0.80)	75.9%
5-13.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	6.23 (0.84)	48.1%	6-7.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6.02 (0.98)	38.9%
5-6.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 및 사망률	6.47 (0.86)	42.6%	6-8.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비율	6.05 (0.91)	35.2%
5-4.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6.23 (0.82)	20.4%	6-3. 가족에서의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6.28 (0.83)	25.9%
주관적 웰빙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7-1. 전반적 삶의 만족도	6.46 (0.97)	88.9%			
7-3.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6.51 (0.57)	59.3%			
7-4. 긍정적 정서(행복감)	6.40 (0.79)	57.4%			
7-2.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별 만족도	6.25 (0.94)	44.4%			
7-5. 부정적 정서(근심, 걱정, 우울)	6.28 (0.79)	35.2%			

주: 1) 우선순위 추천비율은 1-3순위 응답에 대한 다중응답(multiple response)처리 결과임. 전체 응답자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을 의미함.

이 연구는 핵심지표 체계의 지표수는 유동적이라고 보았다. 만약 각 영역에 같은 수의 지표를 선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각 세부 영역당 2개의 지표를 선정하면 총 18개 지표, 3개의 지표를 선정하면 총 27개의 지표, 4개의 지표를 선정하면 36개 지표가 될 수 있다. 핵심지표의 수는 연구의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지수(index) 구성을 통한 삶의 질의 비교까지 활용이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2차 연구의 핵심지표체계는 각 영역별 상위 3개 지표를 종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연구의 핵심지표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배경 영역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을 보여주는 영역이다. 사회적 배경 지표의 인구 영역은 아동·청소년 인구와 관련한 정태적, 동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영역으로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 '아동·청소년 인구추계', '미성년 자녀 부모 이혼 비율' 등의 지표가 선정되었다. 이들 지표는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수와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험 속에 있고, 어떠한 가정환경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정책 영역은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의 투입, 산출, 결과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취원율'이 선정되었다. '사회정책지표'는 빈곤, 원가정의 돌봄 부재라는 사회적 욕구와 영유아 돌봄이라는 서비스의 제공을 아우르고 있다. 추후 다양한 사회정책의 종류별 적용범위(coverage), 예산(budget)까지 확대된다면 더 체계적인 정책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표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분화되어 보고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영역인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영역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물질적인 재화를 누리고(material well-being),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아동·청소년 비율,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 물질적 결핍 지수가 선정되었다. 이 영역은 다차원적 빈곤을 보여주도록 지표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아동·청소년 비율은 주거 빈곤,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 빈곤, 물질적 결핍 지수는 가정 내 재분배 및 물질에의 접근성을 고려한 물질적 결핍 혹은 박탈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건강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태아 시기에서부터 출산, 양육까지 안전하고 예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아동·청소년 자살률, 수면시간, 아동·청소년 영양결핍률이 선정되었다. 이들 지표는 건강 영역 하위영역별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신건강 지표로서 아동·청소년 자살률, 신체건강 지표로서 수면시간, 건강행동 지표로서 아동·청소년 영양결핍률 등이다. 규칙적 운동실천률은 2차 델파이의 우선순위 평가에서 20%의 추천을 받았으나 다른 지표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다. 건강 영역은 영유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나 영유아를 아우르는 지표가 선택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후 지표 세분화에서 영유아를 포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역량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잘 받으며 성장·발달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면서 자라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자기효능감, 학업중단율이 선정되었다.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업중단율은 학습 영역, 자기효능감은 역량 영역의 지표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삶의 질 연구들이 교육(education)으로 명명한 영역을 학습(learning)과 역량(competence)으로 다시 명명하였으나 역량 영역의 지표를 발굴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핵심지표로 선정될만한 지표가 우리의 지표 리스트에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앞으로 아동·청소년의 역량을 나타내는 역량 지표군이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가·활동·참여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기며 휴식하고, 사회·경제·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여가시간 사용 정도, 여가시간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는 참여영역 지표로서 참여의 기반이 되는 사회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여

가시간 사용 정도와 여가시간 만족도는 실제 여가를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가생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안전·행동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아동학대 발생건수, 또래폭력 피해경험,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 및 사망률이 선정되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아동·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지, 학교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지, 사회적으로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는지 등을 살필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 관계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가정, 학교, 동네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가족관계 만족도,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등이 선정되었다. 관계 영역은 타인과의 관계의 양과 질을 파악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관계 만족, 관계망 속에서의 단절을 의미하는 고립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본 혹은 자원을 의미하는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의 존재 등이 포괄되었다. 관계 영역은 주관적 응답의 특성상 자기응답 가능한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지표가 구성되었으나, 추후 영유아의 지표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주관적 웰빙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전반적 삶의 만족도,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 정서(행복감)이 선정되었다. 이들 지표는 주관적 웰빙의 인지적, 감정적, 유데모니아적 지표들 중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긍정적 감정(행복)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긍정적 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아동·청소년 사회 지표들이 부정적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과도기적인 면에서 이와 같이 세 지표를 핵심지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26〉 사회적 배경 지표 중 핵심지표 (상위 3개)

사회적 배경 지표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을 보여주는 지표

인구 영역 지표
: 아동·청소년 인구와 관련한 정태적, 동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영역

핵심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	5.86 (1.44)	88.90%	장래인구추계	0-24세	5년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	6.44 (0.88)	85.20%	인구동향조사	0-24세	1년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	5.60 (1.30)	48.10%	지역별고용조사	0-17세	1년

사회정책 영역 지표

: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의 투입, 산출, 결과를 나타내는 영역

핵심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6.28 (0.87)	90.7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0-24세	1년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6.26 (1.02)	75.90%	보호대상 아동현황보고	0-17세	1년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취원율	6.05 (1.00)	46.30%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교육통계	0-5세 / 3-5세	1년

〈표 6-27〉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중 핵심지표 (상위 3개)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 지표:

: 아동·청소년이 물질적인 재화를 누리고(material well-being),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영역

핵심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아동·청소년 비율	6.39 (0.79)	92.60%	주거실태조사	0-17세	1년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	6.30 (0.92)	88.90%	가계금융복지조사	0-24세	1년
물질적 결핍지수	6.18 (0.98)	68.50%	아동종합실태조사	0-17세	5년

건강 영역 지표

: 아동·청소년이 태아 시기에서부터 출산, 양육까지 안전하고 예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영역

핵심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아동·청소년 자살률	6.61 (0.61)	75.90%	사망원인통계	0-24세	1년
수면시간	6.25 (0.71)	44.40%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1-고3	1년
우울한 감정 경험	6.46 (0.65)	31.50%	아동종합실태조사	9-17세	5년

학습·역량 영역 지표

: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잘 받으며 성장·발달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면서 자라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영역

핵심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학교생활 만족도	6.18 (0.92)	81.5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회조사	9-24세	3년
자기효능감	6.09 (0.98)	70.40%	아동종합실태조사	9-17세	5년

학업중단율	6.02 (1.03)	57.40%	교육통계	초중고	1년

여가·활동·참여 영역 지표

: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기며 휴식하고, 사회·경제·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영역

핵심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6.16 (0.87)	72.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초4~고3	1년
여가시간 사용 정도	6.18 (0.90)	63.0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초4~고3	1년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6.14 (0.91)	46.30%	사회조사	13-29세	2년

안전·행동 영역 지표

: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영역

핵심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	6.63 (0.61)	81.50%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0-17세	1년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	6.51 (0.65)	59.30%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초4-고3	2년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	6.23 (0.84)	48.10%	경찰통계연보	10-18세	1년

관계 영역 지표

: 아동·청소년이 가정, 학교, 동네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영역

핵심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가족관계 만족도	6.39 (0.77)	88.9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24세	3년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	6.33 (0.80)	75.90%	사회통합실태조사	20-29세	1년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6.02 (0.98)	38.90%	사회조사	13-24세	2년

주관적 웰빙 영역 지표

: 아동·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영역

핵심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전반적 삶의 만족도	6.46 (0.97)	88.90%	아동종합실태조사	0-17세	5년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6.51 (0.57)	59.3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24세	3년
긍정적 정서(행복감)	6.40 (0.79)	57.40%	아동종합실태조사	0-17세	5년

3.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변화 및 측정지표 관련 의견조사

지금까지 삶의 질 지표체계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델파이조사의 세 번째 파트로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변화 및 측정이 필요한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조사의 목적은 지표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측정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떠한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정책적, 학술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것에 있다.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 삶에 미친 영향은 네 파트로 조사되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폐쇄형 응답을 통해 1차에서만 조사되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의 삶에 미친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것과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으로 개방형 응답으로 조사되었으며 1차에서만 조사되었다.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로 추가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으로 1차조사에서는 개방형 응답으로 조사되었고, 2차 조사에서는 이를 정리하여 폐쇄형 응답으로 조사되었다.

〈표 6-27〉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변화 및 측정지표에 관한 의견

구분	1차 델파이 주요 내용	2차 델파이 주요 내용	비고
Ⅲ.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변화 및 측정지표	•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 삶에 미친 영향 평가 •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에 대한 의견조사(개방형) •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측정을 위한 지표조사(개방형)	•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측정을 위한 지표 타당성 조사 ▷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 지표 ▷ 건강 영역 지표 ▷ 학습·역량 영역 지표 ▷ 여가·활동·참여 영역 지표 ▷ 관계 영역 지표	• 1차 조사의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에 대한 의견조사(개방형)를 기반으로 지표목록을 작성하여 2차조사에서 타당도를 조사하였음

1)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 삶에 미친 영향

전문가들에게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점(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7점(매우 영향을 미쳤음)의 범주로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전문가들의 점수는 7점 만점에 평균 6.58점으로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표 6-28〉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well-being)에 미친 영향	6.58 (0.77)	0.96	0.86	0.50

*응답범주는 1점(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부터 7점(매우 영향을 미쳤음)까지의 7점 척도임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는가? 연구진은 1차 조사에서는 개방형 응답을 통하여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아동·청소년의 삶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림 6-17]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아동·청소년의 삶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응답 Word Cloud 구성 결과

1차 조사에서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었고, 연구진은 이러한 의견들을 다음과 같이 개별 영역 및 범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의 삶에 미친 영향으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29〉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영향에 관한 의견 (델파이1차 개방형 응답 의견 정리)

영역	코로나19의 영향	영역	코로나19의 영향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 박탈경험 증가 • 사적공간 격차 • 주거환경 중요도 증가 • 가계소득감소 • 취업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계층 재생산 (불평등 심화)	**여가·활동·참여**	• 놀권리 미보장 • 디지털 매체 이용 증가 • 미디어 활용역량 중요도 증가 • 매체 중독 증가
건강	• 스트레스증가 • 신체운동시간 감소 • 심리적 건강 변화 • 무기력 증가 • 불안 증가 • 영양 불균형 • 우울감 심화 • 주양육자 마음건강 악화(우울 등) • 체질량 지수 악화 • 주양육자 마음건강 • 비만율 증가	**관계**	• 대면관계부족 • 사회성 변화 • 또래관계 단절 • 고립감 심화 • 대인관계 약화 • 정서교감 부족 • 대인관계 역량 부족 • 사회적 기술 부족 • 가족갈등증가 • 비대면 관계의 증가 • 교사-학생 관계 변화
학습·역량	• 온라인 교육 증가 • 교육격차 심화 • 학업결손 • 학업능력저하 • 학교 내 협동수업 비율 감소 • 학교생활 접근에 대한 격차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저하	**안전·행동**	• 아동학대 증가 • 아동보호체계 기능 미비 • 방임, 방치 • 돌봄공백 • 돌봄의 질 격차 • 학대아동 발견 어려움

〈표 6-3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영향에 관한 기타 의견 (델파이1차 개방형 응답 의견 정리)

구분	코로나19의 영향	구분	코로나19의 영향
대상별 특징	• 저소득층 학습 격차 • 저소득층 돌봄 격차 • 저소득층 영양관리 미비 • 저소득층 아동학대 문제 • 장애아동 돌봄 공백 • 이주아동 교육권 • 저소득층 경제적 어려움 경험 • 맞벌이가구 돌봄 공백	**범영역적 이슈**	• 생활시간 사용 변화 • 자율적 시간사용 계획 미비

〈표 6-31〉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영향에 관한 분석관련 의견

대상별	분석방법
• 소득계층(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격차 분석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격차 분석 •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격차 분석 • 학교 신입생(초/중/고/대)의 학교환경 적응성 분석	• 기존 지표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 분석 • 팬데믹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지 분석 • 모든 영역에서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분석

2)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측정지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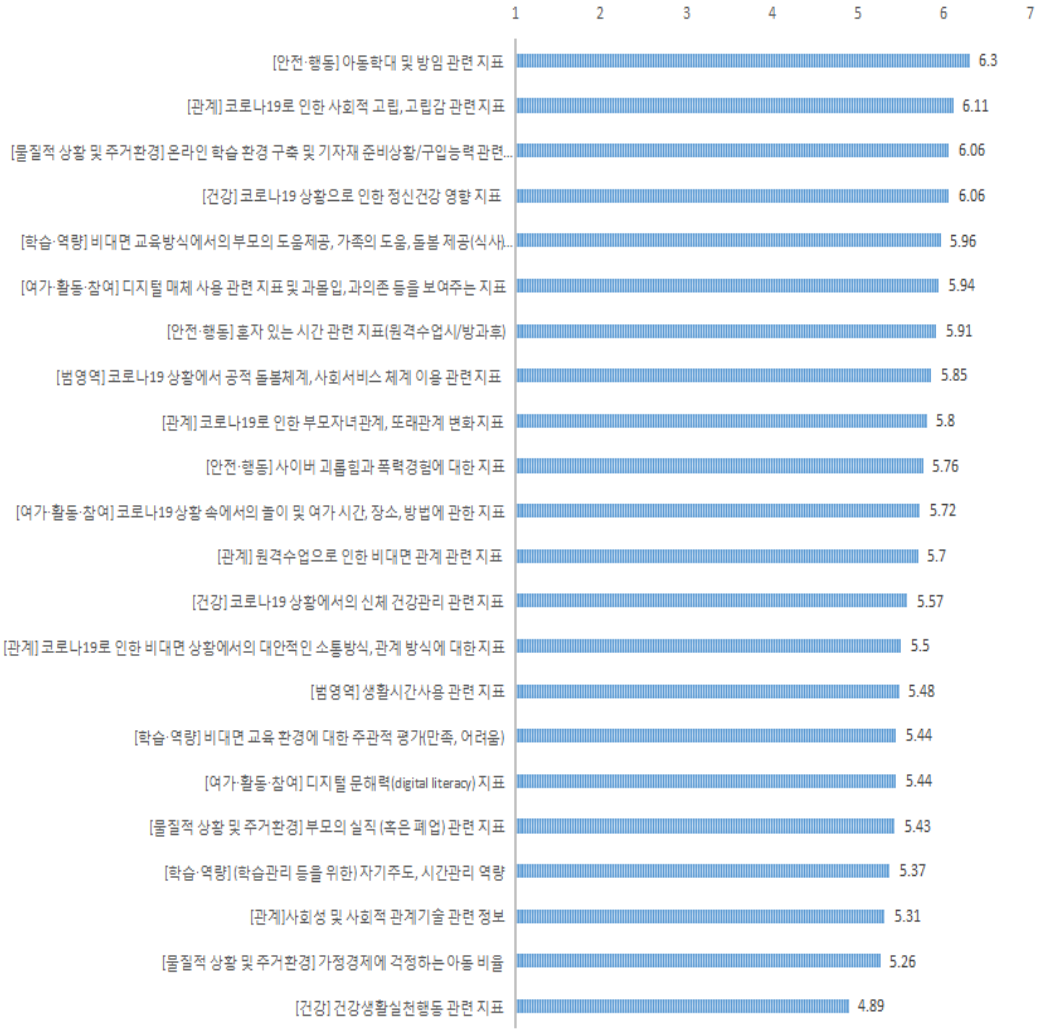
1차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영향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반영하는데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연구진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혹은 팬데믹 이후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중요해질 지표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가 코로나19 상황 이후의 삶의 질 특성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고자 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이 지표들을 22개 지표로 정리하여 각 지표의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우선 연구진은 1차 조사의 응답을 학습·역량,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안전·행동, 건강, 여가·활동·참여, 관계, 범영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 지표들을 측정지표 형태로 제시하고 1점(전혀 타당하지 않음)~7점(매우 타당함)의 범주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32〉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측정을 위한 지표별 타당성

영역	지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학습·역량	비대면 교육방식에서의 부모의 도움제공, 가족의 도움, 돌봄 제공(식사) 여부	5.96 (1.12)	0.81	0.83	0.50
	비대면 교육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만족, 어려움)	5.44 (1.44)	0.44	0.67	1.00
	(학습관리 등을 위한) 자기주도, 시간관리 역량	5.37 (1.24)	0.59	0.82	0.50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 및 기자재 준비상황 측정 지표 및 구입능력 관련 지표	6.06 (1.08)	0.85	0.67	1.00
	부모의 실직 (혹은 폐업) 관련 지표	5.43 (1.23)	0.48	0.71	0.88
	가정경제에 걱정하는 아동 비율	5.26 (1.29)	0.48	0.71	0.88
안전·행동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지표	6.30 (0.87)	0.93	0.85	0.50
	혼자 있는 시간 관련 지표(원격수업시/방과후)	5.91 (1.00)	0.74	0.83	0.50
	사이버 괴롭힘과 폭력경험에 대한 지표	5.76 (1.04)	0.70	0.71	0.88
건강	코로나19 상황(감염병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영향 지표	6.06 (1.03)	0.81	0.83	0.50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신체 건강관리 관련 지표	5.57 (1.06)	0.78	0.83	0.50
	건강생활실천행동 관련 지표	4.89 (1.12)	0.30	0.60	1.00
여가·활동·참여	디지털 매체 사용 관련 지표(사용시간) 및 과몰입, 과의존 등을 보여주는 지표	5.94 (1.10)	0.85	0.83	0.50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지표	5.44 (1.13)	0.70	0.82	0.50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놀이 및 여가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한 지표(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실내활동 관련 정보)	5.72 (1.06)	0.81	0.83	0.50
관계	원격수업으로 인한 비대면 관계 관련 지표 (원격수업 시 교사-학생 관계, 원격수업 시 교우 관계)	5.70 (1.12)	0.78	0.83	0.50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변화 지표	5.80 (1.14)	0.74	0.67	1.00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의 대안적인 소통방식, 관계 방식에 대한 지표	5.50 (1.05)	0.67	0.83	0.50

영역	지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사회성 및 사회적 관계기술 관련 정보	5.31 (1.15)	0.48	0.71	0.88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 고립감 관련 지표	6.11 (0.87)	0.93	0.83	0.50
범영역	생활시간사용 관련 지표	5.48 (1.29)	0.67	0.83	0.50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적 돌봄체계, 사회서비스 체계 이용 관련 지표	5.85 (1.16)	0.81	0.67	1.00



[그림 6-18]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측정을 위한 지표별 타당성

타당도가 높은 문항들을 살펴보면, '안전행동' 영역의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지표(6.30점)', '관계' 영역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 고립감 관련 지표(6.11점)'가 그 다음이었다. 그 다음은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의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 기자재 준비상황 측정 지표 및 구입능력 관련 지표(6.06점)', '건강' 영역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정신건강 영향 지표(6.06점)', '학습역량' 영역의 비대면 교육방식에서의 부모의 도움제공, 가족의 도움, 돌봄제공(식사제공)여부 등(5.96점) 등이었다. 이외에 '디지털 매체 사용 및 과의존(5.94점)', '혼자 있는 시간(5.91점)', '공적 돌봄체계 이용(5.85점)',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친구 관계 변화(5.80점)'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향후 연구들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측정,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지표 분석, 측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의견

델파이조사의 마지막 파트는 간단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1차 델파이조사의 분량이 너무 많았던 관계로, 응답자들의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차 조사에서만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1) 지표의 분석 하위집단(sub-group)에 관한 제안(개방형 응답), (2)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통합에 관한 의견, (3)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이용자 포털 운영 시 이용 의향, (4)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이용자 포털 운영 시 이용 의향 학령기 아동·청소년 친화적 구성에 대한 의견, (5) 종합의견 등이다.

〈표 6-33〉 전문가 조사의 기타 영역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2차 델파이에서만 조사)	비고
Ⅳ. 기타	• 분석 하위집단에 대한 제안 •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통합에 관한 의견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포털 운영 시 이용 의향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포털 운영 시 학령기 아동·청소년 친화적 구성에 대한 의견 • 종합 의견	• 응답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차 조사에서만 조사되었음

1) 지표 분석 시 하위집단(sub-group)별 결과 제시에 관한 의견(개방형 응답)

한 국가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을 보고하고 모니터링하는 연구들은 성별, 인종,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한 지표를 하위집단(sub-group)별로 보여주는 것은 평균을 넘어서 한 국가 내 격차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연구진은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삶의 질을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한 지표 내에서의 성별, 학교급별 차이 등 하위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는 기준을 추천 받았다. 전문가들이 추천한 하위집단을 빈도별로 도식화(word cloud)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19] 지표 분석 시 하위집단(sub-group)별 결과 제시에 관한 의견(word cloud)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제안한 하위집단은 소득계층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소득계층을 이야기하였으며, 그 이외에 학교급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가족구조(양부모/한부모),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맞벌이)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별 분석은 17개 시도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중소도시 등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1차 연구에서부터 제안된 광역시도별 비교, 기초지자체별 비교 등에 대한 필요성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분석,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분석, 탈북 아동·청소년에 대한 분석, 가정외 보호아동·청소년에 대한 분석 등이 있었다. 향후 개별 지표 내에서 평균에서 취약집단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분석하면 우리 사회의 삶의 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34〉 지표 분석 시 하위집단(sub-group)별 결과 제시에 관한 의견

■ 지역 관련
▷ 지역별 구분은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음. 예를 들어 17개 시도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중소도시 등.
▷ 인구감소와 지역적 차이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도권 vs. 비수도권, 대도시 vs. 비대도시를 구분한 지표 역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 지역별에서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프라, 접근성 관련한 지표는 지역별, 광역시도, 수도권 비수도권, 도/농 등 필요에 따라 단위를 구분하여 접근. 차이 제시.
▷ 지역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닌 도시규모별로 진행되어야함.
▷ 지역별 비교는 가능하다면 포함하되, 충분히 세분화하여 제시한다면 더 좋겠으나, 불가 시 지역 규모를 중심으로 구분 제시.

■ 연령/학교급 관련
▷ 학교급별 및 학교유형별, 즉 고교생의 경우,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의 분석과 함께 이주배경의 유무와 이주배경의 특성 즉, 이주 전 국가별에 따른 분석도 유의미할 것임.
▷ 우선순위 지표 선정 시 연령별 구분을 고려하여 유사한 지표들의 경우 연령별로 나누어 제시 필요. 예를 들어, 관계 관련 지표는 0에서 5세, 6에서 18세, 19에서 24세 각각별로 지표들이 나누어 제시.

■ 가족구조(양부모/한부모) 및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맞벌이)
▷ 맞벌이 가정 여부, 한부모 가정 여부
▷ 가구 유형 장애유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 가족 유형과 가정 밖 보호
▷ 양부모, 한부모, 조손가정 등의 가구유형
▷ 코로나19의 영향을 본다면, 부모의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경우와 없던 경우를 나누어 보는 방안 검토.

■ 성별
▷ 성별 간 사회정서적 특성에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지표에 따라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이 의미 있음.
▷ 음주율, 흡연율 같은 경우 성별, 교급별 차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됨.

■ 기타
▷ 다문화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현황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
▷ 가능하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이러한 차이(disparity)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다문화, 장애, 취약계층, 경제적 수준, 지역규모, 북한이탈(탈북) 등
▷ 학교 밖 여부 및 가정 밖 여부
▷ 특수학급 혹은 특수학교를 이용하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 인지적/정서적 지표와 삶의 질 지표 간 관계 분석도 가능할 것임. 예컨대, 자존감이 낮은 아동/청소년,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른 아동의 삶의 질 지표 값 비교 등

*가장 언급이 많았던 소득계층에 대한 의견은 제외하고 제시하였음.

2)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통합에 관한 의견

다음 질문은 아동복지법상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종합실태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117074호),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154013호)의 통합과 관련한 것이었다. 두 조사는 만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의 '아동'과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의 삶에 관한 실태조사이다. 이 두 조사는 만 9세-17세의 연령중복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의 주기와 프레임 역시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그동안 종합적인 삶의 질 실태를 위하여 정부의 아동과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통

합하여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로 변경하고, 조사 샘플 수를 늘려 대표성을 높이고, 조사 주기를 2년 주기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떠한지에 대해 물었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대해 7점 만점에 5.96점으로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동의도를 보였다. 이 문항은 두 가지 내용을 묻고 있는데 하나는 두 조사의 '통합'에 대한 의견, 다른 하나는 통합조사의 '주기'에 대한 의견이었다. 개방형 응답을 통해 들어온 응답들은 기본적으로 '통합'에는 동의하지만 조사의 '주기'에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 통합에 동의하는 근거는 주로 (1) 조사규모 확대를 통해 전국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 있는 조사를 시행하고, (2) 조사 프레임과 도구를 일치시키고, (3) 그동안 조사에서 배제되어 있는 특수한 욕구가 있는 정책대상들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시행하자는 것이었다. 조사 '주기'에 대한 응답은 2년 주기로 조사하자는 의견 이외에 (1) 1년 주기로 조사하자는 의견, (2) 3-4년 주기로 조사하자는 의견 등으로 나뉘었다. 1년 주기로 조사하자는 의견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매년 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3-4년 주기로 조사하자는 의견은 2년 주기가 생각보다 빨리 도래하므로 조사의 간격을 일정기간 둠으로써 조사 설계 및 실사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것이었다.

〈표 6-35〉 델파이 2차 조사의 기타 영역 주요 결과

내용	조사결과			
	평균(S.D.)	CVR	합의도	수렴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로 통합하고, 조사주기를 2년 주기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	5.96 (1.56)	0.70	0.75	0.88

〈표 6-36〉 기존 실태조사를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로 통합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

■ **두 조사의 '통합' 관련 의견**
▷ 조사통합에 매우 동의함.
▷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의 통합은 매우 중요.
▷ 조사 주체도 통합 필요.
▷ 아동, 청소년 실태조사는 대상의 중복이 발생하므로 통합하여 표본수를 확대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조사 주기를 최소화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연령대가 겹치는 문제가 있어 두 조사 간 조정은 필요함. 그러나 연령에 따른 문항의 차이가 크므로 아동조사는 12세이하, 청소년조사는 13세부터 24세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각됨.
▷ 연령대의 중복과 동일한 인구대상이면서도, 초점의 차이라는 이유로 조사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재원을 통합한 통합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집중적이면서도 조사주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행되는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아동·청소년 관련 실태를 다양한 기관에서 각각 측정하고 있음. 따라서 많은 경우 중복되는 부분도 있음. 최대한 통합된 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좋을 것임.

■ **통합조사의 '주기' 관련 의견 (1년 주기)**

▷ 매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예산상의 문제만 없다면, 2년 주기보다는 1년 주기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어렵고 급변하는 외부 환경 변화가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계속 추적, 조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임.
▷ 범부처 조사를 통합해서 단일 체계의 조사로 전환한다면, 1년 주기로 시행되는 것도 좋을 듯.

■ **통합조사의 '주기' 관련 의견 (3-4년 주기)**

▷ 2년 주기가 생각보다 빨리 도래하므로 3년 주기를 제안.
▷ 통합조사에는 동의하나 2년 주기보다 3년 주기가 적절하다고 생각됨. 조사계획, 실행, 분석, 다음 주기 조사계획의 사이클에 2년 주기는 짧다고 생각됨.
▷ 실태조사 주기는 3년 또는 4년 주기로 하되 조사규모를 확대하여 표본규모와 표본추출 방식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통합에는 동의하나 주기는 그대로 3년으로 하면 좋을 듯함.
▷ 2년 주기는 너무 짧다고 봄. 3년 주기로 조사하는 것을 건의함.
▷ 현재 학년 구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크게 구분되므로, 3년 주기 조사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2년보다는 통합하여 3년 주기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통합조사의 프레임워크 및 측정도구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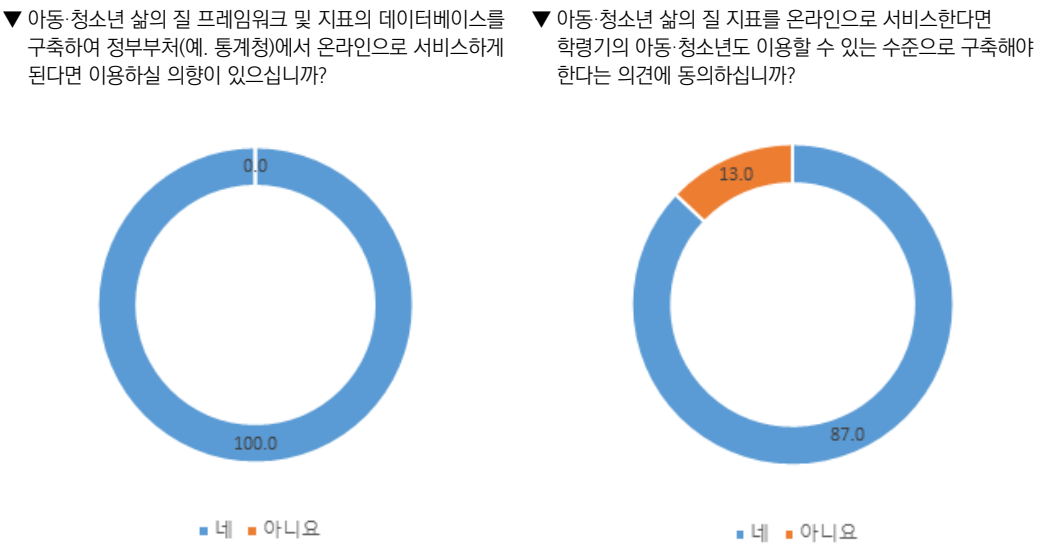
▷ 우리나라 외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아동·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초기 up단계에서 설계되기를 기대 (예. OECD Education at a glance 등과의 비교).
▷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실태조사의 문항별 연계방안과 통합분석, 전망에 관한 논의 필요.
▷ 전체적인 아동관련 설문에서 주거부분을 보완할 필요.
▷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조시되면 좋겠음.
▷ 주관적 인식을 묻는 질문 포함 필요. 예를 들면 자기 효능감을 비롯하여 관계의 긍정성, 레질리언스 등을 묻는 문항 등.
▷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내 사용되는 변수 일관적일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삶에 이미 디지털 공간은 비디지털 공간과 상응하여 중요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항목이 좀 더 개발되어 포함 필요함.
▷ 주요 지표는 OECD국가의 지표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 필요함.

■ **기타**

▷ 학생의 주관적 응답에 의존하는 지표의 경우 데이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질문 문항을 포함한 자료 수집 방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문항 구성 시 단어 선택 또한 중요함.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청소년대상 설문은 보통 학생 이란 표현이 많이 포함됨. 부모님과 라는 표현이 포함되는 질문도 많음. 학생이 아니거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도 많음. 추후 문항 구성 시 전반적인 고민 필요.
▷ 기본 조사 이 외에 부가조사 등의 방식으로 장애, 다문화 등 대상별 조사나 주제별 심화 조사 등 필요함.
▷ 조사단위를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학교 밖 청소년도 포괄 할 수 있는 표집이 되기를 바람.
▷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통합적 조사.
▷ 20대 후기청소년 조사는 아동·청소년조사 내용과 별개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함.
▷ 연령집단별 조사문항을 구분해서 설계할 필요.
▷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 실태조사 시 위기청소년에 대한 배려나 포함이 필요함.
▷ 아동, 청소년 종합실태조사가 청소년 정책대상별 모수 추청 기능을 포괄할 수 있으면 더 좋을 듯.
▷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집 필요.
▷ 원자료(Raw data)가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 필요.

3)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데이터베이스 및 이용자 포털 이용 관련 의견

마지막은 이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데이터베이스 및 이용자 포털 구축”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이다. 첫 번째 질문은 “데이터베이스 및 이용자 포털을 정부부처(예. 통계청)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게 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였고, 두 번째 질문은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게 된다면 학령기의 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축하는 것에 동의하는지”였다.



[그림 6-20] 아동·청소년 삶의 질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서비스 관련 이용 관련 의견

전문가들의 답변을 보면, 2차 조사에 참여한 54명의 전문가 100%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데이터베이스 및 이용자 포털이 구축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전문가들은 종합의견을 통해 그동안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가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왔어 종합적인 지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러한 종합적인 지표들이 ①지역별, 성별, 소득계층별 등 하위집단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고, ② 종단적인 변화 추이(종단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추이)를 관찰 가능하게 하며, ③국가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온라인 지표 서비스를 “학령기의 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 질문은 온라인 서비스를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동·청소년 친화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알아본 질문이다. 그 결과

87%의 전문가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였다. 동의하지 않은 일부는 정책가, 학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 아동·청소년용 이용자 포털은 별도로 설치하여 아동·청소년 친화적으로 구성하자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연구와 관련한 종합의견에서는 ①측정에 그치지 않고 정책변화 및 국민 인식 변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②연구자들에게 데이터 공개를 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학술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 ③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접근, 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 등이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향후 연구에서 지수화를 염두에 두고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것, 핵심지표 선정을 위한 중요성 평가를 (전문가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이용자들이 직접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표 6-37〉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연구 발전방안에 관한 종합의견

▷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주기적으로 분석, 공개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 각 부처의 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국민생활실태 분석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정책과제 형식으로 발주되어 각 부처별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조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함. 그리고 각 데이터값은 공개하고, 유관 학회 간 공동주관으로 연구적 차원에서 분석결과를 공유하여 인식 확대에 기여했으면 함.
▷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본 지표를 가능한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형태로 제공해주면, 아동복지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그리고 각 지표에 가중치를 두어 하나의 점수로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음. 비록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지표가 다르고, 지표의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지수로 통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연령대에 따라 100점만점에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점수가 있다면 지나치게 많은 표에 매몰되어 핵심 메세지 전달이 어려워지는 것 보다 간결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아동, 청소년, 청년은 디지털 네이티브이며, 데이터 이용과 코딩에 능숙한 세대임. 말씀하신대로 해당 자료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해커톤·온라인도 가능할 것임. 데이터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만든다면 당사자 중심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됨.
▷ 핵심지표 선정의 기준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할 것인지, 다수 대상의 삶의 질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겠음. 지표의 중요도 선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지만, 주요한 지표의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함께 제시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향후 지표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그때 이용자에게 중요도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옹호의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임. 한 사회가 아이를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만델라 넬슨의 말이 있음. 이 연구가 아동인권과 사회의 진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정책이나 현장에 모두 유용한 데이터 정보가 잘 구축되고 공유되기를 희망함. 발달단계에 맞춰 핵심역량이 변화하듯 지표체계도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좋겠음.
▷ 지역별,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발되기를 바람.

07

결론 및 제언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삶의 질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있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지표 체계는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지표를 통해 보여주고 관련 정책 변화를 이끌어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2019년, 2020년 두 번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은 이 연구의 필요성과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명시된 아동 삶의 질 지표 및 아동 중심 통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청년 삶 지수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2장은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1차 년도에 구축한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를 지표검토위원회, 외부 자문, 내부 연구진 논의를 통해 수정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삶의 질 프레임워크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지표체계를 정교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이를 통한 지표체계 개편은 이번 보고서에는 반영하지 않고 델파이조사 파트(6장)와 결론에만 반영하였다.

3장은 지표로 보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2020로, 지표보고서의 형태로 작성되었다.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프레임워크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삶의 중요 영역, 시간의 흐름(연령집단의 차이)에 맞게 지표체계가 구성되었고, 삶의 중요 영역은 건강, 학습·역량, 여가·활동, 안전·행동, 관계,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주관적 웰빙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장은 향후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되고,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데이터베이스 및 이용자 포털'의 서비스 페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4장은 이번 연구에서 새로 추가된 장으로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층보고서의 주제는 영유아의 영양과 건강실태(육아정책연구소), 아동·청소년 건강 실태 및 추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참여와 삶의 질(한국교육개발원), 아동·청소년 가구의 주거실태와 특징(국토연구원), 아동·청소년 시간사용 실태 및 추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등이다. 각 원고들은 주제별로 현재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상태, 변화 추이, 하위집단 간 격차 등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작성이 되었다. 작성된 원고는 외부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아 원고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5장은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아동 삶의 질 지표체계를 만들어 보고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장은 구체적인 지표 서비스의 구성과 방식에 대해 기술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6장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를 개선 및 핵심지표 선정을 위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57명의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시행하여 프레임워크의 개선과 핵심지표 선정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핵심지표 선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의 발전방향과 관계된 전문가조사의 성격으로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데이터베이스 및 이용자 포털 이용 의향,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통합 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지난 2년의 연구 동안 많은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교사의 목소리를 담아 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지표체계는 현실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많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아직 우리나라 영유아들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지, 청년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해 세밀하게 보여주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아동·청소년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지만 우리의 지표는 아직 그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결론의 나머지 파트는 이 연구와 삶의 질 지표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제2절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발전방안

이 연구는 2019년 진행된 첫 번째 연구의 종합적인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를 수정·보완하여 삶의 질 지표를 정리하고, 각 지표가 내용을 더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체계는 중장기적으로 프레임워크를 생애주기별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하여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그리고 그 이후의 연령층을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발전방안과 관련한 5가지 문제의식들을 질문형태로 나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더 간명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생애주기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생애전반기 삶의 질 지표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넷째,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다섯째, 팬데믹 상황에서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절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의 발전방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더 간명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핵심지표 선정) 이 연구는 110-120여개의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눈에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올해 과제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핵심지표(헤드라인 지표)를 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 7-1〉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델파이조사 요약 (우선순위 기준 정렬)

사회적 배경 영역					
인구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	5.86 (1.44)	88.90%	장래인구추계	0-24세	5년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	6.44 (0.88)	85.20%	인구동향조사	0-24세	1년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	5.60 (1.30)	48.10%	지역별고용조사	0-17세	1년
사회정책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6.28 (0.87)	90.7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0-24세	1년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6.26 (1.02)	75.90%	보호대상 아동현황보고	0-17세	1년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취원율	6.05 (1.00)	46.30%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교육통계	0-5세 / 3-5세	1년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의 핵심지표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아동·청소년 비율	6.39 (0.79)	92.60%	주거실태조사	0-17세	1년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	6.30 (0.92)	88.90%	가계금융복지조사	0-24세	1년
물질적 결핍지수	6.18 (0.98)	68.50%	아동종합실태조사	0-17세	5년
건강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아동·청소년 자살률	6.61 (0.61)	75.90%	사망원인통계	0-24세	1년
수면시간	6.25 (0.71)	44.40%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1-고3	1년
우울한 감정 경험	6.46 (0.65)	31.50%	아동종합실태조사	9-17세	5년
학습·역량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학교생활 만족도	6.18 (0.92)	81.5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회조사	9-24세	3년
자기효능감	6.09 (0.98)	70.40%	아동종합실태조사	9-17세	5년
학업중단율	6.02 (1.03)	57.40%	교육통계	초중고	1년
여가·활동·참여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6.16 (0.87)	72.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초4~고3	1년
여가시간 사용 정도	6.18 (0.90)	63.0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초4~고3	1년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6.14 (0.91)	46.30%	사회조사	13-29세	2년
안전·행동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	6.63 (0.61)	81.50%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0-17세	1년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	6.51 (0.65)	59.30%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초4-고3	2년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	6.23 (0.84)	48.10%	경찰통계연보	10-18세	1년
관계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가족관계 만족도	6.39 (0.77)	88.9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24세	3년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	6.33 (0.80)	75.90%	사회통합실태조사	20-29세	1년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6.02 (0.98)	38.90%	사회조사	13-24세	2년
주관적 웰빙 영역 지표	**타당도 평균 (S.D.)**	**우선순위 추천비율**	**출처**	**연령범위**	**생산주기**
전반적 삶의 만족도	6.46 (0.97)	88.90%	아동종합실태조사	0-17세	5년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6.51 (0.57)	59.3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24세	3년
긍정적 정서(행복감)	6.40 (0.79)	57.40%	아동종합실태조사	0-17세	5년

델파이조사를 통해 선별된 지표들은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간명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계기판(dashboard) 역할을 할 수 있다. 지표들이 현재의 상태, 변화의 추이, 하위집단 별 격차, 그리고 지표에 따라 국제비교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면 양질의 정보제공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32]

하지만 이러한 핵심지표체계에서 주관적 지표를 작성하는 주요 출처들의 조사 주기가 너무 길다는 한계가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삶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조사는 전국 대표성을 가진 국가승인통계로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주관적 인식, 경험, 상태를 직접 묻는 대표적인 조사이며, 이 지표 체계에서도 1/3 가량의 지표의 주요 출처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조사의 지표들이 빠르게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계기판의 일부는 3년에서 5년 가까이 멈춰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달리는 자동차의 계기판이 당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계기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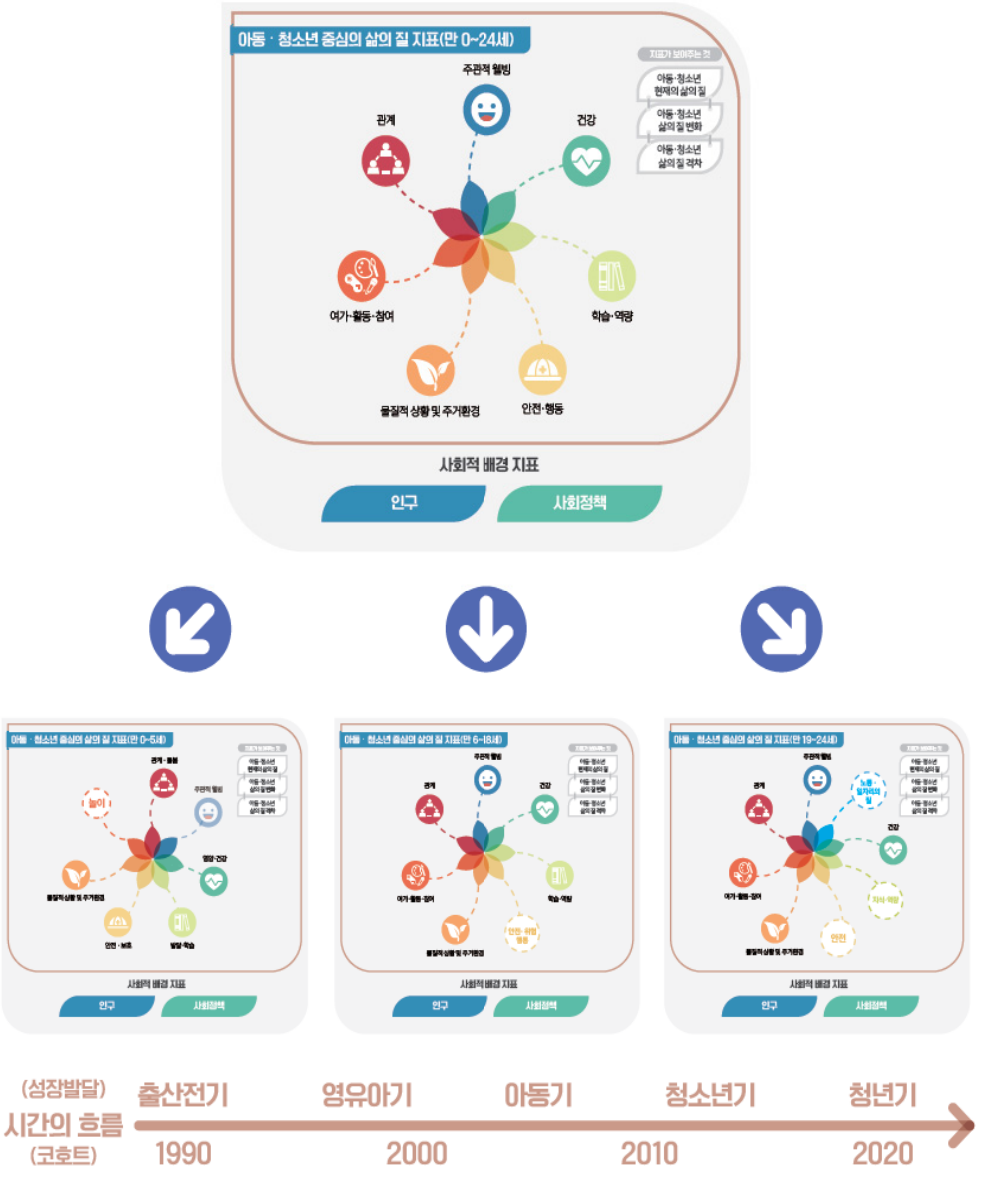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질 수준을 간명하고,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체계가 완성되어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증거기반의 정책들이 수립될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생애주기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생애전반기 및 생애주기별 삶의 질 프레임워크로의 확장) 이 연구는 만 0세부터 24세까지의 대상을 포괄하고 있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삶의 질을 측정하는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지표체계는 연령집단별 삶의 질을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이 연구의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가 0-24세의 삶의 질 프레임워크로 구축해 놓은 모델은 전체적으로는 타당하나, 영유아와 청년 같은 세부적인 연령집단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영유아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가?", "청년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32) 삶의 질 상황을 가장 간명하게 보여주는 방법은 종합지수(composite index)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공하는 개별 지표들은 종합지수를 구축하는데 좋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하지만 종합지수를 구축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가 아니므로 향후 지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될 경우 개별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있으려면 기본적인 삶의 질 프레임워크에서 연령 대상 특성에 맞는 특수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프레임워크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생애전반기 프레임워크를 아래와 같이 연령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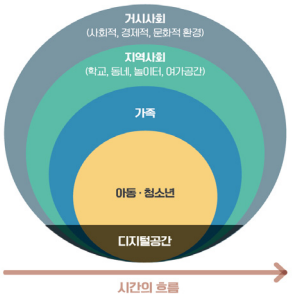


출처: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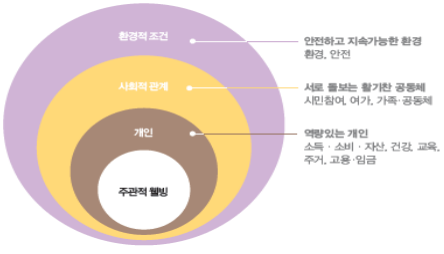
[그림 7-1]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생애전반기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해야 하며,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애전반기 동안의 보편적인 삶의 질 영역과 특수한 삶의 질 영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생애전반기 삶의 질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전생애주기(life-span)에 따른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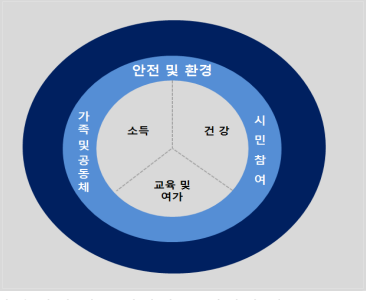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질 지표 연구는 아동·청소년기 삶의 질 연구에서부터 성인기, 노년기 연구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봉주 외, 2019; 염유식, 김경미, 2019; 이채정 외, 2019; 조병구 외, 2018; 정해식 외, 2020; 정경희 외, 2017; 심수진, 이희길, 2016). 생애주기별 연령집단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연구들은 유사하면서도 각기 다른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프레임워크와 성인과 노인의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모형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해당 연령 집단의 삶의 질을 가장 선명하면서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생애주기 안에서 연령집단별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삶의 질 연구는 생애주기별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의 보편적인 특성 안에서 생애주기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기 삶의 질 프레임워크 중 생태학적 환경(본 연구)



성인기 삶의 질 프레임워크 (통계개발원, 2021, p.11)



노년기 삶의 질 프레임워크 (정경희 외, 2017, p.82)

[그림 7-2] 생애주기별 삶의 질 프레임워크(관련 연구 예시)

〈표 7-2〉 생애주기별 삶의 질 프레임워크의 구축(안)

구분	인간의 생애주기					
	아동·청소년기		(성인 이행기)		성인기	
	출생전기와 출생기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주요 생태체계와 생활의 장 (Field)	• 어머니 • 병원 • 가정	• 가정 • 병원 • 교육기관(어린이집 및 유치원) • 사회서비스 기관(돌봄 및 교육기관) • 디지털 공간	• 가정 • 교육기관(학교, 학원) • 지역사회 • 사회서비스 기관 • 디지털 공간	• 가정 • 교육기관(학교, 학원, 훈련기관) • 직장 • 지역사회 • 사회서비스 기관 • 디지털 공간	• 가정 • 교육기관(학교, 학원, 훈련기관) • 직장 • 지역사회 • 사회서비스 기관 • 디지털 공간	• 가정 • 교육기관(학교, 학원, 훈련기관) • 직장 • 지역사회 • 사회서비스 기관(돌봄 및 요양기관) • 디지털 공간
보편적 삶의 중요 영역	건강, 안전, 학습, 역량, 물질적 상황, 주거환경, 여가, 참여, 관계, 주관적 웰빙					
보편적 삶의 영역에서 특정 연령집단에 고려해야 하는 특징적인 요소	• 안전, 보호 • 산전 검진 및 예방적 의료	• 안전, 보호 • 기능적 발달 • 돌봄 및 교육기관의 질 • 놀이	• 안전, 보호 • 학습, 역량 • 교육기관의 질 • 놀이 및 여가	• 역량, 훈련 • 주거 및 자립 • 노동시장 진입 및 일자리의 질 • 사회참여	• 가족구성 • 주거부담 • 일자리의 질 • 사회참여 • 사회보장 제도 수급	• 기능적 활동 • 요양기관의 질 • 노후보장 제도의 수급 • 사회적 고립

*출처: 저자작성

예를 들어, 앞의 도식은 생애주기별 삶의 질 프레임워크의 예시로 보편적인 삶의 중요 영역 속에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체계와 생활의 장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편적인 삶의 영역에서 특정 연령집단에 고려해야 하는 특징적인 요소는 무엇인지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완성은 인간발달에 대한 다학제적인 이론적 접근을 통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에 맞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애주기적인 삶의 질 프레임 속에서 각 연령기에 특징적으로 고려해야 할 영역과 지표를 보강하는 방향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생애전반기 삶의 질 지표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청년 종합실태조사의 통합과 연계) 앞서 지적한 것처럼 생애전반기 동안의 인간 삶의 질은 인간 삶의 보편성과 생애단계의 특수성이 결합된 복합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생애전반기 삶의 질 프레임워크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삶의 질을 측정하는 조사가 분절되어 있어 안정적인 지표생산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22년부터 청년종합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청년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나,[33][34] 기존 조사와의 연속선상에서 조사가 설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만 0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관련 실태조사는 연령의 중복 문제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와 이행기(transition period)에 대한 고려는 되고 있지 못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표 7-3〉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비교

통계명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청년 실태조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승인년도	2008	2011	미정
작성목적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 아동정책 개발에 활용, 실증적 자료에 입각한 중장기 아동정책의 비전과 목표 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사업 수립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 · 주거 · 교육 · 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

33) 「청년기본법」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청년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 연령 · 학력 · 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 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 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 · 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 · 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 · 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 · 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계명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청년 실태조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작성주기	5년 (2008년, 2013년, 2018년)	3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년 (신설)
다음조사	2023년	2023년	2022년 (예정)
대상지역	전국	전국	전국
조사대상	만 0세부터 17세 아동 및 주양육자 (개인단위)	만 9세부터 24세 청소년 및 주양육자 (개인단위)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구체적 조사방법 미정)
조사방법	면접조사	면접조사	미정
작성사항	ㅇ 가구일반사항, 사회성 및 정서, 가정환경(가정생활), 인지 및 언어생활, 학교생활, 방과 후 생활, 건강 및 안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진로 및 아르바이트, 주거, 지출, 소득	ㅇ 청소년용: 건강, 사회문화, 가정생활 및 가족관, 사회관, 학교생활 및 방과 후, 진로, 학업중단, 직업 및 직업관, 응답자 특성, 대학입학 이후 등 ㅇ 주양육자용: 양육, 생활환경, 가구 및 응답자 특성 등	ㅇ 성별 · 연령 · 학력 · 혼인상태 등 일반특성, 소득 · 지출 등 경제상태, 주거 · 소비생활 등 생활환경, 취업상태 · 근로환경 등 일자리, 교육 · 직업훈련 등 역량개발, 놀이 · 여가 등 문화환경, 건강 · 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모집단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일반가구 · 저소득층가구	만 9~24세 이하 청소년이 있는 가구	미정
표본추출	ㅇ 주민등록인구자료 0세부터만18세미만 인구수의 제곱근 비례배분 사용 ㅇ 표본조사구 추출은 층별 아동·청소년의 수를 고려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 사용	다단계층화집락추출	미정
조사규모	전국 아동 거주 가구 (4,000 가구) - 주양육자(0-8세 아동문항 대리응답, 전 연령 부모용 문항 직접응답) - 아동(9~18세 미만은 직접응답)	전국 청소년 거주 가구 (5,000 가구) - 주양육자(부모용 문항 지접응답) - 청소년(직접응답, 만9세~24세 가구 내 청소년 전원 응답으로 7,500명 조사)	미정

*출처: 유민상 외(2019, p.387)의 표를 수정·보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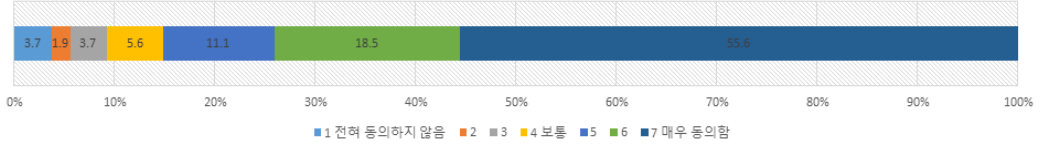


출처: 저자작성

[그림 7-3]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연령범위

이와 같은 조사의 유사성, 연령범위의 중복성은 조사의 통합과 연계의 필요성을 높인다.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같이 연령 중복 범위가 큰 실태조사의 경우 두 조사를 통합하고, 청년실태조사의 경우 성인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므로 공통의 조사 프레임워크와 핵심지표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연계되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관련 실태조사의 개편 방안으로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의 통합을 제시한다. 2008년 처음 시행된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같이 연령 통합적인 방식으로 2년 주기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부처의 사무중심으로 정보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연구의 전문가조사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54명에게 기존의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로 통합하고, 조사주기를 2년 주기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어본 결과 7점 만점에 5.96점으로 매우 높은 동의도를 보였다. 7점 척도에서 4점을 보통이라고 할 때, 동의함(5점, 6점, 7점)으로 응답한 사람이 85.2% 정도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조사를 통합하여 샘플 규모를 키워 전국 지역별 대표성과 하위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를 변경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아동이나 청소년 중심의 조사가 아닌 부처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실태조사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7-4]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통합 및 조사주기 2년 변경에 대한 의견

4.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실재하지만 측정되지 않았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측정하고, 공론화하고, 정책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삶의 질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하나는 아동·청소년 삶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지표를 통한 아동·청소년 정책의 삶의 질 변화 성과 평가이다.

(지표를 통한 아동·청소년 삶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우리 사회에서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의 삶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질 때는 그들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이다. 역설적이게도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관심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은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죽거나 다칠 때에만 이루어진다. 우리는 여전히 '아동·청소년 정책은 아이들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는 말이 통용되는 잔인한 사회에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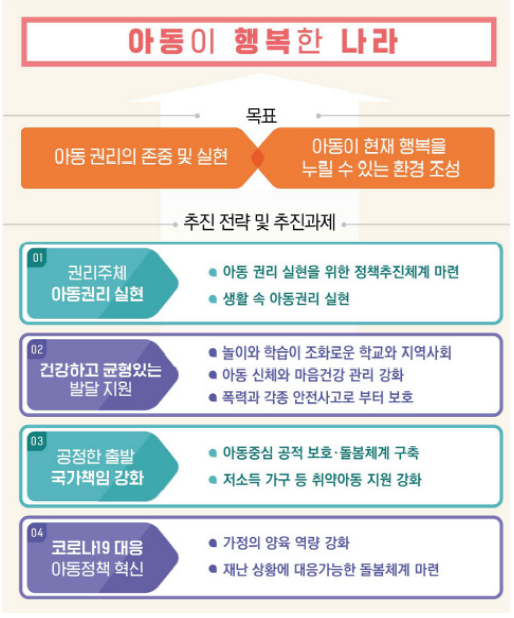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삶은 대부분 측정되지 않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삶 마치 그들의 삶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측정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변화시킬 수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아동·청소년의 삶을 지표를 통해 보여주고, 숫자 속에 담긴 아동·청소년의 삶의 현실을 우리 사회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비극적인 사건사고가 일어나야만 아동·청소년의 삶에 관심을 갖는 구조적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삶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삶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현재, 변화, 격차를 파악하여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경보를 울리는 기능을 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이 지나치게 여러 문제에 사후적이고 잔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표 모니터링은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아동·청소년 권리 옹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Ben-arieh, 2008).

(지표를 통한 아동·청소년 정책의 삶의 질 변화 성과 평가) 지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 계획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은 모두 대상자의 삶의 질과 행복도 증진을 최상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의 비전은 '행복한 아동, 존중 받는 아동'이었고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아동

이 행복한 나라'로 설정되어 아동의 행복을 핵심적인 비전으로 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 2020).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4~2018)의 비전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였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로 설정되어 현재의 행복과 미래로의 성장을 핵심적인 비전으로 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4, 2018).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로 자아 실현적 비전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계획은 대상 중심적이라기보다는 부처 중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들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경로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정책들이 최상위 목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실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지표를 통한 성과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연구 역시 단지 측정과 발표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표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아동·청소년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지 삶의 질과 행복이 하나의 상징이 아닌 실제로 변화시켜야 할 정책 목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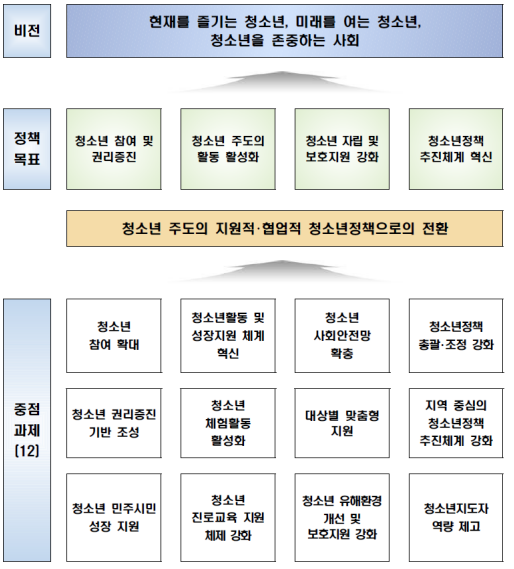


성과지표		현재('19)	목표치('24)	통계생산	비고
총괄	삶의 만족도*	OECD 28개국 최하위 (6.57점 '18)	OECD 최하위 탈피 (7.0점 이상)	복지부 (5년)	아동종합실태조사
	'19년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	90%이상 *불수용 분야 제외한 수치	복지부 (5년)	UN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권리	우리 사회가 아동 청소년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77.1% ('19)	80.0%	여가부 (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77.3% ('19)	80.0%	여가부 (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발달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비율*	76.5% ('19)	80.0%	여가부 (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13~19세)	43.3% ('19)	47.0%	통계청 (2년)	사회조사
	주관적 건강수준	70% ('19)	73%	교육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영유아 건강검진율	74.5% ('18)	82%	건강보험 공단 (1년)	건강검진통계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1명('16) * OECD 21위	0.6명 * OECD 7위	OECD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행안부)
	아동·청소년 전반적인 폭력 피해율	8.5% ('18)	8.0%	여가부 (2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재학대판정률	10.3% ('18)	7.7%	복지부 (1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
보호	공적 아동보호체계 완비 (아동학대 전담인력 배치 목표대비 완료율)	-	100%	복지부 (1년)	복지부 자체생산
	가정위탁 보호율	23.9% ('18)	37%	복지부 (1년)	복지부 자체생산
	공공보육 이용률	28.4% ('19)	40% ('21) *이후 목표치 재설정	복지부	복지부 자체생산
	아동결핍지수 *전체 평균 지수는 1.58점	4.50점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18)	4.00점	복지부 (5년)	아동종합실태조사

※ : 삶의 만족도 등 4개 지표는 핵심 지표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 ('20~'24). pp.14~15.

[그림 7-5]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및 성과지표



영역	주요 지표명	현재 ('14~'17)	목표 ('22)	출처	설정근거	측정산식
최상위 지표	삶의 만족도	6.3점	6.9점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OECD 국가 평균 (6.9)	15~29세 대상, 10점 만점에 해당 국가 응답 점수, 34개 OECD 국가 중 한국 27위
	주관적 행복감	80점	100점	방정환연단-연세대학교(2016)	OECD 국가 평균 (100점)	100점을 OECD 국가 평균으로 했을 때 한국 점수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참여 보장 수준	60.7%	65.0%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2017)	'17년 조사결과 및 최근 추이 반영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대상, 청소년 권한 존재에 대하여 참여를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청소년 인권 준수 정도	77.3%	80.0%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2017)	'17년 조사결과 및 최근 추이 반영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대상,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청소년 인권교육 경험률	66.6%	75.0%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2017)	'17년 조사결과 및 최근 추이 반영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대상, 인권교육을 1회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단체활동 참여율	31.9%	37.0%	통계청 사회조사(2015)	연평균 증가율 3% 적용	13세에서 19세 대상, 청소년단체활동 참여비율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건수	4,159	4,221	여성가족부 통계	연평균 증가율 0.3% 적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조사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학교밖청소년 자립 인원	16,000명	21,000명	여성가족부 맞춤형 정보망 산출 자료	현재 인원대비 매년 1.5%씩 증가 설정	학교 밖 청소년을 학업특성(초·중·고, 복학+검정고시합격+대학입학) 인원과 사회진입(취업준비+취업) 인원 합계
	니트(NEET) 비율	18%	15%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OECD 국가 평균 (15%)	15~29세 대상, 학교도 직장도 가지 않고 준비도 않지 않는 인구/ 해당 전체 인구
	아동·청소년빈곤율	7.1%	5%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OECD 평균(13.4%) 보다 낮은 수준으로 -2%p 설정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인구수/ 18세 미만 전체 인구수
	스마트폰 과의존율	30.3%	2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과기부)	'17년 조사결과 및 최근 추이 반영	10~19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비율
	아르바이트 부당피우 경험률	19.6%	15%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16년 조사결과 및 향후 경향 반영	중1~고3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중 부당피우 경험 비율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18~'22). p.15, p.17.

[그림 7-6]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성과지표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pp.7~8.

[그림 7-7]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성과지표

5. 팬데믹 상황에서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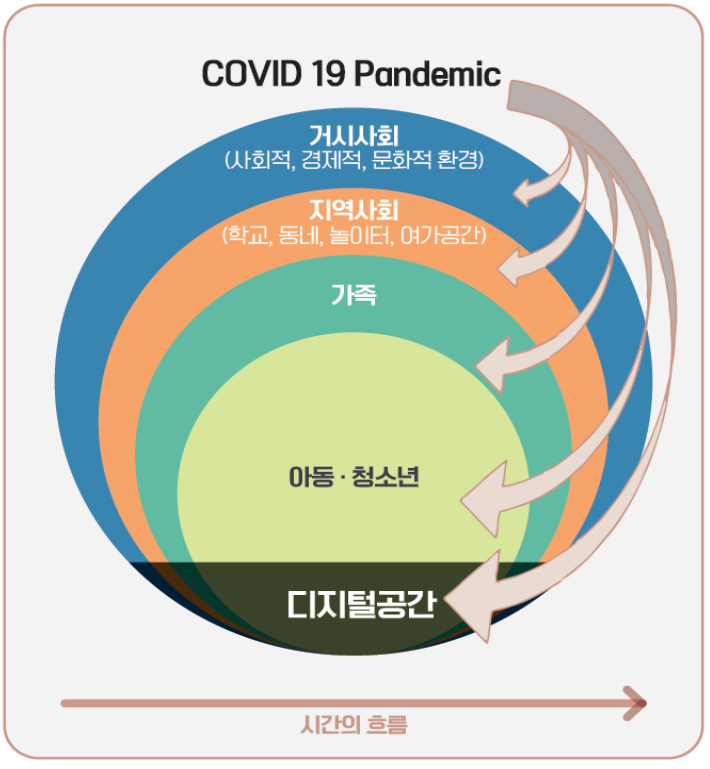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측정 및 모니터링) 이 연구는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수행이 되었으나, 주로 활용한 지표들은 2019년까지의 통계자료들인 한계가 있다. 우리의 지표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팬데믹 상황에서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측정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앞으로 삶의 질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D. Richardson, A. Carraro, V. Cebotari, A. Gromada and G. Rees, 2020). 특히 지역사회 봉쇄(lockdown)가 현재의 아동·청소년청년들에게 미칠 단기적/중장기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이러한 영향이 한 세대에 오래도록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소위 락다운 세대(lockdown generation)의 발생과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이다(Green, F., 2020; Major, L. E., Eyles, A., & Machin, S., 2020).



[그림 7-8]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아동·청소년의 삶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응답 Word Cloud 구성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격차와 소득계층 격차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 연구의 델파이조사 결과에서 1차 연구에 참여한 57명의 전문가 모두는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우리사회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재난에 대한 대응은 가정의 재정적 상황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코로나19의 회복 경로도 가정의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림 7-9]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 삶의 질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개념도

이와 같은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정부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증거기반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진은 지난 1차 연구의 결론을 통해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다섯 가지를 기술하였다. 그것은 첫째, 프레임워크에 따른 핵심 지표 선정의 한계, 둘째, 현재의 아동·청소년의 삶을 반영하는 영역 및 지표의 한계, 셋째, 대상 포괄성의 한계, 넷째, 국제비교, 국내 지역 간 비교의 한계, 다섯째, 시계열 비교의 한계 등이다(유민상 외, 2019, p.393).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프레임워크에 따른 핵심 지표 선정, 아동·청소년의 삶을 반영하는 영역 및 지표의 수정·보완, 시계열 비교 가능한 지표 정보 취합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상 포괄성, 국가 간(between countries) 비교 가능성, 국가 내(within county) 비교 가능성의 한계 등은 크게 개선하지 못하였다. 이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 중에서 국가 간 비교와 국가 내 비교를 나누어 기술하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디지털 환경에 대한 포괄성)를 포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대상 포괄성의 한계, 즉 다양한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지표의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표방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의 한계들로 인하여 다양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의 삶의 모습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연구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 혹은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청소년들을 포괄하여 하위 집단 간 격차를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대상(예: LGBT)뿐만 아니라 기존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교하게 측정하지 못하여 격차를 포착하지 못했던 대상들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예: 소득집단).[35] 전자는 본 지표체계가 활용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의 조사 방식의 변경을 통해, 후자는 가구소득과 소득계층을 측정하는 지표의 정교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 내(within county) 지역 비교의 한계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국가승인통계들 중

35) 이외에도 장애 아동·청소년, 가정 밖 아동·청소년, 새터민 아동·청소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조사통계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조사의 주기뿐만 아니라 샘플의 수도 크지 않은 편이며, 전국 대표성만 확보할 뿐 17개 광역시도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역 비교가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별로 활용 가능한 행정통계 역시 부족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각 지역에서 좋은 환경을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영국, 아이슬란드의 아동 삶의 질 지표 사례는 모두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게 설계가 되었으며(Department of Children, Equality, Disability, Integration and Youth, 2020;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2019), 특히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리옹호 활동을 펼치는 Kids Count는 미국 내 주(state) 아동 삶의 질 비교뿐만 아니라, 일부 주 내의 카운티(county) 단위까지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AECF, 2018). 우리나라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삶의 질 지표 연구, 국회미래연구원의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등이 아동과 성인의 삶의 질 지역비교를 시도하고 있으나(이봉주 외, 2019; 이채정, 박기태, 구교준, 이희철, 송은주, 김지원, 박차늠, 2019; 민보경, 변미리, 임성호, 하민지, 2020), 아직 공공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역 간 비교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내 지역의 아동·청소년 삶의 지표를 보고하는 것은 지역 간 격차 수준을 보여주고 중앙과 지자체의 정책을 통해 지역 간 격차(gap)와 불평등(inequality)을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도 광역시도별 비교, 더 나아가서 기초지자체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간 비교(between countries)의 한계이다. 지금까지 OECD(2015, 2021)와 UNICEF(2020)에서 발간된 아동·청소년 삶의 질 비교 보고서들은 한국의 사례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된 지표들이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인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5-19세, 15-29세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을 질을 나타내는 중요지표인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율은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제 선진국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WHO의 HBSC(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의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으나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지표들이 없어 비교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수준을 국제적 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비교 가능한 지표의 생산이 중요하므로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실태조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문항을 설계하고 지표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새로운 환경, 특히 디지털 환경에 대한 포괄성의 한계이다. 우리는 1차 연구의 면담조사를 통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이 다른 사람 혹은 가상의 무엇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삶의 질과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프레임워크 구축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에 디지털 공간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연구에 반영하였지만 정작 이를 나타내는 지표를 지표

체계 안에 투입하지 못하였다. 이는 단지 지표 생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삶의 질(digital well-being)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부족한 것에도 기인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지표 생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제1장] 서론

관계부처 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p.47.

국가인권위원회 (2019). **제5,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 p.2.

유민상, 이희길, 유성렬, 류정희, 도남희, 구자연, 김혜자, 김대훈, 최창용, 정지은, 정희선, 이용해, 배진우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35-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76.

OECD (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ICEF (2020). *Worlds of influence: Understanding what shapes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No. inreca1140).

[제2장] 한국 아동 · 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

유민상, 이희길, 유성렬, 류정희, 도남희, 구자연, 김혜자, 김대훈, 최창용, 정지은, 정희선, 이용해, 배진우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35-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희길, 도남희, 유민상, 정지은 (2018).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대전: 통계개발원.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2019). *America's Children: Key National Indicators of Well-being.*

UNICEF (2020). *Worlds of influence: Understanding what shapes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No. inreca1140).

The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CIHI) and the Office of the Provincial Health Officer (PHO) for British Columbia(2013. Child and Youth Health and Well-being Indicators Project.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about-bc-s-health-care-system/office-of-the-provincial-health-officer/reports-publications/special-reports/child-health-2013.pdf.

[제3장] 지표로 보는 한국 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2020 [36]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각 연도. KOSIS, kosis.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kosis.kr.
교육부 (2020). **「2019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진로교육현황조사」**. KOSIS, kosis.kr.
교육부 (2020.07.23).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초중고생 신체발달 상황, 건강생활 실천정도, 질환 등 건강문제 분석-.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https://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각 연도. KOSIS, kosis.kr.
국토교통부 (2020). **「지적통계」.** KOSIS, kosis.kr.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각 연도. http://taas.koroad.or.kr.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각 연도. 방송통계포털, https://www.mediastat.or.kr.
보건복지부 (2008). **「200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kosis.kr.
보건복지부 (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KOSIS, kosis.kr.
보건복지부 (2013).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kosis.kr.
보건복지부 (2016).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 KOSIS, kosis.kr.
보건복지부 (2018).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KOSIS, kosis.kr.
보건복지부 (2019a).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KOSIS, kosis.kr.

36) 3절은 지표보고서 파트로 110개 이상의 지표들의 출처가 해당 지표의 표나 그래프 아래에 명시되어 있음. 여기서는 간명한 출처정리를 위하여 (1)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일 경우 '원출처'와 '데이터베이스 정보'만 제공하고, (2) 문헌일 경우에만 전체 정보를 제공하였음.

보건복지부 (2019b). 2019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 **2019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각 연도. KOSIS, kosis.kr.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KOSIS, kosis.kr.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각 연도. KOSIS, kosis.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각 연도. KOSIS, kosis.kr.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각 연도. KOSIS, kosis.kr.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KOSIS, kosis.kr.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KOSIS, kosis.kr.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각 연도. KOSIS, kosis.kr.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s://knhanes.cdc.go.kr.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kosis.kr.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kosis.kr.
장근영, 성은모, 모상현,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Ⅴ : IEA ICCS 20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6년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질병관리본부(2019.07.24.). 「2018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보도자료.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364560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질병관리본부(2019). **「2018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KOSIS, kosis.kr.
초·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에서 2020년 10월 21일 인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RAS 분석.
통계청. **「보육통계」.**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KOSIS, kosis.kr.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KOSIS, kosis.kr.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KOSIS, kosis.kr.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KOSIS, kosis.kr.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 kosis.kr.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각 연도. KOSIS, kosis.kr.

통계청, 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301&conn_path=I3 에서 2020년 8월 26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kosis.kr.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KOSIS, kosis.kr.

행정안전부. **「놀이시설통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https://www.cpf.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각 연도.

환경부 (2020). **「대기환경연보」.**

OECD (2019a).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OECD (2019b). Provid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OECD (2019c).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Publishing.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http://www.oecd.org/els/family/child-well-being/data.

OECD. OECD Stat, https://stats.oecd.org.

UNICEF (2013). Child Well-being in Advanced Economies in the Late 2000s. http://www.unicef-irc.org/publications/pdf/iwp_2013_1.pdf에서 2019년 11월15일 인출.

[제4장] 한국 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심층보고서 37)

제1절 영유아의 영양과 건강실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24&vw_cd=MT_ZTITLE&list_id=350_35007_A00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보건복지부. **「전국예방접종률현황」.**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93N_171&vw_cd=MT_ZTITLE&list_id=D1_A01_A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0년 9월 6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5). **2015년 건강검진사업안내.**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2015).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2018).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 및 활용연구**.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KOSIS, kosis.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양소별 섭취량, https://www.khidi.or.kr/에서 2020년 11월 20일 인출.

Laura E. Berk (2015). *Child Development*(9th Edition). 이종숙, 신은수, 안선희, 이경옥(역). 아동발달. 서울: 시그마프레스.

제2절 아동·청소년 건강 실태 및 추이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종, 유민상, 이봉주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9). **2019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37) 이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는 2가지 방식으로 인용이 표기되었다. 하나는 KOSIS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사를 발주한 부처를 중심으로 기재한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용역을 수행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기재한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종, 유민상, 이봉주(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하는 경우는 KOSIS의 기준을 따랐고, 보고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후자의 기준을 따라 인용하였다.

제3절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참여와 삶의 질

교육부 보도자료 (2020.3.9.).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김동일·김영식·김경선 (2011). 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경험이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4), 293-314.

임소현·박병영·황준성·백승주·유경훈·허은정 (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연구보고 RR 2019-27.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임천순·우명숙·채재은 (2008). 사교육 수요 분석: 학습보충론과 미래투자론. **교육재정경제연구. 17**(2), pp.1-2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유저가이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OECD (2017). *Korea Country Note – Results from PISA 2015 Students' Well-Being.* https://www.oecd.org/pisa/PISA2015-Students-Well-being-Country-note-Korea.pdf 에서 2020년 11월 17일 인출.

제4절 아동·청소년 가구의 주거실태와 특징

관계부처 합동 (2019).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임세희 (2019). 주거빈곤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71**(4). 7-30.

임세희·김희주 (2019).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 지원 후 삶의 질 변화. **한국사회정책. 26**(3). 287-319.

임세희·송아영 (2020).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해외 동향: 최저주거기준과 연계된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13**. 116-125.

최은영 (2019).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의 실태와 정책 제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주거권 정책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최은영·김순주·김민수 (2013). 아동 주거빈곤의 현황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179**. 29-3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http://www.oecd.org/els/family/child-well-being/data/에서 2020년 10월 31일 인출.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20년 10월 31일 인출.

OECD Family Database (2020). SF1.2: Children in Families. http://www.oecd.org/els/soc/SF_1_2_Children_in_families.pdf에서 2020년 10월 31일 인출.

제5절 아동·청소년 시간사용 실태 및 추이

김정은 (2019).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0(3), 1053-1065.

박현선 (2019). **우리 아이들 행복한가요? 권리로 보는 아동의 삶.** 제 5회 아동학대예방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RC/C/KOR/CO/5-6.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최창용, 이주연, 고은혜 (2015).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이수진, 정익중 (2020).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행복 간의 관계: 빈곤과 비빈곤 청소년의 비교. **학교사회복지, 49,** 175-200.

정익중, 박현선, 최은영, 이수진, 정수정, 최선영, 김기태 (201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지표 개발 연구보고서: 아동균형 생활시간 권장기준 활용 및 분석**.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통계청 (2010.3.30). 2009년 생활실태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통계청 (2015.6.29). 2014년 생활실태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통계청 (2020.7.30). 2019년 생활실태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Larson, R. W., & Verma, S. (1999). How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across the world: work, play, and developmental opportunities. *Psychological bulletin, 125*(6), 701.

Lee, B. J., & Yoo, M. S. (2017). What accounts for the variations i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A decomposition method stud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80*, 15-21.

Rees, G. (2017). Children's activities and time use: Variations between and within 16 countr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80*, 78-87.

Sauerwein, M. N., & Rees, G. (2020). How children spend their out-of-school time - A comparative view across 14 countr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2*.

Shanahan, M. J., & Flaherty, B. P. (2001). Dynamic patterns of time use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385-401.

제5장 한국 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서비스 방안

국가지표체계 국민삶의질지표. http://www.index.go.kr/unify/main.do에서 2021년 1월 19일 인출.

국가지표체계 국민 삶의 질 지표 고용율.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2에서 2021년 1월 19일 인출.

유민상, 류정희, 도남희, 김혜자, 이희길, 유성렬, 김대훈, 최창용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main.do에서 2021년 1월 19일 인출.

e-나라지표 산업재해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4&param=011에서 2021년 1월 19일 인출.

OECD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에서 2021년 1월 18일 인출.

OECD DATA. https://data.oecd.org에서 2021년 1월 18일 인출.

OECD STATS. https://stats.oecd.org에서 2021년 1월 18일 인출.

KOSIS 국가통계포털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에서 2021년 1월 27일 인출.

제6장 프레임워크 타당화 및 핵심지표 선정을 위한 델파이조사 결과

유민상, 이희길, 유성렬, 류정희, 도남희, 구자연, 김혜자, 김대훈, 최창용, 정지은, 정희선, 이용해, 배진우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35-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봉주 (2016). **아동웅호를 위한 지표와 지수의 의미와 역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11차 아동복지 포럼 발표문.

Ayre, C., & Scally, A. J. (2014). Critical values for Lawshe's content validity ratio: revisiting the original methods of calcula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7*(1): 79-86.

Hanafin, S., Brooks, A. M., Carroll, E., Fitzgerald, E., GaBhainn, S. N., & Sixsmith, J. (2007). Achieving consensus in developing a national set of child well-being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0*(1), 79-104.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Moore, & Theokas (2008). Conceptualizing a Monitoring System for Indicators in Middle Childhood. *Child Indicators Research. 1*(2). 109-128.

OECD (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23089679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23089679

제7장 결론 및 제언

관계부처 합동 (2013).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_____ (2015).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_____ (2018).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_____ (2020).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_____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민보경, 변미리, 임성호, 하민지 (2020).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염유식, 김경미 (2019).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유민상, 이희길, 유성렬, 류정희, 도남희, 구자연, 김혜자, 김대훈, 최창용, 정지은, 정희선, 이용해, 배진우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35-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박호준, 오수미, 김윤지, 차은호 (2019).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Ⅳ.**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이채정, 박기태, 구교준, 이희철, 송은주, 김지원, 박차늠 (2019). **한국인의 행복연구**.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19-05.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심수진, 이희길 (2016). 삶의 질 측정: 국제동향과 통계청의 대응. **조사연구 17**(2). 185-205. DOI

http://dx.doi.org/10.20997/SR.17.2.7

정경희, 오영희, 황남희, 오미애, 이선희, 김정석 (2017).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김성아, 고혜진, 여유진, 권지성, 정선욱, 김지원, 이정윤, 전영섭, 권석만, 김석호, 박윤주, 신혜란, 이봉주, 채수홍, 홍석철, 구서정, 이수진, Cassandra Gutierrez, 유승우, 손민지 (2020).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Ⅱ.**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병구, 박명호, 김석호, 이경희 (2018).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13-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AECF (2018). *2018 Kids Count Data Book: State Trends in Child Well-being.* https://assets.aecf.org/m/resourcedoc/aecf-2018kidscountdatabook-2018.pdf.

Ben-Arieh, A. (2008). The child indicators movement: Past, present, and future. Child Indicators Research, 1(1), 3-16.

Department of Children, Equality, Disability, Integration and Youth (2020). *The State of the Nation's Children (SONC).* https://www.gov.ie/en/campaigns/1f703-state-of-the-nations-children에서 2021년 1월 18일 인출.

D. Richardson, A. Carraro, V. Cebotari, A. Gromada and G. Rees (2020). *Supporting Families and Children Beyond COVID-19: Social protection in high-income countries.* Florence: UNICEF Office of Research – Innocenti.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2019). *America's Children: Key National Indicators of Well-being.*

Green, F. (2020). *Schoolwork in lockdown: new evidence on the epidemic of educational poverty.* Centre for Learning and Life Chances in Knowledge Economies and Societies (LLAKES), Research Paper, 67.

Major, L. E., Eyles, A., & Machin, S. (2020). *Generation COVID: Emerging work and education inequalities.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부록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델파이 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본 전문가 델파이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9년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와 협동으로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삶의 질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120개 지표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한 눈에 쉽게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key indicator)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분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두 차례 이상 진행될 예정이며, 1차 델파이 조사는 2월 1일(월) 정오(12:00)까지 완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응답내용은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 연구진: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성렬(백석대학교), 심수진(통계청 통계개발원), 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자(한국교육개발원), 도남희(육아정책연구소), 구자연(육아정책연구소), 박진아(육아정책연구소), 김대훈(스탯코리아), 최창용(위스컨신대학교)

○ 연구문의: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44-415-2194 / ✉ e-mail: msyoo@nypi.re.kr)
○ 조사문의:김주원 연구원 글로벌 리서치 (☎ 02-3456-1734 / ✉ e-mail: jwkim@globalri.co.kr)

▣ 이번 조사는 총 두 차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 경우 총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차 조사부터 본인의 응답 결과와 더불어 전체 응답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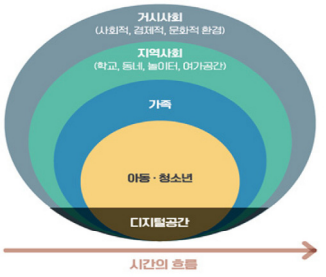
▣ 설문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설문조사 수당(1차 5만원, 2차 5만원)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 본 조사 페이지는 크롬에 최적화 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크롬으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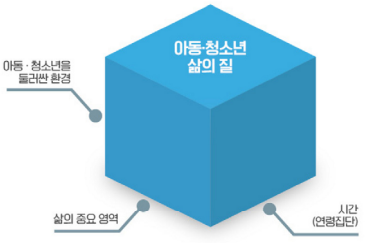
B.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개요]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 의해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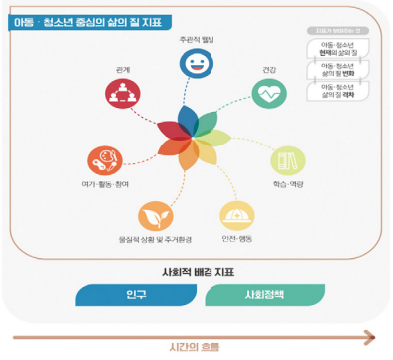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아동·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거시사회, 그리고 디지털 공간과 같은 생태체계적 환경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생애전반기의 아동·청소년들(0-24세)이 생태체계적 환경 속에서, 삶의 중요한 영역들(건강, 학습, 안전, 물질적 상황, 여가, 참여, 관계, 주관적 웰빙 등)의 결핍 없이 사회·문화·경제적 기준에서 적절한 상황에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발달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ROG. B1~B4-1프레임워크 이미지 상단 고정]



전체 지표 프레임워크는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와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 지표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는 주관적 웰빙, 건강, 학습·역량, 안전·행동,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여가·활동·참여, 관계 등의 7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별 지표들의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현재 상태, 시간적 변화, 하위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만 0세부터 24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구성하는데 있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3————4————5————6————7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보통 매우 타당함

1-1. **[RROG. B1=1~4응답자만]** 프레임워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의 삶의 질을 고려할 때, 현재의 프레임워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3————4————5————6————7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보통 매우 타당함

2-1.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의 삶의 질을 고려할 때 추가되거나 수정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3. 만 **6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고려할 때, 현재의 프레임워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3————4————5————6————7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보통 매우 타당함

3-1. 만 **6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고려할 때 추가되거나 수정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4.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후기청소년(청년)의 삶의 질을 고려할 때, 현재의 프레임워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3————4————5————6————7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보통 매우 타당함

4-1.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후기청소년(청년)의 삶의 질을 고려할 때 추가되거나 수정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C.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

[RROG. 페이지 구분, 5초 지연 후 다음 버튼 생성]

다음은 아동청소년 삶의 질 핵심지표를 선정하고자 준비한 질문입니다. 이 연구는 2019년 제1차 연구를 통하여 120여개의 삶의 질 지표 목록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 지표체계를 직관적이고 간명한 핵심지표체계와 다양한 지표들을 포괄하는 확장지표체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핵심지표는 전체 120여개 지표 중 20-30여개 지표를 선별하여 한 눈에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현황, 변화, 하위집단 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핵심지표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Moore and Theokas, 2008; OECD, 2009; 이봉주, 2016).

- 가구가 아닌 아동이 분석단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표들은 표준화된 데이터 취합 과정에서 도출되어야 함
- 지표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지향적인 지표가 되어야 함
- 성과(outcome)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지표는 이해하기 쉬워야 함
- 가능한 최신자료를 활용해야 함
- 국내 집단별 비교 및 국가비교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람직함
- 긍정지표와 부정지표를 함께 사용해야 함
- 현재 좋은 삶을 사는 것과 미래 긍정적 성장을 모두 반영해야 함

<참고자료>

Moore and Theokas(2008). Conceptualizing a Monitoring System for Indicators in Middle Childhood. Child Indicators Research1(2). 109-128.

OECD(2009). Comparative child well-being across the OECD, in Doing Better for Children. Paris: OECD.

이봉주(2016). 아동옹호를 위한 지표와 지수의 의미와 역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보고서.

CA. 사회적 배경 지표

다음은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 지표의 리스트입니다. 각 세부 지표가 핵심지표로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로 타당한지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인구지표

[PROG. '표'로 제시]

지표명	지표설명	출처	타당도 평가
1-1. 아동 · 청소년 인구 추계	0-24세 추계 인구의 전체 추계인구 대비 비율	장래인구추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1-2. 출생아수와 출생성비	출생신고 자료로 집계된 당해 연도 출생아 수와 출생아의 성비. 출생성비는 여아 출생아 100명 당 남아 출생아 수	인구동향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1-3. 혼인외 출생아 비율	당해 연도 출생아 중 혼인 외(미혼모) 출생아의 비율	인구동향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1-4. 모의 출산연령	당해 연도 출산 여성의 평균연령	인구동향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1-5. 미성년자녀부모 이혼 비율	당해 연도의 전체 이혼부부 중 미성년자녀(0-19세)를 둔 이혼부부의 비율	인구동향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1-6. 아동 · 청소년 10만명당 사망자 수	0-24세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인구동향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1-7.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가구의 비율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e-나라지표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 사회정책지표

[PROG. '표'로 제시]

지표명	지표설명	출처	타당도 평가
2-1.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비율	0~84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은 아동 수	보육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2. 누리과정 지원율 및 예산	만 3-5세 취원대상아 중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비율	e-나라지표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3. 보육료 지원 아동비율	만 0~5세 전체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	보육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4.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취원율	(어린이집 이용률) 만0-5세 전체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 (유치원 취원율) 만 3-5세 아동 중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교육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5. 아동 · 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전체 아동 · 청소년(만 0세~24세)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5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아동 · 청소년의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6. 아동 · 청소년 10만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사수	0~18세 아동 10만 명 당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의 비율	건강보험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7.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교사 수 대비 학생 수	교육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8.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만 0-17세 아동인구 10만 명 중 당해 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9. 시설 · 가정위탁 보호아동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수	보건복지통계연보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지표명	지표설명	출처	타당도 평가
2-10. 아동 입양률	국내외 입양된 아동의 비율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11. 장애 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특수교육대상자수 대비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특수교육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12. 유치원 교직원 1인당 아동수	유치원 아동 수 대비 교직원수	교육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13.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전체 어린이집 중 설립주체가 국공립인 어린이집 수	교육기본통계 (보육시설:어린이집및 이용자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14. 면적당 학교수	시도별 면적(1km2)당 학교 수	교육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15. 대안학교 비율	전체 학교 수 대비 대안학교 비율	교육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1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18세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	전국지역아동센터통계조사보고서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3) 추천지표

이 밖에 아동 ·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추천해주시고자 하는 지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CB.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의 핵심지표 선정

다음은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 세부 지표 리스트입니다. 각 세부 지표가 핵심지표로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적합한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물질적 수준 및 주거환경 영역: 지표의 타당성 및 핵심지표

물질적 수준 및 주거 환경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물질적인 재화를 누리고(material well-being),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영역입니다. 다음의 지표들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물질적 수준 및 주거환경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ROG. '표'로 제시]

지표명	지표설명	출처	타당도 평가
1-1. 물질적 결핍지수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적어도 2개 이상의 항목에 결핍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1-2. 아동 · 청소년의 가정경제 어려움에 대한 걱정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에 대한 응답에 대한 비율과 4점 평균 점수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1-3. 아동 · 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아동 · 청소년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가계금융복지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1-4. 아동 · 청소년의 빈곤갭	빈곤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과의 격차를 나타내는 비율.	가계금융복지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1-5. 거주지역 만족도	사는 동네에 대한 만족도를 11점 척도로 측정한 값의 평균값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1-6. 거주지역 편의성	지역사회에서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의료기관, 교육시설, 대중교통이 도보로 10분 이내, 자연환경이 도보로 20분 이내에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아동 · 청소년 비율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	주거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1-8. 학생 전출입비	학교급별 전출 대비 전입 학생 수	교육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1-9. 어린이놀이시설 수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놀이시설 수	놀이시설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1-10.미세먼지농도(PM2.5)	주요 7개 도시의 연평균 미세먼지(PM2.5)의 농도를 추계인구로 가중한 평균값	환경부, 사회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1-11) 추천지표

이 밖에 아동·청소년의 물질적 환경 및 주거환경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추천해주시고자 하는 지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

건강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태아 시기에서부터 출산, 양육까지 안전하고 예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영역입니다. 다음의 지표들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ROG. '표'로 제시]

지표명	지표설명	출처	타당도 평가
2-1. 스트레스 정도와 원인	6가지 스트레스 원인별로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으로 4점 척도로 측정한 값의 평균값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2. 우울한 감정 경험	우울한 감정 경험은 K-CBCL의 우울 및 불안 영역의 13문항을 합산한 총점의 평균값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3. 주양육자의 우울 정도	아동의 주양육자가 지난 1주일간 느낀 우울감의 정도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4.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 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5. 아동·청소년 자살률	0-24세 아동 및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	사망원인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6. 조산아율	전체 출생아 중 임신(재태) 주수 37주 미만에 출생한 출생아의 비율	인구동향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7. 저체중 출생아율	전체 출생아 중 출생체중 2.5kg 미만 출생아의 비율	인구동향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8. 장애아동·청소년 유형별 비율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유형 및 기준에 부합하여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 중 0-24세 장애아동·청소년 전체 및 장애유형별 비율	장애인현황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9. 비만율	체질량지수(BMI)를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95백분위수 이상인 경우의 분율	학생건강검사표본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10. 주관적 건강수준	아동·청소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를 매우 양호 또는 양호한 편으로 대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11. 수면시간	지난주 주중(월~금) 수면시간의 비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12. 아동·청소년 연간 입원율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분율	국민건강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지표명	지표설명	출처	타당도 평가
2-13. 수유행태별 비율	자녀가 영유아일 때, 모유만 수유한 경우, 인공유(분유)만 수유한 경우, 모유와 인공유(분유)를 같이 수유한 경우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14. 영유아 건강 검진율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인원 대비 수검인원 비율	건강검진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15. 예방접종률	해당연령에서 모두 접종해야 하는 백신에 대해 모두 접종한 비율	전국예방접종률현황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16. 치과검진율	아동 · 청소년의 치과 검진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17. 아동 · 청소년 영양결핍률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아동 · 청소년의 비율	국민건강영양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18. 아침식사 결식률	아침식사를 결식한 아동 · 청소년의 비율	국민건강영양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19. 규칙적 운동 실천율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2-20) 추천지표

이 밖에 아동 · 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추천해주시고자 하는 지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학습·역량

학습・발달・역량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잘 받으며 성장・발달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면서 자라나고 있는지와 관련한 영역입니다. 다음의 지표들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학습・역량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ROG. '표'로 제시]

지표명	지표설명	출처	타당도 평가
3-1. 부모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둔 가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까지 측정한 응답의 평균값	보육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3-2. 상급학교 진학률	(상급학교 진학률) 교육단계별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 비율	교육통계, 진로교육현황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3-3. 학업중단률	학교급별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비율	교육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3-4. 사교육 참여율	전체 학생 중 유료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3-5. 학습시간	학생들의 하루 24시간 중 '정규수업' 시간과 '정규수업 외 학습(학교활동 외 학습)' 시간을 더한 값	생활시간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3-6. 사교육 참여 시간	전체 학생 중 유료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3-7. 책읽어주기 빈도	0-5세 아동의 주양육자가 아동에게 책 읽어주기를 실천하는 빈도(1-4점) 평균점수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3-8.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교육방법 및 내용 만족도, 교사 만족도 등)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 교육방법 및 내용,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회조사, 사회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3-9. 학교 시설 및 주변환경 만족도	만 13-24세 학생 중에서 본인 학교의 학교시설 및 설비, 주변환경과 관련하여 각각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만족한다' 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사회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3-10.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지표명	지표설명	출처	타당도 평가
3-11.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	'현재 학업 성적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한 주관적 평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3-12. 아동 언어발달 정도	0-5세 아동의 전반적 언어발달 정도(1-4점) 평균점수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3-13. 자기효능감	9-17세 아동의 자존감(1-4점)과 유능감(1-4점) 평균점수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3-14) 추천지표

이 밖에 아동·청소년의 학습·역량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추천해주시고자 하는 지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여가·활동·참여

여가・활동・참여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기며 휴식하고, 사회・경제・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영역입니다. 다음의 지표들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참여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ROG. '표'로 제시]

지표명	지표설명	출처	타당도 평가
4-1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동 · 청소년의 비율	시간 압력은 시간이 얼마나 부족하거나 여유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에 대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또는 '가끔 부족하다고 느낌'로 응답한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4-2. 여가시간 사용 정도	여가시간은 평일 여가시간의 양을 1시간 단위로 응답한 각 시간대별 응답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4-3.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하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약간 만족~매우 만족' 또는 '보통~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사회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4-4. 매체 이용 경험	아동 · 청소년의 매체 이용 비율은 12가지 매체에 대한 각각의 이용률, 이용 빈도, 해당 매체 이용 시 주요 이용 기기 비율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4-5.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	방과 후 활동은 평일 방과 후 저녁 식사 이전에 주로 하는 활동으로 13가지 유형 중 주로 하는 활동을 2가지씩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된 각 유형별 응답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4-6. 방송매체 따른 TV 프로그램 시청시기	방송매체(TV, 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TV 프로그램 시청을 시작한 시작 시기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4-7. 일하는 청소년 비율(학교 유형별)	일하는 청소년은 조사 당시 또는 조사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4-8. 기부 참여율	기부 참여율은 지난 1년간 재능기부나 현금 기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지표명	지표설명	출처	타당도 평가
4-9. 후기청소년(청년) 투표 참여율	후기청소년(청년)의 투표율은 19세에서 24세까지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투표 참여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4-10. 자원봉사 참여율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4-11. 동아리에 참여하는 아동 · 청소년의 비율	동아리 참여율은 '청소년 단체, 동아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기타 단체나 동아리' 중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4-12.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비율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향후 투표 참여 의지에 대한 응답 비율(국제비교 자료)	ICCS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4-13.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아동 · 청소년의 비율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응답으로 0-10점의 11점 척도 중 7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4-14. 정치 · 사회문제에 대한 친구 · 가족과의 토론비율	'부모님과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하여 대화(선거 등) 하는 빈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4-15. 우리 사회가 아동 ·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나의 인권이 가정,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전체에서 각각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4-16) 추천지표

이 밖에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참여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추천해주시고자 하는 지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 안전·행동

안전・행동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영역입니다. 다음의 지표들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안전・행동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ROG. '표'로 제시]

지표명	지표설명	출처	타당도 평가
5-1. 가정 · 학교 내 체벌 경험 비율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을 받았는지에 대해 체벌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5-2. 아동학대 발생 건수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5-3. 방과후 아동방치 정도	0-12세 아동 중 하루에 방과 후 30분 이상 집에서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혹은 형제 · 자매끼리만 있었던 아동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5-4.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동 · 청소년의 비율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등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5-5. 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 및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5-6. 아동 · 청소년 범죄 피해 및 사망률	전체 유형의 범죄의 20세 이하 피해자 수	경찰청 범죄분석통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5-7.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	7가지 유형에 대해 청소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5-8. 흡연 경험 비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5-9. 음주 경험 비율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5-10. 약물 사용 경험 비율	최근 1년 간 환각성 약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지표명	지표설명	출처	타당도 평가
5-11. 10대 여자청소년의 임신, 낙태 경험 비율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청소년과 위기청소년(가출, 범죄, 비행청소년) 임신, 낙태 비율(10대 여자청소년 대상)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5-12. 10대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율	평생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5-13. 소년 천명당 소년범죄발생건수	소년인구 천명당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9세 미만인 자에 의해 발생된 범죄 발생건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경찰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5-14.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아동·청소년 비율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의 3가지 하위영역을 10개 문항으로 측정한 값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5-15. 유해매체를 이용한 적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최근 1년 간 4가지 유형의 유해 매체(성인영상물, 성인 간행물 등)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5-16.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	지난 1년간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5-17) 추천지표

이 밖에 아동·청소년의 안전·행동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추천해주시고자 하는 지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

관계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가정, 학교, 동네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와 관련한 영역입니다. 다음의 지표들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관계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ROG. '표'로 제시]

지표명	지표설명	출처	타당도 평가
6-1. 부모와의 애착 정도	0-5세 아동과 부모의 애착 정도(1-4점)의 평균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6-2.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정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4점 척도 평균값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6-3. 가족에서의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가정 내 네 가지 의사결정 상황(집 안의 중요한 문제, 진학할 상급학교 등)에 있어 자신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6-4.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최근 1년간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저녁식사를 함께 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6-5. 친구와 잘 어울리는 정도	3-8세 아동 중 친구와 잘 어울리는 아동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6-6. 친구와 노는 횟수별 비율	3-8세 아동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횟수에 대한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6-7.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누구와 상담하는지 물었을 때, 상담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6-8.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비율	친구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9-17세)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6-9. 친구 없는 아동 비율	3-8세 아동 중 친구가 없는 아동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6-10.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	외롭고,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20-29세)	사회통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지표명	지표설명	출처	타당도 평가
6-11. 사회신뢰도가 높은 아동·청소년의 비율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11점 척도 중 7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6-12) 추천지표

이 밖에 아동·청소년의 관계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추천해주시고자 하는 지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7) 주관적 웰빙(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

입니다. 다음의 지표들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ROG. '표'로 제시]

지표명	지표설명	출처	타당도 평가
7-1. 전반적 삶의 만족도	단일문항으로 최상의 삶(10점)과 최악의 삶(0점) 중에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7-2.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별 만족도	아동·청소년 삶의 중요한 영역들(건강, 이루어온 것들, 개인적 관계, 안전, 생활수준, 미래 안정성)에 대한 0-10점의 11점 척도의 평균값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7-3.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한 평균값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7-4. 긍정적 정서(행복감)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점)'에서 '매우 행복했다(10점)'로 응답한 값의 평균값	아동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7-5. 부정적 정서(근심, 걱정, 우울)	어제를 기준시점으로 부정적 정서('근심, 걱정', '우울')를 얼마나 경험했는지에 대한 평균값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7-6.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한 평균값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 보통(4점)— 매우 타당함(7점)

7-17) 추천지표

이 밖에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웰빙(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추천해주시고자 하는 지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D.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변화 및 측정지표

1.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은 종합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2————3————4————5————6————7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보통 매우 영향을 미쳤음

2. 본인의 전문 분야에 있어,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아동·청소년의 삶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반영하는데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팬데믹 상황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혹은 팬데믹 이후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중요해질 지표 등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A. 응답자 현황

A1. 응답자 성명		A2. 소속기관		A3. 부서(학과)명	
		A4. 휴대폰 번호			

본 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으로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리서치 협력사인 ㈜글로벌리서치에 제공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아래 '동의함'을 선택해주십시오. '동의'를 해주셔야만 답례품 지급이 가능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고객정보 활용 업체: ㈜글로벌리서치
◎ 고객정보 활용 업체 주소: 서초구 반포대로 45 명정빌딩 2-4층
◎ 고객정보 활용 담당자: 김주원(02-3456-1734)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삶의 질 지표의 타당성 확보 방안*

* 이 원고는 김병수 연구원(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과 유민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이 내용은 지표체계를 보완하고 지표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에 대한 실무적인 매뉴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후속연구자들이 지표검증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추가하였다.

제1절 개요

1. 아동·청소년 지표의 타당성 확보의 필요성

□ 지표체계의 타당성

○ 지표체계 구성에서의 문제

- UNICEF, OECD를 중심으로 한 서구의 연구들은 과거 아동지표가 부정적, 객관적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에 대해 비판하고, 긍정적, 주관적 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삶의 질 지표는 국제적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표가 한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지표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 최근의 아동·청소년 지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

* EU, OECD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설정한 정책목표나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에도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지표통계의 타당성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는 다양한 통계 출처를 가지고 있어 자료에 대한 검수과정이 필수적이다.

- 행정자료나 조사자료에 따라 데이터의 특성이 다를 수 있어 데이터 생산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국가승인통계에 등록된 지표명과 세부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지표가 의도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지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별도의 검수 과정을 통해 지표생산과정, 지표보고상태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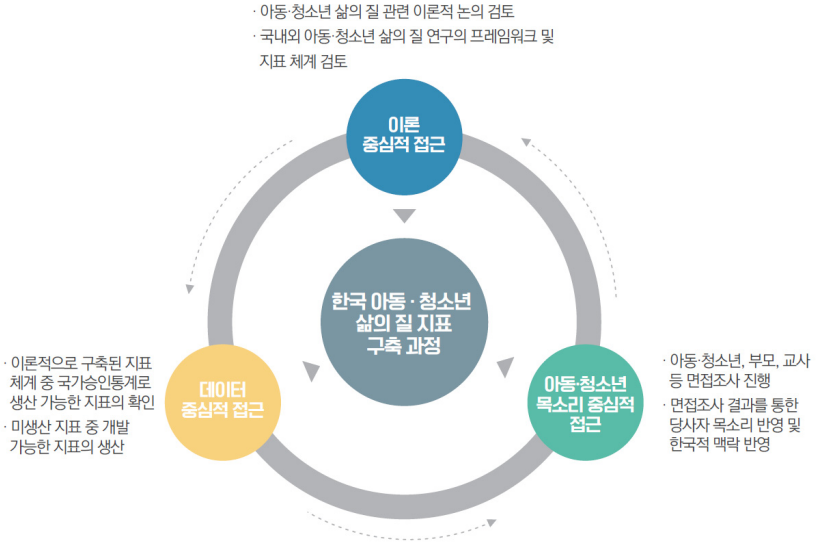
제2절 타당성 확보 방법

1. 개요

□ 지표체계의 타당성 확보 전략

○ 1차 연구에서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론 중심 접근, 데이터 중심 접근, 아동·청소년의 목소리 접근을 진행하였다. 세 가지 접근법은 순차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특성이 있다.

○ 다양한 접근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의 수정이 일어나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전문가 자문, 지표검토위원회 등).



*출처: 유민상 외(2019). p.14

[부록-그림 1]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과정

□ 지표통계의 타당성 확보 전략

○ 지표통계의 수집, 보고서 작성 등과 별도로 지표검수 팀을 구성하여 지표정보의 검토, 메타데이터의 확인, 지표수치의 확인 등을 시행하였다,

○ 이와 동시에 원데이터(raw data)의 원자료 분석이 필요할 경우 통계청 실무자를 통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분석에 대한 통계청 실무자의 오리엔테이션 및 검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2. 과정

□ 이 연구의 지표체계 및 지표통계 타당화 과정은 전문가 자문, 지표검토위원회, 데이터 검수팀 운영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 전문가 자문

○ 삶의 질(well-being)은 인간 중심의 접근으로 대상자에 대한 정보, 대상자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각 세부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거치고 있다.

- 예를 들어, 건강 영역의 경우 영유아 건강, 청소년 건강, 정신건강, 건강행동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자문을 구하였다.
- 현재까지 건강, 학습, 주거, 가구의 물질적 상황, 가족관계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 지표검토위원회 (2019-2020)

○ 삶의 질 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지표산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에서는 2019년, 2020년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 학습·역량, 안전·행동,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여가·활동·참여, 관계, 주관적 웰빙 등의 영역의 지표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2019년 연구에서는 2회의 지표검토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1회의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 지표 검수

○ 이 연구는 별도의 지표검수 팀을 구성하여 지표체계, 지표구성, 지표 산출 내역 등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였다.

- 지표검수 팀은 추후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데이터의 검수 및 축적과 관련된 업무를 함께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운영하였다.
- 연구진은 지표 리스트에서 축적된 자료를 메타데이터 형태로 지표검수 팀에게 제출하였다. 지표검수 팀은 지표의 타당성, 지표명의 타당성, 지표통계의 정확성 등을 검수하여 연구진에게 수정을 권고하였다.
- 지표검수 팀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운영되고 있다.

제3절 데이터 검수과정

1. 목적

□ 지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표 검수를 시행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는 다수의 연구진이 다양한 통계 출처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방대한 지표를 작성하므로 작성된 지표에 대한 검수가 요구된다.

- 지표 검증과정의 신뢰도 항상을 위해 지표 작성을 담당하는 연구진과 지표검수팀을 구분하였고, 지표검수자가 연구진의 지표의 생산과정을 재현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비교함으로써 연구진과 검수팀의 작업결과를 교차로 확인하는 교차검증을 시행하였다.

○ 지표 검수작업을 통해 지표 작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지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 데이터 처리과정에서의 오류, 지표 산출과정에서의 오류, 기초자료가 변경되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지표의 품질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수작업이 필요하다.

2. 기준 및 절차

□ 지표검수의 기준

○ 지표정보의 검토

- 지표의 명칭이 작성된 지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소개하는지 검토하였다.
- 지표의 명칭이 지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안적인 지표명을 연구진에게 제안하였다.

* 검수팀에서 지표의 명칭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표의 통일성을 기했다.

○ 메타데이터의 확인

- 지표 작성에 활용한 원자료에 대한 정보를 각 지표별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여 관리하였다.
- 각 지표별로 구축, 관리하는 메타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지표일반: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영역, 지표정의, 지표소관, 최종업데이트시점 등
  * 지표통계: 통계표명, 통계출처, 분석대상, 측정방법, 산출식, 통계치, 지역범위, 산출주기, 구축연도 등
- 기록된 메타데이터가 원자료 출처에서 제시하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 지표에 제시된 원자료 출처에 접속하거나, 해당 자료를 열람하여 메타데이터에 기록된 정보를 확인하였다.

○ 지표 수치의 확인

- 각 지표의 산출에 활용된 통계 자료는 검수팀이 별도로 확보하여 수치의 일치여부를 1:1로 확인하였다.
  * 지표에 제시된 출처에 접속하거나 해당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모든 통계자료를 직접 확보하였다.
  * 연구진이 활용한 통계자료와 검수팀이 확보한 통계자료의 수치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 연구진이 산출한 지표의 경우, 검수팀이 별도로 산출하여 수치를 확인하였다.

  * 연구진이 제시한 지표의 산출방식에 따라 검수팀이 별도로 지표를 산출하였다.
  * 연구진이 산출한 수치와 검수팀이 산출한 수치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 지표검수의 절차

○ 지표검수는 작성된 지표정보의 검토, 메타데이터의 확인, 지표수치의 확인(검수) 순으로 진행하였다.

○ 지표정보 검토 및 메타데이터 확인

- 연구진이 작성한 지표가 검수팀으로 종합, 전달되면 사회조사 전문가가 검토하였다.
- 지표 정보의 검토는 지표의 제목과 양식, 범례 및 출처가 지표가 의도한 특성을 잘 반영하는지 확인하였다.
  * 지표 정보의 검토 결과, 수정이 필요한 경우 대안적인 표현을 연구진에게 제안하였다.
- 메타데이터 확인은 작성된 지표에 기재된 메타데이터 정보에 해당 지표의 특성과 지표 작성에 활용된 원자료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 필요한 경우 메타데이터 정보를 직접 수정하거나, 연구진에게 확인을 요청하였다.

○ 지표수치 확인

- 지표정보 검토 및 메타데이터 확인이 완료되면, 각 지표의 통계치에 대한 검수를 시행하였다.
- 지표 수치검수는 지표의 재현을 기본으로 하여, 지표의 출처에서 제시한 원자료를 별도로 확보하여 산출방식에 따라 재산출하였다.

* 원자료는 KOSIS 등의 통계포털에서 다운로드한 자료, 통계편람 등의 인쇄물 전자자료(hwp, pdf, xls 문서파일)에서 추출한 자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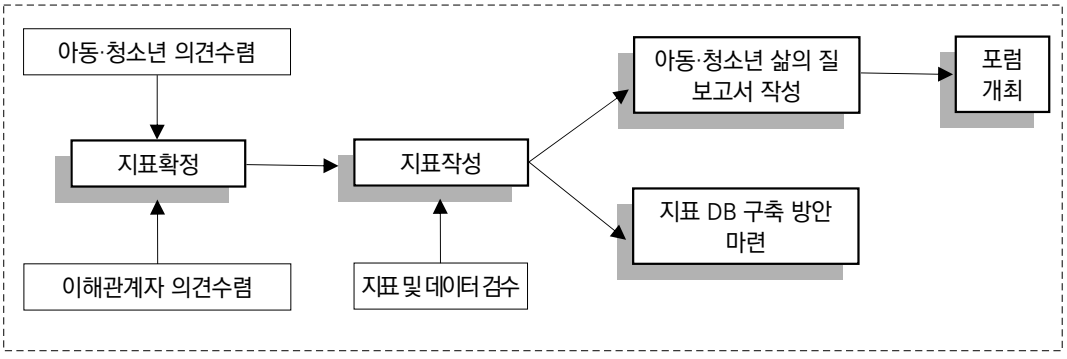
- 연구진이 산출한 지표와 검수팀에서 산출한 지표의 모든 수치를 검수, 대조하였다.

* 엑셀 함수를 활용하여 수치의 일치여부를 1:1로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연구진에게 확인 및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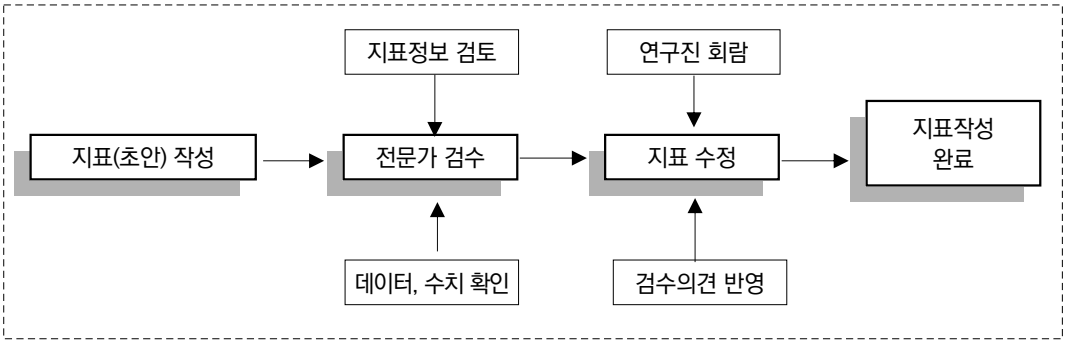
- 모든 검수 과정은 검수 단계별로 작업과정을 저장하여 보관하고, 검수 완료 후 지표를 제작한 연구진에게 회람함으로써 지표 검수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지표검수의 절차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진이 작성한 지표(초안)가 전달되면 지표의 정보 검토와 메타데이터 확인을 우선 시행하였다.
- 이후, 지표 생산과정을 재현하여 수치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검수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연구진에게 전달, 공람하여, 검수의견이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그림 2] 전체 연구과정의 체계도



[부록-그림 2] 검수 과정의 체계도

3. 주요 내용

□ 아동 삶의 질 지표 검수결과

○ 아동 삶의 질 지표 검수내역을 지표 영역별로 정리하여 아래 〈표 1〉부터 〈표 18〉까지 제시하였다.

○ 상당수 지표는 KOSIS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엑셀 파일형태로 통계표를 다운로드하여 검수작업에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였으나, 일부 지표는 문서 파일(한글, PDF) 형태로 공개되어 있어 수치검수에 앞서 입력 작업을 진행하였다.

- KOSIS에서 제공하는 통계(엑셀 파일)를 별도의 산출/계산 과정 없이 제시하는 지표의 경우에는 지표 작성 및 편집과정의 오류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 제공된 통계표를 바탕으로 산출/계산하거나, 복수의 통계표를 결합하여 산출/작성된 지표의 경우에는 지표를 재산출하여 작성된 지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각 지표별 검수내역과 세부사항은 표 하단에 기술하였다.

1) 사회적 배경 지표

(1) 인구

〈부록-표 1〉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인구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 주기	연령 범위	검수 출처	비고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	장래인구추계	5년	0-24세	KOSIS	일정 주기로 업데이트되므로 수치 확인 필요
출생아수와 출생성비	인구동향조사	1년	-	KOSIS	
혼인외 출생아 비율	인구동향조사	1년	-	KOSIS	
모의 출산연령	인구동향조사	1년	-	KOSIS	
미성년 자녀 부모 이혼 비율	인구동향조사	1년	0-19세	KOSIS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	인구동향조사	1년	0-24세	KOSIS	
맞벌이가구 자녀 비율	지역별고용조사	1년	0-17세	e-나라지표	

○ 아동·청소년 인구 추계: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총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산출하므로, 5년 주기

로 업데이트된다. 2017년도 수치는 인구총조사 수치이지만, 2018년도 이후는 추계된 수치이므로 실제 수치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출생아수와 출생성비: 인구동향조사에 매년도 출생아수와 출생성비 항목이 있다.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통계를 참조할 수 있다.
- 혼인외 출생아 비율: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 검수하였다.
- 모의 출산연령: KOSIS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미성년자녀 부모 이혼비율: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 검수하였다.
-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 개별 자료를 활용해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2) 사회정책

〈부록-표 2〉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사회정책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비율	보육통계	1년	0-취학전	보육통계	
누리과정 지원율 및 예산	보육통계	1년	3-5세	보육통계	
보육료 지원 아동비율	보육통계	1년	0-5세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취원율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교육통계	1년	0-5세 /3-5세	교육통계분석자료집KOSIS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1년	0-24세	KOSIS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건강보험통계	1년	0-18세	KOSIS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육통계	1년	유초중고	교육통계주요지표, 간추린 교육통계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보호대상 아동현황보고	1년	0-17세	KOSIS	
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보건복지 통계연보	1년	0-18세	보건복지통계연보	
아동 입양률	가정위탁국내입양 소년소녀가정현황	1년	0-19세	KOSIS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특수교육통계	1년	3-18세	-	KEDI 내부자료

지표명	출처	생산 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유치원 교직원 1인당 아동 수	교육통계	1년	3-5세	-	KEDI 내부자료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교육기본통계	1년	0-5세	KOSIS	
면적당 학교 수	교육통계	1년	초중고	교육통계, 지적통계	
대안학교 비율	교육통계	1년	초중고	-	KEDI 내부자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1년	0-18세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비율: 보육통계에서 제공하는 통계표를 활용해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누리과정 지원율 및 예산: e-나라지표 웹사이트에 탑재된 자료(원출처는 보육통계)와 비교하여 검수하였다.

○ 보육료 지원 아동비율: 보육료수급 아동 수는 1~6세 기준인 반면, 인구추계는 0~5세를 기준으로 사용하므로 산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취원율: 어린이집 이용률은 개별 자료를 활용해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유치원 취원율 중 전체 항목은 교육통계분석자료집 PDF 자료를 열람하여 검수하였으나, 연령별 취원율은 KEDI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산출된 관계로 검수에 제한이 있었다.

○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개별 자료를 활용해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개별 자료를 활용해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는 KEDI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산출된 관계로,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재산출 방식을 활용한 검수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과 간추린 교육통계 각 연도 PDF 자료를 열람하여 검수하였으나 인문계고, 전문계고(2001~2005) 수치는 확인할 수 없었다.

○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개별 자료를 활용해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비율) 지표의 경우, 산식에 비율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아동 입양률: 입양아동 수 통계를 활용해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KEDI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산출된 관계로,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재산출 방식을 활용한 검수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 유치원 교직원 1인당 아동 수: KEDI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산출된 관계로,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재산출 방식을 활용한 검수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를 활용해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면적당 학교 수: 교육통계에서 제공하는 통계표를 활용해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대안학교 비율: KEDI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산출된 관계로,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재산출 방식을 활용한 검수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를 활용해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2)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1) 물질적 수준 및 주거환경

▌빈곤 및 생활수준

〈부록-표 3〉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빈곤 및 생활수준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물질적 결핍지수	아동 종합실태조사	5년	0-17세	KOSIS	
아동·청소년의 가정경제 어려움에 대한 걱정	아동 종합실태조사	5년	9-17세	아동 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	가계금융	1년	0-24세	-	가계금융

지표명	출처	생산 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복지조사				복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산출하였음
아동·청소년의 빈곤갭	가계금융 복지조사	1년	0-24세	-	

○ 물질적 결핍지수: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아동·청소년의 가정경제 어려움에 대한 걱정: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직접 산출하였다.

○ 아동·청소년의 빈곤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직접 산출하였다.

▌주거환경

〈부록-표 4〉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주거환경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 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6
거주지역 만족도	아동 종합실태조사	5	0-17세	아동 종합실태조사	
거주지역 편의성	아동 종합실태조사	5	0-17세	KOSIS, 아동종합실태조사	
학생 전출입비	교육통계	1년	초1-고3	-	KEDI 내부자료
어린이놀이시설 수	놀이시설통계	단년	0-12세	놀이시설통계	연중 상시 변동되는 행정자료
미세먼지농도 및 대기질 만족도					
①미세먼지농도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1년	-	국가지표체계	
②대기질 만족도	환경부, 사회조사	2년	13-24세	-	통계청 MDIS 분석

○ 거주지역 만족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를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거주지역 편의성: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서로 유사한 복수의 통계표를 열람, 발췌하므로 혼선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학생 전출입비: KEDI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산출된 관계로,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

어서 재산출 방식을 활용한 검수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 어린이놀이시설 수: 연중 상시업데이트 되는 행정자료인 관계로 매년 일정 시기를 기준으로 기초자료가 발표되는 다른 지표와 달리 기초자료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 미세먼지농도 및 대기질 만족도는 지표를 구성하는 하위지표별 원자료 출처가 상이하여 검수 내역을 ①과 ②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 ①미세먼지농도: 대기환경연보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②대기질 만족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가공된 관계로, 재산출 방식을 활용한 검수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아동·청소년 비율은 신규로 포함된 가공통계로 논리식에 대한 검토만 완료한 후, 원자료를 재분석하는 검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고서에 싣기로 하였다.

(2) 건강

▌정신건강

〈부록-표 5〉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정신건강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1년	초4-고3	KOSIS	
우울한 감정 경험	아동 종합실태조사	5년	9-17세	KOSIS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1년	중1-고3	KOSIS	
아동·청소년 자살률	사망원인통계	1년	0-24세	KOSIS	

○ 스트레스 정도와 원인: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를 활용해 비율을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우울한 감정 경험: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를 활용해 비율을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아동·청소년 자살률: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활용해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신체건강

〈부록-표 6〉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신체건강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 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조산아율	인구동향조사	1년	0세	KOSIS	
저체중 출생아율	인구동향조사	1년	0세	KOSIS	
장애아동·청소년 유형별 비율	장애인현황	1년	0-24세	KOSIS	
비만율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	1년	초1-고3	교육부 보도자료	
주관적 건강수준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1년	중1-고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수면시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1년	중1-고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아동·청소년 연간 입원율	국민건강통계	1년	1-18세	국민 건강통계	

○ 조산아율 : 조산아 수 통계를 활용해 비율을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저체중 출생아율: 출생시 체중별 출생아 수 통계를 활용해 비율을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장애아동·청소년 유형별 비율: 장애유형/연령별 등록 장애인 수 통계를 활용해 비율을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비만율: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 보도자료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주관적 건강수준: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수면시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여부를 점검하였다.

○ 아동·청소년 연간 입원율: 국민건강통계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건강행동

〈부록-표 7〉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건강행동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 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수유행태별 비율	아동 종합실태조사	5년	0-17세	KOSIS, 아동종합실태조사	
영유아 건강검진율 및 정밀평가필요 영유아비율	건강검진통계	1년	4-71개월	건강검진통계, KOSIS	
예방접종률	전국 예방접종률현황	1년	12-72개월	KOSIS	
치과검진율	아동종합 실태조사	5년	0-17세	KOSIS	
아동·청소년 영양결핍률	국민건강 영양조사	1년	1-29세	KOSIS	
아침식사 결식률	국민건강 영양조사	1년	1-29세	국민건강영양조사	
규칙적 운동 실천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1년	중1-고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 수유행태별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영유아 건강검진율 및 정밀평가필요 영유아비율: 영유아 건강검진율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 통계를 활용해 비율을 산출하였고, 정밀평가필요 영유아비율은 영유아 건강검진 종합판정현황 통계를 활용해 비율을 산출한 지표이므로, 각 지표를 원자료를 활용해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예방접종률: 전국예방접종률현황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치과검진율: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아동·청소년 영양결핍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아침식사 결식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규칙적 운동 실천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서로 유사한 복수의 통계

표를 열람, 발췌하므로 혼선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학습·역량

▌학습

〈부록-표 8〉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학습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 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부모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보육실태조사	3년	0-5세	-	KEDI 내부자료
상급학교 진학률	교육통계/ 진로교육 현황조사	1년	초중고	/ KOSIS	
(참고지표: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					
학업중단율	교육통계	1년	초중고	교육 기본통계	
사교육 참여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1년	초중고	KOSIS	
학습시간	생활시간조사		초중고대	-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산출
책읽어주기 빈도	아동종합 실태조사	5년	0-5세	KOSIS	
학교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3년	9-24세	KOSIS	
교육방법 및 내용 만족도	사회조사	2년	13-24세	-	
교사 만족도	사회조사	2년	13-24세	KOSIS	
학교 시설 및 주변환경 만족도	사회조사	2년	13-24세	KOSIS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1년	초4-고3	KOSIS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3년	9-24세	KOSIS	

○ 부모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KEDI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산출된 관계로,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재산출 방식을 활용한 검수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 상급학교 진학률 : KEDI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산출된 관계로,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재산출 방식을 활용한 검수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 (참고지표)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 고교생 졸업 후 진로계획 통계를 활용해 비율을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학업중단율: 교육기본통계에서 학업중단율 지표와 수치를 비교하여 검수하였다.

○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학습시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직접 산출한 자료다.

○ 책읽어주기 빈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교사 만족도: 사회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를 활용해 비율을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역량

〈부록-표 9〉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역량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 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아동 언어발달 정도	아동 종합실태조사	5년	0-5세	KOSIS	
자기효능감	아동 종합실태조사	5년	9-17세	KOSIS	

○ 아동 언어발달 정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자기효능감: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4) 여가·활동·참여

▌여가 및 활동

〈부록-표 10〉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여가 및 활동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 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아동 종합실태조사	5년	0-17세	KOSIS	
여가시간 사용 정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1년	초4~고3	KOSIS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사회조사	2년	13-29세	KOSIS	
매체 이용 경험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년	초4-고3	KOSIS	
(참고지표) 방송매체에 따른 TV 프로그램 시청시기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1년	9-24세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3년	1-10세	KOSIS	

○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여가시간 사용 정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를 인용(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매체 이용 경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통계표를 인용(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참고지표) 방송매체 따른 TV 프로그램 시청시기: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서로 유사한 복수의 통계표를 열람, 발췌하므로 혼선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사회경제정치 참여

〈부록-표 11〉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사회경제정치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 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일하는 청소년 비율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3년	9-24세	KOSIS	
기부 참여율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3년	9-24세	KOSIS	
후기청소년(청년) 투표 참여율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불규칙	18-29세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동아리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3년	9-24세	KOSIS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비율	ICCS	불규칙	초5-고3	ICCS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3년	9-24세	KOSIS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친구·가족과의 토론비율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3년	9-24세	KOSIS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1년	초4~고3	KOSIS	

○ 일하는 청소년 비율 :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기부 참여율: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통계표를 인용(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후기청소년(청년) 투표 참여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분석 자료 및 통계집에서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했다. 통계표 열람(발췌)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동아리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통계표를 인용(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비율: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V 보고서에서 제시된 통계표를 인용(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친구·가족과의 토론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5) 안전·행동

▌안전

〈부록-표 12〉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안전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 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가정·학교 내 체벌 경험 비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1년	초4~고3	KOSIS	
아동학대 발생 건수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1년	0-17세	KOSIS	
방과 후 아동방치 정도	아동 종합실태조사	5년	0-12세	KOSIS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1년	초4~고3	KOSIS	
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1년	취학전아동-중학생	-	
아동·청소년 전체 범죄 피해 및 살인 범죄 피해자 수	경찰청 범죄분석통계	1년	6 -30세	KOSIS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년	초4-고3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가정·학교 내 체벌 경험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아동학대 발생 건수: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다년도 자료를 종합하여 생산한 지표이므로 자료를 다시 종합하여 검수하였다.

○ 방과 후 아동방치 정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교통사고분석시스템/교통사고통계분석의 통계표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아동·청소년 전체 범죄 피해 및 살인 범죄 피해자 수: 범죄분석통계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율: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통계표를 인용(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위험행동

〈부록-표 13〉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위험행동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흡연 경험 비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1년	중1-고3	KOSIS	
음주 경험 비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1년	중1-고3	KOSIS	
약물 사용 경험 비율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년	초4-고3	KOSIS	
10대 여자청소년의 임신, 낙태 경험 비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1년	중1-고3	KOSIS	
10대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1년	중1-고3	KOSIS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경찰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	1년	10-18세	KOSIS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1년	초4-고3	KOSIS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아동·청소년 비율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1년	3-19세	KOSIS	
유해매체를 이용한 적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년	초4-고3	KOSIS	

○ 흡연 경험 비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제시된 통계표를 인용(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음주 경험 비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제시된 통계표를 인용(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약물 사용 경험 비율: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통계표를 인용(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10대 여자청소년의 임신, 낙태 경험 비율: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통계표를 인용(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10대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통계표를 인용(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발생건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통계표를 인용(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아동·청소년 비율: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의 통계표를 인용(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유해매체를 이용한 적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서로 유사한 복수의 통계표를 열람, 발췌하므로 혼선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관계

▌가족관계

〈부록-표 14〉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가족관계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 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부모와의 애착 정도	아동 종합실태조사	5년	0-5세	KOSIS	
(참고지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전국보육실태조사	3년	0-6세	전국보육 실태조사	
가족관계 만족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3년	9-24세	KOSIS	
가족에서의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	1년	초4~고3	KOSIS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아동 종합실태조사	5년	0-17세	KOSIS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3년	9-24세	KOSIS	

○ 부모와의 애착 정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통계표를 인용(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참고지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보고의 통계표를 인용하여 제시하는 참고자료이므로, 검수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보고서에 싣기로 하였다.

○ 가족관계 만족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통계표를 인용(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가족에서의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통계표를 인용(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통계표를 인용(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또래관계 및 일반관계

〈부록-표 15〉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또래관계 및 일반관계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 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친구와 잘 어울리는 정도	아동 종합실태조사	5년	3-8세	KOSIS	
친구와 노는 횟수별 비율	아동 종합실태조사	5년	0-8세	KOSIS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사회조사	2년	13-24세	KOSIS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비율	아동 종합실태조사	5년	9-17세	KOSIS	
친구없는 아동 비율	아동 종합실태조사	5년	3-8세	KOSIS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	사회통합 실태조사	1년	19-29세	KOSIS	
사회신뢰도가 높은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3년	9-24세	KOSIS	

○ 친구와 잘 어울리는 정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친구와 노는 횟수별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문제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 사회조사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친구없는 아동 비율: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 사회신뢰도가 높은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7)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부록-표 16〉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삶의 만족도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 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전반적 삶의 만족도	아동 종합실태조사	5년	0-17세	KOSIS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별 만족도	아동 종합실태조사	5년	0-17세	KOSIS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3년	9-24세	KOSIS	

○ 전반적 삶의 만족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별 만족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긍정/부정 감정

〈부록-표 17〉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긍정/부정 감정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 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긍정적 정서 (행복감)	아동 종합실태조사	5년	0-17세	KOSIS	
부정적 정서 (근심, 걱정, 우울)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3년	9-24세	KOSIS	

○ 긍정적 정서 (행복감):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부정적 정서 (근심, 걱정, 우울):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표의 일부 항목을 선별(편집)하여 사용하므로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삶의 가치와 의미

〈부록-표 18〉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검수(삶의 가치와 의미 영역)

지표명	출처	생산 주기	연령범위	검수출처	비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3년	9-24세	KOSIS	

○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므로 재산출하여 검수하였다.

4. 발전방안, 개선방안

□ 지표 접근성의 개선

○ 아동·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지표 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다.
  *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사회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교육통계, 보육통계 등
-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관련된 통계가 앞서 언급한 자료 출처들에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존재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검색/활용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 자료 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는 한편, 종합적이고도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종합하여 제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

□ 원자료의 질 향상

○ 현재 생산되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관련 통계 중 사회조사 자료로서의 품질이 낮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설문문항이 적절하지 않거나, 조사간격이 너무 길게 설정되어 있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와 같이 원자료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지표 산출에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원자료의 품질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 검수가 어려운 지표는 별도 관리

○ 검수과정에 필요한 원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표가 있다.

- 연구진이 소속기관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산출하는 지표가 대표적이다.

  * KEDI 자료, 통계청 MDIS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표 등

- 해당 지표들은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산출된 자료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 지표는 공개된 통계표를 통해서는 산출과정을 재현하여, 통계치를 검증하기 어렵다.

○ 해당 지표는 재현 방식의 검수를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표 업데이트 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

○ 2차년도 지표 업데이트 과정에서 지표 업데이트를 담당한 연구진 및 연구기관 간에 지표 업데이트의 방법,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 업데이트가 진행된 방법과 범위를 살펴보면 지표 전체를 새로 작성/산출하는 방식과 함께, 최종년도 자료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최종년도 지표만 업데이트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이전 년도 원자료가 변경되었을 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표의 경우에는 업데이트 시점에 최신년도 자료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최신년도 이전의 과거 년도의 자료가 변경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지표 업데이트 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표를 초기에 작성하는 시점 뿐만 아니라 업데이트 과정에서도 전체 기간의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4절 삶의 질 지표 타당화 방안

1. 지표 체계 타당화 방안

□ 지표 체계의 총괄적 특징과 개별적 특징에 대한 고려

○ 지표 체계는 전체적인 정보와 세부적인 정보를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총괄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헤드라인 지표들을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

  * 이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지표 체계를 타당화하고 헤드라인 지표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세부적인 지표는 현실, 변화, 하위집단 간 차이를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더 풍부한 정보가 있는 지표 정보를 별도로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 개별 지표 타당화 방안

○ 아동·청소년 지표 조사 체계의 통합 고려

- 현재 아동·청소년 지표의 조사체계는 부처별 구분에 의해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못하고 있다.
-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를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향후 도입될 청년종합실태조사(부처미정)과의 통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조사 체계의 지표구성뿐만 아니라 타당한 지표로 조사되고 있는지 큰 틀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과학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전 연구와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3. 검수 체계 타당화 방안

□ 자동 업데이트 기능 구현

○ KOSIS 자료에 기반한 삶의 질 지표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 마련

- KOSIS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되는 지표의 경우,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과제에서 많은 수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산출하고 있는데, 업데이트와 검수작업이 연구진의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기존에 생산된 통계를 종합, 요약하여 아동·청소년의 삶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제공하는 본 지표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단순 작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표작성이 자동화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심층적인 분석, 제언 등의 작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 지표 작성과정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자동 업데이트 기능의 구현 가능성이 높다.

- 개발된 지표 중 상당수는 KOSIS를 통해서 자료를 열람, 다운로드하여 지표를 제작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가 개발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지표의 산출 및 검수방식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 KOSIS에서 공개되는 통계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료들이 이전 년도와 동일한 양식으로 공개되고 있다.
- 자료 수집 및 처리기술의 발달에 따라 매크로, 스크립트를 구성하여 사용할 경우 자료의 종합, 가공, 처리 단계에서 많은 과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

○ 연구진은 지표 산출 및 검수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자동업데이트 방안을 제안하였다.

- 지표 산출과정을 분석하여 자동화 가능한 업무를 파악, 선별한다.
- 자동화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스크립트를 구성하고, 불가능한 업무는 매크로 등의 보완기술을 활용하여 지표작성의 효율을 제고한다.

- 업데이트 대상 지표가 공개되면 기존 양식과 동일한지 확인하여, 동일 양식의 자료일 경우 스크립트를 적용하여 지표를 생산한다
- 지표 검수의 측면에서는, 지표를 반복 생산하여, 생산된 지표 간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표생산과정에서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 임의로 지표와 항목을 선택하여, 수기계산을 시행하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동업데이트 구현을 위한 과제

- 자동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시간 등 자원이 필요하므로, 자동업데이트 기능 개발을 위한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 자동업데이트를 시행할 대상 지표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KOSIS 및 기타 포털을 통해 공개되고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지표를 우선 선정한다.
- 자동업데이트된 지표의 검증방법과 활용 및 공개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 우선, 자동 산출된 지표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다음으로 생산 및 검수를 거친 지표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지표는 현재와 같이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하는 방안과 함께,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주기적 업데이트

○ 출처의 업데이트 시점이 연말에서 연초에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지표의 업데이트 주기를 정해서 지표별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 매년 업데이트 되는 지표가 있고, 격년 혹은 그 이상의 간격으로 업데이트 되는 지표가 있다.
- 지표의 업데이트 간격을 확인하여 각 연도별 업데이트 대상 지표를 선정하고, 업데이트 시점을 파악, 종합하여 (ex, 매년 1월, 3월, 11월 등) 연중 업데이트 시기를 결정한다.
- 각 지표 출처의 해당 년도 자료 업데이트 여부는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최종공개시기를 자동으로 종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체계적 업데이트

○ 여러 기관의 지표가 통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본 연구는 공동연구/합동연구로 진행되는 만큼, 참여기관별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며, 기관별로 사용하는 자료의 출처, 자료의 산출 및 산출자료의 제시 방식

또한 다를 수 있다.

- 지표의 통일성이 요구됨. 지표의 생산과정과 검토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지표 양식의 통일성 : 공통양식을 활용하여 지표 산출, 제작, 편집한다.
  * 지표 정보의 통일성 : 각주, 메타정보 양식을 동일하게 관리한다.
  * 검토과정에서는 지표의 양식과 지표 정보의 통일성을 검토한다. 제목과 양식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표의 통일성을 기대할 수 있다.

4. 기타: 자료 검수 시 유의사항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아래 사항은 지표 검수과정에서 확인한 오류를 중심으로, 지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정리한 것으로, 추후 지표 작성 및 검수과정에서 보다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므로 부록을 통해 별도의 주제로 정리하였다.

- 지표 출처의 오류
  * 지표출처의 오류는 지표 작성 및 업데이트 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 구체적으로는 1)편집과정에서의 오류, 2)KOSIS 통계표의 웹 주소가 변경된 경우를 주로 확인, 수정하였다. 3)각 부처에서 직접 공개하는 자료의 경우,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접속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었다.(ex.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
  * 정부부처 또는 웹사이트가 개편되는 경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 지표 산식의 오류
  * 지표 개편과정에서 지표 산출방식을 변경하였으나 기존의 지표산출방식이 적용된 경우가 있었다.
  * 지표의 산출방식 또는 산출 단위가 변경된 경우, 산식과 결과값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원자료가 변경된 경우
  * 지표 생산에 활용하는 기초지표의 내용과 수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 국내통계의 경우 최신년도 수치를 중심으로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나, 변경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편이다.
  * 반면 국제통계(OECD Stat.) 자료의 경우에는 특정 국가 또는 특정 년도의 수치가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 따라서 국내 지표의 경우에는 최근 수치를 중심으로 우선 검수하고, 해외 지표의 경우 지표에서 표기된 전체 기간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전반적으로 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지표 편집상 오, 탈자 / 누락이 있는 경우
  * 문서 자료의 생성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흔한 오류이나, 지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자료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구보고서 21-20-01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II

발 행 2021년 2월
발 행 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909호
전 화 044) 211-1000
홈 페 이 지 www.nrc.re.kr
I S B N 979-11-5567-439-0

*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II

Developing National Child and Youth Well-being Indicators in South Korea II

비매품/무료
93300
9 791155 674390
ISBN 979-11-5567-439-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